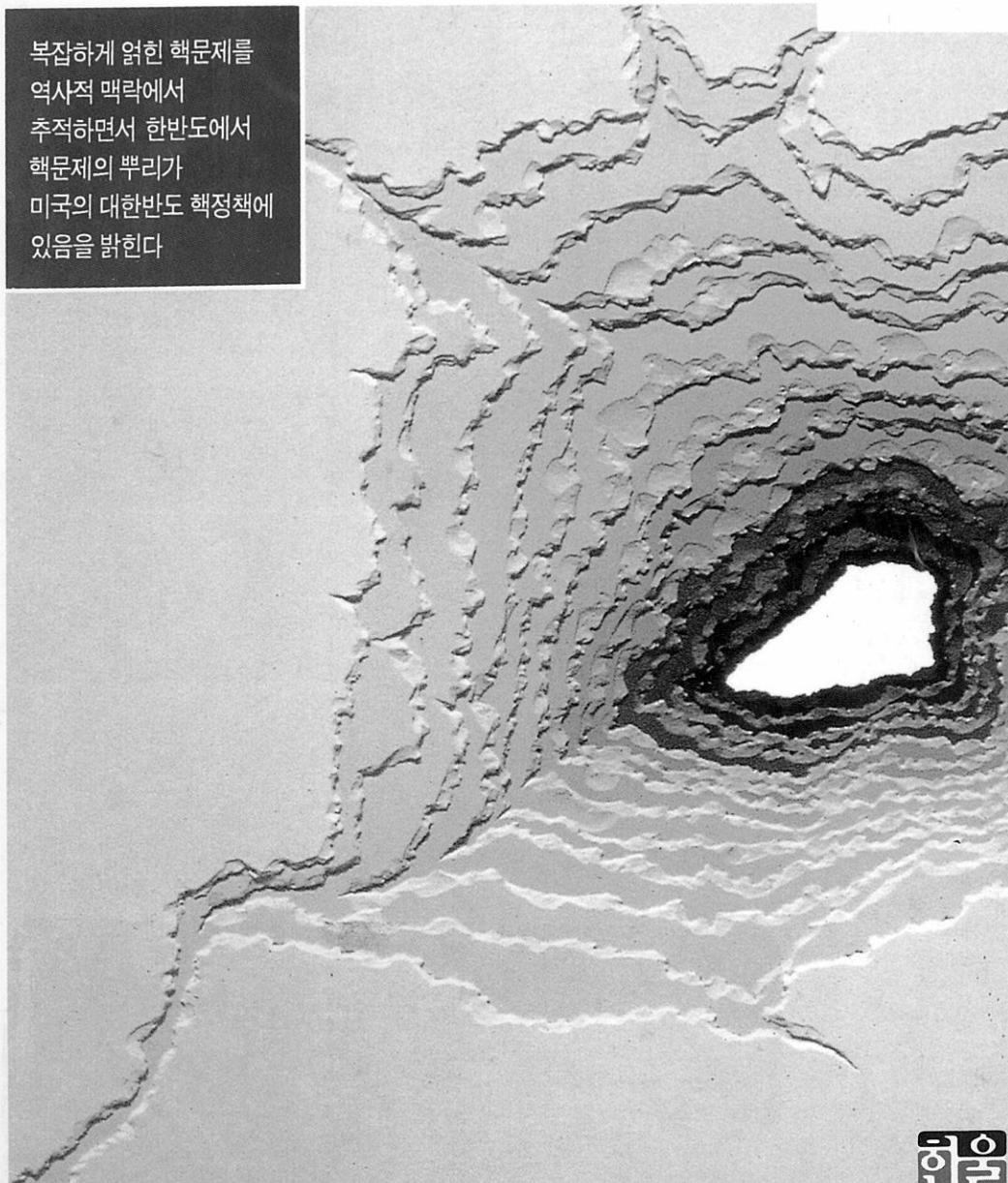


피터 헤이즈/ 고대승·고경은 옮김

미국의 한반도 핵정책의 뿌리와 전개과정

핵 딜레마

복잡하게 얹힌 핵문제를
역사적 맥락에서
추적하면서 한반도에서
핵문제의 뿌리가
미국의 대한반도 핵정책에
있음을 밝힌다



한울

지은이

피터 헤이즈(Peter John Hayes)

호주 멜버른 대학 역사학부 졸업.

버클리 대학 에너지 및 자원 그룹에서 박사학위 취득.

UNEP에서 환경 고문으로, 미국 국제개발기구와

아시아 개발은행의 개발도상국 에너지 고문으로 활약.

동경에 있는 UN 대학의 부교수로 재직,

현재 호주미래위원회의 부회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문제에 관해 폭넓은 저술활동.

공저: *American Lake, Nuclear Peril in the Pacific* 등.

옮긴이

고대승

86년 서울대학교 자연대학 졸업.

91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졸업(석사).

주요논문: *한국의 원자력기구 설립과정과 그 배경* 외.

고경은

88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졸업.

90년 동대학원 졸업.

주요논문: 1970년대 한반도 군비경쟁과 남북한 외.

Nautilus Institute
for Secu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1831 Second Street
Berkeley, California 94710-1902 USA.

한울총서 96

핵 딜레마

미국의 한반도 핵정책의 뿌리와 전개과정

피터 헤이즈 지음
고대승·고경은 옮김

한울
1993

Pacific Powderkeg

American Nuclear Dilemmas in Korea

Peter Hayes

"Authorized translation from the English language edition published b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Copyright © 1991 by Lexington Book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or mechanical,
including photocopying, recording or by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Publisher.

이 책은 Macmillan Publishing Company와 도서출판 한울간에 체결된
한국어판 번역본 협약에 의거하여 번역·출판되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한국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출판사의 서면 승인
없이는 전재나 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책머리에

유럽에서는 제2차 냉전이 종결되었을지 모르지만 한반도에서는 이미 제3차 냉전이 시작되고 있다. 사실 한반도에서는 제1차 냉전도 끝나지 않았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지만, 수백만의 한국인들은 여전히 둘로 갈라진 가족과 민족을 재결합시키기 위해 비무장지대 너머로 밀려갈 수 없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날의 한반도를 사로잡고 있는 치명적인 현상태는 지정학적인 압력보다는 국내적 요인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남북의 지도자들은 각자가 상대방에게 제기하고 있는 군사적 협박보다도 유럽의 사례를 훨씬 더 큰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

북한에서는 스탈린주의자들이 한편으로는 군사안보를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민들이 외부세계에 대해 알지 못하도록 철저히 고립시킴으로써 그들의 지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소련도 강경노선의 동유럽 위성국가에서 발을 뺐던 결과는 달리 김일성 정권에 대해서는 군사적 지원을 줄이지 않고 있다.¹ 북한에 대한 소련의 정책은 명백히 글라스노스트의 원칙에서 예외적인 것이다.

한편 노태우 정권은 1987년 출범에서부터 1989년 8월 사이에 매일 거의 4명의 정치범들을 구속해왔는데, 이는 비인도적인 그 이전 정권 때보다 두 배가 넘는 것이다.² 그러므로 남한의 지도자들은 한반도의 장벽이 베를린 장벽처럼 민중들의 압력 앞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명백히 거부한다.³

남한은 또한 지역적 수준에서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1989년에 남한은 미군의 군사훈련인 패세스(PaceX)에 참여했으며 1990년에는 미 해군훈련 립팍(Rimpac)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게다가 서울은 다른 강대국들의 군사개입에서 더 이상 조연을 맡지 않으려 하고 있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에서 용병의 지위에 있었던 남한은 1970년대에는 일단 주요 무기수출국의

지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군사원조 제공국이라는 엘리트 집단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 일례로 1988년에 서울은 당시 필리핀 국방장관 라모스(Fidel Ramos)의 비밀방문이 있은 후 주저없이 마닐라에 무기를 실어 보냈다.

한반도의 분단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반도를 나누는 단층선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 어떤 것이든—이를테면 북한에서 김일성이 죽거나, 두 명의 경쟁적인 후보가 존재하는 남한에서 민주적 대통령이 선출됨으로써—일단 급격한 변화에 불을 당기면 고조되는 민족주의 감정이 결국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모든 장애물을 없애버릴 것이다.

결국 두 가지 질문만이 적절한 것이 된다. 첫째 이러한 변화는 언제 일어날 것이며 또 얼마나 평화로운—혹은 폭력적인—것이 될 것인가? 둘째 통일 한국은 중립외교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동맹외교를 택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답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만일 한반도가 남북한간의 평화적 협상으로 통일되고 동북아시아에서 중(중)립국가가 된다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우발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배치하려던 서태평양 주둔 육해공군을 서서히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미국은 주한미군을 다른 지역에 재배치하지 않고 해체함으로써 매년 직접적으로는 20억 달러를 절감하고 간접적으로는 60~100억 달러를 더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초강대국들이 유럽에서 테탕트를 계속 유지하고 이것을 동아시아로 확장시킬 때 그럴듯해질 것이다. 이것은 한국전쟁 이후에 동아시아지역에 수립된 미국의 안보블록을 사실상 해체할 것이다. 또 군사력 보다 경제적·생태적 외교를 신뢰하는 지역공동체 건설에 대한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자 유일한 장애물이었던 한반도에서의 초강대국간 경쟁의 균원을 제거함으로써, 태평양지역에서 진정 평화로운 국제질서를 이루기 위한 초석을 놓게 될 것이다. 이는 또한 초강대국들이 중국과 일본에 대해 그러한 질서를 건설하고 중일관계에서 싹트고 있는 군사적 경쟁의 위기를 해소하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 만든다.⁴

또 하나의 ‘평화적인’ 길은 통일된 한국이 서서히 미국과 긴밀하게 동맹

을 유지하는 것이다. 김일성의 사후에 남한이 정치·경제적으로 광범위하게 북한에 침투해 들어간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미군은 남북간의 점진적인 긴장완화 기간 동안 한반도에 주둔하게 될 것이다. 주한 미 지상군의 일부가 1990년대 중반에 일본과 하와이로 재배치되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소련에 대한 전략적 핵억제를 동맹국인 남한과 일본으로 확대시킴으로써 남한과 일본에 대한 정치·군사적 협력모니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핵에 대한 남한의 열망을 억누르기 위하여, 미국은 자신의 핵전력을 남한과 공유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는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평화적인’ 길은 동아시아와 태평양에 미국이 주도하는 핵블록을 재건설하게 될 것이다.

두 개의 한국이 현재 처한 곤경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 폭력적인 길은 매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폭력에 의한 통일은 어느 한쪽에 승리를 가져다주게 될 것이다. 내부로부터 사회적·정치적 자유를 향한 압력이 드세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통일을 향한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남북한은 결국 전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만일 평양이 승리한다면 통일된 한국은 동아시아의 4대 강국 모두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는 중립적이고도 내향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미일동맹을 공고하게 만들겠지만 또한 전세계적인 강대국 삼각체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태전개가 무역문제를 둘러싸고 혹은 재발된 한국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둘러싸고 미일동맹이 심각한 긴장을 보이거나 또는 완전히 단절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난다면, 이는 일본으로 하여금 이 지역에서 자신의 군사적 면모를 크게 강화시키도록 만들 것이다. 만일 그러한 시점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미소간의 긴장확대와 겹친다면, 재발된 한국전쟁은 1950년대 제1차 냉전이 그려했던 것처럼 제3차 냉전을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게 될 것이다.

만일 남북한간의 전쟁에서 서울이 승리하게 된다면 통일한국은 미국과 밀접하게 연결될 것이다. 그러나 서울도 또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워싱턴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강대국간 개임에서 일본을 앞지르기 위해서 한국이 독자적인 핵전력을 배치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는 일본으로 하여

금 똑같은 길을 가거나 비핵원칙을 포기한 채 명시적으로 미국의 핵우산 아래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러한 네번째 결과는 동아시아 국제정세에서 다극성(multipolarity)을 더욱 증대시킬 뿐 아니라, 이 지역에서의 상대적인 힘과 제휴관계에 급격하고도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군비는 증가해갈 것이며 대량 파괴무기가 이 지역내의 중소국가들로 확산되어갈 것이다.

불행하게도 폭력적인 길은 승자가 없는 세번째의 파국적인 종착점을 갖고 있다. 한반도의 엄청나고도 폭발적인 잠재력을 고려할 때,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이러한 최종결과이다. 아래에 열거된 이유들 때문에 이러한 비관적 가능성이 이 책의 분석주제가 된다.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비관적인 근거들이 많고, 세번째 결과가 한반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대해서도 파국적인 것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주제는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한반도는 태평양지역에서 핵화약고의 뇌관이다. 분단된 한반도는 핵으로 무장한 강대국간에 전면 핵전쟁을 점화시킬 수 있는 몇 안되는 곳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갈등상황 속으로 미국의 핵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이처럼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개입의 과거, 현재, 미래의 측면으로 구분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제1부는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핵독트린, 군사력, 전략의 전개를 추적한다. 이것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단일한 핵전략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핵위협에 바탕을 둔 호전적 봉쇄전략은 핵전투에 대한 미 육군의 선호를 결코 완전히 대신하지는 못했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봉쇄전략을 수행한 주요제도인 육군은 남한에 실질적인 핵영역을 구성했다. 1970년대에 이르러 그 영역은 미국의 대한전략을 수정하려던 대통령조차 건드릴 수 없는 것임이 입증되었다.

제2부에서는 주한미군 핵전력의 현재 조직과 구성을 그 협력자인 남한 군사력과 함께 기술한다. 여기에서는 남한에 대한 미 육군의 이해가 위협받을 때, 한반도에서의 핵전략이 그 지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이용하여 미 육

군이 어떻게 국무부와 의회에 압력을 가했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또 한 북한에 대한 핵위협이 예상치 못한 효과를 놓는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미국의 핵무기 선제사용이나 강대국간 핵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한반도에서의 위험한 군비경쟁을 자극해온 것이다.

이러한 역동성으로 인해 미국은 한반도에서 일련의 다루기 힘들고 거북한 딜레마에 빠져왔다. 제3부에서는 이러한 2개의 충구가 있는 딜레마의 윤곽을 그려낸다. 하나의 충구는 전쟁 가능성과 핵전쟁으로의 상승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의 충구는 어느 한 쪽 혹은 두 개의 한국이 독자적 핵을 보유하려 할 가능성이다. 미국이 어느 하나의 충구에서 탄환을 빼내기 위해 취한 조치가 다른 쪽 충구를 발사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하나 혹은 두 개의 충구를 발사시키지 않으면서 두 개의 충구 모두를 해체하는 조치를 선택하는 일이 긴요한 것이다.

제도적 타성과 조직적 방해 때문에 미국은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인들 자신이 전쟁이나 학살 없이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후들이 보인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적대감은 여전히 높고 남북한의 핵연료 주기의 발전은 두 한국을 핵무기 선택 쪽으로 몰고 있다.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준 벨로(Walden Bello), 카(Claudia Carr), 커밍스(Bruce Cumings), 홀드렌(John Holdren), 셔먼(Franz Schurmann), 자스키(Lyuba Zarsky)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

중요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 이 글의 초고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준 분들이 있다. 아담스(Gordon Adams), 아킨(Bill Arkin), 볼(Des Ball), 데리안(James Der Derian), 도넬리(Warren Donnelly), 다우어(John Dower), 이스터(David Easter), 구스(Stephen Goose), 핸들러(Josh Handler), 하비(Pharis Harvey), 헨더슨(Gregory Henderson), 하워드(Bob Howard), 이치요(Muto Ichiyo), 카플란(Aroldo Kaplan), 커(Pauline Kerr), 로이 김(Roy Kim), 킹(Peter King), 키니데(Mushakoji Kinhide), 루이스(Linda Lewis), 맥(Andrew Mack), 맥코맥(Gavan McCormack), 오카모토(Atsushi Okamoto)와 세카이(世界)지, 포터(Bill Potter), 라이델(Randy Rydell), 새터와이트(David Satterwaite), 쉬베너거(Scherle Schwenninger), 쇼락(Tim Shor-

rock), 스펙터(Leonard Spector), 탄터(Richard Tanter), 월키스(Owen Wilkes) 그리고 윌스(Peter Wills) 등이 그 분들이다. 밴 프랑크(Megan Van Frank), 굿(Deborah Good), 카츠(Iris Katz)와 스피겔(Paul Spiegel)이 자료 조사와 출판을 도왔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에너지자원연구소의 스탠진, 특히 프란시스(Bette Francis)와 블레이크(Kate Blake), 시드니 대학 행정학과 도넬리(Sandra Donnelly), 리머(Pauline Rimmer), 로버트슨(John Robertson), 로빈슨(Maria Robinson) 역시 그렇다.

서울의 심상완씨는 남한에서의 연구조사를 너그럽게 도와주었다. 일본에 있는 한국원폭생존자협회 회장인 이실건씨에게 감사드린다. 인터뷰에 응해 준 남한의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들, 특히 회장 신영수씨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원폭피해자들과의 만남을 도와준 한국교회여성협의회의 윤영애여사에게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미국, 일본, 남북한의 민간관리와 군장교들에게도 감사드리는바, 이들 중 다수는 여전히 그 직책을 맡고 있는데, 이 책에서 이름을 밝히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민감한 주제들에 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진술들이 이러한 인터뷰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지 않기로 동의했다.

이 연구를 위한 조사는 미국에 근거를 둔 비영리 조사단체인 노틸러스 파시픽 리서치(Nautilus Pacific Research)에 대한 기부자, 익명의 기부자, 아시아연구협회(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페리 부부(Ping & Carol Ferry), 기금교환소(Funding Exchange), 해리스(Jay Harris), 플라우셰어즈 기금(Ploughshares Fund), 캐나다교회연합(United Church of Canada), 감리교여성연합(United Methodist Women)과 윈스턴재단(Winston Foundation)의 자금지원을 받았다. 노틸러스의 이사회, 특히 바로우(Harriet Barlow), 스타이너(John Steiner), 웨이드(Isabel Wade)는 이 조사를 믿고 후원해줬다. 나는 이 조사를 지원해준 그들이 이 결과에 만족하기를 바란다.

라킨(Bruce Larkin), 스켈리(James Skelly), 요크(Herb York)에 의한 초고들의 꼼꼼한 검토와 세계분쟁협력연구소(Institute on Global Conflict & Cooperation)의 자금제공은 이 조사사업에 매우 중요했다. 나는 또한 1년 동안 이 연구를 수용해준 국방군축연구소(Institute for Defense & Disarmament Studies)의 포스버그(Randell Forsberg)에게도 빚을 졌다.

국가의 문제에 있어서 진실은 언제나 거짓이라는 호위병을 달고 다닌다. 국가안보와 핵전력이라는 문제만큼 이러한 것이 심한 것은 없다. 이 연구가 착수되기 전에 군부는 남한에 배치된 미 핵전력에 관한 모든 믿을 만한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이 연구는 공적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들을 조명해주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하여 미국의 정보자유법에 크게 의존했다. 이 연구는 정보자유법을 보호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차례

책머리에 3

서장 13

제1부 공포의 증폭

제1장 역사적 교훈 47

제2장 상호 취약성 65

제3장 대량보복 81

제4장 강성반응 전략 109

제5장 은밀한 계략 129

제2부 미국의 핵정책: 시인도 부인도 않음

제6장 공지전 151

제7장 협력 169

제8장 평양의 시각 191

제9장 거울로 된 방 211

제10장 교착전 225

제3부 핵 딜레마

제11장 핵전쟁 경로 247

제12장 선제사용 267

제13장 속임수 281

제14장 핵확산 잠재력 291

제15장 한반도의 군축 301

제16장 깨어진 합의 319

제17장 원자폭탄 327

부록

부록 A: 남한에서의 미국의 핵조직과 하부구조 337

부록 B: 남한에서 미군의 핵사고 대응역량 343

부록 C: 한-미 핵조정과 통합 346

주 351

그림

- <그림 4-1> 북한의 취약성의 기본 구조 123
- <그림 4-2> 북한 전투부대에 대한 핵공격의 영향 124
- <그림 4-3> 선택가능한 전투지역 전방경계선의 형태들 126
- <그림 4-4> 북한군 단위부대의 테세가 핵공격으로 인한 전투능력상실에 미치는 영향 126
- <그림 6-1> 남한에 있는 주요 미군시설 160
- <그림 6-2> 서울과 근교의 미군시설 162
- <그림 7-1> 전시 연합사령부 지휘관계 173
- <그림 7-2> 한미 연합사령부 지휘참모 관계 173
- <그림 7-3> 주한 무기지원파견단의 조직표 181
- <그림 C-1> 제1조정단(CSCT #1) 조직표(1988) 347
- <그림 C-2> 제3조정단(CSCT #3)의 조직표 349

표

- <표 1> 핵 경제·목표·실행 25
- <표 3-1> 랜드 연구소에서 1963년에 분석한 아시아에서의 핵전쟁 게임 98
- <표 4-1> 핵공격에 대한 북한의 취약성 122
- <표 6-1> 남한에 있는 핵포의 특성 164
- <표 6-2> 군산 공군기지에 있는 미 핵무기 166
- <표 7-1> 한미 핵통합 175
- <표 7-2> 주한 무기지원파견단의 단위부대들(1988) 180
- <표 7-3> 미국-동맹국 협력 프로그램 187
- <표 10-1> 북한과 남한의 군사력(1987) 227
- <표 B-1> 남한에 있는 핵사고 대응부대 344

서장

전쟁은 맹목적 열정의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의 가치가 그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회생의 정도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목적의 가치보다 요구되는 지출이 더 크다면, 그러한 목적은 포기되어야만 할 것이고 결국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클라우제비츠, 「전쟁론」, 1832¹

한국인들은 그들의 땅이, 환태평양조산대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괴롭히는 지진과 화산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므로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대신에 그들은 지리적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원을 갖는 장애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4대강국—이들 중 셋은 핵으로 무장하고 있는데—의 전략적인 힘이 교차되는 지점에 살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불행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의 비극적인 결과가 바로 그들 의사와 무관한 한민족의 분단이다. 모든 한국인들은 비무장지대 건너편에 살고 있는 가족, 친구들과 왕래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 더욱 불행한 것은 많은 친지, 친구들이 처음에는 대일(對日)항전에서, 다음에는 1945~50년의 내전에서, 마지막에는 한국전쟁에서 서로 반대편에서 싸웠다는 사실로 인하여 매우 소원해졌다는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한국인들은 한반도에서 서로 부딪치며 빠져나가는 강대국의 구조판 사이에 사로잡혀 있는 셈이다. 2차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과 소련은 38선으로 한반도를 분단시켰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전선은 수백 만 명의 피난민과 함께 한반도를 오르내렸다. 1953년 휴전협정이 조인되자 강대국들은 한반도를 가로질러 군사분계선을 표시하는 하얀 말뚝을 박았다. 그것은 초강대국이 냉전블록 사이에 그어 놓은 두 개의 커다란 경계선 중의 하나였다. 냉전의 무시무시한 경직성을 상징하는 안정된 중부유럽의 전선과는 달리,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봉쇄정책을 냉은 치열한 전쟁을 통해 만들

어진 것이다. 동서독간의 경계선은 안정되고 공인된 국경으로 고착화되었지만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아직 그 정도로 충분히 냉각되지 못했다.

유럽주둔 미군이 미국의 정책 내부에 격렬한 논쟁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과 한반도는 또한 다르다. 부분적으로는 서유럽 지도자들이 이 논쟁을 유발시켰다. 그러나 과거 그들 아주민과 강한 문화적·역사적 유대를 가진 미국인들 또한 유럽의 딜레마에 반응을 보였는데, 그 반응이 항상 미국의 국가안보 엘리트들의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었다.

이와 반대로 오늘날 미국에는 지도자의 동아시아(특히 한국인들의 곤경에 관한) 정책과 행동을 상쇄할 정도로 강력한 아시아계 미국인의 로비가 없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한국에서 죽은 미군들을 잊고자 한다. 외교정책 엘리트들—중요한 예외도 있지만—은 대부분 유럽 중심적이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집단은 대부분 한반도를 무시한다.

대중의 전망중, 유럽 중심주의와 분석상의 맹점이 대다수 미국인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세계지도에서 한반도를 없애버리는 데 작용해왔다. 물론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에 대해 조직적인 기득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일상적인 작전과 위기시의 작전들은 다른 곳에서라면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막았을 국내 정치세력의 방해를 그다지 받지 않는다. 특히 미군의 조직적인 병폐와 작전 이데올로기는 한반도에서 불안정을 유도하고 핵전쟁을 가능하게 만드는 독립적 요소이다.

한반도와 관련된 핵전략가들의 지적 결합도 두드러진다. 핵무기의 전진배치에 대한 지상군 트립와이어(동시적인 자동연계효과)가 존재하는 단 두 지역 중의 하나가 한반도임에도 불구하고(다른 하나는 유럽에 있음), 미국의 전략가들은 이 상황에 대해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최근에 이루어진 핵전쟁에 관련된 미국의 고압적인 외교, 위기관리, 위기 안전성에 관한 세 편의 뛰어난 연구 속에서도 한반도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²

그러나 한반도는 의심의 여지 없이 지정학적인 지진의 전야지였다.³ 초강대국 블록간의 첨예한 마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그러지고 있지만(중소 동맹의 경우는 분열되기까지 함), 한반도의 군사블록은 아직도 서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한반도와 관련된 4대강국 모두는 한반도를 자신들 운명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곳으로 인식한다. 언제 어느 한 편이 다른 편에 강하게 충돌할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며 그 가능성은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강대국들 자체가 한반도에서 불안정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잠재적 화산

한국전쟁을 통해 지역사회의 강렬한 사회·정치적 갈등이 강대국의 개입에 불을 붙이며 표면화되었다.⁴

한국사회는 일본 제국주의의 칠날 아래에서 최초로 근대화를 경험했다. 2차대전의 결과 잠시 동안 해방되었으나 외부세력에 의한 내전에 휩쓸려 신생 민주공화국의 설립이 좌절되었다. 그 후 국제전에 의해 양분되어 문화가 갈라지고 사회구조는 분열되었다. 결국 북쪽에서는 민주화 열망의 물결을 탄 스탈린주의의 공산당의 강요된 혁명에 의해, 남쪽에서는 후원자인 미국의 지지를 받은 권위주의적인 정치·군사적 정권이 주도하는 개혁에 의해 한국 사회는 붕괴되었다.

두 개의 한국은 매우 역압적인 국가의 압력에 의해 전통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사회적 긴장들을 안게 되었다. 이는 활동하지는 않으나 전동하고 있는 화산의 꼭대기를 넘고 있는 혈무암 마개가 지구의 지각에서 움직이고 있는 용해된 마그마 꼭대기에 내려앉은 것과 같다.

1953년부터 사실상 세인의 뇌리에서 잊혀진 채, 북한은 그 사회를 자생적인 산업경제로 재건하여 전쟁 후 ‘사자가 절단된 것과 같았던’ 남한을 능가하기도 하였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제경쟁에서 남한에 훨씬 뒤처지게 되었다. 오늘날 북한은 정보통제, 경직적이고 중앙집중적으로 지휘되는 관료체제, 그 사회를 만족시키지만 그 곳을 방문한 대부분의 사람들과 북한 주민들을 달리 보이게 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절대적인 정치이념에 의해 무기력해진 독재적이고 고립된 통제사회이다.

한편 남한은 고도로 조화된 수출지향주의 경제로 약한 수출경쟁국들을 누

르고 스스로의 힘으로 신진 경제대국·군사대국으로 성장했다. 오늘날 남한은 그들의 선생(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을 주는 존재)인 일본의 뒤축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남한에서는 박정희라는 군사독재자가 1961년 주요기업가 장악으로 요약되는 국가주도 조합주의(corporatism)로 현상적인 경제성장—매 10년마다 GNP가 두 배씩 성장—을 이룩해냈다. 투자 또는 수용에 대한 명령이 떨어지고 그들은 투자했다.

이러한 압력밥솥과 같은 사회상황은 1979년 이후 두 번 끊어올랐다. 그러나 국가안보 체계라는 깊은 무쇠주전자는 그대로 남아 있다. 1987년 투쟁 이후 남한에서는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지만 실제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정치적 역설은 남한의 정치를 즉흥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으로 만들었다.

두 개의 한국에서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적 변화는 증기압을 형성했다. 남한에서 주기적인 대정부투쟁, 정권교체와 쿠데타는 지도력의 비합법성을 참아야 하는 대가를 치르며 중앙집권화된 국가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라는 기본구조를 유지하는 안전장치가 되어왔다. 대개 남한의 통치자들은 그들의 정책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반대자를 임의적으로 체포하고 고문하는 것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가장 교활한 사찰체계(아마 북한을 제외하고는)를 사용했다.

북한에서 김일성의 선전기구는 인민들에게 강력한 유교적 의미를 지닌 배타적인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주입시켰다.⁵ 동시에 김일성은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세계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차단하는 한편, 성장의 성과 물들을 평등하게 분배함으로써 불안정한 전망이 확산되는 것을 불식시켰다. 이러한 사회·정치적인 통제가 실패할 때마다 그는 반대자들을 숙청하거나 제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정부는 지금 80대인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의 사후에 권력승계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는 그의 자리를 미지의 인물—그의 아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권력의 순조로운 이전이나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채비를 갖추지 못한 경제행진, 온실성장과 중앙집권구조는 한반도를 북태평양의 사회·정치적 크라카토아(Krakatoa: 화산도의 이름—역주)가 될 아시아의 최우선 후보로 만들 것이다.

의심할 것도 없이 한국 민족주의는 이러한 폭발적 잠재력의 기초가 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남북한은 전한반도를 아우르기 위해 한국 민족주의라는 맨틀과 정치적·도덕적 권리(?)를 주장해왔다. 사회적 무질서, 정치적 불안정과 한국 민족주의가 남북간의 또 다른 전쟁을 유발할지는 알 수 없다. 반대로 그러한 갈등이 또 다른 강대국 대결의 도래를 촉진시킬지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이미 한 번 일어났으며, 또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모하다. 이러한 잠재적 화산은 태평양의 국제체계를 가르는 다른 단층선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안보 딜레마

한반도의 폭발적 잠재력은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중무장되고 적대적인 남북한간의 지속적인 갈등은 한반도에서 대규모 재래식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사라지지 않게 한다. 둘째, 제3자와의 외부동맹으로 남북간의 전쟁은 한반도의 범위를 넘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런 갈등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미국내의 호전적인 정책조류에 의해 지속되어왔다. 그들은 이러한 개입에는 핵무기의 한반도 배치와 북한에 대한 강압적인 핵외교정책의 구사가 포함된다고 확실히 하였다.

셋째, 미국의 강력한 정부기관인 육군과 국무부는 한반도에 미국의 핵무기를 유지하는 데에서 기득권을 발전시켜왔다. 예를 들어 육군은 한반도 주둔의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는 남한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이 제도들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남북갈등의 당사자로서 종종 이러한 갈등을 경직시키기도 한다.

150만 이상의 무장한 군대를 가진 남북한은 악의에 찬 적대자들이다. 그들의 적의는 40년 이상 누그러지지 않는 선전으로 표현되어왔다. 자신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한쪽에서 취한 조치들은 종종 다른 쪽의 안보를 해쳤다. 남북한이, 특히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외부의 위협 또한 상대방이 방아쇠를 당길지 모른다는 양측의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것들이 교착상태와 전쟁을 향해 끊임없이 다가가는 고전적인 안보딜레

마의 요소들이다.⁶ 남북한은 서로 다른 한쪽을 제거하고 싶어한다. 각각은 다른 쪽이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무기를 증강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전쟁의 기억과 끊임없는 적의는 한국사회의 정치·경제·문화적 재통합은 고사하고 평화공존의 선택조차 실질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는 미국은 한국전쟁 종결 이후부터 남한에 군대를 주둔시켜왔다. 현재 남한에는 약 4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 군대는 어떠한 한국분쟁이 재개되더라도 미국인들이 다시 개입할 것임을 보증하는 트립와이어로 작용한다. 지난 한국전쟁에서는 10만 명의 한국인과 90만 명의 중국인, 5만 이상의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다.

한반도에서의 또 다른 전쟁은 단순히 한반도만을 황폐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대격변일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한반도에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사용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소련·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또한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강대국간의 핵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한반도에서 점차적으로 악화되어가는 상황 중 가장 뚜렷한 것은 비무장지대의 완벽한 군사화이다. 1953년 이래 휴전협정으로 부과된 군비통제 조치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한반도에는 고의적인 또는 부주의한 확전 잠재력이 다른 어느 곳보다도 크게 존재한다.

정책조류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두번째 요소는 미국의 정책이다. 1953년 한국전쟁 종결 이후부터 미국의 정책은 한반도의 분단 유지를 전제로 해왔다. 실제로 미국의 군사전략과 외교적 태도는 분단을 유지해왔을 뿐만 아니라 고착화시켜왔다. 이 연구는 한반도의 갈등에 대한 미국제도들(U.S. institutions)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책조류(policy current)란 개념을 사용한다.

모든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관습은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파괴되거나 또는 식민주의와 신식민지적인 종속의 경험에 의해 사라졌다.

그 과정에서 성공한 혁명계급의 조직과 이념은 정치권력의 원천이자 본질이 되었다. 사회가 현대화됨에 따라, 국가관료체는 금융자본·상업자본·산업자본의 이해로부터 분리된 궤도와 목표를 가진 독립적인 이해의 분야가 되었다.⁷ 미국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셔먼(Franz Schurmann)이 처음으로 명료화시킨 이 이론에서 통치엘리트나 정치계급 내부의 정치는 이해에 얹힌 관료들의 싸움을 둘러싸고, 혹은 적대적인 파벌을 균형잡고 정책결과에 대해 대중의 지지를 구하는 행정수반의 역할을 둘러싸고 벌어진다. 이 이론의 역-즉 조직적 이해관계로 표현되는 강력한 국내적 지지가 없다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은 카터의 대한정책의 운명을 통해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국가는 계급권력의 통일된 도구가 아니라 경쟁하는 영역이다. 이 변증법적인 개념에서 보면, 정책조류는 정치적으로 결합된 시민사회와 국가의 이해에서 비롯되고 만들어진다. 이러한 유동적인 사회적 지지는 국가이익이라는 관점으로 그 자체를 표현함으로써 정당성을 추구한다.⁸ 따라서 미국 정치체계에서 정책조류는 권력의 중심지인 백악관에 접근해감에 따라 좀더 추상적인 이념으로 표현된다.

정책조류의 사회적 지지기반이 항상 유동적이므로, 정책조류는 결코 정태적(static)이지 않다. 그들의 상대적 힘들은 다음 세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1) 이해에 따라 만나게 되는 연합, (2) 반대세력에 의해 제기된 도전, (3) 상이한 사회적 지지층에 대해 그 정책을 합법화시켜나갈 행정수반에 대해 경쟁적 정책조류가 지니는 효용.

정책조류는 특별한 이해의 원류로부터 흐르는 시냇물에서 기원한다. 각 조류는 본질적으로 정치적·경제적·이념적 또는 군사적일 수 있는 이해의 앙금을 운반한다.⁹ 정책조류는 그들이 어떤 저수지를 두드리느냐와 그들이 어디에서 더 큰 지류와 합류되느냐에 따라 다른 유형과 농도의 이해관계를 운반한다.

조직적 이해관계

미국의 대한정책에 대한 주요 영향력은 군사, 정보, 외교기관에서 나온다.

중앙정보국(CIA)과 같은 정보조직이 특별영역(비밀교전과 같은)내에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내부경로를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군사업무에 대한 정책 수립에서는 군과 경쟁할 수 없다. 그들은 펜타곤(국방부)이 자체 군대와 통합된 지휘정보 부대를 동원할 수 있는 한반도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군사정보 문제에서마저도 군에 대해 열세에 놓여 있다.

포크 배럴(pork barrel): 연방정부로부터 당세확장 따위의 목적으로 지금받는 돈-역주) 정치에 중독된 미국의 국내 정치·경제체제에 깊이 뿌리를 내린 제도가 바로 재래식 군대-육해공군, 해병-이다. 국무부나 정보기관도 펜타곤의 국내정치적 영향력에 펼쳐질 수 없다.

군부는 또한 정치가들에게 강인하게 보일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다. 반대로 국무부의 자문을 따른다면 대통령은 종종 무기력하게-즉 무기의 힘이 아니라 외교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단명한 존재로-보이도록 한다. 외교정책 문제에서 군과 경쟁하는 제도상의 경쟁자들은 펜타곤의 크기와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존재들이다. 또한 이들은 펜타곤의 전세계적인 통신장치에 대적 할 수 없다.¹⁰

군의 조직적 이해는 태평양에서 두 가지 형태로 가시화될 수 있다. 첫째, 육해공군 또는 해병의 존재를 선전함으로써 군은 공공연히 그들의 병력을 과시한다. 공공연한 과시는 군대의 전진배치, 군함 또는 항공기의 방문, 군대의 과시, 내정간섭, 무기시험 등 여러 형태로 이루어진다.

둘째, 각 군들은 태평양 사령부와 같은 지역사령부와 주한 또는 주일 미군 같은 하위 지역사령부에 의해 대표된다. 미군은 이 제도를 통합사령부라고 부른다. 원칙상 통합사령부는 단일군의 이해를 초월하는 다군사령부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각의 통합사령부가 어느 한 군의 우세한 이해를 종종 표현한다. 예를 들면 주한미군이 압도적으로 육군에 의해 운영되는 반면 태평양 사령부는 대체로 해군사령부이다.

각 군(그리고 각 군에 있는 각 파벌)은 미군 예산을 보다 많이 차지하기 위해 싸움으로써 아주 빨리 성장한다. 각 군의 본질적인 임무가 예산배당을 정당화한다. 따라서 각 군은 그들의 조직적 세력권에 대한 다른 군의 방해를 적대시한다. 각 군은 다른 군의 임무를 보충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를 발전시킴으로써, 군과 군 사이에 있는 본질적인 임무배분에 침입함으로써, 또는 우

주전에 관련된 무기 같은 새로운 임무를 개척함으로써 서로를 짐작한다.

따라서 해군은 다른 군이 바다의 통제와 관련된 능력이나 임무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싸운다. 공군은 조종사가 있는 비행기를 무인 미사일로 대체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저항한다. 육군은 가능한 한 많은 지상전투 임무를 유지하기 위해-특히 탱크를 보유하기 위해-애쓴다. 이 임무들은 각 군의 조직적 핵심을 이룬다.¹¹

각각의 조직적 이해는 그 본질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식적인 표준 운용절차와 비공식적인 주먹구구식 방법들로 자체조직의 레퍼터리를 발전시킨다. 동시에 조직의 경쟁자는 빠른 기술혁신과 새로운 무기체계의 도입-이 중 많은 것은 조정된 군사교리를 필수로 한다-을 유도한다. 소규모 교리변화가 비밀전쟁계획과 운용절차 속에 반영된다. 증가하는 변화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군대의 이념적 해석이 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무기체계는 군대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새로운 이론해석을 이루어내도록 전문가들에게 강요할 수 있다. 선제 공격용 무기(MX미사일과 같은)를 시험함으로써, 교리(핵전투와 같은)를 발전시킴으로써, 그리고 우세한 동맹이념을 방해하는 전략(공격적 해양전략과 같은)을 수행함으로써, 각 군들은 동맹통합의 일치된 기반을 침식한다. 따라서 각 군의 경쟁은 전진배치된 미군 사이의 이념적인 다양성과 그 군대 내부의 제도적 무질서에 따라 동맹을 조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앞으로 명확해지겠지만 한반도에 있는 미군도 예외는 아니다.

이 경쟁적인 원동력 때문에, 핵이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주로 민간인들의 문제로 남는다 할지라도 핵이념의 주원조는 각 군이 된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것처럼, 전략가들은 핵전쟁지역이 될 수 있는 한반도를 대체로 무시하면서, 전개된 전력구조를 특별한 이념적 진공상태로 방치해두었다.

세력권에 대한 질서와 역량의 중복이 높은 필연적인 결과로 각 군들은 자신들만의 쇼를 전개하고, 공동작전을 피하며, 동맹국에 대한 공약에 구속되지 않음으로써 전략적 행동의 자유를 유지하려 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전진 기지와 지원군사역량을 보유하는 것을 선호한다.¹²

서로 다른 임무 때문에, 각 군은 핵핵개모니의 통합적·이념적 측면에 대해 서로 다른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면 육군 전진부대는 한반도의 비무장

지대와 같은 전방으로부터 다른 미 동맹국에까지 이르는 기다란 병참행렬을 가지고 있다. 육군의 송유관과 보급품 저장은 주둔국과의 통합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지역기지망을 형성한다. 그 예로 일본과 필리핀은 남한의 미 지상군을 지원하는 주둔기지로서 남북한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본질적으로 육군은 또한 주둔국 지상군과의 연합관계를 모색한다. 반대로 공군과 해군기지는 장거리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력상의 특성 때문에 또한 이 지역에서 그들의 이해는 소련과의 대치이기 때문에, 주둔국의 정치로부터 격리되고 무관하며 스스로 완비된 실체가 되고자 한다.¹³

정책조류는 이해를 그 근원부터 그들의 정치적 운명으로까지 단순 운반하지만은 않는다. 왜냐하면 특수한 이해에서 생기는 정책들은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들을 만들므로써 새로운 이해를 창출하는데, 이는 종종 초기 정책(그리고 심지어 이해)들이 사라진 오랜 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정책변화를 통해 축소되거나 쓸모없이 되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수행되고 있는 호전적인 봉쇄정책에 대한 육군의 이해관계와 일본내에서의 국무부의 이해관계는 한반도의 미 핵전략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해관계를 보여준다. 그러한 기득권은 정책채택이나 수행에 대한 공공의 저항을 자극함으로써 골칫거리를 뒤로 밀어놓을 수 있다. 카터 대통령으로 하여금 주한미군 철수정책을 철회하게 만든 그들의 운동은 적절한 예가 된다.

봉쇄

세 가지 주요한 정책조류가 한반도와 관련된 미국의 전후 역사에서 확인되었다. 넓게 보면 이것들은 국제주의, 롤백(rollback) 그리고 봉쇄의 조류이다.¹⁴

국제주의 조류의 좋은 예로는 스탈린과 함께 한반도에서 신탁통치를 실시하려 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알타와 포츠담 회담에서 제기한 제안을 들 수 있다. 국무부는 1948년 한반도의 분단이 돌이킬 수 없게 될 때까지 이 노선을 추진했다. 국제적 협조가 한반도내 분쟁을 해결하고 심지어 없앨 수 있다는 국제주의적 생각은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남으로써 마침내 사라졌다.

롤백은 국제적 분쟁은 불가피하며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반대의 개념이었다. 롤백주의자들은 결국 강대국들이 아시아에서 끝까지 싸워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우세한 세력인 미국으로서는 이러한 일이 빨리 일어날수록 좋았다. 대표적인 롤백주의자인 맥아더(Douglas MacArthur)에게 한반도는 미국이 공산국가인 중국과 최종대결을 하도록 유인하는, 압록강 너머의 실제전쟁을 위한 단순한 평겟거리에 불과했다.

반대로 봉쇄조류는 심각한 분쟁 속에서는 적과의 묵시적인 협조만이 이 비현실적인 양극단 사이에서 실현가능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공산주의의 팽창에 대항하는 민주주의의 싸움은 적대자를 갈라놓는 경계선을 그림으로써 승리할 것이다. 따라서 봉쇄정책은 경계선의 방어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그 경계선을 어떻게 유지하는 것이 최선책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봉쇄는 항상 한 주제에 대해 두 가지 변수로 구성된다.¹⁵ 1940년대 말 케난(George Kennan)은 국무부에서 그 첫번째—소련과의 경쟁을 지속시키는 현실정치적 봉쇄노선—to 예시했다. 케난은 소련의 약점에 우세한 미국의 힘을 가하면서 소련과 대치하는 한편, 소련을 국제적 의무망에 빠뜨림으로써 소련이 국제적 현상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이해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다.

1950년 니체(Paul Nitze)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각서 68호(NSC-68)와 맥아더 장군의 아시아 제일노선은 케난의 조류를 옆으로 쓸어버린(한국전쟁 덕분에) 호전적인 봉쇄노선의 두 가지 근원을 예시했다. 이 정책조류는 일방적인 롤백노선과 소련과의 전쟁을 피하려는 현실정치 전략의 요소들을 결합한 것이다.

1952년 12월에 맥아더가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와 덜레스(John Foster Dulles)에게 연합군과 공산군 사이에 방사능띠를 만들기 위해 핵무기를 한반도에서 사용하자고 제안한 것은 말 그대로 핵으로 호전적 봉쇄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¹⁶ 한국전쟁이 종결된 이후, 육군은 유사한 동기의 혼합이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봉쇄는 1953년 이후에는 정태적인 정책이 되지 못했다. 행정부는 경쟁적 정책조류들의 혼합을 변형시켜왔다. 닉슨 행정부의 정책은 봉쇄의 현실정치적 변수가 두드러졌다. 삼각체제의 가치 아래 카터 대통령은 단기

간에 국제주의를 제전하려 하기조차 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호전적 봉쇄 조류는 트루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을 예편시켰던 1951년 이래 미국의 외교정책가에서 우세해왔다. 레이건 행정부는 한국전쟁 이후의 역대 행정부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현실정치보다 호전성을 더 드러내면서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 교훈과 전략적 정책

서로 다른 이해에서 기원한 각 조류는 과거를 선택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뚜렷한 지침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는 '역사적 교훈'이라 부를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핵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이 개념을 사용한다.¹⁷

역사적 교훈은 역사적인 과거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교훈은 역사 속에 있는 만큼이나 신화에도 기반을 들 수 있을 정도로 실제적이고 도덕적인 설교이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한반도에서의 미 핵전략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역사적 교훈은 서로 경쟁하고 있는 정책조류들을 지지하기 위한 상이한 핵무기 사용방식의 상대적 유용성에 관한 것들이다. '전략적 정책'은 역사적 교훈에 의해 이끌어지는 목표와 실행으로 이루어진다. 정책들은 국가간 관계의 군사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의도적 행동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이라고 불린다.

전략적인 '목표'의 개념은 간단하다. 그것은 한 국가가 군사적 실행을 통해 얻으려고 설정한, 적의 행동에 대해 기대하는 영향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전략적인 '실행'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취해진 행동(말뿐인 것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과 사용된 일련의 정책도구(군대)이다.

처음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로 두 개의 전략적 목표, 즉 북한에 대한 강제와 억제를 추구하려고 했다(이 개념은 아래에 정의되어 있다). 이 두 가지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미국은 대일전에 기반한 핵전투와 북한과 중국과의 전쟁에서의 핵위협이라는 두 종류의 전략적 실행을 시험했다.

나중에 세번째 전략적 목표—동맹국의 재보장(심지어는 소련·중국과 같은

적까지도 재보장, 그러나 북한은 제외)—와 세번째 실행—핵협력이나 군비통제(그러나 한반도는 제외)—이 미국의 정책선택 메뉴에 첨가되었다. 원칙적으로 세 가지 전략적 목표 모두는 세 가지 실행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으므로, 결국 9개의 전략적 정책(<표 1>을 보라)이 창출될 수 있다.

<표 1> 핵 정책·목표·실행

실행	전략적 목표		
	C (강제)	D (억제)	R (재보장)
1. 전 투	C1 (HL1)	D1	R1
2. 위 협	C2 (HL2)	D2 (HL3)	R2 (HL3)
3. 협 력	C3	D3	R3 (HL4)

주: HL = 역사적 교훈

HL1: 정책: C1

역사적 관련: 히로시마/나가사키

전략적 내용: 적이 항복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

HL2: 정책: C2

역사적 관련: 한국전, 위기시의 행태

전략적 내용: 명백한 폐배 없이 적이 화해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핵위협 사용

HL3: 정책: D2, R2

역사적 관련: 쿠바 미사일 위기, 상호학증 폴리피리

전략적 내용: 적의 공격을 억제하고 동맹을 재보장하기 위해 핵위협 사용

HL4: 정책: R3

역사적 관련: 전략무기 제한협정, 중거리핵전력 폐기협정

전략적 내용: 적과 혹은 동맹을 재보장하기 위해 핵위협을 조정

이 정책들은 베타적이지 않으며 목표와 실행의 다양한 조합으로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시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동맹국들을 미국의 결단에 의해 재보장하고 동시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적을 억제하고 강제하기 위하여 핵위협이 사용될 수도 있다—한 가지 실행으로 많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 예.

분명 전쟁중에는 강제와 억제 사이의 구별이 유동적인 전술적 상황에 따라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¹⁸ 이와 유사하게 동맹국들은 강제나 재보장을 목적으로 취한 행동에 의해 재보장되기도하는 위급해질 수도 있다(동맹국 엘리트들의 의견이 여론과 다른 경우에는 둘 다일 수도 있다).

반대로 단일한 목표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많은 실행을 거듭하면서 달성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억제는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과 협력(군비통제협상)을 제의함으로써, 또는 핵무기를 사용하고 난 후 다시 사용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한국전쟁중의 핵위협 시도) 성취될 수 있다.

억제와 강제는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가? 이 연구에서 이 개념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군사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그렇지 않았으면 행할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억제), 이미 시작한 그리고 그렇지 않았으면 계속했을 행동을 중지하도록(강제) 강요하는 전략적 정책과 관계가 있다.¹⁹ 위협이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적 실행에 의해 수행될 때, 그 정책은 '핵 억제' 또는 '핵강제'라 명명된다.

그러한 전략적 정책은 일상적인 국가간 관계(분쟁관계도 포함해서) 속에서나 국가간의 대결위기 속에서 행사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 '즉각적' 억제와 강제를 구별한다. 이 두 용어는 강제나 억제가 시도되는 서로 다른 상황을 가리킨다.

모건(Patrick Morgan)에 따르면, 일반적 억제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가 그렇지 않으면 행하게 되고 이의를 말할 여지가 있는 행동을—'비록 어느 편 국가도 다른 편 국가를 막 공격하려 하지는 않지만'—하지 못하게 강제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²⁰

이 연구에서는 다른 국가가 이미 시작했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했을 것이며 이의를 말할 여지가 있는 행동을—'비록 어느 편 국가도 다른 편 국가를 막 공격하려 하지는 않지만'—중지시키기 위해 한 국가가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 강제라고 정의함으로써 이 개념을 확대했다.

반대로 모건은 '즉각적 억제'를 적어도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한 행동(군사공격과 같은)을 고려하고 있고, 다른 국가는 이의를 말할 여지가 있는 행동을 막기 위해 군대로 보복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과 관계 있다고 정의 한다.²¹

일반적 억제의 경우처럼, 이 연구는 모건의 '즉각적 강제'의 개념을 적어도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이미 시작한 이의 있는 행동을 중단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상황을 언급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한반도의 맥락에서 '즉각적' 상황이란 분쟁 당사국들 사이의 전쟁시작이나, 다

른 국가의 이해에 대한 한 국가의 도발적인 공격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역사적으로 볼 때, <표 1>에서 오직 네 가지 정책만이 실질적인 역사적 관련, 전략적 내용, 핵이데올로기 또는 역사적 교훈을 지니고 있다. 다음부분은 이들 정책과 교훈 중에서 앞의 세 가지를 부연하는데, 이는 히로시마/나가사키, 한국전쟁과 미국의 위기시 행태, 쿠바 미사일 위기 및 그 여파와 대략 일치한다. 두번째와 세번째 역사적 교훈의 발생에 한반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2, 3장), 네번째이자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마지막 교훈—핵군비통제의 효용과 시급함—은 한반도내에서 이제부터 배워야만 한다.

한반도에서의 실제 핵정책은 이러한 세 가지 역사적 교훈의 요소를 끌어들인 불완전한 혼성물(이 연구에서는 강성반응이라고 불리는)로 발전해왔다. 즉 경쟁적 정책조류들과 오늘날 한반도에서의 미 핵전략을 성격짓는 모순적이고 일관성 없는 정책들이 혼합된 것이다. (그것은 <표 1>에 나온 C1, D1, C2, D2, R2의 혼합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강성반응에 대한 이러한 추상적인 공식은 앞에서 언급했던 미 육군의 조직적 이해가 정치적·군사적 현실 속에서 표현되는 방식을 다시 공식으로 만든 것일 뿐이다. 즉 한반도에서 미 육군의 핵판료주의는 그 자체가 한반도에 존재하는 무질서의 원천이며, 불안정에 대한 지정학적·지역적 원인과 치명적인 잠재력을 지닌 방법으로 상호작용한다.

1976년 북한과 대결하고 있었던 미 육군의 행동으로 이 점은 증명된다. 8월 18일에 북한 경비병들이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나뭇가지 치는 일에 대해 논쟁하던 중에 미군을 살해했다.

그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던 스틸웰 장군(Gen. Richard Stilwell)은 비무장지대에 있는 미군과 남한 지상군에게 완전 경계태세(또는 방어상태 3)를 지시했다. 미군과 남한군이 문제의 나무를 강제로 잘라버리는 동안, 부사령관이었던 쿠쉬맨 장군(Gen. Jack Cushman)은 비무장지대를 따라서 가능한 한 눈에 띄게 핵공격이 가능한 포대를 배치했다.²² 이에 대항하여 북한군도 또한 완전한 전쟁 경계태세로 들어갔다.²³

나중에 스틸웰은 그와 당시 남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가 이 위기 속에서 공유했던 심적 상태를 털어놓았다. 그는 "우리는 그들과 나무밑둥 주위에서

만나기를 바랬다. 그랬다면 우리는 아마 도끼, 곤봉 등으로 몇몇 대갈통을 후려갈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²⁴

강제 대 억제

전략적 정책과 역사적 교훈은 흥분하기 쉬운 사람의 머리에는 떠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은 역사적 과정을 숙고하는 전략가들이 생각해내곤 하였다. 처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역사적 교훈들은 전략적 폭격과 핵무기가 2차대전과 한국전쟁의 결과에 미친 영향이다.

특히 룰백 정책조류(특히 육군에서의)는 핵무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지정학적 이득을 얻는 데 사용될 수 있었던 1945년의 일본으로부터 교훈을 끌어내었다(1장). 그와는 반대로 호전적 봉쇄정책조류는 핵무기가 다른 국가와 싸우는 데 쓰이지 않고 다만 위협용이었던 한국전쟁에 근거를 둔 견해에 집중했다(1, 2장).

첫번째 교훈은 핵무기를 좀처럼 표현하여 전쟁에서 완승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군사적 수단으로 묘사하였다. 이 생각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로부터 나왔다. 이로부터 미 전략가들은 핵무기가 적에게 완전한 항복을 강요할 수 있다고—즉 ‘즉각적 강제’로—결론내렸다.²⁵

두번째 교훈은 핵무기가 심리전으로 이끄는 위협장치라고 주장했다. 이 생각은 1945년부터 1949년까지 4년간 계속되었던 미국의 핵독점으로부터 도출되었다. 이 기간 동안, 미 전략가들은 핵무기가 소련으로 하여금 소련영토 밖에서 미국의 이해에 도전하는 것을 단념하도록 하는 데 사용되었다고—즉 ‘일반적 억제’로—추측했다.

1949년 소련의 핵실험은 미국의 독점을 종결시켰고 이는 핵독점이 소련을 억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1950년 6월에 있었던 북한의 남침은 핵무기가 억제의 기반이 되기에는 나약한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구나 그들은 그들이 히로시마 모델에 기초한 핵전투로 단순 회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 전쟁 초기에 핵의 과정이 핵전투를 가로막는 상호취약성과 같다는 점이 명

백해졌다.

결국 미국은 중국과 북한이 전쟁을 끝내도록 강제하기 위하여 핵위협을 ‘정치적’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전쟁이 종결되었을 때에 봉쇄정책에 관련된 미 전략가들은 핵위협이 한계효용을 갖는다고 믿었다. 핵위협은 수용 가능한 정치적 조건—즉 한반도에서 1950년 이전 현상으로 복구—으로 군대를 해산시키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완승을 거두는 대신에, 핵‘위협’은 장기적인 제한전—미국인들이 한국전쟁 때까지만 해도 핵무기의 등장으로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전쟁—에서 미국의 정치적 목표에 대한 제한적인 적의 복종만을 얻을 수 있었다.

10년이 채 되기도 전에 미국은 네 가지 다른 정책으로 핵전력의 효용을 시험했다. 그것들은 첫째, 전투에 기초한 즉각적 강제(일본), 둘째, 위협에 기초한 일반적 억제(소련), 셋째, 위협에 근거한 즉각적 억제(한반도), 넷째, 전투준비로 뒷받침된 위협에 근거한 즉각적 강제(한반도)이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정책은 전투 대 위협 그리고 강제 대 억제라는 이념적 극 사이에서 예전부터 동요해왔다. 미 지도자들이 일관성 없는 핵정책을 선택하거나 상이한 역사적 교훈으로부터 절충적으로 아끌어내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쟁적인 정책조류에 의해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낙슨 대통령은 핵억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군사력뿐만 아니라 전략적 외교까지도 가미한 현실정치적 봉쇄정책을 선호했었다. 그러나 낙슨은 1968년과 1969년에 북한과 정면대결하는 동안 핵위협에 근거한 핵강제로 되돌아갔다.

1968년 푸에블로호 위기에서 그는 그 문제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가까운 곳에 있는 적절한 군사력(남한내 비행장에 있는 F-4 폭격기)은 핵무기용으로 정비되고 무장되어 있어 포위된 배를 돋기 위해 적시에 재장비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²⁶

이러한 군사적 태세는 초기부터 계속되었다. 그것은 핵전투 실행에 근거한 룰백목표와 심지어는 핵위협에 근거한 억제목표와도 양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적과의 협상(협력)에서 군대의 지원을 받는 외교와는 양립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한반도에 있는 핵전력은 사실상 한반도에서의 강성반응정책을 구체화시켰다. 그러나 강성은 위기가 시작되었을 때에 낙슨이 맨 마지막으

로 추구하던 것이다.

뿌리뽑을 수 없는 조직적 이해에 의해 군사력 태세에서 별 쓸모가 없는 정책이 구체화됨에 따라, 자신들의 선택이 제한받고 있음을 정치지도자들은 종종 뒤늦게 발견하곤 한다. 더 심한 경우에는 군조직에서 과거부터 내려온 조직적 병폐와 깊이 뿌리박힌 관행으로 인해, 현재의 정책에서 추구하지도 않는 우연한 결과를 낳을지 모르는 실행을 풀어줄 수가 있다. 비록 정치지도자들이 이런 변칙을 깨달았을지라도—종종 그렇지 않기도 하다—그들은 그것들을 통제할 수 없다.

한반도에서 핵전쟁 계획은 한반도를 불합리한 전역(戰域)으로 전환시켰다. 예를 들면 1968년 미 육군은 핵무기로 한강다리를 파괴시킴으로써 서울을 지나 전진하는 북한을 막으려고 계획했다. 그 전쟁계획이 서울과 서울시민의 핵전멸을 수반한다는 점이 이 정책과정의 비이성적이고 역설적인 결과이다(3장 참고).

확대된 억제와 재보장

한국전쟁 후에 미군은 억제라는 공공연한 깃발 아래 핵전쟁을 준비했다. 그러나 그들의 비밀전쟁계획에서, 그들은 북한과 중국과의 또 다른 전쟁을 승리로 끝내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계획했다. 근해에서 해군과 공군은 핵전략에 대한 지도력을 추구하며 다투었다. 핵전력과 임무의 중복으로 인해 미국은 억제 또는 강제에 이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핵병기고를 동아시아에 구축하게 되었다.²⁷

1950년대에 핵무기의 전진배치는 미국을 공격할지도 모르는 적에 대한 즉각적 또는 일반적 억제만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핵무기에 의해 보강된 태평양과 유럽에서 미국이 군사동맹체계를 세울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억제는 ‘확대된’ 억제—즉 미국의 우방이나 동맹국에 대한 재래식공격 또는 핵공격을 막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공약—to 뜻하게 되었다.²⁸

그러나 동시에 세번째 전략목표가 미 정책입안자들의 핵전력에 대한 요구

에 첨가되었다: ‘재보장’. 한국전쟁과 1958년 대만해협 위기시에 이루어진 핵위협은 강대국의 무력에 회생되는 것을 두려워하던 미 동맹국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동시에 그들은 핵전투를 추구하는 미국의 대량보복교리를 믿을 수 없었으므로 전시에 미국이 자신들을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3장). 그러므로 핵동맹국들의 상반된 두려움과 요구를 재보장하는 것이 1950년대 말 미 국무부의 주요한 긴급사안이었다.

아시아에서의 재보장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리표현은 1955년과 1960년 사이에 일본내의 미 지상핵전력에 대한 대중적 저항으로 인해 공표한 ‘NCN D’(neither confirm nor deny: 확인도 부인도 않는—역주) 정책이다. 그러나 맥나마라(Robert McNamara)가 이끄는 미 군부가 1960년대초에 국무부로부터 재보장 임무를 낚아챘다. 미 동맹국을 재보장하기 위해 그들은 새세대 전역핵무기를 개발하여 배치하였고, 유연반응으로 알려진 NATO에 대한 새로운 핵교리를 명백히 표현했다(4장). 유연반응은 유럽대륙에 미 지상핵무기를 유지함으로써 유럽동맹국을 재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일본은 그 반대의 경우에 해당된다. 커다란 대중적 항의는 1960년 일본으로부터 지상핵무기를 철수하도록 만들었다. 그 후 미국의 전략가들은 남한이나 미 7함대에 있는 미 핵무기로부터 암암리에 일본으로 핵억제를 확대시킴으로써 일본의 엘리트들을 재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한에서는 행정부가 지상핵무기에 대한 어떠한 반대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핵무기의 존재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감 때문에 제기된 딜레마는 해결—심리적 비용은 한국인에게로 넘어가서 이제부터는 한국인들이 부담하게 되었다—되었다.

강성반응

NATO 동맹국의 압력으로 인해, 미 육군은 1970년대초 강제를 위한 핵전투로부터 억제를 위한 핵전투로 마침내 그 교리를 전환시켰다. 그러나 그 변환은 결코 완성되지 않았다. 핵무기를 전장에 적용시키려 하는 고유한 패러독스는 일관성 있는 핵교리를 발전시킬 책임이 있는 전략가들을 패배시켰다.

이 전환은 한반도에 있는 미 핵전력의 배치에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작

은 조정을 이끌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주한 미 육군은 핵전계획을 짜기 위해 마치 1950년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표준운용절차와 주먹구구식 조직규율을 관례적으로 계속 적용시켜왔다.

유연반응교리와 새로운 전력이 변증법적으로 발전된 유럽파는 반대로, 한반도에 있는 육군은 새세대 전술핵무기를 대량보복시기로부터 이어져온 교리상의 유물에 연결시켰다. 간단히 말해서 한반도에서의 핵교리는 강성반응을 제시했다(4장).

강성반응기간을 통해, 워싱턴에 있는 미국관료들은 선택적이고 일관성 없는 방법으로 미 핵정책을 이끄는 두 가지 주요한 역사적 교훈을 끌어내었다. 그들은 핵위협의 효력에 의문을 던지는 경우는 잊어버리거나 무시했고, 그들의 편견을 확고히 하는 사건들만을 회상했다.

핵억제는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것으로 보였다. ‘억제실패’로 해석되는 북한의 도발에 직면하여, 미 지도자들은 일반적 핵위협 추구로부터 즉각적 강제추구로 재빨리 전환했다. 그들이 핵위협으로 북한을 강제하려 했을 때, 그들은 자기의 핵위협이 한국전쟁을 종결시켰다는 덜레스의 신념으로 되돌아갔다. 1976년 판문점에서 미 육군이 대포를 겨누고 있었을 때, 한국전쟁 당시 핵몰백의 주요옹호자였던 맥아더의 망령이 한반도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따라서 강성반응이라는 사실상의 교리는 미국 지도자들이 핵무기로 한국전쟁을 종결시키는 쪽으로 기울도록 만들었다. 위기 속에서, 핵전투 전력과 교리가 억제라는 수사어의 얇은 판자를 뚫고 터져나왔다. 미국 대통령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이든지간에 전력구조 자체는 핵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동일한 전력구조가 북한의 선제공격을 자극함으로써 핵해결을 요구할 수도 있다.

대외적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선취적 선제사용 – 억제나 강제 또는 재보장 중의 어느 것을 위해서 – 을 명령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북한이 항복하도록 혹은 협상에 임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보복적 선제사용은 또 다른 문제이다. 충분히 강력하게 밀면, 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선제사용까지 확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강력해야 강력한 것인가? 핵의 문턱이 어디에 있는지, 결국 또 다른 한국전쟁에 이르게 될 것인

지는 아무도 모른다.

물론 이 문턱을 넘어서더라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보복적 선제사용으로 확전시키기 위하여 남한에 지상핵무기를 들 필요는 없다. 크루즈 미사일이나 근해에 있는 항공모함으로도 핵무기를 똑같이 잘 운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한에 있는 핵무기는 그것이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아니라, 핵전력을 무질서하고 통제불능의 위기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이러한 핵요소는 미국 지도자로 하여금 핵공격을 고려하게 만들 수도 있고, 전쟁지역에 있는 지상핵무기에 대한 통제와 통신의 상실에 직면하게 만들 수도 있다(7장과 12장).

이러한 가능성은 앞서 언급했던 북한과의 1976년 위기에서 미국의 핵공격 가능한 포병부대가 최고경계수준에 놓여 있었을 때 확인되었다.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인 스틸웰 장군은 하와이와 워싱턴에 있는 그의 상관들에게 “나는 모든 통신장비를 들려보았는데 내 사령부 밑으로 통신을 정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보고했다.²⁹ 사실 장군은 진실의 절반만을 말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워싱턴의 국가사령부가 우회하여 자기의 휘하부대와 직접교신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통신을 고의로 그렇게 정렬했던 것이다(4장 참고).

미군철수

한반도에서 호전적 봉쇄정책을 유지하는 조직적 이해의 힘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는, 다시 말하자면 핵 덜레마는 카터 행정부 때에 발생했다.

1976년 남한에서 미 지상군과 핵무기를 철수하겠다는 카터 대통령의 결정은 한국분쟁과 관련하여 핵억제나 강제 또는 재보장을 위해 핵무기를 유지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는 제도들과 즉시 충돌했다. 1976년 8월의 교훈은 모두의 가슴에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 있고, 1976~77년에 미 육군은 재래식 전력을 핵 ‘보험’이라는 비팀목으로 떠받치리라고 굳게 결심하게 되었다. 카터의 결정에 반대하기 위해, 군부는 핵억제와 재보장이라는 두 깃발 아래 미군과 남한군 사령부의 통합과 핵전쟁 계획을 가속시켰다.

남한에서의 미군철수가 일본에 끼치게 될 영향에 대해 걱정하던 국무부는

군부와 선별된 의회내 파벌들과 함께 카터의 정책을 뒤집기 위해 관료적 음모를 꾸몄다(5장). 그들은 미국이 지상군을 철수한다면 비핵산 약속은 지킬 수 없다는 1978년의 남한측 신호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그들의 움직임은 남한에 군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보장’이라는 이론적 근거에 의지하였고 군대주둔에 걸린 조직적 이해를 복돋아주었다.

이러한 책략들은 남한에서의 철수정책에 반대하는 현실정치적·호전적 봉쇄조류를 하나로 묶었다. 비록 철수의 이론적 근거와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지만, 그들은 카터의 정책 속으로 훌려들어간 삼각체계적·고립주의적 조류의 일방적인 ‘치고 달리기’ 정책을 패퇴시키기 위해 전력을 모았다. 남한내의 친미 엘리트, 미 육군, 국무부 그리고 의회를 망라한 연합세력은 카터를 압도했고, 군대와 핵무기가 남한에 주둔하도록 보장했다.

전투로의 전환

를백은 1981년 레이건이 백악관에 들어왔을 때 다시 세력을 얻게 되었다. 레이건 행정부는 포드와 카터 행정부보다 더 한반도에서의 핵전략을 강조했다. 군부는 핵전력을 자랑스럽게 격상·배치·훈련시켰다. 국무부는 말로만 ‘닥달했다’. 1980년대 중반까지 남한에서의 미 핵전력은 그 조직적·물리적 하부구조가 확대되었다(6장).

남한에서의 핵확산 진행과정은 오로지 미 육군이 한반도에 깊은 뿌리를 두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남한에 육군이 전진배치되지 않았다면, 미국은 남한에 지상핵무기를 유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1975년 육군에 대한 한 보고서는 “약간의 지상군이라도 유지되지 않는다면 남한에는 핵무기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진술했다.³⁰

전략적 목표에 관한 토론을 위협하는 것은 핵전쟁에 대한 육군의 작전교리, 표준운용절차와 주먹구구식 방식이다. 따라서 육군 자체는 한국사회의 명백하고 격렬한 잠재력과 한반도에 집중된 지정학적 단층선과는 구별되는 존재로서, 핵확산 방정식에서 중요한 독립변수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한에 있는 미 핵전력의 무질서한 구조와 모순된 작전특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

가 필요하다(6, 7장).

남한에 있는 미 핵전력은 단일한 존재가 아니다. 미 육군은 핵전략을 수행하는 데 남한군을 직접적으로 통합시켰다(7장). 이러한 결합은 남한에 남아 있는 조직적 이해를 위해 의지할 대상을 찾아온 미 육군이 후배인 남한군에 광범위하게 침투한 것을 반영한다. 그것은 또한 남한의 핵확산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억제하는 모순된 전략이다. 최근에 그것은 핵전략의 정당성에 대한 남한대중의 논쟁을 유발시킴으로써 국무부의 정치적 두통거리가 되고 있다.

봉쇄론자들은 그들의 성향이 호전적이든 현실정치적이든간에, 북한에 대한 핵위협의 영향을 조사할 때 자신이 만든 거울로 된 방에 빠지게 된다(8, 9장). 그들은 억제, 강제, 재보장을 다양하게 그리고 때로는 일관성 없게 추구하는 것이 남북한에서 비합리적인 또는 예기치 않은 반작용을 불러일으키리란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거부한다.

특히 그들이 구속받지 않고 핵강제 외교를 추구한 결과, 한반도에서의 재래식 억제는 심하게 동요되었다. 북한은 1976년 이후 자체적으로 공세적 전력을 대규모로 증강함으로써 미 핵위협의 확대에 대응하였다. 남한과 미국은 이미 그 이상의 전력을 확보하고 있고, 북한에 앞서 새로운 강도와 화력을 갖는 무기를 도입했다.

북한을 강제하거나 억제하려던 의도와는 달리 핵위협은 편집광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반응은 당연히 미국인들에게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양에서 남쪽을 보는 관점은 서울에서 북쪽을 보는 관점과는 매우 다르다(8장).

분명 북한이 미국의 핵위협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그 영향은 다양한 자표—북한사람들, 선전, 군사태세, 전력구조와 구성, 교리, 훈련, 미국의 지시에 대한 수락과 도전행위, 이전 동맹국들을 향한 태도 등—로부터 끌어낼 수 있다. 북한 지도자들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그들의 정치적 사고의 폐쇄성 때문에 그들의 ‘진짜’ 의도를 확실히 알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억제나 강제의 존재여부는(실패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이 남한에 대해 공격적인 목표를 추구하는지 아니면 방어적인 목표를 추구하는지에 달려 있다. 북한이 핵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공세적 억제를 채택한 것에서 그 좋은 예를 볼 수 있다. 이 전략은 1950년 여름 남한의 공격이 임박

한 것으로 인식하고 선제공격했던 북한의 행동을 상기시킨다. 이것은 비무장지대에서 남한 및 미국과의 교착전, 군 소리지르기 대결(military shouting match), 대치상태를 놓았는데, 그 규모는 놀라울 정도였을 뿐만 아니라 끔찍한 폭력의 잠재력 또한 지니고 있었다(10장).

만약 북한이 즉시 침략할 의도가 없다면 핵위협이 즉각적으로 북한을 억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전혀 공격할 의도가 없다면 핵무기는 일반적 억제와 무관하게 될 것이다. 불행히도 핵위협은 평양측이 미국과 남한에 의한 핵공격이 임박하다고 인식하고 선제공격을 하도록 북한에게 강력한 군사적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핵위협은 가상적인 북한의 공격에 대한 재래식 군사력 억제를 침식할 수도 있다.

화약고

기습공격에 대한 상호 두려움이 한반도에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재래식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너무도 많다. 남북한간의 재래식 전쟁은 핵전쟁으로 가는 제1보가 될 수도 있다(11장).

남북 적대관계는 남한에 대한 호의적인 경향이 종종 북한에게는 두려운 퇴보로 해석되고 그 반대로 마찬가지라는 것을 확신시켜준다. 그 결과 북한은 두 개의 한국이 동북아시아 냉전의 당사자임을 확고히 하면서, 소련을 포섭하였다. 따라서 1978년 이후 미국이 중국쪽으로 기운 것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감소시키기는커녕 한반도에서 초강대국의 경쟁을 증가시켰다. 남북한은 강대국의 변화로 만들어진 기회를 열심히 이용하는 한편, 그 변화로 야기되는 위협의 증가를 두려워하기도 한다.

이런 집합적인 내외적 요소 때문에, 한반도는 나누어진 채 적대적인 관계로 남게 된다. 긴장완화는커녕 남한은 북한에 대해 여전히 호전적이며 또 북한의 의도에 대해 두려움과 의심을 품고 있다. 서울의 국가안보 엘리트들은 한편으로는 북에 대한 위협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미군이 한반도에 남아 있을 것이라는 미국의 보장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 중국과 소련과의 접촉을 포함한 국제환경의 호의적인 흐름으

로 인해 서울의 국가안보 엘리트들은 북한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더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은 뼈이징이 북한의 남침을 막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남한에게 주었다.

서태평양 주둔 미 해군이 주도하는 미국의 반소 군사행동은 역설적이게도 남한에 대해 기회뿐만 아니라 함정이 되어왔다. 북한의 고립과 소련에 대한 레이건 행정부의 압력을 이 두 동맹국을 더 친밀하게 만들어, 북한과 소련의 결합위협을 증가시켰고 서울측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새로운 요인을 만들어 냈다. 아직까지는 유럽에서의 긴장완화가 김일성에 대한 소련의 지원을 줄이도록 동기를 부여하게 될 일소간의 커다란 난국타개로 이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최근의 중소화해는 남한에게 평양이 이름뿐인 동맹국이었던 중국과 소련의 지원에 의지했던 1950년을 상기시킨다. 남북한은 1980년대초의 간단한 공식적·비공식적 접촉 후에도 여전히 끊임없는 전쟁상태에 있다.

전쟁시 미국의 핵무기는 핵저장소, 지휘소, 통신망 그리고 수송체계와 수송부대를 타격하려는 북한의 노력으로 커다란 폭력의 폭풍 속으로 사라져버릴 수 있다. 미 사령관들은 핵으로 무장된 분대와의 통신을 상실할 수 있다. 더 나쁜 경우 그들은 북한의 매복이나 남한의 반란으로 핵무기 통제를 상실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핵무기는 허가 없이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의 선제사용은 북한의 전력에 타격을 가하거나 북한이 전쟁을 끝마치도록 강요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7, 11장).

한반도에서 미국의 정책—특히 핵전략—은 남북긴장을 줄이기는커녕 지속되는 지역갈등 속에 파멸적인 세계대전의 씨앗을 뿌려왔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최근 외교접촉이 이러한 가능성을 없애지는 않는다. 1988년 12월과 1989년 1월 북한의 사주로 뼈이징에서 이루어진 북한관리들과의 만남은, 좀 더 국제주의적인 조류를 따르는 위성된의 관리들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지는 군사적 통로 이외의 접촉에 개방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만남은 어느 편도 통과하고 싶어하지 않는 문을 열었다. 회담은 한반도에서의 적대감 완화보다는 외부의 압력 속에 있는 평양의 절망과 분열을 드러내었다.³¹ 그 동안에도 남북한은 상호비방을 멈추지 않았고 정치적·군사적 이익을 놓고 다투었다.

핵으로 무장한 세 강대국은 그들의 군대를 뒤섞으며 한반도 주변에서 항

상 기동훈련을 해왔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으로 벌어질 고의적 또는 무의식적인 확전 잠재력은 무시될 수 없다(12장). 한반도에서 미국의 선제사용은 근해에서 일어나는 강대국들의 충격전이나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 일어나는 미중소의 3자대치로 번질 수 있다. 이러한 확전 잠재력은 북태평양에서 초강대국 해군이 핵군비경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핵 및 재래식 군비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중거리핵전력(INF) 협정과 고르바초프의 제안결과로 이루어진 국제주의적인 정책조류에 의해 유럽에서 철의 장막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태평양에서는 도발적인 미국과 그 동맹국의 해군·공군 훈련—1989년의 패세스(Pacex) 훈련—이 계속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 자리잡은 미소 국가 안보기구는 거의 아무런 예고 없이 적대감으로 확 타오를 수 있는 역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고의에서건 부주의에서건, 중소에 대한 안보 완충국인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은 세 강대국을 전세계적 규모의 핵화재 속에서 소멸시켜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의 현상황은 비정상적으로 위험하다. 랜드(Rand) 연구소의 분석가 울프(Charles Wolf)가 1964년에 쓴 것처럼, 주한미군은 핵 '트립와이어이자 화약고'이다.³²

핵확산 잠재력

핵억제나 핵강제를 위한 핵전력에 대한 과거의 강조로 인해, 남한측의 많은 안보 엘리트들은 북한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확대된 억제를 철수시키겠다는 미국의 위협이 서울로 하여금 이런 추세를 포기하도록 강제할 때까지, 남한은 국산 핵무기 개발을 주저 없이 추구했었다. 더구나 그들은 유사 핵선택권을 계속 축적했고 핵확산과 관련된 그들의 다양한 속임수가 드러났다(13장). 확실히 핵억제와 강제를 과장하는 것은 도에 지나친 제보장을 제공할 수가 있다.

남한 지도자들은 그들의 잠재적 핵포부를 포기시키기 위해 미국이 이용했던 핵무기의 효용에 대한 '과시효과'의 영향을 너무 오랫동안 받아왔다. 동

아시아의 강대국이 되려는 남한의 모색은 이 경향을 강화시킨다. 북한이 그들에게 미미한 평정거리라도 준다면, 미국은 남한이 좀더 핵역량을 습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 결과 한반도는 불길한 확산 잠재력과 무의식적인 확전 잠재력을 결합시키게 된다(14장).

최근 한반도에서 미 핵억제 전략에 의해 제기된 위험은 미국으로 하여금 시급히 정책을 바꾸도록 했다.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철수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고도 중요한 즉각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북한을 겨냥하여 남한이나 그 근해에 미군이 계속 주둔한다면 여전히 미국을 핵전력이 포함되는 전쟁으로 이끌 수 있다.

따라서 조급한 미국의 철수—한반도 분쟁에 대한 정치적·군사적 해결을 먼저 확실히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출발—는 뒤에 중무장한 적들을 남길 것이다. 만약 미국이 1976년에 카터 대통령이 시도했던 것처럼 단순히 플러그를 빼기만 한다면, 남한을 억제시키는 미국의 영향력은 사라질 것이다. 만약 미국이 철수한 후에 남북한이 서로의 목덜미로 달려든다면 강대국들이 전쟁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가 중국과 소련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전투를 위해 미국이 의존하는 주일기지에 한반도가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쟁은 확전될 내적 경향을 지니고 있다.

더구나 일방적인 미국의 철수는 남북한 중의 하나 또는 남북한 모두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촉진시킬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핵확산은 전세계적 비핵산체제만을 잠식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남북한 모두에게 잠재적으로 확대되는 핵분쟁을 일으키면서 다른 편을 선제공격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멀어지든, 한반도에 주둔하든지간에 핵전쟁의 위험에 처해 있다(15장).

한반도의 군비축소

그런 전쟁의 잠재적 비용을 고려할 때, 한반도에 대한 미 정책의 전제를 재고·재형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만약 미국이 정책전환에 실패한다면 한반도에서의 대치상태는 더 심해질 것이다. 만약 그것이 교착상태로 굳어진다

면—그리고 모든 요소들이 들어맞는다면—전쟁은 빨발할 수 있다. 그 경우에 미국의 ‘트립와이어’는 태평양의 화약고에 대한 핵도화선을 한반도에서 점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취해야 될 정책조치는 분명하다: 한반도에서의 공세적 군사력 상호감축의 일환으로 한반도를 비핵화한다; 남한의 관료적 권위주의 정부, 북한의 왕조적·스탈린주의적 조합주의 정부의 해체와 민주화를 돋는다; 북한을 승인하여 외교적으로 보증한다; 한반도를 강대국 문제에서 분리시키는 한편 한반도가 강대국의 완충국으로 기능하도록 중립화를 추구한다(15장).

불행히도 북한은 소련국경에 불어닥친 반(反)스탈린 글라스노스트 강풍에 의해 정치적으로 자유화되거나 개방되도록 고무받지 않을 것이다. 10년간에 걸친 균대화 이후에 폭발된 중국의 정치적 불안정은 평양의 외국인 공포심과 전제주의를 강화시킬 것이다.

미국의 관료적 이해집단은 미국의 대한정책이 극적으로 분해되는 상황에 직면해서도 별로 나은 정조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무장 외교는 카터의 철수정책을 폐퇴시키고, 동북아시아의 제2차 냉전을 예고했다. 이런 기후 속에서 1980년 이래 레이건 행정부의 블랙주의자들, 남아 있는 강경한 봉쇄론자들과 이들을 환영하는 남한측 상대자들은 북한의 모든 대화제의—한국인들이 미 국무부 소관이라고 판단한 것들을 포함하여—를 일축해버렸다.

유럽과 동아시아의 냉전을 녹여왔던 온난한 정치·경제적 기류(페이징의 대학살이 해동을 정지시키기 전까지)도 한반도의 빙하를 녹이지는 못했다. 올림픽 이후 북한에 대한 남한과 미국의 제한적인 교섭제안이 겨우 그 표면만을 녹였을 뿐이다. 1972년 이후의 박정희처럼 남한 대통령 노태우는 이 접촉을 평양과의 공동관심사를 찾기보다는, 서울정권의 내부 반대자들을 책략으로 이기기 위해 이용했다. 다른 한편 북한이 선수를 치는 것은, 빙하를 움직일 주요돌파구를 찾기보다는 서울정권이 정치적으로 어려워지도록 이용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남한육군과의 독특한 관계를 갈망하는 미군이나 일본에 대한 영향력을 보호하려는 국무부가 한반도에 걸고 있는 조직적 이해를 부시 행정부가 뒤엎어버릴 것이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 백악관(부시), 서울

(그레그), 그리고 빼이징(릴리)의 미 대사관에 있는 중앙정보국 출신 인사들을 미루어 볼 때, 정조는 순조로워 보인다. 얼핏 보면 해외 군사공약의 축소에 대한 강력한 미국내 요구에 의해 그들이 한반도에서 결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강화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미군이欲싸게 유지될 수 있는) 남한으로부터 군대를 철수하기 전에 유럽에서 (欲비싼) 군대를 철수함으로써 미 국방예산 삭감압력에 대응할 것 같다.³³

만약 (의회의 압력에 의해) 미군이 철수한다면, 공화당의 성미로 보아 재래식 군대를 ‘대체하기 위하여’ 핵위협을 더 강조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1989년 8월 주한미군 사령관 메네트리 장군(Gen. Louis Menetrey)은 남한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자립할 수 있을 것이나 잔류 미군이 ‘상징적인’ (즉 핵억제) 이유로 남한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³⁴

일본인들이 앞서 그랬던 것처럼 남한사람들도 한반도에 미군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인해 부시 대통령은 핵무기 철수는 고사하고, 그의 외교정책 의제에서 한반도를 높은 비중으로 다를 것 같지도 않다.

깨어진 합의

따라서 변화 가능성을 지닌 장소는 남한이다. 사실상 한반도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데 가장 강력한 힘은 남한의 대중적 저항이다(16장).

남한군과는 달리 대부분의 남한사람들은 핵협력자가 아니다. 실제로 남한사람들의 정치적 저항은 한반도에서의 미 핵전략과 충돌하는, 따라서 미 육군과 남한 군사동맹의 이해와 충돌하는 민족주의적인 의제에 의해 주도된다.

핵무기의 존재는 서울정권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신임을 공격하기 위해 비판세력이 이용하는 유력한 무기가 된다. 최근까지 남한에서는 탄공 이데올로기가 핵전략을 충분히 합법화시켜왔고, 그 이데올로기가 순종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탄압이 그 이데올로기를 보완했다. 이제는 탄공합의가 크게 깨졌기 때문에, 핵전략은 더 이상 이념적 지주가 없는 셈이다.

밀으로부터의 강한 압력 아래서, 남한정부는 과격한 저항자들의 반핵주장을 참식하기 위해 남한에 있는 미 핵무기와 북한의 공세적 무기감축을 '거래하려' 할 수 있다. 미국의 동의를 가정한 핵철수 전략은 남한정권이 남한에 미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미 본토에 미군을 재배치하는 것보다 남한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 비용이 싸기 때문에, 미 국가안보 당국은 북한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이 지역에 대한 개입을 위해서 미군의 주둔을 원하고 있다. 엘리트 저항자들은 군대의 철수와 핵을 분리하려는 이 전략을 거의 확실히 수용할 것이다.

물론 이런 행동의 경로에 대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를 들면 미 육군은 남한정부에 대한 영향력이 남한군에 대한 작전통제로부터 유래한다고 평가한다. 미국이 남한에 핵무기를 유지하지 않는데도 남한군이 미군에게 계속 이러한 지위를 누리도록 허락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 핵무기 철수는 미 육군의 최고 지휘권에 대한 근거를 잘라내는 것이므로, 남한에서의 미 육군의 조직적 이해를 크게 위협한다. 미 핵무기의 철수로 인해 지휘 관계에 중대한 수정이 있을 것이고, 미국과 남한이 지난 조직적 이해의 상대적 지위와 힘이 조정될 것이다. 이 모든 조직적 장애는 핵무기가 철수되기 전에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남한의 강경파들은 평양에 대해 핵무기 철수의 대가로 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정치적 양보를 요구함으로써 그들과의 회담을 사보타지할 수 있다. 이 전술은 실패의 책임을 북에 전가하면서, 미 육군과 남한군에 있는 서울측 지지자들을 만족시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보면 낙관적일 수 있다. 비록 최종결과가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정치적 저항은 미국이 남한의 지상핵전력을 제거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이 제거는 남한에서 미국을 위한 핵무기로 인해 유발되는 정치적 두통거리를 덜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남한이 공식적으로 지상핵무기 제거요청을 한다면 미 육군에 구애되지 않고 이에 응하게 될 것이다. 그 때 남한에서의 핵책임은 1960년 일본에서처럼 발빠른 미 해군에게 떨어질 것이다.

남한에 있는 반핵 저항자들은 미국이 전략적 사고로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른 역사적 교훈을 따른다. 그들은 핵무기를 사용한 전투나 심리

전이 아니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피폭당한 한국인들의 경험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들은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모습을 주의깊게 살펴보면서 남한에서 핵무기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한반도를 뒤덮게 될 미래를 보게 된다. 이러한 설득력 있는 저항이 핵무기와 군대를 쫓아내고 한반도가 평화적인 협상, 군축, 정치적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할지도 모른다.

원폭희생자

남한에서의 평화운동은 과거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핵문제와 민주주의 문제를 통합한 광범위한 사회·정치적 저항의 일부이다. 1950년대의 핵동맹에 대한 일본의 강한 반감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경험에 주로 근거한 반군시주의적·평화주의적 감정을 이끌었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는 평화주의와 국제주의보다는 민주적인 재통일과 민족주의의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정치적 교훈은 일본인 피폭자(hibakusha)와 유사하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뼈까돈(pikaton: 원자폭탄) 또는 '섬광탄'으로부터 살아 남은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충격적인 삶은 한국인들과 전세계인들에게 한반도에서의 핵전략이 예고하는 운명에 대한 생생한 증거가 되고 있다(17장).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제2차대전의 십자포화 속에 사로잡혔던, 눈에 띄지 않는 이 한국인들의 서사적 삶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³⁵

처음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강대국의 제단에 희생양이 되었던 원폭 피해자들은 미국이 그들의 삶을 파괴했던 무기를 한반도로 도입하는 것을 보았다. 많은 원폭피해자들은 결국 핵전략이 태평양 화약고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한반도 밖으로 핵무기를 내몰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들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전략을 유도했다는 2차대전과 한국전쟁이 주는 두 가지 역사적 교훈—핵무기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사용될 수 있고, 핵위협은 적을 강제·억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을 거부한다. 그들은 다른 교훈—핵전쟁의 잠재적 비용은 무한하기 때문에 생존자들조차 견디기 힘들다—을 끌어낸다. 그들은 알아야만 했다.

제 1부
공포의 증폭

제1장 역사적 교훈

공산주의자들이 모든 중요한 조치들을 명령하도록 해서는 절대 안된다. 우리들이 유화자세로 나가기에는 유엔사령부의 전술적 입장이 너무 강하다. 시간은 우리들에게 유리하다.

1951. 9. 26

우리는 군사적으로 막다른 골목에서 협상하고 있다.

1952. 2. 14

-터너 조이 제독(Adm. C. Turner Joy), 미 협상대표, 판문점¹

한민족의 운명은 핵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핵지정학과 얹혀 있었다. 이 장은 2차대전과 한국전쟁의 혹독한 경험을 통해 형성된 두 가지 역사적 교훈—미 핵전략에 중심이 되는 교훈—을 개괄한다.

일본에 원폭을 투하하고 나서 미 전략가들이 얻어낸 첫번째 역사적 교훈은 핵무기가 지정학적 목표를 성취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을 점령해서 38선으로 나누기로 한 미국의 결정은 1945년 원자탄을 사용하기로 한 결정에서 직접 나왔다. 전쟁종결을 앞당기고 극동에서의 소련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원자탄 사용은 한국분단을 수반했다. 알타와 포츠담에서 한국의 신탁통치로 표현되었던 국제주의적인 감정은 실패할 운명이었고, 그것은 실질적인 봉쇄정책의 초기 출현을 가져왔다.

이 장에서는 또한 두번째 역사적 교훈은 한국전쟁중에 싸우면서 얻어졌음을 증명한다. 미국의 주요 정책입안자들은 핵위협을 사용했기 때문에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전쟁이 종결됐다고 믿었다.

이 두 경우에서 역사적 교훈은 종종 모순이나 잘못된 추론으로 윤색되어 왔다:

전략폭격의 수단으로부터

미 핵전략에 대해 2차대전이 주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교훈은 전략폭격의 역할과 전쟁시 핵무기의 효율성에 관한 심사숙고에서 비롯되었다.

제2차대전은 양측 모두에서 고삐가 풀려 전례 없이 격양된 폭력을 통해 일본에서 끝났다. 1945년 3월 10일 도쿄에 대한 대규모 공습에서 르 메이 장군(Gen. Curtis Le May)이 이끄는 폭격기들은 소이탄으로 인구밀집 지역인 도쿄를 화염에 휩싸이게 했다. 40평방킬로미터가 그날 밤 불탔고 8만 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화염 속에 갇혀 불타 죽었다.² 일본의 도시들을 집중폭격함으로써 미국이 행했던 비인간적인 폭력은 일본군의 개인적인 잔인함—가미 가제 폭격분대에서 가장 발전된—에 필적하는 것이었다. 전쟁은 흐느낌으로 끝나지 않고 거대한 음향을 남겼다. 다우어(John Dower)가 말한 것처럼 그것은 무자비한 전쟁이었다.³

모든 미국인들이 민간인 표적을 소이탄으로 불태우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한 것은 아니다. 1945년 1월 중순까지 전략폭격의 지휘자였던 헤이우드 한셀 준장(Brig. Gen. Haywood Hansell)은 부도덕한 것이라고 그것을 반대했다. 많은 냉소자들은 군사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 전략을 부도덕보다 더 나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한셀 같은 회의론자들이 밀려나고 르 메이 장군이 이끄는 전략폭격 지지자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르 메이는 전략폭격이 태평양전쟁 종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1945년 4월에 쓴 것처럼, “일본에 대한 공중전 발전의 현단계는 육군 항공대에게 전략적 공군무기의 위력을 최초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⁴ 그 결과 르 메이는 5월에서 8월까지 58개의 일본도시를 폭격했다.⁵

일본에 대한 전쟁이 핵무기의 사용으로까지 확전된 것은 도덕적 또는 군사적 비약이 아니었다. 군부는 핵무기를 사실상 다른 무기와 마찬가지인 살상무기로 간주했다. 유일한 문제는 그것이 언제, 어디서 다시 사용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왜, 또는 어떻게일까 하는 것이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결정에 이를 전략폭격은 민간인 살상에 대한 미

군의 윤리적 제한을 깨뜨렸다. 르 메이 휘하의 선임 공군장교들은 여자와 아이들이 본토 국민군으로 정집되었기 때문에 일본국민 전체가 군사적 목표라고 믿었다.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때, 일본에 민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람은 썼다.⁶ 따라서 공군은 나쁜 날씨로 인해 군사표적에 대한 정밀조준폭격이 불가능할 때마다, 즉 거의 대부분의 출격에서 지역표적 폭탄을 투하했다. 여객용 기차에 대한 맹폭격은 각광받던 또 다른 전술이었다.⁷

그러므로 첫번째 역사적 교훈은 본질적으로 전략적이었고 주로 군사분야에 속했다: 전략폭격으로 완승을 거둘 수 있다. 이 교훈과 밀접히 관련된 전술적 교훈이 있다: 공장이나 수송체계와 같은 군 하부구조나 군대와 같은 군사적 표적만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당연히 표적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만 한다. 간단히 말해서 핵전투는 수단이었고 승리가 핵전략의 목적이었다.

지정학적 ‘목적’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폭격의 일차적 동기가 일본과의 전쟁을 결정적으로 끝내려 한 것이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⁸ 비인도적인 적으로 여겨지는 일본에 대해 비인도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갑작스런 핵무기 사용은 핵무기가 지닌 좀더 광범위한 지정학적 함의에 의해 자극을 받았다.

1945년 7월 16일 엘러모고도(Alamogordo)에서 행해진 최초의 핵실험으로 인해 트루만의 보좌관들은 트루만에게 소련의 대일전 개입을 저지·지연시키도록 압력을 가하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동유럽에서 소련이 했던 것처럼 그들도 극동에서 소련의 영향권을 먼저 차지하려 하였다. 미 육군장관 이던 스팀슨(Henry Stimson)은 그 전까지만 해도 원자폭탄을 미 외교를 반쳐줄 ‘약한 갈대’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단 핵실험이 이루어진 이후로는 스팀슨에게 그 폭탄은 ‘어마어마한 현실’로 보였다.⁹

트루만 대통령과 국무장관 번즈(James F. Byrnes)는 극동에서 소련의 전후 영향권 한계를 협상하기보다는 미국의 힘을 일방적으로 내세움으로써 소련세력을 억제하는 쪽을 선택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원자폭탄을 소련

보다 미국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일본이 전쟁을 끝내도록 강제할 수 있는, 미 국이 지닌 비장의 카드로 보았던 것이다.

1945년 8월 11일 미국은 동맹국과 상의 없이 이러한 목적에 따라 일본의 항복에 대해 일반명령을 공포했다. 어느 군대가 일본의 항복을 접수할 것인가를 밀함으로써, 미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의 국경선 확정에 관한 우선권을 주장했다.¹⁰ 미국은 일본본토뿐만 아니라 일본군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특권을 자국을 위해 보류해두었다. 이런 지정학적 욕구에 의해 미국은 한반도에서 북위 38도선을 미소 점령군 사이의 분계선으로 설정했다. 1945년 8월 14일 대통령은 군이 한국을 분할하는 것을 허가했다.¹¹

한국인에게, 2차대전 막바지의 미국전략은 그들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폭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가 지정학적 결과로 분단됨을 의미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 이후 핵전쟁의 그림자 밑에서 살게 되었다. 불과 5년 후에 한국에서 벌어진 내전과 거대한 외부세력의 개입이라는 혹독한 시련을 향해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러나 미국의 안보 엘리트들에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의미는 명백했다. 핵전투는 만주에 대한 중국의 주권 및 국민당정부에 대한 소련의 지지 획득, 미국 단독으로 일본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승인, 그리고 한국내의 발판 마련이라는 미국의 기본적인 목적을 현실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¹² 전략폭격이 전쟁을 끝냈고 핵공격이 가장 효과적인 형태의 전략폭격이라는 견해 외에도, 미국은 핵무기가 전략적 거부라는 지정학적 정책을 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10년내에 그 전략은 봉쇄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미국의 호수

그 전의 연구에서, 나의 공저자와 나는 태평양이 오랫동안 ‘미국의 호수’(American Lake) — 그 지역에 대해 미 해군이 사용하는 용어 — 였고 또 현재 까지도 그러하다는 것을 제시했다.¹³ 1945년부터 1949년까지, 미국은 태평양을 지배했다. 미국은 동맹국과 상의 없이 일본에 핵무기를 투하했다. 미국은

일본·필리핀·남한 그리고 태평양의 섬들을 점령해서 군 포고령으로 지배했다. 그 직후 미국은 이 태평양 환초에서 섬주민들을 내쫓거나 방사선에 노출시키면서 다수의 핵무기를 실험했다.

그러나 미국의 세력은 이미 기울고 있었다. 각 군은 놀라운 속도의 동원 해제를 겪었다. 일반적인 불안은 충격의 해였던 1949년에 더 심해졌다. 중국을 중국 공산당에게 뺏겼고, 1945년 이후 중국에 공수되었던 5만 명의 미해병은 쫓겨났다. 소련의 원자폭탄은 미국의 첨보기관이 예견했던 것보다 몇 년 앞서 폭발했다. 스탈린과 몰로토프는 미국의 핵위협으로 위축되기는커녕 독자적 핵무기로 미 핵무기와 경쟁했다. 핵무기는 유럽에서 소련의 행동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예상보다 쓸모가 없었음이 밝혀졌고, 그 반면 아시아-태평양에서 연합한 중소불록의 전망은 미국에게 불길하게 보였다. 각 군은 위축된 군예산을 들려싸고 싸우는 한편 핵전쟁에서의 역할 주도권을 놓고 경쟁했다. 미국은 군사력, 특히 핵무기와 태평양에서의 장래의 위치를 연결 시킬 수 있는 뚜렷한 전략을 수립하지 못했다.

현실정치로부터

따라서 최고수준의 미 전략가들은 몹시도 자랑스러워 했던 핵무기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핵무기가 맡고 있는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역할에 관해서 크지만 비밀스런 논쟁이 진행되었다.

1947년부터 1950년까지 미 국무부의 정책기획단장이었던 케난은 정치적 목적이 군사전략을 지배한다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관을 믿고 있었다. 케난은 미국이 모든 유형의 군사력에서 소련과 동등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대신에 그는 미국이 소련의 약점에 대해 자신의 강점으로 맞서면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사활적 이익만을 선택하고 보호해야 한다. 2차적이거나 주변적인 이익은 필요하다면 희생되어야 한다.

더욱이 케난은 미국이 교묘한 회유와 위협(carrot-and-stick)외교를 통해 소련을 국제적 현상유지의 틀에 가두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기민한 미 외교정책으로 중소불록을 균열시키고 소련을 국제무대로 끌어내려 한 것

이다. 비록 케난이 봉쇄전략을 강력한 정책조류로 끌어올리는 글을 쓰기는 했지만, 그는 여전히 루즈벨트류의 국제주의적 정책의 지지자로 남아 있었다.

이런 현실정치적 시각으로부터 핵무기의 역할에 대한 그의 뚜렷한 관점이 나왔다. 핵무기는 미국에 대한 핵공격을 억제하는 데만 유용하다고 보는 케난의 견해에 따르면 외교수단에서 핵무기가 차지할 자리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핵무기를 재래식 군대—특히 유럽에서—와 분리시킬 것을 요구하며, 미국에서 핵무기 선제사용 금지정책의 초기 지지자가 되었다.

케난은 미 국무장관인 애치슨(Dean Acheson)에게 미국은 핵무기에 관한 한 1950년 1월에 갈림길에 서 있다고 충고했다. 그는 “우리는 핵무기가 미래의 전쟁수행에 필수적이며, 그것이 없는 우리의 전쟁계획은 유약하고 비효과적이며, 또한 관련된 모든 도덕적 요소들과 기타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큰 군사분쟁이 출현한다면 주저 없이 곧장 투입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기술했다.

그는 계속해서 “혹은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기본적인 군사태세에는 불필요하지만 적이 그것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군사계획이 그것에 의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¹⁴

그는 “핵무기는 서구문명의 경계를 넘어 아시아인들이 한때 익숙해 있던 전쟁개념과 이어진다. 그것은 적의 삶의 파괴보다는 형성을 지향하는 정치적 목적과 조화될 수 없다.”고 서술했다.¹⁵

그는 핵무기를 적의 행동의 형성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파괴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애치슨에게 그것에 중요성을 부여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같은 논리로 그는 애치슨에게 미국은 수소폭탄의 개발에 대해 소련과 통제협상을 해야 하며, 미국은 핵무기를 최소한으로 소유하고 그것을 국제정치 밖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나 애치슨은 의회와 군부의 대다수가 핵무기의 잠재적인 힘을 현실적인 영향력으로 전환시키면서 부딪치게 될 모든 정치적·군사적·도덕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강대국 지위의 관문이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무시했다. (핵무기가 그 관문이 되는) 군사적 우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러한 지지자들에게는 유화정책이나 마찬가지였다.¹⁶

이데올로기적 요구로

1950년 4월 케난의 후임자인 니체가 입안한 유명한 국가안전보장회의 각서 68호(NSC 68)에서 케난의 봉쇄정책은 현실정치로부터 반공주의자의 호전적인 이념으로 변형되었다.

케난은 미국이 지나친 확장을 피하기 위하여 소련과 선택적인 약속을 하는 과정을 봉쇄로 본 반면 니체는 봉쇄를 ‘소련의 공격’에 대비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공약으로 만들었다. 군사력을 선별적으로, 또 경제적인 사활이 걸린 이익에만 사용하는 케난의 전략과는 달리, 니체는 우선순위를 구별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미국의 이익이 분할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이 도전받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할 준비를 해야만 했다.

케난은 소련과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간의 차이를 이용할 수 있는 틈을 보았지만, 니체는 크레믈린이 통제하는 단일한 전세계적인 규모의 공산주의 운동만을 보았다. 케난이 어떤 이념적인 가식도 없는 미 외교정책을 선호한 반면 니체의 NSC 68호는 “자유와 정의에 기초한 체계를 지닌 국가들 사이의 평화와 질서로 향한 길을 비추어줄” 정책을 제안했다.

NSC 68호는 “오직 확실한 승리는 자유세계의 도덕적·물질적 힘을 지속적으로 발달시켜, 소련의 체제내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그것을 소련세계에 특영시킴으로써 크레믈린의 구상을 위축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¹⁷

케난과 니체는 또한 효과적인 전략수단으로서의 군사력의 지위에 대해서도 견해를 달리하였다. 케난이 주로 외교적·경제적인 도구로 동맹국과 소련 엘리트에게 심리적 영향을 끼침으로써 소련에 맞서려고 한 반면, 강경론자들은 군사력이야말로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주요한 방법이라고 보았다.

케난과 반대로 니체는 “소련이 지닌 전쟁 수행력의 사활적 요소를 파괴하기 위한 공세적 작전을 수행하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완전한 공격력을 보유할 수 있을 때까지 적의 균형을 깨뜨리기 위하여” “강력한 핵타격”이 없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¹⁸

결국 NSC 68호는 수소폭탄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의했는데, 이는 공개실험, 더 나아가서 배치를 의미했다. 니체는 비록 핵위협이 1945년

이래로 소련의 모험주의를 억제하지는 못했지만, 수소폭탄은 워싱턴에서 호전적 봉쇄를 촉진시키는 정책조류에 대해 광범위하면서도 아직까지 이용된 적이 없는 잠재적인 억제력의 비축을 보증한다고 주장했다.

대중이 군 예산삭감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미 전세계의 대양과 광범위한 군도에 걸쳐 기지가 배치되어 있는 미군은 이러한 세계주의 전략을 지원할 수가 없게 되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호전적 강경론자들은 그들의 계획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은 또한 미 전략가들이 핵무기의 효용에 관한 첫번째 역사적 교훈을 개선하도록 이끌었다. 새로운 전쟁에 옛날의 교훈을 적용시킨 경험을 통해 전적으로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되었다.

핵전투로부터

군부는 한국전쟁을 핵전투를 실험할 실물크기의 실험실로 간주했다. 동경의 국동사령부를 위해 일했던 존스 흉킨스 대학 연구팀은 1951년 3월 당시 주한유엔군 사령관인 맥아더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한국전쟁은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자폭탄을 전술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아주 좋은 연구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전쟁은 원자폭탄과 그 수송수단을 제외한 모든 것이 가장 현실적인 비율로 갖추어져 있는 일종의 실험실로 간주될 수 있다.¹⁹

그 연구는 결코 학술적인 것이 아니었다. 히키 장군(Gen. Doyle Hickey)은 “본부에서는 핵무기가 이용될 경우에 대비해 국동사령부를 공격적·방어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지시되는 행동을 취할 목적으로 그 보고서에 대해서 계속 연구중이다.”라고 전술했다.²⁰ 전쟁과정을 재검토한 후에 존스 흉킨스 연구팀은 맥아더 장군에게 핵공격을 위한 “시의적절한 커다란 표적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보고했다.²¹

맥아더 장군은 한국에서 휴전이 아닌 승리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

는 또한 승리는 북한 공산주의의 해체와 그 전 해에 있었던 중국 공산당의 승리를 끌백하기 위한 전쟁으로의 확산을 뜻한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북한의 공격 앞에서 동요하는 동안에도, 맥아더는 인천에서 공산군 공격의 측면을 치고 핵무기로 소련과 중국에 있는 공산당의 은신처를 파괴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중국 공산군을 핵과 방사선 물질로 공격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미 해병의 지원을 받는 대만 국민당의 본토침공에 이용될 수도 있었다. 1950년 12월 24일 맥아더는 파괴하는 데 26개의 핵무기가 필요한 ‘방해물 표적’을 선정했다. 그에 더하여 그는 군대와 비행장을 파괴할 또 다른 8개의 폭탄을 요구했다.²² 역사학자 브루스 커밍스(Bruce Cummings)가 언급한 것처럼 이것은 ‘철저한 끌백’이었다.²³

그러나 실제로 국동사령부는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에 직면했다. 존스 흉킨스 보고서는 한국에 있는 미군들이 핵전투에 대한 준비가 미비함을 발견했다. 실제로 미국이나 동맹군 어느 쪽도 핵무기 사용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²⁴ 더구나 핵무기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의 도로와 다리는 핵폭탄을 발사하는 데 필요한 거대한 포병화기를 지원할 수 없었다.²⁵ 이런 상태에서 핵공격을 수행하는 유일한 방법은 일본과 오끼나와에서 발진하는 B-29 폭격기 중 하나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재적인 표적을 설정한 후에 핵공격이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전술이 될 수 있도록 핵무장한 폭격기를 실제표적을 향해 출격시키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다.²⁶

이 결론은 한반도에서 허드슨 하버 훈련(Exercise Hudson Harbor)이라는 수차례 걸친 모의 핵공격이 수행된 1951년 9월 하순에서 10월 15일 사이에 내려졌다.²⁷ 허드슨 하버 훈련 결과 1950년 11월 미 육군은 부적절한 수송과 미숙한 정보로 인해 핵무기 수송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²⁸

따라서 군사적으로 볼 때 한국의 교훈은 단순했다. 미국의 군사적 실행은 핵끌백이라는 엄포와 실제 핵전쟁 사이에 크게 벌어진 틈을 간단히 메울 수 없었다. 그 직접적인 결과로 전술핵무기의 개발·실험·배치가 가속되었다.

중국이 개입하면서 미국은 분명한 선택에 직면했다. 전략적으로 볼 때 그것은 중국으로 전쟁을 확대시키느냐 아니면 한반도에서 원래의 분단선을 복구하느냐였다. 군사적으로는 끌백을 위해 핵무기를 가지고 싸우느냐 또는

봉쇄를 위해 위협장치로 핵무기를 과시하느냐였다. 전세계적 전략수준에서 이 선택은 아시아와 유럽 중 어느 쪽을 미국 외교정책의 최고 우선순위로 삼느냐 하는 문제를 수반했다. 그러나 승리로부터 이전상태로의 복구로 후퇴하게 된 사람들은 한국에서 미군의 힘이 새로이 강조된 후에야 이 목적이 성취될 수 있다고 믿었다. 중국군이 전진하는 동안 정전협상을 한다면 미국의 모든 정치적 목적—중국을 유엔 밖으로 몰아내는 것, 대만을 미국불록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 그리고 일본과의 평화협상 조건을 명령하는 것—을 잊게 될 위험이 있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라는 대리인을 통해 행동하는 소련이 한국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었고 봉쇄는 설득력 있는 정책으로서의 지위를 잊을 수도 있었다.²⁹

1951년 3월 중순경 트루만은 38선을 회복하기 위해 중국과 협상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었다. 이 일은 맥아더에게 치명적인 위협으로 여겨졌다. 대통령을 지망하는 그가 한국에서 곤경에 빠진 채 자신의 경력을 끝맺을 수는 없었다. 승리만이 맥아더가 1952년에 공화당 후보지명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래서 그는 트루만의 계획—승리보다 덜한 것을 받아들이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전쟁 후에도 존재할 수 있게 하는—을 방해했다.

1951년 3월 24일에 그는 중국에게 폐배를 시인하는 일련의 조건들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 움직임은 정전발의를 방해했고, 유엔 동맹국들에게 경종을 울렸으며, 4월 11일 그의 해임을 이끌었다.³⁰ 아시아에서 가장 맹렬한 두 명의 를백옹호자였던 이승만과 장개석의 최대 희망이 맥아더와 함께 사라졌다. 그러나 를백전술은 호전적 봉쇄정책을 부추기는 강력한 정치적 지류로 남았다.

1950년의 핵강제로

1950년, 트루만은 처음에는 중국에 대해 핵위협을 이용하려 했다. 중국은 만약 미군이 북한군을 쫓아 38선을 넘는다면 전쟁에 개입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맥아더의 군대가 1950년 11월 하순 북한-중국간의 국경선에 접근했을 때, 중국군은 마침내 압록강을 넘어 거대하고 효과적인 매복에 들

어갔다. 유엔군이 동요하며 허둥지둥 퇴각하던 1950년 11월 30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루만은 자신의 행정부가 핵무기의 사용에 대해 항상 ‘적극적 인 고려’를 하고 있고 군사 또는 민간 표적에 대한 핵무기 사용은 군이 결정한다는 즉석 언급을 하였다.

그의 말은, 군부가 바로 그 전 주에 소련의 개입을 막고 한반도에서의 유엔군의 철수를 지원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연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뒤에 나온 것이었다.³¹ 트루만의 기자회견 다음날, 전략공군 사령부는 극동에 핵폭격기를 보낼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³² 작전수행 능력은 1951년 3월 중순 오끼나와에서 수립되었다.³³

트루만의 발언은 동맹국, 특히 런던에 경종을 울렸다. 영국의 애틀리(Clement Attlee) 수상은 트루만과 회담하려고 워싱턴에 날아왔다. 그의 방문 3일째 되는 12월 6일 아침에, 워싱턴은 안절부절못했다. 캐나다에 있는 미국의 조기경보 레이더는 워싱턴을 향해 남쪽으로 일군의 물체가 비행하고 있는 것을 포착했다.³⁴ 레이더 영상은 아마도 이동하는 기러기떼였을 것이라 추측이 그 후에 나왔다.

애틀리를 무마한 후, 트루만은 집권중에 공공연한 핵위협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신의 전쟁종결 능력이 부족함에 좌절한 그는 개인적으로는 전쟁종결을 위한 핵무기 사용을 상상하곤 했다. 예를 들면 1952년 1월 27일 그는 일기장에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레이징, 상하이 그리고 다른 중소(中蘇) 도시들에 대한 핵공격이 전쟁을 끝내게 할 것이라고 썼다.³⁵ 그러나 트루만은 공산권 도시에 대한 핵무기 사용이 NATO를 분열시키고 정치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는 직속 보좌관들이나 동맹국들에게 핵공격이 유용한 선택이라는 제안을 결코 하지 않았다.³⁶

그러나 군부는 어떻게 핵무기를 수송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계획하고 생각했다. 1951년 1월에 공수된 전술핵무기가 처음으로 시험되었고, 공군은 전폭기가 전술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도록 전환하기 시작했다. 그 일부분으로 육군은 1951년 7월 5일 한반도에서 교착상태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살상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핵무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전장에서의 사용을 위한 교리를 개발하기 위해 야전시험을 제안했다.³⁷

1951년 5월 NSC는 미국의 극동전략에 대한 주요한 재조명인 NSC 48/5호

를 채택했다. 그것은 중소동맹을 분열시킴으로써 극동의 소련 영향권을 제거하려는—즉 룰백—미국의 장기적인 목표를 규정했다. NSC 48/5호에 따르면, 중국을 소련에서 분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당 정부의 본토 비밀 공격을 가속시킴으로써 중국에 대한 압력을 확대시키는 것이었다.³⁸

그 동안, 야전군은 당국에게 핵무기를 사용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미국이 수소폭탄의 효력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던 1952년 9월, 미 합동참모부는 주한유엔군 사령관인 클라크 장군(Gen. Mark Clark)에게 후전협상이 실패한다면 화학무기와 핵무기는 제외한 채로 전면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보를 쳤다. 그러나 클라크는 당국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해보기를 바란다고 대답했다.³⁹ 공군과 해군은 중국연안의 군대를 공격하고자 했다. 4월에 미 합동참모부 기획위원회는 중국에 대한 전술핵무기 사용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내부연구는 미국이 핵전쟁으로의 확대를 통해 한국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국무부의 한 분석가는 결정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광범위한 핵공격이 필요하고, 미군에게 유리하도록 그 공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지상전에 깊이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쟁고했다. 더구나 만약 핵공격이 결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다면, 그 때 핵무기는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여, 미국의 세계적 위상에 치유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⁴⁰

1953년의 핵강제

1952년 아이젠하워는 한국전쟁을 종결시키겠다는 공약에 크게 힘입어 당선되었다. 그는 트루만보다 더 핵위협의 정치적 효용을 확신하고 있었다. 군인이었던 그는 핵공격의 군사적 효용을 평가할 지식을 잘 갖추고 있었다. 2차대전 및 NATO의 최고사령관으로 사실상의 외교관 역할을 했던 그는 핵전쟁의 외교적 측면에도 민감했다. 따라서 그는 전임자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핵체스를 두었다. 또한 그는 핵전투로 강제를 달성할 것인지 핵위협으로 강제를 달성할 것인지 사이에서 갈등했다.

인기 없는 전쟁에 빠져 끔찍 못하게 된 그는 맥아더가 북한과 중국내 공

산주의를 를백하려고 함으로써 생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을 시도하게 되었다. 유엔사령부와 공산주의자들의 협상은 전쟁포로 반환조건을 둘러싸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다. 1953년 2월초, 그는 핵위협에 대한 '신중한' 암시를 흘리기 시작했다.⁴¹

핵무기는 트루만 때보다 더 직접적으로 군사계획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1953년 5월 클라크 장군은 필요하다면 핵무기 사용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쟁계획을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⁴² 아이젠하워는 1953년 5월 15일 NSC 회의에서 한반도에서는 핵무기가 재래식 무기보다 더 저렴하다고 주장했다.

해군의 핵에 대한 열의를 입증하기 위해, 4대의 핵폭격기를 탑재한 항공모함 챔플레인(Champlain)호가 공격명령을 기다리며 한반도 연안을 순항했다.⁴³ 무시당하기를 원치 않는 육군은 중국·소련·평양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네바다에서 핵포실험을 수행했다. 미 합동참모부는 1953년 3월 27일의 연구에서 한반도에 대한 실험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한반도와 관련된 미국의 목표달성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핵무기는 보다 적은 노력으로 보다 커다란 결과를 이를 수 있는 효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금 극동에서 핵무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정책들은 재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극동에서 효과적인 재래식 전력을 발전시킨다는 광범위한 핵의를 위하여 한반도에서의 작전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표적에 대한 핵무기의 적절한 사용이 고려되어야 하고, 핵무기는 공산주의 중국과 만주에 대한 직접 행동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군사적 행동과정에 대한 부속물로서 작전상 계획되어야 한다.⁴⁴

전쟁입안자들은 핵전투로 중국을 강제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5월 19일 미 합동참모부는 중국에 대해 핵무기를 포함한 직접적인 공중 및 해상 작전을 개시하도록 권고했다. 그들은 점진적인 확전이 아니라 기습적인 KO 편치를 날리도록 권고했다. 5월 20일 NSC는 합참의 권고를 승인했다.

인도를 방문한 미 국무장관 델레스는 네루(Jawaharlal Nehru) 수상에게 전쟁이 빠른 시일내에 끝나지 않는다면 미국은 중국을 폭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핵포실험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수송수단이 전장에 도입되었다—빼이징에 전달되기를 기대한 메시지—고 덧붙였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제7함대가 더 이상 국민당원의 본토공격을 억누르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공공연하게 말했었다.⁴⁵ (물론 미국은 이미 비밀리에 국민당의 기습공격을 지원하고 있었다.)⁴⁶

미국의 생각은 핵무기를 심리적 전장에서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1953년 2월 덜레스는 NSC에서 핵무기 사용에 대한 금기는 깨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회의에서 아이젠하워는 휴전협상이 이루어지는 판문점에서 멀지 않은 개성지역에 대한 전술핵무기 사용을 제안했다. 3월경 덜레스와 아이젠하워 두 사람은 핵무기가 재래식 전쟁무기처럼 여겨져야 한다고 확신했다. 아이젠하워가 얼마나 핵선택에 근접했었는지가 1953년 5월 20일의 NSC 기록에 나타난다. '더 적극적인 행동'은 중국에 대한 핵공격을 수반하게 될 것이라는 합동참모부의 견해에 대해 아이젠하워가 지난 '유일한 실질적 근심'은 소련의 개입 가능성성이었다. 그 기록에 의하면 "타격이 중국 공산당의 개입을 없앨 수 있을 만한 위력으로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는 중국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한다.⁴⁷

아이젠하워는 막다른 곤경을 조속히 군사적으로 해결한다는 견해에 매혹되었다. 그 후에 일어날 동맹국 분열에 직면한 그는 두 가지 전략-군사적 이익을 위해 야전 핵공격을 명령하는 것과 중국에게 핵에 관해 최후통첩하는 것—사이에서 동요했다. 역사가 베츠(Richard Betts)는 다음과 같이 썼다. "아이젠하워는 적어도 협박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전장에서의 실제적인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⁴⁸

1953년초 핵위협에도 불구하고 휴전은 지연되었고, 힘든 협상 끝에 1953년 7월 27일에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4월과 5월에 중국은 미국이 공산주의자 전쟁포로 반환에 대해 조건을 달지 않고 평화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기 위해 두 차례의 대공세를 개시했다.⁴⁹ 5월에 미국은 민간인에 대한 전쟁을 선포함으로써 이에 대응했다. 전략공군 사령부는 농작물을 파괴하고 기근을 일으키기 위해 북한의 댐과 논을 폭격했다. 7월에 공산주의자들의 재빠른 응수가 시작되어 남한의 엘리트 부대를 공격하였고, 그 결과 1951년 봄 이후로 가장 맹렬한 전투가 전개되었다.⁵⁰ 이 공세는 고집센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가 위협을 무릅쓰면서 휴전협정을 막고 있음을 알리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었다.⁵¹

그러나 덜레스와 아이젠하워는 후에 핵위협으로 인해 중국과 북한이 판문점에서 항복하도록 강제되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덜레스는 "전투가 자신들이 선택한 한계와 방법을 넘어 머지않아 자신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직면한 공산주의 지도자들 때문에 전쟁이 종결되었다고 보았다. 무엇이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조건에 동의하게 만들었는가를 후에 질문받은 아이젠하워는 간단히 '핵전쟁의 위협'이라고 말했다.⁵² 아이젠하워는 이 말을 그의 회고록에서도 반복했다.

(협정체결을 가져올) 한 가지 가능성은 공산주의 정권에게 다음을 이해시키는 것이었다—만족할 만한 진전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무기사용에 있어서 구애받지 않고 결정적으로 움직일 것이고, 더 이상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를 제한하는 데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⁵³

중국이 이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1950년 11월 이후 중국 지도부는 미 핵공격에 대한 대중의 두려움에 대해 공공연하게 맹비난하였다. 그들은 인민일보를 통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폭격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세세한 방어조치를 제시했다.⁵⁴ 그들은 핵공격의 두려움에 대해 그들의 군대에게 면밀한 사상주입을 실시하였다(2장을 보라). 중국은 미국여론이 종종 전쟁종결을 위해 중국을 폭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과 주요 공화당원들이 아이젠하워에게 중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지지하겠다고 말했던 점을 잘 알고 있었다.⁵⁵ 모택동이 전쟁종결 직후인 1954년 핵무기 개발계획을 착수시켰다는 사실 또한 중국이 핵위협과 소련의 확대된 억제의 불완전성에 의해 영향을 받았음을 가리킨다.⁵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3년 5월부터 7월까지의 중국군의 움직임은 중국이 핵위협 앞에서 간단히 항복하지만은 않았음을 보여준다. 아이젠하워에 의하면, 1953년 미국의 암묵적인 핵위협은 판문점과 대만에서 확전암시가 이루어진 2월 22일에 일찌감치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⁵⁷ 또 다른 모호한 위협이 1953년 5월 22일에 인도에서 덜레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때 그는 인도관리에게 미국이 "분쟁지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는 이것을 넓게 베일을 드리운 핵위협으로 간주했다.⁵⁸ 각각의 경우에서 미 지도자들은 뒤를 이은 중국측 협상태도

의 완화를 핵위협의 효력에 대한 명백한 증거로 여겼다.

그러나 일련의 위협과 협상을 통해 핵위력이 정치적 이익으로 직접 전환되었다고는 볼 수 없음이 드러났다. 1953년 3월 하순 전쟁포로에 대해 중국이 양보한 것은 소련이 중국본토에 대한 미국의 공격-핵이든 재래식 공격 이든 상관 없이—을 억제시킬 것이라는 중국의 확신이 스탈린의 죽음으로 인해 감소된 후에 나온 것이다.⁵⁹ 아마 덜레스조차 스탈린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으로 인한 공포 때문에 죽었다고는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은 덜레스의 5월 22일 위협으로부터 2주가 지난 1953년 6월 4일까지도 미국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5월 22일 위협이 있기 일주일 전에 중국이 동의했던 최종해결안의 윤곽에 대해서 이미 누설하고 있었다. 거기서 미국은 미국이 전쟁포로 송환조건에 가까이 타협할 것이라고 중국에게 전했다.

중국은 핵위협 때문에 겁먹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움직일 시간을 잘 맞추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은 전쟁중에 ‘핵위협’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자신의 군사적 공세를 확대시켰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미국의 핵위협과 그들에게 최종 제시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대가의 일부로 그 위협이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서 곱곰히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이런 관점에서 핵위협은 중국에게 미국의 강점이 아닌 약점을 보여주었고 중국에게 전쟁을 질질 끄는 것이 더 효율적임을 확신시켜주었을 것이다. 중국이 1960년에 쓴 것처럼, “회담재개는… 미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투쟁과 그들의 폐배 후에만 가능했다.”⁶⁰

더구나 중국은 한반도와 중국에서 미국과 미 동맹국의 재래식 군사개입이 크게 확대되어야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이 감행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미국의 핵위협 수행은 사상자 감소라는 미국의 목표에 위배되는 것이었고, 핵이란 수단은 미국의 분명한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었으며, 또 그 위협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베츠가 결론내린 것처럼, 이 증거는 한국전에서의 “핵신호의 효력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도자들은 이런 역사적 애매성을 무시했다. 대신 그들은 계속해서 핵막대기를 훈들어댔다. 아이젠하워의 엄포성 위협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제92·B-36 폭격대가

1953년 8~9월에 Big Stick 작전이라는 한 달에 걸친 훈련을 위해 일본·오끼나와·괌으로 출격했다. 전략공군 사령부의 공식기록은 이 훈련이 “극동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이용할 것이라는 미국의 결심을 증명했다.”고 진술하고 있다.⁶¹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령부는 괌으로부터 핵공격을 발진시키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장비를 이미 오래전부터 갖추고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핵위협이 한국전쟁을 종결시켰다는 믿음—미국이 인명살상을 줄이기 위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폭격했다는 믿음과 같은—이 미국의 전략문화 속에 깊이 스며들었고 차기 대통령들과 보좌관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졌다. 예를 들면 닉슨 대통령은 1969년에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한국전쟁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도착했고 이 전쟁은 우리의 책임임에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중국과 북한에게 계속되는 지상에서의 소모전을 참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안 지나 그들은 협상에 참가했습니다.⁶²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 역사적 교훈은 거의 40년이 지난 후에도 한반도에서의 미 핵전략을 여전히 이끌고 있다.

제2장 상호 취약성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우리의 대공방어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바로 지금 우리는 부산과 인천을 핵무기를 위한 이상적인 표적으로 제시한다.

—육군 참모총장 콜린즈 장군(J. Lawton Collins), 1953. 3. 27¹

1950년에 미국의 전략가들은 급성장하는 핵전력의 이용을 정당화하고 이끌어나갈 만한 일관된 개념체계를 정착시키지 못했다. 핵전투, 핵강제, 핵억제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관심을 끌기 위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불안하게 공존했다. 제2차대전에서 도출된 첫번째 역사적 교훈은 한국전쟁으로 야기된 도전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한국전쟁은 그 이전 전쟁에서 얻은 첫번째 교훈을 크게 능가하는 두번째 교훈을 남겼다.

비록 미국은 한반도에서 핵공격으로 확전시키지는 않았지만, 현대의 제한 전은 역시 핵전쟁이라는 결론을 얻어냈다. 랜드 연구소의 분석가 골드하머(Hurbert Goldhamer)는 1952년 미 공군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엔사령부는 한반도에서 원자폭탄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기는 한국전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그것의 존재와 사용 가능성은 공산군과 그들의 군사적·정치적 지휘관들 모두에게 영향을 끼쳤다.²

분명히 핵무기는 북한 공산당이 남한전지를 공격하는 것을 억제하지는 못했다. 미 정책입안자들이 북한을 소련의 위성국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들은 소련도 억제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 애치슨의 주장처럼 “한반도에서 얻은 심오한 교훈은 그 전의 모든 행동과는 반대로 소련이 전면전을 무릅쓰 조치—그러나 한 발 물러선 위치에서—를 취했다는 것이다.”³

그래서 얼핏 보기애 전쟁은 첫번째 역사적 교훈(핵무기의 존재는 핵무장

국가—보수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애치슨이 한반도에서 행했던 것과 같이 미국이 임무를 완화했을 때에도—에 대한 공격을 배제한다)과는 상반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다른 미 전략가들은 약간 다른 정책을 취했다. 제한전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교훈으로 앞으로 그러한 전쟁은 적에게 임박한 핵 위협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NSC 68호를 작성했던 니체는 전쟁 3년 후에 다음과 같이 썼다.

핵무기가 전투에서 다시 사용되든지 안되든지간에, 그것들이 사용될 수 있다 는 가능성 또는 그것들의 존재 바로 그 자체가 모든 미래의 전쟁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전은 어떠한 핵무기도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핵전쟁이었다. 이 상황은 체스게임과 유사하다. 핵여왕은 경기에서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들은 실제로 적의 말들 중 어느 하나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핵여왕의 지위는 어느 편이 제한전 비숍이나 냉전졸(卒)을 안전하게 전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 잘 자리잡은 핵여왕에 의해서 냉전졸이 전진하여 적의 왕에게 장군을 부를 수도 있다.⁴

우리가 본 것처럼 트루만과 아이젠하워는 둘 다 한반도에서 핵체스를 시도했었다. 그러나 핵무기는 한국전에서 졸, 여왕, 왕을 저지하는 데 사용되지 못했다. 또한 앞에서 본 것처럼 핵위협은 공산 지도자들에게 전쟁의 패배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하지도 못했다. 사실상 전쟁중에 이루어진 핵위협은 미국의 핵독점을 가정했던 첫번째 역사적 교훈의 개념적 토대를 크게 바꾸어놓았다. 핵공격에 대한 북한군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역으로 미군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도록 이끌었다. 머지않아 그들은 자신들의 취약성이 사실상 첫번째 교훈을 부정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미래의 강제나 억제는 핵전투보다는 핵위협에 의해 획득될 수 있음을 확신했다.

같은 인식이 미국의 핵전략에 대한 공포와 이중적 감정을 핵동맹국들 사이에 뿌려놓았다. 따라서 미국은 동맹국에 대한 재보장을 적에 대한 억제나 강제와 동등한 수준으로 높여줄 수밖에 없었다.

방어의 문제

호전적인 봉쇄 정책조류를 취하는 지도자들은 한반도에서는 핵전투로 체스게임을 할 수 없고 오직 핵위협만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1950년 6월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들은 억제든 강제든 재보장 이든간에 위협에 기초한 전략을 이끌어낼 만한 일관된 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책조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일하던 미 전략가들이 전쟁기간중에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에 대해 연구했다. 이 분석들 중 일부는 나중에 상호 핵억제로 알려진 이념의 필수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한반도에서 호전적인 봉쇄정책과 연관된 정책조류는 그 전쟁에서 미국의 적을 강제하기 위하여 핵위협을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했다. 이 조류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승리를 위해 전투를 선호했던 블랙조류를 마침내 물리쳤다. 1954년 소련의 수소폭탄 개발은 호전적인 봉쇄조류로 하여금 전투보다는 핵 위협에 기초한 채, 강제로부터 억제로 또다시 목적을 바꾸도록 만들었다.

전쟁은 미 전략가들에게 핵전쟁의 군사적·심리적 측면간의 중요한 개념적인 차이—육군의 존스 흉킨스 보고서와 앞서 나온 바 있는 공군의 랜드 보고서 사이에 대조되는 차이점—를 인지하도록 강요했다. 이 교훈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관리하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 미 정치지도자들은 그들의 동맹국들이 미국의 핵위협을 무시할지라도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동맹국의 반응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한반도에서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일관성 있는 미 핵이념이 출현하려면 미국인들도 적의 핵전력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만 했다. 그러한 중요한 교훈은 한국전쟁에서 얻어졌다. 그 후 부정할 수 없는 의심이 미국 핵지휘관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1949년 소련의 핵개발로 미국의 핵독점 시대가 갑작스레 끝났음이 1951년에 이르자 명백해졌다. 한국전을 통해 미군의 집단의식 속에는 핵공격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는 의식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다.

1951년 3월 존스 흉킨스 보고서는 맥아더 장군에게 “방어의 문제에서 전력과 장비가 취약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좀더 적절한 배치와 방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충고했다.⁵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 보고서는 유엔 사령부 야전부대, 대구의 육군·공군 사령부와 유엔 비행장이 1950년 12월 31일과 같은 상황에서 가치 있는 핵표적이 되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그리고 전쟁 보급품의 80%가 공급되던 보급항 부산이 1950년 10월 16일에 취약했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했다.⁶ 선택된 날짜들은 연구자들이 그것에 대한 정보보고서를 상세히 기술했던, 전쟁에서 결정적인 고비가 된 날들이었다.

그들은 이 표적들 각각이 실제로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각 표적은 핵무기 사용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각 표적은 식별할 수 있었다; 그들 중 어느 것도 핵공격을 확실히 면추게 할 수는 없었다.⁷

예를 들면 16차례의 공중 핵폭발로 서울 북쪽 25~30마일 전방에 있는 유엔군 2개 군단 전체의 43~48%를 없앨 수 있으며, 공산군은 미 8군의 왼쪽 측면을 돌파할 수 있다.⁸ 또한 그들의 계산에 의하면, 공산군의 대규모 공세가 시작되기 하루 전에 대구 사령부 상공에서 4만톤의 공중 핵폭발이 일어난다면 한반도내 전체 유엔군 지상군과 공군의 중앙통제를 위한 신경중추와 통신중추가 파괴될 것이다.⁹ 유사하게 1950년 10월 16일 부산에 대한 기습 핵공격은 거대한 함대와 그에 떨린 전쟁물자를 파괴했을 것이고, 이는 “유엔군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군사행동에 결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¹⁰

간단히 말해 유엔 사령부는 선취적 핵이나 보복적 핵에 완전히 취약했다.

한반도에서 유엔군의 전술은 핵폭탄이 물리적·군사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많은 표적들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표적들은 지상군; 사단, 군단, 육군·공군 사령부; 비행장; 병참기지; 항구; 그리고 해군함대 속에 존재했다.¹¹

이러한 결론은 1951년 12월 4일 한반도에 있는 미군이 “핵공격에 극도로 취약하다.”고 전술한 비밀 군보고서에서 되풀이되었다.¹²

유엔 사령부는 이런 교훈을 즉각적인 전술로 구체화시키지 않았다. 긴급한 지상전투와 깊이 뿌리 박힌 군사적 실행의 타성 때문에, 분산과 기동성 증가를 통한 핵방어의 적용이나 참모계통의 재조직은 배제되었다. 육군은 핵무기를 이용하여 현실적인 전투역량을 발전시키기보다는 공군의 예산상의 우위를 막기 위해 핵의 문턱에 발을 딛고 있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¹³ 더

구나 워싱턴의 정치 사령부에서는 소련은 자국의 군대와 영토가 노골적으로 공격받지 않는 한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¹⁴

핵체스 게임에서

그러나 1951년말에 이르자, 야전 사령관들은 미군이 핵공격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전술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종전회담이 자연되는 동안 군사분계선을 따라 전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엔 사령부는 군사적 선택의 여지에 대해서 연구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룰백선택을 결정적으로 거절하고, 군사분계선으로 표현된 폭력적인 현상을 포용하였다. 리지웨이 장군(Gen. Matthew Ridgway)은 1951년 5월 1일 캔자스라인 북쪽에서의 모든 전투계획을 포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951년 5월 22일 미 합동참모본부는 그에게 미군 사상자를 최소화시키면서 공산군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라고 명령했다.¹⁵ 그는 이 목표는 전체 전선에 걸쳐 적을 말려 죽이는 화력을 사용하면서 점진적으로 전진함으로써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5월 28일 동해안의 원산에서 멀지 않은 남쪽에서 측면을 치는 상륙작전을 펼치자는 해군의 제안에 대해 그는 사상자가 극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¹⁶

9월 리지웨이는 미 합동참모본부에 대해 만약 회담이 실패한다면 그는 (화천저수지를 통과하는) 캔자스라인으로부터의 진격과 조화를 이루게 원산에 대한 상륙공격을 개시할 수도 있다고 밀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소련의 개입을 유발시키고 원자폭탄에 이상적인 표적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는 충고했다.¹⁷

리지웨이는 그 대신 임진강으로부터의 북진과 함께 통천 근처에서 덜 취약한 상륙을 함으로써 이 위험을 피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한 달에 만 명꼴로 유엔사상자가 증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1951년 11월 3일 합동참모본부는 이 문제를 고려했다. 불쾌한 모험이라는 관점에서 그들은 한반도의 좁다란 목 부위로 진격하려는 생각을 포기했다.¹⁸

러시안 룰렛으로

따라서 9월이 되자 리지웨이는 새로운 측면공격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핵모험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1951년 8~9월에 유엔 동맹국이 전선을 적선향하기 위해 감행한 전투에서 6만 명의 유엔 사상자가 생겼는데 이들 중 2만 명은 미국인이었다. 미국내에서는 전쟁을 종결하라는 압력이 높아갔다. 1951년 9월은 소련의 핵공격에 자극적인 표적을 제시할 만한 때가 아니었다. 그의 정치 사령관들과는 달리, 리지웨이는 그가 미국식 핵체스보다는 러시안 핵룰렛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 이후로 전시 핵억제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리지웨이의 계산은 군이 말하는 ‘가상효과’(virtual effect)–즉 단순히 적군의 존재, 여기서는 소련의 핵역량 때문에 전장의 전술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전쟁시 최초의 핵사례가 된 것이다. 이제부터 강대국들은 그들의 전투력이 충돌할지도 모르는 중첩되는 개입을 회피할 것이다.

미군은 이 교훈이 주는 암시를 완전히 내면화할 수 없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한 핵공격을 계획했다. 휴전 이후 극동사령부는 핵전투를 위한 지역적 하부조직을 만들었다. 핵무기는 1950년대에 재래식 전력과 마찬가지로 전진배치되었다. 오늘날 주한미군은 소련의 문앞 충계에 미국이 핵무기를 선제사용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남겨놓음으로써 이 교훈을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¹⁹

호전적 봉쇄정책의 승리

1950년, 38선 너머로 공산주의를 ‘롤백’하자는 맥아더의 요구와 ‘총체적 승리’라는 목적이 약 20년에 걸친 민주당의 외교정책 통제에 반대하는 보수 세력–슐레진저(Arthur Schlesinger)가 ‘Asialationists’라고 부른 해독은 고립주의자와 아시아 제일주의자들의 연합–을 결속시켰다. 그들의 주요목적은 유럽에 대한 군사공약을 축소시키고, 동맹국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일방적인 군사행동을 취하고, 미국팽창의 주요대상인 아시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었다. 맥아더는 1952년에 이러한 열정을 자극했다. 그는 “공산주의 음모자들은 아시아–외교관들이 유럽에서 말로 싸우는 동안 우리는 여기에서 무기를 가지고 유럽 대신 전쟁을 하고 있다–에서 세계정복을 위해 활동하기로 결심했다.”고 기술했다.²⁰

일단 맥아더가 패배하자 롤백주의자들은 중국으로 통하는 침입회랑을 핵무기로 폭파시키는 것을 더 이상 바랄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을 대신하여 복수를 해줄 봉쇄 자유주의자들은 매우 다른 전망에 따라 세계 정치질서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전쟁을 이용했다. 전쟁은 그들이 일본과 독일을 재무장시키고 유럽에 막대한 군대를 상주시키며 미국주도의 통합군 사령부를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로 만들도록 했다. 더구나 전쟁은 그들이 동원해제를 취소하고 군사지출을 세 배로 늘이고 세계적인 군사기구를 창출하도록 허용했다. 1950~52년 사이 미국의 연간 군사비는 13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네 배 증가했다. 동시에 군인은 두 배 증가하여 약 300만 명이 되었고, 군함은 671척에서 1,100척 이상으로, 공군 비행단은 48개에서 108개로 늘어났다.²¹

한국전쟁은 장기간에 걸친 유형을 수립했다. 핵위협은 강압외교라는 미국의 병기고에 편입되었고 적의 행동을 억제하거나 강요하는 데 쓰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맥아더의 해임으로 미국과 동맹국 사이에는 말이 필요없는 상호이해가 수립되었다: 핵무기는 공산주의를 위협하여 견제하는 데는 사용될 수 있으나 핵공격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롤백’하는 데는 사용될 수 없다.

명백히 적어도 세 가지 경우–1954년 디엔 비엔 푸, 1955년 1차 대만해협 위기, 1958년 2차 대만해협 위기–에서 미국은 대량보복으로 이 약속을 거의 어길 뻔했다.²² 비록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은 4년 후의 쿠바 미사일 위기 때보다 이들 위기 때 핵무기 사용에 실제적으로 좀더 근접했었을지 모른다.²³ 대량보복교리의 자취는 롤백주의자들이 권좌에 복귀하게 되는 1980년까지 워싱턴을 지배했던 호전적 봉쇄라는 이념의 주류에 롤백이라는 강력한 저류를 흘려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이념의 기본요소들은 한반도에서의 시련 속에서 최초로 작성되었다. 그것들이 일관성 있는 정보체계로 결집되는 데는 또다시 10년이 걸렸다. 그 동안 전략가들은 전쟁의 결과에 미친 핵위협의 영향과 그런 효과가 미래의 열전 또는 냉전에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심리전

미군이 한반도에서 그들의 적인 공산군에 대해 행했던 핵위협의 심리적인 영향에 대해 면밀히 조사했었음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증거들을 통해 나타난다. 1951년 5월에 랜드 연구소의 골드해머는 미국의 핵무기 보유가 공산군과 그들의 정치적·군사적 지휘관에 끼친 영향에 대해 조사했다. 그 연구는 1951년 5월 부산에서 심문받았던 65명의 중국 공산주의자와 47명의 북한군 전쟁포로가 작성한 사본에 의존했다.²⁴ 1952년 8월에 완성된 비밀연구는 중국군과 북한군이 미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과 그것이 사용되었을 때 일어날 결과에 대해 진짜로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²⁵

그 보고서는 “유엔이 자포자기하여 어쩔 수 없이 원자탄을 사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믿음 때문에 유엔군의 퇴각이나 공산군의 승리 후에는 특히 예민한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1951년 중반까지 세 번—즉 중국군의 전쟁개입, 1950년 12월 유엔군의 퇴각, 유엔군이 북한으로부터 민간인들을 철수시킴—에 걸쳐 미국이 막 핵공격을 개시할 것이라는 소문이 공산군을 훔쳤었다.²⁶

그 두려움이 너무도 깊었기 때문에 공산군 사령관들은 군대사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격렬한 사상주입 캠페인을 펼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보고서는 중국과 북한의 선전전략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북한육군의 사상주입은 주로, 중국군의 사상주입에서보다 훨씬 더, 미국의 원자탄 사용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소련의 힘에 호소한다. 북한육군의 사상주입은 원자탄의 위력에 대해 경시하는 진술은 피하는 반면, 중국군의 선전은 원자탄의 한계를 강조한다. 중국군과 북한군의 사상주입은 둘 다 원자탄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의 존재를 강조한다. …요약하면 그 당시 북한군 사상주입의 일반적인 의도가 미국이 원자탄을 사용할 수 없음을 군인들에게 확신시키는 것이었던 반면, 중국군 선전은 미국이 원자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사용한다 해도 전쟁을 결정할 만큼 강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²⁷

중국군과 북한군이 신봉하는 폭탄의 이미지가 서로 달랐고 북한의 군사교리와 훈련에 대해 소련의 영향이 좀더 커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차이가 발생

했다.²⁸ 둘 다 그들의 군대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협약이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 노선은 공산군의 또 다른 선전원칙, 즉 미국은 비도덕적인 제국주의 세력—비선제사용에 동의할 국가의 이미지가 아닌—이라는 것과 모순된다.²⁹

선전노력에도 불구하고 면접한 군인의 절반가량은 여전히 폭탄이 사용될 것이라고 믿음으로써, 사상주입을 하더라도 핵위협은 그다지 손상받지 않는다는 랜드 연구소의 분석이 증명되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탄에 대한 사상주입의 내적인 모순과 이런 사상주입과 그들이 지닌 확고부동한 확신(예를 들면 일본이 원자탄 공격 때문에 항복했다는)간의 모순을 공산군은 재빨리 알아차렸다.”³⁰ 더구나 미국이 확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내린 군대들은 공산주의적 신념에 반대되는 논거—전장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기가 전술적으로 어렵고, 미국은 인간의 생명을 너무나 존중하므로 중국인과 한국인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는다—에 따라 그런 결론을 내렸다. 반수 이상이 여전히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지도 모른다고 믿은 사실은 사상주입만으로는 핵위협에 쉽게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군대들은 미국이 중국군 개입이나 유엔군 퇴각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확신을 얻었을 수도 있다.³¹

보고서는 핵무기가 ‘공포의 증폭’(bonus fear)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기술했다. 중국군과 북한군은 보다 커다란 파괴력과 행동반경을 ‘핵무기의 실제위력 이상으로’ 핵무기 텃으로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³² 군대는 핵무기가 인간과 재산뿐 아니라 자연 그 자체도 파괴한다고 믿었다. 어떤 사람은 “산을 녹인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농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는 “모든 생물이 소멸된다”고 말했다.³³

핵에 대한 두려움은 군대가 중국으로부터 북한으로 넘어가기 위하여 출발했을 때 격렬해졌다. 군대의 사기동요 때문만이 아니라 군사적인 결과 때문에 고위 장교들조차도 폭탄을 두려워했다고 한다.³⁴ 대부분의 중국군은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핵전쟁에 대한 강의를 받았다고 전술했다. 이는 북한의 사상주입보다 더 강한 것이다.

북한의 사상주입은 미국의 핵확전에 대한 소련의 억제에 주로 (그리고 중국의 사상주입보다 더) 호소했다. 정치장교들은 미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주의 핵무기로 보복할 것이라고 소문난 소련의 능력에 종종 의지했다.³⁵ 그러나 많은 병사들이 소문에 들리는 소련의 확대된 억제를 확신하지 않았다. 한 포로는 “사람들은 원자탄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지만, 장교들을 믿지도 않았다. 병사들은 장교들이 주위에 없을 때 자기들끼리 이야기했다. 소련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데 미국같이 커다란 산업국가가 아주 적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³⁶

사상주입은 1950년 9~10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트루만이 널리 알려진 1951년 11월 30일의 기자회견에서 핵무기를 언급하기 훨씬 이전이었다. 미국의 지도자가 언급한 핵위협에 대해서 알고 있는 포로는 없었다. 그러나 랜드 보고서는 민간인들이 트루만의 언급에 대한 라디오 보도와 뒤이어 군에 내려진 경보의 광기를 탐지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³⁷ 실제로 한 포로는 민간인들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군이 이용되어야만 했다고 보고했다.

내가 북한에 있었을 때 우리는 장교들과 병사가 참석한 노동자 모임에서 원자탄에 대해 토론했다. 민간인들은 원자탄을 크게 두려워했다. 일반사병들은 그들에게 원자탄에 대해 선전하려고 애썼다.³⁸

일단 전방에 있는 군대는 핵위협에 덜 민감한 것처럼 보였다. 이 믿음은 미국이 유엔군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핵공격을 감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올바른 인식에 부분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었다.³⁹ 한 포로는 말했다.

우리는 핵을 매우 두려워했지만 미국이 그것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후방에서 민간인 가까이에 있었을 때 우리는 미국이 민간인을 죽이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전선에 있었을 때 우리는 미국이 그들 군대가 가까이 있으므로 원자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⁴⁰

즉 군대가 핵무기의 물리적 효과를 강하게 인지하면 할수록, 전장에서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위협은 점점 더 신뢰성을 잃어갔다. 심지어 핵무기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만으로도 많은 평범한 공산군들이 미군 사령관들이 이 직면한 핵페러독스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모든 사상주입이 날조된

것은 아니었다. 한반도에서의 핵폭탄 사용을 둘러싼 미국 여론상태에 대한 부정확한 주장과, 독일의 과학과 자본가들(핵폭탄 사용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에 대한 부당한 언급을 제외한다면, 이 정치장교는 미국의 핵공격을 억제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꽤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정치장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원폭의 비밀은 지금에 와서는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소련은 이미 산업용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독일의 연구로부터 그것을 취해서 완성시켰다. 비록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을 사용하려 할지라도 대부분의 미국인이 사용에 반대하고 있고 소수의 자본가만이 사용의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핵을 사용할 수는 없다. 한반도로 그것을 운반할 항공모함도 없다. 원자탄을 먼저 사용하는 나라는 전범이 될 것이다.⁴¹

그러나 최전선에서의 정신적 충격은 핵공격에 대한 걱정을 재개시켰다. 한 포로는 “우리가 세열(細裂)폭탄공격을 받은 후에 병사들은 원자탄에 대해 많은 말을 했다. 그들은 ‘세열폭탄이 그토록 지독하다면 원자탄은 얼마나 더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⁴²

모든 병사들처럼 군대도 블랙유머 속에 그들의 두려움을 감췄다. 전쟁이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냉소적인 사람들은 핵공격이 그들의 비참함을 끝내 주길 바란다고 말하곤 했다.⁴³ 한 포로는 핵전쟁의 전망에 대한 우스운 반응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대의 수석 정치장교가 원자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은 후 사람들은 서로 그것에 관한 농담을 했다. 그들은 ‘이제 우리는 바다 속에 가야 살 수 있다’라고 농담으로 말했다.”⁴⁴

냉 전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심리전·정치전에서의 원자탄 사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개발된 것이 없으며 이 문제에 관한 교리의 실체가 존재했던 것 같지도 않다.”⁴⁵ 이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이 6단계를 취하도록 추천되었는데, 그 각각은 1954년에 공표된 대량보복이라는 핵이념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⁴⁶

첫째 심리전·정치전에서 원자무기가 지닌 잠재력은 서구인들뿐만 아니라 아시아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아시아의 군대와 사람들은 서구의 도시화된 지역의 병사와 국민들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원자탄 공격의 위협에 대한 공포에 민감하다. 아시아인들이 원자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들이 전원생활—농업—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격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어린 가정도 한국의 자료와 모순된다.⁴⁷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거주자들에게 미친 폭탄의 영향을 알고 있던 분석가들이 달리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그러나 1951년 많은 미국인들은 아시아인들의 인간성을 의심했다. 예를 들면 맥아더 장군에게 보내는 존스 흉킨스 보고서에서 한 필자는 “미국인과 비교할 때 아시아인들은 일반적으로 죽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핵 공격이 전쟁에서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위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기술했다.⁴⁸ 랜드 보고서는 핵위협이 아시아인에게도 작용할 것이라고 조언하면서 이러한 인종 차별주의를 단호히 비판했다.

다음으로 랜드 보고서는 이런 잠재력을 끌어내는 ‘적절한’ 심리전을 통해 많은 부수적인 믿음과 태도(예를 들면 미국의 기술적 위업이나 인도주의적 동기에 관한)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과적으로 그 보고서는 미국이 열전 이전에 냉전—다음 10년 동안의 실질적인 청사진—을 수행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기능하면 그들의 완전한 이익이 얻어지거나 요구되기 전에 캠페인 이 이루어져서 그 목적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이 심리전과 정치전에 대한 안전율이다.”⁴⁹ 이것은 미국이 핵무기가 가진 고유의 심리적 위력을 얻으려면 선전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것은 미국의 이미지—무엇이든 할 수 있고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하며 인정이 많다는—를 등에 업고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핵위협이 핵위협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보고서는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공산군의 사상주입에 대응할 기회를 미국이 그 때까지 잃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그 보고서는 핵무기가 국제사회에서 금지되지 않았음을 전방의 공산군에게 알리는 손

쉬운 조치를 미국이 취했어야 했다고 제시했다. 그랬다면 미국이 확전위협을 명백히 하지 않더라도 공산군 지도층의 확신이 줄어들고 군과 민간인들의 두려움이 되살아남으로써 공산군의 심리적 방어는 침식될 수 있었을 것이다.⁵⁰ 이 전술은 공산군이 선전역습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한반도에서 특히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그 보고서는 덧붙였다.⁵¹

다섯째 장차 핵무기를 사용하려면 “원자탄이 전술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널리 퍼진 믿음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그 보고서는 주장했다. 미국은 머지않아 1953년 핵포훈련과 빅 스틱 작전에서 이 교훈을 실행했다. 전투역량이라는 이미지를 투사함으로써 심리적 이익을 얻는 것이 그 이후 미 핵교리의 변함없는 주제가 되었다.

랜드 보고서는 전술적 군사이익만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고 제안하지는 않았다. 핵위협은 전략적·정치적 목적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원자탄의 진가가 거의 이용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공격적 행동에 참여한 정부의 국민과 군대, 그리고 그 정부 자체에게는 주요한 위협의 하나가 된다.”⁵² 공산주의 국가들은 자국의 군대와 민간인의 마음 속에 서구의 힘에 대해 취약하지 않다는 견해를 확립시킴으로써 통치한다고 그 보고서는 제시했다. 그 보고서는 “미국으로서도 정반대되는 견해를 확립하는 것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⁵³ 즉 공산주의 국가들의 정통성을 공격함으로써 핵심리전이 정치·군사적 붕쇄의 도구만이 아닌 롤백의 주요도구로써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훈은 1950년 아래로 북한에 대해 실행되어왔다. 그 효과는 현재 북한의 위협인식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해 준다(8장). 아이러니컬하게도 롤백의 공격적 정치논리가 한국전쟁 동안 한반도에서의 핵위협의 기초가 되었음을 미 전략가들은 잊고 있다. 또한 중요한 것으로는 오늘날 그들이 핵위협을 평가할 때 그들은 북한이 이러한 자극을 회상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독단

한반도에서 강제를 추구하는 핵전투를 핵위협으로 대체한 결과,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사 동맹국들과의 대결에 휩쓸리게 되었다. 따라서 두번째 역사적 교훈의 결과, 그 이후로는 핵전략 수행과정에서 동맹국들을 감언이설로 탈래고 재보장해주어야만 했다.

그러나 한국전쟁 동안, 미국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야전전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지배했다. 명백히 미 외교관들은 움직임이 있기 전에 동맹국들과 협의하라고 촉구했으나 종종 군부는 국무부와 동맹국의 의견을 간단히 무시해버렸다. 예를 들면 1953년 6월 미국은 동맹국과 협의하지 않고 압록강 수력발전소를 폭격함으로써, 이 표적을 공격하기 전에 영국과 협의한다고 했던 예전의 협정을 무시했다. 영국과 캐나다는 이런 행위가 고의적이며, 애치슨이 그들에게 확신시키려 했던 것처럼 실수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⁵⁴

미 군부는 미국이 지상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 자유행동을 하기로 결정했다. 국무부가 제구실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전쟁이 세계적인 대결로 확산된다면—이 경우에 동맹국은 어쨌든 미국을 필요로 할 것이다—동맹국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⁵⁵ 전쟁기간을 통틀어서 동맹국에 대한 워싱턴의 유일하면서도 중요한 전술적 양보는 중국영공으로 도주하는 공산군 미그기에 대한 유행추격권을 허락하려는 맥아더의 명령을 취소한 것이었다.⁵⁶

심지어 핵위협은 제례식 전술이 받는 정도의 동맹국 재검토도 받지 않았던 것 같다. 한국전쟁중의 핵위협은 미국의 정치·군사적 혜가모니를 공고히 하기는커녕 유엔군으로 참가한 미 동맹국들을 놀라게 하고 소원하게 했다. 핵전투에 대한 협의는 영국과 같은 동맹국들을 재보장하기보다는 놀라게 하였다. 또한 미국은 미국의 의도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동맹국들에게 줌으로써 그들에게 무임승차를 제공하려 하지도 않았다. 예를 들면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1952년 1월 6일 브래들리 장군(Gen. Omar Bradley)에게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브래들리는 “현재까지는 어떤 적절한 표적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핵폭탄 사용은 우리의 의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⁵⁷ 1952년 6월 28일 영국 합동참모부는 내각에 다음과 같이 통지했다.

미국의 참전이 한반도의 상황을 회복시키는 데 불충분할 경우, 원자탄을 북

한에 떨어뜨려야 한다고 미국이 제안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이 이루어진다면 수상은 합동참모부의 견해를 알고 싶어할 것이다. 군의 관점에서는 북한에 대한 원자탄 투하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에 대체적으로 합의하였다. 그런 행동의 결과는 세계적일 것이고 당연히 많은 피해를 입힐 것이다. 더구나 그것은 세계대전을 유발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⁵⁸

영국군은 한반도에서 핵공격을 위한 적절한 대상을 발견할 수 없었고 북한과 중국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제례식 전략폭격에 의존하는 것을 선호했다. 그들은 1952년 7월 20일 워싱턴주재 영국대사관에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무기는 소련과의 주요한 전쟁시 적절한 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비축해두어야 한다.”고 전보를 쳤다.⁵⁹

동맹국들의 반대

미국이 공공연하게 핵전으로의 확전을 위협할 때마다, 항간의 이의제기를 대중매체가 보도하고 외교채널을 통해 동맹국들의 반대가 이구동성으로 워싱턴을 덮쳤다. 그러나 전쟁초기에 미국은 핵무기 사용 결정권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음을 명백히 했다. 트루만이 1950년 12월 영국수상 애틀리와의 정상회담 기초 코뮤니케(draft communiqué)에서 핵무기 사용에 대한 우선 협의권(거부권이 아닌)을 실수로 영국에 주었을 때, 미국무장관 애치슨은 재빨리 정상회담 기록에서 이 협정을 지워버렸다.⁶⁰ 거의 동시에 애치슨은 폭탄이 사용된다면 그는 영국과 ‘보조를 맞춰서’ 움직여야 하겠지만, 그들에게 ‘그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⁶¹

더구나 애틀리의 워싱턴 방문이 1950년 12월 중국과의 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전쟁은 동맹외교에 의해서가 아니라 리지웨이 장군 휘하의 전선에 있는 미군을 재충전시키기 위하여 제한되었다.⁶² 아인젠하워는 핵공격으로의 확전이 서구 동맹국들에 불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임을 인정했지만, 그는 그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또한 확신했다.⁶³

이런 관점에서 그는 확실히 옳았다. 동맹국들의 안보 엘리트들은 한반도

에서의 전략을 들러싼 하찮은 일로 공공연하게 다툼으로써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위협하게 할 수는 없다고 느꼈다. 예를 들면 호주는 만약 미국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세계대전으로 확대시키더라도 미국을 지지해야만 한다고 믿었다.⁶⁴ 이런 우발적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동맹국들이 한국 전쟁에서 미국의 핵방아쇠를 멈추게 했었는지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중국이 도발했다면 미국이 동맹국들을 무시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유용한 증거가 있다. 미국이 핵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전쟁중에 전체 전략에 대한 동맹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핵강대국이 양보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발전단계에서 볼 때, 핵동맹체계가 완전히 폐권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리므로 미국의 핵전력은 한국전쟁에서 폐권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미국은 핵태세-전투, 강제 또는 억제를 위한—에 대해 한반도에서 군사 동맹국들로부터 지지를 구하지도 받지도 않았다. 실제로 핵전력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관해 동맹국들을 설득시킬 만한 핵교리를 미국이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핵전략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동맹국들의 지지를 얻기는 불가능했다. 당시 이념의 붉은 글씨—반공주의—는 이 일에 부적합했다. 반공주의는 핵위협과 결합하여 훗날 핵증파괴와 유연반응으로 변화되는 대량보복 이념을 낳게 되지만, 아직 그러한 결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핵전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동맹이념은 없었다. 다음 10년간에 걸쳐, 대량보복교리가 극동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핵전력과 신동맹체계로 표현되는 제도통합을 연결시키는 일관된 핵이념으로는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미국은 동맹국들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핵전투는 고사하고 이 무기의 제한된 사용에 대해서까지도 동맹국의 관심을 핵이념으로 통합했어야만 했다.

제3장 대량보복

황금률: 황금을 가진 자가 규칙을 만든다.
—미 육군 격언¹

한국전쟁이 끝나자마자 덜레스는 대량보복으로 알려진 교리를 명확히 표명했다.² 덜레스의 교리는 두 가지 교훈을 결합시켜 단일한 전략적 패러독스로 만든 것이다. 대량보복은 핵전투—한국전쟁 이후로 그 발발 가능성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 개념인—에 대한 대비와 핵공격 위협을 결합시켰다. 이러한 속임수를 믿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위협의 수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덜레스는 미국은 적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즉각적이고도 대규모적으로 확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해군과 공군은 재래식 무기 대신 핵무기로 무장하였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중소블록을 용수철이 장착된 핵무장 쥐덫으로 포위한 것이다.

한국전쟁 이전의 핵전략이 미국의 핵‘독점’에 기반한 것이었다면 이 신교리는 소련에 대한 미국 핵전력의 ‘우위’에 기반한 것이다. 대량보복의 깃발 아래 각 군은 신세대 핵무기를 개발하였는데, 이들 중 많은 무기는 이 정책이 폐기된 후에야 배치되었다.

이 장에서는 미국이 한국전쟁 이후 15년 동안 새로운 교리에 담겨 있는 모순을 어떻게 제한하였는가, 또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였는가를 다루고 있다. 그 한 예로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에 소련이 미 전략핵의 우위를 놀라운 속도로 앞지르려 하자 대량보복 전략은 상호증파괴 전략으로 변화하였다.

이 기간동안 미국의 핵외교 정책은 적국에 대한 위협보다는 동맹국에 대한 재보장을 더 중대한 사안으로 여겼다. 특히 일본에서는 새로운 교리와 군대의 구조에 대해 긴급한 후속조치들이 필요했음을 이 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유연반응 전략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유럽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초강대국간의 총력전으로 확대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정책이었다. 교리의 변화에 따라 전술 전역 핵전력들이 갈피를 못잡게 배치되면서 새로운 전투 수사어에 위력을 더해주었다. 이 장에서는 유럽의 동맹국들이 그들의 이해에 관련된 핵전략에 대한 협의권을 획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양보를 통해 유럽에서 그들의 핵전략을 정당화시킬 수 있었던 반면, 유럽의 동맹국들은 유럽에서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권을 획득할 수 없었다.

미 지상핵무기를 배치함으로써 미국의 전략적 무기고에 자국의 운명이 연결되기를 원했던 유럽의 동맹국들과는 대조적으로 1955년에서 1960년 사이에 일본정부는 똑같은 정책을 시행하려다가 거의 붕괴될 뻔했음을 이 장에서 알 수 있다. 미국은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에서 지상핵무기들을 ‘철수’ 할 수밖에 없었다. 동맹국인 일본의 상황을 고려하여 미국은 시인도 부인도 않는 정책을 취하게 되었는데 말하자면 이것은 아시아에서의 유연반응 이었던 셈이다. 유럽과 일본의 관심사항이 정반대였으므로 그에 대한 대응책도 정반대였지만 궁극적으로 그 두 가지는 모두 동맹국들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취해진 것이었다.

이 장에서는 또한 대량보복의 철학하에서 해군과 공군이 아시아에서의 전략적 핵억제 및 강제임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58년 8~9월 대만해협 위기가 발생했을 때 태평양 함대와 태평양 공군은 중국에 핵폭탄을 투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 그것은 미 동맹국들이 대만을 외교적으로 승인하는 것을 막으려는 중국의 정치전략만을 강화시켰던 강제시도였다.³ 아이젠하워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궁지로 그 자신을 몰아넣을 뻔했다.

1960년 캐네디 행정부는 핵의 역할을 경시한 반면 대게릴라전과 특수전에 최우선권을 두었다. 그러나 1962년 10월의 쿠바 미사일 위기와 1964년의 중국 해실험 이후에 핵의 역할이 재부각되었다. 이 장에서는 1960년대 중반, 태평양에 신세대 전략핵무기들이 배치되자 각 군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다루고 있다.

이 장에서는 육군이 남한에 핵무기를 도입한 것과 관련하여 전적으로 새

로운 정보들을 밝히고 있으며, 1960년대에 육군이 실질적인 핵영역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과정도 폭로하고 있다. 또한 1968년과 1969년에 북한이 미국의 정찰선에 이어 정찰기를, 억류시킴으로써 야기되었던 우발적인 두 차례의 강제가 가지는 중요성을 분석하고 있다. 1969년에 있었던 모스크바와 하노이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 시도와 마찬가지로,⁴ 이 두 차례의 시도도 북한을 굴복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는 동안 육군은 남한에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축적시켜갔다. 수백 번, 심지어는 수천 번에 달하는 핵폭발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육군은 단순한 전투의 무대였던 한반도를 부조리 연극의 무대(19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전반까지 유행한 전위극으로 현실의 비합리성을 강조함—역주)로 바꾸어놓았다.

‘다시는 안된다’

핵시대에도 제한전은 가능하다는 사실이 한국전쟁에서 증명되었다. 한국전쟁 이전에는 주한미군 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이 후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제한전”的 개념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었다.⁵

더욱이 한국전쟁은 전쟁이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가에 상관없이 그러한 전쟁들은 미국의 이익에 대한 도전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었다. 미국의 많은 보수주의자들에게 한국전쟁은 예기치 않은 때에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일어난 예기치 않은 전쟁이었지만, 호전적 봉쇄정책 조류에 입각해 내린 결론에 따르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그 명성과 평판을 지켜냈다. 그리고 그들은 핵위협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고 보았고, 이러한 인식은 대량보복의 명목하에 재래식 전력을 회생하고 핵전력을 강조하는 견해를 정당화시켰다. 그에 따라 대량보복 정책은 두 가지 모순되는 개념을 하나로 융합시켰는데, 그것은 바로 전면전을 치르기 위한 수단은 제한전에서도 사용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군부내에서 일치된 의견이 없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엄청난 살상자를 내는

아시아 대륙에서의 지상전에 다시는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느꼈다. “다시는 안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서(島嶼) 전진기지와 해군력에 기반을 둔 근해전략을 강조하면서, 지상전에서 군인을 핵무기로 대체할 것을 주장했다. “다시는 안된다”는 목소리에 편승하여 해군은 핵공격 능력이 있는 항공모함 함대를 증가시켰다. 육군은 유럽에서의 연합전에 대비하여 새로운 핵전력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공군의 전술전폭기 분야는 전략핵폭격의 개념과 뚜렷이 구별되는 전술핵폭격 임무를 개발해내었다.⁶

핵동맹

대량보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문제에도 직면하게 되었다. 한반도에서 강제를 추구하기 위해 핵전투 대신 핵위협을 가함으로써 미국은 이미 군사동맹국들과의 논쟁에 휘말려들었다. 결국 미국은 대량보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맹국들을 구슬리고 재보장해야 했다.

미국무장관 덜레스는 태평양을 쌍무동맹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체계로 연결시킬 계획을 한국전쟁에서 착안했으며, 한국전쟁은 또한 그 계획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1954년까지 6개의 맞물린 동맹이 하와이에서 일본, 오키나와, 남한, 대만,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퍼키스탄으로 뻗어나갔다. 초기단계에서, 이 동맹들은 각 지역동맹들이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적 안보체제라기보다는 미국이 통제하는 핵보호령에 가까웠다.

동맹체제를 구상한 즉각적인 목적은 당장은 한국전쟁 수행에서 미군의 제휴전략을 강화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덜레스는 더 큰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것은 대량보복의 수행이었다.⁷ 그러므로 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들은 그 시작부터 핵무기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한미동맹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한반도의 유엔 핵무기

한국전쟁을 종결한 정전협정은 또한 한반도에 새로운 무기를 들여오는 것도 금지하였다. 그리고 중립국 감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러한 조항을 감시, 확인하게 하였다. 그 후 몇 년간 감시위원회는 남한과 북한에 현존하는 군비를 사찰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전쟁중에도 그랬고 그 때까지 한반도에 핵무기는 배치되지 않았다.⁸ 감시위원회의 사찰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은 미국이 핵무기를 들여오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활발히 진행중이었다. 그 한 예로 1956년 존스 흉킨스대학의 작전연구실(Operation Research Office)이 국방부에 제출한 자료들은 한반도에 ‘원자탄 장벽’을 쌓는 데 필요한 무기들을 분류·분석하고 있다.⁹

1958년에 이르러 감시위원회는 실로 유명무실해지고 정전협정의 군비통제 조항은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¹⁰ 이렇게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미국은 남한에 핵무기를 들여놓았다.

정전협정의 군비통제 조항을 백지화시켜버린 한반도 군비경쟁은 육군과 공군이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하도록 촉진하였다. 실제로 1957년 6월 북한이 다량의 무기를 사들였고, 정전협정 13조 d항의 제한조건 준수는 일시정지될 수밖에 없다는 유엔사령부의 발표에 따라 핵무기 도입이 이루어졌다고 유엔사령부는 밝히고 있다.¹¹ 그러나 핵무기의 등장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특정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육군을 펜토믹 사단(핵장비 5개 사단-역주)으로 재조직하려는 전세계적인 움직임의 일부였으며, 이는 의회의 재정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육군의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움직임이었다.¹²

펜토믹 육군

1956년부터 미 육군은 군대의 편제를 기존의 3개 사단편성(즉 전투기동, 화력기지, 예비부문)에서 5개 부문으로 편성된 ‘펜토믹’ 핵전투 체제로 바꾸어가기 시작했다. 핵화력의 지원을 받는 기동전투군으로 이루어진 사단을

새로 편성한 것은 새로운 무기들에 대한 예산승인을 최대한 얻어내기 위한 것이었다.¹³ 새로 편성된 부대가 핵전장에서 어떻게 전투를 수행할지는 아무도 몰랐다. 내부연구에서도 일단 핵공격을 받으면 승리란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군은 핵전멸을 피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분산시켰기 때문에 핵화력을 이용하기 위한 핵무기의 집중이 불가능했고, 따라서 미군은 세부적으로는 취약한 상태였다. 만약 미군이 지역우위를 획득하는 데 전념한다면 핵무기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다. 통신은 통제를 유지할 수 없었고 정보체계는 표적을 재빨리 식별하지 못하거나 그 것이 아예 불가능하기도 했다.¹⁴

1958년 1월 28일 유엔사령부는 미국의 280mm 핵포와 어니스트 존 핵미사일이 남한에 도착했음을 확인했다.¹⁵ 1956년 이후의 전형적인 펜토믹 사단은 18개의 핵무기 체제(155mm 곡사포 12문, 8인치 곡사포 4문, 어니스트 존 핵미사일 발사장치 2기)로 이루어졌다. 펜토믹 사단의 포병부대는 105mm 견인곡사포 1개 대대와 어니스트 존 미사일, 8인치·155mm 곡사포 중대를 포함하는 1개의 '일반지원흔성' 대대로 이루어졌다. 애초의 생각은—육군내에서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는 호된 비판을 받았는데—일반지원흔성 대대가 어니스트 존을 이용하여 즉각적 핵화력을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후에 이 포대의 곡사포용으로 핵포탄이 제공됨으로써 이 핵화력은 증대되었다.¹⁶

크루즈 미사일

1958년 미 공군은 남한에서 전투부대를 철수시키고 그 대신 순환파견 부대를 배치시켰다. 초기의 철수는 보다 나은 전체적 위상을 추구하는 미국의 야심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남한의 압력으로 순환부대는 유지되었다. 1959년에 공군은 핵이 장착된 마타도어(Matador) 크루즈 미사일 1개 비행중대를 남한에 상주시켰다. 1,100km까지 날 수 있는 마타도어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소련까지를 겨냥한 것이었다.¹⁷ 마타도어에 이어 1961년에는 사정거리가 1,800km인 메이스(Mace)가 들어오면서 남한에 있는 핵무기의 사정거리는 더욱 확대되었다.¹⁸

이 시기에 남한에 공군 핵무기가 배치된 근본적인 이유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육군과 해병처럼, 전술공군도 1950년대에 심각한 정체성으로 위기를 겪었고, 핵영역에서 독특한 역할을 부각시키고자 했었다.¹⁹ 또한 대량보복이 호전적인 봉쇄를 핵강제와 억제라는 초기개념과 연결시킴으로써 공군에 대해 즉각적인 이념적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전술공군은 전략공군 사령부와 대소(對蘇)임무에서 수워다툼을 할 처지가 못된다. 대신 전술공군은 대량보복 교리가 겨냥하고 있는 보다 약한 적대국에 대한 책임무를 취급하게 되었다. 마타도어와 메이스의 사정거리는 공군이 중국과 소련을 위협하기 위한 핵 발사대로 남한을 이용하고 있음을 충분히 증명해준다.

유엔사령부가 떠들썩하게 핵포와 미사일이 남한에 도착했음을 알린 것은 그들이 오늘날까지도 쉬쉬하며 시인도 부인도 않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는 흥미로운 대조를 보이는 것으로서—미국이 한일해협 건너편의 도쿄에서보다는 서울에서 훨씬 더 강력한 정치적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또한 남한의 상황이 반대의견을 제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으므로 핵전력에 대해서 조야한 반공주의를 내세우는 것 이상으로 어떤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었다. 일본이나 서유럽과 비교해볼 때 한반도에서는 육군, 공군의 핵무장이 거의 아무런 반대에도 부딪히지 않았던 것이다.

일본 연결고리

한일해협의 건너편에서는 남한에서의 미 핵전략에 불길한 전조를 암시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전개되었다. 남한에 핵무기가 배치되면서 일본에서는 거의 동시에 핵무기가 철수되었다. 이런 역현상은 그 이후로도 지속되었으며, 남한의 핵전략에는 그 지역에서 미국이 지난 다른 분야의 이해를 망라하는 정치적 논리가 주입되었다.

1951년 미일 안보조약이 체결되어 미 국방부는 일본에서 사실상 전권을 지니게 되었다. 이 조약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미국의 핵무기 배치라는 민감한 사안을 포함하여—공동행동이나 협의규정을 두지 않았고 미 국방부는 오키나와와 그 밖의 섬들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임시협

정'으로 보이는 이 조약으로 인해 이미 폐지되었던 일본군이 자위대로 부활되었고 이들이 "직간접 공격에 대해 점점 더 많은 방어책임을 맡게 되리라는" 것이 예견되었다.²⁰ 1950년대 중반에 미국이 핵공격이 가능한 무기들을 일본에 도입하자, 일본은 아시아에서 핵전쟁을 위한 주요 병참기지 역할을 맡게 되었다. 1957년까지 3곳의 미군기지에 탄두가 비축되었고 이것들은 일본에 있는 9군데의 미군기지(오키나와 제외)로 정례적으로 이송되었다.²¹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일본사람들의 비위를 심하게 건드렸다. 1950년대에 반군국주의 반핵운동이 전일본으로 확산되었다. 미국이 일본에 핵무기를 비축하고 있다고—혹은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항의자들이 비난하였다. 실제로 1954년에 미 국무부의 한 보고서에서 '히스테리적인 발작'으로 성격지어졌던 일본인들의 심리상태인 '핵알레르기'에 대해 미 국무장관 텔레스는 불평을 했다.²² 1957년에 실시된 일본의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87%가 세계 어느 곳에도 핵무기가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³

1955년 보수적인 자민당 정부는 핵문제에 대한 여론의 동향을 시험해보고자 일본에 미 핵무기가 비축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잇따른 반발로 정부는 그 발표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²⁴ 1955년 6월 외무상 시게미쓰 마모루는 미군은 "일본내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서 "미국은 핵무기 도입에 대해 일본의 승인을 얻으려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 그와 주일 미 대사 앤리슨(John Allison)간에 '이해'가 이루어졌다고 국회에서 단언하였다. 그러나 1957년 미 국무부의 정보 보고서는 '이해'에 대한 일본측 주장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발표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회의 비판을 중지시키는 효과를 노렸는데, 실제로는 그러한 이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55년 7월 7일 비릴서신을 통해 미 대사관은 미 대사가 "5월 31일에 일본내 원자무기 비축과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미국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특별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일본 외무상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1955년 7월 13일의 답장에서 외무상은 "일본국회내에서의 어떠한 토론도 미국으로 하여금 어떤 특별한 절차를 밟도록 구속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²⁵

안보조약 수정

1950년대 말 미국은 1951년의 안보조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일본수상 기시 노보스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기시 수상은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 좀더 동등한 기반 위에서 미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정치적 열기를 잠재우려 했던 것이다. 미국은 일본의 방위에 관여하고자 했지만 일본은 미국의 지역안보 전략에 알려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시 수상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장비와 배치에 대한 정기적인 공식협의"에 미국이 동의해주기를 원했다는 사실이다.²⁶ 그러한 동의는 미국의 대화상대로서 일본의 교섭력을 중대시키고 대중적인 반군국주의운동의 토대를 약화시켜줄 것이었다.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일본내에서는 미국의 핵병기고에 관한 논쟁이 심화되었다. 1957년 기시 수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앨리슨-시게미쓰 협정'을 내세워 이는 일본이 핵증립국임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되풀이해서 주장했다.²⁷ 1957년 미국정부는 일본에 핵무기를 도입하려고 시도한 적은 없었으며 반드시 일본정부와 협의한 후에 그런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공공연한 사기극에 가담하였다. 미 국무부의 1957년 정보 보고서는 미국의 발표가 시게미쓰가 받은 '잘못된 인상'을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만들었다고 언급했다.²⁸ 심하게 말한다면 미국은 시게미쓰의 거짓말에 대한 기시 수상의 거짓말을 확증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셈이다.

사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미국의 핵무기는 이미 일본에 들어와 있었다.²⁹ 뿐만 아니라 미 태평양통합군 총사령관인 펠트 제독(Adm. Harry Felt)은 일본과의 '협의'는 형식으로만 남기고 미국은 최대한의 군사적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작정이었다. 1958년 합동참모본부 앞으로 보낸 전보에서 펠트는 "협의는 일본주둔 미군이나 그 기지가 지원하는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일본의 정책과 복지, 안전을 고려할 책임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만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³⁰ 그러한 고려는 핵무기 긴급배치 때에만 적용되므로 군함이 신고 통행하는 무기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³¹ 펠트는 그 전보에서 "미국은 미국의 작전행동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거부권도 받아들일 수 없다. …주일 미군기지들이 일본의 정체적 방어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한다

면 미국에게는 제한된 가치밖에 없음을 일본 지도자들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³² 합동참모본부에서도 다음과 같이 역설하면서 미 태평양통합군 총사령관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미군의 운용에 관한 거부권을 일본에게 줄 어떠한 의무도 없다."³³

이러한 언어상의 빌涨停은, 미 국무부 보고서의 언급대로, "핵무기에 대한 일본의 국가정책 형성에 있어서 여론이 통제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나온 것이다.³⁴ 국무부는 이 공공연한 거짓말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날에는 친미보수 정부가 무너지게 되리라고 내다보았다.³⁵ 1958년 합동참모본부의 견해도 "핵성분(즉 핵분열성 물질)의 도입에 대해 일본의 승인을 얻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겠지만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현실적이고, …따라서 지금은 일본에 있는 무기를 현상유지시키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점에서 일치했다.³⁶

결국 미국은 일본내 핵무기 배치에 대해 일본의 사전승인을 구하도록 하고 있는 조약문구에 기꺼이 동의하려 들지 않았다. 그 대신 공식문서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미 태평양통합군 총사령관이 주장한 '협의' 형식에 동의하였는데, 그것은 사실상 미국이 일본에 소리 없이 저장해놓은 핵무기를 통행권과 교환조건으로 철수할 것임을 의미했다.³⁷

미국과의 약속에 따라 1960년 기시 수상은 대규모 가두시위와 일본인구의 1/3을 대표한 조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보조약으로 알려진 수정조약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³⁸ 온건주의자들까지도 기시가 국회내의 반대자들을 내쫓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자 그 조약에 등을 돌렸다. 대규모 가두시위 때문에 1960년에 예정되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방일이 취소되었으며, 체면이 깎인 기시는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³⁹

수정조약은 승인되었지만 미국과의 핵동맹은 일본내에서 그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었으며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그것은 리틀보이(Little Boy)와 �эт맨(Fat Man)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뿐만 아니라 거둔 수확의 비통함이 그 때까지도 남아 있었음을 의미했다. 일본은 대만해협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 제7함대의 작전지원을 위해 미국이 일본항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내심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공식기록에서 다음과 같이 드러내고 있다. "일본은 근해도서 위기(대만해협 위기를 가리킴-역주)에서 어

면 능동적인 역할도 하지 않기를 바라며, 미 해군 전함이 손상된 곳을 수리하기 위하여 일본의 항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⁴⁰ 대만해협 위기 때 미국이 중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껴린 사실에서 호전적인 봉쇄정책 조류가 억제 또는 강제를 일으키는 수단이, 핵전투로부터 핵위협으로 전환되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두 정책 모두 실행에 옮겨진다 하더라도 일본내의 불안을 씻어줄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⁴¹ 실제로 이 때 미국은 일본정부가 놀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본내의 핵폭격기를 광으로 이동시켜야만 했다.

유럽의 엘리트들은 달리 일본관리들은 핵무기로 일본을 방어해주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미국이 미국의 핵전략에 대한 일본내의 비공식적 불신과 공식적 승인의 취약성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베토고자 했던 사실은 일본내 전진기지가 미국 핵전력에 얼마나 필수불가결했는가를 말해준다. 또한 그 사실에서 미국이 필요할 경우에는 동맹국들의 거부를 억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안보조약 수정안 및 중국과의 전쟁에 대한 일본의 관심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한 사실은 1940년대와 비교해서 미국의 힘이 이미 얼마나 위축되어버렸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핵후원자와의 협의를 피하고 일본내의 지상핵무기가 의미하는 미 전략군과의 결합을 끊는 데 성공했다. 이것은 미 핵무기의 존재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않는' 정책을 낳아, 미 핵교리에 대해 아시아국가가 큰 기여를 한 셈이 되었다. 그 이후로 이 정책은 미국의 핵작전 전반에 걸쳐 적용되었다. 군부에서는 이 새로운 정책을 상당히 기괴한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발사할 수 없는 무기개념(위협용으로서의 무기-역주)에 적용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있는지 없는지 가르쳐줄 수조차 없는 무기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일본을 재보장하는 과정에서 작전교리나 군대배치, 미일관계 등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일본에서의 이러한 조정과 나토내에서의 발전은 남한에서의 미국의 일방적인 핵지배와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었다.

전략적 전역핵전략

1954년 미국은 미군이 사용할 전술핵무기를 일방적으로 유럽과 태평양에 들여놓았다. 그리고 4년 후에는 남한에 이와 똑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남한에서와는 달리 나토 동맹국들과는 1958년 협정을 맺어서 동맹국들이 핵무기와 전략에 관한 미국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이 협정은 협력 프로그램으로 알려졌다). 태평양 동맹국들은 그런 정보를 입수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아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태평양 동맹국 중 어느 나라도 그 당시에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미국은 핵무기 배치를 통해 나토의 전략적 기반이 되는 무기들을 통제함으로써 사실상 나토의 전략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⁴² 그러므로 유럽에서 미국의 핵주도권은 나토가 창설된 날부터가 아니라 전역핵무기를 배치한 날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전까지 나토는 핵무장한 후원국이었기는 하였으나 그 성격은 재래식 군사동맹이었기 때문이다.

가맹국들이 나토가 핵동맹으로 전환된 것에 적응하고 있는 사이에 미국은 이미 핵교리를 수정하고 있었다. 미국은 대량보복이 암시하고 있는 즉각적인 핵확전을 애써 무시하려 들었다. 또한 가맹국들에게는 재래식 군대를 늘리도록 강요했다. 그러나 유럽엘리트들은 그러한 ‘부담’을 떠맡는 것이 미국의 의무를 축소하고 핵억제의 가능성을 약화시키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또한 그들은 값싼 미국의 핵억제에 의존하는 것을 선호했다.

교리의 변화는 결국 미국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기꺼이 핵자살을 감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유럽인들에게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⁴³ 그들은 현대화된 핵전력을 지탱하기 위해 재래식 군대에 더 많은 돈을 들여야 했을 뿐 아니라 소련의 핵전력 증강에 따라 그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미 핵전력에 대해서도 그 경비를 지불해야만 했다. 설상가상으로 변화된 교리는 핵전쟁이 유럽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음을 암시했고 이것은 그 전략에 대한 대중적인 저항에 불을 붙였다.

유연반응 전략

미국은 유연반응으로 알려지게 된 이 전략에 대한 동맹국의 불화를 한발짝 비켜갔다. 우선 미국은 다국적 핵전력 속에서 핵무기를 공유하자고 제안함으로써, 영국과 프랑스의 독립적 핵무기고를 나토의 전략 안으로 흡수하려 하였다. 1962년에는 핵무기로 나토를 방어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같은 해에 미국은 전역핵무기에 관한 핵교리와 배치에 대해 유럽동맹국들과 협의하는 데 동의하였다.

물론 전시협의는 시간이 허락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1960년 일본과의 협정에서 그랬듯이, 나토내의 협의도 미국이나 나토의 선제사용에 대한 주둔국의 거부권을 설정하지는 않았다.⁴⁴ 쿠바 미사일 위기를 보고 집에 질린 동맹국들의 공포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미국은 1963년 나토 동맹국들이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전략공군 사령부 기지에 관리들을 파견하여 나토관련 핵공격 목표물을 지정하는 데 참여하도록 하였다.⁴⁵

그러나 1965년에 미국은 동맹국들의 주된 관심사는 미국의 핵전략이나 핵 사용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는 것—이것은 결코 미 의회의 승인을 바랄 수 없는 사안이었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동맹국들의 관심은 적대국에게는 핵전략 때문에 이 동맹이 분열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동맹이 불평등한 기반 위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데에 있었다. 간단히 말해서 공식적인 관계가 문제였던 것이다.

핵기획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는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의 폐권적 핵안보 제도인 핵기획단(NPG: Nuclear Planning Group)을 창설하였다.⁴⁶ 핵기획단이 창설되자 나토내의 핵에 관한 논쟁의 초점이 변화되었다. 이제 동맹국들은 핵무기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가 아니라 정체과 절차의 공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핵기획단은 핵전략을 둘러싸고 미국과 나토동맹국간에 소원해졌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었다.

핵기획단에서 미국인들은 나토에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격상시켰다. 동맹국들은 이제 더 이상 유치한 보고만을 받지 않고 유럽에서의 핵전쟁과 관련된 핵하드웨어와 전략에 관해 실질적으로 토의하게 되었다. 1967년 미국은 동맹국들의 영토에 저장하고 있는 핵무기의 목록에 관한 보고서를 연례적으로 제공하는 데에도 동의하였다.⁴⁷

맥나마라는 핵기획단이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시각을 ‘이해’시키는 수단이라고 보았다.⁴⁸ 미국은 유럽에서 미국의 핵정책에 대한 동맹국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대가로 핵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할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하였다. 미국은 나토동맹국들의 핵기획단 회의를 계속 세심히 통제하였다. 미국의 국방장관이 핵기획단 연례 각료회의의 의장이었다. 진행중인 연구와 토의를 지휘하는 핵기획단의 참모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연합군 최고 사령부의 핵부서에서 주로 충원되었다. 핵기획단의 논의에 필요한 기밀취급 정보의 대부분을 미국이 제공하기 때문에, 미국이 불가피하게 핵기획단의 의제를 통제하게 되었다.

일 년에 한 번씩 열리는 핵기획단 회의는 미국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칠 만한 역할은 거의 하지 못했다. 핵기획단 회의는 핵문제에 관해 동맹국들간에 이념의 일치를 이루어내는 역할을 했다. 또한 핵기획단은 동맹국들의 비난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해주었고 미국이 자신의 의도대로 일을 자유로이 진척할 수 있게 해주었다. 간단히 말해서 핵기획단에서 이루어지는 협의는 미국에 의해 요리된 핵정책을 동맹국의 엘리트들이 좀더 쉽게 삼킬 수 있게 해주는 가짜 약이 되었다.

유연반응으로의 이념적 전환은 초강대국간에 핵균형이 이루어진 상황 아래에서 동맹국들에게 핵억제를 확대시키는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을 흡수해 보려는 시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 새 교리는 표면적으로 재래식 억제와 방어력을 증대시켜 핵의 문턱을 높이고, 전역핵무기의 사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택의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핵억제를 증강시켰다.⁴⁹ 그러므로 유연반응 전략은 ‘확대된 억제’—즉 핵억제는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봉쇄하고 재래식 억제를 강화하거나 재래식 군대를 대체하는 데까지 확대될 수 있다 는 생각—의 개념을 이용한 최신작품이었다.⁵⁰

1967년 나토는 전술핵 전쟁계획에 대한 지표로서 유연반응 전략을 공식적

으로 채택했다.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 육군은 전통적인 기동작전 전략에 핵무기를 단순 접목시켰던 핵전투라는 무비판적인 개념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나토 지도자들은 전장핵전력과 전역핵전력에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부여하였다. 그들은 핵무기의 사용이 자동적인 확전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즉 동맹국들은 전력구조와 전략이 핵억제라는 미국의 수사이와 조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실행하기는 어려웠다.

억제란 개념은 무기가 발사되지 않고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던 육군에게는 낯설고 불안한 개념이었다. 육군이 핵전투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게 된 것은 1973년에 이르러서였다. 1973년에야 육군의 작전교리는 전쟁이 빨발하기 전의 상황에서 핵무기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정치적 고려에 따라 어느 경우에나 그 실제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인정하였다.⁵¹ 특히 서독인들에게 그것은 그들이 동서 양 진영의 전략적 요충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그들의 ‘동방정책’은 각 나라와 진영간의 영토분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1971년의 헬싱키 협정을 냉았다.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유연반응 전략이 아무리 비논리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핵무기의 선제사용에 대한 ‘정치적’ 문턱을 높이고 유럽을 현 상태로 안정시킨 것만은 틀림없다.

아시아의 열전

유럽과는 달리 인도차이나와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은 냉각되지 않고 오히려 가열되고 있었다. 미국이 인도차이나 전쟁을 치르는 데 핵무기가 적절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반적 핵억제가 중국과 소련의 군대가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보장해준 것은 틀림없다. 또한 역으로 소련과 중국의 핵전력은 중국내의 베트남인 은신처를 공격하려는 미국의 환상을 날려버렸다.

실제로 미국방부는 미 핵무기의 도입이 그들의 적국을 이롭게 하리라는 결론을 내렸다.⁵² 정글에 훌어져 있거나 베트남인들의 무리 속에 섞여 있는

게릴라들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발사는 거의 불가능했던 반면, 적의 동맹국들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미군기지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 미군기지들은 중국·소련의 핵보복에 대해 취약한 인력과 설비를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⁵³ 하노이에 대한 강제를 추구하며 핵무기를 사용한 것은 1969년 비밀리에 B-52 폭격기들에 대해 한 달 동안 전면 경계태세를 취하게 한 것이 유일한 것이었다. 이 신호는 베트남인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현재까지 널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신호로 인해 모스크바가 하노이쪽으로 기우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지도 않았다. 이 사건은 핵강제 시도의 대표적인 실패작 중의 하나이다.

중국의 핵폭탄

1964년 중국의 핵실험 성공은 태평양에 공산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새로이 불러일으켰다. 한 예로 1963년에 랜드 연구소의 분석가들은 중국이 아시아에서 미군기지나 동맹국의 영토를 직접 파괴시킬 수 있고, 공공연한 비핵작전이나 비밀스러운 내란음모에 대해 핵무기를 우산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그것들을 정치적 선전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⁵⁴ 중국의 핵역량이 미국의 핵전력에 새로운 명분을 부여해주었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중국의 폭탄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을 붕괴시키지는 않을까 우려하였다.⁵⁵ 그래서 존슨 대통령은 1966년에 “중국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개발할 수 있는 어떠한 핵역량도 억제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고 말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언질을 주었다. 또한 미국은 “핵을 이용한 어떠한 협박”에 대해서도 비핵국가들을 강력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⁵⁶

중국의 핵폭발로 태평양 지역에서의 강대국 정치는 사실상 삼각체제가 되었다. 미국의 전략가들과 마찬가지로 동맹국의 엘리트들도 이 때부터는 자신들이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빼이정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해야만 했다. 그 예로 랜드의 분석가들은 중국과 미국간의 핵전쟁 게임에서 중국이 핵미사일과 폭격기로 아시아에 있는 미군기지를 공격할 것을 가정했다. 랜-

드 연구소는 표적이 된 동아시아 주둔 미 지상기지들 중에서 단 두 곳만이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것이라고 보았다(<표 3-1> 참조).⁵⁷

전쟁게임 시나리오에서 랜드의 분석가들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선제 핵공격에 대한 보복을 위하여 일본에 있는 미국 이외 국가의 핵공격 가능한 공군을 이용할 수 없으며, 미 공군의 작전을 수행하는 데 일본에 있는 어떤 미군기지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들은 또한 미국 이외 국가의 전력이 미국의 작전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것은 행동의 자유를 유지하고 재빠른 대응을 필요로 하는 미국의 요구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그들은 말했다.⁵⁸ 그러므로 공산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50년대에 일본에서 상실했던 미국의 핵특권을 재확립시켜주는 정도에도 한계는 있었다.

1960년까지 각 군의 경쟁은 장거리 잠수함/군함, 폭격기, 미사일 전력으로 이루어진 핵 3인조를 이미 탄생시켰다. 따라서 아시아에서 대량보복 교리의 유산에 상호학증파괴 교리를 접목시키기는 쉬웠다. 1963년 랜드 보고서에서는 중국 핵무기에 대한 반격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핵전력을 늘릴 것을 권하고 있다.⁵⁹ 1964년에 중국 핵전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태평양에 플라리스 잠수함이 최초로 들어왔다. 같은 해에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억제란 칼에 핵무기로 날을 세우기 위해 핵무장한 B-52 폭격기 비행중대가 꿈에 배치되었다.⁶⁰

대단과 오키나와에 배치되어 있던 중거리 크루즈 미사일이 1969년까지 계거되었다.⁶¹ 이 조치로 핵무기를 비축한 채 소련극동 앞바다에 그 때까지 배치되어 있던 알파라는 암호명을 가진 두 대의 항공모함의 임무가 없어졌다. 해상함대는 남지나해에 있는 양기 스테이션으로부터 인도차이나를 폭격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 좀 더 서쪽에서는 제7함대가 대서양 함대와 태평양 함대를 인도양을 통해서 연결함으로써 최초로 미 해군이 전세계를 포괄하게 되었다.

<표 3-1> 랜드 연구소에서 1963년에 분석한 아시아에서의 핵전쟁 게임

A. 중국의 미사일 공격

표적	거리 (마일)	발사 기지	미사일 수	Pk1a	Pk2b	결과	비고
오키나와							
가데나	675	1	2	.60	.84	명중	
나하	675	1	2	.60	.84	실패	충격 에러
호크포병중대	675	1	1	.60	.84	명중	
호크포병중대	675	1	1	.60	.84	명중	
남한							
비행장 #1	450	2	1	.88	.99	명중	
비행장 #2	450	2	1	.88	.99	실패	미사일비행중지
비행장 #3	450	2	1	.88	.99	명중	
오산	450	2	2	.88	.99	명중	
호크포병중대	450	2	1	.88	.99	명중	
필리핀							
클라크	840	3	2	.42	.66	실패	충격 에러
바스라	840	3	2	.42	.66	명중	
수빅만	840	3	2	.42	.66	실패	충격 에러
일본							
요코타	820	1	1	.44	.69	명중	
이타즈케	670	2	1	.60	.84	명중	
이와쿠니	670	2	1	.60	.84	명중	
미사와	750	2	1	.52	.77	실패	충격 에러
타이완							
핑뚱	550	3	1	.76	.94	명중	
타이난	550	3	1	.76	.94	명중	
자이	550	3	1	.76	.94	명중	
콩쿠안	500	1	1	.83	.97	실패	미사일비행중지
타오위안	500	1	1	.83	.97	명중	

자료: B. Jaeger and M. Weiner, *Military Aspects of a Study of the Implications of a Communist Chinese Nuclear Capability*, Rand RM-3418-PR, Santa Monica, March 1963, pp. 35-36; 미 정보자유법에 의해 공개됨.

Pk1=미사일 1기의 살상확률.

Pk2=미사일 2기의 살상확률.

<표 3-1> 계속

B. 중국 폭격기의 공격

표적	비글	배저	전투기	핵	제재식	결과	비고
오키나와							
카데나		1		1		명중	
나하		1		1		실패	경계 전천후 전투기(AWF) 이륙
메이스 #1		1		1		실패	1평방인치당 100 파운드의 경도
메이스 #2		1		1		명중	상동
메이스 #3		1		1		명중	상동
메이스 #4		1		1		명중	상동
남한							
기지 #1		1		1		명중	
기지 #2		1		1		명중	
기지 #3		1		1		명중	
오산		1		1		명중	6대의 AWF 이륙
필리핀							
클라크		1		1		명중	10대의 F-100과 2대의 AWF 이륙
바스라		1		1		명중	항공모함 격침
수빅만		1		1		명중	항공모함 격침
타이완							
핑뚱		1		3	X	명중	
타이난		1		3	X	명중	
자이		1		3	X	명중	
콩쿠안		1		3	X	명중	
타오위안		1		3	X	명중	

비핵 3원칙

1964년 일본에서는 핵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다시 벌어졌고 반대자들은 핵무장한 전함의 순방과 베트남 전쟁에 항의하였다. 1960년대 중반에 제기된 압력은, 1968년 북한의 푸에블로호 억류에 대항하기 위해 엔터프라이즈

호가 일본항구를 사용한 것에 대해 광범위하게 항의함으로써 쇄절정에 달했다. 거센 정치적 파문을 잠재우기 위해 사토 수상은 1967년 비핵 3원칙을 제기했다. 동시에 그는 안보조약하에서 일본은 핵위협에 대해 일본에까지 확대된 미국의 핵억제에 의존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것의 공식적 수용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⁶²

이 조치에 대한 국내의 반대를 가라앉히고 또 분열시키고자 1969년에 사토는 일본은 미국이 핵무기를 철수해야만 (1945년에 미군에게 빼앗긴) 오키나와의 반환을 수용하겠다고 단언했다.⁶³

오키나와 반환문제는 그 곳에 있는 미군의 이익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다. 군부는 그 섬을 전진기지로 사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토를 통치하고 있었다. 1969년 겨울 워싱턴의 관료들은 미국이 오키나와 반환 후에도 계속 그 곳의 핵무기 보유를 고집할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싸움했다.

국무부와 국방부내에 있는 국무부 협력기구인 국제안보담당국(Office of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에서는 핵무기를 계속 보유한다면 일본의 친미정권이 붕괴되고 동맹도 분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부는 한반도를 포함한 서태평양에서 미군의 전략과 동맹의 토대가 되고 있는 핵억제를 위해 서는 오키나와에 핵무기를 계속 저장할 필요가 있다고 반격했다.

이 문제는 여기서 해결되지 못한 채 보류되어 키신저와 닉슨의 손으로 넘어갔다. 닉슨 대통령은 오키나와의 핵무기를 철수하는 대가로 오키나와뿐 아니라 일본에 있는 모든 기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일본이 미국에 대해 더 많은 융통성을 양도해줄 것을 제안했다. 1969년 10월 하순, 닉슨과 사토가 워싱턴에서 만났고 두 지도자는 이 거래에 대해 계약을 하였다.⁶⁴ 1972년 3월 6일 해병대는 오키나와의 핵무기를 제거했고 일본은 오키나와에 대한 주권을 회복했다.⁶⁵

이렇게 해서 1969년까지 일본의 엘리트들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핵정책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미국이 이제는 일본의 영토가 된 오키나와에서 지상핵무기를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핵해제모니라는 관념이 일본 엘리트에 서서히 배어들고 있었고 심지어는 대중들의 정치의식에도 침투하고 있었다.

동시에 미군 지휘관들은 극동에서의 미군전략에 대해 일본이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우선 그들은 일본이 단독으로 혹은 미일합작으로 해상에 근거지를 두고 핵으로 무장한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를 수립할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해보았다. 여당인 자민당내의 영향력 있는 찬핵집단은 일본산 미사일 수송체계에 미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게 해줄 '두 가지 주요' 협정을 일본측이 받아들일지도 모른다는 미국의 오해에 믿음을 주었다. 이런 노력들은 키신저가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한 논리에 역행하는 것이었으므로 1971년 7월 갑작스럽게 무산되었다. 미국방부가 일본이 재무장하고 유럽식 모델에 입각한 독립적 핵전력을 갖추도록 일본에 대해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이 강대국 삼각체제 속에서 중국을 미국쪽으로 기울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미일 군부간의 제도적인 통합경향과 안보조약에 독특하게 내포된 일관성 있는 핵이념 개발노력은 미국의 일방적인 움직임과 상충했다. 1972년의 '닉슨 충격'으로 미국의 공공연한 핵해제모니는 일본에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⁶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략가들은 협의의 폭을 확대시킴으로써 일본에서의 핵난관을 돌파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그 한 예로 1974년에 랜드 비밀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미 핵보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핵 역량에 대한 일본정부와의 비공식적인 협의도—만약 일본정부가 응한다면—또한 고려해보아야 한다. 그러한 비공식적 교섭은 나토의 핵기획단과 같은 형식이지만 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⁶⁷

한반도에서의 세력구축

일본을 핵동맹 안에 명시적으로 통합시키려던 미국의 노력은 일본내의 여론과 강대국 삼각체제의 등장이라는 두 암초에 부딪쳐 난파하였다. 아시아 어느 곳에서도 미국은 나토와 같은 형태의 동맹을 기대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 지역 상황에 맞는 특수한 핵교리를 개발하고 동맹국 국민들에게 핵정책을 정당화시켜야 한다는 동맹국들의 요구도 거의 없었다.

때때로 한반도에서 특수한 사건들이 일어나서 핵전력을 활성화시켜주었다. 한 예로 1968년 1월 북한이 미 합정 푸에블로호를 억류했을 때, 미 정책 결정자들의 최초의 반응은 평양에 핵무기를 투하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클리포드(Clark Clifford)에 의하면 “초기의 감정적 요소들이 가라앉으면서” 이 계획은 철회되었다고 한다.⁶³ 남한 비행장에서 항시 대기 태세를 취하고 있는 모든 F-4 전투기들이 핵무기만을 탑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도자들이 명석한 사고를 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⁶⁴ 최초의 반응과 동원 가능한 전력은 유연반응 전략보다는 대량보복 전략에 더 합당한 것이었다.

한반도에서의 핵전략은 또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다시 개입할지도 모른다는 미국의 우려를 반영했다. 1967년 미 국방부의 전쟁게임 대본에 나와 있는 다음의 글은 그 예가 된다.

남한군 12개 사단과 미군 2개 사단은 1970년 아래로 남한 방위계획을 거의 전적으로 핵무기의 초기사용에 맞추고 있었다. 이 교리는 군사전문지를 통해 광범위하게 논의된 바 있으며 북경도 분명히 이를 간과하지 않았을 것이다.⁶⁵

이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이 유럽에서 소련과 대결하게 되어 유럽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사이 중국·북한 연합 침략군이 서울을 공격한다. 결국 주한 미군 사령관은 미군을 철수하든지 아니면 전술핵무기 사용을 통해 확전시킬 것을 요구하게 된다.⁶⁶

미군은 여전히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벌여 승리를 거둘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1966년 5월 20일에 열린 미 8군의 전략목표 설정회의가 그 예인데 여기에서는 ‘핵작전’으로 명명된 미 8군 작전계획에 따른 부록 U(Annex U)을 검토하였다.⁶⁷ 이러한 전쟁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남한에 핵무기를 위한 광역 병참기지가 창설되었다.

1966년 6월 12일부터 들어온 16개의 항공 탁송화물을 통해 8군의 무기비축고에 85개의 무기가 추가되었다. 남한내에서는 핵무기를 이동시키는 기본수단으로 헬리콥터가 사용되게 되었다. 무기이동과 오산 공군기지에서의 임시보관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져서 고속도로를 통해 무기를 수송할 필요가 없어졌다. 주

한 미공군과 정식 임대차(host-tenant)협약 체결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 협약은 오산 공군기지를 통한 핵무기의 인수와 선적에 따른 지상군과 공군의 책임을 정확하게 서술하게 될 것이다.⁶⁸

미국은 또한 남한에서 자신들의 핵전투력을 단련시켰다. 한 예로 1967년 2월 28일 미 8군은 오산 공군기지에서 기획회의를 열어 ‘공수핵무기 요청절차’에 대해 토의했다.⁶⁹ 미 8군은 또 1966년에는 Counter Blow라고 이름붙인, 주요 지휘소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지휘관들에게 “기동작전의 틀에 핵무기를 결합시켜 반격을 가하는 계획을 실험할 기회”를 제공해주었다.⁷⁰

군사무대로부터

1964년에 원자파괴탄(Atomic demolition munitions: ADM, 이하 핵지뢰) 표기. 핵배낭으로 불리는 특수 원자파괴탄(SADM)과 중형 원자파괴탄(MADM)으로 크게 나뉜다(역주)이 육군 무기고에 최초로 들어왔다.⁷¹ 늦어도 1966년까지는 특수 핵지뢰들이 남한에 도착했다. 그 해에 핵지뢰팀의 핵보증을 시찰하기 위한 작전검토팀이 도착하였다.⁷²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핵지뢰가 전쟁작전에서 중심이 되었다. 예를 들면 그것들은 침투회랑을 따라 아래로 진격하고 있는 북한의 장갑부대를 차단하기보다는 북한군이 서울을 넘어 진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이용될 것이었다. 1969년 남한에서 핵지뢰 작전에 관여했던 한 공병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의 목표는 오직 어떻게 하면 아주 신속하게 장애물을 설치하며 전략적 지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곳으로 단계적 철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있었다.”⁷³ 김포공항, 한강다리의 교각을 비롯한 ‘전략적 지점’이나 다른 표적들은 플라스틱 폭약으로는 쉽게 파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김포를 파괴한다면 그 방면의 한강유역도 상당 부분 함께 파괴될 것이다. 많은 피난민들, 남한군과 미군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 서울을 통과하게 될 방사능 구름의 덫에 걸려들게 될 것이다.⁷⁴

그 당시 핵지뢰는 비무장지대가 아닌 서울 남쪽의 오산 공군기지에 저장

되어 있었다. 남한에 있는 핵지뢰 부대는 원승이 집(monkeyhouses)으로 알려진 콘크리트 요새 안에서 모조무기를 가지고 일상적으로 훈련을 받았다.⁸⁰ 그러나 전쟁이 일어난다면 핵지뢰는 무기나 기술자들이 적에게 포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초반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즉각 전진배치될 것이다. 각 핵지뢰 부대는 가능성 있는 표적을 15개까지 선정하고 있었지만, 실제 보유한 무기는 한두 개에 불과했다. 그리고 모든 핵지뢰 표적들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 있었다. 앞의 핵지뢰 공병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핵지뢰는 적의 전진방향에 놓인 지역을 오염시키거나 장갑부대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었다. 공세적 측면으로는 나이키 미사일을 북한에 쏘고 이어서 포공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포에 뛰어어 나타나는 다음단계가 핵지뢰이다. 60파운드 무게밖에 안 나가는 이 조그만 장치의 폭발력은 20kt에 달했다. 이것으로 한 지역을 2주일 동안 오염시켜서 통과가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이 계획들은 모두 50년대에 짠 것이었다. 우리는 새로운 표적들을 갖게 되었지만 전술핵지뢰를 이런 용도로 사용한다는 개념은 여전히 그러한 류의 철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⁸¹

분명히 핵탄두를 장치한 나이키 헉클리스 포병중대도 전진배치되었는데 이것은 북한사람들에게 미국은 전쟁이 시작되면 즉각 핵무기를 사용할 것임을 암시했다. 전 미 안보담당 관리는 1971년 나이키가 얼마나 무계획적으로 재배치되었는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헬리콥터를 타고 나이키가 설치된 지점들로 갔다. 그 지점들은 북한군 야포 사정거리내에 있는 산꼭대기들 위에 있었다. 우리 모두는 아찔했다. 그 것들은 북한군으로부터 엎드리면 코닿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소규모 전초기지들이었는데 마치 산꼭대기에 있는 작은 성 같았다. 이 지점들은 헬리콥터가 아니면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했다. 너터(Nutter: 당시 미 국방부 국제안보담당국장)는 즉각 그 기지들의 해체를 명령했다. 그러나 서울에서 가까운 후방에 약간의 무기를 남겨놓았을지도 모른다. 그것들은 수년간 그 곳에 있었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고 관심을 두지도 않았다. 그것은 미친 짓이었다.⁸²

비무장지대에서 헬리콥터로 운반된 탄두가 서울 북쪽의 캠프 케이시

(Camp Casey) 근처에 있는 도봉산 탄약창에서 대기하고 있던 트럭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나서 이 트럭들은 요란한 호위를 받으며 떠났고, 남한군들은 난처해하는 미 정보장교들에게 남한에서 핵무기가 철수되고 있는 증인지를 물게 되었다.⁸³

미국은 또 근해 핵전력을 남한과 연결시켰다. 일본항구에서 거센 항의를 받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핵공격 잠수함 플런저(Plunger)호는 1969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부산항에 들어왔다. 육군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에는 플런저호와 같은 최신식 전함이 지원하러 올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남한정부에 확신시키기 위해” 이 방문일정이 정해졌다고 한다.⁸⁴ 미국이 단지 북한만을 상대로 하는 전쟁에 이렇게 값비싼 핵공격 잠수함을 동원할 것 같지 않으므로, 이 방문일정은 평양뿐 아니라 빼이징과 모스크바까지 겨냥한 것 같았다.

부조리극의 무대로

1960년대말까지 미 육군은 위성턴에서는 거의 보이지도 않고,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은 핵영역을 남한에 확립해놓았다. 미 육군의 이런 거만한 태도는 베트남에서 싸우고 있었던 미군을 남한에서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1966년 포병들이 군복을 위장하지도 않은 채—만약 이 사실이 새어나갔을 경우에 벌어질 정치적 분규에는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은 채—미제 155mm와 8인치 훈련용 무기를 가지고 ‘핵재교육 훈련’을 받기 위해 베트남으로부터 공수되어왔다.⁸⁵

위협에 근거한 핵억제의 개념이 대체로 한국전쟁에서 형성되었지만, 그 후 20여 년에 걸쳐 수행된 육군의 대량보복 정책은 강제를 위한 전투에 핵무기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과거의 인식으로 회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교리는 남한과 미국 양쪽 모두에게 끔찍한 딜레마 상황을 안겨주었다. 전진배치된 핵무기는 전쟁초반의 선제사용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공격받기 쉬운 상태로 있는 이 무기들은 위기상황에서 북한의 선제공격을 간청하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 그러므로 전진배치는 미국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그

무기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잃고 말거나” 할 것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였다. 전시에 단거리 핵무기의 사용은 수도 서울을 포기하여 날려버리고, 방사능에 노출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간단히 말해서 한반도에서의 핵전략은 모순으로 가득 차서 앞뒤가 꽉 막혀 있었다.

미국의 핵부대는 한반도에서 핵전투를 준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남한을 구하기 위해 남한을 파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핵부대 사이에 퍼져 있는 핫소리를 남한사람들이 듣는다면 아마 충격을 받을지도 모른다. 밤낮으로 핵전쟁과 함께 살다보니 각 개인이나 집단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거칠고 난폭한 행동을 통해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1968년 남한에 주둔했던 한 핵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핵지뢰가 보관된) 원승이집에서 파티를 즐기곤 했다. 정말로 엉망진창이 되어보고 싶다면, 그 곳이야말로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곳이었다. 중사가 파티를 열었다. 그는 나에게 마을로 가서 여자들을 몇 명 데려오라고 했다. 모조품(모조 핵지뢰)들은 보관실에 넣어 차물쇠를 채운 상태였고 연습실은 냉비어 있었다. 나는 창녀 두 명을 데리고 왔다. 술은 면세로 지급되었다. 5달 러면 프리미엄 스카치 한 병을 살 수 있었다. 월급이 아주 적더라도 원하는 만큼의 술을 살 수는 있었다. 여기에서 바로 타락이 끼어들었다. 장교들은 서로의 엄청난 부정행위를 덮어주었다. 원승이집에서 파티를 여는 것은 허가되었다. 그러나 안보시설내에 한국인 창녀를 데리고 오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⁸⁶

핵전투 움직임이 있자 군대내에는 금지된 성교, 술, 타락이 침투해들었다. 끊임없이 부대를 방문하는 최고급 장교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가혹한 시찰과 훈련이 있었고 그 일정이 끝난 다음에는 여지 없이 그것들이 뒤따랐다. 그러나 핵전쟁 계획의 모순과 비일관성을 지적하는 사람은 누구나 격리되거나 매장되었고, 베트남 파견위험에 처해졌다.⁸⁷

이 계획들이 본질적으로 신뢰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대량보복 정책의 공공연한 허세에도 불구하고—남한에 저장된 핵무기들이 만약 초기에 발사되지 않는다면 즉각 그 무기들을 철수시키거나 파괴해야 한다는 미국의 계획에 의해 입증되었다. 전 남한주둔 핵공병은 “만약 그것들이 사용될 것이

아니라면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그것들을 한반도 밖으로 내보내거나 파괴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⁸⁸

미 육군은 마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이후에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듯 여전히 남한에서 핵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전장에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한국전쟁의 교훈조차도 무시했다. 그들은 핵무기로 인해 전술기동부대가 이용할 수 있는 화력이 더 늘어났다고 주장하면서, 핵무기로 남한을 방어할 계획을 짰다. 그러나 실제로 핵전쟁은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고전적인 지상전과는 다르다. 단기간에 결친 핵전쟁이라는 불가능한 일을 시도했기 때문에 결국 육군은 남한에서 자신들의 핵전략이 야기한 수수께끼를 해결할 수 없었다.

제4장 강성반응 전략

사이밍턴(Stuart Symington) 상원의원: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나라들을 분열시켜왔다고 당신은 말할지도 모르지요. 우리는 먼저 독일을 분열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국을 분열시켰죠. 독일의 경우 우리는 수조 달러의 돈과 수십만의 사람들로 지원해 나가고 있고, 중국에서는 수십억 달러와 수천 명의 사람들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을 분열시켰고 그 곳에서 우리는 수십억 달러와 수만 명의 군대로 버티고 있는데 이 모두는 남세자들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비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베트남을 분열시켰고 수십만의 사람들과 수백억 달러를 가지고 그 곳에 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라오스를 분열시키고 수억 달러와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에 갑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분열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나라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포터: 아니오

-1970. 2. 25 미 상원 청문회¹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베트남전쟁 기간중 푸에블로호 사건과 같은 단기간의 위기상황을 제외하고는 한국문제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남한군대가 베트남에서 계속 싸우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그 편이 미국군대보다 훨씬 비용이 저렴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이 당시에는 북한과 그의 옛 우방이었던 소련파의 관계가 긴장되어 있었다. 극동에서 확장중인 소련의 핵전력이 북한에게 확대된 억제를 제공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대량보복 전략은 미 전략가들이 보기엔 그다지 위험하지 않은 것 같았다.²

그러므로 70년대 초반에 한반도에서의 미 핵전략은 유연반응의 외환—무엇보다도 유럽으로부터 수입된 핵전투를 위한 신교리와 무기들에서—에 대량보복의 요소—특히 핵을 보유하지 않은 적군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량으로

보복하겠다고 위협하는 측면에서—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 당시 한반도에서의 핵전략은 유연반응이라기보다는 강성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전 주한미국 대사는 “남한에서 군대의 배치는 우리가 핵무기에 두는 비중을 반영하였다. 우리는 남한의 군대를 자체시키고, 소규모의 미군을 유지하고, 낮은 문턱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³

여하튼 유연반응 전략을 한반도에 한꺼번에 가져온다면 문제를 가득 찰 터이었다. 한반도의 정치적·군사적 상황은 유럽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바로 사바조약기구와는 달리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에 대응할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한반도의 군사·정치상황은 분명히 불안정했다. 한반도는 잔인한 식민주의, 세계대전 후의 분단, 전통적인 농경사회로부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가지 현대적인 산업사회로의 변천을 반세기 동안에 압축적으로 경험하였다. 1960년에 이르기까지 국경이 안정을 이룬 유럽보다 문제가 많은 한반도에서는 급변하는 정세로 인해 재래식 전력에 억제를 의존하게 되었다.⁴

이 장에서는 한반도에서 강성반응 정책이 가져다줄 기득권에도 불구하고 닉슨 대통령이 현실정치를 재주장하게 되는 과정을 검토한다. 그러나 현실 정치 조류는 국방장관 슬레진저(James Schlesinger)와 같은 호전적인 봉쇄옹호자들의 견해를 거스르는 것이었다. 결국 육군은 이 두 가지 조류가 닉슨-포드 재임기간중에 국제주의 조류에 의해 제기된 위협에 저항하고, 또 그 이후에는 카터 통치하의 고립주의 조류에 저항하도록 하는 데 성공하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닉슨 대통령과 그 후임자 포드에 의해 이루어진 한반도에서의 핵전력태세에 대한 조정은 유럽에서 비롯된 핵전투 교리의 부활에 의해 부정되고 말았다.

이 장에서는 또한 월남전 패배 후에 미국이 어떻게 군대를 재편하였으며, 이에 따라 남한에 있는 핵무기를 1960년대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일본에서의 미국의 이해와 직결시키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장에서는 호전적인 봉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남한에서 1975년 이후에 특히 1976년의 ‘8월 도끼 위기’ 중에 핵무기라는 베풀목에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나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 장은 1976년에 한반도에서의 핵전략에 대한 군의 수정된 교리가 전략적 봉파를 맞는 것을 보여준다.

현실정치의 부활

닉슨은 미국정치와 경제가 상대적으로 쇠퇴한 시기에 세계정치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회복시키는 데 전념했다. 1969년 닉슨은 미국은 캐난의 미국 중심적 국제주의를 연상시키는 현실정치적 방식으로, 더 이상 주변국들의 이해를 방어해주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그 후 그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을 지역안보 공약으로부터 해방시켜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영역에서, 그는 유사시에 억제와 강제를 위해 전략핵전력을 제공하겠다고 함으로써 미국의 패권적 지도력을 유지시켰다. 그러나 그는 열강의 삼각체제가 대두되는 과정에서 중국쪽으로 기울어짐으로써 중추세력이 되려고 주력하기도 했다.⁵

그의 전세계적인 ‘대구상’(grand design)은 한국전쟁 이래 호전적 봉쇄정책조류에 의해 유지되어왔던 이념적 장벽들을 쓰러뜨렸다.⁶ 특히 소련에 대해서, 그는 군사적 협박에 의한 경쟁보다는 좀더 유동적이고 유연한 경쟁을 추구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급했던 것은 동아시아에서의 경직된 선긋기와 군사공약을 변경시키는 것이었다.⁷

이렇게 원대한 그림 속에서,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곳이었다. 월남전이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됨에 따라, 닉슨과 그의 부관들은 위험한 지역분쟁에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들의 근해 해군 핵전략 구상과 어긋나는 미 지상군의 남한에 대한 끝없는 개입을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을 취했다. 1970년에 그는 주한미군 2개 사단 중 1개 사단의 철수계획을 선언했다. 그렇게 될 경우 남한의 핵무기는 공격이나 포획에 더 취약해진다는 비평가들의 주장으로 이 결정은 유산되었다.⁸

그러나 그 다음 해에 닉슨은 그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그는 남한의 거센 항의를 억누르고 1971년 3월에 인도차이나에서 군대를 더 절박하게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남한에서 제7사단을 철수시키고 말았다. 그는 또한 남아 있는 제2사단에게 비무장지대의 최전방으로부터 뒤로 물러나 직접적 발포대열 밖으로 벗어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은 남한에 수십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제공하였다. 또한 동아시아에 있는 동맹국들에 대한 핵 지원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주장했다.

같은 해에 언더힐(Francis Underhill)은 국무부에서 남한으로부터 군대의 완전철수를 주장하는 악명 높은 비망록을 작성하였다. 또 주한미국 대사인 필립 하비브(Philip Habib)는 침군을 권고하는 전보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⁹ 1971년 8월에 국방장관 레어드(Melvin Laird)는 남아 있는 제2보병사단을 1974년 말까지 1개 여단규모로 감축한다는 계획결정 비망록을 내놓았다. 다음 해에 그 목표일시가 1975년 말까지로 연장되었다.

레어드의 정책은 1974년에 그의 후임인 슬레진저에 의해 부활되었는데 그는 의회에서 주한 미 지상군은 단계적으로 감축되어 하와이에 기지를 둔 육군 기동예비군과 괌에 기지를 둔 해병대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¹⁰ 슬레진저가 철수를 지지한 것은 전세계 특히 제3세계에서 소련과 좀더 효율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 미군의 역량을 공고히 해야 할 필요성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키신저의 속셈은 슬레진저와는 다른 데 있었다. 그는 전략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분쟁이 해결되고 한반도의 중립화가 달성된 '이후'의 철군에 관심이 있었다.

실제로 강력한 국제주의적 색채의 조류가 이 때 이미 워싱턴에 출현하였고 이것은 아시아에서의 현실정치적 전략외교를 지원하였다. 그 예로 1973년에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 군비관리군축국(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ACDA)에 대해 미국은 군사력에, 특히 아시아에서 전술핵무기에 의존하는 것을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충돌하는 것은 안정된 국제질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지역군비통제협정을 통해 아시아에서의 불안정 요인을 축소시키기 위해 미국이 중국과의 공동보조를 모색해야 한다고 브루킹스 연구팀은 강력히 주장했다.¹¹ 그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향후 몇 년간 아시아에서 공동협정을 이를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이 한반도인 것 같다. 이 곳에서는 두 개의 한국이 강대국들끼리 충돌할 위험을 줄이고 이 지역에서의 안정지속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듯하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의 군비통제계획을 고려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비핵지대, 무력포기서약, 그리고 아마 한반도내에서 중국의 무력사용 포기를 특별 전제조건으로 하는 비선제사용(no-first-use) 협정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¹²

앞의 제안들과 국무부와 국방부에서 회람되고 있었던 비슷한 다른 제안들 모두는 새로운 협정이 체결, 실행되기 전까지는 미군이 남아 있을 것임을 가정하고 있었다. 1974년 3월 20일 키신저는 남한 외무장관 김동조와의 회담에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고 남한에서 더 이상의 철군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닉슨 대통령이 후에 키신저의 견해를 확인해줌으로써 슬레진저의 공격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했다.¹³

키신저는 한반도에 대해서 전형적인 마키아벨리적 태도를 취했던 것 같다. 그는 남한을 더욱더 재보장하기 시작했다. 포드 대통령은 1974년 11월 서울을 방문하여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해주었다. 포드는 또한 박대통령에게 미국은 더 이상의 철군계획이 없다고 장담했다.

1975년 베트남 함락 후에 키신저는 북한에 대해 한반도에서 미국의 결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공공연하게 경고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는 평양과 대화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한국분쟁을 매듭짓기 위해 강대국 회의를 소집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¹⁴ 1974년에서 1975년 사이에 그는 남북한 양국을 유엔의 정식회원국으로 가입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그는 9월 22일 유엔에 대해 미국은 "좀더 근본적인 타협을 이루고자 대규모 회의를 여는 것을 포함하여 긴장완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가 아닌 다른 대안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¹⁵ 그러나 1975년 11월에 유엔총회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교착상태에 빠졌으며 더 이상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뢰의 상실

닉슨의 철군과 화해할 수 없는 적국인 중국과 미국과의 예비교섭으로 예고된 지정학적 영향력에 남한군은 크게 불안을 느꼈다. 그들은 또 키신저의 계략이 중국에는 그들의 이해를 지켜주는 안정적 타결로 이어지기보다는 불안정한 배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태의 진전에 따라 박정희는 남한이 홀로 북한과 대결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박에게 있어서 군사적 자립은 핵자립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1971년에 그

는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남한내에 수백 개에 이르는 미 핵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산 핵폭탄을 개발하기 시작했다(13장 참조).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전세계적인 핵전략 속에서 일본의 핵무장이라면 환영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은 남한과 같은 약소국이 강대국으로 도약하여 미국의 핵에게모니를 지탱시켜 주고 있는 전세계적 핵확산 금지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1976년 키신저는 미군과 핵무기를 남한에 유지하게 만들었던 안보동맹을 해체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남한의 핵폭탄 제조계획을 종식시켰다. 선수를 친 남한이 패배한 것이다.

교리의 모순

키신저의 계략과 박의 폭탄 제조계획을 모르고 있었던 미 육군은 한반도에서 그들의 전략을 조정하였다. 한편으로는 되도록이면 핵무기를 초반에 사용하지 않기 위해 재래식 억제와 방어력의 향상과 같은 유연반응적인 요소를 한반도에 도입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핵전투 교리를 한반도에 적용시키기도 하였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북한의 공격에 대해 핵무기 사용으로 즉각 핵전시기거나 서울과 비무장지대 사이의 예정된 방어선으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비무장지대에서의 전투로 대응한다는 1973년 홀링스워드 장군(Gen. James Hollingsworth)의 결정이었다. 이 전략은 분명히 핵무기를 평가절하한 것이었다.

우연히도 같은 해에 육군은 야전핵무기 사용에 대한 전세계적 정책을 수정했다. 육군은 어떠한 핵무기의 사용도 제한될 것임을 마침내 인식했다. 그러나 교리는 여전히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교리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기 전에 적이 전쟁을 종식시키도록 강제하는 핵전투의 신뢰성을 부활시키고자 애썼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교리는 정치 사령부로 하여금 신속히 움직이는 전장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추상적인 핵표적들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교리는 유럽의 육군본부에 의해 유럽의 상황에 맞게 개발된 것이다.¹⁶

이것 역시 야전핵전쟁을 상정한 과거의 계획처럼 환상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워싱턴에 있는 육군의 최고위 장교들은 그렇게 다루기 힘든 문제들은 사실상 무시해버렸다. 그들은 인도차이나의 정글과는 다른 ‘진짜’ 전장인 유럽에서의 탱크전에 대해 1973년의 아랍-이스라엘 전쟁이 주는 의미에 열중하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그 전쟁은 현대식 무기의 치명성을 선명하게 강조해주고, 교리수정을 통해 군인정신 속에 깊이 새겨넣으려던 핵전쟁과 재래식 전쟁파의 구별을 흐려놓고 말았다. 그것을 한반도에 적용하자 남한에서 미 전력태세를 조정함으로써 미국의 자동개입을 줄이려고 했던 낙수의 노력은 부정되었다.

제한핵전쟁

1975년에 슬레진저에 의해 미 국방부내에서 핵전투가 새로이 강조되었으며 이것이 곧 남한으로 전이되어 주한미군은 ‘지역적 핵무기 선택’(Regional Nuclear Options)을 계획하기 시작했다.¹⁷ 이보다 일 년 전인 1974년 3월 5일에 미 육군 참모총장 에이브럼즈 장군(Gen. Creighton Abrams)은 미 의회에서 제한핵전쟁에 사용될 랜스 미사일이 남한에 배치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바람직하지 않은 부수효과를 최소화한 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랜스와 같은 현대화된 전술핵무기는 미 일반목적군의 억제 및 전투력을 상당히 개선시킬 것이다. …이것은 가벼운 물체를 표적으로 하는 공격에 맞게 고안되었는데 적의 지대지 및 지대공 시스템 각각에 대한 전압능력을 제공하고 포대의 반격 거리를 확대시켜줄 것이다.¹⁸

그는 육군의 지상핵무기가 해·공군의 핵무기보다 취약하며 낭비라는 의회의 비난에 대항해서 지상핵무기를 옹호했다. 그는 핵포는 “독특하고 절대적인 전천후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육군과 공군을 또는 지상공격 및 공중 공격 핵무기를 “보완”해준다고 주장했다.

낙수는 비무장지대에서 거의 모든 미군을 후퇴시켰다. 그러나 육군은 그

들을 다시 원위치시켰기 때문에 만약 한반도에서 중대한 전쟁이 시작된다면 그들은 안전하지 않았다. 이들 부대와 함께 배치한 핵무기는 전시에 미대통령에게 '그것들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잊고 말든지'를 명령할 의무를 지울 것임이 명백했다.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는 정치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무기의 사용과 개운치 않기는 마찬가지인 포화세례 속의 철수 중에서 즉각적인 선택을 해야만 할 것이다.¹⁹ 1974년에 워싱턴 포스트지는 비무장지대에서 35~50마일내에 있는 저장보급소로부터 비무장지대의 가장자리로 헬리콥터들이 계속 핵무기를 수송하고 있다고 보도했다.²⁰ 그 해에 그 보급소 주위를 둘러싼 철조망이 쳐진 담장에 전자경보장치가 설치됨으로써 핵저장벙커임을 확인해주는 호위탑과 특수한 증기등(vapor light)을 보완하였다고 한다. 이 지점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진배치되었던 핵무기들이 1975년에 군산 공군기지에 있는 남부 저장시설로 재배치되어 통합되었다.²¹

이러한 세 가지 전전—1971년에 비무장지대로부터 미군철수(판문점을 경비하는 미군은 제외), 1973년에 선언된 전진방어 전략, 1975년 비무장지대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핵무기 재배치—은 남한에 있는 핵무기의 정치·군사적 논리를 역전시켰다. 그 전에는 교전지역내에 핵무기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확실히 확전된다고 보았었다. 트립와이어는 바로 핵이었다.²²

재배치 후에 핵무기는 더 이상 비무장지대에 적절치 않았다. 이제 미국의 핵억제를 촉진하는 것은 제2의 한국전에서 불가피할 미국인 사상자에 대한 전망이었다. 핵무기가 아니라 미 지상군이 트립와이어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정은 핵무기가 재래식 억제와 방어가 실패하는 것을 막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핵전투에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군부와 국무부 관리들의 견해를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²³ 따라서 이러한 조정은 대량보복의 시대가 완전히 지나갔고 순수한 강성반응이 그것을 대신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지정학적 위장

멀리 전쟁터에서는 미 전략가들이 핵무기가 아시아—한반도를 포함하여—에서 넉넉한 독트린을 실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²⁴ 그

들은 미국의 전술핵교리와 아시아에서의 제한핵전쟁에 대한 작전개념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였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조직적 이해를 가려줄 지정학적 기반을 찾고 싶었던 것이다.

일본에서 국무부의 이해와 남한에서 육군의 이해를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해답은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함으로써 미국은 부분적으로 일본의 핵 '알레르기'를 우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1974년 미 국방부의 한 연구가 밝히고 있듯이, 남한에 배치된 핵무기는 일본과 대만에 대해 "미국의 핵보장의 명백한 증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가치뿐 아니라 상당한 정치적·심리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²⁵ 훗날 레이건이 집권하면서 주한미국 대사로 임명되는 워커(Richard Walker)는 1975년에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였다.

재래식 무기와 전술핵으로 무장한 주한미군의 존재는 도쿄에 대한 전략적 보장을 확인하고 프랑스식 해결책인 자체 기동타격력을 생각하는 일본인들을 말리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 사실은 다양한 정치적 신념을 지닌 도쿄의 지도자들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북경에서도 또한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²⁶

이러한 이해의 일치는 훗날 호전적 봉쇄정책 조류가 주한미군 철수를 강요하는 삼각체계적·고립주의적 정책조류를 물리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핵버팀목에 의지하여

1975년 사이공에서 철수한 뒤로 미 육군은 다시 유럽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1976년에 이르자 육군내의 강력한 파벌들은 유럽에서의 정적 방어(static defense)가 너무 방어적이어서 핵의 문턱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보게 되었다. 그 해에 좀더 적극적인 방어를 기반으로 하는 새 교리가 선언되었다.²⁷ 주한미군 사령관 스틸웰 장군도 1973년에 도입된 정적인 전진방어에 대해 비슷하게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고 있었다. 그는 신속하게 적극적인 방어철학을 도입하고 그것을 실험하고자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보복공격 연습이었고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수입된 공지

전 교리의 선구였다.

베트남전의 여파로 미국은 또한 남한에 있는 핵버팀목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미국은 핵위협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닉슨의 현실정치를 저버리고 호전적 봉쇄를 취하게 되었다.

소련에 대항하는 사실상의 군사동맹국 대열에 중국이 참여하도록 도왔던 우익적·를백옹호적인 랜드 연구소로부터 술레진저가 미 국방부으로 왔다.²⁸ 미소간의 화해로 인해 미국이 한반도에서 중국과 대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사라져버렸다. 실제로 1973년에 이미 미 방위지침서는 미군이 장기적으로는 남한을 떠나게 될 것임을 인정하고 있었다.²⁹

1975년 2월 술레진저는 의회에서 주한미군은 억제보다는 강대국을 위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50년대 후반과 60년대 초반에는 군사적 이유 때문에 미군주둔이 요청되었지만 지금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미군주둔이 요청되고 있다.”라고 말했다.³⁰ 제한핵전투의 강력한 주창자였던 술레진저는 미 국방장관으로서 주저없이 핵위협을 불러일으켰다.

그 예로 그는 1975년 6월, 불특정 공격에 대해서 핵공격으로 보복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북한을 위협했다. 그는 미국은 “어떤 선택이든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남한에 핵무기를 계속 존속시킬 것임을 확인했다.³¹ 그는 “상황이 전술핵무기 사용을 요구하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신중히 고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반응을 시험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³²

8월의 강제

머지않아 새 정책이 첫번째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판문점에서 북한군이 미군 2명을 죽인 후, 1976년 8월 20일부터 핵공격 능력을 지닌 B-52 폭격기가 폼에서 한반도 상공을 날아 비무장지대를 향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방향을 바꾸었다(8장 참조).³³

“놈들은 폭격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랐으므로 혼비백산해버렸다.”고 비행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군의 전방통신을 청취했던 미국의 한 정보분석가

는 회상했다. “우리는 그 망할 놈들을 단단히 겁주었다.”고 그는 덧붙였다.³⁴

위기가 진정된 후 미 국방부는 B-52 폭격기가 “한 달에 한두 번 남한상공에서 모의폭격 비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³⁵

8월 18일에 있었던 최초의 혼란의 결과는 통제상실로부터 비롯되는 우연한 확전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8월 19일 오전 11시에 주한미군에는 1953년 이후 처음으로 고도의 경계경보가 발령되었다. 북한은 ‘전시’ 태세를 취하면서 증가하는 한미 전쟁준비에 대해 신속하게 반응했다.³⁶

주한미군 사령관 스틸웰 장군은 나무베기를 마치는 작전을 계획하면서 두 가지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다. 첫째, 그는 워싱턴에 있는 국가 사령관들이나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사령관이 그의 야전 사령관들과 직접 대화할 수 없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했다. 그는 서울에 있는 그의 사무실과 유엔사령부 전진기지에서 비밀통신 회로의 끝에 달린 마이크로폰을 모두 스치로풀로 된 커피잔으로 덮어놓음으로써 철저히 이들을 격리시키고, 그가 아닌 어느 누구도 자기 수하의 사람들과 대화하지 못하게 했다.³⁷

둘째, 스틸웰은 나무베기작전(8월 20일) 전날 밤에, 북한이 먼저 발포할 경우에 그의 지휘관들이 포와 로켓을 가동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졌다. 그는 그의 부하들에게, 비록 그와 협의할 것을 요청하기는 했지만, 발사를 시작할 권한을 미리 위임했다. 그러나 통신이 두절된다면 그런 협의는 필요하지 않았다.

게다가 워싱턴에서는 만약 북한이 보복한다면 스틸웰의 군대가 북한군 병영에 발포—즉 이것은 확전을 의미했다—하기를 원한다고 이미 결정을 내렸다. 스틸웰은 그의 지휘관들에게 이 작전명령을 전달하면서, 이에 따른 행동을 하려면 그의 신속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틸웰조차도 이러한 체계에서는 통제를 상실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의 지휘관들이 그와 접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명령을 실행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 같다.³⁸

8월 20일 밤, 워싱턴의 국가군지휘본부(National Military Command Center) 비상회의실의 분위기는 중요한 전투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군중들과도 같았다. 남한은 이미 이론 아침이었고 스틸웰 장군은 어둠의 장막 아래서 나무베기를 맡은 기동부대를 전진시키고 있었다.

8월 21일 07시 정각, 북한에 대해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고 미군 공병과

남한군 특수부대로 이루어진 기동부대가 공동경비구역 안으로 들어갔다. 남쪽에서는 7대의 무장 헬리콥터가 소총중대를 태운 20대의 헬리콥터를 호위하면서 임진강과 비무장지대 사이를 선회하고 있었다. 07시 05분 나무베기가 곧 완료될 것임을 알리는 메시지가 조선인민군에게 전달되었다. 수분내에 150명 이상의 중무장한 북한군이 도착했으나 당황하고 겁을 먹은 것 같았다. 기동부대를 지휘하던 브래디 소장(Maj. Gen. Brady)을 태운 헬리콥터가 판문점 위를 날다가 두 발의 포격을 맞았으나 무사히 착륙했다.³⁹

간단히 말하면 미 국가지휘기구는 핵공격 능력을 지닌 지상군과 직접 교신할 수 없는 작전, 그리고 북한과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확실히 기대되는 작전을 승인했던 것이다. 만약 북한이 브래디가 탄 헬리콥터에 구멍을 내는 데 그치지 않고 격추시켰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북한의 8월 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대통령의 정치에 얹혀들었다. 그 사건은 포드 대통령에게 캔스اس시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경쟁자 레이건과 자신의 이미지를 대조시키고, 임박한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터와 자신의 이미지를 대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⁴⁰ 왜냐하면 1976년 6월에 카터가 “주한 미 지상군을 남한, 일본과 협의한 후 시기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철수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⁴¹

1976년 8월의 미국의 반응은 선거에 대비해서 포드 대통령에게 남자다운 이미지(macho image)를 부여하는 데 맞추어졌다. B-52 폭격기 비행은 참모총장, 주한 미 대사, 합참의장, 국무부를 통과하여 NSC에서 승인되었다.⁴²

이 계획은 김일성을 미국의 뜻에 따르도록 강제시키는 데는 성공했으나 포드 대통령의 재선에는 실패했다. 카터의 당선으로 백악관에서 포드가 쫓겨났을 뿐 아니라, 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강대국 외교를 이용하려던 키신저의 움직임도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동아시아에서 호전적 봉쇄정책을 실행하려는 확고한 관료적인 이해와 카터의 선거운동의 근간이었던 삼각체계적·고립주의적 정책조류가 대립할 분위기가 보였다. 다음 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결국 이해가 우세하여 카터를 정지시키고 남한으로부터의 철군이라는 그의 정책을 폐쇄시켰다.

과학용용사의 분석

아이러니컬하게 카터의 팀이 남한에서 핵무기를 철수시키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을 때조차, 군부는 한반도에서의 전술핵전을 분석하고 있었다. 핵위협이라는 수사어의 강조와 8월 사건은 한반도에서의 미 핵전투 전략에 대해 대규모 분해점검을 하도록 군부를 자극했다. 미 국방부는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에 관한 연구가 내부적으로 거의 진척되지 않았으므로 1976년 민간 회사인 과학용용사(SAI: Science Applications Inc.)에 그 연구를 의뢰했다.

SAI는 핵분쟁을 검토하기 위해 유럽에서 개발된 분석도구를 사용했다. 그 연구에 미묘하게 표현된 바대로, 그들은 이 방법을 “덜 명확하고 이제까지 가볍게 취급되어온 한반도의 무대”에 적용했다.⁴³ 그 연구가 관심을 기울인 부분은 핵위협을 이용하여 어떻게 하면 북한을 가장 잘 ‘억제’ 시킬 수 있는 가가 아니라 전시에 북한을 강제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 할 것인가였다. 마치 1951년의 존스 흉킨스 연구(2장 참조) 이후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것 같았다. 이 연구는 정치적으로는 근시안적인 채 기술적으로만 추진된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계획의 본질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기 때문에 상세히 검토해 볼 만하다.

그 연구는 미 전술핵공격에 대한 북한 공격군의 취약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착수되었다. 이를 위해서 그 연구는 북한의 공격에 대한 두 가지 ‘대표적인’ 군사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그 후 다양한 조건하에서 핵공격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적 요소를 검토하였다. <표 4-1>은 이 요소들을 전투체계 생존가능성 모델(Combat System Survivability Model)을 이용한 컴퓨터 분석에 통합시켜 요약하고 있다.⁴⁴

SAI는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서울을 잇는 철원회랑으로 공격해 내려오리라고 가정했다. SAI는 남한으로의 횡적 ‘침투’와 종심 ‘침투’라는 두 가지 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다.

횡적 공격 시나리오는 북한군 1개 보병사단이 남한 방어사단에 대해 5km에 걸친 전선에서 공격을 하고, 8시간 동안에 8km를 남하할 것으로 가정했다. 그 때 공격강화 보병사단 전투병과의 85%는 전투지역의 전방경계선에서 7km 이내에 있게 되어 미 핵포, 미사일, 항공기에 의한 전술핵공격을

<그림 4-1> 핵공격에 대한 북한의 취약성

요 소

A. 표적의 특징

- 포착되거나 추론된 각 유형의 표적의 수
- 표적의 상태 : 무방비 상태로 서 있는 사람과 포좌, 장갑차, 탱크, 개인참호 속에
부복한 사람의 비율
- 소정의 위치에 있는 시간과 취약성
- 크기와 분포
- 각 표적의 염폐수준

B. 수송체계의 특징

- 반응시간과 발사율
- 각 유형의 수송체계의 수
- 체계의 정확도와 탄두의 파괴력
- 할당전략

C. 작전상 고려

- 표적위치 오차 (감지기 성능, 지상 및 공중 감지기의 위치와 수, 관찰의 빈도, 표
적이 소정의 위치에 있는 시간, 표적의 염폐와 은닉)
- 표적 피해수준의 선택
- 지휘와 통제 체계/절차

D. 취약성 측정

- 사단에 대해 소비된 핵자원
- 유용자원의 작용으로 인한 직접적 핵영향에 의해 무력화된 전투부대의 수
- 핵무기 투하로 파괴된 사단 역할지역의 비율
- 소비된 탄두당 무력화된 단위부대의 수
- 소비된 탄두당 파괴된 사단의 비율

E. 제한요인

- 허용된 발사지속 횟수
- 바로 이웃한 핵폭발 사이의 허용간격
- 허용된 탄두의 파괴력
- 우방군의 안전
- 무기 할당과 목표도달 전략

자료: Science Application, Inc., *Vulnerability of North Korean Forces, Evaluation of Vulnerability of North Korean Divisions to Tactical Nuclear Weapons*, vol. 1, report to U.S. Defense Nuclear Agency, DNA 4570F-1, McLean, Va., March 1978, pp. 1-3, 4, 2-21, 3-1, 18; 미 정보자유법에 의해 공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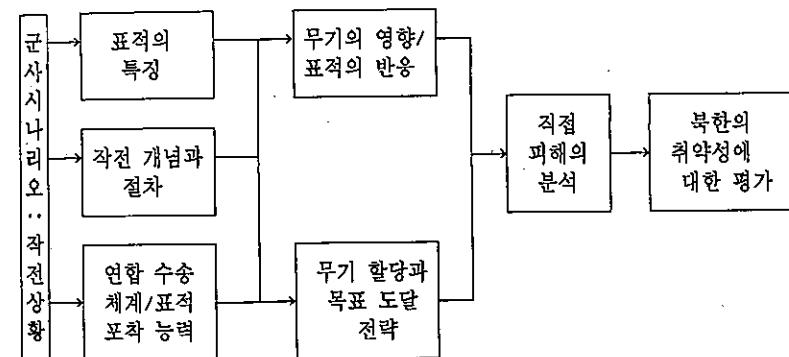
받기 쉬운 상태가 된다고 한다.⁴⁵

SAI의 중심 공격 시나리오는 북한군 2개 사단이 남한내로 약 15km까지 침투공격하는 것이었다. 중심 공격에서는 북한군이 횡적 공격의 경우보다 더 일률적인 분포를 갖게 되고, 전장의 전방경계선의 형세는 산악지형의 차단효과 때문에 더 뚜렷해진다.⁴⁶

어느 경우에나 공격중인 북한군은 매력적인 '표적의 배열'을 제공하였다. SAI에 따르면 전술핵공격으로 인한 열, 핵 방사능, 폭풍에 의해 북한군은 세 종류의 핵 영향—즉 직접적, 간접적, 내재적인—에 노출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영향들은 북한군대에 3단계의 피해를 가져다줄 것이다. 그것은 총체적인 무력화, 부분적 저하, 지원상실로 인한 단순한 약화이다.⁴⁷

<그림 4-1>에는 SAI분석의 논리적 구조가 나타나 있다. 그들의 계산은 핵반격으로 이어지는 앞서의 군사 시나리오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SAI는 분쟁에 관련된 군대의 작전상 특징을 규정짓고, 전술핵전쟁으로의 확전을 자제시키거나 전투작전에 영향을 미치게 될 요인들을 구체화했다. 다음으로 그들은 표적에 대한 방사능과 폭풍의 영향을 계측하기 위해서 표적이 되는 부대의 특징(예를 들면, 서 있는 사람의 숫자와 차량이나 참호에서

<그림 4-1> 북한의 취약성의 기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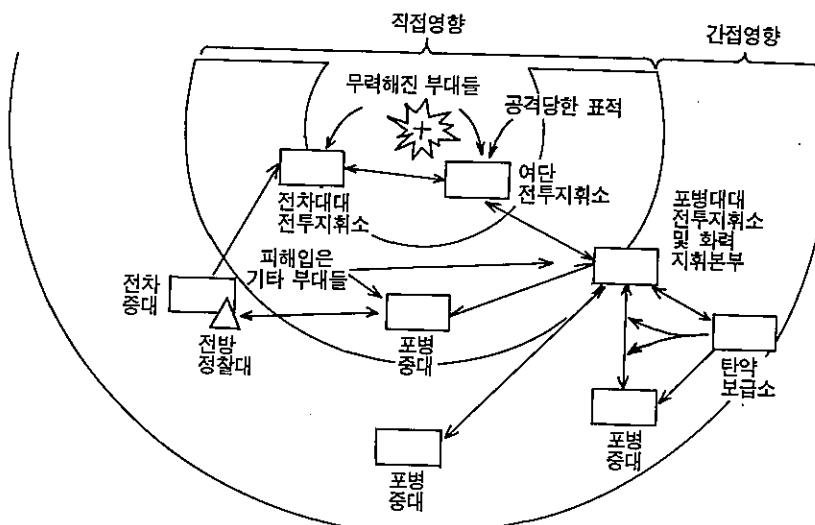


자료: Science Applications, Inc., *Vulnerability of North Korean Forces, Evaluation of Vulnerability of North Korean Divisions to Tactical Nuclear Weapons*, vol. 1, report to U.S. Defense Nuclear Agency, DNA 4570F-1, McLean, Va., March 1987, p. 1-6; 미 정보자유법에 의해 공개됨.

보호받고 있는 사람의 숫자 비율)을 추가했다. 어떤 핵무기가 어떤 표적의 공격에 할당되느냐는 핵수송 체계의 유형, 무기의 파괴력, 발사율, 수송체계의 정확성, 탄두의 숫자뿐 아니라 표적의 배열, 핵공격의 특수군사목표, 표적의 배열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정해진다. 이 모든 것에 기초해서 SAI는 전술핵공격에 대한 북한지상군의 취약성을 평가했다.⁴⁸

<그림 4-2>는 SAI 보고서에서 분석한 북한군에 대한 핵공격의 직간접적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폭심지 가까이 있는 부대는 직간접 영향으로 인해 무력해지고 따라서 군사행동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폭심지에서 좀 더 떨어진 곳에 있는 부대들은 인력과 장비를 부분적으로 상실하여 전투력이 저하되거나, 생존부대에 대한 지원중단으로 인해 약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⁴⁹

<그림 4-2> 북한 전투부대에 대한 핵공격의 영향



자료: Science Application, Inc., *Vulnerability of North Korean Forces, Evaluation of Vulnerability of North Korean Divisions to Tactical Nuclear Weapons*, vol. 1, report to U.S. Defense Nuclear Agency, DNA 4570F-1, McLean, Va., March 1978, pp. 1-9; 미 정보자유법에 의해 공개됨.

SAI는 북한군이 ‘임무수행 불가’의 상태로 되는 것은 핵공격으로 인해 탱크, 육사포를 비롯한 기본장비의 30%, 또는 인력의 40%, 또는 무선통신의 50%를 상실했을 때라고 보았다.⁵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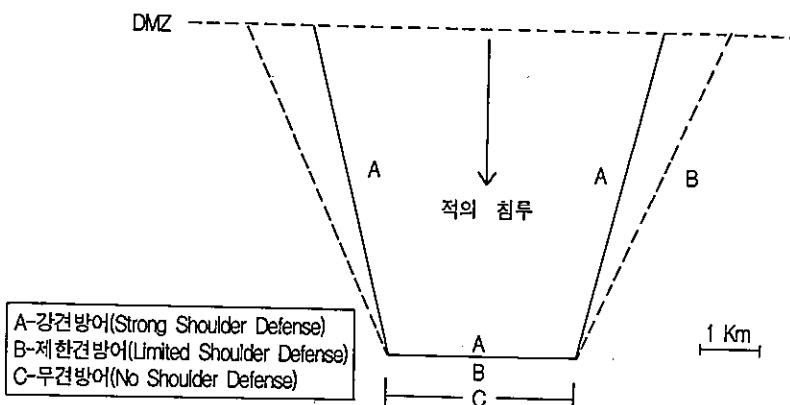
SAI에서 ‘표적으로 삼은’ 북한군 부대에는 포병, 전투(기동)부대, 지휘와 통제, 방공, 대전차부대 등과 같은 기능적 분야가 망라되어 있었다. SAI는 핵공격에 대한 북한의 취약성에 대해 ‘전투강도, 부대 노출 및 배치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위부대들로 구성된 표적의 배열을 개발하였다.⁵¹

존스 흉킨스 대학의 한국전쟁 연구에서도 그랬듯이, SAI는 핵공격의 표적을 신속 정확하게 ‘포착’하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남한군이 핵발사를 지원하기 위해 표적을 포착하는 데는 전장의 형세가 현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들은 북한의 침투공격 잠재력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세 가지 전장의 형태(<그림 4-3> 참조) 가운데 강견방어(Strong Shoulder Defense)를 하는 쪽이 핵표적을 가장 잘 포착하게 해 준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횡적·종심 공격 시나리오 모두에서, SAI는 남한군이 공격군의 속도를 늦추고 핵표적을 포착하기 위해 제한견방어(Limited Shoulder Defense)를 유지할 것이라고 가정했다.⁵²

핵포가 공격중인 북한의 전투부대를 가장 중요한 표적으로 삼게 될 것이라고 SAI가 결론내린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북한의 장갑부대는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위치를 알리게 되므로 쉽게 발견될 것이다. 이 부대들은 전장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핵포의 사정거리 안에 쉽게 들어올 것이다.⁵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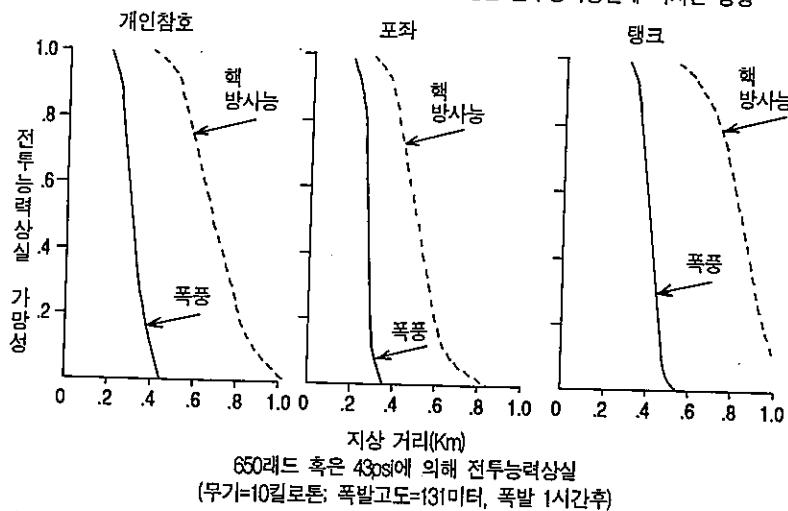
북한의 취약성에 대한 SAI의 평범한 기술적 평가는 그 군사적 논리보다 나토에서 강조되고 있는 정치적 요소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두드러졌다. SAI는 우방의 군대를 보호하려면 핵공격을 자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SAI는 ‘남한내에서’ 북한군에 대해 수많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정치적’ 문제들은 적어도 공개된 자료의 범위내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 4-4>의 파괴범위를 <그림 4-3>에 있는 공격중인 북한군의 지역형태에 적용해 보면 SAI 전략은 서울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지역에 대해 적어도 30개의 공중폭발 핵무기를 발사해야 한다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림 4-3> 선택가능한 전투지역 전방경계선의 형태들



자료: Science Application, Inc., *Vulnerability of North Korean Forces, Evaluation of Vulnerability of North Korean Divisions to Tactical Nuclear Weapons*, vol. 1, report to U.S. Defense Nuclear Agency, DNA 4570F-1, McLean, Va., March 1978, pp. 2-25; 미 정보자유법에 의해 공개됨.

<그림 4-4> 북한군 단위부대의 태세가 핵공격으로 인한 전투능력상실에 미치는 영향



자료: Science Application, Inc., *Vulnerability of North Korean Forces, Evaluation of Vulnerability of North Korean Divisions to Tactical Nuclear Weapons*, vol. 1, report to U.S. Defense Nuclear Agency, DNA 4570F-1, McLean, Va., March 1978, pp. 3-22; 미 정보자유법에 의해 공개됨.

SAI 연구의 '지정학적' 전제는 더욱 더 비현실적이다. 북한이 결국 공격을 감행하리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 위해, SAI는 카터의 당선이 중국을 자극하여 미국에 대해 적대적이게 하고, 소련을 자극하여 대량 핵탄두에 대해 '철의 장막'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게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북한의 이 두 맹방은 통일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게 되었다."라고 SAI는 말한다.⁵⁴ 사실 중국과 소련은 김일성에게 한반도의 무력통일은 지지하지 않겠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고, 미국의 철군 반대론자들이 한반도의 무력통일 가능성을 강조해왔다.⁵⁵ 중국이 한반도에서 전술핵전투의 현실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에 대해 김일성을 풀어놓을 것이라고 SAI가 주장하고 있을 때,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은 자신들의 반소목적을 위해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카터의 철수정책과 싸우고 있었다.⁵⁶

그러나 일관성이 이데올로기나 편협한 이해를 보증해주지는 않는다. 1974년 호전적 조류와 현실정치 조류는 비록 서로 아주 다른 각도이기는 했지만 모두 남한에서의 철군정책에 관해 집중하고 있었다. 키신저의 정책은 육군 주도의 아시아정책을 해군주도의 태평양정책으로 교체하려 함으로써 육군을 위협했다. 키신저는 철군을 지지했으나 단 그것은 전략외교를 통해 한국 분쟁을 매듭지은 후에야 가능했다. 그는 남한내 육군의 이해에 대한 단기적 위협—즉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한반도를 중국의 하위에 두려는 슬레진저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

그러나 두 정책 모두는 남한내 육군의 위상에 대해 치명적인 위협을 제기하였다. 1975년 육군은 남한에서의 철군이라는 난감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일단의 전략전문가팀에게 충고를 의뢰했다. 그들의 보고서는 남한에서의 철군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충격을 예언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는데, 철군으로 인해 필리핀과 일본에 미군기지를 두는 특권을 상실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었다.⁵⁷ 그 보고서는 하찮아 보이지만 정작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를 슬레진저 모델에 의한 부분철수에 대해 육군이 투쟁해야 한다고 권장했다(정치적으로 이 계략은 카터 행정부 시절에 호전적 봉쇄의 주창자들에게 미국이 남한에서 철수한다면 중국은 미국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것은 분단된 한국을 두 개의 국가로 인정하는 강대국간의 타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전면적

철군은 시기상조라는 현실정치적 주장에 편승한 것이었다.

키신저의 현실정치가 호전적 조류에 의한 철군으로부터 육군을 구해주었다는 것이 1974년말에 이르자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서에서는 철군이 의제에 올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철군이라는 기본적인 문제가 가볍게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라는 질문은 계속될 것이다. 조급한 전면철군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근거들이 현재 충분히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부분철군은… 전면철군보다 전반적·즉각적 충격은 덜 하겠지만 치명적인 결함을 갖게 된다. 즉 그것은 미국의 의지를 애매하게 표현한 것이며, 군대감축이라는 미봉책이나 취함으로써 미국의 신뢰를 계속 유지해보려는 시도인 것이다. 미국과 같은 정도의 권력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면 값싸게 그 권력과 책임을 실행할 수는 없다. 자신의 이해를 방어하고 공약을 이행하려는 바른 의지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세계적 사건을 형성해가는 강대국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부분철군이란 이런 선택을 피하려는 시도이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정체 결정을 위해서 이 문제를 분석하여 판단을 내려보면, 전면철군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때까지는 현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³³

실제로 철군문제는 자신의 국제주의적 경향과 정치적 운명을 미국사회의 고립주의적 충동과 결합시킨 카터에 의해서 신속히 부활되었다. 이 때 이 문제는 철군의 물결을 되돌리려는 호전적 조류와 현실정치 조류 양쪽 모두를 격분시켰지만, 남한에는 여전히 육군의 은신처가 남아 있었다.

제5장 은밀한 계략

이제 한반도는 동남아시아에서 급격한 사태변화가 이루어지기 전보다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위상에 훨씬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

-1975년 미 육군에 대한 보고서¹

장차 대통령이 월 카터가 동아시아에 풍파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첫번째 신호가 1975년 5월 동경에서 열린 삼자위원회(Trilateral Commission)에서 행한 그의 연설에서 나타났다.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카터는 남한으로부터 철군할 의향을 비쳤다. 사이공 함락 2주만에 있었던 이 연설에는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카터의 선거팀은 포드 대통령과 자신들의 후보를 차별화할 방법을 찾았다. 남한으로부터의 철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베트남 전쟁 후의 자유주의적 고립주의자(Liberal Isolationist)들의 감정의 물결에 편승하는 손쉬운 방법이었다. 예를 들어 1975년 4월의 해리스 여론조사에 의하면 질문반은 미국인의 14%만이 북한이 남침할 경우 미국이 개입하는 것에 찬성했고 65%는 이에 반대했다.² 미 하원의 외교정책 소위원회들도 모두 남한으로부터 부분철군이나 전면철군을 지지했다. 단지 국방세출소위원회만이 남한에 얼마간의 미군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³

카터는 또한 재정부담의 공유를 걱정하는 보수주의자들과 남한에서의 전쟁이 자동적으로 핵전쟁으로 확전될 것을 염려하는 자유주의자들 모두로부터 지지를 구하고 있었다. 몇몇 관계자들은 카터가 남한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에 대한 선교사의 설명에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른 이들은 카터가 단지 그의 보좌관들을 따랐던 것이라고 믿었다. 예를 들어 밴스(Cyrus Vance)는 1976년 10월에 카터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문제지역이다. 나는 단계적으로 미 지상군을

철수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⁴ 많은 냉소적인 보좌관들은 카터가 당선된다면 이런 공약을 무시할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취임선서가 있는 며칠 후에 실제로 카터는 1980년까지 남한에서 지상군을 철수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전국가안보 체계를 뒤흔들어놓았다. 이것은 카터가 봉쇄정책 조류보다는 삼각체제를 택했다는 신호였다. 호전적 봉쇄론자이건 혹은 현실정치적 봉쇄론자이건간에 기존의 국가안전 비밀요원들은 삼각체제론자들의 세계경영주의에 매우 당황하였다.

카터가 임명한 삼각체제론자들은 봉쇄나 군사력보다는 경제적 상호의존, 외교와 군비통제를 강조했다. 그들은 또한 아시아보다 유럽에 우위를 두었는데, 이것은 봉쇄정책 조류에 근거한 기득권에서 더 벌어지는 것이었다.⁵

이 장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호전적 봉쇄정책을 계속 수행하는 것에 걸린 이해가 어떻게 카터의 철군정책에 반대하는 공통적인 동기를 만들었는가에 관한 내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이 장은 카터 행정부가 집권하여 호전적 봉쇄정책을 수정하고 남한에서 육군의 핵영역을 해제하려고 결정했을 때, 남한에서의 미 핵전략을 둘러싸고 미국에서 발생하였던 최초의 공개적 논쟁에 대해서 재평가한다.

이 장은 또 주로 일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무부가 어떻게 앞장서서 카터가 마음을 바꾸도록 관료적인 과정을 조종했는지를 보여준다. 또 미 육군이 어떻게 자기들의 동기를 응호하는 다른 비군사적인 이해집단을 자극함으로써 논쟁을 이루어갈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이 장은 카터가 이들 이해집단과 겨루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어떻게 남한에서 전혀 없는 군비경쟁을 촉발시켰는지를 검토함으로써 끝을 맺게 된다.

대통령 검토각서 제13호

1977년 1월에 카터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 부통령 먼데일(Walter Mondale)을 남한이 ‘아닌’ 일본에 협의차 보냈다. 남한사람들은 그의 여행을 계산된 조종으로 보았는데, 특히 그가 그 때까지 말레이지아 대사로 있던 언더힐을 합류하도록 소환했음이 알려졌을 때 더욱 그러했다. 언더힐은 대외적으로

남한에서의 군사적 철수를 주창하는 이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먼데일은 주한미국 대사인 스나이더(Richard Sneider)에게는 합류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⁶

먼데일이 떠나기 전에 이미, 주한미국 대사로 지명된 글라이스틴(William Gleysteen)은 대통령 검토각서(presidential review memorandum: PRM) 제13호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다. 한국무부 참가자의 표현대로 이 공문서는 행정부가 “예의를 표하고는 ‘알겠습니다, 각하!’ 하고 말하는 식이었다.”⁷ 국방부는 PRM 13을 특히 파렴치한 것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국무부가 ‘전략 하여’ 대통령의 결정에 반하는 어떠한 조건도 부과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PRM 13은 단지 정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만을 담고 있었다. 카터의 국무장관 밴스는 초안작성 관리에게 미군이 남한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기지와 병력을 축적한 상태에서, 철군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지만 고려해보라고 지시했다. 여기에는 핵무기에 관한 부록도 있었다.

남한을 재보장하기 위해 카터는 합참의장 브라운(George Brown)과 국무차관 하비브(Philip Habib)를 서울로 파견하였다. 박대통령은 PRM 13에서 제안된 5개년 철군계획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 조약의무를 제확인하고, 군사원조를 증가함으로써 남한에 보상을 해주고, 전술핵무기를 중요한 억제력으로 남겨둘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 문제에 대해 두 미국인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논의를 회피했다.⁸

사실 카터가 국무부와 국방부에 임명한 한 파벌은 남한에 핵무기를 유지하는 것이 무모한 짓이라고 믿고 있었다. 국무부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그들은 심지어 가짜 핵무기를 남겨두고 무기들을 은밀히 철수하는 것까지도 고려했다. 그들은 진짜핵무기를 가짜핵무기로 교체한다면 미군측 경비병의 행동변화를 남한측이 눈치챌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각본은 실패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⁹ 합동참모부가 이 제안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이러한 논의를 중단시켰다고 한다.¹⁰

전술핵무기를 남겨놓으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요구 또한 호소력이 없었다. 국무부와 국방부의 관리들은 기본병력 없이 핵무기만을 남겨놓는다는 것은

핵전력의 표면적인 전쟁억제 효과는커녕 북한의 공격을 유도할 것이라고 믿었다.

1977년 4월 21일 밴스가 주최한 정부부서간 정책검토위원회(Interagency Policy Review Committee)의 검토가 있은 후, PRM 13에 부가된 것 중에서 가장 순차적인 철군안이 4월 27일자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다수결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카터는 이 안을 폐기하고 1980년까지 완결되는 단계적인 철군안을 선택하였다. 5월 5일 카터는 철군에 관한 대통령령(PD/NSC-12)에 서명했다.¹¹ 카터의 제2보병사단 철수결정은 미국이 이미 핵무기-적어도 지상군과 관련된 것만이라도 제거를 결정했음을 암시했다. PRM 13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핵무기가 제거되어야 한다고 가정하고 있었다고 한다.¹²

1978년까지 철군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행정부의 하급수준에서는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 충직하게 일하고 있었다. 한 관리는 말했다. “그 때까지, 이 일에 익숙해져 있거나 익숙해질 수 없거나 둘 중의 하나였다.”

핵무기에 관한 공개적 논쟁

예상했던 대로 철군정책은 워싱턴의 정치권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하원세출위원회가 “자동적인 전투개입 위험을 줄이고 핵전쟁의 가능성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적 행동을 요구했던 1974년에 한반도에서의 핵전략에 관한 공개적 논쟁이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그 위원회는 나아가 1958년에 도입된 핵적재 미사일로 무장한 육군의 제4미사일 사령부가 미국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하기까지 했다.¹³

국회와 국무부의 조류는 남한에서의 완전철군을 위협하고 있었다. 육군의 전략참모들이 1975년 비밀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남한에서 미 핵무기를 철수하는 것은 “우방들이나 적들 모두에게 무시하지 못할” 영향을 줄 것이었다.¹⁴ 그들은 철군이 미국의 방위공약에 대한 남한측의 신뢰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한사람들에게는 핵무기 철수가 미국의 안보의무 수행의지의 감소로 보여지게 될 것이다. 철군은 전투작전 요구의 변화로, 즉 남한의 군사역량을 줄이려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그러나 군사역량에 대한 예상된 충격보다 더 심한 것은 심리적이고 정치적인 충격일 것이다. 남한사람들에게는 핵무기의 철수가 아마도 남한방위와 관련된 미국의 의지의 명백한 침식을 의미할 것이다.¹⁵

나아가 그들은 만약 핵무기가 남한으로부터 철수되어야만 한다면 일본에서의 논란을 피하고 “북한지도자들의 마음에 핵무기의 존재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남겨놓기 위하여” 비밀리에 철수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¹⁶

카터의 당선 이후 많은 정보들이 공개적 논쟁에 추가되었다. 정치학자 웨인스타인(Franklin Weinstein)은 남한에 있는 핵무기는 불필요하며 근해전력으로 쉽게 대처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철수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소동에 끼여들었다.¹⁷

미군은 핵문제에 있어서 양분되었다. 개인적으로 몇몇 장교들은 핵무기가 군사적으로 적절치 못하고 정치적인 두통거리를 야기한다고 생각했다.¹⁸ 다른 이들은 미국과 남한이 병력이나 화력에서 북한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으므로 핵무기는 전력의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¹⁹

핵무기 무용론에 대해, 전 주한미군 사령관 스틸웰 장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남한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공식적 군사지휘계통의 견해가 결코 아니다. 억제를 위해 전진배치된 핵무기 수송체계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남한에서 [핵무기] 가치는 서유럽에서와 동일하다.²⁰

스틸웰은 “비무장지대와 어떤 논리적인 군사목표 사이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 그[미 지상군 병사]는 미국이 전쟁억제에 투자한 실질적인 담보물이 된다.”고 덧붙였다.²¹ 육군에게 ‘트립와이어’와 같은 지상군은 핵무기와 견고히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남한에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남한에서 육군의 가장 중요한 이해 즉 지상군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게 되었다.

3명의 카산드라

1977년말에 이르자 카터의 철수정책은 멈출 수 없을 듯했다. 1개 대대 2,600명이 1978년 4월 남한을 떠났다. 카터와 가까운 보좌관들이 그의 정책과 연관되어 있었다. 카터의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인 브레진스키는 완전철군의 가장 강력한 주창자였고 사실상 카터정책에 대한 유일한 고위급 지지자였다.²² 전 주한미국 대사이고 행정부내에서 'Mr. Korea'로 알려진 하비브는 국무부 정치담당 차관이라는 강력한 자리에 있었다. 밴스의 측근이었던 그는 1977년초 카터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서울로 날아가 대통령의 특사 노릇을 했다. 그는 미국이 남한에 지상군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이상 확신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했다. 브레진스키, 밴스, 하비브는 대통령의 임기 첫해에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연대를 이루고 있었다.²³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조류가 관료사회내에서 깊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국방부의 에이브러모비츠(Morton Abramowitz)와 아메코스트(Michael Armacost), 남한에 대해 밴스의 첨병이 되는 국무부의 홀부룩(Richard Holbrooke) 등이 충성파에 대항해 포진하고 있었다.

홀부룩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국무부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카터 행정부가 이미 동아시아에 관해 완벽한 계획표를 작성하고 있다는 것을 머지않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필리핀 기지에 관한 어려운 협상과 중국과의 관계정상화와 관련이 있었다. 남한에서의 철군이 일본에게 줄 충격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었다. 또 그는 제2사단을 재투입하기 위해 공수에 투자될 돈을 고려할 때 남한에서의 철군이 어떻게 돈을 절약하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반면에 브레진스키는 낙순-키신저의 강경노선 현실정치 기질을 받은 세계주의자였다. 밴스가 각각의 동맹을 쌍무적 맥락에서 시비곡직에 따라 다루려 했던 것에 반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브레진스키와 그의 참모들—예를 들어 옥센버그(Michael Oxenberg)와 같은—은 세계적인 강대국 삼각체제라는 전략논리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고 있었다. 브레진스키에게 남한에서의 철군은 중국과의 관계를 호전적으로 만드는 것과 일맥상통했다. 실제로 그들은 소련과의 동맹을 끊고 동아시아 반소불록에 동참하도록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밴스와 육군은 철군이 제2차 전략무기 제한협정(SALT II)에 대한 소련의 지지를 위협에 빠뜨리는 한편 미국의 동아시아 공약에 대한 중국의 확신을 침해할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철군이 일본이나 남한 같은 미국의 우방들에게 이제 미국에게 자기들은 중국보다 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좀더 타산적이고 상업적인 차원에서, 1978~79년에 국무부는 강력하지만 병들어 있는 미국내 핵산업이 매우 경쟁이 치열한 남한의 핵원자로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전략적 압력을 가해달라는 강한 압력을 받고 있었다.²⁴

밴스는 후에 "약간의 동요는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행정부내의 불일치의 깊이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기술했다.²⁵

점점 증가하는 반대에 부딪쳐서 브레진스키는 "너희들은 나에게는 3명의 카산드라(불길한 예언자)들이다. 너희들은 대통령이 공중제비를 넘기 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홀부룩은 철군정책을 뒤집어엎으려는 관료들의 음모를 새로이 조정하였다. 그는 (국방부의 소 국무부격인) 국제안보담당 국장인 에이브러모비츠와 긴밀히 협조했다. 같은 배를 탄 이들로는 국방부 동아시아담당 차관보인 아메코스트와 합참의장 존스 장군(Gen. David Jones)이 있었고, 나중에 밴스와 브라운(Harold Brown)이 합류하였다. 겔브(Leslie Gelb)는 국무부의 정치군사담당국(Politico-Military Affairs Office)에서 홀브룩을 지원했다. 홀브룩은 또한 카터의 정책에 반대하기 위하여 강력한 민주당의 군사개혁자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상원의원 년(Sam Nunn), 글렌(John Glenn), 그리고 하트(Gary Hart)와 긴밀히 협력했다.

홀브룩은 그의 동지들을 근거리에 유지했다. 그는 육군과 또한 중요한 의회의원인 글렌, 년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졌다. 카터를 설득할 시간을 카터의 측근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그는 그의 동지들에게 말했다. 결과적으로 카터의 당선여파로 매스컴의 초기 폭로공세가 있은 후에는 실질적으로 누설된 것이 없었다. 단 한 건의 매스컴 누설도 없었다는 것은 반대자들이 소멸되었음을 의미하기보다는 반대자들이 연합해 있음을 의미했다. 홀브룩은 그의 동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방안에서 대결한다면 우리는 상황을 바꿀

수 있다. 만약 외부의 전장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파멸될 것이다.”

홀브룩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진행하도록 군부를 설득하였다. 그들은 이미 한반도 문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공개적인 반대를 시도했었고 실패했었다. 1977년 1월—카터가 자신의 선거공약을 재언명하기 전인—에 합동참모본부는 정치적 조류를 시험했다. 의회에서 행한 연례태세 발표에서 그들은 주한미군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말함으로써 공개적으로 완전철군에 반대했다. 그들은 1977년 3월 7일에 대통령 검토각서 13호(PRIM 13)의 초안에 대응했다. 남한에 있는 사령관과 의견의 일치를 본 후, 그들은 국방장관 브라운에게 철군정책은 1982년까지 7천 명 정도를 부분적·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축소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더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총고했다. 카터는 며칠 후, 워싱턴에서 남한 대통령 박정희와 회담을 갖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자신은 4~5년내에 미 지상군을 철수하여 선거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그들을 무시해버렸다.²⁶

발사된 대포

1977년 5월 중순 주한미군 참모장 싱글러브 장군(Gen. John Singlawb)은 “만약 우리가 제시된 계획대로 지상군을 철수한다면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워싱턴 포스트지의 몇몇에 걸렸다.²⁷ 카터는 재빠르게 그 반항자를 견책하였다. (싱글러브는 후에 이란게이트 스캔들의 주위를 맴도는 초기 파시스트적 비밀 군사집단의 지도자로 변했다.) 싱글러브 사건은 카터의 지배를 확인시켜주었지만, 실제로 싱글러브는 반대자들의 갑판 위에서 발사된 대포(Loose Cannon: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역주)였다. 대통령에 대한 그의 공격은 철군정책에 반대하는 주요주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 이후 전 주한사령관 스텔웰 장군 같은 극우파들은 사안에 대한 공개적 영향력을 상실했다. “그들은 교활하지 못했다.”라고 카터정책에 반대하는 한고위관리가 말했다. “그들은 이것을 흑백논리로 보았는데, 카터는 능수능란한 행위자이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치 않다.”

싱글러브와 같은 어리숙한 전술을 사용하는 대신에, 이들은 정책의 실행

을 뒤집음으로써 정책을 뒤바꾸는 유서 깊은 관료적 기술에 의지하기로 했다. 역전이라는 장기행로에 있어 첫번째 단계는 장차 벌어질 내부에서의 결투를 위해 관료체라는 화약을 잘 건조시키는 것이었다. 군이나 민간의 정보 요원들은 월남전에 대한 분석노력에서 풀려나자마자 북한의 위협에 대한 평가를 이미 재고하기 시작했다. 1976년 8월 사건은 예비선거중에 특별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자극하였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 국방정보국이 북한의 탱크에 대한 추정치를 급격히 증가시킨 것이었다.²⁸

연기 나는 총(확실한 증거라는 뜻—역주)

대통령 검토각서 제13호는 한반도 상황에 대해 더 연구하도록 허락하였다. 국방정보국 같은 강경노선의 정부기관이 추정한 예상치를 확인해주었기 때문에 중앙정보국(U.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워싱턴 정보사회에서 ‘자유주의자들’인—의 재평가는 매우 영향력이 있었다. CIA는 북한의 군사력 추정치를 급격히 증가시켰고 북한의 공격에 대한 예고시간(warning time)을 단축시켰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라고 전직 국무부 관리가 말했다. “우리는 국방부와 계속 협력했습니다.”

행정부의 반대자들은 자기들의 입장에서 의회를 필요로 했다. 당파적인 공격은 대통령의 정책을 강화시킬 뿐이었다. 처음 1년간, 관련된 의회의 협력자들은 행정부의 정책결정과 단절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7년초에 글렌 상원의원은 철군문제를 끄집어올렸다. 글렌은 한국전에 해병대 전투기 조종 사로 참전했었다. 그는 또한 상원의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의장이었다.

글렌은 즉시 그 문제를 의사당에서 처리하기 시작했다. 글렌은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당의 자유진영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원했다. 그는 그 문제에 적격자인 험프리(Hubert Humphrey)에게 접근했다. 글렌과 험프리는 남한과 일본을 여러 차례 여행했고, 소위원회는 한반도내의 군사적 균형을 연구하기 위해 퇴역 해군장성을 고용했다.

처음에 행정부는 의회에 정보를 거의 주지 않았다. 어느 정도는 행정부가

의회의 반대를 막기 위해 정보제공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해 말 훌브록이 캠페인을 시작했을 때, 글렌은 의사당에서 일을 진척시켜가고 있었으며 코헨(Bill Cohen)과 함께 지난번 남한여행에 동행했던 셈 년을 새로운 동지로 만들었다.

철군정책에 반대하는 의회의 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국방부는 조심스럽게 훌브록과의 약속을 지켜 카터가 임명한 내부자들에게 관리를 맡겼다. 한 전직 상원의원 보좌관에 의하면 단지 국방부의 한 사람만이 반대자들에게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흘려보냈다. 군부는 의회에 대해 비정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국무부는 늘 한반도 철군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와 의회 사이에 위치하려고 애썼다.”고 한 전직 의회직원이 말했다. “내가 국방부와 연합을 취하려 했다는 것은 신만이 아실 것이다.”

카터의 정책은 의회내에서 몇몇만의 지지를 얻고 있었다. 맥거번(George McGovern)과 같은 민주당 자유진영 상원의원들이 철군을 응호했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분산되어 있었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없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극동에 대한 미국 외교정책에서 카터보다 훨씬 더 왼쪽에 있었다. 예를 들어 하원의원 덜럼스(Ron Dellums)는 철군을 대중적인 견지에서 반대했다.

이 경우 미국인에 대한 질문은 너는 기꺼이 북한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너는 남한사람들을 위해 죽을 의사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내 견해로는 이 순간 미국인들은 한국전에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북한사람들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미국인은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남한사람들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미국인들은 부정적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²⁹

델럼스는 철군에 대한 의회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싱글러브가 출현한 것이 대통령을 당황시키기 위하여 계획된 또 다른 ‘의회의 제스처’라고 비난했다.³⁰

카터의 응호자들은 의회의 보수주의자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 1978년 4월 하원 군사위원회(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는 카터의 철군정책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공격을 채택했다. 그 보고서는 기본적인 정책뿐

아니라 정책이 결정되고 수행되었던 방법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1978년 4월 21일 카터는 철군속도를 늦추겠다는, 완전철군에 대한 최초의 조정을 공포함으로써 비판자들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 순간 의회내의 반대자들은 쉽게 멈출 수 없는 추동력을 얻었다. 공화당 상원의원 퍼시(Charles Percy)는 글렌에게 공화당내 반대자들도 민주당과 나란히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1978년말 카터는 남한에 대한 보상적 군사원조를 위한 특별지출금을 포함하여 완전철군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입법을 의회로부터 얻어냈다. 그러나 1979년 1월에 상원의원 게리 하트는 철군을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것은 하트가 자신을 굳게 지지할 것이라 믿었던 카터에게는 결정적 타격이었다.³¹ 상원 군사위원회는 1979년 1월 23일의 보고서에서 철군을 포기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 보고서는 전상원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되었다. 수정된 정보평가들이 명백히 각본대로 1979년초에 언론(사적인 *Army Times*를 필두로)에 잇따라 누설되었다. 이러한 보도들은 북한 군사력의 위협이 과거에 지나치게 평가절하되었었다는 것을 내보이는 데 전력했다. 상원의 공격과 매스컴의 보도는 카터를 자극하여 1979년 2월 철군을 재평가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것을 기화로 중국과의 관계정상화에 대한 비판이 다른 곳으로 돌려지길 희망했다.³² 워싱턴의 내부 정보통들은 철군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단지 시간문제라고 믿었다.³³

강인한 사나이가 부질없는 말을 하다

지금까지 브레진스키는 철군에 대해 대단히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었다. 이 정책은 다른 면에서 그의 이미지를 상하게 하였다. “국무부는 나약해지고자 했던 반면 그는 강인한 사나이(Tough Guy)가 되고자 했었다.”고 전직관리가 말했다. “그러나 여기서는 국무부가 강인하게 보이는 반면 그는 나약한 사나이로 보였다.”

아직 브레진스키는 반대자들을 둉지 않았다. 브라운이나 밴스와는 달리, 그는 철군에 반대하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부질없는 말을 하였다.

브레진스키는 또한 궁하면 통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카터를 설득시킬 때까지 교묘히 조종할 여지를 마련하면서, 카터가 포위되지 않도록 막아야만 했다. 따라서 그는 고위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발전되고 있는 합의 즉 어쨌든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합의를 막기 위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1978년 중반에 카터의 심복들은 대통령이 자신의 결정을 재고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철군정책의 토대를 없애기 위하여 관료사회의 모든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 경우 정상적인 방법은 비밀의제를 지닌 또 다른 지겨운 관료적 문서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당시 이것은 대통령 검토각서 제45호로 불렸는데, 내부에서 이것은 '전향 검토각서'로 알려졌다.

대통령 검토각서 제45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플랫(Nicholas Platt)은 대통령 검토각서 45호를 책임지고 있었다.³⁴ 유럽중심적인 카터 행정부내에서는 아시아 정책의 우선순위가 낮았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검토위원회를 거쳐 대통령 검토각서 45호를 처리하도록 하는 별탈 없어 보이는 결정을 플랫 같은 하급관리가 쉽사리 추진할 수 있었다. 국무부의 오지랄 넓은 홀브록, 국방부의 아버 코스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중국 전문가 옥센버그, 그리고 플랫이 대통령 검토각서 45호를 기초한 주요인물들이었다. 국무부의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요한 곳은 아니었지만, 그곳의 동아시아 전문가 레이크(Tony Lake)도 회의에 참석했다.

국무부의 리치(Robert Rich)가 1978년 후반기와 1979년 전반기에 실질적으로 이 문서를 초안했다. 카터에 대한 의회의 압력을 부추길 목적으로 작성되었던 정보국의 보고서와는 달리, 대통령 검토각서 45호는 관료사회의 다른 분파가 아니라 대통령을 직접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이것은 언론에 홀려나가지 않았다.

이들 내부집단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관료적 전략을 개발했다. 첫째는 대통령 검토각서 45호였다. 둘째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상호작용하는 군사력

균형에 관한 동시 대규모 연구를 준비했고, 이것은 대통령 검토각서 45호에 부록으로 포함되었다. 이 과정은 대통령이 이 지역을 여행하도록 하는 세번 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요소에서 정점에 달했다.

대통령 검토각서 45호를 브레진스키가 의장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검토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관료적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 이곳의 핵심인물은 브레진스키, 밴스, 브라운 그리고 중앙정보국장이었다. 대통령 검토각서는 이 위원회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보다 상위에 있는 내각차원 정책입안자들이 포함된(그러나 대통령은 제외된) 소위원회로 이송될 것이다. 그래서야 비로소 대통령은 그 검토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게 될 것이다. 카터가 철군중지를 선언하기 전에 극동을 순방하여 우방들과 상의하도록 그 비밀정치결사는 계획하였다. 그 여행은 카터를 설득하기 위하여 주의깊게 계획되었다. 그들은 한국방문으로 인해 카터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를 기대했다. 돌아오자마자 그는 의회와 상의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취소를 발표할 것이다.

이 계획에 참여한 한 읍모자는 "당신은 이 모든 일의 목적이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3단계 로켓

대통령 검토각서 45호는 3단계 로켓처럼 만들어졌다. 각 단계는 기저에서 상호의존적이었다. 추진로켓은 북한 군사역량에 관한 중앙정보국의 공식적 특별국가정보평가(Special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였다. 이 연구로 인해 정보집단은 수년간에 걸쳐 작업을 계속하게 되었다. 그 다음단계는 국방부가 작성한 대통령 검토각서 45호의 군사부록이었다. 이것은 중앙정보국의 정태적인 수치계산을 가지고, 남한에 미군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중립적인 견지에서 본 남북한의 상대적 역량이라는 방식으로 그 수치계산을 동태화했다. 비록 그 판단이 근거하고 있는 '정태적' 정보가 전체적 실천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왜곡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군사분석가들은 바로 여기에서 주관적 판단에 의해 '균형'을 기울게 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계획의 꼭대기에는 대통령 검토각서 자체가 있었다. 3단계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검토해야 할 정치적·지정학적 환경, 미국의 이해, 동맹국의 견해, 주요한 논란거리, 다양한 선택에 대한 찬반양론이 제시되었다. 대통령 검토각서 작업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다른 문제들 예를 들어 병력구조, 군사원조, 어느 회계년도 안에 어떤 무기체계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등 모든 문제를 삽입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철군과 핵무기에 관한 내용을 맨 마지막에 집어넣었다.”

리치는 서울로 날아가 주한미군 사령관 베시 장군(Gen. John Vessy)과 주한미국대사 글라이스턴에게 초안을 제시했다. 서울에서의 협의는 아침식사 시간까지 할애해 이를이 걸렸는데, 그 후 베시와 글라이스턴은 그들의 참모와 이 초안에 대해 협의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검토위원회는 대통령 검토각서 45호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세 번 만났다. 참여자들은 모두 문제의 핵심에 대해 매우 열심이었다고 한다. 한반도는 국가안보체계에서 매우 뜨거운 감자였다.

6월초부터 반대자들은 카터가 극동 방문길에서 완전철군을 연기할 것이라는 정보를 누설하기 시작했다.³⁵ 카터가 극동으로 떠나기 직전, 합동참모본부는 카터에게 완전철군을 연기하도록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이것은 그가 방문중에 취소선언을 할 것이라는 서울측 기대를 고양시켰다.³⁶

피해대책

1979년 6월 30일 카터 대통령은 남한을 방문했다. 그는 초청자 박정희 정권의 인권유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도 동시에 동맹을 지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야만 했다. 비무장지대에서 남쪽으로 12km쯤 떨어진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들과 함께 그 날 밤을 지낸 뒤, 카터는 청와대에서 박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해 차를 타고 서울로 왔다.³⁷

보좌관들이 참석하여 회담이 시작되었다. 박정희는 남한으로부터의 철군은 부도덕하다고 강의하기 시작했다. 그의 태도는 카터를 당황하게 했고 카터는 벤스에게 “만약 그가 이렇게 계속한다면 나는 전면철군을 해버릴 것이

다.”라는 쪽지를 썼다.

“나는 대통령이 분노를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나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벤스는 후에 회고했다.³⁸

카터의 측근들은 대통령간의 단독회담을 시도하기로 결정하였다. 통역자와 한 명의 보좌관만을 거느린 채, 두 대통령은 철군문제는 회피하고 주로 군사상황과 인권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다. 카터는 매우 긴장했는데, 입은 꽉 다물고 눈은 휘둥그레져 있었다. 박정희는 압력을 받을 때에는 으레 그러하듯이 손가락 마디를 꺾고 있었다.

두 대통령간의 냉랭한 회담이 있은 후 카터는 덕수궁에서 수백 야드 떨어진 서울 중심부의 미 대사관저로 되돌아갔다. 그는 6~7명이 탈 수 있는 크고 오래된 검은색 리무진으로 이동했다. 리무진 안에는 카터와 함께 국방장관 브라운, 국가안보담당 보좌관 브레진스키, 국무장관 벤스와 주한미국 대사 글라이스턴이 타고 있었다. 앞쪽의 운전사는 창문이 닫혀 있었으므로 그들의 논의를 들을 수 없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한국담당 관리 플랫과 동아시아 태평양담당 국무차관보 홀브록이 작은 차로 리무진을 뒤따르고 있었다.

차량은 대사관저 앞에 멈추어 섰다. 그 뒤로 몇 블록에 걸친 교통체증이 발생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10분이 흘렀다. 여전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홀브록, 플랫, 국무부의 한국담당 관리 리치는 그 차로부터 신중히 거리를 두고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차 안을 볼 수는 있었으나 들을 수는 없었다.

차 안에서 대통령은 최고위급 보좌관들 각각에게 차례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물었다. “당신들은 내 정책에 반대하오?” 그들은 차례로 대답했다. “예, 각하.” 처음엔 글라이스턴만이 대통령의 면전에서 정책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말했으나 곧 브라운과 벤스도 이 소동에 가담했다.³⁹

이 날 나머지 시간은 참담했던 정상회담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면서, 피해 대책을 모색하며 보냈다. 그 날 밤 카터는 박정희에게 미국에 돌아가면 철군안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밀했다. 남한 국방장관의 선동으로, 회담이 끝나고 발표된 공동코뮤니케는 미국의 핵우산이 여전히 남한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⁴⁰

고양이를 뒷걸음치게 하다

홀브록이 계획한 원래의 음모에 따르면 카터가 대통령 검토각서 45호에 굴복하여 위성턴으로 돌아와 최종발표를 하기 전에 의회로 문제의 초점을 옮길 것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카터가 귀국하자마자 경제적 문제로 궁지에 빠졌기 때문에 이 과정이 생략되었다. 교활한 관료들은 대통령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그의 허락을 얻고 그를 대신하여 의회와 상의하게 된 것에 대해 놀라지 않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대통령 검토각서 45호를 검토하게 된 1979년에 핵문제가 다시 표면에 솟아올랐다. 이 문서는 핵무기를 군사적으로 보다는 상징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었다.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관리들은 남한에 핵무기를 유지하는 것이 일본에게 미 핵우산이 동아시아를 여전히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일상적인 근대화 및 관리과정에서 이미 철수된 것들을 제외하고는 남한에 핵무기를 보존하도록 결정했다. 군대유지가 역으로 핵무기와 연계되었는데, 그 결과 군대와 함께 무기도 유지되게 되었다.

이 회의는 남한에 대한 핵배치가 지니는 전략적 암시 혹은 작전상의 암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방차관보 슬로콤(Walter Slocombe)의 참모들은 핵문제에 대한 또 다른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핵철수를 추진하고 있지 않았기에 그들의 관심은 관료체내에서 소멸되고 말았다. 일단 핵무기를 남겨두기로 결정이 되자 단 하나 남은 질문은 공중공격용 핵무기를 남겨놓을 것인가 지상공격용 핵무기를 남겨놓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양자를 다 택했다.

1979년 늦여름 브레진스키는 공식적으로 대통령 검토각서 45호에 서명했다. 비록 최종발표가 카터의 서명을 받기는 했지만, 1979년 7월 20일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린 것은 브레진스키였다.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는 소련과 북한의 위협을 인용했다.

사실 이 결정은 군사적 요소들과는 관계가 없었다. 그것은 단지 대중에 대한 편리한 변명을 제공할 따름이었다. 주된 동기는 미국에 대한 평판을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브레진스키는 동아시아 안보관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강조했고 미국이 강대국 삼각체계에서 중국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강조했다.⁴¹ 그는 핵무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새로운 정책에서 핵에 관한 부분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실 논란 끝에 대통령 검토각서가 채택된 이후에도 카터는 여전히 자신의 정책의 나머지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 대통령 검토각서 45호는 계획된 철군을 고집하는 것에서부터 철군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선택범위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제공하였다. 카터는 최종적으로 관료들이 선호한 사항을 선택했다. 즉 남한에 양도하기로 된 미사일 포병중대 같은 관리상의 통합정리를 제외하고는 철수를 중지하기로 한 것이다. 남한에 핵무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결정한 적은 없었다. 보좌관들이 핵무기를 남겨둘 것이라고 공표하였다.

카터는 새로운 각서가 시행될 1981년에는 상황이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 때는 극우파가 레이건과 함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반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책이 있었고 따라서 이 각서는 폐기되었다.

1978년 말까지 카터의 외교정책은 국내에서 수세에 있었다. 카터에게는 남한에서의 철군이 미국의 이해에 보다 더 중요한 SALT II의 인준이나 중국과의 관계정상화를 구해내기 위해 보수주의자 늑대들에게 던져줄 값싼 뼈다귀에 불과하였다. 의회에서는 현실주의자들이 미-대만 방위조약을 포기한 카터의 결정에 대항하려는 공상가들을 재빨리 압도했지만, 카터는 SALT II가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밀어부칠 수 없었다. 간단히 말해 그는 그의 한반도정책을 혀생시켰던 것이다.

부정할 수 없이, 호전적 봉쇄가 한반도에서의 현실정치와 국내(미국)에서의 고립주의에 대해 승리를 거두었다. 한 관리가 말했다. “2년 만이 걸렸습니다, 이놈의 고양이를 뒷걸음질치게 하는데.”

후위전

1978년초 철군정책이 번복되리라는 것이 분명해지자, 국방부의 데이비스(Lynn Davis)가 이끄는 카터의 측근들은 핵문제를 군대의 존재와 분리시키

려고 했다. 고려된 한 가지 접근법은 저장된 핵무기를 단지 몇 개의 명목적인 무기수준으로 낮추는 일이었다. ‘명목적’이란 말은 아마도 6개의 포와 1개의 핵자뢰 핵무기를 의미했을 것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남한이 아주 중요한 곳이기는 하지만 유럽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위험을 감수할 가치는 없는 곳이라고 결론지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심의 돌풍은 곧 가라앉았다. 관료사회가 1978년 말에 유럽과 소련의 문제로 관심을 돌려버림에 따라 이 문제는 소멸되어 버렸다. 이 토론에 참여했던 한 고위급 인사는 “핵정책에 몰두했던 사람들은 한반도의 핵문제를 무의미하고 지엽적인 것으로 보았다.”고 회고했다.

1977년 이전에 비축되었던 무기의 약 2/3가, 즉 지대공 미사일과 포탄의 대부분이 1982년까지 모든 핵무기를 철수하겠다는 카터 행정부의 계획에 따라 1977년까지 이동되었다고 한다. 1979년에는 비축된 핵무기가 약 20기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이후 레이건 행정부가 다시 증강시켜 1980년대초에는 ‘수백’기에 이르렀다.

철군을 둘러싼 논쟁이 진행중인 때, 카터가 임명한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선제사용이 초래할 확전위험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군부와 의사소통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군부가 재래식 방위를 보강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대차대조를 맞추기 위하여 핵무기에 의존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들이 강제를 위한 핵전투를 선호하는 것은, 표적국이 유럽의 적들과는 달리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북한에 대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공격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었다. 철군을 반대하는 고위관리들도 남한에 핵무기를 유지하는 것은 정치적·군사적으로 너무 위험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군부의 관점은 핵무기가 남한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확신을 더해줄 뿐이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회의론자들 속에는 홀브록과 슬레진저를 포함한 주요 철군반대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군부는 국무부가 카터정책에 대한 반대를 주도하도록 내버려두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논조를 결정함으로써 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78년 팀 스파리트 훈련 때, 군부는 임시로 남한에 도입된 랜스 미사일의 모의발사 훈련을 하였다. 후에 공식 군사전문가는 “핵탑재 지대지 무기로 개발된 랜스는 배치의 유연성을

보여주기 위해 이 훈련에 도입되었다.”고 보도했다.⁴² 남한의 신문들은 랜스 미사일의 자랑스러운 위용을 강조했다. 그들은 북한사람들이 그 핵심을 파악하지 못할까봐서 랜스 미사일은 핵공격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⁴³ 그 전 헤에 국방부는 B-52 소편대가 “3개월마다 남한으로의 훈련비행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밝혔었다.⁴⁴

군부에 의한 이런 종류의 완력상징(macho symbolism) 때문에, 철군반대자들이 핵무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리하여 군부는 군대배치와 핵배치의 연결을 지속할 수 있었다. 국무부의 철군반대자는 “만약 당신이 핵배치를 찬성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면 당신은 공산주의에 대해 강인한 사람이 되고, 만약 재배치를 주장한다면 당신은 나약한 사람으로 비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리하여 핵무기는 남한방어에 대한 미국의 광범위한 공약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1978년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끝에, 국방장관 브라운은 남한에 있는 핵무기를 언급하지는 않은 채 미국의 핵우산이 한반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반복해서 말했다.⁴⁵ 그러나 핵위협에 의해 수행되는 호전적 봉쇄정책의 보살핌을 받는 이해가 남한에서의 현실정치를 주장했던 사람들의 의표를 짜르고 그들을 폐배시켰다. 그 오래된 정책조류가 미국정치에 제2차 냉전을 예견하는 차가운 바람을 몰아왔다.⁴⁶

사실 카터 행정부 동안에 남한에서 철수된 유일한 핵무기는 서전트와 어니스트 존 미사일이었다. 남한에 있던 두 가지 무기는 모두 육군에 있는 그 유형의 무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복무한 것이었다.⁴⁷ 어니스트 존의 경우에, 육군은 카터가 당선되기 전인 1976년에 이미 해체결정을 했었다.⁴⁸ 그러므로 한국전쟁에 자동개입되는 것을 피하려는 자기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카터가 임명한 관리들은 남한에서 육군의 핵전략에 거의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셈이다.

카터가 임명한 민간인 삼각체제론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은 남한에서의 미국 핵전략의 신뢰성에 대해 결코 도전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들은 한국전쟁에서의 미국의 경험으로 뒷걸음질쳤다.

거기에서 미국이 경험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한반도에 국한된다는 것이었다. 남한의 호전적 봉쇄지지자들은 그 교훈에서 위안을 얻었다. 그들

은 물었다.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이 발발한다면 다른 형태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어느 누구도 또다시 전쟁을 압록강으로 끌고가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한 사람이 말했다. 그는 “지난번 한국전에 근거해볼 때, 소련이 한반도나 근해에서 싸울 위험은 없다. 한국전에 개입하는 것은 소련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련의 신증함에 대한 이러한 감동적인 믿음은 한미연합군이 재래식 무기로 한반도에서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과 병행되었다. 당연한 결과로 친핵 강경론자들은 남한에 있는 핵을 강제나 전투의 견지에서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시 남한을 재보장하고 위기시 북한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정당화하였다. 그들은 핵무기가 위협에 의해서 재래식 억제를 받쳐주고 전투에 의해서 강제를 달성하기 위해 남한에서 필요하다는 군부의 반대되는 견해—결과적인 불합리함이나 모순이야 어떻든간에—를 간단히 무시해버렸다.

심지어 철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들은 핵억제를 정책문제로 부활시켰다. 예를 들면 북한을 특별히 염두에 둔 국무부 관리들은 1978년 UN 군축특별회의에서 선제사용에 관한 미국의 결의안이 핵억제를 ‘깎아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표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⁴⁹

바르게 질문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의 고위관리들은 결코 정답을 발견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행정부내에서는 남한으로부터의 핵철수에 대한 의미 있는 논쟁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핵문제는 본질적 중요성과 관련하여 다루어지지 않았고, 좀더 광범위한 전략적 선택에 대한 부속물로만 단순취급되었다. 핵무기는 한반도에서 자신의 영역을 해체하려는 카터의 시도에 대항한 육군의 최후방어선이 되었다. 결국, 관료적 타성이 1958년 남한에 핵무기의 배치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관료적 이해와 타성은 핵무기들이 1978년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제 2부

미국의 핵정책: 시인도 부인도 않음

제6장 공지전

한반도를 위한 핵교나 이론적 근거는 없었다. 핵무기는 또 다른 무기일 뿐이었다. 군부는 일종의 지각 없는 조작도표를 따른다. 만약 당신이 1개 사단을 보유하게 된다면 당신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렇게 단순하다. 만약 그들이 핵무기 없이 한반도에 있다면 그들은 벌거벗은 느낌을 가질 것이다.

—전 국무부 관리, 1987. 11. 16

카키색 대공화기복을 입은 레이건 대통령이 1983년에 비무장지대-군에서 공보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유의 변경’(freedom's frontier)이라고 부르는 —를 방문했다. 미 국방부는 공개적으로 주한미군의 존재를 ‘대외적인’ 소련의 위협과 연결시키면서, 남한을 레이건의 전세계적인 반소대열에 편입시켰다. 레이건 행정부는 이전 시기의 아시아 제일주의로 후퇴하여 아시아에 높은 비중을 두었다. 국방장관 와인버거(Caspar Weinberger)가 언급한 것처럼 “일본·중국·남한의 방어노력은 미국과 소련을 제외한 어떤 나라보다도 더 깊이 세계적 세력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¹

레이건 행정부는 재빨리 군사원조를 재개하고 확장했을 뿐 아니라 신형대포, 대전차무기, 최신미사일, A-10 대게릴라 비행중대, 최신예 전투기인 F-16 등으로 주한미군을 현대화시켰다.²

남한에서 호전적 봉쇄를 떠받치기 위한 싸움은 레이건이 이끄는 부활한 를백 정책조류로 흘러들어갔다. 레이건이 임명한 관리들은 재빨리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을 재군사화시켰다. 그들은 모든 곳에서 미국의 힘을 거듭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제한적이고 장기적인 핵전쟁을 준비했다. 이 새로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은 레이건 집권초기 3년 동안 해군의 ‘해양전략’을 철저히 지원했다. 그러나 군사예산이 아주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에 어떤 군도 해군이 우대되는 상태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다.³

봉쇄뿐 아니라 룰백을 추구하는 레이건 행정부는 공격지향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군사교리를 재조정하는 데 청신호를 주었다. 이 장은 공지전-육군의 새로운 작전교리—이 어떻게 불과 10년 전에 강등되었던 지상전 핵선택을 회복시켰는지를 보여준다.

레이건 시대는 주한미군에게는 신냉전에서 그 조직적 임무를 증가시킬 황금기회였다. 김일성은 완벽한 적이었고, 전두환은 주한미군과 함께 주한미군이 남한에서 행동의 자유를 갖도록 레이건 이데올로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완전한 동맹자였다.

이 장은 육군이 북한과 그 동맹국, 특히 소련에 대해 새로운 수준의 위협을 제기하기 위해 남한내 핵전력을 어떻게 재조직하고 확대했는지를 기술한다. 육군은 또한 정치적으로 강력한 중국의 인민해방군에 대한 무기판매를 취급하고 일본 지상자위대와의 관계를 주관하도록 자리잡았다.⁴ 육군의 목표는 동아시아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해군이나 공군보다 우월해지는 것이었다. 한반도에서의 육군의 입지강화는 이 작전계획에 중심이 되었다.

행정부는 워커-원래 냉전 전문가—를 대사로 서울에 보냄으로써 한반도에서 군사력에 우선적으로 의존할 것임을 신호했다. 워커가 대사가 되자, 미군은 전두환-두 번의 유혈 쿠데타로 집권한 남한의 장군이자 위싱턴에서 레이건 대통령과 회담한 최초의 외국수반—과의 관계에서 우위에 서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핵전투 이데올로기의 모순은 한반도내 공지전으로 감출 수도 없었고 핵전략을 격상시킴으로써 해결할 수도 없었다. 이 장은 새로운 교리, 전략, 그리고 레이건 행정부 동안 한반도에서의 핵전투 교리의 모순상태에 대해서 기술한다.

공세전략

레이건 시대에 한반도에서의 핵전략은 이질적인 요소들이 일관성 없이 혼합된 채로 남아 있었다. 정치적 지침이 결여된 전쟁계획가들은 일련의 군사 행동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표적과 절차를 근시안적으로 개발해나갔고, 유

럽의 최신 핵유행으로 쪽 빼입은 과거교리의 유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의 핵교리와 배치는 유럽과는 다른 페이스로 발전했다. 미 육군의 임무에서 유럽이 우위에 있으므로, 새로운 무기들과 전략적 변화들이 유럽에 먼저 등장한 후에야 한반도에 도착하곤 했다. 결과적으로 유럽에서는 사라졌거나 수정된 케케묵은 무기와 전략이 한반도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유럽의 상황에 맞게 개발된 부적절한 전략과 무기가 별 고려 없이 한반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유럽에서처럼, 미 육군의 핵배치와 전략은 기술적 혁신, 각 군의 경쟁, 관료적 이익에 대한 특별배려에 따라 운영되었다.⁵

한반도에서 카터의 와해로부터 얻은 유산은 강성반응—1960년대부터 남아 있던 대량보복 철학과 1960년대의 유연반응 기술을 서투르게 혼합한—이었다. 육군은 1970년대에 이러한 강성반응에 ‘전진’ ‘적극’ 방어를 결합시켰다. 이제 육군은 유럽에서의 전투방법을 둘러싸고 1980년에서 1982년 사이에 육군내에서 일어났던 이념적 혼란의 결과인 복합성장(hybrid growth)에 공지전교리를 접목시켰다.

보통 1년 정도 남한에서 순환근무하는 육군장교들은 공지전 개념을 신속하게 한반도에 이식시켰다. 이것은 1983년 팀 스피리트 훈련에서 처음으로 시험되었다.⁶ 이 새로운 전략은 북한에 대해 전혀 새로운 수준의 보복과 선제위협을 가하고—적어도 계획상으로는—있기 때문에 중요했다.

이 새로운 교리는 핵이나 재래식 화력의 정태적 적용보다 기동전을 격상시켰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전략이 전선의 전투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적의 지원병력을 조기에 종심공격(deep strike)한다는 개념을 재도입한 점—한국전쟁중 인천에 대한 맥아더의 궁극적인 역습과는 달리—과 소규모의 정교한 핵무기를 전략에 통합시킨 점이었다. 그로부터 며지않아 육군교리에서 기동성이 화력보다 훨씬 더 격상되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미군은 제한된 적극방어와 결합된 미식축구형의 격자형 봉쇄전략에서 좀더 유동적인 유럽축구형의 공세적 방어전략쪽으로 움직였다.

이같은 종심공격 전략에서는 핵무기가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한다고 본다. 적을 사살지대(killing zone: 적을 유인하여 집결시킨 다음 전술핵무기로 공격하여 전멸시키는 지대-역주)로 유도하기 위하여 장벽이나 재래식 기동전력, 핵

공격이 사용될 수도 있었다. 1982년 핵방어국(Defense Nuclear Agency)에 제출된 육군의 핵작전에 관한 보고서는 이 새로운 철학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요약하면 핵무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의 방어에 사용된다. 즉 군대를 절약하는(economy of force) 수단으로써 공격부대와 그 후속대열이 주전투지역으로 침투하기 전에 그들을 파괴하고, 병참지원 대형을 파괴시키거나 분열시키고, 장애물을 만들어 적군을 아군에게 유리한 지역으로 유인하고, 적의 침투를 둔화시키거나 저지하고, 침투중인 적군을 분쇄하고, 지형의 이용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고도의 유연성을 지닌 예비수단으로써 공세적 행동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고, 역습중인 아군을 보호하는 데 사용된다.⁷

1984년 팀 스피리트 훈련에서는 '크로스 플로트 작전'(Cross FLOT: Cross Forward Line of Own Troops)을 시험했다. 이 훈련은 북한으로의 공격을 위하여 남한에서 DMZ라는 '전선'을 넘는 '공중기동 작전'을 포함한 것이었다.⁸ 더구나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쟁계획(OPLAN 5027로 알려져 있다)이 이 새로운 전략을 반영하였다.

미군 소식통에 따르면 개정된 OPLAN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특수부대를 북한에 투입하기로 되어 있다. DMZ에서 5~6일 정도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전투가 계속된 후에, 남한해병대는 평양과 원산부근에 교두보를 확보할 것이다. 그러면 남한 제3군예하 7군단(스윙전력으로 현재 안양에 사령부가 있다)이 DMZ에서 북한군 전선을 돌파하여 평양으로 진군할 것이다. 미군장교들은 남한군이 약 2주일이면 평양에 도달할 것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데에는 2주일 가량이 걸릴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억제를 위한 허세?

많은 남한장교들과 몇몇 미군장교들은 공지전을 현실적인 군사전략이라기보다는 억제를 위한 허세로 해석한다. 몇몇 남한 군사분석가들은 DMZ북쪽에서 북한군과의 장기전으로 인해 꼼짝못하게 될 상황을 걱정하며 북한에

대해 전광석화 같은 종심공격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동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미 육군으로서는 한반도의 상황이나 우발적인 사건에 대해 공지전 교리가 적용될 가능성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미 육군은 유럽에 맞게 개발된 교리를 사용해서 공지전 교리를 한반도에서의 전쟁계획에 기계적이고 판례적으로 적용시킨 것 같다.

미국이 남한의 전략을 계속 통제하려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공지전 교리의 수행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남한군은 연합군에서 수적으로 훨씬 우세하다. 한반도에서 공지전 전략의 수행은 유럽에서보다 훨씬 더 동맹의 단결성에 달려 있다. 공지전 전략을 수용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유럽동맹국들과는 달리, 남한은 민족통일 열망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모해 보일지라도 공세적 전략을 지지하게 되는 것 같다.

한반도에 대한 공지전 전략의 전략적 타당성 또한 의심스럽다. 한반도에서 공지전 전투를 하는 것은 대규모 예비부대와 전략적 깊이 없이 싸워야 하는 남한과 같은 방어자에게는 실수할 여지를 거의 남겨두지 않는다.⁹ 더구나 동맹국들은 전략적 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상이한 시간척도(time scale)를 갖는다. 이러한 시간지체는 연합사령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동맹국들이 서로 다른 전략과 전술을 추구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¹⁰

유럽주둔 미군 사령관처럼, 주한미군 사령관은 공지전 교리라는 미사여구를 전쟁계획에 채택한 것 같았지만 전력구조를 재구성할 때는 그것을 대부분 무시했다.¹¹ 실제로 그는 정적인 전진방어와 핵전투를 고집했다.

만약 공지전 교리가 단지 대양에 떠 있는 물거품에 불과하다면, 북한전략가들은 그것을 군사적으로 평가절하하는 반면 그 수사이 속에 드러나 있는 둘째 정치전략을 주시하게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만약 그 교리가 실제로 전쟁계획 의도와 지상군의 역량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그들이 믿는다면, 그들은 그것이 미국과 남한이 선제공격 역량을 얻기 위해 착수했다—미국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든지간에—는 치명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다고 간주하게 될 것이다.

레이건 시대에 북한에 대한 핵위협이 강화되었다. 1982년 미 국방부 방위지침은 소련과의 전쟁에서 있을 수 있는 미국의 '수평확전'의 표적으로 한

반도를 언급했다.¹² 1983년 팀 스피리트 훈련은 남한을 방어하기 위해 북한을 공격하고 침략하는 연습을 했다. 1983년에 이르러 팀 스피리트는 미국이 동맹국과 합동으로 행하는 것 중 가장 큰 압전훈련이 되었다. 참가병력은 1976년의 4만6천 명에서 19만1천7백 명 이상으로 증가했는데, 이 중 11만8천 명이 남한군이고 7만3천7백 명이 미군(그 중 4만1천5백 명은 남한주둔군이 아니었다)이었다. 1984년이 되자 참가병력은 20만 명을 넘어섰다.¹³

일반적으로 팀 스피리트는 DMZ 남쪽 50km 지점에서 행해졌다. 1983년경 까지 그 훈련은 동서축보다는 남북축에서 이루어졌다. 그 훈련에는 대규모의 병참과 배치훈련(텐트도시 건설, 보급품과 국외병력 이송과 같은)이 포함되었다. 압전투 훈련은 보통 3월 하순에 시작하여, 수륙양면 공격, 도강, 공중투하, 기동전, 지휘소 훈련, 같은 시기에 근해에서의 해군훈련, 화학전과 핵전 등을 위한 특수훈련을 수행하였다.¹⁴

1982년 평양은 “많은 핵무기가 동원되는 이같은 유례 없는 대규모 전쟁연습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면핵전으로 확전되지 않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¹⁵ 그 해, 거대한 미 B-52 폭격기가 미국방장관 외인비거와 남한 대통령 전두환의 팀 스피리트 훈련을 참관하던 계곡 위로 낮게 급강하였다.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는 이를 “남한의 모든 재래식 방어의 대미를 장식하는 미 핵편의 명백한 상징”이라고 묘사했다.¹⁶

1983년 팀 스피리트 훈련은 수륙양면 상륙을 포함하여, ‘적 깊숙이에서 전투하도록’ 고안된 공지전 교리를 시험했다.¹⁷ 1984년 B-52 폭격기들이 팀 스피리트 시나리오—남한의 동해안에 대한 수륙양면 공격—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이는 ‘한반도에 대한 공지전의 실제적용’으로 평가되었다.¹⁸

한반도에 있는 핵전력

이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은 남한에 있는 핵전력을 향상시켰다. 나토에서의 정책과는 대조적으로 이 전력에 대해 공개된 문건으로 알려진 정보는 거의 없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저자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미국의 정책은 우리 핵전력의 정확한 위치를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그 대답이 특수한 위치에 핵무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함축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핵무기 계획 또는 작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질문에 응할 수 없다.¹⁹

이러한 총체적인 부정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위해 수행된 조사결과 이제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남한에 있는 미 핵전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미 8군 구내전화 번호부에는 남한 핵계획작전과(Plans and Operations Nuclear Division in South Korea)가 실려 있다. 그 과는 핵계획 작전, 무기통제, 긴급배치를 담당하는 세 개의 분과로 되어 있다.²⁰ 주한미군의 조직기능 교법에 의하면 그 과는 ‘핵표적을 분석’하고, ‘핵발사계획을 수립’하며, ‘핵우발사건 계획을 준비’한다.²¹ (남한과 유엔사령부의 양면적 지휘체계에 대응하는 핵지휘체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기술한다.)

(1) 지휘와 통제

미국은 또한 남한에 있는 핵무기의 지휘통제를 위한 하부조직도 보유하고 있다. 이 체계는 핵무기 자체에 대해서만큼이나 미국의 핵역량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미 8군 사령부는 ‘긴급행동 메시지’(핵발사 명령)와 그 절차, 무기의 물리적 안전, 핵요원의 신뢰도를 포함한 작전과 훈련에 책임을 지고 있다.²² 핵요원에 관한 기능은 요원 신뢰도 프로그램(Personal Reliability Program: PRP)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제8인사행정 사령부의 지원을 받는 8군 핵보증팀(Nuclear Surety Team)이 담당하고 있다.²³ 미 8군에 따르면 1988년에 제2사단에는 644개의 PRP지위가 있었다.²⁴ 따라서 주한 미 지상군의 약 5%가 핵임무에 종사하고 있는 셈이다.

1985년초에, 핵공격 능력을 지닌 F-4, F-16 전폭기에 적재할 60개의 핵증력폭탄(Nuclear Gravity Bomb: 유도탄에 대한 재래식·투하식 폭탄의 분류명칭-역주)이 군산에 저장되었다고 한다.²⁵ 이 폭탄은 전장에서 북한군 집결지를 표적으로 할 수 있다. 또는 그것들은 수송체계뿐 아니라 옮겨 싣는 지점이나 병목지점처럼 북한·소련 또는 중국에 ‘고도의 보복이 가능한’ 지정학적

표적을 공격할 수도 있다. 1982년 BDM사는 핵방어국에 “핵공격은 또한 (북한에서의) 복구시간을 연장시키고 그럼으로써 더 지체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조언하였다.²⁹

(2) 핵통신

핵발사 명령전달은 미국이 보유·통제하는 통신체계를 통한 전송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제한에 따르면, 군단내에는 핵전용 통신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각 사령부는 핵작전을 위해 기존의 통신망을 사용할 따름이다.³⁰

핵공격 명령과 암호를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긴급행동 컴퓨터 체이기기가 한미연합사의 TANGO와 지휘소 서울본부에 설치되어, 캠프 레드 클라우드의 한미야전사 병커에 있는 텔리타이프를 이용한 또 다른 긴급행동설비 (Emergency Action Facility)와 연결되어 있다(<그림 6-1> 참조).³¹ 미 제2보병사단의 작전과(Operations Division)가 사단의 긴급행동설비와 캠프 케이시에 있는 사단의 전술작전 본부(Tactical Operations Center)를 운용할 책임을지고 있다.³² 핵단위 부대는 이들 지휘소로부터 그 위치에 따라 FM 라디오나 지상통신선을 통해 연결된다.

남한에 있는 육군 핵병기의 최선봉은 핵포이다. 1987년 육군은 남한에 세 가지 기본형의 핵포를 보유하고 있었다.³³ 그 운용특성은 <표 6-1>에 요약되어 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1985년 40개의 203mm 핵포탄과 30개의 155mm 핵포탄이 군산에 저장되었다고 한다(<표 6-2> 참조). 오늘날 그 정확한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신형 203mm 핵발사기의 배치에 따라, 비록 구식 핵포탄으로 교체되긴 했지만 1985년부터 그 숫자는 증가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들 155mm, 203mm 포신은 작전과의 주요 수송체계이다. 핵공격 가능한 포신의 전부가 이 조직에 포함되었고, 기술했던 것처럼 54개의 155mm 포신과 12개의 203mm 포신만이 배치되었다. 따라서 전시에 작전과는 핵무기를 발사하기 위하여 남한의 포병부대를 이용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제7장 참조).

(3) 교리상의 막다른 골목

군사적으로 핵포탄은 수적으로 우세한 군대와 직면해 패배를 면할 수 있는 예비화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당화된다. 미국방부는 1981년 의회에서 “(핵포탄은) 통제 가능하고 유용하기 때문에, 그 존재는 적군에게 실제위협을 제공하며, 재래전을 수행하기 위한 적군의 집중을 덜 효과적이게 한다.”고 전술했다.³⁴

일반교리는 전선 가까이에 배치된 단거리 155mm포에 의지해왔다. 그래서 주한미군에는 155mm포가 203mm포보다 4배 많다. 크기가 작은 포는 전선에 있는 군대의 필요에 재빨리 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결국 155mm포는 전선에 있는 북한의 장갑기동 전력, 특히 탱크를 겨냥하게 될 것이다.³⁵ 이 무기에서 발사된 작은 포탄(kt 이하)으로는 한 발에 2~3대의 탱크밖에 파괴시킬 수 없다.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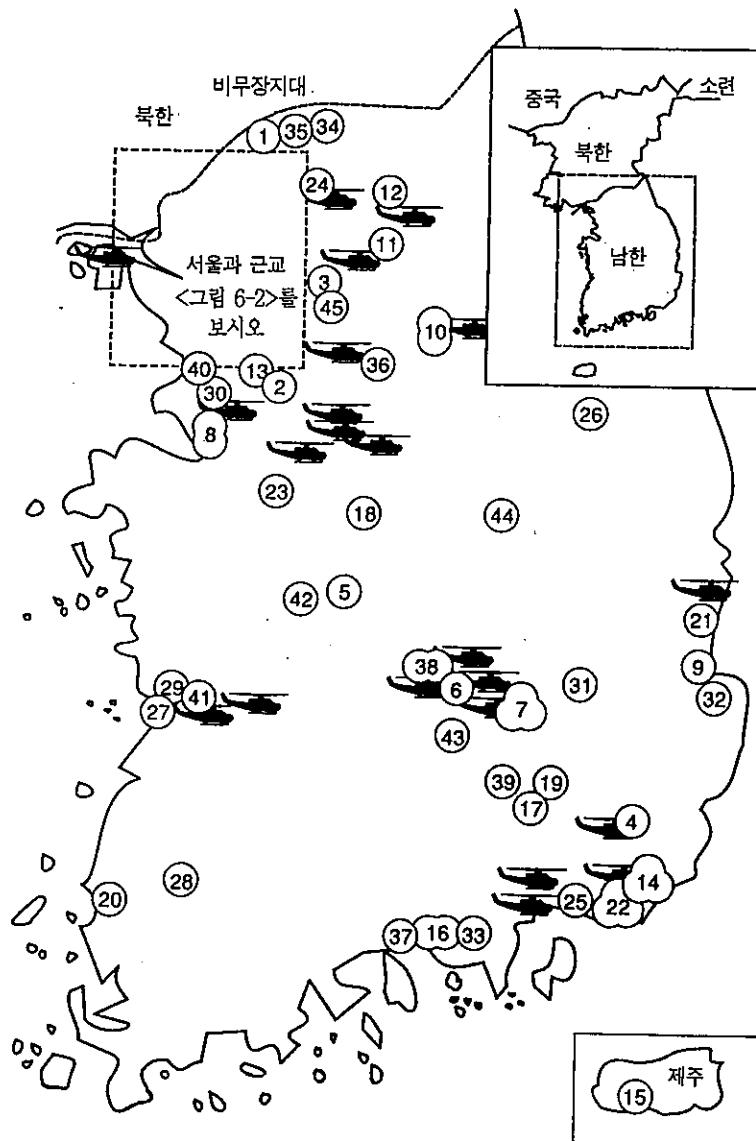
더 크고 오래 되었고 사정거리가 더 긴 203mm포는 좀더 후방에 배치되어 있다. 이것들은 한 곳에 집중된 전력 즉 좀더 큰 표적에 사용하기 위해 사단이나 군단수준의 포병 사령관에게 배속되어 있다. 보다 큰 파괴력(10kt에 이르는)을 지닌 이 무기는 15대의 탱크와 기타의 장갑차량을 지닌 1개 기갑중대를 전멸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포탄이 수십 미터의 정확성을 가지고 발사되어야 한다. 203mm 포탄은 부정확하기로 악명이 높을 뿐 아니라 조립시간이 길어 대응이 늦고, 지표면이나 근접지상에서 믿을 수 없게 폭발함으로써 막대한 양의 낙진을 뿌리는 경향이 있다.

한 개의 폭발효과가 3km 이상의 면적에 걸쳐 민간시설물에 커다란 해를 입힐 수 있는 이런 무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기갑연대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³⁷

따라서 전선에 배치된 수백 개에 달하는 북한의 기갑부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십 개의 155mm 포탄과 203mm 포탄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그 무기들은 모두 남한땅에서 폭발할 것이다. 더구나 미군과 남한군은 남겨진 잡석의 더미 위에서 방어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³⁸

핵무기를 이용해 북한의 공격에 충격을 가하고 제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100kt 이상의 파괴력을 지닌 무기를 공중으로 운반해 공

<그림 6-1> 남한에 있는 주요 미군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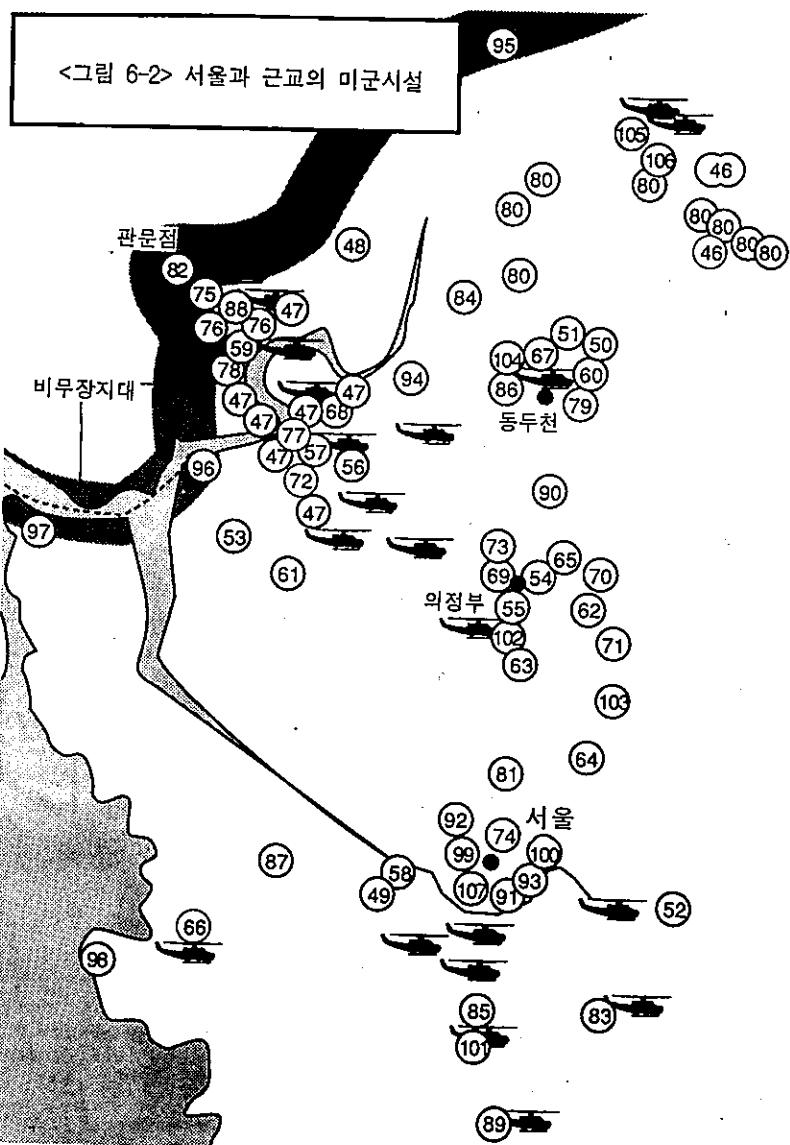


- | | |
|-------------------------|--------------------------|
| Artillery Unit | Gunnery/Bombing Range |
| Command Post | Naval Base |
| Army Base | Munition Storage |
| Communications/Signals | Space Tracking Station |
| Intelligence Base | Nuclear Warhead Storage |
| Airfield/Air Force Base | Radar Site |
| Missile Site | Petroleum,Oil,Lubricants |
- Helicopter (UH-1, CH-47) Ports, U.S.-operated only, not all 85 identified sites in South Korea are shown.
- 1 Alamo Asa 2 Bayonne Signal Site 3 Beason 4 Brooklyn 5 Cp Ames
 - 6 Cp Carroll 7 Cp Henry, Cp George 8 Cp Humphreys 9 Cp Libby
 - 10 Cp Long 11 Cp Page 12 Page Training Area 13 Cp Yongin
 - 14 Changsan 15 Cheju-do 16 Chinhae COMUSNAVFORKOREA Det
 - 17 Choejongsan Sat Tracking Site 18 Chonju Air Base 19 Dart Board
 - 20 Hapmyong LORAN Trans Site 21 Hunghae LORAN Trans Site
 - 22 Hialeah 23 High Point 24 Hwaaksan AFKN Evenreach ATC
 - 25 Kimhae Storage Annex 26 Korean Tactical Attack Range
 - 27 Kunsan Air Base (K-8) 28 Kwangju Air Base (K-57) 14 K-9 Airfield
 - 29 Little Inch 16 Masan Ammo Depot 22 Orleans
 - 30 Osan Air Base (K-55) and Ammo Storage 31 Palgongsan Liaison Annex
 - 32 Pohang COMUSNAVFORKOREA Det and Pohang Commo Site
 - 33 Pulmosan 22 Pusan Storage Facility 8 Pyong-Taek CPX area
 - 34 Radar Site 7 35 Radar Site 8 36 Radio Beacon Site
 - 37 Sachon Storage Annex 38 Salem (2 sites) 39 Song-sol
 - 40 Suwon Air Base 41 Tacoma 7 Taegu Air Base (K-2)
 - 42 Taejon (Richmond and Taejon POL) 7 USAG-T Storage Area
 - 43 Waegwan 10 Wonju Air Station 44 Yechon Commo Site
 - 45 Yongmunsan Liaison Annex

용산을 포함하여 서울시에 있는 기지들은 <그림 6-2>에 제시.

자료: 29th Engineer Battalion, U.S. Forces Korea, "U.S. Installation and Facilities in South Korea as of August 1984," CINCPACFLT, *Facilities Mobilization Plan In Support of CINCPACFLT OPLANS*, Naval Facilities Engineering Command, Facilities Planning Department, U.S. Department of the Navy Pacific Division, September 1983, pp. D-89, D-90; released under U.S. Freedom of Information Act request; "Pentagon aims at bases cutback," *Sydney Morning Herald*, January 31, 1990, p. 15; "Pact is reached to Move U.S. forces Based in Seoul," *Wall Street Journal*, May 3 1989, p. 14.

주: Cp = Camp; Map identifies U.S.-controlled facilities only. For example, the small U.S. NAVFORKOREA Marine Detachment at the ROK Marine Cp at the Pohang airfield complex is not shown as a U.S. installation as the site is not U.S.-controlled. Also, the reorganization of U.S. air force bases at Kwangju, Suwon and Tawgu (reportedly for relocation to Kunsan) announced in January 1990 is not shown here.



<input checked="" type="checkbox"/> Artillery Unit	<input checked="" type="checkbox"/> Gunnery/Bombing Range
<input checked="" type="checkbox"/> Command Post	<input checked="" type="checkbox"/> Naval Base
<input checked="" type="checkbox"/> Army Base	<input checked="" type="checkbox"/> Munition Storage
<input checked="" type="checkbox"/> Communications/Signals	<input checked="" type="checkbox"/> Space Tracking Station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telligence Base	<input checked="" type="checkbox"/> Nuclear Warhead Storage
<input checked="" type="checkbox"/> Airfield/Airforce Base	<input checked="" type="checkbox"/> Radar Site
<input checked="" type="checkbox"/> Missile Site	<input checked="" type="checkbox"/> Petroleum,Oil,Lubricants

Helicopter (UH-1, CH-47) Ports. U.S.-operated only, not all 85 identified sites in south Korea are shown.

- 46 Bayonet Training Areas (3 sites)
- 47 Bulls Eye No 1 (Dagmar Stn, Dragon Head, Palmer Range 9. Squad Area Nth, Squad Area Sth, Crab Island, Meyers Range 10)
- 48 Bulls Eye No 2 (Dagmar Nth) 49 Cp Baker
- 50 Cp Casey (Mike, November) 51 Cp Castle 52 Cp Colbern
- 53 Cp Edwards 54 Cp Essayons 55 Cp Falling Water
- 56 Cp Gary Owen 57 Cp Giant 58 Cp Gray Annex 59 Cp Greaves
- 60 Cp Hovey (Oscar, Papa, Quebec, Romeo) 61 Cp Howze 62 Cp Indian
- 63 Cp Jackson 64 Cp Kim 65 Cp Kyle 66 Cp Market 67 Cp Nimble
- 68 Cp Pelham 69 Cp Red Cloud 70 Cp Sears 71 Cp Stanley
- 72 Charlie Block 73 Concord (Hill 468) 74 District Engineering Compound
- 75 DMZ South Hall 76 4 Papa 1 77 4 Papa 3 78 Freedom Bridge
- 79 (Gimbols) (Sierra, Tango, Uniform, Victor, Whiskey) 80 Gun Training Area (6 sites)
- 81 Hill 343 82 Joint Security Area MAC HQ 83 K-16 Airlift
- 84 Kamaksan ASA 85 Kamnam POL Terminal 86 KCT 43
- 87 Kimpo Airfield 88 Kittyhawk 88 Liberty Bell 89 Madison
- 90 Mobile 91 Morse 92 Naija Hotel 93 Niblo Barracks 82 Panmunjom JSA
- 94 Papyongsan ATC 88 Radar Site 4 95 Radar Site 6 96 Radar Site 9
- 97 Radar Site 11 98 Seattle Shinbuk Relay 99 Seoul Housing Annex
- 100 SP31 82 Swisse-Swede Camp MAC HQ 101 Tango HQ
- 102 Tobongsan Ammunition Center 103 Toegyewon POL Terminal
- 104 Tongduchonl 105 Watkins Range 106 Yongpyong (Rodriguez)
- 107 Yongsan Garrison

자료: <그림 6-1>을 보시오.

주: Cp = Camp; Map identifies U.S.-controlled facilities only. For example, the small U.S. NAVFORKOREA Marine Detachment at the ROK Marine Cp at the Pohang airfield complex is not shown as a U.S. installation as the site is not U.S.-controlled. Also, planned relocation of Yongsan garrison to Taejon City (see base 42, Map 6-1) announced in May 1990 is not shown. Although Tobongsan is now ROK-controlled it is shown as it serves reportedly as the Army's forward contingency nuclear storage site.

<표 6-1> 남한에 있는 핵포의 특성

포	특성
A. 155-mm	
발사기 일련번호	204
포발사 핵포탄 명칭	M454/M454E7
탄두 명칭	W48
처음 사용된 해	1957년 7월, 남한은 그후에
탄피 명칭	M467
탄약/핵분열물질	플루토늄 239: oralloy
파괴력	0.1kt
발사체계	이중역량을 지닌 M198/109 곡사포와 구형 155-mm 곡사포
사정거리	1.6-14Km
정확도	탄도학적으로 재래식 포탄과 다름, 부족
뇌관	기계식: M32E1과 T36IE2
야전조립	해당 없음
길이	34인치
중량	53Kg
훈련탄	M455
기준탄	해당 없음
PAL/안전장치	기계식 결합자물쇠 작동허가링크(PAL)
B. 구형 8인치	
발사기 일련번호	218
포발사 핵포탄 명칭	M422/M422C
탄두 명칭	W33
처음 사용된 해	1956년, 남한에는 후에 배치
탄피 명칭	M-500은 포탄을 수용
탄약/핵분열물질	M-102 'Birdcage'는 탄두를 수용 우라늄 235 Gun Assembly 992 T-Z 핵탄약 패키지 992 P-Z 핵탄약 패키지(현대화된 992 탄약, 아마도 트리튬 사용) 994 P-W 핵탄약 패키지
파괴력	2-3가지 파괴력, Kt 미만, 2Kt, 10Kt
발사체계	M110 자주형 8인치 곡사포; 구형 M55/115 곡사포
사정거리	최대 18.2Km
정확도	탄도학적으로 재래식 포탄과 다름, 기준탄이 필요
뇌관	기계식, M542 또는 T316E3
야전조립	탄두는 전장에서 30분 정도 걸려 발사기에 끼워 넣어야 한다
길이	49.5인치
중량	107Kg

포	특성
훈련탄	M423
기준탄	M424 고성능탄
PAL/안전장치	부품분리; 탄두 접근을 막는 결합자물쇠 작동허가링크; 부품에 봉인
C. 신형 8인치	
발사기 일련번호	220
포발사 핵포탄 명칭	M753
탄두 명칭	W79
처음 사용된 해	1985년 미국에 비축; 1985-87년 남한에 배치?
탄피 명칭	M613
탄약/핵분열물질	플루토늄, 트리튬
파괴력	'폭탄마다 다이얼로 조정', Kt 미만-10Kt. 삽입할 수 있는 연장방사포(ER)는 중성자 방사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방사 능 성분을 강화한다. 남한에의 연장방사포 배치여부 모름
발사체계	M110 자주형 8인치 곡사포; 구형 M55/115 곡사포; 랜스 미사일, 남한에의 배치여부 모름
사정거리	연장방사포 선택시 15Km; 연장방사포 선택 없이 로켓 지원시 29Km
정확도	탄도학적으로 재래식 포탄과 유사
뇌관	표적 감지기, 전자적 프로그래머, 타이밍/기억 조립,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폭발높이
야전조립	해당 없음
길이	43인치
중량	100Kg
훈련탄	M173/M174
기준탄	해당 없음
PAL/안전장치	탄두에는 D형 작동허가링크; M613 탄피에는 지휘불능

자료: M. Aid, "Artillery Fired Atomic Projectiles: Do We Really Need Them?", mimeo, June 10, 1980; J. Anderson, "Neutron Bombs Could Be Used in South Korea," *Washington Post*, May 4, 1983, p. C-13; W. Biddle, "New Army Shells Could Double As Neutron Bombs," *New York Times*, December 14, 1984, p. 24; T. Cochran, et al., *U.S. Nuclear Forces and Capabilities*(Cambridge, Mass.: Ballinger, 1984), pp. 47-48, 54-55, 77-78, 309; Weapons Support Detachment-Korea, *Nuclear Operations Standard Operation Procedures*(WSD-K NUC OPS SOP), Camp Page, Chun Chon, South Korea, September 22, 1987, annex 8, pp. 30-31, 41-42; 미 정보자유법에 의해 미 8군이 공개.
Note: AFAP = Artillery Fired Atomic Projectile; PAL = Permissive Action Link.

<표 6-2> 군산 공군기지에 있는 미 핵무기

종류	수		
	1977년 전 ^a	1983 ^b	1985 ^c
공중증력폭탄 포			
8인치	192	135	60
155mm	56	63	40
연장 방사	152	31	30
지대지 미사일	?	?	?
12 서전트	80 어니스트 존	0	0
? 랜스	12 서전트	0	0
지대공 미사일	?	?	?
나이키 허큘리스	144 나이키	0	0
핵지뢰	25-50	20	21 ^d
합계	660-686	249	151

^a"South Korea Summary," DMS Market Intelligence Report, 1978, pp. 7-8.

^bW. Arkin, citing Joint Chiefs of Staff sourcebook, in North American Coalition for Human Rights in Korea, "Consultation on Military and Nuclear Issues," mimeo, Washington D.C., December 9, 1983; R. Halloran, "Report to Congress Provides Figures for Nuclear Arsenal," *New York Times*, November 15, 1983.

^cW. Arkin and R. Fieldhouse, *Nuclear Battlefields, Global Links in the Arms Race* (Cambridge, Mass.: Ballinger, 1985), p. 231.

^d중형핵지뢰(MADMs)는 미 병기고에서 1987년에 폐역했다. 그래서 중형핵지뢰는 남한으로부터 철수되었다. 남한의 특수핵지뢰에 대한 것은 명백히 밝혀지고 있지 않다.

중에서 폭발시키는 것이다. DMZ 남쪽의 침입회랑 위에서 100kt의 무기가 폭발한다면 폭심지 아래 반경 1km 이내에 있는 대부분의 장갑차량이 무력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 기술은 광범위한 낙진은 말할 것도 없고, 폭심지로부터 4km 이내의 민간시설물도 파괴할 것이다. 핵지뢰와 마찬가지로, 포와 중력폭탄의 혼성공격은 미국과 남한을 정치·군사적으로 큰 곤경에 빠뜨린다.

한 핵포 분석가는 나토와 관련해서 핵포의 결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핵공격 가능한 포의 민감성과 통제의 용이, 정확성과 낮은 파괴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상황에서는 [C3: 지휘·통제·통신] 네트워크의 붕괴 가능성과 더불어 효과적인 표적포착에 따르는 문제 때문에, 거대한 [소련의, 혹은 북한의] 화학무

기 저장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개전 초기의 핵/비핵이 통합된 전투 이후에는 포발사 핵포탄(arillery-fired atomic projectiles: AFAP)이 쓸모없게 될 것이다.³⁵

미 육군은 중성자탄을 개발함으로써 이 난국을 타개하려 했다.

중성자탄은 치명적이고 매우 침투력이 강한 중성자 방사능의 산출을 증가시킨 반면 폭발 에너지는 감소시켰다. 만약 지상 150m에서 폭발시킨다면 1kt의 중성자탄 폭발에 의한 치명적인 방사능 반경은 단순 핵분열에 의존하는 포탄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약 700m가 될 것이다.³⁷ 중성자탄의 폭발로 민간시설물은 거의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성자탄은 단순 핵분열 무기를 사용했을 때보다 더 많은 민간인을 방사능으로 살상할 것이다.³⁸ 따라서 가장 앞선 전술핵무기를 지니고 있더라도 핵전투 교리에 의해 야기된 점에 대한 딜레마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인들은 미 육군이 남한에 중성자탄(남한에서는 '신형 8인치'로 알려져 있다)을 배치할 것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해왔다.³⁹ WSD-K(Warfare Support Detachment-Korea: 주한 무기지원파견단)은 남한의 155mm포로 W-79 탄두를 발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랜스 미사일도 중성자탄 발사를 염두에 두고 고안되었다. (비록 그랬을 것 같지는 않지만) 미 육군이 남한에 중성자탄을 보냈을 가능성은 있다.⁴⁰

육군은 전장보다는 예산을 염두에 두고 핵포를 개발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육군 스스로가 만든 이념적 함정에 빠진 육군의 전쟁입안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특수하고 일관된 군사적 기능을 항상 결여하고 있는 무기에 대한 군사적 근거를 찾는 것을 간단히 포기해버렸다.⁴¹

이론적으로 육군은 위협에 기초한 핵억제에 대해 말로만 호의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는 육군은 한국전쟁의 주요교훈—강제를 위해 전장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자신을 폐퇴시킬 따름이라는—으로부터 여전히 후퇴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재보장은 미 육군에게 한반도에 핵무기—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자기자신—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근거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 목표를 현실화시키려면 남한군을 미 핵전략에 통합시켜야만 했다. 그것은 또한 현재 미국을 괴롭히고 있는 많은 전략적 딜레마를 창출했다.

제7장 협력

폴 의원(Mr. Paul): 우리는 남한사람들과 함께 핵포 및 다른 형태의 핵전쟁 기술을 연습하는 또 다른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マイ클즈 장군(Gen. Michaels): 나는 국방장관으로부터 핵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지 않도록 지시를 받아왔습니다.

-미 상원 청문회, 1970. 2. 28¹

우리는 어니스트 존스, 포탄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것들을 거기에 보유하고 있었다. 전시에는 모든 남한군과 카투사가 미군에 통합된다. 따라서 모든 남한군 병사들은 모의단두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했다. 그것은 아주 우스운 일이었으며 또 완전히 비합법적인 것이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 밀하려 하지 않았다.

-전 국무부 관리, 1987. 11. 16

대부분의 미국인들 그리고 확실히 대부분의 남한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남한군대는 오랫동안 남한에서의 미 핵작전계획, 훈련, 전쟁계획에 통합되어왔다.

이 장은 이러한 통합이 장차의 핵전장에서 두 세력이 긴밀하게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기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지난 채 고도로 발전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메커니즘들은 그 발전이 정치적·법적 요소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는 나토동맹에 비하여 불완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미국것이고 어느 것이 남한것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핵전투에 대한 조직적인 뿌리와 가지가 얹혀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 장은 이러한 핵연결이 한미 안보관계의 가장 민감한 양상 속에 있음을 주장한다. 남한군 안에서 매파들은 항상 자제보다는 북한에 대한 보복을, 방어보다는 공격을, 협상보다는 힘을, 위협보다는 전투를, 봉쇄보다는 를백을, 억제보다는 강제를, 재보장보다는 억제를 응호해왔다. 그들은 평양에 있는 ‘미친 개’를 때릴 가장 큰 막대가 손쉽게 뒹는 곳에 있어주기를 바

라고 있다. 핵무기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큰 막대이므로, 남한군은 그것을 북한에 대항할 최고카드로 여기고 있다. 같은 이유로 핵위협은 또한 서울에서 미 육군의 비장의 무기가 되어, 핵공약에 대한 미국의 비판을 빗나가게 하거나 남한군이 미군의 지도를 따르도록 설득하는 데 쓰이고 있다.

미 육군은 남한군에 대한 미군의 작전통제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남쪽상대의 태도를 이용했다. 그럼으로써 미군은 남한군의 조직구조에 깊숙이 침투하였다. 이 장은 핵전투를 지원하는 지휘관계 및 전력구조에 대한 양국의 통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협력으로 인해 남한에서 육군에 이로운 것은 미국에 대해서도 이로운 것이라는 미 육군의 주장이 가능해졌다.

이 장은 핵전투에 대한 공동접근이 양국군대의 조직구조를 맞물리게 한 결과, 남한군이 핵무기 발사에 필요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임무에는 정보, 표적설정, 보안, 수송 그리고 방어가 포함된다. 이 장에서는 육군이 정치적 함축을 불충분하게 고려한 채 꾸며왔던 종래의 비밀스런 전력합성(force blending)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두 가지 잠재적인 영향이 특히 중요한데, 첫째는 한미 '연합' 핵위협이 북한의 인식(8장에서 분석할 것임)에 미치는 영향, 둘째는 국산폭탄을 획득하여 하는 남한의 열망에 대한 자극이다. 후자의 역동성은 카터 대통령의 철수정체을 폐쇄시켰던 호전적 봉쇄정책 조류를 지원하던 국무부내 비확산 지지자들의 힘을 강화시켰다(13, 14장을 볼 것).

이 장은 그 타협이 미국 원자력법에 위배되어 남한에서 미 육군의 입지에 정치적 악화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초기유대

핵협력은 미국이 남한군을 격상시켜 직접 자신의 부대를 지휘할 수 있게 했던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다. 1965년 미군은 유엔사령부에서 남한군을 어떻게 납득시킬 것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² 1966년까지 미 8군은 "대한민국 육군부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생처리되고(sanitized) 번역된" 핵무기의 사용 혹은 그것에 대한 방어절차에 관한 '표준지침서'를

작성하고 있었다.³ 1967년 3월 미 합참은 "핵무기 사용에 대한 미 8군 표준 운용 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의 위생처리된 번역본을 남한군에 양도"하는 것을 승인했다. 공식기록에 따르면, 그 절차는 "만약 핵무기가 사용되어야 할 경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시 운용방법으로 재빨리 전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도되었다.⁴

1966년 미군사령부 기록은 남한군이 핵작전에 이미 어느 정도까지 연관되어 있음을 드러내었다. "핵발사 임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알레그로' 암호를 한미 양국 단위부대에서 사용하도록 승인하였다. … '알레그로' 암호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암호보다 사용하기가 훨씬 더 간편하고, 핵발사 임무를 관리하는 데 유연성을 더해줄 것이다."⁵

1968년 10월에, 군사계획에서 남한에게 최초로 공식 발언권을 부여한 한미 작전기획 참모부가 형성되었다.⁶ 그 해에 연합본부는 '포커스 레티나'(Focus Retina)와 '후리덤 보트'(Freedom Vaught) 훈련을 주재했다.⁷ 1971년 7월에 전선의 제1군단(여기에 미 제2보병사단이 포함된다) 때문에 최초로 한미합동 연합본부가 상설되었다.⁸

한국분쟁을 해결하려는 헨리 키신저의 작전계획(4장을 보라)—남한으로부터 미 지상군의 궁극적인 철수를 굳은 공약으로 예고하는—은 그의 유연하고 전세계적인 외교와 일치하지 않았다. 새로운 임무를 알아챈 미 해군은 육군이 남한으로부터 철수할 것이란 전망에 입맛을 다셨다. 1973년에 한 해군 연구는 남한에 있는 육군부대는 억제에 불필요하다고 결론짓고 "남한에 있는 병력을 해상에 있는 부대(두 개의 해상 해병상륙부대)"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⁹ "해상에 근거를 둔 억제가 배치됨으로써 기본균형이 유지되는 한, 남한에서의 미군의 공약과 그 의형은 크게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들은 덧붙였다.¹⁰

육군은 낙순과 키신저가 미국이 아시아세력이 아닌 태평양세력으로 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균형전략과 해군 일방주의를 선호하는 것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었다. 이 위협을 상쇄하기 위해 육군은 남한군과의 통합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육군의 이해에 공헌하였다. 1974년에 미 육군은 유엔사령부내에 연합 전투참모부를 만들었고, 7월에는 유엔사령부/주한미군을 위해 일하는 미 참모부와 미 8군을 위해 일하는 미 참모부로 분리되어 있었던 미

참모부들을 통합했다.¹¹

같은 달에,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스틸웰 장군은 남한과의 연합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¹² 그 직접적인 동기는 남한에 있는 유엔사령부를 해체하려는 유엔에서의 움직임을 분쇄하려는 것이었다.¹³ 1975년 11월 을지훈련(남한)과 포커스 렌즈 훈련(미국)이 연합으로 실시되었다. 처음으로, 상설 한미연합 전투참모부의 숙련도가 시험되었다. 연합훈련으로 인해 연합사령부가 창설되어야 한다는 권고가 다시 등장하였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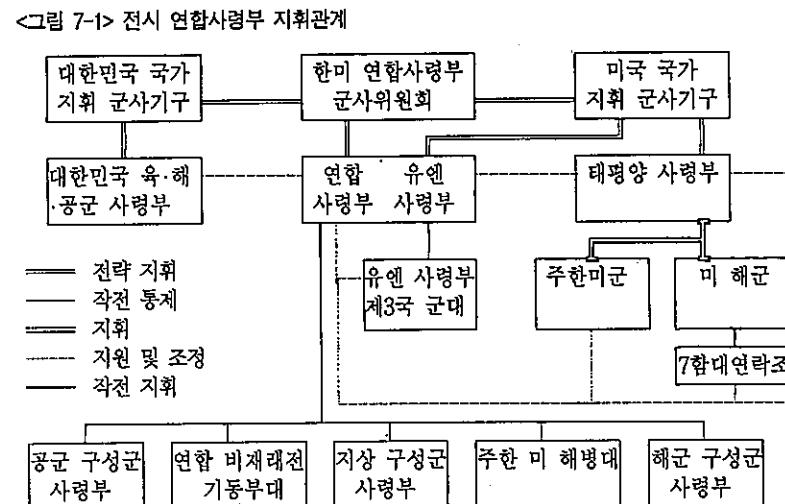
팀 스피리트 훈련이 다음 해에 시작되었는데, 약 46,000명의 남한군과 미군이 참여하였다. 1977년에 그 훈련에는 87,000명의 병력이 참여했고 카터의 철군정책이 진행되던 1978년에는 이보다 더 늘어난 118,000명이 참여하였다.

1978년 훈련에는 남한 밖에서 온 미군이 처음으로 참가하였는데, 이는 만일 남북한간에 전쟁이 재개되어 한미 안보공약에 호소하게 된다면 철수했던 미 지상군이 재도입될 수 있다는 군부의 관심을 반영한다. 그것은 또한 새로이 창설된 연합사령부의 지휘 아래 수행된 첫번째 훈련이었다. 그 훈련에는 107,000명의 병력이 참가하였고 200대의 미 공군기와 제7함대 전함 12척이 가세하였다.¹⁵

연합사령부는 카터의 철수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교활한 움직임으로 창설되었다. 연합사령부는 남한을 재보장시키는 것으로 정당화되었다.¹⁶ 사실 미 지상군이 없다면 연합사령부의 미군 사령관이 전시에 남한군으로부터 크게 주목받기를 바랄 수 없으므로, 연합사령부는 남한에 미군을 두도록 커다란 압력을 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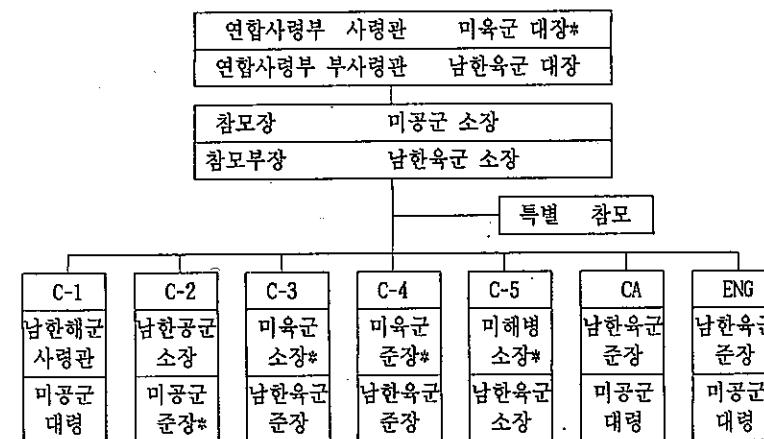
한국전쟁 때부터 남아 있던 유엔사령부로부터 양국 연합사령부로의 작전 통제권(즉 실제 군사지휘권에서 전급과 훈련에 대한 통제를 제외한 것)이 양은 1978년 11월에 이루어졌다.¹⁷ 전 주한미군 사령관 스틸웰 장군이 “전세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주권의 양보”¹⁸라고 언급했던 상황 속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직을 맡은 미 육군장군은 남한군을 지휘하게 되었다(<그림 7-1> 참조).¹⁹

연합사령부의 사령관 자격으로, 장군은 1978년에 창설된 한미 군사위원회의 지시를 받는다(<그림 7-1>을 볼 것). 그러나 해 사령관 자격으로, 그는 남한의 정치지도자가 아닌 미 합동참모부에만 대답한다.



자료: G. Rice, "CFC Command Relationships Orientation," mimeo, Command Relations Branch, Combined Forces Command, 1986, slide 8; 미 정보자유법에 의해 공개됨.

〈그림 7-2〉 한미 연합사령부 지휘참모 관계



* 주한미군 참모장 겸임

자료: G. RICE, "CFC Command Relationships Branch, Combined Command, 1986, slide 5; 미 정보자유법에 의해 공개됨.

새로운 연합사령부에서 남한군의 책임을 격상시키기 위한 이러한 인원개편은 정치적으로 유발되었고 대체로 장식적인 것이었다. 남한군 장교들은 미사령관에게 그들이 계속 종속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환상도 갖지 않고 있다. 그들은 나토에서 미 동맹국들에게 주어진 것과 첨예하게 대조되는 이러한 상태에 대해 깊이 분개하고 있다.²⁰ 이택홍 장군은 “미군장교들이 이미 다양하게 맡고 있는 보직으로 인해 아무리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주요기능과 참모직이 그들에게 할당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²¹

실제로 1987년 10월에 노태우-12월에 있었던 차기 대통령 선거의 당선자는 남한이 1990년대에 자국군대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²² 지금 많은 남한사람들은 미군의 존재를 ‘필요악’으로 간주하고 있다.²³

그렇지만 1978년에 창설된 연합사령부는 남한사람들이 핵과 관련된 정보와 작전계획 작성에 참가하는 걸 허용해온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또한 남한군 지도부가 정규적으로(적어도 1년에 한 번) 전쟁계획에 대해 미국측 상대방으로부터 협의와 브리핑을 받도록 보장하고 있다. 몇몇 남한 국방분석가들은 자기들의 정부가 주한미군 전쟁계획의 핵부록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에서 브리핑을 받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²⁴ 그러나 미군장교들은 이 협의는 오직 군대 대 군대라는 토대 위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세네월드 장군(Gen. Robert Sennewald)이 1988년에 확실히 진술했듯이, “미국은 핵무기에 대해 남한군과 충분히 논의해왔다.”²⁵ 그러한 브리핑은 정치적 이유에서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로 미 핵전략에 있어서 남한군이 수행하여야 할 두 가지 작전기능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표 7-1>과 부록 C 참조).

수송체계의 제공

좀 더 구체적으로 주한미군의 조직기능 교번(이하 교번이라 약함)에 의하면, 남한군은 핵탄두를 통제하는 미군팀에게 핵공격 가능한 수송체계를 제공한다. 교번은 미 8군 핵기획작전과의 핵작전분과가 “대한민국 육군 무기

<표 7-1> 한미 핵통합

기 능	미군 부대
지휘와 통제	한미 연합사령부
통신과 정보	한미 연합야전군, 한미 연합종합정보실
핵생화 방어 (NBC)	핵생화부대, 한미 연합야전군 비부대 핵생화 학교 한국인 노무단
수 송	제1, 2, 3 전투지원조정단 미 8군 핵작전분과 제19 지원사령부 주한 무기지원파견단 한미 연합야전군 포/화 지원조

자료: 이 책 7장과 부록 C

체계를 사용하는 주한 무기지원파견단 소속 핵지원조(NSTs: Nuclear Support Teams)의 근무를 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남한군은 이러한 비상사태에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하며 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교번의 다른 곳에서는 주한 무기지원파견단이 “남한 무기체계를 이용하여 핵무기를 발사할 준비가 된 핵지원조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²⁶ 또 다른 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주한미군 제19지원사령부는 미 8군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미 8군 전술핵 표준운용 절차의 규정에 따라 남한 무기체계를 사용하여 핵무기를 발사할 준비가 된 핵지원조를 제공한다.”²⁷ 8개의 핵지원조의 지휘관들은 캠프 페이지에 위치한 주한 무기지원파견단 본부에 자리잡고 있다.²⁸ 그 파견단은 전에는 제19지원사령부에 배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5년 2월 이후로는 용산에 사령부를 둔 새로 편성된 미 8군 특수부대 사령부에 배속되어 있다(아래와 부록 C 참조).²⁹

현재 남한군은 핵지원 역할을 준비하기 위해 미군과 똑같이 모의 핵암호를 사용하여 핵지휘 통제절차를 연습하고 있다.³⁰ 남한군이 핵무기 수송을 위해 훈련받고 있고 포신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확실해졌다. 미군장교들은 비록 모조 훈련무기를 가지고 포에 한정하여 실시된다 할지라도 그 훈련이 계속될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남한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는 ‘제3전투지원 조정단’의 임무설명에서 발견되는데(아래를 보라), 여

기에는 ‘남한 제3군의 핵공격 가능한 발사포대와 주한 무기지원파견단 핵지원조의 훈련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³¹

전 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한 남한군들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음을 개인적으로 인정하였다.³² 155mm 포병부대의 전 지휘관은 1974년에 미국의 모조 핵무기로 훈련했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이 훈련이 그를 매우 난처하게 했다고 덧붙였다.³³

남한의 헬기와 어니스트 존 미사일이 핵임무에 포함되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어니스트 존 미사일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제2보병사단 보조사단 방공장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방공임무를 위한 핵무기의 배치”를 권고한 사실에서 시사받을 수 있다.³⁴

미국이 1979년에 남한에서 최후의 혼역 어니스트 존 포병대대를 퇴역시킬 때, 핵탄두를 뱉은 미사일을 남한에 넘겨준 사실로 미루어 보아, 미국은 남한의 어니스트 존 부대를 핵방공을 위해 사용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³⁵ 그러나 이런 결과에 대한 증거는 없고 미 8군은 핵방공을 위해 남한 미사일을 사용할 어떠한 계획에 대한 정보도 없다고 진술했다.³⁶

핵정보의 역할

최근 공개된 한미 연합야전군의 조직기능 교범은, 캠프 레드 클라우드에 위치한 사령부의 포/화 지원조가 “지상표적 공격에 쓰일 모든 화력지원 자산(랜스 미사일, 핵·생물학·화학[이하 핵생화로 줄여 표기]무기를 포함한)의 배치, 우선순위 설정, 통합”을 권고·수행한다고 적고 있다.³⁷ 교범은 또 이 지원조가 “특수임무의 훈련 및 발사에 있어서 남한군 포병부대”를 돋도록 명령하고 있다.³⁸ 이 지원조에는 남한군 대령을 장으로 하고 미군을부장으로 하며,³⁹ 캠프 레드 클라우드의 지원조 본부에 있는 주한 무기지원파견단 연락조가 포함되어 있다.⁴⁰

또한 남한군은 ‘한미연합 종합정보실’(Combined All Source Intelligence Center)을 운용하는 부대도 지휘하는데, 그것은 캠프 레드 클라우드의 지휘·통제·통신 명커에 위치하고 있다.⁴¹ 이 정보실의 기능 중 하나는 “적의 핵생

화무기 사용역량과 의도 및 아군(즉 남한군 또는 미군)의 화학무기 또는 핵무기 사용에 따른 적의 대응”을 평가하는 것이다.⁴² 역시 캠프 레드 클라우드에 있는 연합야전군 핵생화부대의 부부대장으로 남한군 소령이 근무하고 있다.⁴³ 핵생화부대는 “핵생화 방어를 위한 행동”을 권고하고 “전술작전본부의 화력지원조내에서… 핵생화조”를 운용한다.⁴⁴ 또 전쟁계획과 작전 중 핵생화에 관한 부분도 이 핵생화부대가 준비한다.⁴⁵ 이 부대를 운용하는 작전 회의 최고사령관은 남한육군준장이 맡는다.⁴⁶

남한군은 유엔군사령부의 핵생화부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 부대는 핵작전기획이 유엔군사령부의 지도 아래 행해졌던 과거의 유산이다. 유엔군사령부의 핵생화부대는 현재도 형식적으로는 존재하지만 거기에 임명된 작전 지휘관은 없다.⁴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기술된 연합사령부의 지휘관계는 전시에는 연합사령부로부터 유엔군사령부(비록 유엔의 연합군만이 여기에 임명되기는 하겠지만)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⁴⁸

유엔군사령부와 연합국과의 연락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현재 연합국들로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대국, 영국 등이 있다. 일본은 공식 연합국은 아니지만 미국의 동맹국들이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로부터 작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핵훈련

남한군 단위부대들은 오래 전부터 핵전쟁 훈련을 실시해왔다. 이 역할은 연합사령부의 형성보다 최소한 10년 이상 앞서 시작되었다.

예를 들면, 1968년에 미 제7사단 포병은 남한군 1군단의 지휘소훈련인 ‘캐피틀 힐’(Capitol Hill)에 참가했다. 미 육군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경계 속에서 모든 사령부와 대대 작전본부가 그들 각각의 부대 근처에 야전 진지를 만들었다. 핵화력을 포함시키기 위한 화력지원 계획이 완성되었다. 12개 대대의 화력지원이 조정되었고 20분대기조가 공격을 지원사격하였다. 훈련의 목적은 새로운 1군단의 우발사건 계획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었다.⁴⁹

남한군 제1군을 대상으로 한 1970년 4월의 멸공훈련은 기존 작전계획을 그대로 따랐다. 미군의 사후보고서에 따르면, 이 훈련의 목적은 “핵전과 화생방전(CBR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Warfare)의 상황하에서 공중 및 지상이동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었다.⁵⁰

남한군은 연합사령부 지휘하에 남한에서의 핵전쟁 이후 오염제거를 위한 훈련도 받고 있다. 리브시 장군(Gen. William Livsey)에 의하면, 주한미군 사령관의 통제를 받는 준군사적 민간인 부대인 한국인 노무단이 현재 전시 ‘핵생화 오염제거’ 임무를 맡고 있다.⁵¹ 그 예로 1985년에 제37 한국인 노무단 중대는 팀 스피리트 85를 준비하면서 핵생화훈련을 실시했다. 공식기록에 따르면 이 중대는 ‘공격적인 핵생화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했다.⁵² 카투사로 근무하는 남한사람들도 ‘비부대 핵생화 방어학교’(Nondivisional NBC Defence School)에서 멀사봉공의 핵방어 훈련에 참가한다.⁵³

통합에 대한 장애

미군과 남한군을 통합시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조직의 스타일, 문화적 배경, 교리상의 차이가 종종 문화적 교류를 저지하고 군사적 조정을 저해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두 가지 언어로 일해야 한다는, 가장 단순한 수준에서 분명해진다. 영어와 한글은 너무도 달라서 부정의문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yes”인 대답이 반대의미를 가지게 된다. 많은 요원들이 영어와 한글을 사용하므로 문화관습간의 교류보다는 오히려 군대의 통신을 복잡하게 한다.⁵⁴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권위에 대한 태도의 기본적 차이를 암도한다. 미군은 권위와 책임을 하위계급에게 크게 넘겨버린다. 이외는 반대로 남한군의 위계는 사다리 위쪽에 권위가 집중되어 있다. 미군장교는 자신의 남한측 상대가 상급 지휘관에게 문의하지 않고서 기선을 잡을 수는 없음을 종종 발견한다. 남한군의 입장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 미군장교가 명령투로 말하는 것을 믿기가 종종 주저된다. 정확한 정보전달을 보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휘와 통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방식의 차이에 따른 문제가 더 악화된다.⁵⁵

그러나 또 다른 어려움이 혼동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미군과 남한군 조직의 레퍼터리는 비슷한 반면, 그들은 여러 가지 전투 형태에 대해 서로 다른 전술을 개발해왔다. 언어상의 차이, 문화적 태도, 교리상의 분화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양국군대를 조정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였다. 이 문제는 군사적으로 비중 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핵전력 영역에서 특히 가장 중요하다.

핵조정

남한에서 핵전쟁 계획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군 손에 달려 있다.⁵⁶ 그러나 미군의 활동을 남한 지원부대와 통합하는 데는 진밀한 조정이 필요하다. 주한미군은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두 가지 형태의 단위 부대들로 짜여진 복잡한 상호작용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미군의 전투지원조정단(Combat Support Coordination Teams: CSCTs)과 미군의 주한 무기지원파견단이다. 미 핵전력과 그들의 남한측 상대에게로 통합된 조직에 대한 상세한 부연설명은 부록 C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전투지원 조정단의 활동범위에는 남한군에 맡겨진 핵임무가 포함된다. 예를 들면 제1조정단의 병참반은 실제 핵전투 상황에서 남한 제1군을 지원한다. 병참반의 군수장교는 남한 제1군 군수참모(G-4 staff)와 함께 ‘재래식 및 특수 군수품의 지원, 서비스에 관한 계획, 정책, 절차’를 평가·개발·조정하도록 조정한다.⁵⁷

이 역할은 제1조정단에 한정되지 않는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두 개의 조정단이 각각 남한군 제1군과 제3군을 위하여 ‘특수무기’에 관한 미군의 전투 및 전투지원 제공을 조정한다.⁵⁸

전투통합

비록 주한미군의 지상군·공군·해군 모두가 핵공격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상군은 북한군에 핵포탄을 발사할 포신이 모자란다. 그래서 미군의 핵

조직과 능력을 남한군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주한 무기지원파견단이 고안된 것이다. 의심할 것도 없이, 이는 한반도에서의 핵전투와 관련하여 미군과 남한군 사이에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연결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핵전투를 위한 군조직의 '내부밀실'이다.

(1) 통합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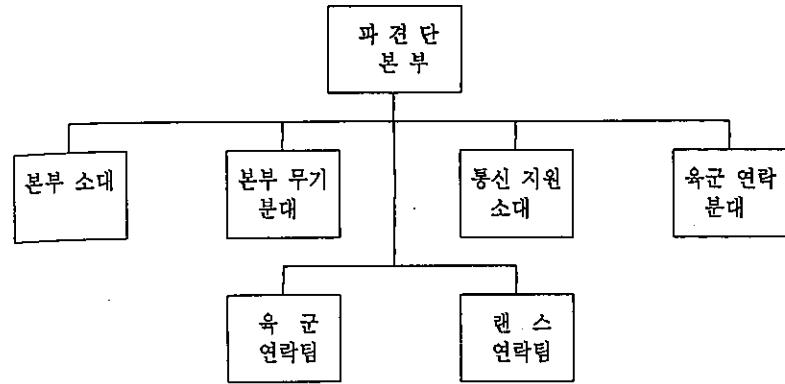
주한 무기지원파견단의 통합임무는 미군과 남한군 단위부대와의 연락을 필요로 한다. 주한 무기지원파견단 본부에 있는 남한군 연락장교는 남한군의 입장을 무기지원파견단에 직접 투입한다. 캠프 롱의 남한군 제1군, 연합사의 레드 클라우드에 있는 연합야전군, 용인 남한군 제3군에 있는 미군 연락장교들은 남한군 단위부대에 대해 주한 무기지원파견단을 대표한다. 주한 무기지원파견단의 단위부대들과 그 위치들에 대해 알려진 것은 <표 7-2>에, 이 단위부대들의 최근(1988) 구조는 <그림 7-3>에 있다.

<표 7-2> 주한 무기지원파견단의 단위부대들(1988)

캠프 페이지:	
제128 비행중대	
제275 통신중대	
제61 경비대	
SAACT No. 3	
제208 군 정보파견단	
제205 비행중대	
캠프 코이너:	
제199 인사 사령부	
캠프 책슨:	
하사관교육소	
캠프 레드 클라우드:	
제8 긴급 병기파견단	
적십자	
캠프 마켓:	
제74 경비대	
군산 공군 기지:	
제78 병기파견단	
용산:	
주한 무기지원파견단 사령관	
무기소대 지휘관과 핵지원조 지휘관을 포함한 지원참모	

자료: WSD-K, *Telephone Directory*, 1988; 미 정보자유법에 의해 공개됨.

<그림 7-3> 주한 무기지원파견단의 조직표



자료: *US Army Weapons Support Detachment-Korea, Organizational Chart, 1988*, p.2; 미 정보자유법에 의해 공개됨.

(2) 최근임무

주한 무기지원파견단의 임무는 최소한 두 개의 주한미군·한국전쟁 계획과 관련이 있다. 이것들은 최고비밀에 속하는 주한미군/미 8군 작전계획 5072호의 부록 C와 미 8군 비밀 작전계획 5002호에 약술되어 있다.⁵⁹

지금까지의 비밀 핵작전 표준운용절차에 의하면, 주한 무기지원파견단은 미군이 보관하고 있는 핵무기가 항상 유지되고 그것이 확인된 권위에 의해 서만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책임을 진다.⁶⁰ 주한 무기지원파견단의 정보/작전 참모는 사령관에게 그 부대의 '핵자산'을 사용하는 최선의 방법을 권고하고, 외부 지원부대 정보/작전참모와 함께 부대의 작전을 조정한다.⁶¹

전시에는 선발대가 무기를 운반하는 호송대에 앞서 예상위치에 도착하고, 그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안전청소를 실시한다.⁶² 이 위치에 도착하자마자, 그 부대는 핵무기와 부속품들이 발사되거나 이송될 때까지 저장되어 있을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핵작전 표준운용절차는 "야전저장소의 크기는 지형, 저장무기의 수, 그리고 필요로 하는 안전지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것은 작전상 필요한 최소크기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⁶³

야전기지로 통하는 유일한 입구/출구 지점에서 두 명의 입구통제 보초가 지속적으로 접근을 통제하고 다른 보초들은 그 기지주변을 순찰해야 한다.⁶⁷ 핵으로 무장한 순찰에서는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무기지원파견단의 요원 일지라도 믿지 말아야 한다. 무기지원파견단의 사령관은 헬기나 트럭과 같은 수송차량들에 무기를 싣기 전에 모든 조에 대해 ‘강제암호’를 만든다.

강제암호가 그 조의 보안부대 요원에게 전달될 때, 보초는 그 요원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겨누고 그 요원에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지도록 명령할 것이다. 모든 개인은 그때 바닥에 엎드리도록 명령받을 것이고 그 조의 지휘관은 통지받을 것이다.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개인이 금지구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만약 필요하다면 심각한 폭력의 사용이 포함된다.⁶⁸

미국방부가 핵무기와 부속품들이 ‘국가안보에 필수적(vital)’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 경비병은 이것들에 대한 인가되지 않은 접근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어떠한 무력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그들은 또한 근접지역에 허가받지 않고 나타남으로써 ‘무기의 안전이나 안보’를 위협한 개인이 도주할 수 없도록 하거나 체포하도록 명령받는다.⁶⁹ 그들은 침입자에게 발포하도록 명령받고, 만약 그 침입자가 핵지원조의 요원을 불모로 잡는 경우에는 주한 무기지원파견단의 핵무기 통제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포로가 된 그 미국인에게 발포하도록 명령을 받는다.⁷⁰

만약 공중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면, 그 부대는 “길 밖으로, 가능하면 엄호물 아래로 차량들을 치우도록” 지도받는다. 만약 지상에서 매복을 당한다면 그들은 화기를 되돌려야 한다. 핵작전 표준운용절차는 “살상지역 밖으로 나오도록 시도하라.” “결정적으로 교전하지 말라. 위협을 제압하고 그 지역을 통과하라. 만약 통과가 불가능하면 그때는 그 지역 밖으로 후퇴하라.”고 적고 있다.⁷¹

핵무기를 발포할 시간이 되면 7명의 작전조립조는 행동으로 들어간다. 각 조는 지휘관(leader) 한 명, 조장(chief) 한 명, 조립자 두 명, 무전기사 한 명, 보초 두 명으로 구성된다.⁷²

핵작전 표준운용절차는 “발사에 앞선 운용은 조립조의 차량, 비행기, 남한군이 제공한 텐트에서, 혹은 155mm나 8인치 포탄의 경우에는 곡사포에서

수행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일단 핵무기를 발사하기 위한 기술운용이 시작되면 뇌관은 조립조 조장의 통제를 받는다. 그는 또한 포탄을 포신에 장전하는 것을 감독하고 적절한 추진탄약이 약실에 놓여졌는지를 확인한다. 핵무기가 발사되자마자 그는 주한 무기지원파견단 본부에 핵전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야 한다.⁷³

이 순간—핵공격을 막 시작한—에 조립조의 요원들은 발사자리를 깨끗하게 하고 떠나도록 명령받는다. 예를 들면 일련번호 204인 발사기를 사용한 후에 그들은 비어 있는 휴즈통 안에 자물쇠장치를 집어넣는다. 그리고 휴즈통과 작동허가링크와 같은 잉여물은 그것을 지급한 병기부대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또 다른 핵전쟁에 대비하여 재활용하기 위한 것 같다.⁷⁴

전력혼성

이 모든 조정은 전시에 남한군 포신들을 미군의 포발사 핵포탄과 결합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주한 무기지원파견단의 첫번째 임무는 보통 후방에 있는 핵무기를 전방 야전저장소로, 결국은 포대로 수송하는 것이다.

전시에 미군 핵부대들은 트럭이나 헬기를 이용해 핵무기를 전방저장소 또는 남한군 발사기지로 수송할 것이다. 육상호송이 매복에 취약하다는 것은 앞 장에서 지적하였다. 공중수송도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핵지원조와 그들의 핵무기는 남한군 제1군, 남한군 제3군 또는 연합야전군으로 공중수송될 수 있다.⁷⁵ (후자는 전에 남한군/미군 제1군단으로 알려졌으나 1980년 3월에 연합야전군으로 재명명되었다.)⁷⁶ 공중호송에 대한 핵지원조의 보고서 구성은 “우리는 지도상의 좌표 []로 공중호송을 하여 남한군 포병부대 []와 만나서 발포임무를 수행한다. …표적도달 시간(Time over Target)은 []시이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한다.⁷⁷ 호송대는 지상에서 매복당하거나 공격받거나 폭격당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마도 예정시간 전에는 착륙하지 않을 것이다.⁷⁸

착륙하기 15분 전에 호송대는 핵지원조의 조장에게 통지하여 그가 무전으로 남한군 포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위 보고서는 “경호헬기는 조장의

인가가 날 때까지 착륙할 수 없다.”고 말한다.⁷⁶

통제의 상실

절차상 이 단계는 매우 실패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첫째, 핵지원조 조장이 남한군 포대와 접촉하지 못할 수 있다. 남한군 야전포대의 무전기 회로가 종종 과부하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중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파송신에 대한 거리상 또는 지형상의 장애로 미군부대는 훈련시에 그들과 통신하는 것이 거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발견하였다.⁷⁷

암호도 과괴될 수 있다. 그 예로 1988년에 미군은 팀 스파리트 훈련중에 남한군과의 정확한 암호와 응답암호 때문에 하루동안 혼란을 겪었다.⁷⁸ 공중 전이 한창일 때 핵을 실은 헬기가 접촉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면서 선회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접촉이 이루어질 것을 상정하여, 보고서는 ‘임무기’(즉 핵으로 무장한 헬기)가 착륙지점에서부터 약 2~4km의 ‘궤도’를 그리며 비행하리라고 상상된다. 그 동안 경호기는 발사지점에 있는 착륙장소로 날아갈 것이다. 다음은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무기지원조 조장은 발사지점의 안전성과 남한군 부대의 정체를 확인한다. 경호기의 기장은 필요하다면 재빨리 이륙할 수 있게 충분한 회전속도를 유지할 것이다.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조장이 기장에게 착륙지점이 안전하다고 말하면 기장은 임무기를 호출할 것이다. 임무기 기장은 그 암호인 []을 송신하고 경호기 기장은 []으로 응답할 것이다. 적합한 응답을 받고 나아갈 결심을 하고 난 다음 임무기는 착륙지점으로 들어갈 것이다. 경호기는 임무기에게 착륙지점을 비워주기 위해 적절한 곳으로 다시 위치를 옮겨야 할 것이다. 핵지원조는 남한군 포병부대나 조장을 호출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있는 무전기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임무가 실패할 만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임무기는 즉시 []으로 갈 것이다.⁷⁹

이 보고서에서 핵지원조 지휘관이 헬기 무전기를 통해 포대와 교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명백히 속임수의 가능성이 있다. 북한군이 남한군 포병부대로 꾸밀 수 있다. 그들이 남한군 포병부대를 공격하여 전멸시킬 수도 있고, 미군부대를 속이는 데 협력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다. 혹은 남한군 포병부대가 미군부대를 속여서 착륙하게 하여 핵무기를 탈취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의사소통과 인식에 대한 문화교류상의 어려움에 의해 증가된다.

엔진결함, 공격으로부터의 피해 또는 탑승한 핵지원조 요원이 비행중 받은 교신을 해독해야 하는 이유 때문에 핵을 실은 헬기가 발사지점으로 가는 도중에서 착륙할 수도 있다.⁸⁰ 또다시 공중수송은 통제의 상실에 극도로 취약해진다.

지상을 통해 도착하건 공중을 통해 도착하건간에, 핵지원조은 야전저장소나 포대발사 기지에 대한 안전을 제공해주는 남한 보병부대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핵작전 표준운용절차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무기지원파견단의 선임장교 또는 야전저장소의 하사관은 원활한 핵반응군 작전을 보장할 임무를 떤 남한군 장교와 현지조정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핵무기 병참조와 각 야전군 연락팀은 남한군 요원의 참석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⁸¹

야전저장소에서 남한군 보병은 그 지역을 확보하고 침입자를 처리할 ‘반응군’ 역할을 하기 위하여 최소한 일 개 소대를 배치할 것이다. 만약 미군현병이 있다면 그들이 반응군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때 남한군은 그 장소에 대한 보병방어를 제공할 것이다.

만약 개별 핵지원조들이 남한군 발사기지들에 배치된다면, 그 경우에는 각각의 남한군 포병부대가 반응군을 배치할 것이다. 반응군은 보통 핵임무에 사용되지 않는 교대 곡사포 요원들로 구성될 것이다.⁸²

정치적·법적 측면

이러한 지원역할에도 불구하고, 남한정부는 남한에 배치되어 있거나 남한

에서 사용할 의도가 있는 핵무기의 숫자, 유형, 위치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자격이 없다. 더구나 미군장교에 따르면 남한을 위한 한미연합 핵전쟁계획도 없다. 그러한 평시 역할분담을 위해서는 기밀로 분류된 미군의 핵 기술, 절차, 정보의 이전이 필요할 것이다.⁸³

미군은 남한군에게 평시 핵지원 활동에 종사하는 남한요원들의 신뢰도를 보증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요청하지 않았다. 남한군도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수행하지 않았다.⁸⁴ 사실 그러한 권리양도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주한미군은 협력 프로그램(program of cooperation: POC)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는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없을 것이다.⁸⁵

요원신뢰도 프로그램과 협력 프로그램

요원신뢰도 프로그램(Personnel reliability program: PRPs)은 미국의 각군과 동맹국에 의해 관리된다. 동맹 프로그램은 동맹국의 각군과 상호작용하는 미국의 각군에 의해 수립된다. 평시와 전시의 이 활동에 대한 법적인 토대는 1946년에 제정되어 1958년에 수정된 원자력법하에서 요구되는 쌍무적 협력 프로그램이다(<표 7-3> 참조).

협력 프로그램(POCs)은 벨기에, 캐나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영국 그리고 서독과는 존재하지만 남한과는 없다.⁸⁶ 1974년까지 서독은 미국의 핵포에 대해 남한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다. 즉 25년 동안 아무런 법적 토대 없이 핵포가 서독에 존재했던 것이다.⁸⁷ 이러한 법적 결함이 그 경우에 어떻게 정정되었는지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기 이전에도 국무부 관리들은 남한군이 핵작전에 관여하는 정도 때문에 골치를 앓아왔다. 한 전직관리는 최근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협력 프로그램이란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로 인해 현지정부가 핵무기의 숫자, 유형, 위치를 알 수 있게 된다. 남한에는 그것이 없다. 그러나 그뿐이다. 남

<표 7-3> 미국-동맹국 협력 프로그램

무기	국 가							
	벨기에	캐나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영국	서독
AAA	N	Y	N	N	N	N	N	N
SAM	Y	N	Y	Y	Y	N	N	Y
AFAP	Y	N	Y	Y	Y	Y	Y	Y
SAM-SR	Y	N	Y	Y	Y	Y	Y	Y
MRBM	N	N	N	N	N	N	N	Y
ASW	N	N	N	Y	-	N	Y	N
GB	Y	N	Y	Y	-	Y	-	Y

자료: D. Cotter, "Peacetime Operations, Safety and Security," in A. Carter, et al., *Managing Nuclear Operations*(Washington, D.C.: Brookings, 1987), p. 42.

NOTE: AAM=공대공 미사일, AFAP=포발사 핵포탄, ASW=대잠수함전 무기, GB=중력폭탄, MRBM=중거리 탄도미사일(퍼싱 II), SAM=지대공 미사일, SAM-SR=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한군이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가를 알았을 때 나는 정말 굉장히 놀랐다. 나는 협력 프로그램 없이는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군법무관들은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은 억지를 부렸던 것 같다. 남한군이 분대단위까지 핵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충격이 나에게는 아직도 생생하다. 육군은 남한군이 핵무기를 사용할 권한을 갖게 된다면 아무도 협력 프로그램을 들먹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핵전이 일어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들이 정당할지 모른다.⁸⁸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진짜 문제는 데프콘(defcon: defense condition; 국방긴급체계)이 전쟁계획에 따라 핵무기를 분산배치하는 정도에 이르게 되는 위기의 순간에 있다. 그 때는 합법성이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그 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법을 어겼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⁸⁹ (이는 1976년 8월 데프콘 1호 발령 때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4장과 8장을 참조.)

현재의 계획은 남한군이 전시에 전방저장소에서 경호기능을 수행하고, 발사기지는 '통제된 핵임무'의 범주가 되리라고 예상된다.⁹⁰

그러한 임무에 종사하는 요원은 핵무기에 대한 '2인' 통제개념하에 핵무

기에 접근할 수 있으나 그것에 대한 기술적 작전을 수행할 수는 없다. 확실히, 핵지원조는 항상 2인 규칙에 따라 미군이 핵무기를 보관하도록 명령한다.⁹¹ 그러나 이 구별은 치열한 전투중에 핵지원조 부대들이 남한의 포병기지에 도착하여 포대의 내부와 주변에서의 현지안전을 남한군들에게 의존할 때에는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미국의 법에 의하면, 의회의 심사를 받은 협력 프로그램/요원신뢰도 프로그램 협정을 통해 다루어져야만 하는 우발사건 간단히 말하면, 육군은 전시에 범을 어길 것을 평시에 계획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는 셈이다. 이 논리는 문제의 여지가 많다. 육군은 이 논리를 지나치게 세분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논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까지, 군부의 법률적 책임과 비밀주의는 이런 행동들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속여 넘겨왔다.⁹² 실제로 이미 1969년에 당시 의회 조사관이었던 펜커스(Walter Pincus)는 모조 핵무기를 이용한 핵동훈련을 발견했다. 그는 후에 “거기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것은 원자력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었다.”고 발표했다.⁹³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핵기술과 정보를 미국의 동맹국들과 공유하는 것에 대한 의회의 통제와 핵전략과 핵화산 정책에 대한 의회의 통제—와 씨름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육군이 이 문제를 영원히 피할 수는 없다. 물론 그 문제를 처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군사적으로 무가치한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군사논리가 먼저 방해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문제는 머지않아 동맹관계를 깨뜨릴 것이다(13장 참조).

남한군은 자국군대에 대한 완전한 작전통제권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을 이미 표현했다. 이러한 요구는 불가피하게 핵협의와 핵참여를 한층 격상시켜 달라는 요구를 이끌 것이고, 결국 남한과의 협력 프로그램에 관해 의회가 동의해줄 것을 요청하게 되겠지만, 현재 의회에 만연한 전장핵무기에 관한 회의주의와 남한정치에서 군의 역할에 대한 불신에 비추어볼 때 그런 전망은 없을 것 같다.

따라서 남한군부의 민족주의자들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좀 더 원하는 것을 다음 중에서 선택해야만 할 것이다: 현재의 배치하에서 미국의 확대된 핵역지, 또는 그들 자신의 군대에 대한 완전한 작전통제권. 미 의회가 남한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비준할 가능성이 낮을뿐더러, 미군도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있다. 왜냐하면 협력 프로그램은 남한이 핵문제에 대해 더 많은 발언권을 갖게 하고 군대 대 군대의 관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 장군이 말하듯이 “핵훈련 및 이색적 무기(exotic weapons)에 대한 남한군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중요한 심리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남한군은 가장 우수한 요원을 이를 부대에 배치하고 있다. 우리가 사소한 불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즉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⁹⁴ 그러한 진술에 내포된 협소한 군사적 이해의 결합이 남한 핵문제의 핵심을 드러낸다. 남한에서의 핵 딜레마 중 확산측면에 대해서는 그것이 주로 책임을 져야 한다(14장). 미군과 남한군의 핵공격 가능전력의 혼합은 미 육군이 남한에서 지니고 있는 영역 안에서 미 육군을 굳게 지켜준다.

그러나 최근까지 남한군과 미군의 핵전투력의 통합은 대부분 일반인에게 숨겨져왔다. 그러나 현재 남한에서의 적극적인 반핵 목소리는 이러한 제도적인 결합에 도전하기 시작했다(16장). 따라서 이 장에서 기술한 군사적 상호관계망이 정치적으로 스스로의 토대를 잠식하여 결과적으로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다.

제8장 평양의 시각

남한에서 미군의 전진배치가 도발적인 상태인가 아닌가 여부는
미래에도 관계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1975년 미 육군 보고서¹

정의에 따르면 핵위협은 북한에 대한 끊임없는 심리적 공격이 된다. 북한은 약소국 중에서 독특한 나라이다. 자신이 상쇄 핵보복 역량을 지니지도 않았고 자국영토에 동맹국이 핵을 배치하지도 않았는데 40년간—실제적으로 북한이 독립하여 존재한 전 기간동안—끊임없이 핵위협에 직면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² 비핵국가에 대한 핵강제 연구와 명백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겪은 경험은 사실상 무시되어왔다.³

이 장에서는 1953년 이후 네 번의 국면에서 이루어진 북한에 대한 핵위협의 결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알려진 내용을 밝힌다. 이 장은 결과를 세 범주—북한의 공식적 수사어(rhetoric), 미국과 남한에 대한 도발행위 그리고 북한의 군사적인 반응—로 나누어 기술한다.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면 연구가 어쩔수없이 다소 사색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서 지속성과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충분한 정보가 이용되었다. 더구나 북한의 반응이 한반도에서 미국 핵전략—미 육군의 조직적인 이해에 따라 핵전투에서 핵위협으로의 변화가 저지되는 전략—의 모순적인 성격에 일치함을 살펴볼 수 있다.

전략적 프리즘

북한 지도자들은 북한의 안보환경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여 전달하는 제도

와 절차로 구성된 전략적 프리즘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데, 이것은 지도자 특히 김일성의 개인적인 기벽과 심리적인 성향에 따라 조정된다.⁴

일정한 주제들이 북한 지도자의 수사어와 행동에서 반복된다. 그들은 항상 민족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나타낸다. 그들은 최대한의 자립을 위해 애를 쓴다. 그들은 한국전쟁 기간과 그 후 계속된 자신들의 긴장된 동맹관계에 비추어 외부동맹에 의해 확대된 억제의 신뢰도를 깎아내린다.⁵

그들은 남한이 국내의 사회적·정치적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내적 탄력성을 지니고 있음을 일관되게 과소평가하고, 그에 따라 남한의 혁명운동에 대한 북한의 잠재적 공헌을 과대평가한다. 그들은 또한 남한의 미국으로부터의 정치적 자율성을 과소평가하고 서울에서의 사건들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한다.⁶

그들은 미국이 한반도의 지속적인 분단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의 전세계적인 개입에 대한 기나긴 목록—미국의 ‘국가이익’에 명백히 어긋나는 불합리한 연루를 포함—을 파악하고 있다. 이런 행동은 기회가 생기면 아시아에서 미국이 주저없이 파괴할 첫번째 공격대상이 북한일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을 확고히 해주고 있다.

반제국주의 운동의 선두에 있다는 북한의 자기 이미지는 김일성주의—북한을 문명세계의 중심에 두는 이데올로기—와 공존한다.⁷ 외부의 위협에 대한 평양의 수사어는 공포, 허세, 분노와 주저가 혼합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외국 지도자의 도덕적 특성과 개인적 지성에 대한 비난조로 엮어졌다.

이러한 방침이 변화하지 않은 반면, 북한의 정치노선과 군사전략은 한국전쟁 이후로 뚜렷한 국면을 통해 발달되어왔다. 따라서 북한의 수사어와 행태는 국내적이든 국제적이든 그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보아야 한다. 이 장은 한국전쟁이 종결된 시기부터 시작되는 4단계의 기간중에 행해진 미국의 핵위협에 대해 수사어, 행태, 군사적 행동에서의 북한의 반응을 기술한다.

제1국면: 1953~62

1960년까지 북한인들은 그들의 사회를 재건하는 데 몰두하였다. 북한식의 사회주의를 공고히 하는 것 외에, 북한은 국제적인 협상과 군사력 강축을 통해 한반도를 통일하자고 제안하는 평화공세를 펼쳤다. 1960년에 김일성은 연방제 또는 1국가 2정부 개념을 명확히 표현하였고, 이는 통일에 대한 북한 즉 입장의 근간이 되었다.⁸

이 첫번째 국면에서 핵문제는 북한의 수사어에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새로운 전쟁이 임박했다는 위협에 직면했음을 북한이 믿지 않았다는 것은 1958년 중국군의 철수와 북한 지상군의 대규모 감축에 의해 확실히 알 수 있다. 이 해에 미국은 공개적으로 남한에 최초로 핵무기를 배치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중에 이루어진 핵위협에 대한 북한의 공포(2장 참조)를 염두에 두고 볼 때, 1959년 4월 7일 미국이 남한을 핵무기와 미사일 기지로 전환시킴으로써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북한이 심하게 불만을 표시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⁹

제2국면: 1962~72

강경파 장군인 박정희가 서울에서 권력을 장악했던 1961년 5월에 상대적인 고요함은 끝이 났다.¹⁰ 그 쿠데타가 발생한 지 두 달도 되기 전에 북한은 중국·소련과 별개의 방위조약에 서명했는데, 이 두 나라는 노골적인 대치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이는 평양에게는 또 다른 불길한 추세였다.¹¹ 더구나 평양은 소련이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미국에 항복했다고 믿었는데, 이 사건은 북한에게 강대국에 대한 의존의 위험성에 대해 객관적인 교훈을 주었다.¹²

1962년에 김일성은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군출신 간부들에게 일반인민들을 무장시키도록 요청하는 새로운 자립 군사정책을 발표하였다. 그 후 그들은 국산무기로 무장하였다.

한국전쟁중의 핵위협에 대한 북한인들의 기억은 시들지 않았다. 핵문제는 1963년 김일성이 선언한 새로운 군사노선에서 명백히 나타났다.

우리는 우리의 전국토를 요새화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핵무기를 가진 적을 패배시킬 수 있다. …우리는 지하터널을 파야 한다. 우리는 전선만이 아니라 대공방어망, 해안방어망과 함께 제2, 제3방어선도 요새화해야 한다. 우리는 많은 공장을 지하에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전국토를 요새화하였을 때, 아무리 강한 적도 심지어 미국조차도 우리를 침략할 수 없을 것이다.¹³

이에 따라 북한군은 핵공격에 대해 심각하게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방정보국에 따르면 그들은 한국전쟁 때 경험했던 대응방식을 모델로 하였다. 한국전쟁 중 북한의 교리는 야전기지에서 핵공격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포좌와 교통호를 이용한다는 것이었다.¹⁴ 전쟁 이후 북한은 견고한 지하요새를 구축함으로써 핵폭발과 방사능에 대비한다는 기본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방정보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재 요새와 장애물들이 광범위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것은 20년에 걸친 치밀한 계획과 강고한 건설작업의 결과이다. 강화콘크리트, 강철, 통나무로 건설된 요새 안에는 자동화기, 탱크, 포병진지, 탄약 저장실, 요원숙소가 있다. … [DMZ의 북쪽 끝으로부터 200~1,000m 지점에 있는 전방 보병부대용 터널은 강철문으로 닫혀 있다.] 각 문은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을 화생방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무 패킹으로 밀폐되어 있다.¹⁵

그러나 핵위협이 북한에게 전체 전력구조를 바꾸도록 강제한 것 같지는 않다. 국방정보국은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핵전투가 북한군에게 보병의 중요성을 감소시키지는 않았다. 한국전쟁 아래 보병부대들은 현대화되어 기동력, 통신, 화력 등이 증가했지만 핵전투에 대비한 근본적인 변화는 도입되지 않았다.¹⁶

비록 북한이 핵공격에 대비해 전방전력을 요새화하기는 했지만, 북한이 그들의 후방지역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에 대비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는 거의 없다. 그들은 사람들이 핵위협에 직면한 나라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만큼 많은 이동 핵방호 지휘소를 구축하지 못했다.

미군 정보장교에 따르면, 그들은 항공기를 보관할 수 있는 지하기지와 같은 시설들에 핵오염 제거장비를 설치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정후는 북한 항공기가 지하에 있을 때 녹이 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추측되고 있는데, 이는 공기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가리킨다. 공기조절과 압력관리는 잠재적인 핵공격에 응수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되며, 핵위협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것이다.

대신에 그들은 그들의 한국전쟁 경험[2장에서 설명된]에 의존하여, 전장에 집중해온 것 같다. 그래서 북한군은 방어적인 핵전·생물학전·화학전 훈련을 한다. 미국방정보국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전시에, 북한군은 오염을 탐지하고 핵·생물학적·화학적 공격으로 위험에 빠진 부대에 즉각적으로 경고하기 위해 상시 정찰활동을 실시할 것이다. 또 그러한 공격의 영향을 줄이거나 중화하기 위해 대피호를 구축하고 방독면·보호의를 지급할 것이다. 비재래식 무기로부터 부대를 보호하기 위해 핵방호된 보병, 기갑부대, 포병진지가 정교하게 고안되었다.¹⁷

미국방정보국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부대가 방어상황에 있을 때 핵전의 위협을 받으면, 터널·지하요새·참호 또는 지상의 낮은 지대의 지형을 이용하여 숨도록 명령을 받는다. 평야에서 당할 때에는, 핵폭발 지점으로부터 고개를 돌려 땅에 엎드려 약 3초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일어나서 방독면을 쓰고 평소의 방어임무로 돌아간다.¹⁸

북한교리에는 성급한 지역오염 제거를 위한 애처로운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소단위 부대는 혼들거나 먼지를 텔거나 풀이나 잔가지 등으로 북북 문지르거나 기타 응급조치를 함으로써 지시에 따를 수 있고, 그 결과 지체없이 전투임무를 지속할 수 있다.”¹⁹ 공격작전중에 핵공격이 임박했다는 경고를 받으면 북한군은 방독면 착용명령을 받은 후 공격을 계속한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남한에 대항하기 위하여 격렬한 파업운동과 계릴라 침투에 의존하였고, 이는 1968년 1월 박정희 대통령 암살시도로 절정에 이르렀다. 김일성은 1964년 이후 박의 통치에 대한 학생들의 반항과

광범위한 반대 때문에 자신이 남한이라는 성냥통에 불을 붙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습격과 더불어, 북한은 미국에 대해 두 번에 걸친 주요공격을 시작하였다. 이 두 사건은 특히 북한에 대한 핵위협의 영향분석과 관련된다.

첫번째 공격은 북한이 공해를 항행하던 미국의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를 나포했던 1968년 1월에 일어났다. 명백히 미국의 군사적 위협은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북한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선박을 끌어주도록 북한을 강제하기 위해서 존슨 행정부는 세 척의 항공모함 선단에게 북한연안으로 항해하도록 명령하였고 전략폭격기를 서태평양에 배치하였다.²⁰

이 핵공격력의 시위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참담하게 실패하였다. 평양은 배를 계속 억류했고 1년 후에야 송무원을 풀어주었다. 이 일화는 간접적인 핵위협이 평양을 미국의 뜻에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견해와 직접적으로 모순된다.

이 공격은 무엇을 뜻하는가? 첫째, 초기의 강대국 3각체제에서 미국의 호의를 얻기 위해 벌써부터 경쟁하고 있던 자기의 동맹국들을 당황하게 하기 위해 북한이 고의적으로 시작했을 수 있다. 둘째, 북한은 일본이 군사강국으로 재등장한 것과 1965년에 미국이 한일 관계정상화를 시도하여 성공을 거둔 것에 대해 경악하였다.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함으로써 제3자의 행동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고자 했다면 그 때 미군은 남한의 임박한 침략을 억제하느니 차라리 북한에게 기회를 주었을지도 모른다. 셋째, 그 사건이 박을 암살하려는 시도와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을 지키려는 미국의 결심을 시험했을 수도 있다.

북한이 미국의 비무장 EC-121 정찰기 한 대를 격추시킨 후인 다음해 4월에 그와 유사한 미 전력이 또다시 집결하였다. 북한은 그 공격을 3월 중순에 시작된 미국의 포커스 레티나 훈련과 연결시켰다. 이 훈련은 미 대륙으로부터 남한까지 미 공정대원을 공수하는 최초의 훈련이었다.²¹

이번 경우에는, 존슨 행정부가 북한도시들에 대한 전략폭격을 포함한 일련의 보복안들에 대해 호의를 보냈다. 미국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인 키신저는 그 계획된 보복이 전쟁과 한반도에서의 전술핵무기 사용으로 이끌 수 있다는 충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존슨 대통령은 북한을 무릎꿇게

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조치든 취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보복준비를 갖춘 또 다른 거대한 전함을 배치하도록 해군에게 명령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언론과 의회는 낙순의 자제력을 칭찬함으로써, 그가 더 심한 행동을 취하지 못하게 하였다.²² 핵무기에 대한 모든 공갈은 효력이 없었고 어떠한 강제도 시도되거나 달성되지 않았다.

1976년의 말다툼(아래를 참조)처럼, 북한군은 불운한 EC-121기를 격추시켰던 비행기에 대한 통제를 상실했던 것이다.²³ 북한이 남한이나 심지어는 미 정찰기조차도 공격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 억제가 이 경우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 그러나 평양에서 그 사건은 핵무기로 북한을 공격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좌절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²⁴

전체적으로, 이 두 번의 대결은 한반도 밖에서 온 전략적 핵전력이 미군에 대한 북한의 공격성향과 무관하거나 또는 북한이 공격을 시작하고 그 자신의 목적을 위해 위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거나 강제하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이 때 남한을 공격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대한 일반적 핵억제의 효과는 또 다른 문제이다. 1966년 이후 남한에 대한 북한의 비정규전 공격은 핵무기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재래식 수단으로 공격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만은 아니지만, 침략적 목적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된다. 습격이 고의적이었고 지속되었기 때문에 핵위협이 그들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위협이 남한에 대한 재래식 공격을 억제하였는가? 북한이 비정규전에 의존한다는 것은 재래식 전력으로 공격하려는 북한의 나머지 의도가 이미 남한의 재래식 방어 보복능력에 의해 차단되어버렸음을 나타낸다. 도착한 순간부터 핵무기는 억제용으로 불필요한 것이었다.

제3국면: 1972~78

저수준의 공세는 북한이 대화와 비난공격이라는 양면정책으로 전환했던 1972년에 소멸되었다. 김일성과 박정희는 접촉하여, 한반도 통일에 관해 놀라운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동시에 북한은 주요무기의 증강을 개시하였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비무장지대 아래에 침투용 땅굴을 팠다고 한다.

1972년에서 1978년 사이에 저수준의 공세로부터 군비증강으로 정책이 전환된 것에 대해 수많은 설명—모두 추론적이지만—이 있었다. 가장 명백한 요인은 북한의 혁명노선이 남한인민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게릴라와 간첩은 체계적으로 소탕되었고 무자비하게 진압되었으며, 남한정권에게 많은 반대자들을 탄압할 구실을 마련해주었다.

둘째, 닉슨이 제7보병사단 철수에 대한 보상으로 남한에 제공하기로 했던 40억 달러의 군사원조 꾸러미들이 오랫동안 지체되다가 이 때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이 원조는 북한에게는 나쁜 징조인 남한 군수산업과 재무장 프로그램의 수립을 예상한 것이었다. 더구나 1972~75년에 미군의 전면철수 가능성은 여전히 진행표상에서만 존재하고 있었다. 비록 평양이 남한을 미국의 꼭두각시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점차 강력해지는 남한군에 대한 미국의 구속력이 철군에 따라 결국 상실될 것이라는 점이 북한 지도자들의 마음을 산란하게 했음에 틀림없다. 박정희가 1972년의 화해를 남한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구실로 이용했던 것에 대해 이미 화를 내었던 북한은 1975년에 남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발견되자 더욱더 놀랐음을 틀림없다.

북한이 1972~78년에 무장을 계속하게 된 세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평양은 남한의 군사적 궤도가 박정희를 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 ‘풀어주려는’ 미국의 음모—곧 대리 를백정책—라고 간주했을 수 있다.

자신들의 의도가 공격이 아니라 방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확실히 알고 있으리라고 믿는 많은 미국인들에게는 북한이 한미 연합공격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보기에는 미국과 남한이 지난 의도의 온화한 성격이 그다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세계여론과 동떨어져서 중앙집권의 변덕과 확장론적 정책형성,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정치력의 변덕에 지배당하는 평양은 아마도 세계를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보지 않는 유일한 곳일 것이다.

사실 북한의 두려움은 매우 타당할 수 있다.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차지으로 그들의 지속적인 남한군 지휘가 북한에 대한 남한군의 모험 가능성을 견제하고 있다고 정당화한다. 그들은 미국의 지휘가 예를 들어 1969, 1970년

과 1983년에 남한군을 억제했다고 말한다. 실제로 미 육군에 대한 한 보고서는 이를 확실하게 진술한다.

유엔군 총사령관이 행하는 주요역할 중의 하나는 남한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남한 지도자들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미 전투지상군이 존재하고 미국인 사령관이 명백히 지휘·결정역할을 하는 현재상황을 대한민국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²⁵

만약 이러한 미군의 이기적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남한의 공격 가능성이 관계 염려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은 박정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내의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전쟁을 감행할지도 모른다는, 근거는 없지만 믿을 만한 두려움을 품어왔을 수도 있다.²⁶

북한도 평양과 비무장지대 사이의 영토를 방어해야만 한다. 정권의 정통성을 조국수호에 걸고 있는 북한정권이 영토의 일부분이라도 남한에게 빼앗긴다면 이것은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 문제는 학구적인 것이 아니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말했듯이, “군사분계선에 불과한 것에 대해 어떠한 신경함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치적 국경이 아니다.”²⁷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이 한반도통일 야심을 품고 있지 않다고 하는 호의적인 보장이 북한의 두려움을 감소시키기는커녕 강화시키고 있다. 미 외교관들은 정치가들이 전쟁계획에서 요구된 바와 같은 평양공격에 대한 청신호를 결코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대신 그들은 군부가 비무장지대를 평양과의 중간지점으로 옮기는 것을 허용할 뿐이라고 공언한다.²⁸ 두 명의 미 고위 전략가에 따르면, 이 전략은 “보다 안정된 영토조정을 보장할 수 있는 군사적 이점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다—그것은 비무장지대를 평양에 더 가깝게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²⁹ 이러한 종류의 노골적인 억측이 남한에 대해 미국의 의도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확신시켜줄 것 같지는 않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미국이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을 수 있다. 1972년 이후 미국은 더 이상 인도차이나에 휩쓸리지 않았다. 철수한 미군은

북한에게 더 커다란 잠재적 위협을 제기하였다. 더구나 미 지도자들은 한반도에서의 핵전략의 작전적인 측면을 재검토·재조직하면서, 한반도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더 커다란 관심을 쏟고 있었다. 북한의 시각으로 볼 때, 이런 행동은 미국이 비틀거리는 북한에 대해 재래식 공격을 감행한 후에 승리를 얻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었다.³⁰

이 모든 이유 때문에 북한은 1970년대 내내 자체무장을 계속하였다. 1974년 10월 25일 제355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은 핵위협에 대한 지속적인 민감성을 드러냈다. 그들은 미국이 핵폭탄과 핵탄두를 남한에 도입했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또한 1974년 10월 4일 미 전함 미드웨이호의 부산방문을 비난하고 이것이 핵탄두를 운반했다고 주장하였다.

그 해 12월 20일 북한은 이 주장을 반복하였다. 이 때 북한은 유엔군 사령부가 군사분계선에 가까운 전방지역에 핵무기를 배치했다고 비난하고, 이 무기들을 철수시키라고 요구하였다.³¹ 그러나 이 두 사건에서는 이후의 반핵선언에서 나타나는 분노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북한은 임박한 핵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했다기보다는 워싱턴소재 사설 국방정보본부(Center for Defense Information)가 발표한 극동에 있는 핵무기에 관한 정보를 이용했던 것 같다.

그러나 1975년에 북한은 또다시 명백한 미 핵위협의 표적이 되었다(제4장). 이러한 군사행동에 대응하여, 북한의 선전단체는 1976년 7월 20일 핵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사실을 왜곡하여 인도차이나에서의 자신들의 패배를 재래식 무기전쟁에 마지못해 개입한 탓으로 돌린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주저하지 않고 남한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한에 핵무기들을 도입하여 군사분계선 근처에 배치시켜왔다. 그들은 또한 소백산 지역을 포함하여 남한 여러 지역에 핵기지를 건설하고 있다.³²

같은 달에, 김일성은 핵위협이 순전히 허세라며 경시하였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아군과 적군이 뒤엉켜 싸우는 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겠는가? 적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 자신도 죽게 될 것이다.”³³

그 해 내내 북한언론은 미국과 남한측 ‘추종자’에 대한 많은 수사어를 실었지만 핵무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8월 도끼사건

포드 행정부는 1975~76년에 북한에 대해 다양한 핵위협을 하였다(4장 참조). 이 위협들은 1976년 8월 판문점에서 있었던 공격을 막지 못했다. 8월 18일 비무장지대에서 포플러 나뭇가지를 치고 있던 두 명의 미군이 북한 공격자들이 휴드르는 도끼자루에 맞아 죽었다. 미국은 또다시 동해로 대규모 해군 핵전력을 동원하고 그 사건에 대해 북한이 사과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핵위협에 의존하였다(4장 참조). 주한미군은 평시상태와 전시경보의 중간인 국방 긴급체제 3호를 발령했고, 이것은 9월 8일까지 계속되었다.³⁴ B-52 폭격기, F-111, F-4 제트기가 남한으로 보내졌을 뿐만 아니라, 1만2천 명의 지상군(오키나와 주둔 해병대 1천8백 명이 포함)이 남한으로 출동명령을 받았다.³⁵ 8월 21일, 북한에 대한 사전통고 없이 미군과 남한군으로 이루어진 팀이 공중에 정류한 무장헬기, 북한의 시계내를 선회하는 전략·전술폭격기의 호위 속에, 300명의 전투지상군으로 이루어진 신속 반응군의 지원을 받으며, 판문점에 있는 공동경비 구역으로 들어갔다. 문제의 포플러 나무를 자른 후에 그들은 ‘폴 번연 작전’(Operation Paul Bunyan)이 종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³⁶

1968년과는 달리 이 시도는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김일성은 그 사건에 대해 간접적인 유감을 표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정은 그의 체면을 많이 깎아내렸고 미군은 그것을 미국의 ‘승리’로 해석하게 되었다.³⁷

그 때 미군장교들은 그 공격은 “우리들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기만하기 위해 그들의 선전노력에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는 사건”을 찾던 평양측에 의해 미리 계획된 정치적 쳐략이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명제에 대한 증거로써, 그들은 그 달초에 시작된 북한의 반미 선전운동을 인용하였다.³⁸ 격노한 의원들조차도 이 명제를 믿기가 어려워, 행정부 관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 도시 중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왔는데, 그들이 전적으로 무력에 호소하면서 그것을 즐길 수 있겠는가?”³⁹

실제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의도를 품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왜 너의 적을 죽이는가?). 그 도발은 북한이 통제력을 상실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의 긴장결과였을 가능성성이 더 크다. 2월(8월 위기시 남한에 재소환)에 핵 공격 가능한 F-111 폭격기가 최초로 아이다호로부터 오산 공군기지를 방문 하러 왔고 6월에 팀 스퍼리트 훈련이 시작되었는데—이 두 사건은 북한을 위협했고 비무장지대를 따라 긴장을 고조시켰다—그 도발은 그 후에 발생하였다.⁴⁰

비록 미국의 설명이 이 사건에서 미국의 결점을 열심히 부정한다 해도, 미군장교들은 가지치기에 관련된 병사들이 정상적인 협의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말로 중오감을 고조시켜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인정한다.⁴¹ 몇몇이 그 폭력을 신중하게 미리 계획된 행동으로 묘사할지라도, 평양이 북한 경비병에게 포틀러 나무를 자르는 미군들을 공격해서 죽이라고 명령내렸을 증거는 오직 상황증거(즉각적인 라디오 선전방송)만이 있을 뿐이다.

사실 사용된 위협은 김일성이 그 사건에 유감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을 미국의 뜻에 따르도록 강제하였다. 그러나 1968, 1969년 사건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의도를 품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만약 이러한 명제가 사실이라면 이 경우에 역제는 실패하지 않았고 단지 무관한 것일 뿐이었다.

아이리니컬하게도 북한에 대한 성공적인 강제는 더 이상의 사건을 막고자 추구된 것이 아니라 포드 대통령을 대권에 도전한 그의 경쟁자들과 비교할 때 강인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추구되었다. 놀랄 것도 없이 남한에 있는 육군은 이 임무를 즐겼다. 미 합참이 스털웰에게 그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묻는 전보를 쳤을 때 그는 그 나무를 잘라버릴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합참은 다시 전보를 보냈다. “만약 북한이 귀관에게 반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장군은 “나는 14개의 포병대대로 하여금 그 나무를 겪누게 하였다. 나는 나무와 그들을 함께 날려버릴 것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⁴²

심각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

았고 혹시 언급할 경우에도 미국공격의 한 예로만 언급하였다. 8·18사건 이후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주요언급은 콜롬보에서 있었던 비동맹회의에서 제안된 (그리고 수용된) 결의안에 나와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더욱 더 많은 병력과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파괴무기를 광범위하게 도입함으로써 남한을 침략을 위한 군사기지 및 핵공격을 위한 기지로 만들고 있다.”⁴³ 북한에 대해 미국이 핵공격을 한다면 사회주의 국가들이 핵으로 보복할 것이라는 언급 역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대신에 북한의 선전기관들은 북한이 ‘인민전쟁’으로 남쪽의 침입을 패배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의 두 가지 측면을 보면, 그 사건이 핵전쟁으로 확전되는 것을 북한이 진실로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그들의 항복선언은 선례가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김일성이 그 위협을 푸에블로호나 EC-121 때의 위기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둘째, 핵문제에 대한 그들의 수사어의 두드러진 침묵은, 그들이 핵무기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그것을 다시 사용하도록 고무시킬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음을 의미한다. 그 사건에 어울리지 않는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본 북한군이 미국 지도자들에게 놀라게 한 것을 사과했을지도 모른다. 결국 도끼자루를 단순하게 B-52 폭격기와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군비증강

이 기간 내내, 북한은 주요 종심방어(defense-in-depth: 상호지원이 가능하도록 편성된 종심진지에서 적의 공격을 분쇄 또는 흡수하는 방어—역주) 역량으로 군사태세를 살찌웠다. 이러한 부대들은 모두 북한 후방지역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미 정보분석가들은 그것들이 공세적 전력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후방부대도 또한 공격적이라고 주장하였다.⁴⁴

1950년 이래 역대 행정부 중에서 카터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즉각적 위협을 가장 적게 가하였다. 그러나 제2보병사단의 출발 때문에 초조해 하는 남한을 달래기 위한 무기이전 및 군사원조 꾸러미는, 남한과의 경제적 경쟁에서 이미 뒤로 처진 평양을 더 놀라게 하였다. 실제로 인권과 철군으로 대한

정책을 시작했던 카터 행정부는 새로운 군사독재자를 받아들이고 이전의 어떤 행정부보다 더 많은 무기를 남한에 보내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⁴⁵

1978년 카터에 의해 채택된 새로운 강경노선의 군사태세는 재빨리 북한의 수사어에 반영되었다. 예를 들면 평양 라디오방송은 1978년 팀 스피리트 훈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팀 스피리트 훈련은) 공화국 북반부를 침략하려는 광란의 전쟁책동이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전면적인 예비전쟁이자 실험전쟁이다. 군대를 동원하고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렌스 미사일의 발사훈련을 수행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음흉한 속셈이 드러났다.⁴⁶

카터 행정부 말기에, 지정학적인 변화는 북한을 고립시켰고 동아시아에서 제기한 미국의 위력에 노출시켰다(11장 참조). 보도된 바와 같이 1978년 이후에 북한이 군대를 전진배치한 것은 이런 발전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인다. 1980년에 북한은 자신이 고립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즉 북으로는 중-소 분쟁의 틈에 끼어 있고, 서쪽으로는 중-미 제휴, 동쪽으로는 일본에 접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백만의 적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북한 대변인은 2월에 이탈리아 사절단에게 “만약 우리가 올바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파멸되거나 열강에게 팔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⁴⁷

제4국면: 1980~89

1981년에 평양에서 발표된 반핵 수사어의 내용과 형태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 3월에 북한 노동당과 일본 사회당은 공동으로 동북아시아를 비핵지대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두 정당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핵무기를 배치하고 핵전쟁 훈련을 실행해왔던 남한, 일본본토, 오키나와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핵전쟁으로 발전될 것이며 국지전으로 한정되지 않고 전세계적인 군사분쟁으로 확대될 것이다.⁴⁸

레이건 행정부 초기에, 핵문제는 반미성명에 중심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레이건 대통령이 남한에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의 불길을 필사적으로 당기려고 하는 전쟁광”이라고 언급하였다.⁴⁹ “레이건은 공격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인류를 핵전쟁의 대학살에 직면하게 할, 위험스러운 핵전쟁 광란자”라고 어떤 기사가 강조하였다.⁵⁰ 그들은 또한 1981년의 한미 팀 스피리트 훈련을 ‘핵전쟁 훈련’이라고 불렸다.⁵¹

1983년 평양의 반핵운동은 최고결정에 다다랐다. 실제로 미국이나 남한의 위협에 대한 모든 기사는, 남한에 배치된 1천 기 이상의 핵무기가 한반도에서의 ‘핵실험 전쟁’을 위한 예행연습 훈련에 종종 참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핵무기를 비난하였다. 5월에 그들은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핵전쟁을 시작하기 위하여 과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미국에게 핵모험은 “오직 그들의 최종적인 파멸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경고하였다.⁵²

1983년 6월 평양 타임즈는 한미일의 전략적 삼각체제를 ‘핵전쟁 동맹’이라고 비난하였다. “불을 가지고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불로 파멸되듯이, 핵무기를 휘두르는 사람은 핵포탄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들은 결론지었다. 이것은 소련과 중국의 핵전력을 간접적으로 암시한 것이다.⁵³

인민전쟁은 더 이상 미 핵공격에 대한 충분한 억제력이 아닌 것 같았다. 이러한 언급이 의존을 암시하고 있듯이 북한 지도자들은 동맹국의 확대된 핵억제에 의지해야 할 만큼 위협을 받고 있다고 분명히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1983년에 북한의 노선 또한 대화하면서 비난하는 것으로부터 말하는 한편으로 폭탄공격하기로 변화하였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 해에 북한요원들이 탕군에서 남한각료들에게 폭탄공격을 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남한 대통령은 겨우 피했다고 한다. 결국 군사적 위협이 이러한 행동을 억제하지 못한 셈이 된다. 정확히 누가 그 폭력을 선동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한측에게는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그 대응으로 군대를 동원하지도 즉각적 억제나 강제를 시도하지도 않았다.

1986년까지 북한의 선전기관들은 남한의 침입보다는 핵전쟁을 주요위협으로 언급하였다. 미국의 ‘핵우산’을 공격하면서 북한은 전세계적 핵전쟁은

한반도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한반도의 북반부뿐만 아니라 그 이웃나라들까지도 핵공격의 표적으로 선택하였다. 그러한 조건 아래서, 만약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은 쉽게 전세계적인 열핵(thermonuclear)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다.”⁵⁴ 미국의 핵억제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중국과 소련이 같은 것으로 보복할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을 확고히 하였다. “핵무기는 오늘날 미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핵전쟁으로 비화된다면,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 남한이 다른 어느 곳보다도 먼저 핵공격을 당하리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다.”⁵⁵ 인민전쟁보다는 동맹국들로부터의 확대된 억제에 의존하기로 한 것은 김일성의 자립 이데올로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이는 북한으로서는 급격한 변화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사어의 변화는 1983년에 평양이 미국의 공격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하고 명백한 증거가 된다.

그들은 또한 반핵선전의 목소리를 높여, 남한을 이용하려는 미국을 “미국에서 멀리 떨어진 한반도땅 위에서 핵전쟁을 점화하려는 핵점화 지휘자”라고 비난하였다.⁵⁶ 10월에 북한과 소련 해군은 동해에서 최초의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였다.

북한은 또한 1986년 6월에 핵문제를 미국과의 대화의제에 집어넣었고,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요구하였다. 9월에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핵무장 해제를 주제로 하여 자신의 후원하에 잇따라 열렸던 국제회의의 제1차회의를 주최하였다.⁵⁷

1987년 말에 이르자 그들은 남한을 ‘미 전략의 제1전선’으로 묘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미 F-16 폭격기의 전투반경이 북한너머까지 뻗치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가 아닌 ‘다른 나라들’을 표적으로 하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이 때 이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은 “핵보복 공격을 낳을 것이고… 아시아와 전세계를 휩쓰는 세계적인 핵대결로 발전될 것”이라고 그들은 선언하였다.⁵⁸

전하는 바에 의하면 북한은 1987년 11월에 김포 국제공항에 폭탄을 장치하였고 다음 달에는 KAL여객기에 폭탄을 장치하였다고 한다. 탕군에서처럼 이러한 행동들은 또다시 미국보다는 남한을 겨냥한 것이었다. 북한에 책임

이 있다고 할 경우에, 북한은 다음 해 6월에 열리는 서울 올림픽을 혼란에 빠뜨릴 작정으로 그랬을지도 모른다. 혹은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에 대규모 군대를 소집할 것이라는 미군의 발표에 대한 대응으로 교차사격을 했을 수도 있다. 또는 북한은 올림픽에 선수를 보내지 말라고 중국과 소련에게 압력을 가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 어느 것이 진실이든간에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들을 억제하지 못했다. 또다시 이른바 억제라는 것은 실패했거나 존재하지 않았고, 미국은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 즉각적 강제나 억제를 추구하지 않았다.

1988년 북한은 미국이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호전적인 남한군과 함께 무모한 음모에 열중하고 있다는 주장을 다시 냈다.⁵⁹ 그들의 전체적인 강조와는 다소 모순되게, 그들은 조선인민들이 “핵폭탄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또한 단언하였다.⁶⁰

1988년에 평양이 반복했던 반핵문구는 확실히 덜 광란적이었다. 6월 북한은 중거리핵전력(INF) 협정으로 남한에서 소련을 겨누고 있던 미 핵무기가 불필요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⁶¹ 7월에 그들은 미군철수는 남북한의 전력 감축에 달려 있다—북한 입장의 주요한 완화—고 인정하였다. “북과 남은 자신들의 병력을 단계적으로 철저히 감축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한반도 지역에 존재하는 외국군대와 핵무기들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제안하였다.⁶²

그러나 미국과 남한이 이 제안의 성실성에 대해 의심했던 것은 너그럽게 보아넘겨야 할 것이다. 9월에 북한은 서울이 ‘미국의 괴뢰정부’ 이자 ‘미국의 석민지일 뿐’이라고 비난하였다.⁶³

물론 어느 쪽에서도 말장난하는 데 돈이 드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진술은 핵공격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남한과 해외의 반핵감정을 자극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1977년 1월에 평양이 남한의 정당과 사회단체에 보냈던 편지는 확실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 편지에서 그들은 남한에 있는 ‘핵기지’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1977년 이래 남한에서 미군을 철수하라는 북한의 요구는 항상 핵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다.⁶⁴ 더구나 만약 북한사람들이 정말로 레이건을 세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핵전쟁 광란자라고 믿었다면, 이런 모욕은 지극히 경솔한 것이 될

수 있었다.

1989년에 북한은 남한정권을 대대적으로 비난하였다. 평양의 선전가들은 남한정권이 미국의 '핵우산'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한정권의 국내적 생존과 미국의 핵억제를 연결시키려고 시도하기까지 했다.⁶⁵

북한의 수사어는 선전차원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행동들과 또한 상응한다. 예를 들어 미 국방장관 와인버거가 "미국의 핵우산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안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던 1986년에, 북한은 팀 스피리트 훈련에 대응하여 '강화된 혁명적 경계태세'에 들어갔다.⁶⁶ 그 동원에는 희소한 노동력을 공장노동으로부터 군사적 임무로 전환시키는 것과, 병원에 약과 붕대를 비축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 경계태세는 외부의 위협이라는 북을 두드림으로써 북한여론을 조작하려는 노력으로 일부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경계태세로 인한 높은 비용과 사회분열은 북한인민들에게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이 핵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줄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그의 정통성을 손상시켰다. 랜드 연구소의 분석가 골드해머는 바로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한국전쟁 중의 핵위협을 정당화했었다. 따라서 그 경계태세는 미국의 의도에 대한 진짜 편집증에 의해 자극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989년 북한은 미국이 팀 스피리트 훈련을 '핵 선제공격으로 한반도의 북반부를 전면공격'하기 위한 리허설로 격상시켰다고 또다시 비난하였다.⁶⁷ 그리고 3월 11일에 북한 최고사령부는 북한군을 또다시 경계태세로 돌입시켰다. 북한 최고사령부는 모든 단위부대에게 '핵전쟁의 위험성'에 비추어 '고도의 혁명적 경계'로써 전투준비에 임할 것을 명령하였다.⁶⁸

이 때 북한은 남북회담의 실패에 대해서 서울을 비난하기 위해 경계태세를 선포하였는데, 이 회담은 팀 스피리트 훈련이 시작되자 평양에 의해 취소되었다. 그러나 1989년 핵전쟁과 팀 스피리트에 대한 북한의 언급 또한 매우 특수해서, 북한군의 두려움을 간파하게 해준다. 인터뷰에서 북한군 장군 김용철은 평양이 왜 팀 스피리트 89를 핵공격 군사연습으로 보는지를 설명하였다.

B-52 전략폭격기는 팀 스피리트에서 폭격훈련도 수행한다. B-52는... 핵무기

를 운반할 수 있다. 그것은 우선 폼으로부터 제주도 상공으로 날아와, 남한 중심부를 가로질러 아산만에 왔을 때 폭격훈련을 수행한다. 주목해야 할 것은 폼에서 아산만까지의 거리가 폼에서 평양까지의 거리와 꼭 같다라는 것이다. 우리는 B-52의 비행거리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곧 평양을 아마도 핵무기로 공격할 것임을 보여준다.⁶⁹

적어도 몇몇 미군 정보장교들은 그 경계태세가 북한이 핵공격을 진실로 두려워하고 있는 증거라고 여기고 있다. 한국전쟁중의 모의 핵폭격 비행, 너슨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고려했던 1969년 EC-121 대치시 폼으로부터 B-52의 동원, 그리고 1976년 사건시 비무장지대에 대한 비행을 북한사람들이 상기하지 않으리라고는 믿을 수 없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김 장군이 위의 말을 했을 때는, 이미 미 공군이 폼에 있는 B-52기를 비핵임무로 전환시켜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핵저장 창고를 철거한 후였다.

결 론

한국전쟁 아래 미 핵위협에 대한 북한의 수사적·행태적·군사적 대응에 관한 이러한 설명으로부터 몇 가지 시험적인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군은 대규모 요새, 훈련, 교리혁신으로 불의의 미 핵공격에 대비하여 준비를 해왔다. 핵무기가 남한에 도착한 직후에 군사적 대응이 시작되었다는 기본적 사실은 미국의 핵위협이 평양의 주목을 받고 있음을 가리킨다.

그러나 어떤 위협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앞에서 인용되었던 몇 가지 증거는 평양이 자신들의 전방부대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남한에 기지를 둔 수송체계로부터 발사된-을 격퇴시키는 데에 주로 관심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증거는 북한이 남한 밖에 기지를 둔 미국의 전략 핵전력에 의해 제기되는 핵위협에 대응하여 사회적 방어를 채택했음을 지적한다.

남한내부와 주변에 있는 미 핵전력을 향한 북한의 행태는 다음과 같은 결

론을 강화시켜준다. 즉 즉각적 강제나 억제를 위해 이따금 이루어지는 미국의 핵위협 시위는 신빙성이 거의 없고 그것은 심지어 미 핵위협의 원래 이유와는 무관한 이유 때문에 북한의 도발을 끌어내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 두 장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그러한 위협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에서 지연 작전을 실시하도록 자극할 뿐만 아니라, 핵공격을 억제하고 선제공격하기 위하여 공세적 전력을 전진배치시키도록 자극할 수도 있다.

1976년 8월의 사건은 남한에 기지를 둔 미 육군 핵전투력이 평양의 특별한 걱정거리임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아마 그 전력이 전쟁발발시 미국의 개입에 대한 언질이기 때문일 것이다. 1976년 위기는 통제의 상실에 기인한 우연한 전쟁의 위험성을 명백히 증명해준다. 그로부터 만약 그 전에 그렇지 않았다면, 김일성은 별 수 없이 자신의 의도야 어떻든지간에 북한이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상정하게 되었을 것이다. 유럽에서는 미국이 핵전투로부터 억제위협으로 수사적 변화를 보였는데, 남한에서는 미국의 정치관행과 교리가 강제를 위한 핵전투로 변화하였고, 이러한 양 쪽의 불일치성을 그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수사적으로 북한은 특정상황에 따라 다른 주제를 강조하면서 핵위협에 대응해왔다. 그러나 특히 레이건 행정부 때 때때로 그 수사어에서 핵공격에 대한 절실한 두려움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요약하면 역사적 증거는 핵위협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수사적·행태적 대응에 여러 가지 동기들이 섞여 있음을 보여준다. 군사적 대응은 일정했고, 수사적 대응은 부침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미군에 대한 공격은 특별한 리듬이 없이 통제력의 상실에 따라, 제3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하여, 당파 투쟁에 이용하기 위하여, 교차사격하기 위하여 예상치 못하게 분출되어왔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대응들이 미국의 핵위협이 북한을 억제하거나 강제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들인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9장 거울로 된 방

오늘날 북한은 제정신이 아니어야만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면 핵무기로도 그들을 억제하지 못할 것이다.

—전 미국무부 관리, 1987. 11. 16

대부분의 미국관리들에게 북한에 대한 핵위협의 영향은 단순하다. 미국의 전략분석가인 로빈슨(Thomas Robinson)은 “남한의 군사조직이 힘을 강화해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태까지 북한이 남한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은 미국의 핵위협이다.”라고 쓰고 있다.¹

그들은 북한이 남침의도가 있고, 그 의도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공격적 군사태세와 일치한다고 추측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 북한에 대한 핵위협의 주요근거는 이러한 북한의 군사력에 응수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어떤 국가들에 대한 핵위협의 영향을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실제로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군사적 위협이 종종 예상하지 못한 효과를 낳거나 혹은 반대되는 효과를 낳거나, 많은 군사분석가들에게는 더욱더 놀랍게도, 전혀 억제효과를 낳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여주었다.²

사실 우리는 북한이 미국의 핵위협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그릇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혼동하고 있거나 그 의미에 대해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미국의 관리들도 북한이 다른 억제수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핵무기에 의해서 억제되고 있다고 증명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어떤 미 외교관이 말했듯이 “한반도에서의 핵억제는 마치 뉴욕에서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 왜 창 밖으로 하얀가루를 뿌리고 있으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 그는 “사자를 뉴욕시 밖으로 쫓아내기 위해서요.”라고 대답한다.

당신은 “하지만 뉴욕시에는 전혀 사자가 없잖아요.”라고 되묻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보시다시피 효과가 있잖아요.”라고 대답한다.³

그러나 북한이 정말로 비무장지대를 덮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자인지, 또는 밑에서 으르렁거리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는 개 때문에 나무 위에서 울고 있는 겁먹은 고양이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의도를 확인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위협의 영향을 판단하는 것은 움직이는 표적을 추적하는 것과 같다. 표적이 된 국가의 의도는 위협의 심리적·행태적 효과를 결정한다. 따라서 영향과 의도는 분석에 있어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북한사람들의 정신상태와 공문서에 대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자는 의도에 대한 상이한 이론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별개의 지표를 대신 참조해야만 한다. 따라서 북한의 의도에 대해 어느 이론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핵 위협이 북한에 끼친 영향에 대한 주장의 타당성이 결정된다.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묘사되었던 세 가지 형태의 증거—북한의 반핵 수사어, 미군에 대한 도발적 행동, 그리고 핵공격에 대항해 싸우기 위한 군사적 준비—를 정리정돈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지표들을 사용하여 전격전, 지역작전, 포위감으로 불리는 북한의 의도에 대한 세 가지 이론을 시험할 것이다.

전격전

이 이론에 따르면 북한은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즉시 예고 없이 남한을 공격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⁴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한 외교관의 말마따나 “자신의 의도대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북한의 결의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⁵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리브시 장군은 1984년 7월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일성의 지도력은 그의 텅크가 34년 전 남한을 침공했을 때와 똑같은 것—한반도 전체를 공산당이 지배하는 것—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⁶

이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전략은 단순하다. 북한이 예고 없이 전면기습 공

격을 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악몽 같은 시나리오에서, 북한 특공대는 남한측 지휘소와 비행장, 퇴각하는 부대들을 남한군 방어선의 배후로부터 타격할 것이다. 불과 며칠 사이에 서울을 장악함으로써, 북한 군은 미군이 전력을 강화하거나 핵보복으로 확산하기 전에 미국과 화해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⁷

미국 분석가들은 북한이 서부 DMZ를 넘어 서울을 향해 주 침입회랑으로 내려가는 전격공격을 감행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병력비율에서 우위에 있다고 계속 주장해왔다.⁸ 이 전략은 중국과 소련의 군사교리와도 일치하는데, 미 육군은 중국과 소련이 북한에게 이러한 군사철학을 가르쳤다고 믿고 있다.⁹

이러한 해석은 북한의 모든 반핵 수사이를 단순히 국제적·국내적 여론조작으로 평가절하한다. 미 8군이 목록을 작성한 1953년 이래 12차례에 걸친 미국에 대한 주요공격들은 핵억제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한다.¹⁰ 이 맥락에서 북한의 도발과 계릴라전 또는 테러리즘에의 의존은 끊임 없이 작용하는 성공적인 억제의 결과로, 즉 성공적인 남한의 억제에 직면하여 쌓일 수밖에 없었던 북한의 좌절심리가 분출된 것으로 간주 된다. 국방부의 전직 고위관리는 “북한이 맹렬히 침투하는 3정면전쟁(three-front war)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항상 침투하는 이유이다.”¹¹

(1) 전격전 관점에서 본 억제와 강제

전격전 이론에서는 예고 없는 북한의 침략위협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남한의 군사역량도 역시 계속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억제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 연합군이 북한군보다 근본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다고 믿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열세 때문에 재래식 억제는 북한을 억제하기에는 대체로 부족하다고 주장된다. 그러므로 핵억제가 “균형을 맞추어주고 있는 셈이다.”

바꿔 말하면 재래식 균형이 불확실하다고 여겨지므로, 승리할 수 있는 우월성의 여지를 갖고 있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하여 핵위협이 ‘보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핵위협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 필요했고 현재도 필요하다고 본다. 즉각적 강제는 핵전투 위협에 의해서 가장 쉽게 일어진다. 따라서 북한이 봉쇄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려면 1976년의 도끼 위기에서처럼 확전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확전 사다리의 보다 높은 단계에서의 안정의 대가로, 보다 낮은 단계의 폭력에서는 불안정성이 더 증가하였고 지금도 그렇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북한의 도발은 공격의도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분노의 비이성적인 분출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증에 행하는 핵위협에 의한 즉각적 억제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왜 임박한 전면기습공격에 대해 조기 경고를 하겠는가?). 더구나 즉각적 억제가 항상 작동되고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이 이론에서는 일반적 억제와 즉각적 억제 사이의 구별이 무너지고 만다.

(2) 타당성

이런 묘사는 서울과 위성단에서의 선전용으로는 유용하다. 그러나 북한이 전격전을 별일 계획을 정말로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미 국방정보국은 1976년 6월에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만일 김일성이 미국의 방위공약 준수결의를 시험하려 하거나, 한미 양국의 군사적·정치적 반응을 시험하려 하거나, 실질적인 혹은 기상적인 북한의 불만에 관한 세계의 여론에 영향을 주고 초점을 모으려고 한다면, 평양측이 판단하기에 급속하고 통제 불가능한 확전으로 나아가지 않을 정도의 제한된 범위와 강도로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잠재적 결과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사전준비 없이 유엔사령부 군대와 일전을 별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¹²

전 주한미군 부사령관 스코트(Winfield Scott)는 1983년 김일성이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전제한 후, “김일성은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내기를 해도 좋다.”고 말했다.¹³ 이러한 판단은 1987년 6월 국방부의 한 관리가 밝힌 바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북한은 광포한 미군이 자기들의 군사행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고 있다. 사실 우리는 1950년에 그렇게 반응했었다. 우리는 북한의 강토를 파괴했고 폭격과 해군의 포

격으로 그들의 도시를 쑥밭으로 만들었다.”¹⁴

이러한 고려와 더불어, 북한은 남한에 대한 직접공격을 감행하는 데 필요한 자동적인 동맹국의 지원도 결여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동맹국의 지원이 있든 없든간에, 북한은 성공적인 남한침략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군사력을 소집할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만약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려는 참이라면, 북한이 핵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수사적으로 외치는 이유를 전격전 이론은 설명할 수 없다. 전격전 이론에 따르면 핵위협은 북한을 억제한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그러한 위협에 대한 그들의 민감성을 선전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그 관례를 고수하도록 조장하겠는가?

지연작전

두번째 이론에 의하면 김일성은 지연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중이다. 그는 예고 없이 공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는 그것을 잡기 위해 군대를 동원할 것이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에 언급했던 것처럼, 김일성은 그가 “남한의 정치통일체로서의 국가에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거나 혼란에 편승할 수 있을 때까지는” 침략준비를 한 채 배회하고 있을 것이다. “그 때가 되면 그는 남한인민의 ‘정당한’ 열망을 도와주고 구원하기 위해 재빨리 남침할 수 있을 것이다.”¹⁵

이 시나리오에서 김일성은 남한에서 일어날 전면적인 반란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 때가 되면 북한 특공대가 소규모로 직접 개입할 수도 있고 반란자들의 힘을 강화시킴으로써 간접 지원할 수도 있다. 미군의 화력은 고도로 훈련되고 매우 강인한 이러한 부대들에 대해서는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다. 나머지 북한군은 국내 반란진압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남한군 대부분을 끌어놓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매달릴 것이다. 북한은 미군이 손을 떼도록 종용하면서 남쪽의 취약한 정부가 붕괴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적당한 순간에 북한의 보병과 기갑부대는 미군과 남한군의 방어망을 뚫고 서울을 장악할 것이다.

(1) 애매함

간접공격 전략은 애매함이라는 추가이점을 갖고 있다. 북한은 남한에 대한 전면공격을 소련이나 중국이 지원해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낮은 수준의 개입을 한다면 북한은 안보동맹국들을 잊지 않을 수 있다. 동시에 미국으로서는 북한 침략군이 아니라 자국 민중들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남한정권을 지원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지연작전 이론에 관한 또 다른 설에 의하면 북한군의 예봉은 서울 북쪽에 배치한 중기갑부대와 포병부대가 아니라 경보병부대와 특공대라고 한다. 전시에 이 부대들은 비무장지대 동부의 산악지대를 공격할 것이다. 성공한다면, 그들은 남한군으로 하여금 서울의 진지방어로부터 전력을 분산시키도록 만들거나, 혹은 서울과 비무장지대 사이에 있는 남한의 방어부대에 대해 기갑부대가 측면공격할 수 있도록 회랑(corridors)을 넓힐 수도 있을 것이다.¹⁶

이 전략으로 마련되는 이점은 소모적 화력에서의 미국과 남한의 우위를 피할 수 있다는 것과 정치적 조건에 비추어서 단계적 확전이 따르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마지막 단계인 전면공격에서만, 기갑부대가 서울 북쪽에 집중될 것이다. 탱크장벽을 무력화시키고 진지방어의 배후를 봉괴시킬 특수부대들이 앞장서고, 막대한 화력을 이용한 남한의 소모전 전략에 어울리는 세부계획에 따른 전쟁(set-piece war)을 수행하기보다는 최후의 일격을 기하기 위하여 탱크들이 이용될 것이다.¹⁷

봉쇄된 북한은 공세적 전력으로 지연작전을 편다. 그 동안에 북한군의 '돌출'은 비록 그 응답이 비난뿐일지라도 남한의 동맹국이 북한을 무시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한다. 지연작전의 전체적 전략은 위협이 너무 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각각의 단계로 구성된 주의깊고 절진적인 확전의 일종이라고 한다. 비무장지대의 주변부에서 애매한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북한은 남한이 보복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복할 것인지를 시험해 볼 수 있다. 남한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북한은 물러설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된다면 확전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2) 지연작전 견지에서 본 억제와 강제

이 이론에서 도발은 비이성적인 울화가 아니라, 이어서 일어날 공격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를 지닌 합리적 행위로 특징지어진다. 북한이 예고 없이 공격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핵위협에 의해 일반적 억제가 달성되지는 않는다(또한 실패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핵위협은 도발적인 행위의 확대를 재빨리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즉각적 억제를 달성할 수 있다. 대치상황으로 이끌 수 있는 행동을 단념하도록 북한에게 강요함으로써 강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대신 지연작전 이론은 도발이 남한에 대한 공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행위라고 취급한다. 예를 들면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험성을 미국인에게 상기시킴으로써 미국의 대한공약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잠식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1981년 미 SR-71 정찰기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은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과장하려는 시도였을 수 있다.¹⁸ 그러한 일시적인 사건에서는 즉각적 억제도 즉각적 강제도 달성될 수 없다. 그러나 좀더 장기적인 대치상황에서는, 핵위협이 평양에 대해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지연작전 이론은 암시하고 있다. 푸에블로호, EC-121, 1976년 8월 위기가 종종 이러한 관점에서 인용된다.

포위감

앞의 두 이론은 거울로 된 방처럼 작용한다. 그것들을 지탱하는 전략개념은 상호의존적 신념의 폐쇄체계이며, 이것은 핵위협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관한 상대의 설명을 배제한다. 전격전 이론에서 이상한 것이 지연작전 이론에서는 확정적인 것이 된다. 한쪽 이론에서 비일관성이 지적될 때, 지지자들은 다른 쪽의 공식으로 건너뜀으로써 문제를 단순히 회피한다—그리고는 다시 되돌아온다.

'거울로 된 방'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전혀 다른, 그리고 어지러운 광경에 접하게 된다. 북한의 군사태세는 전혀 다른 이론과 일치한다. 북한은 예견되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방위하기 위해 공세적 억제를 구축해왔다.

이 개념에 따르면, 북한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남침할 의도가 없으며 오히려 외부의 침입을 두려워하고 있다. 북한은 그러한 공격에 대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 선제공격이나 보복공격으로 대항하려 하고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북한은 포위감에 사로잡혀 있다.

공세적 억제는 예견된 공격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위협을 하건 외부로부터 공격받으면 보복공격을 하겠다고 위협을 하건간에 방어적 군사전략에 속하며, 압도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이 흔히 채택하는 전략이다.¹⁹

포위이론은 방어적 고려가 북한 전력구조의 저변에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해준다—공세적 전력이 이전에 좀더 대립하였던 시기부터 계속 이월되어오기는 하였지만. 공세적 억제이론은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지역작전 이론과 다르지만, 군사태세와 전략에 관한 해석에서는 아주 유사하다.

이 개념에 따르면 북한의 전략은 자기들이 전략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가 아직도 혼 남한체제를 제거하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목적이 군사적으로는 달성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남한을 무력으로 지배하겠다는 일관된 정책을 추구하기는커녕, 위협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쪽이 바로 그들이다. 바로 전 해에 벌어졌던 전쟁 일보 직전 상황으로부터 10개월이 지난 후인 1977년 6월에,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남침위협은 전혀 없다. 오히려 침략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다.”²⁰

포위이론에 따르면 북한에 남아 있는 어떠한 남침의도도 미국과 남한의 재래식 전력에 의해 이미 억제되었다고 한다. 일단 억제되면, 핵위협으로부터는 아무런 추가적인 일반적 억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억제되는 대신 북한은 미 핵위협—위기들 사이에서 끊임 없이 느껴왔고, 즉각적 강제를 위해 미국이 추가압력을 가하는 위기 때에는 아주 심각하게 느꼈던—을 강압으로 맛보았을지도 모른다.

(1) 포위 공포증, 편집증

이 이론은 군사분석가 차영구가 ‘포위 공포증’이라고 부르는 것을 북한이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공세적 억제는 재래식 위협에 대비한 것이다.

한미 연합군의 혹은 남한군이나 미군 단독의 기습공격을 막거나 또는 방어하기 위해, 북한은 순전히 병력으로 남한의 자국을 흡수할 것이다.²¹ 이런 맥락에서 미 육군 보고서는 1975년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유형의 공격 가능성에 대하여 북한군 지도부는 상당한 정도의 편집증을 나타내고 있다.”고 언급했다.²² 북한해군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지리적으로 함대가 양분되어 있으므로, 미국이 해병대를 풀어놓기로 결정한다면 북한은 수륙 양면공격을 막지 못할 것이다.²³

포위이론은 북한의 전진배치된 공세적 군사태세뿐만 아니라 전격전 이론이나 지역작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군사태세의 측면들도 설명한다. 북한의 ‘파잉’ 탱크와 포대라고 불리는 것이 특별한 흥미를 끈다. 대충 계산해보면, 북한은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침입회랑의 좁은 지대가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두 배나 많은 대포와 세 배나 많은 탱크를 가지고 있다.²⁴

북한내부 깊숙한 곳에서 장기 게릴라전 훈련을 받은 준군사력—공세적으로는 쓰이지 않는 방어전력—과 결합하면, ‘파잉’ 무기는 공중, 해상, 육상으로부터의 미군이나 남한군의 공격에 응수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²⁵

전격전 시나리오처럼 포위이론도 북한이 남한과 미국에 대해 장기적인 간접공세를 감행할 것이라는 생각을 자멸적인 것으로 평가절하한다. 북한의 적인 미국과 남한은 둘 다 소모전을 위한 자원동원에 있어서 북한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갖추고 있다.²⁶

그러나 포위감 이론은 미국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이 택할 수 있는 제한된 전략적인 선택권을 고려할 때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이다. 4, 5장에서 기술한 것처럼 북한은 남한 동맹국들로부터의 재래식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핵위협에도 응수해야 한다.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북한은 핵공격에 대해 군사적으로 준비하는 데 상당한 자원을 투자해왔다. 공세적 억제와 결합된 수동적 방어는 거대한 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합리적 전략이다.

전격전 이론가들은 대규모로 즉각적으로 가할 수 있는 핵위협이 항상 존재해야만 핵억제가 계속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유사하게 비핵국가는 자기도 대규모의 타격을 가하겠다고 계속 위협하는 것을 핵공격 위협에 대한 믿을 만한 상쇄전략으로 삼을 수 있다.²⁷

12장에서는 미군이 결정적인 후방공격보다는 DMZ 근처의 전투지대에서 핵공격을 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북한이 생각하는 것이 일리가 있음을 제시한다. 그들의 전진배치는 전시에 아군과 적군 그리고 민간인을 뒤섞음으로써, 즉 '적을 끌어안는' 전술로써 그러한 공격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 북한은 이러한 전술이 미국의 핵확전을 정치적·도덕적으로 어렵게 불가능하게 하자는 못하더라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1976년 미 핵방어국에 제출된 한 보고서는 재래식 돌파공격 작전이 어떻게 핵공격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공격과 방어계획이 주도면밀하게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침투공격이 개시된 직후에는 양측군대는 큰 혼란에 빠진다. 그리고 공격이 진행되어 추진력을 얻음에 따라 특히 방어하는 쪽의 혼란은 더욱 가중된다. 공격하는 쪽의 움직임이 빨라질수록, 핵무기 발사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요하면서 한 곳에 충분히 오래 머무르는 시의적절한 표적을 포착할 기회는 점점 적어진다.²⁹

북한이 공세적 억제를 확립하고 있다면 미국의 핵위협은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핵위협은 북한의 편집증적인 반응을 유발할 것이며, 정치상황을 악화시키고, 위기시 북한이 방어를 위해 공격하거나 남한이 북한의 공세적 억제에 대해 선제공격을 가할 위험성을 증대시킨다.

사실 미국방정보국도 핵공격이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핵공격이 북한군에게는 전투작전을 중단시킬 만한 충분한 이유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어쩌면 핵공격은 북한의 공격을 '가속' 시킬지도 모른다. 미국방정보국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들은 신속히 전진·접근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적 점령지역이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일선부대가 행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예비부대가 그 임무를 이어받아 공격을 계속한다.²⁹

따라서 핵위협은 안보의 교착상태를 안정시키기는커녕, 대치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안보 딜레마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2) 핵강제와 억제-포위감

포위감 이론에 따르면 북한의 도발은 비합리적 행위로도 또는 합리적 행위로도 설명될 수 있다.

도발은 비합리적인 행위로서 야전군에 대한 북한의 통제상실로 인한 것일 수 있다. 1969년 EC-121 격추사건은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 속한다. 통제상실은 일반적 핵억제로 막을 수 없다. 실제로 일반적 핵억제 위협은 혼존하는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통제상실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뒤이은 즉각적 억제나 강제를 위한 미 핵위협은 본래의 통제상실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반대로 도발은 평양의 합리적 계산결과일 수 있고, 이에는 단일한 요인만 있으리라고는 추정되지 않는다. 다양한 합리적 전략이 가능하다.

첫째, 한 분파가 내부의 반대파에게 불리한 미국과의 위기를 야기함으로써 그들을 누르려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강경파는 베이징이나 모스크바의 알선으로 미국과 남한과의 협상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다른 파를 막기 위해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1987년 KAL기 폭파사건은 바로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일반적 억제위협은 도발을 불러일으키며, 강제를 위해 미국이 더 심한 위협을 하게 되면 그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핵위협을 이용하는 위험을 무릅쓴 '도발적인' 분파의 목적에만 기여하게 된다.

둘째, 미국에 대한 도발은 제3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일 수 있는데, 자신의 적과 화해하려는 자신의 동맹국들을 당황하게 하기 위한 평양의 시도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푸에블로호 사건은 소련과 중국이 미국과 대화—평양에게는 위협적인 발전—to 시작하려 하고 있을 때 일어났다.

셋째, 미국을 겨냥한 도발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성을 미국에게 일깨우려는 의도일 수 있다. 1976년 8월의 대결상황은 북한이 판문점에 있는 그들 경비병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지만 않았다면 경고신호로 설명될 수 있었을 것이다.

8장에서는 8월사건에 대한 어울리지 않는 미국의 대응에 대해 평양이 이상하게 침묵을 유지했다는 것에 주목했었다. 만약 평양이 정말로 전쟁을 무

서워했다면—그리고 스스로 유감이라고 인정한 것이 그 위험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정황증거라면—평양의 무언의 수사적·대응은 일리가 있다. 달리 행동했더라면 평양의 핵취약성을 이용하도록 미국을 더 자극하였을 것이다.

포위이론은 북한의 반핵 수사어가 변하였음을 암시한다. 북한의 모든 수사어를 간단히 무시해버리는 전격전 이론과는 달리, 포위이론이 암시하는 바에 의하면 북한은 남한과 미국의 대중들에 대해 정면대결의 위험성을 과장하여 표현함으로써 핵전 가능성 자체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한 정면대결로 상대적 침묵서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 즉각적 위협이 고조되었을 때, 북한은 핵위협의 효용으로부터 미국의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 다른 주제에 초점을 집중시킬 것이다. 그리고 심각한 위기시에는,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확대된 억제에 호소할 것이고 가능한 한 큰소리로 거짓말을 하며 세상을 시끄럽게 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 북한의 도발은 동맹국 또는 적을 발끈하게 하는 위협신호로 읽힐 수 있다. 그러므로 포위이론은 도발이 일반적 또는 즉각적 핵위협으로는 중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도발의 기초를 이루는 의도는 핵위협에 면역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포위이론은 전격전 이론과 유사한 결론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격전이나 지연작전 이론과는 달리, 포위이론은 위기시 북한을 강제할 목적을 가진 위협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성과를 기대할 이유가 없다고 시사한다. 즉각적 강제가 (논의의 여지는 있지만 1976년 8월 위기에서처럼) 성취될 수도 있으나, (1968년 푸에블로호와 1969년 EC-121 위기에서처럼)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1953년 휴전협상에 대한 핵위협의 영향에서처럼) 그 기록이 불확실할 수도 있다.

반대로 포위이론은 핵위협이 북한의 전력태세에 영향—전격전 이론과 지연작전 이론에서는 부정하거나 무시한—을 줄 것이라고 예견한다. 한반도에서 전투력, 교리, 훈련, 그리고 수사어에 의해 뒷받침되는 핵위협이 북한으로 하여금 공세적 전력태세를 채택하도록 자극했다면, 미국의 핵위협은 미국이 의도하는 방식으로는 아니지만 북한을 정말로 강제했는지도 모른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의 핵위협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미지의 영토로 끌임없

이 발사되는 비유도 미사일과 같다. 그 위협들은 도달하자마자 북한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누구도 예상못할 효과를 낳고 폭발할 것이다.

결 론

세 가지 이론은 북한에 대한 핵위협의 영향에 대해 본질적으로 다른 해석을 부여한다.

요약하면 전격전 이론은 일반적 핵억제와 즉각적 핵억제가 임박한 북한의 남침에 대해 항상 작용하나, 위기시에는 오직 즉각적 강제만이(즉각적 억제가 아닌)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지연작전 이론에서는 일반적 핵억제가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 재래식 억제만이 계속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즉각적 핵강제와 억제는 오직 위기시에만 작용된다고 말한다.

포위이론은 일반적 핵억제와 즉각적 핵억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핵위협은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뜻에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의 억제목적과 무관한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공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의도하지 않은 ‘맹목적 강제’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예상치 않은 군사적 대응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 이론들은 서로 베타적이지 않다. 노선투쟁에서 유발된 미군에 대한 도발이 미국의 결의를 합리적으로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앞부분은 분파에 시달리는 분열된 북한정부를 가정하는 반면에 뒷부분은 통일된 북한정부를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위감이 북한에게 ‘미치광이 같은’ 도발을 감행하도록 강요하여, 미국의 대중들을 동요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지연작전 전략의 일부로써 미국의 결의를 시험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납득할 만하다.

각각의 이론은 또한 남한에 있는 지상핵무기들이 남한 밖에 있으면서 위기시에는 북한에 초점이 맞춰지는 핵전력과는 다른 영향을 북한에게 기친다고 생각한다.

포위이론에 의하면, 북한을 강제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제안하는

육군의 교리는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은 북한의 편집증을 자극해 우연한 확전(통제의 상실에 의한)의 가능성을 자극하거나, 북한군으로 하여금 위협적인 공세적 억제력을 구축하게 하고 미국을 좀 떨어져 있게 하기 위한 도발을 저지르게 한다. 간단히 말하면 핵위협은 북의 의도에 대해서 남한이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 만한 북한의 반작용을 유발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짐식한다. 핵무기가 남한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의 여부는 한반도에서의 재래식 억제에 대한 역효과에 있어 거의 차이가 없다.

지연작전 이론에 의하면, 북한은 어떠한 즉각적 공격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남한에 있는 핵무기로부터의 '일상적인' 위협은 일반적으로 북한을 억제하지 못한다. 더구나 정면대결이 분출할 때 미국은 북한을 강압하기 위해 대개 남한 밖에 있는 핵전력을 이용한다. 지연작전 이론은 일반적 혹은 즉각적 억제나 강제를 위해 전술적 전투무기가 한반도에 있을 필요가 없음을 시사한다.

오직 전격전 이론만이 재래식 억제의 불충분성 때문에 육군의 전투무기가 일반적 억제등식에 들어와야 한다고 제시한다. 따라서 남한에 있는 전투무기의 경우는 전격전 이론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것처럼, 북한이 경고 없이 전격전을 개시할 의도가 있다는 가정은 아무래도 의심스럽다. 전격전 이론의 신빙성—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전투 핵무기의 효용—은 재래식 억제의 강도에 달려 있다. 재래식 억제는 핵으로 보강된 피뢰침을 요구할 만큼 약한가?

제10장 교착전

미 중앙정보국의 재평가는 새로운 수치계산으로 북한의 힘을 증대시켰고 경고시간을 단축시켰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댈 수 있다.

—전 국무부 관리, 1987. 12. 22

비무장지대는 전쟁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서울에서 판문점으로 차를 몰고 갈 때, 고속도로 위의 거대한 콘크리트 아치들은 한반도가 여전히 전쟁중임을 말해준다. 이것들은 각각 9~12m 폭과 9m 높이의 단단한 콘크리트로 남으로 이동하는 탱크를 막기 위해 도로로 떨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

얼굴을 검은 색과 녹색으로 칠하고 완전무장한 미 전투군이 정기적으로 그들의 트럭에서 우르르 몰려 나와 비무장지대의 손질되지 않은 울창한 숲으로 들어간다. 이 부대들—계속적인 전시편제에 있는 유일한 미군—은 4km 폭의 비무장지대 중심에 있는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북한이 침투한 기미가 있는지를 수색한다.

판문점에는 군사정전위원회 군사대표의 회담이 열리는 건물이 있다. 북한 측 수석대표는 중국측 수석대표와 나란히 나온다. 미국측 수석대표는 남한 측을 부대표로 동반하고 나온다.

그 안에서 대표자들은 녹색벨벳으로 덮힌 탁자에 자리잡는다. 탁자 가운데를 지나는 선이 군사분계선이다. 양쪽 사이의 모든 상호작용은 의례적이다. 비무장지대는 상대방에 대해 정치적 우위를 획득하기 위해 편제된 무대장치이다.

예를 들어 몇년 전에 양쪽은 탁자 위에 서로 더 화려하게 장식된 깃대를 설치하려고 경쟁한 적이 있었다. 결국 그 깃대들은 천정에 놓아 회담을 방해함으로써 '깃발문제'를 다루기 위한 군사정전위원회 특별회의가 열려야 했다.

북한은 유엔사령부보다 약 반인치 높은 깃대의 설치를 허용받음으로써 것 대싸움에서 휴전을 받아들였다. 그 대신 유엔사령부는 북한보다 약간 더 넓은 깃봉을 달게 되었다. 북한깃대의 기부는 3단으로 되어 있는 반면 유엔사령부의 것은 약간 더 큰 2단으로 되어 있다.

군사정전위원회 건물 안에서의 깃발경쟁은 양측이 바깥에 세워놓은 거대한 에펠탑에 비하면 지엽적인 문제였다.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수백 야드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남한측 '자유의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철탑에는 30m 높이의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다. 안내자가 '선전마을'이라 부르는 군사분계선 북쪽에 있는 곳에서도 또 다른 거대한 국기(인공기)가 펼려이고 있다.

비무장지대에서는 이미지가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민간인들을 그 지역에 살게 하는 것이나 대부분의 남한군 포대를 북한군 포대의 사정거리인 비무장지대 남방 6km내에 배치시키는 것도 아무런 군사적 의미가 없다.¹

양측이 여기서 말하고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는 폭력 또는 폭력의 위협이다. 판문점에서 하는 일은 대화나 정보공유, 공동기반의 발견이 '아니다.' 군대는 한반도에서 싸울 수 없다. 그러나 커다란 대포는 조용히 있어야 하겠지만 확성기는 그럴 필요가 없다. 전쟁이 끝난 이후로, 교착전이 예전에 이 산들을 소용돌이쳤던 전격전을 대신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의례적인 전투는 이상할 정도로 시대착오적인 것으로써,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군비경쟁의 비합리성에 대한 좋은 예가 된다.

이 장에서는 그 경쟁의 재래식 측면을 조사한다. 그리고 양측의 전력과 무기들을 비교한다. 이 장에서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 전격전이나 점진적으로 확대되어가는 재래식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평가해본다. 이 장에서는 북한이 남한의 방어를 분쇄하기 위해 필요한 연합된 육해공군을 소집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 장에서는 한반도에 있는 핵무기와 남측의 이미 굳건한 재래식 억제와 방어에 대해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사실 의지와 재래식 역량의 '순수균형'(net balance)은 북한보다 오히려 남한에 유리하다.

수치계산

원칙적으로 군사 '균형'을 결정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즉 단순 수치계산(bean counting), 무기체계 비교(sword-on-shield: 공격무기체계와 이에 대한 방어무기 체계 비교-역주), 시나리오를 통한 비교(scenario-driven comparisons)가 그것이다.

<표 10-1> 북한과 남한의 군사력(1987)

유형	북한(N)	남한(S)	N/S
육군	750,000	542,000	1.4
육군 예비병력	500,000	1,400,000(상비)	{
	5,000,000	예비역/ 민병	3,300,000(예비) 방위군 } 1.2
탱크	2,900	1,300	2.2
포	6,000	3,300	1.8
로켓 발사대	1,800	176	10.2
지대지 미사일	69	12	5.6
방공포	8,000	600	13.3
해군	35,000	29,000(해병 포함)	1.2
해군 예비병력	40,000	25,000	1.6
해병 ^a	-	-	-
해병 예비병력	-	60,000	-
공군	53,000	33,000	1.6
공군 예비병력	-	55,000	-
전투기	850	476	1.8
준군사력			
민간인	3,000,000	3,500,000	{
붉은 청년 근위대	700,000	600,000(학군단)	0.9
경비대	38,000	-	{
총병력	838,000	629,000	

자료: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987-1988 (London: ISIS, 1987), pp. 162-65; J. Bermudez, "North Korean Marines," *Asian-Pacific Defense Forum* 12:3(Winter 1987-88), p. 29.

주: 북한에 대한 평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북한에는 외국군대가 주둔하고 있지 않다. 미국과 남한의 정보기관(KCIA) 요원의 수는 나와 있지 않다. 북한은 1986~87년에 병력을 15만 명 감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북한육군 병력 중 112,000명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별도로 올라가 있지는 않다. 남한의 경우는 해군 중 2만 명이 이에 해당된다.

무기체계의 정태적 비교에서 수적인 우위는 군사적 이점을 나타낸다. 따라서 북한은 <표 10-1>의 전력비율이 1보다 클 때마다—즉 거의 모든 경우에서—군사적 우위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현대적 전장에서의 성과는 서로 상대되는 무기, 지형, 훈련, 준비, 기습, 기타 지도력이나 사기와 같은 무형적인 요소들의 상대적 역량에 따라서 더 좌우되므로 이 방법은 드러내는 것보다 숨기는 것이 더 많다.

무기체계 비교 접근법은 수적 비율로 군사적 ‘균형’을 묘사하는 엄청난 실수를 피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한 무기체계의 능력—예를 들면 탱크—을 이를 막기 위해 고안된 무기체계들—대전차 미사일과 대포 같은—과 비교한다. 그러나 수적인 비교처럼 무기체계 비교비율은 전투의 역동적인 면을 비추지 못한다.

오직 전쟁게임(war-gaming) 기술만이 실제전장의 역동성을 정밀하게 모의실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전쟁게임 방법은 날씨, 기습, 그리고 우방과 적의 전술과 같은 세포까지 뚜렷이 지정한 전투 시나리오에 의지한다. 그러나 시나리오를 통한 비교는 자기만족적인 예전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너무도 자주, 이 방법은 전쟁의 화염 아래서 이루어지는 실제 작전능력과는 무관할 수 있는 낙관적·자민족중심적 혹은 표준적 성과지표를 포함한 현존 전쟁계획을 시험하곤 한다.²

수사어와 현실

군사분석가들은 김일성이 지체 없이 공격할 수 있는 미친 개라고 말한다.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이 그의 군대 앞에서 무방비상태에 있으며 미친 개를 구석으로 몰아서 빼리기 위해서 더 큰 막대기가 필요하다고 워싱턴에서 큰 소리로 발표를 한다. 솔직히 말해 김일성이 미치광이처럼 공격하려고 망설이고 있다고 그들이 진짜로 믿는다면 자신의 취약성을 선전하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 될 것이다. 수사어와 현실 사이의 이러한 간극은 공적인 신념과 사적인 신념간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1972년에 제출된 랜드 연구소의 한 비밀보고서는 ‘미국의 지원

이 없으면’ 남한군만으로는 미군이 한반도에 다시 들어올 때까지 북한-중국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서울을 사수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방어를 위한 최고조건하에서(즉 방어군이 완벽한 정보로 완벽한 결정을 한다고 가정하면) 서울이 3주 이내에 함락될 것이라고 그들은 계산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만약 남한육군이 더 많은 사단과 신속 예비군을 추가함으로써 혹은 현 전력을 현대화함으로써 향상된다면, 남한의 방어군은 미국의 원조 없이 ‘연합 공격조차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³

1970년대에 북한의 우위에 관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미국방부는 군사력의 상대적인 ‘균형’ 또는 ‘불균형’, 즉 이른바 ‘순평가’(net assessment)를 결정하기 위한 일치된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1977년 3월에 미 육군에 보고서를 냈던 한 자문가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사실상 균형을 측정하는 일치된 방법은 없다. 그리고 주어진 균형평가가 (한반도에 있는) 동맹군에게 방어 혹은 억제역량을 제공하기 위한 교정수단으로 옮겨지는 방법에 대해서조차도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는 “이것은 남한의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어렵고 불확실하게 만든다. 또한 그것 때문에 접근법의 한계에 대해 적절히 진술하면서 그러한 분석을 수행하려는 시도를 할 만한 가치가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 나아가서 군사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이것은 남북한의 경우에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미국방부는 아마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또한 전력비율을 비교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데 유용할 수 있고 지속적인 전쟁시도 역량을 광범위하게 보여줄지도 모른다고 주의를 주었다. 그는 “대통령 검토각서 제13호(5장에서 기술한 “알겠습니다, 각하!” 대통령 검토각서)를 위해 준비했던 국방정보국의 요약 전력비교는 그들이 이것을 완성한 이상 유효하고 유용하다. 비록 그들이 그 넓은 범주를 죄다 섭렵할 수는 없었지만, 상대적인 장비의 질을 고려하지도 말고, 남한의 작전조건하에서 주어진 비율의 중요성을 회피하지도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주된 방법론적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취약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주된 문제는 전체적 전력추세가 아니라, 결정적 시나리오나 우발적 사건에서 남한이 어떻게 임무를 수행하느냐 하는 것이다. 남한은 전체전력 비교가 이루어진 방식과는 무관하게 그 비교의 가치를 제한하고 있는 특수한 전술적·전략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불행하게도 ‘우발적 사건’[시나리오에 따른] 분석은 많은 문제가 있다. 경고나 배치요소에 대한 추정에서의 비교적 작은 편차가 전쟁게임에 대한 투입이나 주어진 우발적 사건에서 양측에 유효한 요구전력 비율에 커다란 변화를 놓을 수 있다.⁴

그는 “이 서문은 남한군-북한군의 균형을 유용한 정도로 정밀하게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과, 정책결정자들은 어떤 주어진 분석결과보다는 그 자신의 판단을 이용하는 것을 더 낫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공연히 복잡하게 말한 것이다.”라고 주를 달았다.⁵

그들은 바로 그렇게 하였다. 1980년에 카터 행정부의 관리들은 한반도에서의 ‘적절한’ 군사균형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 어떤 특별한 정의를 여전히 내리고 있지 않음을 시인하였다.⁶ 그러나 그들은 공공연히 북한이 남한에 대해 확실한 공세적 우위를 이룩했다고 망설이지 않고 단언하였다.

전진배치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든, 북한의 전력이 막강하고 기동기갑부대, 포병부대, 8만~10만의 특공대를 포함한 거대한 공세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부대들은 DMZ를 따라 대규모로 전진배치되어 있다. 지원부대와 무기저장소도 전진배치된 것이 특히 의심스럽게 여겨지고 있다.

어느 지역의 전방에, 그리고 어느 부문의 몇 %인지는 뚜렷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같이 전진배치된 부분은 ‘70%’로 평가되고 있다. 미군과 남한군은 1970년대말까지 북한군보다 더 전진배치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추세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1985년 8월에, 미 제19지원사령부는 후방에 저장했던 탄약을 전시에 바로 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쌓아두기 위하여 북한과 마찬가지로 전진기지로 재배치하였다.⁷

사실 북한은 두 가지 약점 때문에 비축된 보급품을 DMZ 부근으로 이동시켰던 것 같다. 첫째, 그들은 전시경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의 약 30%가 부족하기 때문에, 방어적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전략적으로 단기전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⁸ 둘째, 그들의 병참선은 공중으로부터 이를 차단하는 남한의 작전에 매우 취약하다.

1983년에 북한은 이전에 평양 북쪽과 원산에 주둔했던 타격부대를 전방으로 이동시켰다고 한다.⁹ 이러한 전방으로의 이동은 제2차 냉전기에 초강대국 간의 적대감이 극도에 달했을 때 이루어졌다. 바로 그 해에 소련이 KAL 007기를 격추시켰고, 미국은 그라나다를 침공했고, 공지전 교리가 남한에 명백하게 도입되었으며, 북한은 랑군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각료들에게 폭탄공격을 가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들은 북한으로 하여금 소련쪽으로 확실히 돌아서게 함으로써, 북한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중소분쟁에서의 중립원칙을 깨뜨리게 하였다. 동시에 북한은 그들의 병력을 재배치·재편성하였다. 북한은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함으로써 오랜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기는커녕, 아시아에서 이미 핵무기를 사용한 바 있는 변덕스러운 초강대국이 이끄는 대규모 연합전력에 대항하여 방어적 열세입장에서 전투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테러전술과 결합된 이러한 전진배치는 북한의 군사적 힘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군사적 약세를 인정한 표현이자 완전한 절망의 표현이다.

그러나 미 전략가들은 북한의 부대들이 방어적으로 움직이려 한다면, 그러한 병참배치는 남한의 공격에 너무도 취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과 남한의 전략가들은 그러한 병참의 전진배치로 인해 남한에게는 북한의 임박한 공격에 대해 이를 미만 혹은 어쩌면 불과 몇 시간의 경고시간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전진배치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¹⁰

하지만 그러한 공격이 가능할 것인가? 북한이 직접공격이든 간접공격이든 그것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우월한 군사역량을 확보하고 있고, 승리를 기대하고 있는가?

· 남북한의 군사력 ·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저자에게 말해준 최악의 경우를 잠깐 가정해보자.¹¹ 김일성이나 그의 후계자가 남침을 꿈꾸고 있었는데 마침내 남한이 국내 정치적 위기에 빠진 것을 목격하게 된다. 남한군부가 그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들려싸고 분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더 나아가 외환상 정통성을 지닌 남한의 정치세력이 북한의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북한에게 침략에 필요한 정치적 명분을 주었다고 김일성이 주장하는 경우를 가정하자.

이 시나리오는 남한군이 야당을 정치적으로 불신하게 만들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과 싸우게 만들기 때문에, 미 정보장교들은 이 시나리오가 정치적으로 근시안적이라고 말하고 있다.¹² 하지만 논쟁을 위해서, 평양이 이 현실을 무시하고 공격을 개시한다고 가정해보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1) 지상군

북한이 먼저 발견하게 될 사실은 기갑부대의 대부분, 즉 수입한 혹은 자체 제작한 2천6백 대의 탱크가 서울북쪽의 지형에서 전투를 벌이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¹³ 군사분석가 심프슨(John Simpson)이 1980년에 기술했듯이 “북한은 거대한 탱크부대에 상당히 치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체로 남한의 지형은 탱크전을 벌이기에 확실히 부적합하다!”¹⁴

북한이 더 많은 탱크와 포를 보유하고 있다는 식의 단순한 수치계산은 전쟁결과를 예측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 그것만 가지고는 북한이 좀은 침입회랑으로 얼마만큼의 병기를 이동시킬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또 그것만 가지고는 북한이 투입한 전력이 서울북쪽의 침입회랑에 있는 잘 준비된 요새와 공중으로부터 발사되는 대전차, 대인포화 속에서 얼마나 잘 견딜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마지막으로 기갑전투전술의 요체는 정면의 방어부대와 조우하지 않고 탱크의 기동성을 이용하는 것이다.¹⁵ DMZ에서 서울에 이르는 산악지대의 계곡은 이 전략을 방해한다. 대규모 탱크부대는 집중적인 화력을 받기 쉬운 계곡 아래의 예상 진입로-화력이 너무 많아 ‘볼링 레인’으로 알려진 침입회랑-로 유도될 것이다.

북한 군사교리에 따르면 공격성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격/방어 전

력비율이 요구된다. 기갑부대의 경우 3~5 : 1, 포의 경우 6~8 : 1, 보병의 경우 4~6 : 1.¹⁶ 1984년에 북한 대 남한의 전체적 전력비율은 기갑부대의 경우 2.5 : 1, 포의 경우 1.5 : 1, 병력의 경우 1.1 : 1이었다.¹⁷ 북한이 침입회랑을 따라 내려오면서 그들의 군사교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지적 전력비율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여부는 공개된 바 없다.

(2) 격자방어(Gridiron Defense)

1970년대초에, 남한군과 미군은 전진방어-전략-시간을 별기 위해 예정된 방어선으로 후퇴하기보다 DMZ에서 전선을 유지하도록 강조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 새로운 전략을 뒷받침할 힘을 제공하기 위해 저장된 포탄은 두 배로 늘었고 성능이 향상된 탄약이 도입되었다. 앞서 언급되었던 탱크 장애물도 설치되었다.

이 새로운 전략은 북한의 숫자에 미국의 기술과 화력으로 대응하게 하였다. 이 새로운 전략은 방어측에 점점 유리해지는 현대 군사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성공적인 공격을 위해 북한이 교리상 필요로 하는 공격비율은 이러한 격자방어의 기술적 요소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1984년에, 미 제2보병사단은 3일간의 합동 무기실사훈련(combined arms live-fire exercise)의 일환으로서 레이저 유도포탄 카퍼헤드(Copperhead)를 도입하였다—미 본토 이외의 지역에서 이 무기가 발사된 것은 그 때가 처음이었다. 포탄은 발사될 때마다 목표에 정확히 명중했다. 탱크, 자주포, 방공차량 등의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이 무기는 49파운드의 치명적인 성형폭탄 탄두를 지니고 레이저에 의해 지정된 표적으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를 향해 맑고 견조한 날씨에는 사정거리 16,000m의 세 배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¹⁸

1978년에 미 분석가들은 북한이 15마일의 서부 침투전선에 25야드 간격으로 탱크를 배치한다면 1천 대의 탱크만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이 수치는 남한이 보유한 탱크 수와 비슷하다. 남한이 보유하고 있는 탱크, 미사일, 공중발사 대전차 역량 전체를 합치면 남한탱크 1대를 잃을 때마다 북한탱크 3대를 파괴함으로써 충분히 1 : 1의 비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방위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3배의 우위가 필요하다는 북한의 기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¹⁹ 북한도 남한과 미국의 공격기갑

역량에 대해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남한군과 미군은 또한 정규군과 특수부대(특공대를 포함)를 결합시킨 북한의 정면공격에서 이용 가능한 약점을 간파하였다. 북한의 전술은 병력을 산개시키기 때문에 정면돌파를 위해 전력을 집중시킬 수 없다. 북한의 교리에 의하면 각 단위부대는 조우하는 모든 적의 부대를 격멸시키도록 되어 있으나, 이 전술은 단위부대를 더 중요한 임무로부터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반격에 취약하게 만든다.

(3) 기형적 방어

이에 반해서, 최근의 한미 방어전략은 취약하다고 기술되어왔다. 이 전략은 견고한 진지방어 때문에 북한군이 집중될 것이므로 포와 근접 항공지원을 화력만으로도 그들을 마멸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한공군이 전장에서 필요한 공중우위를 먼저 획득해야 하는 임무 때문에 근접 항공지원 역할로부터 전환될 수도 있다. 그 때까지 항공지원은 너무 적을 수도 있고 너무 늦을 수도 있다. 더구나 포병에 기반을 둔 방어는 깨지기 쉬워서, 북한포병에 의한 진압이나 포병진지를 매복공격하기 위해 침투하는 북한의 경보병부대와 특수부대에 의한 포위분쇄에 취약하다.²⁰

남한군은 미군에 의해 창설·조직·훈련·재정지원·무장·지휘되어왔기 때문에, 미군과 유사한 무기를 조달하고 유사한 군사교리를 신봉하고 있다. 남한군은 준비된 진지에서부터 전투하도록 훈련받는다. 방어는 포화력과 공중공격에 의해 격멸될 수 있는 장소로 북한군이 집중되도록 유인하는 것을 뜻한다.²¹

그러나 북한군이 그렇게 쉽게 몇에 걸릴 만큼 어리석은 것 같지는 않다. 그들은 침입회랑 통과를 바랄 수는 없다 할지라도, 동부 DMZ를 가로지르는 양동작전을 감행할 수는 있을 것이다. 만약 성공한다면, 남한군은 방어전력을 서울로부터 분산시키게 되어 북한 기갑부대가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진지방어를 약화시키려는 북한보병과 특수부대에게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²² 만약 정확하다면 이 분석은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채택된 전략이 남한 군사세를 기형적으로 만들었음을 암시한다. 그것은 서울 북쪽의 방어선을 유지하는 데 적합하지 않고 북한군의 장점-즉 거점과 포의 위력을 우회하

도록 고안된 보병전투의 유동적 기동전술—에 들어맞는 전략이다.²³

남한에 공지전 교리가 도입되면 극복되리라 예상되었던 것이 바로 이 약점이었다. 이 때문에 남한은 장사정 야포, 대전차 미사일, 신형 항공기를 구입하였다. 하지만 남한은 서울북부 전선만을 고수하기보다 반격의 성격을 띠는 공지전 스타일에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4) 공군력

북한군의 취약점은 지상에 그치지 않는다. 북한은 남한에서 지속적인 공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공군력도 모자란 상태이다. 북한공군은 주로 1950년대 혹은 60년대산 미그-15, 미그-17, 미그-19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 40~50대의 미그-23기가 추가되었다. 그들이 150대를 보유하고 있는 1960년대산 미그-21기는 월남전에서 미국의 F-4기에 제압당했던 바로 그것이다. 북한 전투기들은 비유도폭탄만을 투하할 수 있으며, 대공 미사일도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정교하지 못하다. 그들은 잘 훈련된 남한군이 조종하는 전천후 전투기 F-4, 1984년에 북한이 도입한 미그-23기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F-5 E/F기와 맞서 싸워야 한다. 남한 전투기들은, 특히 신형 F-16기는 많은 유도 미사일과 스마트 폭탄을 적재할 수 있으며 지상군 근접지원 능력도 있다.²⁴

미 육군에 따르면 북한공군은 장사정 능력이 없으며, 전천후 요격능력은 제한되어 있고, 병기수송 체계도 제한되어 있으며, 비행기의 주요부속품도 외국으로부터 들여와야 하고, 전투기의 대부분이 25년 이상 된 것이며, 점전 중인 지상군에 대해 공중 근접지원을 제공하지도 못한다.²⁵

(5) 지휘와 통제

북한 사령부와 야전지휘부는 빈약한 전술, 보급제한, 장기적 재래전 수행 능력의 결여 등으로 인해 당황하게 될 것이다.²⁶ 미군은 북한의 지휘통제 체계를 파괴시키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다. 미 정보기관들은 그 체계가 이미 다루기 어렵고 마이동풍격인 것이 되어버렸다고 여기고 있다.²⁷ 미군은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북한의 지휘통제 체계를 무력하게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다. 미군은 또한 남아 있는 지휘체계에 대한 압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대인무기로 가능한 한 많은 병력을 해치려 하고 있다. 이는 전 주한 미 지상군 사령관이 언급한 다음 이론에 따른 것이다. “지휘관이 없는 부대는 전사자 보다 더 부담스럽고, 무엇보다도 부담스러운 것은 부상병이다.”²⁸

(6) 핵무기의 유용성

기갑보병과 경보병에 의한 남침은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방어할 수 있다. 사실 핵무기의 제한적 사용은 북한군과 기갑부대를 분산시켜 재래식 방어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든다. 군사분석가 잭(Brian Jack)은 10년 전에 이렇게 말했다.

탱크와 같은 중요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특수장비를 갖춘 대한민국 공군은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도 핵무기에 의존할 필요 없이 잘 방어할 수 있다. 레이저 유도탄을 장착한 F-4기나 F-5기와 같은 다목적 공격기 또는 A-10기와 같은 특수목적 탱크공격기 1개 대대는 모든 표적이 일정지역에 있기만 하면 하루 동안의 활동으로 핵폭탄 1개와 맞먹는 탱크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만일 핵무기의 유효범위보다 더 넓은 지역에 표적들이 분산되어 있다면 그것들은 핵무기보다 더 우수한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²⁹

하지만 북한공군을 격퇴하기 위해 핵무기를 쓸 필요는 전혀 없는 듯하다. 1984년 당시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었던 말리 장군(Gen. Jerome Malley)은 북한의 공군력에 대한 미국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북한 비행기들이 날아오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그리 쓸모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날아올리야 하고, 우리는 그것들이 날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수도 있다. 그들이 방어하지 않을 수 없는 표적들이 있는데, 그들이 출격한다면—그것이 우리의 목표인데—우리는 그들의 상공에서 그들을 들어내버릴 것이다.”³⁰

DMZ 주변의 전장에서 북한군을 핵무기로, 특히 핵포로 공격하는 것은 남한의 방어망을 파괴하고 방사능 낙진으로 인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미군 고위지휘관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반도에서 핵무기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외과용 수술도구가 아니다. 당신 같은 뜻나기들이 어디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려 하는가? 한국인들은 병 어리가 아니다. 그들도 다음과 같이 말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달가워하지 않을 선제공격을 당신들이 감행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신들은 지령을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당신들은 병력을 표적으로 삼겠지만 그들은 모두 여기 남한에 위치하고 있을 것이다. 당신들은 자신들이 구하고자 하는 것을 다 날려버릴 것이다.³¹

더구나 인구밀집 지역 안이나 그 주변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북한 사람들보다 남한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일 수 있다. 전에 남한에 근무한 적이 있는 은퇴한 한 핵공병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들이 핵무기 중의 하나를 사용한다면, 길에는 많은 피난민들이 있을 것이고 노상에서 꼼짝 못하게 된 부대조차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 당신들 자신을 더 많이 죽이게 될 것이다.”

요약하면 핵무기는 기대와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전 한미 연합사 지상구성군 사령관 쿠쉬맨 장군은 1984년에 다음과 같이 썼다.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정책결정자들에게 미국이 지난 억제력 중 핵부문에 대해서 반복하여 언급하지 않고서도 그들의 남침의도를 훨씬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김일성과 같이 종잡을 수 없는 북한의 정치적 주장에게도 대한민국과 미국이, 핵무기 없이도 남한영토를 보위 할 수 있고 공격자를 가혹하게 응징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신되고 있다.³²

재래식 억제 대 핵억제

상대적 군사역량의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사실에 북한이 직면하게 되자, “재래식 억제가 남한에 적합한가?”라는 질문보다는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더 우월한 군사역량을 갖추었는가?”라는 질문이 더 적절하게 되었다.

보수적인 분석가들조차도 남한의 방어적 패리티와 북한에 대한 남한의 우

위가 교차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 랜드 연구소의 울프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남한이 균형을 무너뜨린다면 “그 움직임 자체가 도발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로 인해 북한의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소련이 지원을 가속화하게 될지도 모른다.”³³

북한의 남침에 대한 중국과 소련의 지원거절 가능성 때문에 북한의 군사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것 같다. 자고리아(Donald Zagoria)가 썼듯이 “소련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위험성 높은 전략은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명확하게 하여왔다.”³⁴ 1980년에 중국도 무력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³⁵

1983년 이래 소련은 근년에 들어 그 어느 때보다 북한에 더 가까이 접근하였다. 하지만 북한군 조종사들은 소련이 제공한 미그-29기를 최대능력으로 시험비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상군 근접 공중지원에 이용하기 위한 훈련도 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미 태평양 부사령관 케어른 장군(Gen. Michael Cairns)에 따르면 북한-소련의 연합 해상훈련은 양국해군 사이에 어떠한 조정도 시도되지 않은 형식적인 것이었다고 한다.³⁶

남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북한의 미덥지 않은 동맹국들과는 대조적이다. 미군은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로 계속 남한에 주둔해왔다. 전체적으로 약 4만3천 명의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들은 DMZ의 중부와 북서부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남한전역에 산재한 40개의 기지로부터 운용되고 있다. 물론 미군은 남한의 방어적 비핵역량의 일부분(남한군의 견해에 따르면 약 3%로 추정됨)만을 차지하고 있다.³⁷ 전쟁계획에 따르면 미국으로부터 40만 명 이상의 병력이 충원되어야 하지만, 미국의 국내정치는 그러한 동원을 봉쇄할 것이다.³⁸

일부 남한사람들은 바로 이 요인이 핵전으로의 확전 가능성을 높인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미국이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핵무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미국방부의 한 보고서가 1972년에 지적했듯이 “대규모 남침의 경우라 할지라도 (한반도에서) 그런 무기를 사용한다면 정치적 대가가 너무 클 것이다.”³⁹

남한인들이 종종 주장하듯이 미국이 정치적 여파를 염려하여 남한에서 정치적 재래전을 치르기를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함으

로써 정치적 대가를 자초할 것 같지도 않다. 어쨌든 남한에 있는 미 지상군이나 핵무기를 동원하는 않든간에, 미국은 팜의 전략공군 사령부와 제7함대의 항공모함으로부터 발진된 폭격기로 혹은 전함에 탑재된 순항미사일로 전쟁 초기에 북한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

(1) 게릴라 공격에 대한 취약성

북한이 재래식 전면공격 대신 간접공격을 채택하여 남한에 게릴라부대를 풀어놓는다면, 미군이 개입하기에는 적절치 않을 것이다. 남한에 있는 미군 특수부대는 극소수이고, 오키나와에 있는 육군 특수부대에는 한국어를 아는 군인이 거의 없다. 하지만 북한은 그러한 공격이 성공하리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남한사람들이 북한의 ‘사회주의 낙원’에 참여하지 못해 안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남한을 여행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명백히 알고 있다. 둘째, 남한군은 그들이 북한으로부터의 잠입자들이나 그 용의자들을 재빨리 효과적으로 추적하여 제거했다고 과시해왔다. 소위 잠입자라는 사람들이 1980년 상반기 또는 1987년 봄의 소요사태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은 이 전략으로 큰 소득을 올리기를 기대할 수는 없게 되었다.⁴⁰ 남한 특수부대는 전시에는 간첩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훨씬 더 유능할 것이고 또 냉혹할 것이다.

셋째, 게릴라가 발견된다면, 남한군은 반공테마로 국민을 단결시키는 데 필요한 적절한 구실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게릴라 작전에 의해 어떠한 피해가 행해지더라도, 북한의 군사적 수단은 그 정치적 목적을 좌절당하게 될 것이다.

군사적 ‘균형’은 군이 묘사한 것에 비해 남한에 훨씬 덜 불리한 것 같다.⁴¹ 따라서 종합적으로 보아 1972년에 나온 미 국방부 보고서의 다음과 같은 결론은 아직도 타당하다. “이제는 미국의 지상전투 개입이나 핵무기의 사용 없이 대한민국의 역량만으로도… 북한이 단독으로 저지른 공격을 저지 할 수 있다.”⁴²

(2) 정당성의 균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고삐 풀린 화력으로 한반도 같은 국한된 지역에서 전쟁을 해보지 않았기에 균형의 '진상'을 확정할 수 없다. 사기와 사회조직 같은 무형의 요소도 그러한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반대가 불가능한 북한의 '전체주의적' 체제와 비교해서 남한의 '권위주의적' 사회체계가 국내 혼란과 분열에 더 민감하다고 한다.

부분적으로는 김일성 승배를 둘러싼 선전기구에 의해 조작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에게 공평한 사회경제적 복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북한정부가 남한보다 좀더 정당성을 향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북한도 사회정치적 문제를 안고 있다. 1970년대 중반에, 주민의 21% 이상이 남한출신, 일본식 민주주의자 또는 유엔군에 부역한 사람, 이념적 실천이 빈약한 사람, 전과자, 지주/자본가계급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평가되었다.⁴³

DMZ를 따라 놓여 있는 북한의 요새가 북한의 결손자들이 남쪽으로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판문점에서는 요란스럽게 선전을 한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이 사실은 김일성이 전시에 만인의 저지에 의지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주한미군 사령관 리브시 장군은 1984년 7월 그 자신의 선전 주안점을 평가하면서 유사한 언급을 했다.

이야기를 하나 하겠다. 6월말쯤내 참모진 일부가 양구 바로 북쪽에 있는 DMZ의 편치불 지역근처에 위치한 남한육군의 관측소를 방문하고 있었다. 거대한 하얀 연기가 북쪽 산등성이 뒤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연기는 북한에서 작업할 것이 남아 있는 농토를 태우는 것이라고 한다. 남한 육군대령은 그러한 연기는 흔한 광경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북한군 병사들이 먹을 것이 충분치 못해서, 몇 가지 채소를 삼을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이렇게 거대한 산을 태운다고 설명하였다. 내 견해로는 국경을 지키는 병사를 제대로 먹일 수 없는 나라는 실제로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⁴⁴

군사분석가들은 북한정부가 지금 다가오는 김일성 승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파벌들의 노선투쟁으로 분열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1986년 11월 당시 북한 국방장관 오진우가 이끌던 친북경파는 개성과 평양

사이의 철로에서 김일성 암살을 시도했다고 한다.⁴⁵ 의심할 여지 없이 북한의 지도부는 전시에 서로 힘을 합하여 일할 것이다—남한의 지도부가 그려할 것처럼. 그러나 북한정부의 중앙집중적·전체주의적 구조가 남한과의 투쟁에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또 다른 이상한 논리는 왜곡은 연간 국민생산이 남한보다 작은 북한정부가 남한에 비해 연간 국민생산의 더 많은 부분을 군사비로 소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북한은 남한뿐 아니라 미 국방부의 힘에도 대비해야 한다.

미국의 지출을 남북한 균형에 계상하면, 북한의 지출은 매우 다르게 보인다. 예를 들어 미 육군은 남한에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1986년에 약 18억 달러를 소비하였다.⁴⁶ 서태평양에 있는 제7함대, 해병대, 공군의 유지비 약 470억 달러의 일부(약 10%)가 이 수치에 가산되어야 한다. 이것들을 합쳐볼 때 남한에 대한 연간 총 군사지원액은 60억 달러를 넘어선다—이는 1985년 남한 군사예산 총액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남한에서의 연간 한미 국방비 총액은 최소한 120억 달러에 이르게 된다—미국의 공식추계에 따르면 이 액수는 북한의 약 네 배에 해당한다.

북한사회의 거대한 전쟁노력은 정부를 지원하도록 인민들을 동원할 뿐 아니라 인민들을 가난하게 만든다. 이 사실은 더 많은 북한사람들이 여행하고 돌아올수록 그리고 북한과의 교역과 투자가 늘어날수록 인민들의 의식 속으로 파고들 것이 틀림없다. 자신들의 상대적 빈곤을 아는 가난한 인민들은 종종 정치적으로 불만을 가지게 된다. 한반도에서의 군비경쟁이 남한뿐 아니라 북한에도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양쪽편에서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거대한 생존투쟁 속에서 제거될 것이다. 그들은 어느 쪽에 대해서도 커다란 군사적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남한이 북한보다 전시에 의견분열이나 사보타지에 더 취약한 것은 아니다.

순평가(net assessment)

그러므로 전쟁을 제외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쪽도 상대방

에 대해 성공적인 공격을 가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양쪽은 사실상 제2공격용 보복군사력을 확립한 것 같다. 양쪽 모두 그들 국민으로부터 모든 정치적 정당성을 잃게 될지도 모를 정도까지 상대방이 확전할 수는 없으리라고 확신하며 공격을 감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재래식 방어와 억제가 몇몇 미국인과 많은 남한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부서지기 쉬운 것이라면, 전쟁은 미국과 남한으로 하여금 ‘대차대조표를 맞추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경우 재래식 전력으로 남한을 방어하기 위해 채택된 전략은 핵확전 잠재력으로 온통 뒤덮이게 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핵공격은 북한이 서울을 둘러싼 요새주위에 길을 열기 위해 사용할 분산된 경보병부대에 대해서는 비교적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부서지기 쉬운 그 전략은 재래식 공격에 의한 폐배를 불러올 뿐 아니라 핵공격을 실제로 쓸모없게 만든다.

그러나 재래식 방어와 억제는 양방향에서 견고할 것 같다. 핵무기나 미국의 개입은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어느 일방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다. 남북 한 어느 일방에게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충동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양쪽 모두는 이미 상대방의 재래식 전력에 의해 억제되고 있다.

재래식 방어와 억제가 강하다면—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미군장교와 많은 남한군 장교의 사적인 믿음인 것 같다—북한에 대해 핵위협을 하거나 한반도에 핵무기를 보유하더라도 추가억제를 달성할 수는 없다. 논리적으로 ‘추가억제’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일성과 그의 참모들이 재래식 전력에 의해 이미 억제된다면, 핵위협이 보다 더 그를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앞 장에서 분석한 억제에 관한 전격전 이론은 부정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래식 억제는 실패하지 않을 것 같고 핵무기의 선제사용을 감행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재래식 억제가 그 정도로 강하다면, 미군이 핵무기를 사용할 이유도 없고,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전쟁이 핵전으로 확전될 위험성도 희박하다. 하지만 9장에서 언급했던 포위이론에서처럼, 재래식 억제는 남북한의 공격의도가 아닌 다른 여러 요인에 의해 실패할 수도 있다. DMZ에서의 긴장상태는 양측의 오산·오해·속임수에서 비롯될 수 있는 돌발적 확전으로 치달릴 가

능성이 농후하다. 그러한 전쟁의 경우라 하더라도 억제가 그다지 많이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 억제는 분쟁의 진정한 동기 및 내적 역동성과 무관한 것이 될 뿐이다.

제 3부
핵 딜레마

제11장 핵전쟁 경로

아시아에서는 이러한 전면전의 위협이 훨씬 적기 때문에 핵대응을 야기하는 도발문적이 유럽에 비해서 훨씬 낮을 것이라고 아주 그럴싸하게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울프 랜드 연구소 분석가, 1964⁴

이 연구의 1부와 2부에서는 한반도에서 미 핵교리·전력·전략의 전개를 살펴보았다. 1, 2부에서는 핵시대의 첫번째 교훈—핵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이 한반도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군부의 완고한 신념이 드러났다. 또한 한국전쟁으로부터 도출되었던 두번째 역사적 교훈이 한반도와 그 너머에서 호전적 봉쇄에 전념하는 정책조류에 의해 채택되었음도 보여주었다. 이런 관점에서 핵무기는 적을 강제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또는 우방이나 동맹을 제보장하기 위하여—그러나 실제 핵공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협에 의해서—이용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는 두번째 교훈이 결코 첫번째를 대신할 수 없었다. 외교보다는 전투에 대한 육군의 선호가 한반도에 실질적인 핵영역을 구축하도록 육군을 자극했다. 육군의 조직적 이해는 그 남한측 상대와 밀접한 핵협력을 조장하는 것과 부합하였고, 핵위협과 외교보다는 핵전투 교리와 작전을 선호하였다. 북한에 의해 유발된 위기에 직면한 미 지도자들은 핵위협을 시도하는 데는 재빨랐지만, 북한에 대한 영향이라는 견지에서 빈약한 결과를 반성하는 데는 느렸다.

주한미군은 자신의 핵전투 전략이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유지와 일본에서의 보다 커다란 미국의 이해를 연결시켜주는 억제와 제보장의 근거라고 해석해왔다. 한반도에서 핵전략이 지니는 이러한 지역적 측면은 한반도에서 육군의 이해가 호전적 봉쇄를 거부하는 정책조류에 의해 위협받을 때 육군과 국무부가 연결되도록 했다. 동맹국의 안보 엘리트들과 함께, 이러한 이해

제11장 핵전쟁 경로

아시아에서는 이러한 전면전의 위협이 훨씬 적기 때문에 핵대응을 야기하는 도발문적이 유럽에 비해서 훨씬 낮을 것이라고 아주 그럴싸하게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울프 랜드 연구소 분석가, 1964¹

이 연구의 1부와 2부에서는 한반도에서 미 핵교리·전력·전략의 전개를 살펴보았다. 1, 2부에서는 핵시대의 첫번째 교훈—핵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이 한반도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군부의 완고한 신념이 드러났다. 또한 한국전쟁으로부터 도출되었된 두번째 역사적 교훈이 한반도와 그 너머에서 호전적 봉쇄에 전념하는 정책조류에 의해 채택되었음도 보여주었다. 이런 관점에서 핵무기는 적을 강제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또는 우방이나 동맹을 재보장하기 위하여—그러나 실제 핵공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협에 의해서—이용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는 두번째 교훈이 결코 첫번째를 대신할 수 없었다. 외교보다는 전투에 대한 육군의 선호가 한반도에 실질적인 핵영역을 구축하도록 육군을 자극했다. 육군의 조직적 이해는 그 남한측 상대와 밀접한 핵협력을 조장하는 것과 부합하였고, 핵위협과 외교보다는 핵전투 교리와 작전을 선호하였다. 북한에 의해 유발된 위기에 직면한 미 지도자들은 핵위협을 시도하는 데는 재빨랐지만, 북한에 대한 영향이라는 견지에서 반약한 결과를 반성하는 데는 느렸다.

주한미군은 자신의 핵전투 전략이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유지와 일본에서의 보다 커다란 미국의 이해를 연결시켜주는 억제와 재보장의 근거라고 해석해왔다. 한반도에서 핵전략이 지니는 이러한 지역적 측면은 한반도에서 육군의 이해가 호전적 봉쇄를 거부하는 정책조류에 의해 위협받을 때 육군과 국무부가 연결되도록 했다. 동맹국의 안보 엘리트들과 함께, 이러한 이해

의 결합은 반대 정책조류를 밀어젖혔다.

한미 핵통합의 냉혹한 전율과 평양을 겨냥한 핵공격 가능한 전력의 수시 위협과서는 미국의 거대한 구상의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워싱턴에 있는 정치 사령부의 위기 지향적인 임기응변식 고려와 육군과 남한의 긴밀한 핵연결에 대한 의회의 감시실패가 정책을 지배해왔다.

결국 미 전략사회로서는 한반도가 사실상 맹점인 셈이다. 전 국방부 원자력과장은 핵전략에 관한 책으로 서가를 가득 채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뷰하면서 다음과 같이 시인했다. “나는 한반도에 대해 생각하는 데 내 시간의 0.5%밖에 쓰지 않았다.”²

이 장에서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가능한가에 대해 분석한다. 이 장에서는 한반도가 전면적인 핵전쟁 발발의 접두지가 되기 전에 세 단계가 취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첫째 남북한 전쟁의 발발, 둘째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무기 선제사용, 셋째 그 뒤를 이은 확전. 남북한간의 전쟁을 이끌 수 있는 불안정을 각각의 지정학적 환경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다음 두 단계, 즉 미국의 선제사용과 대규모 핵전쟁으로의 확산은 다음 장에서 분석될 것이다.

핵위기로부터

어느 누구도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의 위험에 대해 알지 못한다. 이런 무리는 핵 수수께끼이다. 핵무기가 사용될 수 없는 한 그 위험은 정의될 수 있다. 핵무기가 전쟁에서 폭발한다면 그 위험에 대한 개념은 무의미할 것이다. 위험은 두 가지 요소, 즉 비용과 그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probability)로 구성된 개념적 등식이다. 분석가들은 핵전쟁과 관련된 비용의 범위에 대해 논쟁한다. 그러나 그것의 영향이 아주 크고, 인간의 전지에서 볼 때 전적으로 무한하다(절멸)는 것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분석에서 다루기 힘든 것은 핵전쟁의 위험을 평가하는 개념성 요소 ‘위험’과 ‘위험관리’에 관한 위로의 말은 전략가들에게 그들이 핵전쟁 ‘사악한 사건’을 제어해왔음을 확신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그런 류의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은 사령관들에게 그들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사실 그들은 그릇된 구체성이 놓은 오류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 핵전쟁이 현실이라기보다 개념으로서 계발적 장치에 머무르는 한, 분석가들은 결국 핵전쟁에 대한 관찰빈도에 의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망성에 대한 그들의 평가는 본질상 주관적이다. 더구나 만약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오직 한 번만 일어날 것이다. 단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가망성’이란 개념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만약 고려하고 있는 것이 다리의 붕괴나 우주적 사건처럼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라면, 핵위협이라는 개념은 형이상학적인 시각에서만 흥미로울 것이다. 핵전략가들은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혹은 전략적 이론보다는 세속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정책을 제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정치가들에게 무시당하는, 핵파리독스(역설)의 수호자일 수 있다. 그들은 미시의 끝에 얼마나 많은 탄두를 달 수 있을 것인가를 논쟁하느라고 자신들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

불행하게도 근대의 형이상학자들로서—또는 카플란(Fred Kaplan)의 유명한 구절에서처럼 아마겟돈의 마법사로서—그들의 신념과 인식은 정치적 위기 이전에 또 위기중에 이루어진 결정에 필수적이다. 그들과 그들의 정치적 교양주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느끼는 한, 세계는 좀더 위험한 곳이 된다.

대진 가능성까지

내로 핵전쟁의 ‘가능성’(possibility)은 주관적인 가망성 평가로 격하시킬 수 없는 전략적인 사실 속에 존재한다. 핵분석가는 맹인들이 복잡한 길 데리는 것처럼 전략적인 전망을 들러싸고 직관적으로 더듬어나간다. 길 데리고 흐름에 주의깊게 귀를 기울임으로써, 그들은 건너야 할 길의 포장재한 ‘해석’을 얻는다. 주의깊게 들음으로써, 그들은 지나치는 교통량의 차로부터 교통량의 방향과 리듬을 구별할 수 있다. 그들은 앞으로 가로등 규칙하지 않는 시험적 침략으로 길의 형태를 인식할 수도 있다.

소리·바람·냄새에 대한 이론 이전에 있는 그대로에 대한 이해는 위험·안전·불확실을 내포하는 상징을 제시한다. 결국 맹인은 길을 가로질러 가기 위해 그것을 신중하게 판단한다.

그러나 위험한 유형이 백색소음 속에서 인식되지 않은 채, 이해의 한계 너머에 숨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는 치명적인 것일 수 있다.

형이상학자가 보기에 분석가는 위험을 구성하는 핵위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맹인으로 취급하면, 분석가의 무지는 재앙을 숨기거나 부당한 확신을 증진시킴으로써 위험을 '창출'한다. 객관적으로 치명적인 상황 속에서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인식으로 인해 핵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안하는 분석가는 핵전력의 정치적 사령관들에게 '최악의 조언자임'이 분명하다. 불행하게도 한반도가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핵전경로

핵전쟁 가망성이 배제된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갈등의 확전 잠재력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앨리슨(Graham Allison), 나이(Joseph Nye), 칸세일(Albert Carnesale)은 다섯 개의 전면적 핵출정경로—우연적 또는 허가받지 않은 사용, 기습공격, 위기시 선제공격, 제3자가 촉매하는 전쟁, 재래식 전쟁으로부터의 확전—가 그럴싸하다고 제시한다. 그들은 핵무장 국가가 이 경로들 중에서 하나 이상을 택할 수 있고, 한 경로에서 또 다른 경로로 가로지를 수도 있다고 단언한다.³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특수한 맥락에서 하나하나 고려해볼 때, 각각의 경로는 거의 가능성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누구도 확실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어떤 경로도 무시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미래는 종종 과거보다 낯선 법이다.

같은 방식으로 악수 같은 비는 가뭄으로 황폐했던 평원을 범람시킨 후에 땅 속으로 스며든다. 이러한 이치에서 보면, 똑같은 물이 조그만 틈으로 나아가 수로 속으로 스며들고 작은 내를 세차게 훌려 거센 강물로 흘러들어가고, 그 강은 또 다른 강과 만나 결국 그 앞에 서 있는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격류를 형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기상학자들조차 언제 비가 내릴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순간적인 홍수를 정확히 예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정말로 무모한 사람이다.

이 경로들 중의 어느 하나나 또는 그 결합이 주어진 상황에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주어진 가상 핵전쟁에 대해 그 위험 정도를 결정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실한지, 가능한지, 혹은 불가능한지의 여부를 알아야만 할 것이다.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을 평가하는 것만큼이나 주관적이다. 하지만 한 사건이 그저 가능한가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은 가망성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적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

반대로 가망성 평가가 애매한 개념상태일 때, 드물지만 큰 위협이 그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럴싸하게 정확한 주장이라고는 할 수 없다. '위험'과 '위험관리'에 대한 모호한 언급과는 달리, '가능성론자'(possibilist)들의 방법은 그 평가에 고유한 불확실성을 덮어버릴 수 없다.

어떤 분석가도 핵무기가 개입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예견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위험에 대해 아무도 모르고 또한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가능성에 관한 판단은 불완전할 뿐 아니라 이견이 많다. 불가피하게 가능성에 대한 많은 척도들은 모호한 상태이며, 그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존재한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경로의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무한한 핵전쟁의 비용이 이러한 판단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과물어버린다. 그러한 경우에 핵무기를 통제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경로를 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군사적 지름길을 찾아서 핵전쟁으로 이끄는 경로를 탐험해서는 안된다.

금세기에 실패했던 혹은 존재하지 않았던 군사적 억제의 긴 목록은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싸운 국지전이 핵출정로 중에서 가장 우려할 만한 경로임을 시사한다. 레보우(Richard Lebow)는 심각한 국내 정치적 문제로 고통을 겪는 정부가 개입된 분쟁은 강인한 이미지를 단적으로 보이거나 국내의 반대를 분산시키거나 억누르기 위하여 결국 남성적인(macho) 외교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폭발하기 쉬운 지역

은 그런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정부가 포함된 곳—제1차 세계대전을 향해 차츰차츰 나아가던 시대의 유럽이나 오늘날의 한반도처럼—이다.⁴

지난 수십 년 동안 재래식으로 무장한 3대강국 전력간의 지역갈등은 너무 나도 있음직한 일이었다. 최근에는 미국·소련·중국 등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강국간의 직접적 재래식 전쟁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갈등은 없다.

오늘날 세계에는 많은 지역갈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오직 몇 개만이 핵전쟁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 몇 개의 지점에서—그리고 해상에서—미국의 핵혜게모니에 특유한 핵무기의 전진배치 및 핵동맹, 기지, 전술핵무기, 관련된 지휘통제체계에서의 그 구현이 재래식 출정로를 핵전쟁으로 이끄는 경로와의 교차로로 이끈다. 한반도에서의 갈등을 들러싸고 북한과 그 동맹국에 대해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은 오로지 핵억제가 서울까지 확대되었고 핵무기가 이 임무를 지지하기 위해 배치되었기 때문에 생겨난다.

따라서 핵전 잠재력은 세 가지 분석요소로 세분되고, 각각의 단계는 전면적 핵전쟁을 향하는 경로 위에 놓여 있게 된다. 각각은 한반도와 같은 특수지점에 관해 답해야 하는 질문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재래식 전쟁은 가능한가? 다음으로 그런 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선제사용’이 전면적 핵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가?

차차 명백해지겠지만 한반도에서 이 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엘리슨과 그의 동료들이 제안하는 것처럼, 한 가지 경로를 면하려고 취한 행위가 또 다른 경로로 이끌 수도 있다.⁵

미국의 정책입안가들은 한반도에서 양면성을 지닌 핵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만약 미국의 핵공격 가능한 전력이 남한에서 철수한다면 한쪽 또는 양쪽의 한국은 국산 핵폭탄을 생산할지도 모른다(13장과 14장의 주제). 만약 그들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다면, 한반도에서 전쟁과 핵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른다.

1단계: 재래식 전쟁과 지정학적 불안정

미군과 수도 서울에 대한 북한의 성공적인 공격에 대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반도에서 미 핵무기의 선제사용을 상상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북한의 자극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향한 첫 단계인 재래식 전쟁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 장에서는 한미연합 핵위협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을 평가했다. 이러한 위협은 남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기도하는 북한의 성향에 관한 중요하고 일차적인 결정요소인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인식은 DMZ 남쪽의 시각에서 유래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의 한 기능이기도 하다. 물론 똑같은 것이 남한에도 적용되어, 위기시 남한의 위협인식이 북한의 그것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이 장은 이러한 대외안보 환경의 전개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이 장에서는 한반도에서 초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그 각각의 고객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그들의 능력을 명백히 보여줄 것이다.

그 다음 단락에서는 제2차냉전이 북한의 상대적인 고립과 불안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기술한다. 이러한 고립은 한미 핵위협에 관한 평양의 편집증과 결합하여 핵전쟁으로 가는 경로의 첫번째 단계인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초래한다. 두번째와 세번째 단계로의 연속적인 핵전 가능성은 다음 장에서 다루어지는데, 한반도에서의 선제사용이 중국과 소련의 한반도에 대한 개입이나 북태평양 근해에서의 미·소 정면대결—치명적인 세번째 단계—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강대국 관계와 한반도의 불안정

한반도의 혼란문제들의 대부분은 제2차대전 말엽에 한반도가 강대국 경쟁의 십자포화에 간접으로써 유래된 것일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내부와 그 주변의 지정학적 환경은 복잡하다.

한반도에서 남북한간의 대치상태는 적어도 다섯 개의 충돌적 안보노선과

여섯 개의 협력적 안보노선 혹은 동맹으로 묶여 있다. 소련은 중국·일본·남한과 충돌한다; 남한은 중국과 충돌한다; 북한은 미국과(그리고 일본과도 그렇다고 몇몇은 말한다) 충돌한다. 미국은 남한·일본 그리고 사실상 중국과 협력한다; 중국은 미국·일본·북한과 협력한다; 그리고 소련은 북한과 협력한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역적 및 전세계적 강대국 관계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한반도의 대외안보 환경이 종종 극적으로 내부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1) 6개국체계의 전개

오늘날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뿐 아니라 소련·일본·중국·미국을 포함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6개국체계의 일부이다. 두 개의 한국은 두 개의 강대국 동맹과 두 개의 강대국 적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중국·소련과 동맹하고 있고, 미국 그리고 간접적으로 일본과는 적대적이다. 남한은 그 반대이다.

제2차대전 직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한반도에서 소련과 중국에 적대적인 자세를 취했고 이러한 대치상태는 한국전쟁을 초래했다.

두 초강대국이 핵난국에 사로잡혀 있었으므로 1953년부터 1960년대말까지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기였다. 강대국 연합내에서 동맹이 끝까지 고수되었을 뿐더러 미국과 소련은 북쪽과 남쪽에 있는 각자의 고객들에게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했다. 양극체제의 대칭적인 반대는 한반도를 적극적인 강대국 경쟁기지로 실질적으로 중립화시켰고, 관계는 단단히 얼어붙었다.⁶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중국이 소련과 단절하여 독자적 핵전력을 개발하고 미국쪽으로 돌아섰던 1960년대말에 이르러 크게 변화하게 된다. 전략핵역량은 아시아에서 거대한 인구와 국토 및 장구한 제국의 역사를 가진, 중국을 지역 강대국의 지위에 올려놓았다. 중국과 미국이 안보문제에 대해 제휴한 이래, 중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2) 강대국 삼각체제

이러한 6개국체계는 지금 초강대국 양극체제(dupopoly)가 아닌 강대국 삼각체제와 겹친다. 이러한 3극관계에서 미국은 소련을 주된 도전자로 간주한다. 베트남이 미국의 힘의 한계를 노출시켰을 때, 미국은 재빨리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게 하기 위한 전략외교를 펴다. 미국은 1978년 마침내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소련에 대해 중국 카드를 ‘행사했다.’ 미국은 지금 중국과 소련으로 하여금 미국의 호의를 얻기 위해 경쟁하게 만드는 ‘행복한’ 위치에 존재함으로써 삼각체제에서 가장 강력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 결과 1978년 이후 태평양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다시 일어서고 있다.

미국의 핵력과 세계적인 영향력—소련의 두번째 적인 중국과의 협력적 안보관계를 포함해—때문에 소련은 미국을 일차적인 적으로 간주한다. 아시아에서 정치적·이념적·경제적 영향력을 잊은 채, 소련은 경쟁자 미국에 필적하기 위해 일방적인 군비증강, 안보동맹, 무기이전 형태의 군사력에 의지해왔다.

중국의 강대국으로의 부상은 1964년 그 첫번째 핵실험으로 예고되었다. 소련의 수정주의 및 1950년 북한, 1958년 대만해협 위기시 중국, 1962년 쿠바에 대한 소련의 마지 못한 방어에 놀라 중국은 소련과 관계를 끊었다. 극동의 중소국경에서 예전의 동맹국이 핵로켓으로 중국을 위협했던 1968년 이래, 중국은 소련을 일차적 위협으로 간주해왔다.⁷

전략적 평판, 특히 제2공격용 핵전력이 부족한 중국은 세 강국 중 가장 약하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의 비공식적 안보공약을 얻기 위해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또한 북쪽국경을 따라 늘어선 소련세력에 대한 평형력으로써 태평양에 있는 미 동맹국들을 지원하고 있다.

(3) 쇠퇴하는 외부 영향력

더구나 두 개의 한국 내부의 경제적·정치적 발전이 그 지역에서 국가간 관계의 복잡하고 유동적인 성질에 첨가되었다. 남북한의 빠른 성장과 산업화는 무역을 증가시켰고, 남한의 경우는 다른 태평양 국가들과의 투자 및 재

정연결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중대된 경제적 상호의존은 그들의 강대국 후원자에 대한 두 개의 한국의 종속을 감소시켰다. 또한 그것은 남북한에 대한 강대국의 통제도 감소시켰다.

1970년대 말 남한이 미국의 반소전략에 편입됨에 따라 서울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약화되었다. 그 때까지는, 미군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남한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정해진 해석이었다. 미국의 정책입안가들이 공공연히 이 입장을 고수하는 동안, 1980년대에 남한이 좀 더 광범위한 미국의 지역전략내에 편입된 것이 확실해졌다. 워싱턴은 공개적으로 이 사실을 시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남한의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서울정부에 대한 저항을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평양에서 소련의 영향력은 중소분열에 의해 침식당했는데, 그것은 북한의 동맹체계를 분열시켰고 북한의 자력갱생을 고무시켰다. 소련과 중국의 미국을 향한, 더 중요하게는 남한을 향한 최근 움직임은 북한-중국 관계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고 북한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4) 피뢰침

여전히 세계적인 삼각체계 속에서의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국·소련·미국이 한반도와 어떻게 결부되는지를 지배한다. 삼각체계에서 계속되는 긴장으로 인해 한반도는 강대국에게 이익을 위한 기회가 아닌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반대로 강대국들은 적의 동맹국들을 끌어들이리란 두려움 때문에 어느 쪽도 상대방을 공격할 수 없도록 확실히 하기 위하여 삼각체계적인 고려에 의지 한다. 간단히 말하면 그들은 한반도가 그 지역에서 강대국 갈등에 대한 피뢰침이 되었음을 깨닫고 있는 것이다.⁸

강대국들은 강대국 수준에서 경쟁과 갈등해결에 대한 무언의 규칙을 밝히려고 노력해온 반면, 이 체계를 지역문제로까지 확대시키지는 않았다. 결국 1986년 중거리핵전력(INF) 협정을 제외하면, 실제로 아시아에 관련된 군비통제협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쌍무적 협상은 계쳐놓고, 강대국들이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지역외교 메커니즘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다.

한반도에 대한 강대국의 정책

1945년 이후 미국의 안보관리들은 한반도를 주로 소련과의 세계적인 경쟁의 마당으로 간주하였다. 오늘날 그들은 미국과 일본·중국과의 지역적 관계와 강대국 삼각체계에서의 미국의 위치에 미치는 한반도의 영향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⁹ 미국과 중국·소련과의 관계는 두 공산국 사이의 관계보다 훨씬 갈등적이므로, 미국은 이 삼각형의 추축이 된다.

(1) 철의 삼각형

그래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행동의 자유를 가지고 남한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두 개의 안보 삼각형을 지역수준에서 만들었다. 첫번째 삼각형은 미중·미일 안보관계라는 잘 발달된 두 개의 변화, 중일의 경제관계와 최소한의 비공식적 안보협력(전망과 정보의 교환)에 의지하는 세번째 변으로 구성된다. 이 삼각형은 아시아에서 소련의 영향력에 대한 주요 장애물이다. 비공식적인 협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삼각형은 1978년 이후 동북아시아 지정학의 두드러진 양상이었다.¹⁰

두번째 삼각형은 한미·미일 안보관계에 의해 만들어졌고, 1979년 이후 한일 안보협력이라는 취약한 세번째 변에 의해 보충되었으며, 미국에 의해 조정된다. 미일 안보동맹이 두 삼각형 사이의 공통 빗변을 이름으로써, 일본과 중국의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이 미국의 동맹국인 남한의 운명에 연결된다.

따라서 일본과 남한에서, 미국의 핵 혜택모니는 나토에서와는 다른 형태를 취해왔다. 군사교리과 배치에 대해 협의를 받으며, 주재국의 영토 위에서 혹은 그 곳으로부터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거부권을 가지며,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을 공유—나토에서 미국의 핵전력에 대해 동맹국들이 지닌 목적의 주요특징들—하려 하기보다 일본은 그러한 개입을 막설여 왔다. 한편 남한은 미국으로부터 그러한 양보를 받을 수 없었다. 일본에서 미국의 핵혜택모니는 제도적으로 약하고 이념적으로 깨지기 쉬운 상태로 남아 있다. 미국의 핵전력과 남한군의 통합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고, 핵혜택모니의 이념적인 측면은 매우 짙은 엘리트 층에 제한되어 있다.

더욱이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남한·일본 군사력으로 이루어지는 철

의 삼각형 주위에 다면적인 제도적 틀을 창출할 수 없었다. 일본이 남한을 군사적으로 지배하게 될지 모른다는 사소한 암시만 있어도 한국의 좌우익으로부터 즉각적인 반감이 야기된다. 남한이 군사적 선봉에 나선 것에 대해 일본이 무임승차한 대가로 수십억 달러의 양도차관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남한을 도쿄에서는 견방진 용으로 간주한다. 사소한 정보의 공유, 몇몇 전함의 방문 그리고 몇몇 요원의 교환을 별문제로 하면, 남한군과 일본군의 통합은 존재하지 않는다.¹¹

미국은 이 대립을 조정하고, 일본이 남한의 요구에 순응하도록 고무시켜 왔다. 더 중요하게 1980년대초, 미국은 일본과 남한 사이의 공개적 안보연계를 추구하였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확인되자 미국은 사실상의 통합을 이루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미 태평양 공군은 이미 동북아시아 영공의 방어를 통합된 실체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동북아시아에서 군사통신체계는 지역체계로 운영되는데, 그 중추는 일본에서 남한까지에 걸쳐 있고 지역토대 위에서 관리된다.¹²

이러한 목적을 위해 미군은 군사통신의 호환성(interoperability, 또는 장비와 절차의 일치성)을 달성하는 데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¹³ 그러나 한미일 군사통신체계의 완전한 통합은 여전히 불완전하다. 그 적지 않은 이유는 일본의 각 군이 미국과는 말할 것도 없고 상호간에도 통신기준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 군사통신체계는 군사체계의 ‘비밀스러운’ 지역통합이 그 정치적 함축이 인지되기 전에 상당히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상 미국이 지향하는 군사적 통합은 집단 안보조직이라는 정치적·이념적 골칫거리를 피하면서 정치적 통합을 대체한다. 하와이에 있는 보수적인 두뇌집단 폐시픽 포럼(Pacific Forum)의 책임자인 헤이워드 제독(Adm Thomas Hayward)은 1983년 그 점을 강조하였다. “군사체계에 대한 우리의 통신 및 정보] 개념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¹⁴

미국이 이러한 명령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지역갈등이 태평양에서의 대핵혜게모니의 완전한 제도화를 막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와 유사한 이유

문에, 미국은 비공식적인 안보 삼각형에서 중국과 일본을 연결시켰고, 강대국·삼각형과 남한·미국·일본 간의 비공식적인 안보 삼각형 사이에서 공통Brit 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제휴는 제도화·정당화는 고사하고 공공연히 언급될 수도 없다.

(2) 일본의 영향

전세계적 강대국 관계가 전략핵무기를 주류로 하는 삼각체제를 유지하는 동안 일본은 경제적으로 초강대국이 되었다.¹⁵ 일본의 경제적 비중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볼 때, 지역강대국 관계는 1970년대초 이후 삼각체제라기보다는 사각체제가 되었다.¹⁶

강대국 균형에 대한 일본의 영향은 중국·소련극동지역·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에 투자할 수 있고 여섯 국가 모두와 경쟁적으로 무역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에서부터 나온다. 간단히 말해서 어느 누구도 우방 또는 적을 경제적으로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일본의 능력과 보이지 않는 일본의 군사적 잠재력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세 강대국들은 자국을 위해 일본의 경제력을 얻으려고 하거나 다른 국가가 이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중요한 균형요인인 일본에서의 영향력을 위해 싸우고 있다.

그러나 전략적인 관점에서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비교적 수동적인 행위자로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일본정부가 미국과의 동맹을 자국의 안보전략의 중심으로 간주한 이래, 미국의 관심은 일본의 외교정책을 좌우하는 데 놓이게 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초 일본은 북한과 남한으로부터 등거리 정책을 추구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으로 하여금 북한에 비해 남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이 남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1965년에 시작되었다. 그것은 1969년 닉슨-사토 공동선언에서 구체화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남한이 일본의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선언되었다. 그것은 일본이 거의 드러내놓고 남한의 방어비용에 분담금조로 양도차관을 제공했던 1983년에 가속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은 남한의 안보에 결정적으로 관련되게 되었다.¹⁷ 그러나 일본은 남한의 본질적인 중요성 때문이 아니라 미일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위치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북한·소련·중국이 미국과 전

쟁을 하게 될 경우에 그들의 공격표적이 될 수 있는 주일 미 병참기지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에 일본을 노출시키고 있다.

남한에게는 유감스럽게도 일본이 북한과의 통신채널을 열어두려고 고집을 부린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인 관계는 남한에게 적간접적인 이익이 된다. 특히 미국의 세력권내에서 부상하고 있는 일본의 힘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편을 들거나 중국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 일본의 영향력에 의지하는데, 그럼으로써 강대국 삼각체제에서 미국에 대해 소련 카드를 쓰려는 중국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 동일한 요소가 북한과 일본의 관계에서도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일본은 (북한이 지불하는 한)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로부터 정치적 관계를 분리시킨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남한에 비해 큰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동맹국의 어느 한쪽에 대해서 '일본 카드'를 쓸 수 없다.

전반적으로 일본은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도록 강대국을 유도하는 데 거의 역할을 못하고 중국보다도 더 현상황을 선호하는 반면, 일본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한국과 4대 강대국의 교차접촉이라는 비공식적 과정을 지지하는 데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남한의 안보환경

따라서 피로와 과도한 화장에 따른 의심스러운 신뢰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거대한 전략은 남한에 대해서 1970년대 중반에 직면했던 것보다 더 온화한 국제적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물론 마찰도 있었다—일부 남한사람들은 남한이 일본에 종속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미국의 세계적인 반소전략이 북한에게 새로운 남침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개 한미동맹 안에서의 논쟁은 남한의 국 내정치적 문제나 전체동맹에 주변적인 문제—미국의 무기제조업자를 짐작하거나 무역마찰을 초래하는 남한의 무기수출 같은 문제—에 대한 미국의 반대로 축소되어왔다.

불행하게도 동북아시아의 강대국 관계 위로 떠오르는 새로운 여명은 한반도에서 남북의 적대감이라는 왜곡된 렌즈에 의해 여전히 굴절되고 있다. 그

에 따라 강대국 삼각체제에서 중국이 미국으로 기운 것이 한반도의 긴장을 줄이기는커녕 역설적으로 한반도에서 초강대국의 경쟁을 증가시켰다.

긴장을 풀기는커녕, 남한은 북한에 대해 호전적인 자세를 계속 취해왔고, 여전히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두려움과 의심을 품고 있다. 한편으로 서울에 있는 국가안보엘리트들은 북에 대한 위협이 줄지 않는 것을 인정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미군이 부시 대통령하에서도 남한에 계속 남을 것이라는 미국의 보증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다. 국제환경의 온화한 경향—중국·소련과의 접촉을 포함한—은 서울의 국가안보엘리트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좀더 확신하게 만들며 동시에 그들을 매우 불안하게 만든다—북한에 대해 안심하는 이미지는 거의 없다.

소련의 이해관계

한반도가 중요한 전략핵시설 및 소련 국동지역과 동해에서의 작전지역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소련은 한반도에서 미국보다 더 위태로운 처지에 있다. 하지만 소련은 또한 여섯 지역 행위자들 중 넷과 갈등관계에 있기 때문에 강대국의 한반도 정치에서 가장 발언권이 적다.

미·소, 중국·북한 관계가 극적으로 악화되었을 때인 1983년-KAL 007기 피격, 그러니까 침공, 랑군 폭파사건이 있었던 해—소련과 북한은 그들의 군사적 관계를 강화했다. 그러나 소련이 동북아시아라는 혼란한 바다에서 더 큰 고기를 뉘기 위한 미끼로 자신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북한의 의심 때문에 북한에 대한 소련의 지원은 제한적이다. 1970년대에 인도차이나를 제외한 아시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에 대한 강대국의 협조에서도 거의 축출된 상태에 놓였던 소련은,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반대편을 지지하기 때문에 미중 안보제휴를 맺 목적으로 북한에 군사카드를 썼던 것처럼 보인다.¹⁸

그러나 그 움직임은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 중국은 등거리 수사어를 채택하면서도 1983년 이후 미국에 더 가까워졌고 이는 1989년 빼이징 대학살에 의한 미중관계의 손상에서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소련은 강대국과 지역적 강국의 관계에서 비교적 고립된 당사자로서, 다른 강대국들이 생각해낸 한반도문제 해결안에 대해 거부권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이중관경

중국은 아마 미국이나 소련보다 한반도에서 더 위태로울 것이다. 한반도는 중국의 산업화된 민주의 심장지대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중국은 소련이 그 곳을 포위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에서 강대국의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은 것을 잃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남북전쟁은 중국과 미국과의 안보관계를 파괴하면서 중국을 적대적인 두 개의 초강대국 사이에 놓인 가장 약한 강대국으로 남겨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건은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강압과 소련의 협박에 극도로 취약해지는 진짜 이중관경에 처하게 만든다.

또한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소련보다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 중국은 중소분쟁에서 약자에 속하고 북한에서 소련이 반중국적 전략접근을 증가시키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소련의 군사기술이나 경제원조를 따라갈 수 없다. 소련이 북한에서 쉽게 주가를 올리게 됨에 따라 소련에 대해 미국이 압력을 가함으로써 얻어지는 중국의 이익도 결국 북한의 상실로 상쇄되므로, 중국은 미국과 남한쪽으로 기울어짐으로써 소련에 비해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도 없다. 소련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 북한쪽으로 기우는 것은 미국이 이미 중국을 한반도에서의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 중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이 북한에서 소련에 대항하여 움직이는 것은 미국인들에게는 미국의 원조가 있건 없건간에 중국의 이기주의로 간주되며 따라서 어떠한 보상도 할 가치가 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1970년대말 이후 중국은 남한에 있는 미군을 공격하는 것을 자제해왔고 더 이상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지도 않았다.¹⁹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해 중국이 소련보다 억제를 덜하기 때문에—소련보다 훨씬 믿을 수 없는 핵보복전력을 가지고 있기에—중국과의 동맹은 소련과의 동맹

보다 군사적으로 북한에 덜 유용하다. 한편 중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소련에 대한 그들의 군사적 의존과 균형을 이를 수 있도록 미국과 외교접촉을 펼칠 채널을 북한에 제공할 수 있다.²⁰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 통합으로써 얻어질 것이 있을 때 북한에게 이 채널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1983년경 북한이 이런 외교적 선택에 그다지 가치를 두고 있지 않음이 명백해졌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방향을 돌렸고 소련군첩보기가 북한영공을 통과하여 중국을 향하는 것을 허락했다. 이런 움직임은 중소 군사갈등에서 북한의 중립주의를 깼다. 그 해의 랑군 폭파사건은 당시 미국에 대해 북한의 삼자회담 제의를 전달하고 있던 중국의 면전을 강타한 것이었다.

북한의 불안정

북한은 1961년 이래 소련·중국과 따로따로 맺은 안보동맹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1969년 공공연한 중소갈등은 북한의 두 외부 지원자들을 벼이 이미 붕괴된 채 흔들리고 있는 A자 모양의 지붕처럼 보이게 했다. 그 분열은 북한을 독립적으로 만들었고, 군사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 대규모 군비팽창에 착수하도록 강요했다.²¹

중국이 자기의 원수인 미국과 포옹하는 상황에 직면한 북한은 반미투쟁을 폐기하고 남한과 화해하고 반소진영에 참가하거나 아니면 소련과 결정적으로 동맹을 이루어야 했다. 미국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남한은 군사적 우위를 이루었다는 북한의 인식이 이러한 변화를 재촉하였다.

1983년에 그가 얼마나 많은 가교를 불태워버렸는지를 생각하면서, 수정주의 눈보라가 이미 중국접경 위에 내리고 있는 오늘날 김일성은 고르바초프의 반스탈린 개혁운동 광경에 떨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김일성이 1986년 12월에 북한 인민들에게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자본주의와 수정주의의 이념적인 독소에 대해 경계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 어느 누구도 그가 남한을 치명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²²

북한은 이미 두 동맹국이 남한과 교차접촉을 개시한 것을 지켜보고 있었

다. 이는 1973년 소련, 1974년 중국을 시작으로 1988년 올림픽 경기에 소련과 중국이 참가하고 그 여파로 남한과 공산국 사이에 급속한 무역접촉이 이루어짐에 따라 절정에 달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의 동맹국들을 잠식하려는 남한의 측면외교를 통해 촉진되었다.

미국과 소련이 대화논조로 돌아감에 따라, 강대국 관계의 경향은 과거보다 더 큰 북한의 고립과 불안-남한이 직면한 국제적 상황과는 정반대—을 예고한다.

미국의 몇몇 민간 전략가들은 소련과 중국이 여전히 북한에 대해 핵억제를 확대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보장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북한의 지도자들은 미국의 핵무기 사용이 억제되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그 전략가들은 인정하고 있다.²³ 이 논리에 의하면 북한은 미국의 선제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억제가 믿을 만하다고 결론짓고 있는 것이다.

이 논리의 문제점은 그것이 양쪽을 베는 양날을 가진 칼이라는 점이다. 북한사람들이 남쪽으로부터의 한미 연합공격이 임박해 있다고 두려워하고 또한 자기들의 동맹국이 그것을 막기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들은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어전략은 대규모 선제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공세적 억제를 채택하는 것뿐이라고 결론 내리게 될 것이다.

이 분석으로부터 남한이 동북아시아에서 대외적·지정학적 환경의 추세에 의해 재보장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진다. 그 효과는 초강대국 블록의 와해와 관련된 일반적인 유대완화와 급속한 재배열에 연관된 불확실성에 의해 상쇄될 것이다.

동일한 결론이 북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처지는 군사력이라는 비참한 전망에 직면해 있다: 자신의 적인 남한과 주요동맹국인 중국에 대한 미국의 활발한 안보공약,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소련과 북한 최대의 적인 남한간의 접촉; 북한이 노골적으로 불신하고 있는 동맹국 소련에 대한 의존.

따라서 평양의 지정학적 환경이 남한에 대한 북한의 모험주의를 제한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솔한 일이 될 것이다. 오히려 고립이 평양의 편

집중을 조장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앞 장에서는 핵위협이 북한의 공세적 의도를 억제하기보다 북한의 열망을 더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북한의 통치엘리트 내부의 분열은 미국과 남한에 대한 도발을 이끌 수도 있다.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잔존하는 공격충동과 결합해서, 국내적 분열에 의해 유발되든 남쪽의 위협과 외부의 고립으로부터 야기되는 편집증에 의해 유발되든간에, 핵전쟁으로 가는 경로의 첫단계인 북한의 선제공격은 도외시될 수 없다. 두번째 단계인 미국의 선제사용은 어떠한가?

제12장 선제사용

나는 사람에게 발포하는 것을 유일한 임무로 하는 DMZ에서의
매복과 순찰에 매일 밤낮으로 사람들을 파견하는 유일한 사단장
이다.

—킹스톤 장군(Gen Robert Kingston), 제2사단장, 1980¹

논리적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두 개의 시나리오
-전술적 전장공격(tactical battlefield attack)과 결정적 후방공격-가 있다.
물론 남북한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가 달리 상상할 수 있는 핵전쟁에 휩
쓸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소간의 전면적 세계핵전쟁의 경우, 두 초강대
국 중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가 보복조치로 한반도에 있는 적의 동맹
국을 폐괴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한전’(즉 국지전)의 경우, 한 초강대국은
한반도에 있는 경쟁상대의 동맹국에 대해 일종의 ‘경고사격’으로 핵무기를
사용해 공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초강대국간의 장기적이지만 제한적인 세계전쟁의 경우, 한 초강대
국은 한반도에 있는 적의 동맹국에게 핵공격을 함으로써 상대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후자의 시나리오의 변형으로서, 한 초강대국은 다른 초
강대국의 전력을 둑어놓기 위하여 ‘자신의’ 한반도 동맹국을 상대에 대해
풀어놓을 수 있을 것이다—제1기 레이건 행정부가 선호하던 시나리오.

많은 한국인들은 한반도 밖에서 시작된 초강대국 갈등의 십자포화 속에
휩쓸리게 될 상황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지만, 이 장에서는 한반도에서
부터 시작되는 핵전쟁만을 다룰 것이다.²

전장공격

전장공격 시나리오를 보면, 미국의 핵무기는 북한의 공격을 좌절시키고 전방전투 지역에서 주도권을 되찾는다. 또 이러한 '제한' 핵공격은 평양·모스크바·빼이징에 대한 경고사격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의 공격이 공세적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미군은 자기의 핵보복을 '방어적인' 것으로 묘사하려 할 것이다. 핵무기가 DMZ 남쪽이나 그리 멀지 않은 북쪽에서 폭발할 경우, 미국은 이러한 핵무기 사용이 용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려 들 것이다.

미군 사령관들 또한 한반도에서는 유럽에 비해 훨씬 빨리 핵전쟁으로의 확전에 대한 승인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처럼 빠른 진전은 전쟁이 재개되면 미국이 자동개입하도록 하기 위해 제2보병사단이 고의로 '안전하지 않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주한미군 사령관 베시는 1977년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우리가 가진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남한을 방어하고 저항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발표하기 전에 위성턴을 부르지 않을 것임을 나는 여러분에게 확실히 한다. …나는 대통령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북한이 공격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방공체계에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첫번째 공격수단이 항공기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항공기를 격추시킬 수밖에 없다.³

둘째, 그들은 핵전으로 확전하기 위한 동맹국의 동의를 유럽에서보다 한반도에서 더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마이어 장군(Gen. Edward Meyer)이 1983년에 서울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핵전으로의 확전이 15개의 서로 다른 주권국가들과 협의를 거쳐야만 하는 유럽에선 보다 훨씬 간단하다.”⁴

미 육군 야전교범 100-5에 따르면, 핵무기의 전장사용에 관한 일반적 윤리리는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핵화력의 격렬한 폭발을 이용한다. 한반도에서의 전장공격을 위한 가상 핵 '페키지'에는 두 개의 핵지뢰, 30문의 포, 5~10개의 항공기발사 핵무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특정시간에 특정지역으로 발사되도록 되어 있다. 한반도에서 핵무기에 대한 전형적인 전장모드

은 핵방호 항공기대피호, 철도보급기지, 집중된 공격부대 또는 후속부대, 대규모 탱크부대 등이다.⁵

주한미군은 표적목록을 개발하기 위해, 태평양 사령부의 전역 핵전력 프로그램을 위해 병참술과 지상군을 분석중인 BDM사가 최근에 개발한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모델은 수송망에 대한 핵공격의 결과로 발생한 지체와 군사이동에 대한 양적인 평가를 제공한다. 한 보고서는 “시험되었던 공격전략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기습공격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⁶ 주한미군은 1982년에 태평양 사령부의 핵무기 분석체계를 도입했다. 이 체계는 “핵 우발사건 기획순환도와 관련된 표적, 표적지점, 무기선택기능”에 도움을 준다.⁷

전략적 후방공격

한반도에서 두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는 전략적인 후방공격이다. 미국은 전장이익을 얻기 위한 핵무기 사용 대신, 1950년 맥아더가 고려했던 바와 같이, 북한의 도시공업지역에 대한 정벌적 공격을 통해 핵무기의 결정적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은 전쟁종식을 위하여 '강력하면서도 작은' 핵공격을 가하기를 선호하는 것 같다. 이런 핵무기는 지휘통제소, 통신시설, 핵심 병참기지와 후방전력을 파괴할 것이다. 그러한 공격과 함께 중심 기습부대가 북한일대에 투입되어 평양을 공격할 것—아마 서울을 상실한 대가로—이다. 이러한 두 개의 시나리오는 미국측의 허가되고 통제된 핵보복을 가정한다. 11장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전쟁중에 핵공격이 군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결정을 내릴지라도, 그는 부주의한 확전을 피하기 위해 전진배치된 핵전력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허가된 핵공격을 수행하건 혹은 단순히 이미 배치된 핵자상군을 철수하건간에, 이러한 통제가 한반도에서는 보장될 수 없다.

통신두절

핵 단위부대간의 통신두절로 인해 통제가 상실되어 전장공격이 소용돌이칠 수도 있다. 앞 장에서는 핵수송팀이 발사기지로 가는 도중에 통신을 실할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했었다. 핵무기가 발사기지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무허가 사용에 대한 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68년 미 제7보병사단은 응전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한 핵무기 통제의 분산과 관련된 통신상의 어려움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고 보고했다. 제7사단은 핵무기를 하급수준의 지휘관에게 배속시킴으로써 핵무기의 “적시사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그들은 사단의 무전기 가 “오래되었고,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신뢰할 수 없음을” 발견했다. 군단급 지휘관과의 통신은 6개의 무전기를 이용, 8개의 단말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결과 “회선의 질이 매우 떨어지게” 되었다. 총괄적으로 사단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야전훈련 과정에서 핵발사 계획이 실행되었으나, 핵발사 요청기기와 실제 무기발사는 비현실적이었다. 관련된 발사명령은 정확한 시간에 발사부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훈련장에서 핵무기 사용중에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했다.⁸

오늘날 핵무기를 수송하고 남한 포병부대에서 이를 발사하는 미 핵지원조는 암호화 능력을 지닌 AN/VRC-46 무전기와 AN/GRC-160 무전기를 트럭에 지니고 있는데, 이들 모두는 13m 높이의 OE-254 안테나를 갖추고 있다.⁹ VRC-46 무전기는 50kHz 간격으로 30~75.97MHz 주파수에서 작동되는 단거리(보통 8km) FM 이중방식의 무전기겸 전화이다. GRC-160도 마찬가지로 단거리용 송수신기로, 차량 뒷데리를 이용하여 30~52.95MHz와 53~75.95MHz 주파수에서 작동되는 휴대용 무전기이다.¹⁰

각각의 핵지원조에는 통제본부와 FM 무전기로 통신하기 위해 할당된 주파수와 호출신호가 있다. 두 개의 예비용 ‘회송’ 주파수도 각 조에 할당되어 있다.¹¹ 무전망은 잠재적인 문제로 가득 차 있다.

예를 들어 헬기 수송수단이 이용하는 ARC-54 무전기는 69.95MHz 미만의

주파수로만 방송할 수 있다. VRC-46 지상무전기는 69.95MHz 이상에서만 작동되기 때문에 핵무기 수송을 위해 FM 무전망을 할당받은 헬기는, 1988년 팀 스피리트 훈련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외부와 연락이 두절될 수 있다.¹²

좀더 현대적인 장비를 배치한다고 해서 통신의 개시가 보장되지는 않을 것이다. 포병중대로 분산되기에 앞서 전방저장소에서, 핵 단위부대는 핵무기를 간직하고 있는 텐트로부터 주한 무기지원파견단의 전술작전본부와 긴급 행동설비까지 지상 통신선을 설치할 것이다.¹³ 그러한 단위부대는 지형과 지역적 적개심 때문에 통신할 수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3년에 미 제2보병사단 포병부대는 그들이 10년 전에 깨달았던 어려움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음을 발견하였다. 포병대와 그들의 전방 관측팀과의 통신접촉이 종종 두절되었다. 이 관측팀은 산 위에서 작전을 수행했는데 무전기의 송수신이 산 때문에 방해받는 일이 흔했다. 그들은 또한 서로 다른 장비와 언어 때문에 남한 포병부대와 통신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더구나 포병대의 사격지휘 본부와 실제로 발사하는 포병중대를 연결하는 전화선은 산 때문에 방해받지는 않았지만 똑같이 취약함이 증명되었다.

남한의 민간인들이 이 체계의 아킬레스건임이 입증되었다. 왜냐하면 남한의 작은 시골마을을 통과하여 설치된 전화선이 설치 후 불과 몇 분도 안되어 사라져버리는 일이 드물지 않았기 때문이다(WD-1 전선은 남한에서 고철로 비교적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부대가 단지 자기의 농지를 점령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화난 농부가 전선을 잘라버리곤 했다.¹⁴

전시에는 미 정보부대가 농부로 가장한 북한군이 전선을 자르는 것을 잘 감시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 육군 야전교범에 의하면, 북한이 ‘핵생화(NBC) 무기’와 관련된, 그 중에서도 특히 ‘핵생화 폭탄과 미사일 기타 관련 통제체계를 지닌 포, 로켓포, 공군전력’에 관련된 통신체계의 파괴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¹⁵

지역의 지형과 사람들이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 군은 주한미군 지휘통제 총사령관(CINC C2)을 지원하는 UHF, FM, HF 무선체계로 짜여진 통신지주 중에서 취약한 위성 UHF 지주를 방해하는 데 또

한 최우선 순위를 두게 될 것이다.¹⁶

이런 적대적인 환경하에서는 통신을 신뢰할 수 없기가 심상이다. 따라서 핵지휘관들은, 전장 핵공격시에 핵포부대와의 통신두절로 발생하게 될 통제 상실이라는 가공할 사태를 미리 예상하고 있어야만 한다.

일선부대와의 통신이 열려 있다 하더라도, 미국과 연결되는 선이 작동을 계속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1984년 미 국회보고서는 남한의 중요한 통신시설이 북한군 포대로부터 10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방호시설도 갖추지 않은 단층건물에 설치되었음에 주목했다. 서울에서 그들은 미국의 방어통신 체계(DCS: Defense Communication System)의 중심점이 공격에 대비해 방호되지 않은 채 석유탱크와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대구에서도 주요기술 통제 및 자동전환 센터를 위한 주요한 교류전력 공급선이 공공도로에서 10피트 이내에 있음을 발견했다.

위원회는 “DCS가 전쟁초기에 제거된다면 전시에 미국과의 안정적 통신이 의심스러워질 것이므로(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 DCS를 대체하기 위한 장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다.”라고 결론지었다.¹⁷ 만약 백악관이 전화로 서울을 불러냈는데 그 전화가 불통이라면, 미 관리들은 그들이 북한과 전쟁중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워싱턴의 국가사령부는 많은 이유에서 북한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북한이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이 다른 어딘가에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다. 초강대국들이 이미 대치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통신이 작동되든 안되든 미국의 개입은 많은 고려를 배제한 것처럼 보인다.

한반도와 관련된 의회의 한 측근은 워싱턴으로 되돌아오는 통신이 작동한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군단 사령관은 전화를 걸어 미군들이 대량학살되고 있다고 보고한다.”¹⁸ 선제사용을 허락해야 한다는 압력이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가해진다. 그러한 상황에서의 유일한 구원은 통신의 두절에 달려 있다. 만약 주한미군이 국가사령부로부터 인가된 긴급행동 명령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아마 핵무기를 발사하지 말라는 단호한 명령에 파를 것이고 궤멸당하는 결과를 겪을 것이다.

통제상실

미국의 핵무기는 거의 예외 없이 무기를 무허가로 사용하거나 무기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작동허가링크’(PAL: Permissive Action Link)라 불리는 자물쇠를 지니고 있다. ‘작동허가링크’는 기계식 또는 전자식 암호스위치로, 특별암호를 파악했을 때만 핵무기로 무장하거나 핵무기에 접근 할 수 있게 허용한다. 핵포의 탄두인 W-33과 W-48에는 기계식 결합자물쇠가 사용되고 있다. 오직 중성자탄인 W-79 포탄두만이 (남한에 배치되어 있다면) ‘지휘불능의’ 전자적 특성을 가질 것이다(<표 6-1> 참조).¹⁹

통제상실은 즉각적인 미군의 핵공격을 막으려는 불온한 남한 보안군의 방해로 발생할 수도 있다. 전 미 국방부 관리는 “우리는 남한포병들이 포신 속으로 폭탄을 집어올리는 데 이용될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그러나 남한군은 핵무기를 접수해서 자물쇠를 해체할 수 있다. 그들이 핵작전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그들이 통제를 우회하는 것은 더 쉬워진다.”고 말했다.²⁰

그와 반대로 충성스런 남한군이 핵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미군을 핵전으로 내몰기 위해 미군의 핵무기를 접수할 수도 있다. 또한 북한 특공대가 핵포탄에 대한 통제를 탈취할 수도 있다—미국의 핵 단위부대의 교육에서 인지된 사실로써, 이 교육은 그들에게 그들이 ‘개릴라나 비밀부대에 의해 주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7장을 볼 것).²¹

그러나 남한군의 경우와는 달리 북한군은 작동허가링크를 우회하는 방법을 모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남한군을 전향하도록 설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핵 단위부대에 첨자를 배치했을 수도 있다. 그들은 미국이나 남한 군에 대해 핵무기를 발사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남한의 여론과 국제여론을 북한에 유리하도록 조종하기 위해 아무 방향으로나 발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상해볼 수 있다.

핵전의 진행

핵무기의 선제사용이 핵전의 확산에 접화할 것인가? 이런 행동이 한반도에

있는 행위자들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있다. 전장에서 통제가 유지될지라도, 소련과 중국은 그들의 동맹국인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그런데 미 전략가들은 놀랍게도 미 핵전력이 개입하고 핵무기 선제사용의 잠재력이 존재하는 한국전쟁, 또는 한반도주변 전쟁에 소련과 중국의 핵전력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다. 전에 미 국방부에서 '전역핵활동'을 담당한 고위 책임자였던 마틴(James Marti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종류의 핵사용이든 (북한의 공격을 격퇴시키기 위한 핵무기의 선제사용이라면) 확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련이 남한에 대한 제한핵공격에 직접 개입할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미국이 남한에 배치한 제한핵무기로 인해 미소 핵전쟁으로 확대될 것 같지는 않다.²²

또 다른 미 국방부 고위관리는 1986년 12월 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물론 소련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좀 다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전역을 폐괴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확실히 소련을 위협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 대항하여 전면적인 선전전을 벌일 것이고, 또한 북한에 매달릴 것이다. 병참지원이 북한의 핵심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할 것이다.²³

그러나 다른 군사분석가들과 전략가들은 멀리 낙관적이다. 전 태평양 총사령관 게일러 제독(Adm. Noel Gayler)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확전의 씨를 품지 않는 방식으로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또다시 후원자가 나타날 것이고 어느 한쪽(미국이나 소련)이 개입될 경우 패를 높이려는 강한 정치적 충동이 일어날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피보호자들이 개입된 핵전으로부터 우리들 자신(미국과 소련) 사이의 핵전으로 가는 거리는 매우 가깝고도 위험한 것이다.²⁴

게일러 제독만큼 회의적인 군장교는 드물다. 그러나 미 국방부에도 그와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화이트(Nathan White)가 후에 출판된 국방부를 위한 1977년의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초강대국들이)... 한반

도에서 대결상황이 발생하도록 허용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은 존재하며 그것이 현실화될 때 끼칠 수 있는 엄청난 영향 때문에 그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²⁵

최근 미 핵방어국에 대한 보고서는 북한이 미군과 남한군을 격퇴시킬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빼이정의 개입이 자연될 것이라고 가정하기는 하였지만, 역사적 선례와 평양에 대한 최근의 공약에 따라 중국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참전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숨김 없이 전술하였다. 그런 배경에서 그 보고서는 북한에 있는 수송기지나 병참기지처럼 '고도로 결정적인' 중국의 잠재적 핵표적을 분석하였다. 자문가는 "핵공격은 재건에 드는 시간을 늘리고 그로 인해 좀더 오래 지체하게 만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²⁶

선제사용에서 열강의 핵전까지

다양한 증거를 통해 주한미군 스스로도 핵 확전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1967년에 미 8군은 비전투요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핵공격시에는 광범위한 지역이 방사능 때문에 계속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핵방공호로부터 지상에 나오는 것은 긴급작전을 수행해야만 하는 요원에게 부여된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적·지역적 토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²⁷

좀 더 최근(1979년 3월)에는, 보잉 항공사가 용산과 캠프 워커에서 고공핵 폭발로부터 나오는 전자기 파동에 대한 통신장비의 내구성에 대해 두 개의 평가를 행하였다. 캠프 워커에 관한 보고서는 그 평가와 핵방호라는 개념이 가장 심각한 고공 핵전자기 파동이라는 환경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²⁸ 1980년 미 국방부는 '핵파이프라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오산 공군기지에 있는 항공기 대피호의 격납고 문을 핵방호화했다고 발표했다.²⁹

이러한 연구와 활동들은 부분적으로는 한반도와 특별한 관련이 없는 조직 웨페터리를 관료적으로 수행한 결과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주한미군이 한국 전쟁에서 중국이나 소련의 핵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또는 한반도가 교차사

있는 행위자들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있다.

전장에서 통제가 유지될지라도, 소련과 중국은 그들의 동맹국인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그런데 미 전략가들은 놀랍게도 미 핵전력이 개입하고 핵무기 선제사용의 잠재력이 존재하는 한국전쟁, 또는 한반도주변 전쟁에 소련과 중국의 핵전력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다. 전에 미국방부에서 '전역핵활동'을 담당한 고위 책임자였던 마틴(James Marti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종류의 핵사용이든 (북한의 공격을 격퇴시키기 위한 핵무기의 선제사용이라면) 확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련이 남한에 대한 제한핵공격에 직접 개입할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미국이 남한에 배치한 제한핵무기로 인해 미소 핵전쟁으로 확대될 것 같지는 않다.²²

또 다른 미 국방부 고위관리는 1986년 12월 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물론 소련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좀 다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전역을 폐괴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확실히 소련을 위협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 대항하여 전면적인 선전전을 벌일 것이고, 또한 북한에 매달릴 것이다. 병참지원이 북한의 핵심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할 것이다.²³

그러나 다른 군사분석가들과 전략가들은 덜 낙관적이다. 전 태평양 총사령관 게일러 제독(Adm. Noel Gayler)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확전의 씨를 품지 않는 방식으로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또다시 후원자가 나타날 것이고 어느 한쪽(미국이나 소련)이 개입될 경우 패를 높이려는 강한 정치적 충동이 일어날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피보호자들이 개입된 핵전으로부터 우리들 자신(미국과 소련) 사이의 핵전으로 가는 거리는 매우 깊고도 위험한 것이다.²⁴

게일러 제독만큼 회의적인 군장교는 드물다. 그러나 미 국방부에도 그와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화이트(Nathan White)가 후에 출판된 국방부를 위한 1977년의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초강대국들이)... 한반

도에서 대결상황이 발생하도록 허용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은 존재하며 그것이 현실화될 때 기칠 수 있는 엄청난 영향 때문에 그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²⁵

최근 미 핵방어국에 대한 보고서는 북한이 미군과 남한군을 격퇴시킬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빼이정의 개입이 지연될 것이라고 가정하기는 하였지만, 역사적 선례와 평양에 대한 최근의 공약에 따라 중국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참전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숨김 없이 진술하였다. 그런 배경에서 그 보고서는 북한에 있는 수송기지나 병참기지처럼 '고도로 결정적인' 중국의 잠재적 핵표적을 분석하였다. 자문가는 "핵공격은 재건에 드는 시간을 늘리고 그로 인해 좀더 오래 지체하게 만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²⁶

선제사용에서 열강의 핵전까지

다양한 증거를 통해 주한미군 스스로도 핵 확전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1967년에 미 8군은 비전투요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핵공격시에는 광범위한 지역이 방사능 때문에 계속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핵방공호로부터 지상에 나오는 것은 긴급작전을 수행해야만 하는 요원에게 부여된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적·지역적 토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²⁷

좀 더 최근(1979년 3월)에는, 보잉 항공사가 용산과 캠프 워커에서 고공핵폭발로부터 나오는 전자기 파동에 대한 통신장비의 내구성에 대해 두 개의 평가를 행하였다. 캠프 워커에 관한 보고서는 그 평가와 핵방호라는 개념이 가장 심각한 고공 핵전자기 파동이라는 환경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²⁸ 1980년 미 국방부는 '핵파이不得已'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오산 공군기지에 있는 항공기 대피호의 격납고 문을 핵방호화했다고 발표했다.²⁹

이러한 연구와 활동들은 부분적으로는 한반도와 특별한 관련이 없는 조직 네퍼터리를 관료적으로 수행한 결과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주한미군이 한국 전쟁에서 중국이나 소련의 핵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또는 한반도가 교차사

격당하는 전쟁에서 소련의 핵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과 일치하고 있다.

중국이나 소련이 한반도에서의 핵전에 참가할 것이라는 미군의 사고방식(전세계적 핵전에 대한 남한의 관점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 명백하다)은 수많은 추가지표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 제2보병사단의 화학장교는 ‘핵생화 공격에 대한 방어’를 준비하도록 지시받는다.³⁰ 그 사단 공병지침은 훨씬 더 노골적이다. “영구 핵방어대피호 및 임시 핵방어대피호의 건설, ‘핵공격’으로부터 군사설비복구, 핵생화 오염제거를 위한 토목건설 장비의 사용 등을 포함하여 핵생화에 대한 기술지원과 건설노력을 제공하라.”³¹

북한군에 대해 기술한 미 육군 야전교범은 ‘전형적인’ 북한의 군사활동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는 지표들을 열거하고 있다. 교범은 “전방부대의 특별한 또는 비정상적인 행동”은 그들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특별히 짚거나 엄폐된 참호를 구축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쓰고 있다. 또한 그에 덧붙여 교범은, “알려진 적의 침자가 특정지역으로부터 갑자기 사라진 것은” “핵공격 전에 그 지역으로부터 떠나도록 명령을 받은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한다.³²

북한이 핵무기나 방사능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한 미군의 훈련은 군사적으로 죄악의 사태를 예상한 계획으로 도와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소련이 직접 개입을 하지 않으면서도 미군의 제1 혹은 제2 핵공격을 억제하기 위하여 북한에 핵무기를 ‘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군이 믿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핵무기 제공에 관해 소련이 지난날 보여주었던 신증함과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용의주도함을 고려할 때 이 견해는 불합리하다고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배척할지라도, 극한상황(유럽에서의 미국의 압력을 포함한)으로 인해 소련이 한반도 병참지원의 일환으로—미국이 오늘날 남한에서 하는 것처럼—핵무기를 북한에 들여오게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가능성이 희박하다 할지라도, 한반도에서 소련이나 중국의 직간접 핵공격에 대한 미군의 준비조치는 미국의 핵 선제용시에도 전쟁을 한반도에 국한시킬 수 있다는 미 전략개념과 모순되고 있다.

해군 핵전쟁으로의 확대

한반도에서의 확전 가능성을 숙고해온 몇몇 미 관리들은 지상전에 소련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다리가 무너지기 전에는 결점이 있는 다리기둥간의 거리를 알아차리지 못하듯이, 예전치 못한 사건의 발생이나 운명의 꼬임에 의해 핵관리들의 매복에 대한 역사적 조망에 어긋나게 핵전으로의 경로가 부지불식간에 움직일 수도 있다.

한반도에서의 핵지상전은 핵 예측불가능성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는 북서태평양에서 초강대국간의 해군 핵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여기에 특별히 관련된 문제는 북태평양에서 미국의 대잠수함 역량과 지상공격 크루즈 미사일에 대한 소련의 인식이다.

미국의 재래식 지상공격 크루즈 미사일은 소련의 지휘통제소, 방공망, 비행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미 항공모함으로 하여금 소련극동에 있는 표적을 향해 폭격기를 발진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까지 진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1984년 미 해군장관 레만(John Lehman)은 해군이 의도하는 바는 특수임무를 떤 미 항공모함 선단이 소련본토에 대한 공격 가능거리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오헤츠크해와 페트로파블로스크 연안에 있는 소련 잠수함을 둘러싸는 데 있다고 중언했다.³³

1986년 2월 왓킨스 제독(Adm. James Watkins)은 해양전략을 이루고 있는 탄도탄요격 잠수함에 대해서 공식 확인했다.³⁴ 한반도에서의 핵지상전과 관련하여, 이 전략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소련의 공격잠수함과 해상함대를 북서태평양에 있는 소련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 임호에 매달리게 한다는 데 있다. 미국의 대잠수함 활동은 소련의 공격 잠수함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도 표적으로 삼을 것이다.

이 전략은 KAL 007기 참사에서 노출되었던 종류의 소련의 안보편집증을 크게 자극할 수 있다. 실제로 1986년 7월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행한 블라디보스톡 연설의 핵심은 북서태평양에서의 대잠수함전에 대한 통치를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었으며, 이 목표는 1987년 7월 반복되었다.³⁵ 고르바초프는 한반도에서 대규모 지상전이 벌어진다면 미국과 소련의 태평양대가 한반도 근해에서 뒤섞일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북한과 교전할

미 항공모함과 잠수함의 활동영역은 동해와 북서태평양의 기타 해상에 배치된 소련의 제2공격용 핵전력의 주요 작전지역과 겹칠 것이다.³⁶

위기관리

과거의 위기들을 통해 초강대국의 지도부가 의도만큼 자국의 군사력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지는 못함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쿠바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두 초강대국은 서로 상대방이 군사행동을 통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소련 잠수함이 수면으로 떠오르도록 하기 위하여 미 해군이 기뢰를 설치한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 쿠바의 방공망이 독자적으로 미 정찰기를 격추시킨 일도 전적으로 소련의 통제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러나 워싱턴은 이런 행동들은 소련이 강경노선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대한 강대국의 위기관리가 이보다 더 나으리라고는 아무도 낙관할 수 없다. 사실상 중국이 개입해서 의사소통을 더욱 복잡하게 한다면 통제를 유지하기가 과거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미군의 지휘통제체계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통신체계의 차단, 친 확장과 전술핵무기의 전진배치로 말미암은 핵무기에 대한 통제상실이 동적으로 다른 미군 전역사령부의 임의발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전쟁을 위한 전세계적 지휘통제 체계는 그러한 실책을 줄이려 할 것이다.

같은 이유로 이렇게 전진배치된 미국의 핵전력은 소련의 대응을 유발하는 사건이나 전쟁에 휩쓸릴 수 있다. 소련이 극동에 핵무기를 전진배치하여 대된 억제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중앙집중화된 지휘통제체계는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고 정치사령부에 의해 만들어진 실책을 확대시키는 힘이 있다. KAL 007기 참사까지 이어져온 사건들과 또 그 후의 사건들은 미소 지휘통제체계의 상호작용과 전략적 백략이 얼마나 병리학적인 반응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예이다. 따라서 초강대국의 지휘통제체계가 전세계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부터 알아

는 위안은 거의 없다. 오히려 이런 체계는 한반도에 있는 인화물을 둘러싼 발화물이 되고 있다.

부주의

최근의 경험은 해상에서의 부주의한 충돌 및 확전 잠재력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곳이 한반도 근해임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1987년 미 해군 폭격기들은 알류산 열도의 아다크를 출발하여 소련의 도시이자 미사일 잠수함 기지인 페트로파블로스크에 대해 최소한 24회의 모의폭격 연습을 실시했다. 알래스카 부근에서 소련이 정찰비행을 한 것에 대응하여 하와이에 있는 미 태평양 함대사령관이 출격명령을 내린 것이다. 해군은 워싱턴과의 협의도 없이 이 모의폭격을 명령하였고 1987년 12월에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까지 이를 계속하였다. 초강대국 중 어느 한편이 무장한 초음속폭격기를 적의 도시까지 직선비행시킨 것은 그 때가 처음이었다.³⁷ 1988년 1월에는 미 해군 P-3 정찰기 '플레이팅 게임즈'(Playing Games)가 동해상공에서 소련 전투기와 불과 15피트 거리까지 접근한 적이 있었다.³⁸

전시에는 훨씬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소련 잠수함을 북한 잠수함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 또는 소련이 동해나 페트로파블로스크 근처에 있는 항공모함에 대해 백파이어(Backfire) 폭격기로 집중폭격하겠다는 위협을 제기할 경우, 미군제독은 해군의 개입규칙을 '완화' 시킬 수도 있다. 소련 역시 같은 종류의 행동, 또는 더 무모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그러한 가능성들은 북태평양에서의 초강대국 전쟁, 또는 세계 핵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호오해와 부주의한 분쟁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³⁹

맹점

오늘날 워싱턴에 있는 군비통제 집단들은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핵 선제사

용이 근해에서의 초강대국 해군 핵전쟁으로 확대될 잠재력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해상에서의 사고를 피하기 위한 미소협정도 1968년 한반도 수역 밖에서 있었던 초강대국 전함간의 충돌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결과로 얻어진 것이었다.

실수는 잘 알려진 워싱턴의 역사적 전망중, 동맹관리에 대한 미 국무부의 집착, 남한과 태평양함대에 있는 육군 및 해군 전쟁계획자들에 의한 육지와 바다간의 관료적 분리로부터 나온다.

1980년 이래 워싱턴에 있는 공식적인 군비통제 기구들이 실질적으로 소멸된 것은 한반도의 발화점과 해군 핵전쟁간의 연결-도화선과 화약고간의 관계와 유사한—이 미국에서 여전히 무시되고 있음을 확신시켜준다. 북태평양에서의 군비통제에 대한 한일 안보집단의 유사한 관심부족으로 인해 미 의회는 그 문제를 무시했었다. 반대로 의회 감시위원회는 이러한 관료적 균열의 틈바구니에 빠진 상태로부터 그 문제를 회복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무지가 축복일 수는 없다. 맹점은 시야로부터 숨겨진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정치체계는 한반도에서 직면하고 있는 핵 딜레마의 첫번째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 불행하게도 두번째 문제인 한반도에서의 핵확산 잠재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제13장 속임수

우리가 남한을 재보장하려고 했던가? '박'과 '전'에게 그것은 극히 주변적인 요소였다. 그들은 그것에 거의 비중을 두지 않았다. 물론 나보다 그들이 월씬 더 남한에 핵무기를 보유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들은 핵무기를 주된 억제력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남한의 자체전력에, 또 미국의 공중지원과 그에 따른 지상군 강화를 가져올 트립와이어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남한에 많은 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기를 더 원했다.

—전 주한미국 대사와의 인터뷰, 1987. 5

미국이 봉착한 두번째 핵 딜레마는 한반도의 핵산 잠재력이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핵확산 문제가 남한만을 괴롭히고 있다고 본다. 남한의 미 핵전력에의 통합(7장)과 북한의 미 핵전략에 대한 대응(8장)은 이 전망이 근시안적임을 보여준다. 핵산 잠재력 그 자체로나 남한의 핵산에 대한 자극제로서, 북한은 핵산동식에서 남한만큼이나 중요한 비중을 지닌다.

이 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불행하게도 미국은 남한의 핵보유 열망에만 관심을 집중해왔고, 북한의 핵산동기는 사실상 무시해왔다. 더욱이 남한에서 미국의 비핵산정책은 변덕스럽고 일관성이 없었으며 협소한 조직적 이해에 뿐리를 둔 보다 커다란 전략적 목적에 종속되곤 했다. 미국의 비핵산정책은 어떻게 하면 남한을 가장 잘 재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전락하여버렸다. 한반도에서의 핵산 역동력에 대해 남한의 알력과 지정학적 환경이 미치는 보다 더 커다란 영향은 실질적으로 무시되어왔다.

한반도에서의 비핵산은 카터의 철군정책에 반대하던 음모자들에게는 완벽한 이념적 무기였다. 남한의 핵산 잠재력은 미 육군에게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이 철군에 반대하도록 움직이게 만들 공짜수단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책략은 한반도에서 직면하고 있는 핵 딜레마의 두번째 문제가 정말로 부담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음을 함축적으로 암시한다.

따라서 이 장은 위성던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관료적 계산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지니는 중요성을 측정하면서 시작하겠다. 그 다음에는 1971년에서 1975년간의 남한 핵폭탄 계획을 되돌아보겠다. 이 장에서는 남한이 친 행중인 음모에 대해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정보를 공개하는데, 그것은 남한이 핵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 장에서는 핵 딜레마에 대한 두번째 문제가 정말로 부담스러운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미국의 비핵화정책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전략은 북한과의 갈등에서 유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남한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당화되어왔다. 북한에 대한 영향이야 어떻든간에, 미국은 남한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도록 재보장하기 위해 남한에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들 한다. 더구나 미국이 남한에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는다면 미국은 남한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끼 대할 수 없다.

미군이 군사권을 쥐고 있었으므로 1969년 청와대 기습사건, 1976년 판문점 사건, 1983년 탕군에서의 대통령과 보좌관들에 대한 폭탄테러 사건과 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남한의 보복을 자제시킬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¹ 간단히 말하면, 남한에 미국의 핵전력을 보유하는 것이 미군의 지휘권을 유지하고 남한군의 도발을 막는 값싼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기관리와 동맹국 재보장이라는 문제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비핵화정책으로 축소된 셈이다.

이러한 비핵화근거가 한반도에 대한 미 핵정책의 실제형성에 있어서는 훨씬 중요한 것 같지 않다. 그것은 단지 남한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에 있어 좀더 근본적인 정치적 문제를 둘러싼 관료들의 논쟁에서 사용되는 장식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카터의 철군정책의 기초를 이루었던 대통령 검토각서 13호나 카터의 철군결정 번복을 이끌었던 결정서류인 대통령 검토각서 45호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관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² 예를 들어 주한미

국 대사관의 일부 고위관리들에 의하면 그것은 1970년대의 핵정책에서 주요 고려사항이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반대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당시 미국의 대한정책에 관여했던 한 주요인사는 핵확산을 막기 위하여 남한을 재보장하는 것이 정책결정에서 중요한 요소였다고 주장했다.

남한에 대해 핵무기는 심리적인 재보장을 제공해주었다. 그것은 남한이 핵무장하는 것에 대한 억제력이었다. 우리가 핵무기를 전부 철수했다면 그들은 이내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할까 말까 계속 망설이고 있었던 그들의 독자적 핵계획에 대해 주요자국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대응할 것이라는 그들의 확신을 변화시킬 만한 어떤 조치를 우리가 취했다면, 그것은 남한을 당황하게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독자적 핵억제를 달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했을 것이다.³

세번째 미국관리는 카터 행정부에서 비핵화 업무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자기들은 그 연결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남한사람들은 미군철수를 핵확산과 결코 명시적으로 연결시키지 않았다.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다. 우리가 군대를 철수시킨다면 우리의 영향력은 약화될 것이다. 비핵화를 담당했던 우리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철수계획을 번복시키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행정부내에서 상당히 노력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철군이 지닌 확산암시에 관한 정확한 평가는 없었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의 미국 고위관리들은 1977년에 남한을 재보장하기 위해 군산에 위장 핵저장소를 남겨두는 것에 대해서 논의할 정도로 그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었다. 한 참석자의 말로는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면 미군의 경비행태가 뭔가 다를 것이므로 남한군이 즉각 알아차릴 것이기 때문에” 그 제안은 무시되었다고 한다.⁵

그러나 전술적인 계획으로, 확산문제는 철군결정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서 고도로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 남한사람들 스스로도 정치적 투쟁의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1978년 8월 22일자 서울의 모든 주요신문들은 이미 알려진 1978년 미 육군 핵무기 철수계획과 1979년 공군 핵무기

철수계획을 실었다. 이를 후 한국일보의 한 편집자는 “전술핵무기의 조기철수는 잘못이다. 우리 스스로의 준비가 핵우산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명백히 떠보는 말을 하였다.⁶

스틸웰의 자문관들이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대해 1978년 육군에 보낸 보고서는 이미 이러한 주장을 포착하고 있었다. 남한이 비핵산조약의 당사국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존속이 위태로워지면 ‘독자적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1977년 6월 30일자 남한 외무장관 박동진의 연설을 언급한 후, 그 보고서는 카터측을 역습했다. 그들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존재는 군비통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⁷

그들은 남한에 있는 핵무기가 “추가 의제력으로 작용함으로써, 확산을 금지시키는 요인이 되어왔다.”고 말했다. 그들은 “지상전투 전력의 철수와 함께 핵무기도 제거된다면 두 가지 중요한 억제요소가 사라지게 될 것이며 이 지역에서의 비핵산에 대한 효과도 긍정적인 쪽에서 부정적인 쪽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라고 결론내렸다.⁸

1979년 1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카터의 정책에 대해 비핵산주장을 공공연하게 도로 펴부어댔다.

우리는 북한측의 상응하는 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행정부가 계획된 대로 미군 철수를 계속하는 것이 [미국의 비핵산]정책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사실 그것은 독자적 핵역량을 개발하도록 남한을 자극할 수 있다. 우리는 철군으로 인해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신이 부식되고 독자적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남한의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와 대화했던 많은 미군장교들과 남한 전문가들의 판단임을 주목한다. 이는 철군으로 인해 비핵군사균형 특히 지상군의 균형이 현재보다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고 남한측이 인식하게 된다면 부분적으로 진실이 될 것이다.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 미 핵무기의 상당부분이 미 전투부대와 함께 철수될 것이라는 언론의 공론은 대한민국이 현재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핵 불안감을 강화시킬 뿐이다. …간단히 말하면 남한인들 눈에 미 지상전투군의 철수는 대한민국의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비칠 것이고, 한반도에서 핵군비 경쟁의 도화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독립적인 일대일 군비경쟁이 벌어질 위협을 고조시키게 될 것이다.⁹

정치적으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도, 육군은 육군의 핵전력이 남한을 재보장하고 확산을 막을 것이라는 입장에서 철군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한 목적에 대해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카터의 철수정책에 반대한다는 공동목적에 귀착된 남한에서의 육군의 이해와 일본에서의 국무부의 이해간의 연관을 암시한다.

확산의 이해관계

미국의 정책입안에서 그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야 어떻든간에, 두 개의 한국이 6번째 또는 7번째 핵무장국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중요한 정책목표라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 브라운(Leslie Brown)이 미국 무부 정치군사 담당국에 근무하던 1977년에 썼듯이 남한에 핵무기를 유지하는 것이 확산과 관련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크게 의심할 것이 없다.

문제는 미국이 남한에서 핵무기를 수년 동안 보유함으로써 또한 그것에 관해 얘기함으로써 남한의 방어에 핵무기가 없어서는 안된다고 여기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에 있다. 무기관련 핵기술을 획득하려는 남한사람들의 노력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러한 메시지는 남한사람들의 의식에 명확히 새겨져 있다. …지난날 미군의 행동이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처럼 보이므로 남한사람들이 핵무기를 필요로 하는 군사적 상황의 존재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한 믿음이 존재한다면 핵무기 철수는 현재 진행중일 수 있는 남한의 자체적 노력을 강화시키고 가속시킬 것이며, 그 결과 서태평양지역에서의 비핵산정책에 대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이 확실하다.¹⁰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핵전략은 남한을 재보장하거나 남한 핵무기계획을 자극함으로써 남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무장하고자 하는 동기—남한을 겨냥한 핵재보장 전략이 사실상 고려하지 못했던 부작용—를 강화시킨다. 미국의 핵무기에 의해 유발된 편집증과 더불어 한반도 주변 강대국 안보환경에서 이루어진 최근의 변화는 북한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켜 결과야 어찌되든 핵폭탄을 가져야겠다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다.

국제적 환경 및 남북한 세력균형에서의 변화는 한반도에서의 확산 역동성을 본질적으로 바꾸어놓았다.

요약하면 남한에 대한 핵재보장 전략은 한반도에서 핵확산의 위험을 완화시키기는커녕, 이미 시작된 남북한간의 핵군비 경쟁을 가속시키고 있다.

남한의 핵개발 재고

남한 최초의 핵무기 개발결정은 남한의 핵개발 성향과 관련된 대외 안보 환경과 미 핵전략간의 복잡한 관계를 드러낸다. 한국역사상 이 시기는 오늘 날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은 국제적 긴장완화기—테탕트가 진행되고 남북한이 최초로 대화를 시작했던 1972년처럼—도 남북한이 핵무기를 획득하려는 노력을 막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 주변의 물은 잔잔해 보일지 모르나 내륙 호수의 물은 밀바닥에서 요란하게 동요하고 있었다.

플루토늄 계획

남한은 1968년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계획을 시작했다.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플루토늄을 재순환시키는 구매자에게만 상업용 핵발전소에 필요한 우라늄을 농축·공급하겠다는 1970년의 미국의 성명이 이 계획에 박차를 가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¹¹ 놀랍게도 미국은 핵연료 공급의 안정성을 사용 후 핵연료로부터 폭탄급 플루토늄을 추출하려는 고객의 의도와 연계시키고 있었다. 1972년에 남한사람들은 재처리기술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프랑스와 공개적으로 논의하였다.¹²

사실 핵연료 공급의 안정성은 재처리기술을 추구하는 '남한으로서는 부차적인 목적이었다. 왜냐하면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획득하기 위하여 무기개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령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닉슨이 1971년 초 남한으로부터 제7보병사단을 철수시킨 데 대한 대응으로 이 조치를 취했다.¹³ 닉슨은 1968년에 발표했던 팜 독트린을 실천하기 위해 이 사단을 철

수시켰다. 이 정책하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자국의 방위에 1차적인 책임을 지라고 한 반면, 미국은 무기이전, 해상 및 공중지원, 핵에 의한 뒷받침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남한에서 1개사단이 철수한 것은 또한 월남에서 곤경에 처한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물론 남한사람들에게는 미군철수가—수백 기의 핵무기와 제2보병사단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미국의 공약축소와 지역환경의 악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비추어졌다.¹⁴

1974년 인도의 핵실험으로 워싱턴에 비상벨이 울렸다. 미국 정보분석가들은 특수 기계장비, 베릴륨, 붕소, 특이한 폭발성 화공약품에 대한 대량주문, 성형폭탄 기술 등과 같은 중대한 핵관계 항목의 교역에 대해 각국 대사관에서 상세히 조사해놓은 거래정보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분석가 중의 한 사람은 "그들이 남한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¹⁵ 1975년 3월 스나이더 주한 미국대사는 랑디(Pierre Landy) 프랑스대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남한사람들이 플루토늄처럼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장차 군사적 목적에 쓰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다."¹⁶

1975년 3월 미국은 남한이 재처리 열망을 포기할 때까지 남한의 제2원자로에 대한 재정지원을 불모로 삼기로 하였다. 미 수출입은행의 케이시(William Casey) 총재는 남한의 남덕우 부총리에게 "우리는 당신네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를 플루토늄으로 재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지도 모른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점에 있어서 당신들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한국에서의 재처리 시설의 유효성은 이 차관에 대한 우리의 최종승인에 장애가 될 수도 있는 핵확산 잠재력을 창출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¹⁷

6월 12일자 워싱턴 포스트지는 박정희 대통령이 남한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고 생산할 것이지만 미국의 핵우산이 남한에 유지되는 동안에는 자체 할 것이라고 한 말을 보도했다. 같은 날 여당(공화당)의 정책위 의장인 박준규는 남한이 '오늘날에는' 핵무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¹⁸ 1975년 6월 29일 미 국방장관 슬래진저는 미국의 핵우산이 한반도를 덮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남한의 핵선택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를 막으려고 했다.¹⁹

그 동안 미국관리들은 프랑스·캐나다·벨기에 대해 재처리기술 거래를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했다.²⁰ 1975년 미국 국무장관 키신저는 남한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프랑스-남한간의 재처리기술 거래와 핵무기 계획을 중단시켰다고 한다.²¹ 미국은 또 핵무기를 획득하지 않겠다는 박정희의 약속을 받아냈는데, 남한은 핵화산 금지조약을 비준함으로써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케케묵은’ 탄도미사일

박정희의 변복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계속 이중능력과 핵무기 관련기술을 추구했다. 고위관리들은 계속 미국의 비핵산 노력을 자극했다. 예를 들어 1976년 10월 29일 남한 국방장관 서종철은 “우리는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위해 어떤 계획이든지 고려해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이 핵탄두 자체는 아니지만 “핵무기 발사수단은 가지고 있다.”고 난해하게 말했다.²²

더욱이 다른 정보들은 남한이 1971~76년 기간중에 핵선택을 추구하기 위해 세웠던 시설들을 결코 해체하지 않은 채 다만 “활동을 정지시켜 놓았을” 뿐임을 지적하고 있다.²³ 퇴임한 미 고위관리에 의하면 “그들은 또한 중수 및 다른 부정한 물건을 구하고 있었다”–적어도 1980년까지는 그러했다.²⁴ 여기에는 재처리 장비를 얻기 위한 1978년 11월의 또 다른 우회적 시도–이번에는 두 개의 핵원자로를 공급하기 위해 프랑스가 제안했던 거래의 일환으로써–가 포함된다.²⁵ 미국은 7, 8호기 계약이 웨스팅하우스에 주어지도록 주선하기 위해 모든 장애물을 빼냄으로써 그 위협을 피했다. 하지만 남한에 원자로를 공급하기 위한 부도덕한 국제경쟁은 해마다 방벽에 생기는 구멍을 막는 것을 더 어렵게 하였다.

1978년 10월 남한은 변형된 어니스트 존과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당당하게 과시하였다. 이 미사일들은 1977년 철수정책의 일환으로 남한에 이양될 때까지 핵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밀리터리 리뷰(Military Review)지는 이 미사일들이 “핵탄두의 포좌(砲座)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²⁶ 의

심의 여지 없이 그 메시지는 평양이나 워싱턴에 대해 효력이 있었을 것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미사일 퍼레이드가 있었던 그 주에 서울을 방문하고 있었던 미 국무부 비핵산담당 고위관리는 남한군 장성으로부터 미국이 자상 군을 철수한다면 남한은 핵화산 금지조약을 어기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 선언은 국무부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부정한 물건’에는 미국의 한 회사로부터 미국의 아틀라스 센타우어 미사일 프로그램(Atlas Centaur Missile Program)에 사용되었던 시방서, 기관의 도면, 지시서, 설계도, 청사진, 조립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남한은 또한 노즈콘(nose cone: 로켓의 머리 끝 원추체–역주)재료, 핵탄두, 유도장치를 구입하였고, 미사일을 위한 관련 컴퓨터설비와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얻으려고 애를 썼다.²⁷

서울이 ‘케케묵은’ 탄도미사일을 획득한 것에 대해서는 악의 없는 설명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남한이 빼이장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미국 국무부를 서늘하게 했다. 왜냐하면 아틀라스는 미국 최초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었기 때문이다. 1959년에 최초로 배치되었던 이 미사일은 W-38 핵탄두를 1마일 오차로 5천 마일까지 운반할 수 있다.²⁸

남한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 계획을 결국 중단하게 되는 1980년까지 국산미사일 기술을 계속 개발하였다고 한다.²⁹

MOX 책략

미국의 강압적 전술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재처리기술 획득에 계속 관심을 보여왔다. 예를 들어 1984년 캐나다 원자력청은 남한에 있는 미국산 경수로로부터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를 월성의 캐나다산 증수로에 쓰이는 폭탄급 플루토늄을 함유한 혼합산화연료(MOX: Mixed Oxide Fuel)로 재생시키는 기술연구를 남한에 제안했으나 미국이 중지시켰다고 한다.³⁰ 캐나다산 원자로에서는 농축되지 않은 우라늄 연료로부터 경수로에서보다 훨씬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한다. 일단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추출되어 재처리된 플루토늄은 혼합우라늄산화물과 플루토늄이 혼합된 연료 혹은 MOX로 재생된다.

캐나다인들이 이 민감한 재처리기술의 이전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은 틀림없다.³¹ 미 에너지부도 미국이 “캐나다로 하여금 재처리분야에서 기술이전 제안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실무하고 있다.³² 이 조치로 인해 남한은 미국의 간섭에 대해 불쾌해 하고 화를 내게 되었다.

미국 해개모니의 약화

이러한 움직임들은 1975년 이후 남한이 보여주었던 핵무기에 대한 계속된 야망과 일치한다. 사실 박정희는 이스라엘의 군사전략에 관심을 가져, 현장에서 좀더 배우도록 핵심인물들을 일부 파견하기도 했다고 한다.³³ 그는 또한 이스라엘의 은밀한 핵억제 전력으로 대표되는 핵억제 모델에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³⁴

남한이 핵선택을 개방해두려는 데 열심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남한이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미국이 아니라 북한임을 보게 될 것이다.

제14장 핵확산 잠재력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나라들 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
이 바로 북한파뢰이다.

-남한 국방부, 1987.9¹

1981년 전두환 대통령은 북한이 남한을 위협한다면 북한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다음을 덧붙였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²

그의 말은 남한이 비밀 핵무기 역량을 지니고 있거나 혹은 그에 대한 열망을 지니고 있다는 추측을 즉각 불러일으켰다. 남한 지도자들은 여전히 국산 핵폭탄이라는 선택을 중시하고 있다. 그들은 사적으로는 미국의 확대된 억제의 신뢰도에 대해 공공연히 의심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들이나 앞 장에서 지적된 다른 종류의 지표들을 제외한다면, 남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했던 1975년의 미국과의 쌍무협정을 위반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 남한은 또 핵확산 금지조약에도 서명을 했고, 국제기구가 남한의 핵시설들을 사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확산은 모호한 안보이익 때문에 특히 민간정권에 대해 상당한 국제적 비난을 초래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남북한의 핵확산을 억제하는 여러 측면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다. 초보적인 핵군비 경쟁이 이미 한반도에서 진행중이라는 증거가 있다. 이런 핵군비 경쟁은 남북한의 지정학적 불안정성, 남한군과 협동으로 이루어지는 미 육군 멸사봉공 핵전투 계획의 시위효과, 그리고 남한군·미군과 핵위협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 장은 핵 딜레마가 지난 두 가지 문제 중에서 확산문제는 미 핵전략에 맞불을 놓을지도 모를 하나가 아닌 두 가지 부담을 부과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국제적 제한

다음 네 가지 요인 때문에 남한의 핵폭탄 계획은 활발하지 못하다. 첫째, 남한은 핵시설에 관해 핵안전규약을 전면 수용하였다—특히 캔두(CANDU)형의 경우에는 사찰의 수준에 의해 다소 허를 절리게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³ 둘째, 남한은 국내의 핵연료 순환에 대해 엄격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오늘날까지 핵화산 금지체계와 모순이 될 수도 있는 어떤 핵물질을 수출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남한은 핵산집중 상품에 대한 쟁거(Zanger)의 ‘방아쇠 목록’(trigger list)에서 자세히 설명된 핵화산 금지조약 제2, 3조의 권위적 해석을 준수하겠다고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에게 통고한 23개국에 속하지 않는다.⁴

넷째, 핵화산 금지조약의 당사자인 비핵국으로서 남한은 조약 제2조에 따라 핵무기나 장치들을 수용·통제·제조하지 않으며 “그것의 제조에 대한 어떠한 원조도 추구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⁵ 남한이 핵화산 금지조약을 비준하던 바로 그 때, 다른 한편으로는 은밀히 핵무기 개발계획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 이후의 행동은 이런 공약의 깊이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남겨두고 있다. 실제로 1976년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 참가한 남한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해 핵안전규약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동시에 그는 “핵무기의 비확산이라는 것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⁶

남한은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남한의 공식대표단은 1985, 1986년 총회에서 연설하지 않았다.⁷ 또 남한은 1985년 핵화산 금지조약 검토위원회에 어떠한 성명도 내지 않았으며, 전권대표단 대신 제네바 주재 남한 외교관 한 명만을 파견하였다. 남한은 서울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훈련코스를 두 번 주최했고, 비엔나에 과학자들을 파견했으며, 핵과학 및 핵공학 관련 연구·개발·훈련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지역협력협정에서 활동중이다.⁸ 그런 행동은 유엔에서 합법적인 국가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말하기보다 보여지고자 하는 갈망으로서—과 일치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여전히 비확산외교의 두드러진 국제적 주자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에 대한 진정한 신뢰자들—핵계획을 오늘날처럼 현저하게 나아가게 했던 남한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남한이 비핵무장 국가로 남기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1986년 서울에서 열렸던 국제원자력기구 실무진 회의에서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원자력에 대해 대중적인 찬사를 받으려면, 남한은 “손을 깨끗이 씻고 화약냄새와 90% 이상 고도농축된 우라늄으로부터 코를 들려야만 할 것이다.”⁹

쌍무적 제한

기술협력과 핵공급을 위한 쌍무협정 또한 남한을 비화산 공약 속에 가두어놓는다. 예를 들어 한미협정은 미국에게 사찰침관권을 부여하고 있다.¹⁰ 한-호주 협정은 호주산 우라늄으로부터 추출된 핵물질에 대한 남한의 재처리에 대해 호주정부의 동의를 특별히 유보하고 있다.¹¹

쌍무협정의 위력에 대한 첫 시험은 1984년에 있었다. 남한은 1984년 11월 15일 월성 캔두형 핵발전소에서 있었던 24톤의 중수누출에 대해 미국에 알리지 않았다. 미국의 무임소 대사 케네디(Richard Kennedy)는 “우리는 그 사건에 관해 적절히 연락받지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했다.”고 말했다.¹²

유사핵무기 선택권

그러나 남한이 현재 유사핵무기 선택권(Near-Nuclear Option)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면서, 남한은 거의 완결된 핵연료순환을 합성하였다.¹³ 대규모 원자력 발전계획을 위한 기술적인 토대는 남한에게 비교적 초보적인 장치를 만들 능력을 갖게 해주었다. 미 관리들은 남한이 9개월에서 2년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한다.

국제적 환경 및 지역적 군사력 균형의 추세만이 주요지표였다면 남한은 핵선택권을 완전히 지워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동기들이 작용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핵산관련 기술들을 획득하려는 노력을 산발적으로 지속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북한도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을 인식하는 탓에 핵무기 역량을 획득하려는 강력한 동기를 가질 수 있다.

1970년대에 미국의 군사공약이 축소됨에 따라 남한이 인식하게 된 대외 안보환경의 악화는 핵계획에 대한 제약과 비용을 무색하게 하였다. 미국이 여전히 막대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진 1971년의 핵산결정은 남한이—다음에서 논하겠지만 북한도—동아시아에서의 강대국 질서재편에서 유래하는 이익과 불이익을 인식하는 데 극도로 예민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따라서 남한이 위협적인 국제적 환경을 깨닫게 된다면, 전에도 한 번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핵폭탄에 손을 뻗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북한이 남한의 군사역량, 미군과의 핵협력, 그리고 표면적으로 남한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강대국의 환경에 놀라서 핵으로 무장하게 된다면, 남한의 바로 그런 반응이 더욱 촉진될 수 있다.

과시효과?

보수적 민족주의와 미군의 핵무기에 대한 의존에 의해 그 동안 축적된 과시효과는 남한군 내부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핵무기가 남한방어에 필수불가결하다는 결론에 이르도록 해왔다. 그러므로 남한군이 미 핵전략으로 작전상 통합된 것은 남한의 핵학산 역동성에 대해 인식되지 않았던 중요한 함축을 지닌다(7장과 13장 참조).

핵협력은 핵무기의 효용에 관한 남북한의 인식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남한군은 미 외교관들의 이야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보고 듣고 행한 바에 의해서 핵무기의 효용을 판단할 것이다. 전 미국대사가 인정했듯이,

(미)군의 메시지는 (국무부)의 메시지에 비해 멀 세련되었지만 더 강력하고 더 멸사봉공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박정희에게 미군이 미국의 정책을 대표하지

는 않는다는 것을 부분적으로만 확신시킬 수 있었다. 남한의 작전상의 역할은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강화시켰다. 군은 우리가 남한에 주었어야 하는 것 이상으로 핵방어에 의존하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문제는 사령부 수준에서 핵무기에 관해 멸사봉공적인 천밀한 이야기만 오갈 것이라는 점이다.¹⁴

단기적으로 볼 때, 이런 핵선후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남한에 대해 갈수록 온화해지는 국제환경이 핵무기 계획에 미치는 금지효과를 압도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남한의 비핵산 약속이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이 보통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깨지기 쉽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면상으로 남한에 있는 미 핵무기들은 남한의 핵산을 미연에 배제하고 금지한다. 하지만 앞서의 분석에 비춰볼 때, 미국의 핵전략은 남한에 대한 과시효과와 북한안보에 대한 영향 때문에 한반도의 핵폭탄을 불가능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북한의 핵폭탄 추구?

북한은 남한이 핵전략에 통합된 현수준에 대해서 조차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대내외적인 군사적·정치적 입장 때문에(그리고 미 핵무기에 관한 편집증 때문에), 북한은 독자적 핵무기나 유사핵무기를 가지려는 충동을 강하게 지닐 수 있다. 남한이 미국의 괴뢰라는 북한의 뿌리깊은 확신에 비추어, 북한정부는 연합군 사령부의 비호하에서 이루어지는 핵전략에 대한 남한의 참여확대를 남한에 핵폭탄을 제공하려는 미국의 책략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 국방부의 고위관리가 최근에 말했듯이, “남한사람들이 진행중인 일을 북한사람들이 진행한다면 서울에서는 즉각 비상벨이 울려퍼질 것이다.”¹⁵

따라서 1988년 북한이 “한결같은 핵무장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방송한 것이 결코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북한 라디오는 10월 12일 남한군이 1989년에 군함에 핵무기를 설치하려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증강하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이 일본 반동주의자와 함께 올림픽 이후에도 우리 공화국에 대해 핵훈련을 하려고 꾀하고 있는 때에, 남한 통치집단은 핵무기의 설치에 관해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핵전을 촉발시키려는 그들의 호전적인 성격을 여실히 드러낸다.¹⁶

따라서 북한이 평양 북쪽에 있는 영변에 자체적으로 30MW급 원자로(영국의 캘더 홀 매그녹스[Calder Hall Magnox] 원자로를 본딴 것이라고 하는)를 건설한다는 것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그 원자로는 지난 1987년부터 작동되어왔다고 하며, 이제 북한은 연간 산출되는 사용후 연료에 포함된 7~8kg 정도의 핵무기급 플루토늄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¹⁷

1989년 2월에 미 관리들은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원자로 맞은편 강둑 위에서 재처리공장일 수도 있는 수상한 시설을 발견했다는 뉴스를 흘렸다.¹⁸ 이제 북한은 재처리 기술을 얻으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 민감한 분야에서의 자신들의 행동이 남한에 주게 될 영향에 대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현명한지는 알려진 바가 없고 의심스럽다. 소련이 필요한 재처리 기술을 제공해줄 것 같지는 않지만 중국도 그럴 것이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다.¹⁹

1980년에 북한의 원자로를 발견했을 때 미국은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에 가입하도록 매달려보라고 소련에게 압력을 가했다.²⁰ 북한은 소련이 제공한 두 대의 1~4MW(t) 연구용 원자로를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²¹ 국제원자력기구의 '66형' 안전규약이 1977년 이후 이 원자로와 그에 관련된 핵물질들에 적용되어왔는데, 그 해에 북한은 안전규약 지원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에 일방적으로 복종한 바 있다.²² 김일성은 1976년 3월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핵무기로 무장할 의도가 없다. 우리는 핵무기를 제조할 돈이나 그것을 시험할 적당한 장소도 없다."²³ 그러나 북한은 소련이 일종의 명백한 보상물인 1,760MWe급 핵발전소를 제공한 후인 1984년 12월 12일에야 핵확산 금지조약에 서명했다.²⁴

(1) 국제원자력기구의 곤경

남한의 몇몇 관리들은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 서명 18개월 이내에 핵안전규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술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심스런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다. 사실 국제원자력기구는 3개월을 허비한 후인 1986년 2월에 핵확산 금지조약 비가맹국용 협정양식을 북한에 보냈으나 커다란 관료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북한은 해명을 요구했고 국제원자력기구는 그것이 올바른 협정양식이라고 답변하였다. 놀랍기도 하고 유감스럽기도 하겠지만, 국제원자력기구의 스탭들은 그 협정이 자신의 주권을 침해한다며 북한이 그 협정을 거부했을 때에야 자기들의 잘못을 발견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결국 북한에 올바른 협정양식을 보냈던 1987년 여름에 논쟁은 되살아났다.²⁵ 미국은 1989년 2월 북한이 핵안전규약을 전면수용하는 것을 지연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에 불만을 표시했다.²⁶

핵안전규약이 주의를 끈 곳으로 돌리는 방책으로 이용되기 쉽다는 악명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확산을 막기 위해 핵확산 금지조약 안전규약에 의존한다는 것은 사려깊지 못한 것일 수 있다.²⁷ 더욱이 북한은 미국과 남한 양자가 혹은 어느 한 쪽이 자신에 대해 핵위협을 가하는 것을 핵확산 금지조약이 막지 못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 말함으로써 자신의 비핵산 약속을 쉽게 파기할 수 있다. (1968년 3월 7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55호는 비핵국가가 핵확산 금지조약에 가입하는 대가의 일부로 '핵무기가 사용되는 침략행위의 희생국이나 침략위협의 대상국'에 대해 미·영·소가 원조하도록 결의했다.)²⁸ 북한이 과거에 국제여론을 무시해왔다는 사실은 핵확산 금지조약도 평양을 크게 구속할 수는 없음을 시사한다.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주요한 계한은 법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계획은 자신들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제안과 핵폭탄을 제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1986년 김일성 선언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 관련기술을 구하고자 할 때,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경로는 의도적인 모호함이라는 정책에 일치되는 기술을 얻는 것이다. 이 태도는 그 시설에 대한 남한의 공격을 방지해주고 자신의 반핵선전을 지속시켜 줄 수 있다.

남한의 반응

명백한 것은 남한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한 북한의 의도를 의심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10개도 안되는 핵발전소 계획을 위해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것이 경제적 이유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믿는다. 북한이 아직껏 한 개의 핵발전소도 짓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사람들은 북한이 연구용 원자로로부터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것이 군사적 동기를 가진다고 결론지을 것이다.

강경파 남한관리들은 이미 북한의 핵무기 의도에 대해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다. 이런 강경한 견해에 대해, 프랑스·인도·중국처럼 북한도 핵화산 금지조약이 지닌 특수성을 알게 된 것이라고 파악하는 남한관리들도 있다. 그들은 1985년 12월에 북한이 핵화산 금지조약에 조인하게끔 설득했던 소련의 역할에 안도를 느끼고 있다. 그들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남한에 득실거리는 것처럼 북한에서도 그렇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다. 그들은 북한의 핵폭탄이 북한의 안보를 저해할 수도 있다고 믿는다. 이런 자유주의적 견해가 강경파들의 견해보다 남한에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혹은 남한의 정치권력의 소재지인 육군본부만큼이나 정책결정에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강대국 제한

남한이 핵폭탄을 얻기 위한 북한의 움직임과 보조를 맞추거나 혹은 그것을 앞지르려는 것을 미국이 막을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설령 남한이 강대국들에게 상쇄조치를 맡기면서 혁명하게 행동할지라도, 북한의 핵폭탄 계획—만약 가능하다면—은 적대감을 더욱 공고화시킬 것이다. 가장 큰 위험은 북한의 핵산이 남한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식으로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재처리공장을 건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이미 서울에서는 경악을 하고 있다고 한다.²⁹

한편 북한은 자신의 전략적 행동의 자유를 증가시키기 위해 소련과 중공

간에 내재된 경쟁심리를 이용할 수도 있다. 북한이 강대국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북한의 정치·군사적 비중을 증대시키는 한편 한반도에서 모든 강대국들이 무릅쓰게 될 위험도를 높이게 된다. 북한의 확산은 새로운 차원의 핵전위협이 발생할 경우에 현재의 대치상태를 무한정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북한의 핵폭탄이 한미, 미일간 동맹을 강화시키거나 남한이 그에 대한 대응으로 독자적 핵폭탄을 제조한다면, 확산은 북한의 안보에 상당히 큰 역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 북한은 남한요인 암살시도, 남한혁명 조장시도, 남한군과 미군에 대한 공격시도와 같이 이미 역작용을 초래했던 전략들을 주저없이 추구할 것이다. 미국의 핵전략이 평양의 편집증을 유발한다면, 북한사람들은 외부위협에 대해 그들이 느끼는 스스로의 약점을 보충하기 위해 ‘비합리적인’ 행동을 저지를지 모른다.

가장 최악의 결과는 두 개의 한국이 각각 독립된 핵전력을 통제하게 되는 한반도에서의 대칭적 확산의 경우이다. 그럴 경우 위기시 상대방을 선제공격하려는 동기가 양측에서 극대화될 것이고, 강대국들은 무력통일된 핵무장한 한반도(혹은 포연과 방사능 폐허)라는 전망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통일된 한반도는 중국·소련·일본에게 안보 원충지대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또한 일본의 대대적인 재무장과 핵무장을 촉진할 수도 있다. 물론 일본은 중국이 핵무장했을 때처럼 미국에 더 크게 의존할 수도 있다. 남한이 북한의 핵폭탄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핵전력에 대한 참여를 중대하기보다 독립 핵전력을 선택한다면, 미국은 핵무장국들(북한을 포함한)이 미국의 적 소련에게도 커다란 두통거리가 될 것이므로 가장 나쁘지 않은 결과로 여겨 이를 허용할지도 모른다. 이런 실질적이고 현실정치적인 계산은 모두가 바로 그 상황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독립된 남한전력이 기정사실화되고 나면 미국이 거기에 대해 강하게 눈살을 찌푸릴 것이라고 추정해서는 안된다.³⁰

따라서 미 핵전략은 남한의 핵산을 막기 위하여 남한을 재보장하기는커녕 남북한 양국의 핵산에 강력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전략가인 폴롬카(Peter Polomka)는 1985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남한은 [핵]선택권을 배제할 것 같지도 않으며, 미 전술핵무기가 남한에 계속

남한의 반응

명백한 것은 남한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한 북한의 의도를 의심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10개도 안되는 핵발전소 계획을 위해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것이 경제적 이유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믿는다. 북한이 아직껏 한 개의 핵발전소도 짓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사람들은 북한이 연구용 원자로로부터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것이 군사적 동기를 가진다고 결론지을 것이다.

강경파 남한관리들은 이미 북한의 핵무기 의도에 대해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다. 이런 강경한 견해에 대해, 프랑스·인도·중국처럼 북한도 핵확산 금지 조약이 지닌 특수성을 알게 된 것이라고 파악하는 남한관리들도 있다. 그들은 1985년 12월에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에 조인하게끔 설득했던 소련의 역할에 안도를 느끼고 있다. 그들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남한에 들킬 거리는 것처럼 북한에서도 그렇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다. 그들은 북한의 핵폭탄이 북한의 안보를 저해할 수도 있다고 믿는다. 이런 자유주의적 견해가 강경파들의 견해보다 남한에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혹은 남한의 정치권력의 소재지인 육군본부만큼이나 정책결정에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강대국 제한

남한이 핵폭탄을 얻기 위한 북한의 움직임과 보조를 맞추거나 혹은 그것을 앞지르려는 것을 미국이 막을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설령 남한이 강대국들에게 상쇄조치를 맡기면서 현명하게 행동할지라도, 북한의 핵폭탄 계획—만약 가능하다면—은 적대감을 더욱 공고화시킬 것이다. 가장 큰 위험은 북한의 확산이 남한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식으로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재처리공장을 건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이미 서울에서는 경악을 하고 있다고 한다.²⁹

한편 북한은 자신의 전략적 행동의 자유를 증가시키기 위해 소련과 중공

간에 내재된 경쟁심리를 이용할 수도 있다. 북한이 강대국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북한의 정치·군사적 비중을 증대시키는 한편 한반도에서 모든 강대국들이 무릅쓰게 될 위협도를 높이게 된다. 북한의 확산은 새로운 차원의 확전위협이 발생할 경우에 현재의 대치상태를 무한정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북한의 핵폭탄이 한미, 미일간 동맹을 강화시키거나 남한이 그에 대한 대응으로 독자적 핵폭탄을 제조한다면, 확산은 북한의 안보에 상당히 큰 역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 북한은 남한요인 암살시도, 남한혁명 조장시도, 남한군과 미군에 대한 공격시도와 같이 이미 역작용을 초래했던 전략들을 주저없이 추구할 것이다. 미국의 핵전략이 평양의 편집증을 유발한다면, 북한사람들은 외부위협에 대해 그들이 느끼는 스스로의 약점을 보충하기 위해 ‘비합리적인’ 행동을 저지를지 모른다.

가장 최악의 결과는 두 개의 한국이 각각 독립된 핵전력을 통제하게 되는 한반도에서의 대칭적 확산의 경우이다. 그럴 경우 위기시 상대방을 선제공격 하려는 동기가 양측에서 극대화될 것이고, 강대국들은 무력통일된 핵무장한 한반도(혹은 포연과 방사능 폐허)라는 전망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통일된 한반도는 중국·소련·일본에게 안보 완충지대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또한 일본의 대대적인 재무장과 핵무장을 촉진할 수도 있다. 물론 일본은 중국이 핵무장을 했을 때처럼 미국에 더 크게 의존할 수도 있다. 남한이 북한의 핵폭탄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핵전력에 대한 참여를 증대하기보다 독립 핵전력을 선택한다면, 미국은 핵무장국들(북한을 포함한)이 미국의 적 소련에게도 커다란 두통거리가 될 것이므로 가장 나쁘지 않은 결과로 여겨 이를 허용할지도 모른다. 이런 실질적이고 현실정치적인 계산은 모두가 바로 그 상황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독립된 남한전력이 기정사실화되고 나면 미국이 거기에 대해 강하게 눈살을 찌푸릴 것이라고 추정해서는 안된다.³⁰

따라서 미 핵전략은 남한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남한을 재보장하기는커녕 남북한 양국의 확산에 강력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전략가인 폴롬카(Peter Polomka)는 1985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남한은 [핵]선택권을 배제할 것 같지도 않으며, 미 전술핵무기가 남한에 계속

존재한다고 해서 남한의 핵선택이 미연에 방지될 것 같지도 않다. 사실 핵무기의 그같은 존재는 북한에게 핵선택을 추구하려는 동기를 설득력 있게 부여해준 있으며, 그 결과 거꾸로 남한의 대응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³¹

한반도에서의 확산 역동성이 남한의 재보장을 명하는 것으로 축소될 수는 없다. 남한을 재보장한다는 것은 북한을 놀라게 한다는 것을 의미해왔고 북한에게 강력한 확산동기를 부여했다. 장차 남한은 미국이 점차 통제할 수 없는 방법으로 북한의 확산 움직임에 대응하게 될 것이다. 결국 육군의 전투핵무기가 남한에 제공하는 '재보장'은 비확산 전략을 종식시키게 될 것이고, 미 핵무기가 남한에서 철수된 후에도 오랫동안 비확산 전략 용호자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요약하면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남한에 핵무기를 유지한다는 것은 만약 중독자에게 헤로인을 처방하는 것과 같다. 강한 마약은 상습복용자를 죽이게 되고 결국 공급자의 가게까지 망하게 만든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울을 재보장하기 위한 전술핵무기는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의 미 핵해제모니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한반도에 핵군비 경쟁이 싹트도록 자극하고 있다.

제15장 한반도의 군축

군사분계선은 고정될 것이다. 그리고 양쪽은 적대적 군사력간에 비무장지대를 만들기 위해 이 선으로부터 2km씩 물러서게 될 것이다. 비무장지대는 전쟁의 재개로 이끌지 모르는 사건의 발생을 막기 위한 완충지역으로 수립될 것이다.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1953

이 연구의 1부, 2부에서 설명된 40년 가까운 핵전략의 유산은 미국이 오늘 날 한반도에서 핵 딜레마라는 여러 갈래의 갈퀴에 찔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미국은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면서 핵전을 포함한 전쟁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른 한편 미국은 핵우산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태평양 동맹국들에게 재보장하고 남한의 핵확산과 군사행동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핵위협과 핵전투-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쓰인 경쟁적인 책략들-는 남한인들에게 핵무기의 유용성과 불가피성을 과시함으로써 핵확산을 막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그것들은 공세적 군비경쟁을 가열시킴으로써 한반도의 안보 교착상태를 더욱 경색시키고, 핵전을 포함한 전쟁의 발발 가능성성을 줄이기는커녕 더 늘리고 있다. 이 연구의 3부에서는 한반도에서 핵무기 선제사용이 강대국간의 전면 핵전쟁으로 확전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장에서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치상태를 강화시키기보다 긴장을 완화시키고 정치적 해결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둔 새로운 정책방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더 이상 표류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강경하게 주장한다. 한반도에서의 현상황이 또다시 40년간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 한반도에서 도화선이 점화되고 태평양의 화약고가 폭발하게 된다면 그 파편들이 어디로 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접근을 통해 한반도를 중립국으로 만들어 유지시키려고 하는 다자협정들과 미국의 일방적인 주도권을 결합시키게 될 것이라고 제시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인들 스스로가 통치 및 연방제 문제를 그들의 불안을 확대시키기보다 축소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미군의 갑작스런 철수는 남북한 사이의 핵군비 경쟁을 촉발시켜, 서로 선제공격을 가하려고 하는 동기를 창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미국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따름이다.

따라서 이 장은 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위한 종합정책이 위성단에서 개발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혹자는 최근 미소간의 해빙무드가 한반도의 대치상태에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할지 모른다. 하지만 1972년에 초강대국간 데탕트는 한반도에서 긴장과 적대감의 고조로 이어졌다. 동아시아를 뒤덮은 정치, 경제의 따뜻한 바닷물이 한반도의 빙하를 녹일 것이라고는 결코 확신할 수 없다.

이 장은 아래에서 이야기되는 정책변화를 채택하도록 행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의회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좀더 강력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는다.

무장외교

한국전쟁 이래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군사적인 고려와 제도들에 의해 지배되어왔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현정책은 한반도에서의 핵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문제를 인정할 수조차 없다.

레이건 대통령하에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대단히 반악한 것이었다. 카터의 몰락으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화해문제를 제기하는 것조차도 레이건 행정부에서는 '정치적 해독'으로, 국무부에서는 '즉사'로 간주되고 있었다.¹ 미국의 관료들은 저항하는 대중들이 전두환의 경찰과 1987년 7월에 막바지에 이르도록 싸울 때까지도 그들을 무시하고 있었다.² 그리고 나서 그들은

즉각 전두환의 인기 없는 후계자 노태우를 환영하였는데, 그는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을 훔쳤다고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다.

올림픽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경향을 발견할 유례없는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남한은 올림픽을 한반도 전역에서 자신의 주도권을 세울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로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남한은 올림픽을 공동 개최하자는 북한의 요구를 거부했다. 올림픽 때부터 미국 항공모함들이 근해를 지킬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올림픽이 DMZ를 가로지르는 가교가 될 수 없음을 확실히 했다. 이런 종류의 무장외교에서 물려선다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지도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미 국무부는 불확정적인 미군철수가 남북한간의 상호양보를 이끌어내는 데 이용될 수 있도록—1970년대 철군 반대론자들의 요구—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미 관리들은 2000년 이후에나 가서야 미군이 한반도를 떠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³ 동유럽에서의 소련의 일방적인 감축을 상쇄하기 위하여 부시 행정부가 한반도로부터 군대를 철수할 것이라고 추측되기도 했지만,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에 대한 기득권은 막강하다.⁴ 미 육군의 편협한 관십사는 별도로 치더라도, 전략분석가들은 일본에 대한 미 공약의 신뢰성을 지키고 지역 강대국 관계의 변화에 따른 일반적인 유연성을 지탱하기 위해 미군이 한반도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⁵

설상가상으로, 미 관리들은 공공연히 제2보병사단을 한반도에 기지를 둔 경보병 신속배치군으로 만들어 한반도 외부에서 이용하려는 생각—태평양 통합군 사령관과 합참의장을 역임했던 크로 제독(Adm. William Crowe)이 선호하는 장기—을 표명하고 있다.⁶ 주한미군은 또 유럽에서 세계대전이 시작될 경우 최소한의 병력만을 '기혹한' 조건 속에 남겨둔 채 한반도에서부터 (아마도 일본으로) 전력을 빼내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⁷ 그러한 새로운 방향설정은 남한으로 하여금 주 관심사인 북한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미국의 지역갈등에 휘말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또 한 소련이 북한과의 관계를 심화하도록 자극할 수도 있다. 북한으로서는 독자적 핵폭탄 계획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그 변화를 이용할지도 모른다.

외교적 침체

레이건 통치하에서, 미국은 1980년 이래로 북한의 모든 외교적 제의들을 무시하거나 회피해왔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북한이 남한정권의 정당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남한의 독립적 존재에 대해 인정하게 만들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⁸

아마도 레이건 행정부하에서 놓쳐버렸던 기회 중 가장 아까운 예는 1986년 6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이 제안했던 3자회담안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었을 것이다. 이 제안은 미국과 남한에 대한 커다란 양보를 포함하고 있었다.⁹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미국으로 하여금 남한을 완전히 대등한 자격으로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도록 제안함으로써, 미국의 오랜 요구를 충족시켜준 것이었다.

화가 난 미국의 한 외교관은 “우리는 그 위에 온통 채를 뿐였다.”고 밝혔다.¹⁰ 그 문서를 받은 주한미군 사령관 리보시는 다른 사람이 서명했다는 형식상의 이유로 북한의 제안을 거부했다(1953년 휴전협정의 북한측 서명자인 김일성 대신에 인민무력부장이 그 문서에 서명했다).

그 때 남한군 고위 보좌관들은 남한이 그 제안을 수락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그것을 즉각적으로 거부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 미국의 한 고위외교관은 나중에 “우리는 북한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이라도 있으면 군사정전위로 가지고 오라고 말했다. 그들이 그랬을 때 우리는 남한이 군사정전위 당사국이 아니라고 말했다.”라고 말했다.¹¹ 그는 미국측의 거부로 인해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느끼는 것 못지않게 우리도 비양심적이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명백히 무장외교는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가 교착 상태를 향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1987년에 미국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북한과 논의하고자 하는 의사를 중국을 통해서 전달하는 널리 알려진 조처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안은 어떤 새로운 영역도 개척하지 못했다. 대신에 그것들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예전에 이미 제안된 것들을 반복했을 따름이었다. 예를 들어 연례적인 팀 스피리트 훈련의 규모와 빈도를 줄이지는 않은 채, 미국은 단지 북한에게 남북한의 훈련에 참관인을 상호교환하자고

초청하는 낡은 제안을 했을 뿐이었다. 미국의 한 정보분석가는 이런 제안을 논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매년 훈련규모를 확대하면서 북한 사람에게 훈련을 참관하라고 초청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모독이다. 그것은 정치적인 상황을 개선하기보다는 악화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또한 1987년 6월에 북한이 상호 병력감축을 제안하며 1987년 말까지 10만 명을 감축시킴으로써 일방적으로 이행하기 시작하겠다고 한 것을 무시했다.¹² 북한이 그 이전에 제안했던 대화요청을 남한이 1987년 3월에 거부했던 것과 궤를 같이하여, 예상했던 대로 남한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¹³ 미국 관리들 또한 북한의 제안은 선전책동에 불과하다고 무시해버렸다.¹⁴

이런 애피소드들은 군사적으로 운용되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북한과의 유일한 대화창구라는 것에 따른 일반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배치는 남한군이 서울에서 권력을 장악하거나 혹은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대사보다도 특히 위기시에는 서울에서 훨씬 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임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다. 미군 사령부의 내부정보는 종종 남한군으로 하여금 미국의 외교적 선택에 선수를 쳐서 북한에 대해 공공연히 강경노선을 취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배치는 남한군이 미국의 외교에 대해 하극상을 범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전쟁이 중단되었을 뿐 새로운 전쟁의 그림자가 절개 드리워진 판문점에서, 사용되고 이해되는 유일한 언어는 폭력뿐인 판문점에서, 군부가 영원히 평화를 협상하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다.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서 미군장성에게 미국의 외교적인 이해를 대표하도록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국무부의 한 냉소적인 관리가 말했듯이, “우리가 4성장군을 남한에 보내면 몇 주일 지나지 않아 그는 사팔뜨기가 되어버린다.”¹⁵

좀 덜 적나라한 민족주의자의 말로 표현하면, 미군이 미국의 군사적 이해보다 정치적 이해를 우위에 둘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또 남한군은 가능하다면 미 대사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을 맞대결시켜 어부지리를 얻는 것을 포함하여 미국의 인식과 반응을 조작하는 데 능숙하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비통제와 군축을 추구하기는커녕, 북한에 대해 명백히 공세적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남한의 급속한 군사적 증강을 지원하고 부

추겨왔다.¹⁶ 미국은 또한 남한이 지역적 반소연합을 적극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왔다. 이 정책은 지역적 강대국간의 경쟁에서 남한이 일정정도의 역할을 다하도록, 또한 한층 강력한 무기 특히 해군력을 확보하도록 남한을 고무하고 있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이 모든 경향은 북한으로 하여금 소련에 좀더 접근하게 만들 것이다. 소련도 태평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이다. 중소관계의 미래에 비춰볼 때, 이런 경향들은 현재 소련이 북한의 비행장과 항구를 사용하는 것에 덧붙여 북한에 군사력을 배치하도록 촉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련의 심화된 개입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한국전쟁의 발발에 좀더 주의를 기울일지도 모르지만, 이런 진전은 한반도에서 초강대국이 직접 대결할 위험성을 증대시킨다. 남북간에 독설적인 적대감의 수준은 증가할 것이고 그와 함께 DMZ 부근에서의 우발적인 전쟁 위험성도 증대될 것이다.

해 빙

중거리핵전력(INF) 협정으로 상정되는 제2차냉전의 해빙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인 적대감을 감소시키지 못했다. 북한에 비해 남한이 군사적 우위(점증하는 경제적 주도와 함께)를 점하는 상황과 결합된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도 또한 핵확산을 점화시키는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경향을 완화시키기 못하거나 혹은 뒤집지 못하는 정책들은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핵확산이라는 상호연관된 위험을 증대시킬 것이다.

미국의 정책을 이끌고 있는 '거울로 된 방'을 빠져나올 방법이 있는가? 다음 제안들은 대안으로 제시되는 정책패키지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들이다. 중요한 것은 조치들이 취해지는 순서가 아니라 딜레마의 모든 요소들이 포괄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1)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미군 혹은 남한군이 그것을 좋아하든 않든간에, '핵'이라는 비밀은 이미

남한정치에서 누설되어 도로 메울 수 없게 되어버렸다. 핵무기는 남북대화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군사적 대치상태를 불안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 핵무기의 존재 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을 초래하고 있다. 협소한 정치적 시각에서 보더라도, 지금이 바로 미국이 남한에서 핵무기의 의심스런 억제이익을 좀더 실질적인 안보이익으로 맞바꿀 때이다.

더욱이 그 명령이 미국측의 아주 높은 곳에서 나온다면, 그들의 개인적인 속셈이야 어떻든간에 남한에서 핵무기를 철수하는 것에 대해 육군의 적극적인 반대는 거의 없을 것이다. 실제로 1976년에서 1978년까지 DMZ 서부방면에 있었던 주력인 1군단 사령관이었던 쿠쉬맨 중장은 1988년에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문제를 덜어버리기를 요청했다. 그는 담담하게 "남한의 방어를 위해 더 이상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했다.¹⁷ 1977년에 화이트는 남한에 있는 핵무기가 특히 북한에 두려움을 주며 실질적인 교섭력이 될 수 있다고 미국방부에 지적했었다.¹⁸

미국은 핵위험을 감소시키고 군사 대치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솔선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핵선제사용금지: 미국은 한반도에서 중국·소련과 핵선제사용 금지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전에 했던 제안(1972년 국방전에서 처음 제기되었던)을 다시 제기하여야 한다.¹⁹ 비록 서울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만 하겠지만, 이 협정은 남한의 입장과 무관하게 추구되어야 한다. 일방적인 핵선제사용 금지 협정은 남북대화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경제적 문제에서부터 본질적인 안보의 문제로 움직여야만 한다고 남한정부에게 경고하는 충격요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소련은 극동에서 강대국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대단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다. 아마 이 두 국가들은 핵선제사용 금지선언을 공포하기 위한 쟁무적인 미국의 제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핵선제사용 금지 협정은 다음의 비핵지대화 제안의 서곡으로서 우선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며 그 후에는 비핵지대화 제안과 나란히 추구되어야 한다.

비핵지대화: 강대국간 핵선제사용 금지협상의 당연한 결과로써 남한이 비핵지대화 선언에 대해 북한과 협상을 개시하고 또한 남북한의 핵비확산 서약을 공고화하도록 격려해야만 한다.

비핵지대화는 소련과 중국(이)들 중 어떤 나라도 북한에 핵을 배치하고 있지 않다)이 본질적으로 필적할 수 없는 미국의 양보를 수반하므로, 남북한간의 협정이 비핵지대화를 위한 적절한 형식이다.

비핵지대화는 북한의 실질적인 정치적·군사적 양보, 특히 공세적 전력의 감축을 대가로 하여 제안되어야 한다. 남한군이 자기중심적인 이유(시민사회를 지배하기 위한 자기의 권력기반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도적으로 군비통제에 반대하므로, 미국은 남한에서 군비통제와 비핵지대화를 지지하는 대항세력을 육성해야 한다.

1987년초에 남한 외무부가 수행했던 비핵지대화 연구의 미(未)삭제판이 북한의 핵을 허세로 간주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런 작업이 보기만큼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같은 이유로 미국은 비핵지대를 조성하기 위해 기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북한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 북한은 남한에서 미 핵무기의 즉각적인 철수–평양에서 제기하는 날짜가 비현실적이긴 하지만–를 요구하느니 차라리 단계적인 철수를 수용할 것임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또한 미 지상군이 핵무기가 철수된 후에도 여전히 주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 같다.²⁰ 하지만 북한은 그러한 조치들에 대한 수락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을 강요하고 있다. 때때로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지대가 북한이 그간 안전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단언해왔던 공해와 공공까지도 포괄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이것은 워싱턴이 수용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중국과 소련이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의 반핵 수사이에 걸맞게 행동하도록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게 하기 위해, 미국과 강대국들과의 비핵지대화 협상은 남북한간의 비핵지대화 협상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비핵지대화를 논의하기 위해 특별 3자회담을 하자는 북한의 제안 속에는 남한을 미국 핵의 괴뢰–결국 남북한간의 비핵지대화 협상은 실패할 운명인 셈이다–로 묘사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으므로 남한은 이를 거부해야만 한다. 또한 미국은 일본과 기타 태평양 국가들과 미리 협의하여 그들이 미국의 외교로 인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협정은 강대국들에게 승인받아야 할 의정서를 제공할 것이며, 이에 따라 한반도와 그

지역 전체에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군비통제 과정의 보장을 위한 형식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남한이 북한과 성실하게 비핵지대화에 대해 협상하기를 거부한다거나 혹은 북한이 정치·군사적 양보를 거린다 해도, 미국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남한에서 핵무기를 철수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남한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서울로 반환되기 전에, 그리고 핵확산이 다시 감당할 수 없게 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절박성 때문에 미국에게는 2년 정도의 유예기간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이 조치는 남한을 통치하는 자가 민간인·군인·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핵철수에 대한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군이나 남한군이 손댈 수 없도록 핵표적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핵포, 핵충격폭탄, 렌스 미사일, 남아 있는 모든 핵자뢰를 철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철수로 인해 북한이 DMZ를 넘어서 선제공격을 가하려고 했던 주요한 동기가 사라져버릴 것이다. 핵무기 제거는 또한 미국의 핵단위부대와 남한군과의 사실상의 통합을 해체시켜버림으로써, 남한에 핵무기가 배치되어야만 한다는 남한군에 대한 과시효과를 뒤집게 될 것이다.

핵철수는 핵무기가 남한의 방어에 불필요하다는 것을 남한측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다. 만일 북한이 침략과 근해 핵공격의 위협이라 여겨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불안정한 공세적 억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한반도로부터의 핵무기 철수–의지의 강력한 상징–는 불신의 주된 원인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2) 민주화

가장 시급한 조치는 남한에서 정통성 있는 문민통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노태우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그는 기본적으로 남한 육군에 있는 강경노선의 보수파와 급진주의자들의 포로로 남아 있다.

보수적 엘리트와 학생·노동자 저항세력을 남한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해 전

혀 다른 정치적 시각을 지니고 있다.²¹ 민간정권이 얼마나 민주적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는 위상턴이 아니라 이를 반목하는 세력이 잘 해결해나가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군부를 문민통치에 복속시키는 것은 한반도에서 핵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치적 변화이다. 남한군과의 제도적인 통합 때문에 미국은 필연적으로 남한군의 정치적 역할에 개입하게 된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 이면에 있는 추진원리로 민주화를 채택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새 대통령 노태우는 위장한 군인 이지 민주주의자는 아니다. 그는 1980년 광주에서 학살된 시민의 피로 얼룩진 민간인 복장을 한 장군이다. 노가 남한사람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정통성을 얻을 수 있을지는 극히 의심스런 일이다.

둘째, 미국이 군부지배의 통치체제에 집착하여 민주적 저항세력을 무시한다면, 그 정책은 정치·군사적 위기를 초래하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이런 결과는 북한의 공세적 의도에 대한 최악의 경우 해석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상황이다.

셋째, 민주화는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여는 데 핵심적이다. 남한군은 폭력적인 반공 세계관을 너무도 고집하고 있으며 절대권력에 수반되는 특권들 때문에 너무도 타락해 있으므로, 어느 누가 지원한다 하더라도 '북방정책'을 지지할 수 없다.

더욱이 미국은 서울에 진정한 민간정부가 세워진다면 그 정부가 북한과 협상하려는 정치적 동기를 지닐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정부는 정치적 압력을 품은 군부에 대항하여 대중적 정당성을 얻으려 할 것이다. 북한과의 생산적 대화는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다른 잠재적 원천—노동운동이 경제성장에서의 몫을 중대시켜주기를 요구하는 때에 실질소득을 급격히 인상시키는 것—보다 훨씬 달성하기가 쉬울 것이다. 또한 북한과의 진정한 관계개선은 군사적인 위협을 감소시켜, 포위감을 누그러뜨리고 군사자원을 민간경제로 전환시킬 수 있게 할 것이다.

남한군보다 민간정부가 우위에 섰을 때 나오는 이익은 명백한 것이다. 그것은 북한이 남한정부를 정당성 없는 미국의 괴뢰라고 공격하는 것을 훨씬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일단 민간우위가 확고하게 정착된다

면, 남한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남한에 이양하겠다고 선언해야만 한다. 작전통제권 이양은 남북한사람들 모두의 눈에 민간통치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것은 군의 민간정부에 대한 정치적 복속을 명백히 강화할 것이며, 북한에 대한 남한의 정책에서 군사력보다 민간정부의 외교가 우위에 서도록 할 것이다. 민간정부가 북한에 대한 자신의 유화적 태도를 남한의 군사문제에 대한 완전한 주권적 지휘권 회복과 연결시킬 수 있게 된다면, 다른 경우라면 북방정책을 반대했을 군부로 하여금 중요한 민족주의자들의 위업—군부내 대다수가 하여튼 열망하는 상태—을 방해하는 듯한, 지지받기 어려운 위치에 처하게 만들 것이다.

남한군에 대한 미국의 영향은 과장되어서는 안된다. 국군보안사령부와 같은 정보기관으로 구현된 군의 사회적·정치적 통제기구를 해체시킬 주체는 미국이 아니다. 남한사람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정치적·경제적 제도들을 비군사화해야 하고, 노태우가 적절히 유지하고 있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법적인 장애물 덤불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미국관리들이 남한의 국내정치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 비판적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상황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전혀 무력하지만은 않다.²² 남한의 정치학자 최장집 교수가 간파했듯이, 미국은 남한 군에 대해 종종 그릇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미국의 영향력이 반드시 남한내 정치상황에 대해 특정한 행동이나 간섭 등의 적극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만은 아니다. 일정행동을 취한 사람들에 대한 반대 또는 암묵적 지지와 다름없는 방관과 같은 행동이 정치변화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반도의 정치행위자가 행한 특정한 행동이 미국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거나 또는 미국의 이익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²³

따라서 문제는 남한의 다음 정치위기에서 미국이 자유화나 민주화에 끼칠 수 있는 즉각적·한계적 영향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태도 여하에 따라 전체적인 정치일정을 조건지어야 한다.

확실히 미국은 정권이양과 민주화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맹국들로부터의 외교적 압력을 조절하고, 군사적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며, 미국에

대한 남한군의 기술적 종속을 이용하며, 필요하다면 강력한 다면적 경제제재를 추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기가 임의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만 한다. 그러나 서울에서 워싱턴의 진짜 위력은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 있다.

(3) 북한의 인정

남한의 정치일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인정이 필요하다. 북한을 고립으로부터 끌어내는 것이 비무장지대 주변에서의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고, 한반도에서 의도하지 않은 전쟁과 핵확산의 위험을 줄이는 열쇠가 된다.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한 외교적 압력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해 강대국들이 취한 조치의 결과이다.

1987년 3월까지 미 외교관들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북한 외교관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금지당했었다. 그 때까지도 그들은 북한사를 냉대하는 소아병적 관행을 따라야만 했는데, 아무리 적대감이 깊더라도 현실외교로서는 커다란 과실이었다.²⁴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키신저가 공직에서 물러나기 전에 준비하고 있었던—은 미국이 한반도의 안보적 교착상태를 타개하려 한다는 의도를 아주 명확히 해줄 것이다. 이 외교관계 수립은 유리한 조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민간의 민주적 민족주의자들과 협력하도록 남한군에게 엄청난 정치적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다.

핵위협을 가하는 것은 북한이 자신의 안보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미국이 알아내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관계 개선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지난 의도의 순도를 시험해보는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미국은 북한의 전력태세가 남한에 대한 직간접적인 공격을 위해 편성되었는지 아니면 북한에 대한 남한의 공격에 대항하는 공세적 억제로 편성되었는지를 간단히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외교관계 수립은 잠재적 협력의 영역을 탐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외교적인 의사교환은 안보 교착상태를 타개할 후속조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미국은 앞서 개요를 말한 바 있는 단계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협상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결합을 변화시키면서 이러한 조치들을 일방적으로라도 취해야 한다.

(4) 병력철수, 전력감축, 군비통제

핵무기 철수, 남한에서의 민주화의 추구, 북한의 인정 등은 실질적인 군비통제와 전력감축 조치를 남북한 모두에게 부과하기에 충분한 신뢰를 조성할 것이다. 주한미군은 핵무기 외에도 지상군·공군·해군으로 구성되고 군사원조로 보충받고 있다. 이 요소들은 남북한이 자신들의 상호 비대칭적인 공세적 전력을 감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결합방식과 순위로 조정될 수 있다.

도발적인 훈련축소: 중요한 일방적인 조치는 미국이 팀 스피리트 훈련의 규모—1987년에 25만 명 이상의 남한군과 미군이 참여—를 크게 축소하고 이를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한 움직임이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미국은 북한이 유사한 훈련을 그만둔다면 자신도 그 훈련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자신의 의도를 선언해야 한다. 실제로 북한은 1987년 2월에 그런 훈련들의 일시적 중지를 요구했었다. 미국과 남한이 DMZ 근처에서의 사전예고 없는 북한의 훈련에 대해 불평해왔기 때문에, 양쪽은 그런 일시적 중단으로 소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무기이전 제한의 회복: 또한 미국은 남북한으로의 무기이전에 대한 강대국의 암묵적인 제한조치를 즉각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이 조치는 미국이 남한에 F-16 전투기를 제공하였을 때 일방적으로 파기되었다.

부수적인 철군의 개시: 미국은 진지한 군비통제 회담이 시작될 때 남한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임을 선언함으로써 남북한의 전력감축 과정을 주도할 수 있다. 이 회담은 비무장지대를 다시 비무장화하고, 공수특공대와 같이 전진 배치된 공세적 전력을 비무장지대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될 것이다.

중립적인 평화유지군: 중간단계로서, 미국은 제2보병사단을 서울 이남으로 이동시켜 신뢰감을 증대시키고, 유엔군사령부를 진정한 중립국 평화유지군에게 넘길 수 있을 것이다. 유엔군사령부는 국제평화 유지의 모든 기본원칙과 모순되고 있는데 그 원칙은 다음과 같은 것을 필요로 한다: 중재병력은 (1) 중립국의 부대들로 이뤄져야 하고; (2) 양쪽 갈등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중재에 나서며; (3) 이해 당사자의 균형잡힌 참가를 대립세력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4) 갈등 국가간의 평화유지뿐 아니라 화해에도 공헌해야 하

며; (5) 경무장을 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고; (6) 후원하는 실체로부터 무조건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²⁵

진정한 평화유지군은 기존의 중립국감시위원회나 새로운 기구에 기초하여 편성될 수 있다. 더욱더 전전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평화유지군이 독립적으로 철저히 군비통제 조치를 감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자유로이 조사하도록 모든 당사자들이 허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미 시나이 반도에서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교한 전자적·영상적·음향적 감시기술이 평화유지군을 지원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²⁶ 사실 군비통제를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장을 자동화하기 위해서지만, 미 육군은 한반도에 그런 감시체계를 이미 설치하고 있다.²⁷ 미국은 자신의 핵전력에 대한 국제사찰을 허용하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핵철수는 한반도에서 효과적인 군비통제 검증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상호전력감축: 그러나 진정한 화해의 달성을 남북한의 기존 공세적 전력을 해체하기보다는 증가시키고 기동 방공망과 같은 신무기의 도입을 막기보다 증대시키려는 유혹을 피하는 데 달려 있을 것이다. 더욱이 북한이 추진하는 바와 같이 보다 더 소규모 전력으로의 단순전력 감축은 은밀한 움직임과 '포위돌파'를 더 쉽게 만들어 불안정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전력은 감축된 채 재구성되어 공격력에 대한 방어력의 비율이 증가되어야 한다. 어느 한쪽의 공격력이 줄어들면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방어력도 자연히 줄어든다. 이런 양식에 따르면 폭력에 대한 절대적 잠재력뿐 아니라 불안정성은 눈에 띄게 감소할 것이다. 실제로 미군철수는 이러한 상호 전력감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남한사람들이 우려하듯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1988년 이래 북한은 이러한 접근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처럼 보인다.

지역적인 군비통제: 카터의 철군정책에 대해 흔히 이야기되는 정확한 비판은 그것이 철수에 앞서 한반도에 정치적·군사적 해결을 이루할 필요성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똑같은 것이 그 지역적 맥락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은 쟁무적 및 다자적 차원에서 지역 군비통제 회담을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한다. 시급한 목표는 남북한으로의 무기이전에 대한 제한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전반적인 목표는 전체 북태평양지역에 대해 핵과 해군 군비통제

및 군축의 절박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 후자의 과제는 이 연구영역 밖의 일·비록 한반도가 이 지역문제의 실질적인 일부분이기는 하지만—이다.²⁸ 그러나 이 지역의 군비증강을 역전시키는 데 실패한다면 남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의지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지역군비 회담의 핵심적인 목표는 남북한의 독립과 안정에 대한 강대국의 보장을 획득하는 데 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소련은 태평양에 대한 그들의 '평화지역' 개념을 한반도에까지 확장하려는 어떤 경향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지 않다. 소련의 공공연한 수사어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동북아시아(한반도를 포함한)에서의 비핵지대화에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비핵지대가 자국영토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고 유럽에서의 우선적인 이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²⁹

소련이 북한에서 지니고 있는 강력한 지위를 자국안보에 대한 위협감소와 맞바꾸려는 동기가 소련에게 부여되지 않는다면, 소련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재를 끼얹을 수도 있다.

(5) 한반도의 중립화와 신질서

한반도 안보 딜레마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한반도에 새로운 정치질서를 수립하는 데 달려 있다. 미국의 정책은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하여 적대적 대결상태를 강화하기보다 남북간 대결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으로써, 한국사람들이 자기자신들의 관점에서 평화공존, 연방제,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추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분단 후 40년이 지난 지금, 통일을 향한 급속한 진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북대결을 완화하면 결국 남북의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집어삼키게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³⁰ 남북한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정치적 집단들은 하나의 민족으로 유지하기 위한 열망을 나타내왔고, 남북협력과 연방제를 향한 과도적 조치들에 대한 제안이 양쪽에서 많이 제기되었다.

1988년 2월에 시작된 남북회담은 남북한이 마침내 서로를 수용할 채비를 갖추었음을 보여주었다. 사실 남한과 중국·소련 사이에 싹트고 있는 무역

및 정치적 접촉은 한반도가 정치·경제적 난류의 유입에 따라 냉전의 빙산을 점점 더 많이 녹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그러나 평양에서는 이런 진전이 남쪽의 위협, 한미연합 위협, 재래식/핵 군사위협의 수위를 좀처럼 낮추지 못해왔다. 북한의 고립심화는 평양의 위협인식을 고조시켜왔을 뿐이다. 레이건이 북한에 보낸 메시지에 의하면 미군은 북한이 '독일식 해결'에 굴복하지 않는 한 남한에 존재할 것이라는 것 이었다. 이는 동아시아 태평양담당 국무차관보인 시거(Gaston Sigur)가 1988년 10월 20일 말했던 바와 같다. "남한에 우리의 지상군 전력을 유지하기로 한 우리의 정책을 변화시킬 어떠한 생각도 없다."³¹ 1989년초 주한미군은 4만4천 명에 달했다. 1년 후에, 미국관리들은 남한에 있는 병력에서 명목 상 총 5천 명을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만 하고 있었다. 미군의 규모는 이러한 철수가 완료될 때쯤 되면 1980년과 같은 수준으로 될 것이다.³²

국제적 현상황이 제공하는 것이 만기일이 지난 부채상환과 군사적 불안정에 불과하다면 북한은 진지한 협상동기를 거의 지닐 수 없게 된다.³³ 한반도 빙산의 표면이 남쪽 끝에서는 녹고 있을지 모르지만 북쪽에서는 단단한 바위상태로 남아 있다.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군사적 적대감의 첫 희생자는 1989년 2월 8일 평양이 임박한 팀 스페리트 훈련에 대한 항의로 취소해버린 남북 국회회담이었다. 요약하면 핵위협을 계속하는 것은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토대를 놓을 수도 있는 정치·경제적 상호작용에 관한 남북간 협상에 치명적인 요소를 주입하게 된다.

평양에 대한 경제적 이득의 미끼는 과대평가되지 말아야 하고, 핵위협의 유해한 효과는 간과되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 갈등의 군사적 측면은 대외적인 강대국의 안보 틀에 정치적·경제적 산(acid)을 뿌림으로써 산화될 수는 없다. 강대국들은 안보문제와 씨름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의 난국에 대한 기본적인 변화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한국인들이 한반도의 국내 정치구조를 결정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중국·소련·미국·일본을 포함한 강대국들은 한반도의 국제적 지위의 중립성에 대해서 서로 동의하고 그것을 보장해야만 한다. 한반도가 스스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에는 지난 40년 동안 강대국 정치에 너무 깊이 휩쓸려 들어갔다. 차라리 한반도는 강대국들에 의해 그 중립성과 안전이 보

장되는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만났던 것은 1954년 제네바 회담이었다. 거기에서 양쪽진영은 타협을 방해하는 경직된 입장을 고수해서 정치적 교착상태를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³⁴ 한반도에서 공통의 토대를 찾는 데 또다시 실패할 수 있는 공개회담보다 차라리 유연한 외교적 협의에 의해 강대국의 입장을 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결 론

요약하면 한반도에서의 핵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정책의 기본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 세 군사강국 모두에서 실용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함에 따라, 그런 방향으로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앞에서 개요를 밝혔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미국이 더 이상 북한을 억제하거나 강제하기 위해 핵전투나 핵위협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정책을 수행한다는 것은 또한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미 국가안보기구의 역할에 맞춰진 정책의 구경(calibration) 조정과 정치적 조율을 필요로 할 것이다. 국무부는 주기적으로 평양과의 비공식적인 접촉선을 열어왔는데, 가장 최근의 경우는 1988년 11월에 있었다. 불행하게도 40년에 걸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전시를 제외하고는 미국의 외교정책 수립이 이런 류의 일관성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시 행정부가 한반도에서의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 '통상적인 업무'로부터 벗어날 것이라는 증거는 거의 없다. 그리고 카터의 패배가 무언가를 보여줬다면,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수행에 대해서 대통령의 공약만이 존재하는 정책은 동아시아에서 40년간 지속되었던 봉쇄정책으로부터 성장한 이해에 얹힌 암초에 좌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부시 대통령은 관료주의를 압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서울과 뼈이 징에 임명한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위협에 처해 있는 좀더 광범위한 문제들에 어울리는 정보기관의 배경을 지닌 전문 외교관들이었다. 그러나 부시가

—그럴 리는 없지만—만약 강경하게 밀어붙이려면, 그는 의회에서 양당의 지지를 획득해야만 한다.

따라서 의회가 한반도 정책에 대해 자기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의회는 주한미군이 수행하는 핵교리와 전략을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 육군과 남한군과의 핵협력을 조사함으로써 이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이 없기 때문에, 의회가 한반도에서 육군의 조직적 이해에 관해 편의적인 입장이 아닌 다른 것을 취하리라 생각할 이유는 거의 없다. 다음 두 장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한반도에서 미국의 정책변화에 대한 주요한 부담은 한국인의 어깨에 달려 있다.

제16장 깨어진 합의

소련놈에게 속지 마라,
미국놈에게 의존하지 마라,
일본놈 끝 다시 일어설 것이다,
한국인이여, 자신을 돌보라!
—1945년 한국에서 유행했던 말¹

30년 동안 미국은 억제·강제·재보장이라는 다양하면서도 때로는 모순되는 목적을 위해 남한에 핵무기를 보유해왔다. 1부에서는 핵무기를 배치함으로써 동맹국들을 재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정치적인 반대세력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일본에서 그것은 핵전략에 대한 거대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1부와 연관된 주제는 남한에의 핵무기 배치와 처음에는 일본에서 나중에는 오키나와에서의 핵무기 축출과의 연관성이다. 남한의 미 핵전략이 지니는 지역적 비중은 육군이 남한내에서 자신의 이익이 철수로 인해 위협받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무부와 국회를 움직이게 했을 정도였다.

1970년대에 독자적 핵억제를 보유함으로써 미국의 핵재보장을 대체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남한정권의 의지는, 미국에게 핵재보장 제공이 일본과의 어려운 관계는 별도로 한다 할지라도 비확산이라는 매우 제한된 목적마저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했을 것이다.

그러나 재보장 전략의 아킬레스건은 언제나 남한 자체내의 핵전략의 괴상적인 대중적 정당성에 있었다. 오랫동안 억압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핵문제는 이제 남한 내부 및 남북한 사이에서 정치적 의제로 분출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남한에서 핵전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변명을 재검토한다. 그리고 남한에서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로지르며 버섯처럼 둑아나는 핵무기에 대한 반대에 관해 검토한다. 또 이러한 발전이 남북 그리고 한미 관

제에 대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조사한다. 이 장은 남한에서의 핵문제가 너무나 강력해서, 핵의 현상유지에 대한 미 육군의 견고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핵무기를 철수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의암과 근거

핵무기가 남한에 배치된 이후, 미국과 남한정부는 핵전략에 관한 공개적인 토론을 저지하는 비밀주의와 정치적 억압을 유지해왔다. 결과적으로 남한에 있는 핵무기를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정당화하는 길은 강경한 반공주의였다. 극단적인 반공주의를 제외하면 핵무기는 정치적 혹은 군사적 근거가 거의 없었다.

1987년까지 비밀주의의 벽을 깨는 유일한 소리는 일본 혹은 미국의 언론매체의 기사에 대한 국내의 반응이었다. 핵무기에 관한 일본의 해외뉴스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응한다고 하더라도, 남한의 대부분의 관계언론은 진실을 왜곡하면서 정부의 노선을 따랐다.

이것을 드러내는 사례는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1983년 마이어 장군의 언급에 대한 사실의 취급이었다. 한 신문은 독자들에게 핵무기가 북한이 공격을 주저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에 마이어의 결의로 인해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사용될 수도 있는 중성자 폭탄은 재산을 파괴하기보다 사람만을 죽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 신문은 한국인들은 핵전에 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결론지었다.²

일반적으로 군부는 적극적으로 핵전략을 진전시키기보다 벌집쑤시는 짓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를 더 원했다. 그들은 핵전략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단순한 반공주의에 의존했다. 일반대중의 지지는 물론이고 엘리트 반대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도 있는 작전교리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핵전략은 군사통치에 대항하는 남한의 민주화 운동으로 봉괴되어버린 허약한 이념적 토대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반핵 비상

오늘날에도 남한에서 군사적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금기사항이고 반역죄에 해당된다. 1970년대 후반에, 핵문제는 엄격한 통제를 무시하는 데 따르는 결과를 기꺼이 감수하려 했던 종교적 반체제 사회운동의 영역이었다. 종종 환경단체들이 남한의 핵에너지 프로그램에 제동을 걸면서 간접적으로 핵무기 문제에 접근하였다.

그러나 1985년초 군부정권을 쓰러뜨리려고 투쟁하던 학생들이 자기들의 반미투쟁의 일부로 명확한 반핵 테마를 전개하기 시작하였다.³ 1987년 까지 반핵구호는 정부에 대한 주요한 이념적 무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1987년 8월에 열린 한 대학집회에서, 학생들은 미국이 남한에 있는 핵무기에 관한 기본정보조차 남한에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이 '식민지'라고 표현하였다. 그들은 미군의 남한군에 대한 통제가 핵무기의 유지를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작전통제권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핵무기 철수와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요구하였다.⁴

그러나 학생운동권 밖에 있는 남한의 활동가들은 학생들의 반핵운동 결과를 매우 제한적으로 받아들였다. 한 활동가는 "대중은 핵무기가 자기들의 생존을 보장해준다고 여겨왔다."고 기술하였다.⁵ 그들은 대중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여기게 되었는가라고 질문했다.

반공이념과 '두꺼운 정보통제의 벽'이 명백한 대답이었다. 유일한 해독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누가 우리나라에 핵무기를 들여왔고 어떻게 들여왔는가, 그리고 이로부터 누가 이익을 보는가—이것들은 반핵운동에서 제기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다."⁶

이들 반대자들은 핵문제에 관한 대중의 무관심이 관계언론 탓이라고 비난하였다. 남한언론은 스스로 검열하며 정부의 친핵노선을 따르고 있다. 그들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핵우위와 핵우산 덕택에 존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1985년의 노예적 사설에 대하여 격노하였다.⁷ 그들은 "한국인의 결정의 지와 능력"보다 미 핵전략의 우위만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남한언론을 비난하였다.⁸

그들은 "남한 지배집단의 핵정책은 미국 지배집단 핵정책의 복사본이고,

남한언론의 견해와 양국 공식정책 사이의 상관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⁹

언론통제와 더불어 남한의 국가안보기관이 핵비판에 대해 공공연한 억압과 협박을 자행하였다. 교회 활동가들은 정기적으로 정보기관의 사찰을 받았다. 대중적인 반대는 ‘위법’ 또는 북한을 지원하는 것으로 매도되었다. 활동가들은 황색 저널리즘과 정치적 억압을 미국의 시인도 부인도 않는 정책의 이면으로 간주하였다.¹⁰

정치적 강령 위로

모든 장애에도 불구하고, 군부통치의 억압을 뚫고 반핵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많은 새로운 반대세력의 중심이 등장하였다. 1987년 9월 대통령선거 유세중에, 야당인 통일민주당은 남북 평화공존의 기초 위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 제안은 서울과 북한의 불가침조약 체결과 미국의 남한군 통제권 반환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별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국가안보위원회의 시기는 1987년 9월 15일 서울에서, 미국은 태평양에서 어떠한 비핵지대화에도 반대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이러한 정책을 선제공격해야만 했다. 게다가 그는 미국은 핵무기의 존재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않겠으며 미국의 핵작전에 대한 어떠한 제한에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¹²

9월 25일, 국회에서 야당은 반핵열기를 드높였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정호용 국방장관은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남한에 핵무기가 없다고 하면 북한은 비핵화를 요구해올 것이다. 우리는 그로 인해 과생되는 여러 문제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약 핵무기가 남한에 있더라도 그렇다고 말할 수 없으며, 없더라도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¹³

아마 가장 눈에 띄는 반대는 1987년 9월 시민단체연합이 남한군에 공개서한을 보냈을 때 나타났던 것 같다. 그들은 남한에 얼마나 많은 핵무기가 있

는지 질문하였다. 수천 명의 남한사람들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이미 겪었던 핵전쟁의 위험을 남한에 있는 핵무기가 더욱 증가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전적으로 미국인들의 손에 의해 통제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 때 국방부가 보내야만 했던 불충분한 답변이야말로 남한에서 이 문제가 지니고 있는 이념적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¹⁴

반핵요구는 1988년에 더욱 높아졌다. 2월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모든 핵무기를 철수하라고 요구하였다.¹⁵ 3월에는 서울에 국제핵전쟁예방 의사연맹의 한국지부가 결성되었는데, 그들은 연맹이 평양에도 지부를 결성 하길 바란다고 재빨리 발표하였다—이 발언은 일 년 전까지만 해도 책임자 를 감옥에 보낼 만한 것이었다.¹⁶ 10월에 KNCC는 한반도에서의 군비축소와 핵문제에 관해 국내외에서 교육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반핵주의와 반미주의

반핵주의와 반미주의는 이제 남한의 민주적 대중운동에 주요한 주제가 되었다. 짹트기 시작한 반미감정의 깊이는 부시 대통령이 1989년 2월 그의 서울방문을 4시간 반으로 제한해야 했고, 대중시위대가 던지는 돌과 화염병을 피하기 위해 헬리콥터로 이동해야 했던 사실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이 사건은 1960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도쿄 방문을 취소시키고 미 지상핵무기 를 일본으로부터 철수하게 했던 일본에서의 반대를 상기시킨다.

1989년 1월 반대자들은 필리핀의 좌의 민족민주전선(National Democratic Front: NDF)을 모델로 한 새로운 전국적 운동을 조직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연합(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은 노동자와 농민부문에 의해 통제되고, 다른 반대자들과 교회의 반대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조직의 중심적 정치강령은 한국민족의 통일문제이다.

이 연합은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남북 갈등구조를 고쳐나가려 한다. 한 활동가는 “남한이나 북한이 다른 한쪽을 정복하게 된다면, 어느 쪽이 정말로 이겼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 진정 의미하는 바는 민족 전체의 패배일 뿐입니다.”라고 말하였다.¹⁷ 이 연합은 또한 1989년 팀 스피리트

훈련을 공세적 군사연습이라 부르고, 이에 반대하는 항의시위를 최초로 조직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반핵구호는 통일·민주화·주한미군 철수라는 보다 광범위한 요구사항으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남한에서는 핵문제가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의 주된 테마가 되면서, 남한내 핵동맹의 대중적 정당성에 대한 도전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의 영향을 받아 보수적인 세력 안에서도 정치적 논쟁이 시작되었 다. 1985년만 해도 김영삼이 주도하는 우익중산층을 대변하는 야당이 남한에 있는 핵무기에 관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지만, 1989년 2월에 그의 당은 남한으로부터 핵무기를 철수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거의 모든 교회나 대중적 저항단체들은 현재 그들의 프로그램에 미군철수와 나란히, 반핵정강을 포함시켜놓고 있다. 심지어 보수적 군부내에서조차 국방전문가들이 핵전투 전략의 군사적 유용성에 대해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1988년 11월 육군사관학교의 이혁섭은 핵무기는 억제를 발휘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것이며, 강력한 재래식 억제만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불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⁸ 예편한 남한장성 박남표는 최근 회의에서 북한에 핵공격을 가하는 것은 자신의 형체를 공격하는 참을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¹⁹

남북의 제로

이러한 국내정치적 압력은 남한정권에게 평양과의 대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도록 강요하였다. 하지만 반핵민주화운동이 통일을 향한 첫 걸음으로써 핵무기를 당장에 제거하도록 정부의 정책을 조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신 정부는 반대자들로부터 선제권을 빼앗으려 하고 있으며 핵문제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할지도 모른다.

북한과의 대화를 준비하는 데 있어, 남한 국방부와 국방대학의 안보전문가들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교섭의제를 준비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그들

의 관점에서 보면, 핵무기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심리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관리들은 미국의 핵무기 철수를 북한의 공세적 군사력의 재배치 및 감축과 연계시키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신뢰도와 군사적 가치가 의심스러운 핵전략을 북한의 실질적인 양보와 맞바꾸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남한정부는 주한미군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군이 미국에 주둔하는 것보다 남한에 주둔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미국 국가안보기구는—북한을 겨냥하기보다는 지역적 간섭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그들이 계속 주둔하기를 원한다. 엘리트 반대세력들은 거의 확실히 미군철수와 핵을 분리시키는 이 정책을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맞바꾸기’ 핵철수 전략은 남한정권에 두 가지의 위험을 가져다준다. 첫째, 만약 협상이 지연될 경우 고조되는 반핵운동이 남한의 핵 협상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국내정치적 상황에 의해 핵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정치적 압력이 존재 한다. 북한에서는 팀 스피리트 훈련이 계속되는 한 이러한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대화의 실패에 대한 비난은 남한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서울의 국내정치적 취약성을 이용할 수도 있다.

둘째, 남한은 핵영향력과의 교환조건으로 북한으로부터 정당한 군사적 양보뿐 아니라 정치적 양보까지도 받아내려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이 두 개의 한국에 대한 평양의 정치적 인정을 추구한다면, 핵문제는 남북대화를 진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 서울의 몇몇 사람들은 이 전략으로 남쪽은 핵무기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반면, 대화의 실패에 대한 책임 부담은 북한측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는 국내정치에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미국의 이중성

미 육군은 남한에서의 임무를 즐기고 있다. 미 육군은 남한에서 거의 아무런 제약 없이 훈련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운영하는 유엔사령부는 서

태평양에서 육군의 관료적인 지배력을 확고히 힘으로써, 해군이 지배하는 태평양 사령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육군부대들은 육군의 핵공격 가능한 전력을 근처에 핵무기가 없이 '별거승이인 채로' 남한에 남겨놓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할지도 모른다.

핵철수에 직면하여, 미 육군과 그 남한측 상대방이 재빨리 북한의 침략이 임박했다거나 핵개발이 임박했다고 소동을 일으키더라도 이상할 것은 없다. 어쩌면 이 예언이 들어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핵무기 유지를 지지하지 않고 논쟁에 끼어들었다. 예를 들어 1989년 11월 하와이에서 개최된 안보협의회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예편한 스틸웰 장군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핵무기는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²⁰

반대로 미군 중 몇몇은 남한에 있는 핵무기가 미국에 불필요한 정치적 골칫거리라고 믿고 있으며, 따라서 핵무기는 군사적으로 불필요하다고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쿠쉬맨 장군은 1988년에 서울에서 남한에 있는 핵무기가 북한을 좀더 무모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핵무기의 실제사용은 승자에게도 끔찍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²¹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부시 행정부를 부추겨서 남한에서 자진하여 곤경과 싸우게 만들 만한 정치적 충동이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한에서의 발전은 핵문제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한다. 워싱턴은 남한에 있는 핵무기와 미군의 군사활동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논쟁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서울이 이 문제에 대해 평양과 협의하려면 워싱턴과의 긴밀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 군비통제와 군비축소를 공식적으로 주창하는 사람들이 서울정권의 친핵 강경파들을 이긴다면, 그에 따른 부담은 평양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평양의 온건파들이 자파가 대화하고 있는 동안 서울을 공격할지도 모르는 강경파들을 이길 때에만 남북대화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역으로 서울과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북한의 의지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하여 남한이 기선을 잡는 것을 지지하고 고무하는 미국의 의지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제17장 원자폭탄

나는 20대 독신이었으며, 잘생겼다는 말을 듣지 않으면 기분 나빠할 만한 용모를 가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나는 어떤 미국 배우가 자신의 손가락을 수만 달러의 보험에 듣다는 얘기를 들었다. 누가 나에게 뉴욕주 전체를 준다 해도 내 얼굴과 바꾸지는 않았을 것이다.

-신영수¹

1945년 신영수는 일본에 강제징용당해 히로시마에서 접원으로 일하고 있던 스물여섯 살난 한국청년이었다. 첫번째 원폭 또는 삼광탄이 떨어졌을 때 그는 그라운드 제로(폭심지)에서 600m 떨어진 지점에 있었다. 그는 잊따라 일어난 일들을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다.

정신이 들었을 때 나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자문해보았다. 한쪽 다리를 움직여보았더니 움직였다. 난 내가 아직도 살아 있음을 발견했다. 난 겨우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처참한 광경이었다. 아무것도 전과 같지 않았다. 집들은 무너져 어떤 것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어떤 것들은 반쯤 파괴되었다. 사람들은 길가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들은 반쯤 벗고 있었다. 연령이나 성에 관계 없이 죄다 웃이. 찢겨 있었다. 젊은 여성들은 맨가슴이고 머리는 타 있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들이 서둘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덩비어 보였다. 그들은 마치 그릇 가장자리로 물이 넘치듯이 같은 방향으로, 마치 파괴된 도시를 빠져나가듯이 걷고 있었다. 나는 그 흐름에 섞여 있는 나를 발견했다.²

그 날 아침 신씨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오복순이라는 일곱 살난 한국 여학생이 서 있었다. 그녀가 B-29 폭격기를 보았을 때 그녀는 학교수업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던 중이었다.

나는 그것이 해를 가렸기 때문에 은처럼 빛나는 뭔가를 보았다. 그것은 계속해

서 반짝거렸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나는 쓰러졌으며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다.³

그녀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 그녀는 집에 가고자 했으나 운동장에 있던 대나무가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길을 건너서 한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갔다.

그들은 매우 이상하게 보였다. 어떤 이는 시커멓고, 어떤 이는 걷다가 쓰러져 갔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때로는 길가나 도량에서 죽기도 했다. 어떤 여자들은 아기를 팔로 안거나 업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함께 머무르려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도움을 청했다. “물, 물” 물을 마신 후에 그들은 죽었다. 어떤 사람들은 “목욕을 하고 싶어, 나는 심하게 다쳤어.”라고 외쳤다.

그래서 그들은 강으로 갔고 죽었다. 강변이 너무나 봄였기 때문에 나는 물에 들어갈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원했고 어떤 이는 펌프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런데 물을 마신 사람들은 죽었다.

난 목마르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친구들과 물고기를 잡으며 놀던 제방에 다다랐을 때 많은 물고기들이 죽어서 떠 있었다. 나는 왜 물고기들이 죽었는지 의아해했다.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왜 그런지 알지 못했다. 나는 사람들이 목욕을 하려고 강둑에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몸을 셋자마자 시커멓게 되어 죽어갔다.⁴

그녀는 웃이 열을 흡수하지 못했던 다리와, 머리 그리고 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그 후에 그녀는 자기 부모들이 폭탄 아래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폭희생자

신영수씨와 오복순씨 같은 한국인들에게 원폭투하는 한국에 대한 36년에 걸친 일본 식민주의의 고통스러운 종말을 의미했다. 80%의 한국농민이 그들의 농토로부터 추방되어 강제징용당한 결과 1936년부터 1945년까지 120만의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강제이주당했다.⁵

표적이 된 두 도시에 살고 있던 7만의 한국주민 중에서 약 4만이 즉사했으며 약 3만이 살아남았다. 약 2만3천 명의 생존자들이 차례로 한국으로 되돌아왔다. 한국전쟁이 끝나자 그들 중 약 2~3천 명은 북한에, 약 2만 명은 남한에 있게 되었다. 이 중 약 4천 명은 지역적으로 한국의 ‘히로시마’로 알려진 경상남도 합천지구로 모여들었다. 약 7천 명은 일본에 남았다.⁶ 그들은 ‘원폭희생자’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 있던 한국인들은 친척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소개되지도 않고, 피폭된 도시 밖으로 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은 피폭 후에도 폭탄이 떨어진 곳에서 가까운 곳에 남아 있었으며 낙진에 노출된 채 임시건물이나 불탄 건물의 외벽에 머물렀다. 한국인들은 종종 마지막으로 치료받았으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죽도록 방치되었다. 그들의 썩은 몸에서 까마귀들이 눈을 파갔다. 어떤 시체들은 집단화장되었다. 나머지는 무덤표지도 없이 집단매장되었다.⁷

여파

남한에서 살게 된 사람들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의 그들의 아픈 경험을 잊을 수가 없었다. 신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언제나 유전병과 후유증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들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병이나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병으로 고생할 때마다 나는 이것으로 내가 지금 죽을지도 모른다고 느낀다.⁸

남한에서 신체장애자들은 전통적으로 심한 차별에 직면해왔다. 원폭희생자들은 이러한 부담을 수없이 지닌다. 많은 원폭희생자들은 한국말을 할 줄 모르며 한국의 생활양식에 적응할 수가 없었다. 어떤 때는 일본의 부역자로 매도당하기도 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조차 따돌림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별과 가난은 그들이 병에 걸리도록 방치해두었다. 많은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구걸을 해야 했다. 이미 방치된 채, 생존자들은 종종 자신의 유일한 구원을 고립에서 찾았는데 이는 그들이 한국말을 배우기 힘들게 만들고 그들의 열등감을 심화시켰다.

여성 생존자들은 종종 남성 생존자에 비해 피폭으로 인한 두 배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만약 남편이 원폭희생자면 그는 죽거나 가족을 떠난다. 여성 생존자들은 그 경우 아이들을 길러야 했다. 만약 남편이 불구가 되어 의지해온다면, 그녀는 비록 자신도 역시 피폭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약해졌을 지라도 두 배의 일을 하면서 가족을 보살펴야 했다.

피폭자의 아이들에 대한 유전적 후유증도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그러나 많은 여성 생존자들은 자녀들의 지독한 결함을 보고한다. 아기에게 먹일 것을 구하러 처음으로 나가사키에 갔다가 피폭당한 27세의 어머니였던 김정순 씨는 이렇게 말한다.

내 첫애는 딸이었는데 만약 살아 있다면 45살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애는 38살에 죽었다. 둘째는 남자애로 아직 살아 있으며 43살이다. 셋째 역시 아들이었는데 4살때 원폭 후유증으로 죽었다. 살아 있으면 37살일 넷째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 갓 태어났을 때 그 애는 뼈가 없는 물자루처럼 보였다. 몸이 피부와 물뿐이었던 것이다. 다섯번째 딸은 21살에 죽었다. 여섯번째는 딸인데 그녀는 33살로 아직 살아 있으며 두 아이의 엄마이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원폭 후유증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녀는 이혼당했다. 그래서 그녀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마지막 애는 딸인데 30살이다. 그러나 그녀는 매우 허약하고, 모든 사람들이 후유증을 걱정하기 때문에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다.⁹

여성 생존자가 비정상적인 아이를 낳았을 경우 그녀는 종종 남편과 남편의 친척들로부터 학대를 당했다. 왜냐하면 피폭이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인 가부장적 협통의 재생산 능력을 손상시켰기 때문이다. 그녀는 커다란, 때로는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낀다.¹⁰ 많은 일화들은 많은 생존자들 특히 여성들이 자살로 그들의 비참함을 끝내려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김씨는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죽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을 볼 수 없고 길을 볼 수도 없다. 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¹¹

많은 생존자들은 허약한 자신들의 아이들과 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죽고

자 하는 자신들의 소망을 성취한다.¹²

1967년 원폭희생자들은 한국원폭피해자협회를 결성하였다. 협회는 피폭희생자의 1, 2, 3세대들이 특별한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본권을 주장하였다. 최근 들어 그들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입은 상처와 고통에 대해 일본 정부가 23억 달러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¹³ 하지만 협회는 핵군비 경쟁의 정치적인 측면이나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협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정부 복지정책에 의존하며 정치적 억압에는 취약한 그들은 불쌍하게도 은혜를 악으로 갚기가 힘들다고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자들은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 협회를 창립한 신영수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명청하게 참고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아이들이 직면할 위험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¹⁴

공식적 무시

일본인 생존자들이 1951년의 평화조약으로 미국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잃었듯이, 남한의 원폭희생자들도 1965년의 조약으로 일본에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잃었다.¹⁵ 그 조약은 남한과 일본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전쟁 배상금의 한도를 규정하였다. 그것은 한국인 원폭희생자들의 특별한 지위나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은 남한정부에 지급된 배상금 중 아무것도 받아낼 수 없었다. 지금까지 유일한 일본의 공식적 도움은 1981년 맺어진 남한-일본간 협정에 따라 의료치료를 받고자 일본을 여행하는 남한 희생자들의 경비를 제공했던 것이다. 남한의 유일한 공식적 도움은 1981년부터 이 협정이 만료된 1986년 사이에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354명의 출국비용을 댄 것이었다.¹⁶

따라서 생존자들은 피폭 이후의 고통을 스스로 감내해야만 했다. 그들의 주된 의학적 치료는 스스로 복용하는 중국약품과 인삼 같은 민간요법이었다. 생존자들의 대다수는 피폭 때문에 지금도 아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¹⁷

비 난

생존자들 대부분은 본능적인 분노로 일본과 일본의 모든 것을 싫어한다. 그들의 해방 이후의 삶을 파괴했던 핵폭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많은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데 이는 그들의 경험을 회상하기 위해서는 식민기간 동안 그들에게 강제되었던 언어인 일본어로 생각해야 했기 때문이다.

많은 회생자들은 일차적으로 일본인들을 비난한다. “나는 모든 일본인들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한다.”고 김정순씨는 말한다. “미국인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원자폭탄에 관한 한 그들을 비난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일본정부를 비난했다. 만약 일본이 수많은 사람들을 회생시키거나 죽이기 전에 좀더 일찍 항복했더라면 그같은 참사는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¹⁸

폭탄투하의 문제에 관한 한 많은 회생자들은 일본인보다 미국인들에게 더욱 관대하다.¹⁹ 그러나 미국인들은 종종 이러한 태도를 용서의 표시로 잘못 이해한다. 사실 회생자들은 그들의 운명에 대해 미국에 책임이 있음을 간파하지 않는다. 김정순씨는 “나는 하나님의 원자탄이 사람들과 모든 생물을 멸망시킬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원자무기를 사용한 나라도 역시 경멸한다.”고 말한다.²⁰

다른 사람들은 생존자들의 처지에 대해 미국을 즉각적으로 비난한다. 예를 들어 생존자들의 후생을 돌보고 있는 한국교회여성협의회는 핵회생자들의 상황이 한국인들의 생존에 대한 현재의 핵위협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그들은 “한반도에 배치된 원자탄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아직도 일본에서의 핵폭발로 인한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우리는 그러한 재앙의 또 다른 회생자가 되길 거부한다.”고 주장한다.²¹

예 견

원폭회생자들의 존재만으로도 전투를 위해서건 위협을 위해서건간에 핵전략의 합법성은 파괴되어버린다. 그들은 과거의 핵폭탄의 사용을 포함하여

또 다른 핵전쟁이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고한다. 지금은 야채행상을 하고 있는 70살의 김정순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극소수를 빼고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산 사람 또한 모두 불구가 되거나 고통받을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적 협상으로 갈등을 해소하기를 소망한다. 나는 이미 70살이다. 그래서 나 자신한테는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그러나 젊은이들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비극이다. 그래서 나는 세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평화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다.²²

생존자들은 핵위협에 내재된 치명적인 가능성성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상징이다. 김정순씨 같은 사람들은 핵전략의 파리독스를 보여준다.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그것은 언젠가 폭발할 것이다. 나는 왜 그들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만들어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왜? 우리는 핵무기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나갈 수 있다.²³

많은 원폭회생자들은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거나 그들의 개인적 충격에 너무나 압도당해서 정치적으로 적극적일 수 없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핵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랫동안 억제되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새 세대들이 한반도와 전세계에서 핵위협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배가하도록 고무시키는 충분한 저항행위가 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김정순씨는 핵전략은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한다.

내 경험으로 보아 만약 핵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것 이 오히려 낫다. 살아 남은 사람들은 모두 불구가 될 것이다. 내가 고통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죽는 것만 못하다.²⁴

그러나 핵전략가들은 그녀의 세 가지 간단한 교훈을 애써 무시하려고 한다: 핵전쟁은 이길 수 없다는 것, 갈등은 평화로운 대화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 핵전략은 핵전쟁을 가능케 만든다는 것.

하지만 김씨, 신씨, 오씨 그리고 그들과 같은 수천의 다른 한국인들과는 달리 미군이 두 도시에 대한 핵강제 구상을 세울 때 핵전략가들은 그 도시에 있지 않았었다. 폭탄의 위력에 집착하는 핵전략가들은 결코 김씨의 다음과 같은 결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핵무기는 여기에 있어서는 안된다. 만약 그들이 한국에서 계속해서 핵무기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 모두를 없애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들이 그것을 사용할 때 그들은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야 한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후 일생동안 고통받지 않게 될 것이다. 당신은 불구가 되고 눈도 코도 없고 귀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당신의 다리는 부러질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²⁵

부 록

■ 부록 A

남한에서의 미국의 핵조직과 하부구조

이 부록은 남한내에서 혹은 남한과 관련되어 운용중인 미국 핵전력의 방어, 병참, 저장과 수송체계, 탄두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핵방어

남한에서 핵무기 사용계획을 세우려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방사능 낙진 벼슬구름을 처리하기 위한 광범위한 예비조치가 필요하다. 이 목적을 위해 제2보병사단 핵생화 본부가 캠프 케이시에 있는 사단 전술작전 본부내에서 활동하고 있다(<그림 6-2> 참조).¹ 24시간 작전이 가능한 핵생화 본부는 사단이 야전배치되었을 경우에만 전시편제로 된다.² 평화시 핵생화 본부는 단위부대의 핵생화 방어장교들을 적절히 교육시키기 위해 핵생화 학교를 개설한다. 이 본부는 또 사단내에서 중대단위로 설치된 핵생화팀의 능력을 평가하는 핵생화 기술평가팀도 지도한다.³

전시에 핵생화 본부는 남한군과 미군에게 미군의 핵공격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공격경보’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이 본부는 “적군과 아군에 대한 핵폭발 효과를 측정하고 방사능 낙진을 예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또한 이 본부는 ‘핵생화 상황지도’(situation map)에 따라 방사성 벼슬구름을 탐지해내고, 낙진형태를 예고하며 위험이 예상되는 단위부대에 ‘유효풍 메시지’(방사성 낙진의 풍향·풍속·기온·경도·측정지점에 관한 메시지—역주)를 보낼 것이다.

병 참

1984년 9월 16일까지 (미군의) 한국 탄약관리체계라는 기구가 남한에서 핵병참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 후 이 체계는 제19지원사령부 예하 제6병기 대대로 불리게 되었다. 1989년 현재, 군산 공군기지에 있는 제78병기파견단의 작전분과(대전의 캠프 에임스에 본부를 둔 제6병기대대의 지휘하에 있는)가 단위부대를 위한 호송훈련, 긴급파괴, 긴급대피, 긴급행동메시지, 작동 허가 링크의 임무를 지난 요원의 훈련과 보증을 맡고 있다. 이 분과는 또한 핵무기의 전술적 이동을 수행하고, 핵무기에 대한 핵계정(WT4RT1 계정)을 담당하며 핵무기가 적절하게 구경측정되었는지를 보증한다.⁴ 이러한 기술적인 작업은 ‘구경측정 건물’(calibration building)과 후방 무기고를 보유하고 있는 군산 공군기지에 있는 이 파견단의 시설에서 수행되는 것 같다.⁵ 제78 병기파견단이 핵공격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은 1985년 11월 미 8군이 그 부대에 대해 ‘핵무기 기술검열’을 함으로써 입증되었다.⁶

저장과 수송체계

군산 공군기지는 남한에서 미군의 핵병기가 저장된 핵심적인 장소이다. 미 육군은 캠프 에임스에 ‘최상급 보안구역’을 유지하고 있다.⁷ 이 기지에 핵무기를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1985년 11월 6일 제6병기대대의 핵사고 통제훈련—이 훈련은 안전성을 제공했으며 지휘통제를 연습했다—에 의해 알렸다. 제194정비대대는 방사능오염 제거팀을 보유하고 있었다.⁸ 이 날의 훈련은 1983년 2월 2일 제194정비대대에 의해 실시되었던 훈련을 반복한 것이다(사고대응 역량은 부록 B를 참조).⁹

미 육군은 의정부(서울과 DMZ 중간에 위치) 근처 도봉산 탄약창에 전진 분견 핵무기 저장소와 보안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저장소는 현재 남한군의 통제하에 있다.¹⁰

전시에 트럭과 헬기 호송대는 평화시의 저장소에서 전장의 야전저장소로 핵무기를 수송할 것이다. 전형적인 미군의 155mm 핵포병 중대를 위한 핵

중대는 핵무기를 위한 적재운반차 1대, 경호차 1대, 0.5톤의 화물 트레일러 1대, 2대의 무전기 세트와 12명의 요원으로 구성된다(하지만 203mm 핵포병 중대는 이와 달리 무기의 조립필요성 때문에 좀 더 많은 트럭과 밴을 필요로 할 것이다).¹¹ 또 핵수송 부대는 CH-47이나 UH1/UH60 헬기를 이용하여 야전저장소로 수송하기도 한다.

(1) 핵지뢰(ADM)

핵지뢰는 남한에 있는 미군 핵병기고에서 중요하면서도 구식인 구성부분이다. 1985년에 남한에는 21개의 핵지뢰가 저장되어 있었다고 한다. 적어도 1987년 말까지 주한미군의 특수부대 사단은 A팀과 B팀으로 알려진 핵지뢰 공병들을 용산기지에 주둔시켰다.¹² 이 공병들은 핵지뢰를 시한폭탄으로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종류의 원격조정 장치로 폭파시킬 수 있다. 이 핵지뢰는 언제든지 비무장지대 부근이나 혹은 그 아래에, 혹은 핵방호 표적(hard point target: 지하에 시설을 하든가 해서 핵에 대한 방호를 한 공격목표—역주)에 설치될 준비가 되어 있다. 미군에 따르면 “이 소규모 핵무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좁은 길(협곡)에 포탄구멍을 내거나 바위를 깨뜨려 접근로를 봉쇄할 때, 터널-도로-교량-운하의 갑문을 파괴하여 통신로를 단절시킬 때, 일정지역의 나무를 쓰러뜨리거나 산불을 내 장애물을 만들 때, 적 공수부대가 침투할 수 있는 얼음 지대를 포함한 일정지역에 거대한 분화구를 만들 때, 땅이나 저수지를 폭파하여 장애수역을 만들 때 등.¹³

이같이 통과 불가능한 분화구는 북한군 탱크의 진입을 저지할 것이다. 1960년대 후반 남한에 주둔하던 핵지뢰팀은 퇴각시 김포공항, 한강대교 등과 같은 군사적 편의시설을 파괴할 준비를 갖추었다.¹⁴ 서울과 그 주변의 주민들 사이에서 핵지뢰가 폭발될 경우에 생길 방사성 낙진의 위험과 전진 방어 전략에 비추어, 이제 핵지뢰는 DMZ와 그 주변에서만 사용될 것이다. 이는 사실상 핵무기의 초기 선제사용 또는 남한으로부터의 즉시철수 중의 하나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한미군 사령관 메네트리가 1987년

12월에 말한 바와 같이 DMZ 부근에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¹⁵

군산에 저장되었던 중형 핵지뢰는 현재 제거되어 철수된 것으로 보인다.¹⁶ 현재 (특수부대에 의해 수송되는) 특수 핵지뢰만이 미군의 핵병기고에서 유용하다. 하지만 이들 중 어느 것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핵지뢰팀이 그것을 발사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핵공격 가능한 어떤 다른 특수부대도 남한이나 일본의 오끼나와에 주둔하고 있지 않다. 태평양 사령부에서 유일하게 핵공격 가능한 특수부대는 샌디에고에 본부를 둔 태평양함대 제1특전단이다. 하지만 해군은 전시에 이 부대를 남한에서 ‘육군이 벌이는 촌극’에 투입시키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핵지뢰팀은 한반도에서의 핵전과 더 이상 관련이 없다. 핵지뢰팀과 표적들이 주한미군의 전쟁계획에서 제거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2) 근해 핵무기

근해에서는, 미 해군 제7함대가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공중수송 중력폭탄을 포함한 일련의 핵무기로 미 육군의 지상 핵전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 함대의 잠수함 및 전함들은 오래 전부터 북한의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대잠수함 핵 로케트와 수중폭뢰로 무장하고 있다. 1984년 6월 이후 미군 군함과 잠수함은 해상발사 지상공격 핵순항미사일 토마호크도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북한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철저한 방호태세를 갖춘 군지휘소와 공항을 공격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¹⁷

(3) 랜스 미사일

핵공격 가능한 랜스 미사일이 육군의 병기고에 들어간 직후인 1973년 이래 랜스 미사일은 주한미군의 작전계획에 포함되었고 훈련시 잠시 남한에 배치되기도 했었다(5장 참조). 육군은 1987년 2월 9일에 최초로 랜스 미사일 포병중대를 남한에 배치시켰으며, 이 포병중대는 3월초부터 작전을 개시하였다.¹⁸

1988년 7월부터 주한 무기지원파견단으로 알려진 미군부대가 랜스 미사일

연락팀을 보유하게 되었다. 주한 무기지원파견단이 남한에서 미군의 핵무기를 수송하는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랜스 미사일 연락팀의 존재는 핵공격 가능한 랜스 미사일이 남한에서 핵으로 무장되어 있음을 강하게 시사해 준다.¹⁹ 하지만 주한 무기지원파견단의 핵운용 절차는 단지 핵포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랜스 미사일용 핵탄두를 남한으로 보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랜스 미사일 포병중대의 규모가 작은 것을 고려해볼 때, 주요한 전투에서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할 재래식 탄두로 무장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 시기에 랜스 미사일이 배치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1987년에 북한이 KAL기를 폭파한 후, 육군은 핵위협을 강화함으로써 저수준의 공격을 저지하고 1988년의 서울 올림픽 경기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다.

(4) 핵 포

미 육군의 핵포탄 수송역량은 제2보병사단의 세 개 전투여단에 속해 있다. 이들은 또한 8개의 기동대대로 세분되는데, 3개의 보병대, 2개의 기계화 보병대, 2개의 탱크대대와 1개의 캘버리(Calvary) 비행중대가 바로 그것이다.²⁰

사단포대는 1개의 다연발 로케트 체계 포대와 3개의 155mm 곡사포대대와 1개의 203mm 곡사포대대로 조직되어 있다. 사단은 또 표적취득 포대도 보유하고 있다.²¹

사단 지휘소와 제1여단은 캠프 케이시에 위치하고 있다. 철갑여단으로 알려진 제1여단은 2개의 기갑대와 1개의 기계화 보병대대로 구성되어 있다.

캠프 호비(Camp Hovey)는 사단본부의 바로 남쪽 언덕 위에 있는데, 2개의 보병대대로 구성되어 있는 ‘진짜 보병’(All Infantry) 제2여단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다.

제3여단본부는 서울에서 북서쪽으로 뻗어 있는 통일로 위의 서부 침입회랑으로 알려진 계곡에 있는 캠프 하우제(Camp Howze)에 위치하고 있다. 또 1개의 기계화 보병대도 캠프 하우제에 주둔하고 있다. 이 여단은 임진강 북쪽 캠프 그리브스(Camp Greaves)에 또 하나의 보병대대를 가지고 있다.

캘버리 비행중대는 캠프 오웬(Camp Owen)에 본부를 두고 있다. 공군들

은 캠프 스탠리(Camp Stanley)와 라 구아리다(La Gualida) 육군 비행장에 주둔하고 있다. 이 비행중대는 1개의 본부와 4개의 텔버리 공군부대로 조직되어 있다.

사단포대는 의정부 근처의 캠프 스탠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제1, 2여단을 위한 직접지원 포병대대는 캠프 스탠리에, 제3여단을 위한 직접지원 포병대대는 캠프 펠함(Camp Pelham)에 위치하고 있다. 155mm 포병대대들은 각각 6문의 곡사포를 지닌 3개의 포병중대로 구성되어 있다. 1개 포병대대는 자주포대이고 다른 2개는 견인포대이다.

일반지원 포병대대는 의정부 근처의 캠프 에세이언즈(Camp Essayons)에 위치하고 있다. 이 부대는 6문의 203mm 자주포를 가진 2개 포병중대와 9개의 발사기를 지닌 다연발 로켓트 체계 1개 중대를 가지고 있다.

■ 부록 B

남한에서 미군의 핵사고 대응역량

핵무기는 비핵무기의 사소한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여 방사능 물질의 확산을 초래하는 사고들에 휘말릴 수 있다.¹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있는 핵무기 관련 미군부대들은 사고대응 복구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적어도 13개의 그러한 부대들이 남한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표 B-1> 참조). 그들은 정기적인 핵무기 사고훈련을 수행한다(제7장 참조).

많은 군사요원들은 핵무기 사고가 대부분 헬기를 이용하여 핵무기를 공중으로 수송하거나 도로상에서 수송할 때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믿고 있다. 주한 무기지원파견단은 핵무기 사고에 대응해야 하는 부대 중의 하나이다. 무기지원파견단의 운용절차는 화재 또는 사고가 “매우 폭발적이고 방사성을 지닌 물질로부터의 잠재적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애매하게 진술하고 있다.²

무기지원파견단은 “사고에 관련된 어떤 무기라도 폭열 또는 폭발할 수 있다. 이것은 방사능 오염이나 커다란 폭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진술한다.³

한반도와 같은 전쟁지역에서 핵무기는 포격에 의한 직접명중이나 근접명중과 같은 북한의 공격에 의해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우발사건은 남한에서 핵무기를 취급하는 절차에서 분명하게 인식되고 있다(6장과 7장 참조).

사람들은 전시에 사고나 공격이 핵무기를 위험스럽게 만든다면, 잠재적으로 핵무기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놀란다. 그런 상황에서(표준운용절차를 따른다면), 무기지원파견단은 취급하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핵무기를 폐기할 것이다.

다음 사항 중 한 가지가 발생하면 (핵무기) 관리자들은 소화(消防)노력을 중지하고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최소한 360m 대피하거나 지형과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는 한도만큼 대피해야 한다.

- (1) 핵무기가 너무 뜨거워 만질 수 없다
- (2) 페인트에서 기포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표 B-1> 남한에 있는 핵사고 대응부대

기지	위치	부대명	상급 사령부
1. 캠프 케이시 역량	동두천	제2항공대대	제2보병사단
2. 캠프 에세이언즈 역량	AS, B, G, HT. 의정부	제6대대 37야포부대	제2보병사단
3. 캠프 헨리 역량	A, B, BE, D, E, G, S, T. 대구	제19지원사령부	제8군
4. 캠프 하이아리아 역량	A, AS, B, D, G, HT, L, PA, S, T. 부산	제257통신중대	제8군
5. 캠프 페이지 역량	AS, D, G. 춘천	주한 무기지원파견단	제8군
6. 캠프 레드 클라우드 역량	A, B, BE, D, G, S. 의정부	제8폭발물처리반 파견단	제8군
7. 군산 공군기지 역량	A, B, BE, D, G, T. 군산	제8전투지원단	태평양공군
8. 광주 남한공군기지 역량	A, AS, B, BE, D, E, G, L, M, PA, S. 광주	제6171주둔국 공군기지중대	태평양공군
9. 오산 공군기지 역량	A, B, BE, D, G, S. 송탄	제51전투지원단/재해대비반	태평양공군
10. 수원 공군기지 역량	A, AS, B, BE, D, E, G, HT, L, M, PA, S. 수원	제6107전투지원반	태평양공군
11. 대구 공군기지 역량	A, B, BE, D, G, L, M, PA, S. 대구	제6168전투지원단/재해대비반	태평양공군
12. 용산 역량	AS, Ar, B, D, G, HT, M. 서울	제18의료사령부(임시)	제8군
13. 용산 역량	A, AS, ArS, B, BE, D, DS, E, G, HP, HT, L, M, PA, S. 서울	제38화학파견단	제8군
14. 용산 역량	B, G, HT.	제17항공단(전투)	제8군

자료: Joint Nuclear Accident Coordinating Center, 1987 Nuclear Accident Response Capability Listing, January 6, 1987; 미 정부자유법에 따라 Washington, D.C.에 있는 Natural Resources Defence Council의 Andrew S. Burrows의 요청에 의해 공개됨.

주: 보유능력 약자: A=알파 방사선 탐지; AS=공기검본적출; ArS=항공측량; B=베타 방사선 탐지; BE=호흡장비; D=방사능제거; DS=설계 명세서; E=폭발물처리반; G=감마 방사선 탐지; HP=보건물리학; HT=helio 군수송기; L=사법; M=의료; PA=공공사무; S=보안; T=트리튬.

- (3) 고에너지 폭발물질이 녹기 시작한다
- (4) 고에너지 폭발물질이 '불꽃을 낸다'
- (5) 관리자들이 폭발 가능성성이 임박했다고 느낀다⁴

그 때 시계(視界)보초들이 배치된다. 이 때 북한군이 보초들을 제거하거나 우회통과하여 막 폭발하거나 불타려 하는 핵무기를 장악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반대로 핵무기가 안정되어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 부록 C

한-미 핵조정과 통합

이 부록은 한국전에서 핵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한군의 수송역량과 통합 조정되는 미국의 세 부대를 설명한다. 이 부대들은 2개의 전투지원조정단(CSCTs)과 주한 무기지원파견단(WSD-K)이다.

제1전투지원조정단

제1전투지원조정단은 유엔군 총사령관과 남한 육군 제1군 사령관 사이에 협정이 조인된 후인 1975년 9월 1일에 창설되었는데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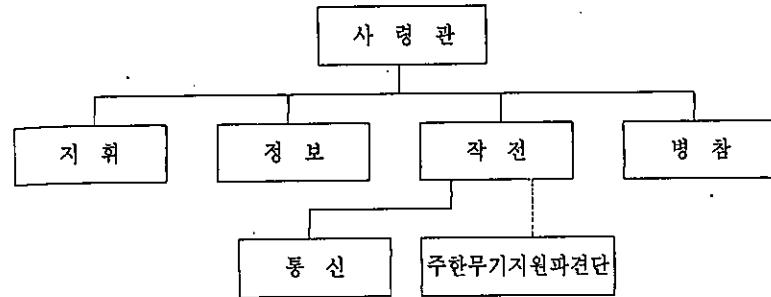
첫째, 제1군에 대한 유엔사령부의 작전통제권을 위해 필요한 '지휘통제 연결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미국과 남한의 지원과 전투력이 조정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다. 유엔사령부와의 지휘통제 연결은 연합사령부가 창설된 1978년 11월 종결되었다.¹ 1978년 4월 17일 제1전투지원조정단으로부터의 연락팀이 박정희가 국내 정치·군사통제를 위해 이용했던 고도의 정치적 부대인 남한 육군 수도군단에 배치되었다. 1980년 1월 1일 제2전투지원조정단이 수도군단에서 조직되어 제1조정단의 연락팀을 대신한 것 같다 (제2조정단은 후에 해체되었다).²

제1조정단의 임무는 조정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 임무는 한미연합 종합 정보실이 제1군에서 편성되었던 1982년에 다시 변경되었다.³ 제1조정단에서 가장 큰 조는 제1군 및 제1군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한미군을 위해 모든 유형의 정보수집·가공·생산·유포를 포함한 정보작전에 종사한다.⁴

제1조정단의 작전조를 통해, 제1조정단은 제1군의 기획, 훈련, 화력지원조정, 육군항공기, 핵 방어와 공세, 화학전, 전자전 담당부서들과 거의 날마다

실질적인 접촉을 한다.⁵ 다른 조들은 통신-전자, 기술, 병참업무 등을 수행한다(<그림 C-1> 참조).⁶

<그림 C-1> 제1조정단(CSCT #1) 조직표(1988)



자료: Slide 6, attached to CSCT 1, Command Briefing, November 2, 1987; 미 정보 자유법에 의해 공개됨.

특화된 임무와 함께 제1조정단 요원들은 '암시된 임무'라고 불리는 것을 수행한다. 이 부차적인 임무들은 결국 연합사령부의 참모들과 '견고한 작업 관계'를 즐곧 유지하는 한편 제1군 장성급 장교들과의 '효과적이고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으로 요약된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한미간의 군사조직·교리·전략·기술의 효과적인 통합을 방해하는 거대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교량역할을 하는 것이다. 제1조정단의 담화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런 관계는 책임 있고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한 참모지원을 위해 필요하다. 또 요원들은 제1군의 조직, 작전방법, 능력과 한계 등에 관한 철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런 작업관계의 발전과 그러한 정보의 획득을 통해서만 우리는 책임 있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요원들은 제1군과 연합사령부의 요구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⁷

요원들은 군사고문도 아니고 정상적인 지휘계통에도 있지 않다.⁸ 또 그들은 제1군 참모진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어떠한 기능도 반복하지 않는다. 1988년 12월 현재, 제1조정단은 미군 47명, 남한군 연락장교 5명, 카튜사

12명과 추가로 한미연합 종합정보실에서 일할 5명의 장교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제1조정단은 주한 무기지원파견단으로부터 파견된 핵연락조를 보좌하기 위한 병력도 필요로 하고 있다.⁹ 제1조정단은 제1군 사령부에서 임무를 수행하나 숙소는 주한미군의 캠프 통에 있다.¹⁰ 제1군도 조정단에 연락장교를 두고 있다. 제1군은 캠프 통에 있는 별개의 주한 무기지원파견단과 직접 연락한다.¹¹ 1978년에 시작된 주한 무기지원파견단도 제1조정단에 연락팀을 두고 있다.

제1조정단은 제1군의 지휘진영에서 연합사령부 총사령관을 대표하는 미 전투병과(兵科) 육군대령의 지휘를 받는다. 그는 “제1조정단과 제1군 참모진들을 완벽하게 통합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고 확신한다.¹² 이 통합의 한계는 자유자재로 고정 이동가능한 ‘민감분리정보설비’(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를 운영하는 조정단의 정보조에 의해 구체화된다.¹³ 그 조는 미군쪽의 채널만을 통과한 미군독점 정보를 남한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숨긴다.

제2, 3조정단

용인 제3군 사령부에 있는 제2조정단은 제1군보다는 제3군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조정단과 거의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제2조정단은 제7군단의 작전, 정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별개의 조정단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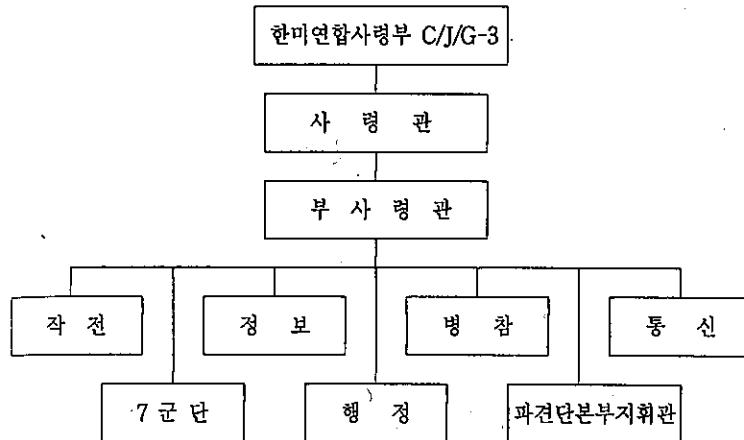
제3조정단은 1983년 2월 17일 제2조정단에 의해 처리되었던 제3군의 연락팀에서 성장해나왔다. 1983년 6월 1일 잠정적인 제3조정단이 제3군 사령부의 연락팀을 대신했고, 이후 1984년 6월 1일 제7군단의 연락팀이 그 뒤를 이었다.¹⁴

다른 측면에서, 제3군은 용산의 제3조정단에 배속된 연락장교와 춘천 근처의 캠프 페이지에 있는 무기지원파견단에 배속된 연락장교를 보유하고 있다.¹⁵

제1조정단과는 달리 무기지원파견단의 어떠한 단위부대도 조정단에 직접 배정되지 않는다(<그림 C-2>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지원파견단의

요원들은 제3조정단의 작전과에 배속된다.¹⁶ 1983년 6월경 무기지원파견단으로부터의 연락팀이 제3조정단에 배치되었다.¹⁷ 제3조정단의 작전과는 무기지원파견단의 핵지원조 활동에 대한 평가를 감시한다. 작전과는 또한 주한 핵전역 자동지휘통제 체계를 위한 훈련, 관리지원을 평가한다.¹⁸

<그림 C-2> 제3조정단(CSCT #3)의 조직표



자료: Portion of Command Briefing, CSCT3; 미 정보자유법에 의해 공개됨.

더욱이 제3조정단 통신과는 COMMCEN으로 알려진 24시간/1일 방어특수보안 통신체계 통신본부를 운영한다. 한미연합 종합정보실, 특수보안실, COMMCEN은 미군과 남한군 참모진을 지원하는 외에 ‘특수 무기지원파견단’ 즉 주한 무기지원파견단을 지원한다. 통신과는 또 제3군, 제3조정단, 주한 무기지원파견단에 긴급 행동통신을 제공하는 ‘MSC-64 위성 단말기’도 운영한다.¹⁹

두 조정단의 핵조정 기능은 7장에 기술되어 있다.

주한 무기지원파견단

1972년 12월 1일까지는 핵지원 작전의 책임이 제2보병사단에 있었다. 그 날 이후 미 육군 제4미사일 사령부가 이 임무를 맡았다. 어니스트 존 미사일로 무장한 제42야전포대 제1대대는 1973년 1월 15일부터 새로 운영되는 주한 무기지원파견단에 그 임무가 양도될 때인 그 해 3월까지 모든 임무를 책임졌다. 그 당시 무기지원파견단은 제4미사일 사령부의 보호하에 있는 캠프 잭슨에 배속되었다. 그 해 8월 무기지원파견단은 캠프 페이저로 이동했다. 1977년 12월 무기지원파견단은 장교 24명과 사병 181명으로 재조직되었다. 무기지원파견단은 10개의 대포팀을 운영할 권리가 있었다.²⁰

1978년 무기지원파견단으로부터 연락팀이 외정부에 있는 제1군단(남한군/미군)과 원주 제1군단 사령부에 있는 제1조정단에 배속되었다.²¹ 그 해 5월 무기지원파견단의 핵지뢰 임무가 종결되었다. 무기지원파견단은 미 8군의 지휘하에 놓이게 되었다. 1981년 5월 핵전투 부대가 행정적인 목적을 위해 제19지원 사령부에 배속되었다.²² 1984년 3월 핵전투 부대는 작전과 훈련조를 포괄하도록 확장되었고, 핵포팀의 수는 8개로 감소되었다.²³

같은 해 그 부대는 새롭게 창설된 미 8군 특수부대 사령부(EAST)로 다시 이전되었다. 소규모 부대들과 대규모 사령부간의 임시배치는 심각한 지휘통제 결함을 초래했고, 상급 지휘관들로 하여금 그들의 일차적 임무로부터 벗어나 단위부대급 일상잡무에 종사하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1979년부터 이 문제들에 대한 연구가 촉진되어 1981년 5월 EAST를 창설하게 되었다. 1984년 1월 EAST는 미 8군내에서 어엿한 사령부로 발돋움했다.²⁴ 그 후 얼마 안 지나 무기지원파견단이 제19지원 사령부로부터 이전되었다.

무기지원파견단의 사령관은 용산기지의 주한미군 핵기획 작전과(2462빌딩)내에 본부를 두고 있다.²⁵ 하지만 무기지원파견단의 참모진들은 캠프 페이저에서 근무한다.²⁶ 무기지원파견단은 핵작전에 있어서 남한군의 지원과 개입을 조정하는 캠프 통의 전투지원 조정단과 연락팀—캠프 레드 클라우드의 포대조에 한미연합 야전군과 함께 배치된—을 보유하고 있다.²⁷

주

책머리에

1. Byung Joon Ahn, "North-South Relations and the Major Powers," in R. Scalapino, ed., *Asian Security Issues, Regional and Global*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Research Paper 26,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1988), p. 205.
2. "Worsening Human Rights under Roh Tae Woo Regime," *Christ and Liberation* (Seoul), Nov. 1989, p. 12. 이러한 수치는 국제사면위원회에서 독립분석가들(independent analysts)에 의해 확인되었다.
3. J. Manguno, "Seoul Affirms the Presence of Korean 'Wall,'" *Asian Wall Street Journal*, Nov. 15, 1989, p. 1.
4. 그러한 군사적 경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G. Segal, "East Asia: The Balances of Power," *World Policy Journal* (Fall 1989), p. 752를 참조할 것.

서장

1. C. von Clausewitz, *On War*, ed. A. Rapoport (London: Penguin, 1976), p. 125.
2. K. Gottfried and B. Blair, *Crisis Stability and Nuclear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R.N. Lebow, *Nuclear Crisis Management: A Dangerous Illus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R. Betts, *Nuclear Blackmail, Nuclear Balance*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87).
3. D. Rees, *Korea, the Limited War*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4)와 J. Halliday and B. Cumings, *Korea: The Unknown War* (London: Viking/Penguin, 1988)가 대표적 저술이다.
4. B.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5. J. Halliday, "The North Korean Phenomenon," *New Left Review* 127 (May-June 1981), pp. 18-52; B. Cumings, "North Korea: Security in the Crucible

of Great-Power Confrontations," in R. Thomas, ed., *The Great-Power Triangle and Asian Security*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1983), pp. 153-72; B. Cumings, "Corporatism in North Korea," *Journal of Korean Studies* 4 (1983), pp. 269-94; 최근의 일화적 인상에 대해서는 P. Maas, "North Korea Maintains Orwellian System," *Washington Post*, July 18, 1989, p. 1을 참조할 것.

6. J. Snyder, "Perceptions of the Security Dilemma In 1914," in R. Jervis et al., *Psychology and Deterrenc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5), p. 156.

7. 관습(ethos)과 이념(ideology) 사이의 구별에 대해서는 F. Schurman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6), pp. 6-7 참조; Schurmann의 국가 이론에 대해서는 그의 *The Logic of World Power* (New York: Pantheon Books, 1974), p. 138 을 참조할 것. 또한 B. Cumings, "Reflections on Schurmann's Theory of the State,"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8:4 (1976), pp. 55-64 를 참조할 것.

8. B. Cumings는 "Introduction: The Course of Korean-American Relations, 1943-1953," in *Child of Conflict*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3), pp. 6-10에서 정책조류를 다루면서 사회적 지지(social constituency)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다.

9. 위의 글.

10. A. Yarmolinsky, "Bureaucratic Structures and Political Outcome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23:2 (1969), pp. 225-35를 참조할 것.

11. M. Halperin, *Bureaucra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74), pp. 28-35.

12. 위의 책, pp. 53, 59.

13. C. Wolf et al., *Asian Bases, Budget Constraints, and U.S. Commitments* (Santa Monica: Rand report R-763-PR/ISA, Feb. 1972), p. 54;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14. 이러한 정책조류에 대한 설명으로는 F. Schurmann, *The Logic of World Power* (New York: Pantheon, 1974); J. Sanders, *Peddlers of Crisis: The 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 (London: Pluto, 1983); B. Cumings, *Child of Conflict*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3), pp. 3-57; P. Hayes, L. Zarsky and W. Bello, *American Lake, Nuclear Peril in the Pacific* (New York: Viking/Penguin, 1987), pp. 33-41을 참조할 것.

15. 이 변수들은 다양한 곁가지 흐름(sidestreams)과 하위조류들로 다시 나뉘어진다. 예를 들면 어떤 분석가는 최대의 봉쇄, 실용적 봉쇄, 조건부 봉쇄, 최소의 봉쇄로 구별을 하는데, 이들은 각각 변화하는 군사전략, 행정부의 정책, 군에 대한 지지, 군

사력 구조 및 정치적 지지와 상호 연관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분해(disaggregation)를 다를 필요가 없다. R. Betts, *Soldiers, Statesmen, and Cold War Cris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 p. 87.

16. D. Rees, *Korea, the Limited War* (New York: St. Martin's Press, 1964), p. 405.

17. 이 개념은 Paul Joseph, *Cracks in the Empire: State Politics in the Vietnam War* (Boston: South End Press, 1981), pp. 59-63에서 끌어냈다.

18. Thomas Schelling은 이 점을 *Arms and Influ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6), p. 80에서 제안하였다.

19. 이러한 정의는 P. Morgan, *Deterrence: A Conceptual Analysis* (Beverly Hills: Sage, 1977), pp. 30-33에서 이끌어냈다.

20. Morgan은 일반적 억제를 어느 일방도 타방을 공격하려 하지 않을 때 성립되는 국가간 관계의 조정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용법은 억제라는 제목 아래에서 강제와 억제를 뒤섞어 사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글에서는 이 둘을 분리하였다. 위의 책, p. 31.

21. 위의 책, P.30.

22. R. Stilwell, "Policy and National Command," in *Seminar on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and Intelligence*, monograph published by Program on Information Resources Policy,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1982, p. 140.

23. B. Cumings, "North Korea: Security in the Crucible of Great-Power Confrontations," in R. Thomas, ed., *The Great-Power Triangle and Asian Security*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1983), p. 166.

24. R. Stilwell, "Policy and National Command".

25. 강제라는 용어가 핵전략에 관한 문헌에 등장하게 된 것은 Thomas Schelling의 저술이 효시가 되었는데, 그는 강제(누군가로 하여금 그가 그렇지 않았으면 행하지 않았을 어떤 일을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명백한 강압")를 억제(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말리는 것으로 정의)와 구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상은 Schelling이 전의 현실정치 이론에서 이미 길다란 계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T. Schelling, *Arms and Influ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6), pp. 79-80.

26. W. Beecher, "Tie-up of U.S. Jets Laid to Atom Role; U.S. Officials Say Squadrons Couldn't Be Refitted," *New York Times*, Jan. 25, 1968.

27. "Nuclear Overkill," in P. Hayes et al., *American Lake*, pp. 65-72를 참조할 것.

28. 확대된 억제에 대해서는 J. Holdren, "Extended Deterrence, No First Use in and European Security," mimeo, Energy and Resources Group,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85; R. Smoke, "Extended Deterrence, Some Observations," *Naval War College Review* (Sep. -Oct. 1983), p. 37과 L. Freedman, *The Evolution of Nuclear Strateg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3), p. 290을 참

조할 것.

29. R. Stilwell, "Policy and National Command," p.145.
30. W. Carpenter et al., *Background Studies: The Maintenance of U.S. Forces in Korea*, report to the Department of the Army, Strategic Studies Center, Stanford University, SSC-TN-3115-11, June 1975, p. 68.
31. R. Delfs, "Delicate Dialogue: Washington and Pyongyang Hold First Direct Talk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February 9, 1989), pp. 18-19.
32. C. Wolf, *The Uses and Limitations of Nuclear Deterrence in Asia* (Santa Monica: Rand Paper 2958, August 1964), p. 7.
33. S. Awanohara and M. Clifford, "Security Blanket Slip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November 2, 1989), p. 38.
34. Reuters-Kyodo news report, "Need for U.S. Forces in South Korea May Pass by Mid-90's, General Says," August 14, 1989.
35. 예를 들면 G. Herken은 78,000명의 "일본인"과 약간의 연합군 전쟁포로들이 허로시마에서 죽었다고 말하면서도 그 일본인 숫자의 상당 부분이 한국인임을 무시하고 있다. *The Winning Weapon: The Atomic Bomb in the Cold War, 1945-1950* (New York: Knopf, 1989), p. 3 참조. 일본에서의 핵공격 피해자에 대한 미국측 저술에서 많은 또 다른 예를 볼 수 있다.

제1장 역사적 교훈

1. A. Goodman, ed., *Negotiating While Fighting: The Diary of Admiral C. Turner Joy at the Korean Armistice Conference* (Stanford: Hoover Institution, 1978), pp. 48, 252.
2. M. Sherry, *The Rise of American Air Power: The Creation of Armagedd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7), p. 277.
3. J. Dower, *War Without Mercy: Race and Power in the Pacific War* (New York: Pantheon, 1986).
4. A. Makhijani와 J. Kelly의 출간되지 않은 원고 "Target Japan: The Decision to Bomb Hiroshima and Nagasaki" (July 1985)의 부록 A.
5. R. Rhodes, *The Making of the Atomic Bomb*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7), p. 687.
6. 원문에서는 영문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다; R. Schaffer, *Wings of Judgment: American Bombing in World War II*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5), p. 142.
7. M. Sherry, *The Rise of American Air Power*, p. 311.

8. B. Bernstein, "Roosevelt, Truman, and the Atomic Bomb, 1941-45: A Reinterpretation," *Political Science Quarterly* 90:1 (Spring 1975), p. 41.
9. M. Paul, "Diplomacy Delayed: The Atomic Bomb and the Division of Korea, 1945," in B. Cumings, ed., *Child of Conflict*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3), p. 80.
10. 위의 책, p. 86.
11. 위의 책, p. 88.
12. 위의 책, p. 90.
13. P. Hayes, L. Zarsky and W. Bello, *American Lake, Nuclear Peril in the Pacific* (New York: Viking/Penguin, 1987).
14. G. Kennan, *The Nuclear Delusion: Soviet-American Relations in the Atomic Age* (New York: Pantheon, 1982), pp. 3-4.
15. J. Gaddis, *Strategies of Containment: A Critical Appraisal of Postwar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p. 79.
16. 위의 책, p. 81.
17. U.S. National Security Council, *United States Objectives and Programs for National Security*, NSC-68, April 14, 1950, in T. Ertold and J. Gaddis, eds., *Containment, Documents on American Policy and Strateg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8), p. 441.
18. 위의 책, pp. 426, 433.
19. L. Rumbaugh et al., "Tactical Employment of Atomic Weapons," Operations Research Office, Far East Command, Johns Hopkins University report to Operations Research Office, Far East Command, report ORO-R-2 (FEC), Tokyo, March 1, 1951, p. 275(1983년 기밀해제).
20. Memorandum, Far East Command, "Tactical Employment of Atomic Weapons," July 20, 1951, L. Rumbaugh et al., "Tactical Employment"에 첨부.
21. 위의 글, 부록 2, p. 1.
22. R. Foot, *The Wrong War*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p. 115.
23. B. Cumings, "Introduction: The Course of Korean-American Relations, 1943-1953," in B. Cumings ed., *Child of Conflict*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3), p. 344.
24. L. Rumbaugh et al., "Tactical Employment," p. 344.
25. 위의 글, p. 261.
26. 위의 글, p. 269.
27. R. Watson and J. Schnabel,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Joint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3: *The Korean War*, part 2 (Washington,

- Delaware: 1979), p. 613.
28. Foot, *The Wrong War*, p. 260.
 29. C. MacDonald, *Korea: The War Before Vietnam* (New York: Free Press, 1986), pp. 71-73.
 30. 위의 책, pp. 94-95.
 31. 위의 책, p. 72.
 32. J. Halliday and B. Cumings, *Korea: The Unknown War* (London: Viking/Penguin, 1988), p. 123.
 33. 위의 책, p. 155.
 34. D. Acheson, *Present at the Creation* (New York: Norton, 1987), p. 479.
 35. B. Bernstein, "The Struggle over the Korean Armistice: Prisoners of Repatriation?", in B. Cumings ed., *Child of Conflict*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3), p. 291.
 36. B. Bernstein, "Truman's Secret Thoughts on Ending the Korean War," *Foreign Service Journal* (Nov. 1980), pp. 31-32.
 37. MacDonald, *Korea*, p. 132
 38. 위의 책, pp. 103-5.
 39. Foot, *The Wrong War*, p. 184.
 40. R. Betts, *Nuclear Blackmail, Nuclear Balance*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87), p. 35.
 41. A. George and R. Smoke, *Deterrence in American Foreign Policy,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4), pp. 235-38.
 42. Foot, *The Wrong War*, p. 209.
 43. W. Pincus, "In '40s and '50s, Nuclear Arms Still Seen Usable," *Washington Post*, July 22, 1985, p. A-1.
 44. M. Hastings, *The Korean War* (London: Michael Joseph, 1987), p. 393.
 45. 위의 책, p. 393; Betts, *Nuclear Blackmail*, p. 43.
 46. Bernstein, "The Struggle over the Korean Armistice," p. 291.
 47. "For Eisenhower, 2 Goals If Bomb Was to Be Used," *New York Times*, June 8, 1984, p. A-7.
 48. Betts, *Nuclear Blackmail*, p. 38.
 49. E. Friedman, "Nuclear Blackmail and the End of Korean War," *Modern China* 1:1 (Jan. 1975), p. 83.
 50. D. Rees, *Korea, the Limited War* (New York: St. Martin's Press, 1964), p. 408.
 51. 위의 책, p. 84.
 52. Betts, *Nuclear Blackmail*, p. 45.

53. D. Eisenhower, *Mandate for Change, 1953-1956* (Garden City, N.Y.: Doubleday, 1961), p. 131.
54. A. Whiting, *China Crosses the Yalu: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New York: Macmillan, 1980), pp. 135, 143.
55. Foot, *The Wrong War*, pp. 229, 232.
56. Yang Zenghe, "Mao Zedong and China's Atom Bomb," *Beijing Review*, September 5-11, 1988, p. 25.
57. Betts, *Nuclear Blackmail*, p. 42.
58. 위의 책, p. 43.
59. Friedman, "Nuclear Blackmail," p. 85.
60. 위의 글, p. 83.
61. Strategic Air Command, "The Development of Strategic Air Command, 1946-1981," Office of the Historian Omaha, Neb., July 1982, p. 44.
62. S. Hersh, *The Price of Power: Kissinger in the Nixon White Hous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3), p. 52.

제2장 상호 취약성

1. R. Betts, *Nuclear Blackmail, Nuclear Balance*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87), p. 39.
2. H. Goldhamer, *Communist Reaction in Korea to American Possession of the A-Bomb and its significance for U.S. Political and Psychological Warfare*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RM-903, August 1, 1952), p. 1.
3. R. Jervis, "The Impact of the Korean War on the Cold War,"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4:4 (Dec. 1980), p. 579.
4. P. Nitze, "Atoms, Strategy and Policy," *Foreign Affairs* 34:2 (Jan. 1952), p. 195.
5. L. Rumbaugh et al., "Tactical Employment of Atomic Weapons," Operations Research Office, Far East Command, Johns Hopkins University report to Operations Research Office, Far East Command, report ORO-R-2 (FEC), Tokyo, March 1, 1951, p. 275.
6. 위의 글.
7. 위의 글, p. 276.
8. 위의 글, p. 285.
9. 위의 글, pp. 287-89.
10. 위의 글, p. 323.

11. 위의 글, P.277.
12. J. Midgley, *Deadly Illusions: Army Policy for the Nuclear Battlefield*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86), p. 22.
13. 위의 책, p. x.
14. R. Foot, *The Wrong War*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pp. 131-73.
15. J. Schnabel,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Policy Directions and the First Year*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1972), p. 396.
16. 위의 책, p. 397.
17. C. MacDonald, *Korea: The War Before Vietnam* (New York: Free Press, 1986), p. 125.
18. 위의 책.
19. 극동사령부의 1955-57년 기간 동안의 무효화된 핵절차에 대해서는 "Nuclear War by the Book," in P. Hayes et al., *American Lake, Nuclear Peril in the Pacific* (New York: Viking/Penguin, 1987), pp. 78-90을 참조할 것.
20. C. Alexander, *Holding the Line: The Eisenhower Era, 1952-61* (Bloomington, Ind.: Indiana University Press, 1976), pp. 67-68.
21. J. Schlight, "The Impact of the Orient on Airpower," in U.S. Airforce Academy, *The American Military and the Far East*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1980), p. 167; Jervis, "The Impact of the Korean War," p. 564.
22. 디엔 비엔 푸에 대해서는 Betts, *Nuclear Blackmail*, pp. 71-79 참조; 1955년 대만해협 위기에 대해서는 G. Chang, "To the Nuclear Brink: Eisenhower, Dulles, and the Quemoy-Matsu Crisis," *International Security* 12:4 (Spring 1988), pp. 96-123을 참조할 것.
23. "New Look at the Nuclear Brink," in Hayes et al., *American Lake*, pp. 49-62를 참조할 것.
24. Goldhamer, *Communist Reaction*, p. i.
25. 위의 책, p. 2.
26. 위의 책, p. 2.
27. 위의 책, pp. iii, 35.
28. 위의 책, p. iii.
29. 위의 책, p. 37.
30. 위의 책, pp. iii-iv.
31. 위의 책, pp. 42-45.

32. 위의 책, p. 9.
33. 위의 책, p. 10.
34. 위의 책, p. 26.
35. 위의 책, p. 33.
36. 위의 책, p. 49.
37. 위의 책, pp. 27-29.
38. 위의 책, p. 30.
39. 위의 책, pp. 17-19.
40. 위의 책, p. 22.
41. 위의 책, p. 39.
42. 위의 책, p. 17.
43. 위의 책, p. 18.
44. 위의 책, p. 22.
45. 위의 책, p. 53.
46. 위의 책, pp. iv-v.
47. 위의 책, p. 53.
48. Rumbaugh et al., "Tactical Employment," p. 383.
49. Goldhamer, *Communist Reaction*, p. 56.
50. 위의 책, pp. 54, 58.
51. 위의 책, pp. iv-v.
52. 위의 책, p. 59.
53. 위의 책.
54. Foot, *The Wrong War*, p. 179.
55. 위의 책, p. 171.
56. 위의 책, p. 242.
57. B. Bernstein, "The Struggle over the Korean Armistice: Prisoners of Repatriation?" in B. Cumings, ed., *Child of Conflict: Th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1943-1953*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3), p. 290.
58. M. Hastings, *The Korean War* (London: Michael Joseph, 1987), p. 73.
59. 위의 책, p. 91.
60. D. Acheson, *Present at the Creation* (New York: Norton, 1987), p. 484.
61. Hastings, *The Korean War*, p. 220.
62. MacDonald, *Korea*, p. 226.
63. Foot, *The Wrong War*, p. 215.
64. MacDonald, *Korea*, p. 262.

1. J. Cushman, *Command and Control of Theater Forces: The Korea Command and Other Cas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ogram on Information Resources Policy, 1986), pp. 9-18.
2. L. Freedman, *The Evolution of Nuclear Strateg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1), pp. 76-90.
3. P. Hayes et al., *American Lake, Nuclear Peril in the Pacific* (New York: Viking/Penguin, 1987), pp. 49-62; R. Betts, *Nuclear Blackmail and Nuclear Balance*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87), pp. 66-79; T. Stolper, *China, Taiwan, and the Offshore Island* (New York: Sharpe, Armonk, 1985)를 참조할 것. 독자들이 중국의 도발 이유에 대한 Stolper의 설득력 있는 테제와 G. Snyder and P. Diesing, *Conflict Among Nations: Bargaining, Decision Making and System Structure in International Cris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pp. 117-18, 238-39, 258-60, 386-87, 561-64에 있는 전통적 해석과 비교해 보면 재미있을 것이다.
4. S. Hersh, *The Price of Power: Kissinger in the Nixon White Hous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3), pp. 53, 120, 124-129, 369.
5. R. Jervis, "The Impact of the Korean War on the Cold War,"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4:4 (Dec. 1980), p. 572.
6. C. MacDonald, *Korea: The War Before Vietnam* (New York: Free Press, 1986), pp. 225, 232, 247.
7. J. Dulles, "Security in the Pacific," *Foreign Affairs* 30:2 (Jan. 1952), p. 181.
8.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for Atomic Operations*, Tokyo, November 1, 1956, appendix 1 to Annex D, revised January 1957에 의하면 미국은 1956-57년에 한국에 어떠한 핵무기 "계정"(accounts)도 부대배치도 하지 않았다.
9. Operations Research Office, Johns Hopkins University, *Semi-Annual Report* 9:2 (July 1-Dec. 31, 1956), contents page; 정보자유법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기밀해제됨.
10.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in Korea*, ACDA/WEC/FO 69-65, Washington, D.C., August 1970.
11. U.S. Forces Korea/Eighth U.S. Army, *1974 Annual Historical Report*, Seoul, pp. 3-4;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12. 팬토믹사단에 관계한 前 미 장성과의 인터뷰; A. Bacevich, *The Pentomic Era: The U.S. Army Between Korea and Vietnam* (Washington, D.C.: U.S.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86).

13. J. Midgley, *Deadly Illusions: Army Policy for the Nuclear Battlefield*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86), pp. 68-70.
14. 위의 책, pp. 112-17.
15. J. Finley, "The U.S. Military Experience in Korea, 1871-1882," Command Historian's Office, U.S. Forces Korea, Seoul, 1983, p. 108.
16. Midgley, *Deadly Illusions*, p. 94.
17. J. Cary, "U.S. Military Bases Overseas: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report from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International and Social Studies Division to Office of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U.S. Defense Department, Research Paper P-397, Arlington, Va., June 1967, p. 43;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18. C. Sorrels, *U.S. Cruise Missile Programs: Development, Deployment and Implications for Arms Control* (New York: McGraw-Hill, 1983), p. 3; M. Leitenberg, "Background Materials on Tactical Nuclear Weapons (Primarily in the European Context)," in *Tactical Nuclear Weapons: European Perspectives* (London: Taylor and Francis, 1978), p. 124.
19. J. Schlight, "The Impact of the Orient on Airpower," in U.S. Airforce Academy, *The American Military and the Far East*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1980), p. 167.
20. J. Endicott, *Japan's Nuclear Option: Political, Technical, and Strategic Factors* (New York: Praeger, 1975), p. 3.
21. Hayes et al., *American Lake*, pp. 86-88.
22. U.S. Department of State, Division of Research for Far East, Office of Intelligence Research, "The Relationship of Japan to Nuclear Weapons and Warfare"(top secret), Washington, D.C., 1957, 기밀해제됨, p. 1.
23. Endicott, *Japan's Nuclear Option*, pp. 91, 93.
24. U.S. Department of State, "The Relationship of Japan," p. 8.
25. 위의 글.
26. M. Weinstein, *Japan's Postwar Defence Policy, 1947-1968*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1), p. 84.
27. U.S. Department of State, "The Relationship of Japan," p. 8.
28. 위의 글.
29. Hayes et al., *American Lake*, pp. 84-89를 참조할 것.
30. Commander in Chief Pacific(CINCPAC) message to U.S. Joint Chiefs of Staff, no. 4335, DTG 192243Z (top secret), Aug. 1958, attached to "Note by the Secretaries to the Joint Chiefs on Security Treaty-Japan," JCS 2180/119, Aug. 21,

1958, p. 9; Modern Military Branch, U.S. National Archives.

31. R. Dennison, U.S. Deputy Chief of Naval Operations, "Definition of 'Operational' Use of U.S. Bases," memo to U.S.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ISA)(secret), serial no. 00851P61, Washington, D.C., Oct. 23, 1958, pp. 1-2; Modern Military Branch, U.S. National Archives.

32. CINCPAC, message no. 4355, p. 9.

33. U.S. Joint Chiefs of Staff, Plans and Policy Division, "Report by the J-5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on Security Treaty-Japan"(secret), JCS 2180/118, Sept. 5, 1958, p. 909; Modern Military Branch, U.S. National Archives.

34. U.S. Department of State, "The Relationship of Japan," p. 9.

35. 위의 글.

36. U.S. Joint Chiefs of Staff, "Report by the J-5," p. 910.

37. Weinstein, *Japan's Postwar Defence Policy, 1947-1968*, p. 96.

38. G. Packard, *Protest in Tokyo: The Security Crisis of 1960*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6), pp. 110-11.

39. 위의 책, pp. 219, 303.

40. Commander U.S. Seventh Fleet to Chief of Naval Operations, "Seventh Fleet Command History, September 17, 1959," attachment: "Chronology of Major Events in the Offshore Island Crisis," Navy Historical Center, Washington, D.C., p. 6;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41. Hayes et al., *American Lake*, pp. 56-59.

42. P. Buteux, *The Politics of Nuclear Consultation in NATO, 1965-198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p. 7.

43. D. Charles, *Nuclear Planning in NATO: Pitfalls of First Use* (Cambridge, Mass.: Ballinger, 1987), p. 33.

44. Buteux, *The Politics of Nuclear Consultation*, p. 100.

45. 위의 책, p. 87.

46. 위의 책, pp. 57-64.

47. 위의 책, p. 212.

48. 위의 책, pp. 50, 69.

49. L. Freedman, *The Evolution of Nuclear Strateg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1), p. 285; J. Stromseth, *The Origins of Flexible Respons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8), p. 176; J. Legge, *Theater Nuclear Weapons and the NATO Strategy of Flexible Response* (Santa Monica: Rand R-2964-FF, 1980, pp. 41-43; R. Smoke, "Extended Deterrence: Some Observations," *Naval War College Review* (Sept.-Oct. 1983), pp. 37-48.

50. J. Holdren, "Extended Deterrence, No First Use, and European Security," paper to the Thirty-sixth Pugwash Conference on Science and World Affairs, Budapest, Sept. 1-6, 1986, p. 1.

51. Midgley, *Deadly Illusions*, pp. 131-35.

52. F. Dyson et al., "Tactical Nuclear Weapons in Southeast Asia," Jason Division, report to the Department of the Army, DAHC 15-87C-0011, Washington, D.C., March 1967. 정보자유법에 의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미국정부의 비밀화일에 속해 있다.

53. 1988년 1월, 1967년의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과의 인터뷰.

54. B. Jaeger and M. Weiner, *Military Aspects of a Study of the Implications of a Communist Chinese Nuclear Capability* (Santa Monica: Rand RM3418-PR, March 1963), p. 2;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55. C. Wolf, *The Uses and Limitations of Nuclear Deterrence in Asia* (Santa Monica: Rand, August 1964)를 참조할 것.

56. G. Segal, *The Great Power Triangl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2), p. 133.

57. Jaeger and Weiner, *Military Aspects*, pp. 33, 42.

58. 위의 책, p. 17.

59. 위의 책, p. 61.

60. M. Halperin, *China and the Bomb* (New York: Praeger, 1965), p. 100. 다음 해에 공군은 서태평양의 전진기지들에 배치된 자상발사 중거리 탄도 미사일의 취약성에 대해 검토하였지만, 결코 이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았다.

Air Force Systems Command, "MRBM's in the Pacific," Norton Air Force Base, California: Ballistic Systems Division, June 15, 1965; 정보자유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공개됨.

61. 한국에서도 그와 거의 동시에 이를 미사일이 제거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이 일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없다.

62. D. Okamoto, "Chrysanthemum Without the Sword: Japan's Nonnuclear Policy," in M. Weinstein, ed., *Northeast Asian Security After Vietnam*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2), pp. 128-56; T. Havens, *Fire Across the Sea: The Vietnam War and Japan, 1965-1975*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pp. 151-52; 그리고 Endicott, *Japan's Nuclear Option*, p. 45는 일본의 비핵원칙에 관한 몇 안되는 영문 참고문헌에 속한다.

63. S. Harrison, *The Widening Gulf: Asian Nationalism and American Policy* (New York: Free Press, 1978), p. 284.

64. R. Halloran, *Conflict and Compromise: The Dynamics of American Foreign*

Policy (New York: John Day, 1973), pp. 19-21.

65. Commander Seventh Fleet, "Command History 1972," in three parts, Sept. 26, 1972, p. 10;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66. Harrison, *The Widening Gulf*, pp. 284-92.

67. R. Foster et al., "Theater and General Purpose Force Posture Analysis, Executive Summary," Strategic Studies Center, Stanford Research Institute, Technical Note SSC-TN-2240-14 for Deputy Chief of Staff U.S. Army, April 1974, p. 42.

68. Harrison의 *The Widening Gulf*, pp. 230-31에서 인용.

69. M. Leitenberg, "Background Materials on Tactical Nuclear Weapons (Primarily in the European Context)," in F. Barnaby, ed., *Tactical Nuclear Weapons: European Perspectives* (London: Taylor and Francis, 1978), p. 370.

70. T. Allen, *Wargames* (New York: McGraw-Hill, 1987), p. 55.

71. 위의 책, p. 51.

72. Headquarters Eighth U.S. Army, "Quarterly Historical Summary: Historical Report, April-June 1966,"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3, p. 7; 정보자유법에 의해 기밀해제됨.

73. 위의 글, p. 15.

74. U.S. Forces Korea/Eighth U.S. Army, "Quarterly Historical Summary: 1st and 2d Qtrs CY 67," p. 8; 정보자유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기밀해제됨.

75. Headquarters Eighth U.S. Army, "Historical Report, April-June 1966," p. 1.

76. T. Cochran et al., *U.S. Nuclear Forces and Capabilities* (Cambridge: Ballinger, 1984), p. 311.

77. Headquarters Eighth U.S. Army, "Historical Report, April-June 1966," p. 15.

78. 1987년 10월, 주한미군 핵지뢰팀 공병이었던 사람과의 인터뷰.

79. 위의 자료.

80. 위의 자료.

81. 위의 자료.

82. 1987년 11월 보스턴에서의 인터뷰. 몇몇 미군 장교들은 핵탄두가 전진배치된 나아키 미사일과 함께 배치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철수결정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탄두 없이 나아키 미사일만을 유지하는 것은 전시에 즉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공용 무기인 나아키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83. 전에 한국에 근무했던 미군 장교와의 인터뷰

84. Eighth U.S. Army, "Chronology: 1 January 1969-30 June 1969," Seoul, p. 3.

85. Headquarters Eighth U.S. Army, "Historical Report, April-June 1966," p. 15.

86. 1987년 12월, 뉴욕에서의 인터뷰.

87. 위의 자료.

88. 1987년 10월, 뉴욕에서 주한미군 핵지뢰팀 공병이었던 사람과의 인터뷰.

제4장 강성반응 전략

1. U.S. Congress, Subcommittee on United States Security Agreements and Security Commitments Abroad of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Security Agreements and Security Commitments Abroad, Republic of Korea," Hearings, 91st Congress, part 6,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1970, p. 1579.

2. 196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극동지역에 대한 소련 핵탄두 미사일의 배치 연혁에 대해서는 P. Hayes et al., *American Lake, Nuclear Peril in the Pacific* (New York: Penguin Books, 1987), p. 327을 참조할 것.

3. 1987년 5월 8일, 전 주한 미대사와의 인터뷰.

4. Nam Joo Hong, *America's Security to Commitment to South Kore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p. 90.

5. F. Schurmann, *The Foreign Politics of Richard Nixon: The Grand Design* (Berkel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87), p. 2.

6. 위의 책, pp. 80-93.

7. R. Clough, *East Asia and U.S. Securit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75), pp. 1-27.

8. S. Harrison, "Atom Stockpile Given as Reason for Avoiding GI Cut in Korea," *Washington Post*, March 5, 1970, p. A-17.

9. 1987년 5월 워싱턴에서 미 국무부 관리와의 인터뷰.

10. *Korea Herald*, "Mobile Force Eyed for GIs in Korea," March 3, 1974, p. 1.

11. R. Clough et al., "The Implications of the Chinese Nuclear Force for U.S. Strategic and Arms Control Policies," Brookings Institution report to 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ACDA/IR-201, vol.1, Washington, D.C., Jan. 1973, p. 9;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12. 강조는 원문에 의한 것임; 위의 글, p. 11.

13. *Korea Herald*, "U.S. Assures ROK 'Troops to Remain,'" March 22, 1974, p. 1.

14. Chae-Jin Lee and Hideo Sato, *U.S. Policy Toward Japan and Korea: A Changing Influence Relationship* (New York: Praeger, 1982), pp. 102-3; 미 국무부 관리와의 인터뷰.

15. W. Carpenter et al., "U.S. Strategy in Northeast Asia," Strategic Studies Center, SRI International, Technical Report SSC-TN-6789-1, Arlington, Va., June 1978, pp. 75-77.
16. J. Midgley, *Deadly Illusions: Army Policy for the Nuclear Battlefield*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86), pp. 142-49.
17. U.S. Forces Korea/Eighth U.S. Army, "1976 Annual Historical Report," p. iii; 정보자유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기밀해제됨.
18. U.S. House of Representatives, Subcommittee of the Committee on Appropriations, "Department of Defense Appropriations for 1975," Hearings, 93rd Congress, 2d session, part 1,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1974, p. 713.
19. W. Overholt, "A U.S. Nuclear Posture for Asia," in W. Overholt ed., *Asia's Nuclear Future*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77), p. 230.
20. D. Oberdorfer, "U.S. Weighs Risk of Keeping A-Arms in Korea," *Washington Post*, Sept. 20, 1974.
21. Command Historian, "Annual Historical Report for 1973," Eighth U.S. Army, Seoul, p. iv는 같은 페이지에서 "Kwang-ju Air Base Construction"과 "Nuclear Storage Security"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975년 보고서는 1976년 보고서처럼 "Consolidation of Special Weapons"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둘다 정보자유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기밀해제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통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미국의 외교관들과 군 장교들로부터 확인하였다.
22. Oberdorfer, "U.S. Weighs Risk".
23. 1987년 5월과 6월, 뉴욕과 워싱턴에서, 한국관련 임무를 수행했던 전현직 국무부 관리들과의 인터뷰.
24. W. Van Cleave and S. Cohen, "Nuclear Aspects of Future U.S. Security Policy in Asia," *Orbis* 19:3 (Fall 1975), pp. 1152-80; R. Mosbacher, "Nuclear Arms and the Stakes in Korea," *New York Times*, Sept. 17, 1975.
25. R. Foster, "Theater and General Purpose Force Posture Analysis, Executive Summary," Strategic Studies Center, Stanford Research Institute, Technical Note SSC-TN-2240-14 for Deputy Chief of Staff for Military Operations, U.S. Army, Washington, D.C., April 1974, p. 21.
26. R. Walker, "Future of U.S. Trans-Pacific Alliance," *Orbis* 19:3 (Fall 1975), p. 917; *Orbis*사의 허가하에 발췌.
27. R. Coolsaet, "NATO Strategy: Under Different Influences," *ADIU Report* 6:6 (Nov.-Dec. 1984), p. 5.
28. B. Garrett, "The "China Card" and its Origins, U.S. Bureaucratic Politics

- and the Strategic Triangle" (Ph.D. diss., Brandeis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tics, 1983), pp. 45-49.
29. U.S. Department of the Navy, "Future Maritime Strategy Study (FUMAR), East Asian/Western Pacific Regional Analysis," Chief of Naval Operations, Final Report, Washington, D.C., 1973, p. III-2-55;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30. U.S. House of Representatives, "Department of Defense Appropriations," p. 355.
 31. Command Historian, "Chronology, 1 January-30 June 1975," Eighth U.S. Army, Seoul, p. 24; "Chronology, 1 July-December 1975," p. 2.
 32. AP, "Schleginger Warns N. Korea U.S. May Use Nuclear Arms," *St. Louis Post Despatch*, June 21, 1975.
 33. *Korea Times*, "Lance Missile Unit Arrives for Maneuver," March 5, 1978; and U.S. House of Representatives,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Political and Military Affairs and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Deaths of American Military Personnel in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Hearings, U.S. GPO, Washington, D.C., 1976, p. 17.
 34. 1986년 6월 워싱턴에서의 인터뷰.
 35. Command Historian, "Chronology, 1 January-30 June 1975," p. 26.
 36. C. DeLateur, "Murder at Panmunjom: The Role of the Theater Commander in Crisis Resolution," research paper, 29th Session, Senior Seminar, Foreign Service Institute, U.S. State Department, Rosslyn, Virginia, March 1987, p. 13.
 37. 위의 글, P.13.
 38. 위의 글, pp. 17-18.
 39. 위의 글, pp. 20-21.
 40. R. Head et al., *Crisis Resolution: Presidential Decisionmaking in the Mayaguez and Korean Confrontations*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78), p. 157.
 41. Lee and Sato, *U.S. Policy*, pp. 102-3.
 42. Head et al., *Crisis Resolution*, p. 191; 워싱턴에서 국무부와 NSC 관계자와의 인터뷰.
 43. Science Applications, Inc., *Vulnerability of North Korean Forces, Evaluation of Vulnerability of North Korean Divisions to Tactical Nuclear Weapons*, vol. 1, report to U.S. Defense Nuclear Agency, DNA 4570F-1, McLean, Va., March 1978, p. 2;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44. 위의 책, pp. 2, 3, 1-3.
 45. Science Applications, Inc., *Vulnerability of North Korean Forces, Korean Scenario and Target Arrays*, vol. 2, report to U.S. Defense Nuclear Agency, DNA 4570F-2, McLean, Va., March 1978, p. 2-18; 4-2, 4-3; 5-1;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따른 요

청에 의해 공개됨.

46. 위의 책, p. 5-2.
47. 위의 책, p. 3.
48. 위의 책, p. 1-6.
49. 위의 책.
50. 위의 책, p. 4-2.
51. 위의 책, vol. 1, p. 2-1.
52. 위의 책, vol. 2, p. 2-23.
53. 위의 책, p. 3-13.
54. 위의 책, p. 5.
55. 싱글러브 장군의 의회 증언을 예로 들 수 있다.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Armed Services, "Review of the Policy Decision to Withdraw United States Ground Forces from Korea," Hearings, May-September 1977,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1978, p. 31.
56. R. Saunders, "Chinese Reactions to the US Withdrawal from Korea," *Parameters* 3:3 (Sept. 1978), pp. 70-77.
57. W. Carpenter et al., "The Maintenance of U.S. Forces in Korea," report to the U.S. Department of the Army, Strategic Studies Center, Stanford University, SSC-TN-3115-10, June 1975, p. 44;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58. 위의 글, p. 54.

제5장 은밀한 계략

1. W. Carpenter et al., "The Maintenance of U.S. Forces in Korea," report to the U.S. Department of the Army, Strategic Studies Center, Stanford University, SSC-TN-3115-10, June 1975, p. 57.
2. 위의 글, p. 134.
3. 위의 글, p. 127.
4. C. Vance, *Hard Choices: Critical Years in America's Foreign Polic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3), p. 449.
5. J. Sanders, *Peddlers of Crisis: The 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 and the Politics of Containment* (London: Pluto Press, 1983), pp. 160-83.
6. Chae-Jin Lee and Hideo Sato, *U.S. Policy Toward Japan and Korea: A Changing Influence Relationship* (New York: Praeger, 1982), p. 108.
7. 1987년 4월 워싱턴에서의 인터뷰.

8. Lee and Sato, *U.S. Policy*, p. 112.
9. 토론 참석자와의 인터뷰.
10. M. Ledeen, "Trumping Asian Allies," *Harper's*, March 1979, p. 29.
11. Lee and Sato, *U.S. Policy*, p. 111.
12. W. Beecher, "Korea Pullout Studied," *Boston Globe*, March 6, 1977, p. 19. 카터 행정부는 1977년 6월에 열린 청문회에서 의회에 대해 모든 핵무기가 제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V. Guldry, "U.S. Nuclear Weapons to Leave South Korea When Troops Depart," *Washington Star*, June 14, 1977을 참조할 것.
13. S. Harrison, "One Korea?" *Foreign Policy* (Winter 1974-75), p. 53에서 인용.
14. W. Carpenter et al., "The Maintenance of U.S. Forces," p. 52.
15. 위의 글, p. 68.
16. 위의 글, p. 91.
17. F. Weinste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Security of Korea," *International Security* (Fall 1977), pp. 74-75; W. Overholt, "A U.S. Nuclear Posture for Asia," in W. Overholt, ed., *Asia's Nuclear Future*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77), pp. 213-54를 참조할 것.
18. 전 주한 미 지상군 고위 지휘관과의 인터뷰.
19. 위의 자료.
20. R. Stilwell, "Commentary: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Security of Korea," *International Security* (Fall 1977), p. 93.
21. R. Stilwell, "Why They Should Stay," *Asian Wall Street Journal*, June 13, 1977.
22. Vance, *Hard Choices*, p. 129.
23. 달리 쓰인 말이 없을 경우에, 이 장은 주로 묘사된 사건들에 깊이 관련된 전직 국무부, 국방부, NSC, CIA, DIA 및 의회의 관리들과 워싱턴, 캘리포니아, 뉴욕 등에서 이루어진 기나긴 인터뷰에 근거한 것이다.
24. P. Hayes, "South Korean Nuclear Trade," paper to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Strategic Affairs Conference on Emerging Nuclear Suppliers and Nonproliferation, Bellagio, Italy, Aug. 1987를 참조할 것.
25. Vance, *Hard Choices*, p. 129.
26. Lee and Sato, *U.S. Policy*, p. 109.
27. 위의 책, p. 111.
28.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Armed Services, "Review of the Policy Decision to Withdraw United States Ground Forces from Korea," Hearings, May-September 1977,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1978, p. 37.

29. 위의 글, p. 44.
30. 위의 글, p. 22.
31. "Individual Views of Senator Gary Hart," attached to U.S. Senat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Pacific Study Group, "Korea: The U.S. Troop Withdrawal Program," mimeo, Jan. 23, 1979.
32. Lee and Sato, *U.S. Policy*, pp. 121-23.
33. W. Beecher, "Korean Withdrawal Decision," *Boston Globe*, Jan. 5, 1979, p. 2.
34. R. Rich, "U.S. Ground Force Withdrawal from Korea: A Case Study in National Security Decision-Making," study prepared for Executive Seminar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Affairs, Foreign Service Institute, U.S. State Department, Washington, D.C., June 1982, p. 28, describes PRM 45.
35. J. Foley, "Carter Shift Expected on Troop Withdrawal During Visit to Korea," *Philadelphia Enquirer*, June 11, 1979, p. 12.
36. D. Middleton, "Carter's Seoul Talks Expected to Influence Troop Pullout," *New York Times*, June 30, 1979, p. 4; G. Wilson, "Chiefs of Staff Ask Carter to Suspend Korea Pullout," *Washington Post*, June 25, 1979.
37. W. Chapman, "In S. Korea Carter Discusses Human Rights," *Washington Post*, June 30, 1979, p. A-12.
38. Vance, *Hard Choices*, p. 129.
39. 위의 책, p.130과 인터뷰.
40. "Joint Communiqué between His Excellency Park Chung He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is Excellency Jimmy Carte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July 1, 1979, Seoul, p. 5; Lee and Sato, *U.S. Policy*, p. 123.
41. "U.S. Troop Withdrawals from Korea, President's Statement," *Department of State Bulletin*(Sept. 1979), p. 37.
42. "Team Spirit '78, a Joint-Combined Exercise," *Asian-Pacific Defense Forum* (Pacific Command, Honolulu) 3:1 (1978), p. 43.
43. "Lance Missile Unit Arrives for Maneuver," *Korea Times*, March 5, 1978.
44. Eighth U.S. Army, "Chronology, 1 January-30 June 1977," pp. 13, 19.
45. Lee and Sato, *U.S. Policy*, pp. 114.
46. Sanders, *Peddlers of Crisis*, pp. 235-76.
47. U.S. House of Representatives, "Review of the Policy Decision," p. 59; T. Cochran et al., *U.S. Nuclear Forces and Capabilities* (Cambridge: Ballinger, 1984), p. 283.
48. U.S. Senate, Subcommittee of the Committee on Appropriations, "Military Construction Appropriations for Fiscal Year 1980," Hearings, U.S. Government

-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1979, p. 181.
 49. 1987년 11월 전 미 국무부 관리와의 인터뷰.

제6장 공지전

1. R. Cossa, "Turn Around America, Your Future's Behind You (The 1980s: The Asia/Pacific Decade)," mimeo, Hoover Institution, Stanford, 1985, p. 13.
2. *Korea Herald*, March 13, 1981; "Korea Gets F-16s as U.S. Keeps Pledge," *Christian Science Monitor*, April 19, 1981.
3. "New Militarism," in P. Hayes et al., *American Lake, Nuclear Peril in the Pacific* (New York: Viking/Penguin, 1987), pp. 121-41.
4. J. Buckley, *An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Army Command and Control Organization in the Pacific Theater: World War II to 1983* (Fort Leavenworth, Kans.: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1983); E. Beinhart, *The United States Marine Corps and the Japan Self Defense Force: An Outline Study in Bilateral Military Relations* (Quantico, Va.: Command and Staff College, Education Center, Marine Corps Development and Education Command, June 1985); and Strategic Studies Institute, *Implications for US-China Security Cooperation* (Carlisle Barracks, Penn.; ACN 80044, U.S. Army War College, August 17, 1981), p. 43;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5. J. Midgley, *Deadly Illusions: Army Policy for the Nuclear Battlefield*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87)은 육군의 핵정책 편성에 관해 가장 유력한 비평이다.
6. S. Canby and W. Luttwak, "The Control of Arms Transfer and Perceived Security Needs," C and L Associates report to 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AC9112, April 14, 1980, p. 13; J. Romjue, "From Active Defense to Airland Battle: The Development of Army Doctrine, 1973-1982," Historical Office, U.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 Fort Monroe, Va., June 1984.
7. Jaycor Corporation, "Concept for Nuclear Operations in a Nuclear Environment," Defense Nuclear Agency Technical Report DNA-TR-81-133, Washington, D.C., June 1982, p. 19.
8. W. Livsey(주한 미사령관), "U.S. and ROK Readiness," *Asia-Pacific Defense Forum* 10:1 (Summer 1985), p. 44.
9. R. Coolsaet, "NATO Strategy: Under Different Influence," *ADIU Report*

(Nov.-Dec. 1984), p. 6.

10. J. Simpson, "Wartime Interoperability Problems Posed by Differences in South Korea and United States Army Tactics" (M.A. thesis,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Fort Leavenworth, Kans., 1980), pp. 48-127.

11. J. Kurth,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 in the Reagan Era," mimeo, January 1987, p. 16, forthcoming in M. Morley, ed., *American Foreign Policy in the Reagan Era*, Rowman and Littlefield.

12. R. Halloran, "Pentagon Draws Up First Strategy for Fighting a Long Nuclear War," *New York Times*, May 30, 1982.

13. UN Command, "History of Team Spirit Exercises," Seoul, March 1986, p. 3.
14. 위의 글, p. 3.

15. Byung Chul Koh, *The Foreign Policy Systems of North and South Kore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p. 90.

16. M. Getler, "Weinberger, South Korean President Observe Exercise Under Very Tight Security," *Washington Post*, April 1982, p. 20.

17. UN Command, "Chronology of Team Spirit Exercises," mimeo, Public Affairs Office, Seoul, March 1986, p. 3.

18. G. Jochum, "Team Spirit '84: Amphibious Exercises Provide Readiness," *Asia-Pacific Defense Forum* 9:2 (Fall 1984), p. 5; W. Livsey, "U.S. and ROK Readiness," *Asia-Pacific Defense Forum* 10:1 (Summer 1985), p. 43.

19. 워싱턴에 있는 국방차관보실 국방정보국(Defense Information Services Activity) 부국장보(deputy assistant director)인 A. Tilton이 저자에게 보낸 1987년 6월 30일자 편지.

20. Headquarters, First Signal Bridge, *Telephone Book, United Nations Command, ROK/United States Combined Forces Command, and United States Forces Korea*, 1985 ed.,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21. U.S. Forces Korea, *Organization and Functions*, USFK Memorandum 10-1, Sept. 19, 1986, p. 5-27;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22. Headquarters, Eighth U.S. Army, *Organization and Functions*, Regulation 10-1, May 22, 1984, p. 3;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23. Eighth Personnel Command, *Organization and Functions*, Eighth Perscom Memorandum 10-1, Oct. 1986, p. 5-1;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24.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미8군의 Christopher Stratton 소령이 저자에게 보낸 1988년 6월 24일자 편지.

25. 미 국방부는 1976년에 핵공격 능력을 지닌 F-16을 만들었다. J. Finney, "U.S. Will Give F-16 Nuclear Capability," *New York Times*, Nov. 1, 1976.

26. BDM Corporation, "Logatak Support to PACOM Theater Nuclear Force Program," report to DNA no. DNA-TR-81-192, McLean, Va., Aug. 1, 1982, pp. 9-23;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27. U.S. Army, *Nuclear Operations, Field Artillery Cannon Unit*, Technical Circular TC6-50-2, Washington, D.C., April 1981, p. 4.

28. First Signal Brigade, *Organization and Functions Manual*, CCK Regulation 10-1, December 21, 1983, pp. B-29, 32. 제1통신여단내 제41통신대대가 긴급행동 설비의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p. B-21;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29. Second Infantry Division, *Organization and Functions Manual for Headquarters*, 2d Infantry Division, 2d Div. Memorandum 10-1, May 7, 1987, p. 5-3-3;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30. Weapons Support Detachment-Korea, *Nuclear Operations Standard Operation Procedures (WSD-K NUC OPS SOP)*, Camp Page, Chun Chon, South Korea, September 22, 1987, Annex H, pp. 30-31; Annex I, pp. 41-42;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대한 미 제8군의 응답 중 봉함률 제4번.

31. U.S. Department of Defense, "FY 1981 RDTE Congressional Descriptive Summary, Nuclear Munitions" Program Element 6.46.03.A; 정보자유법에 의한 요청에 따라 William Arkin에게 공개.

32. R. Kimball, "Calling for Shell Nuclear," *Field Artillery Journal* (Jan.-Feb. 1984), p. 26.

33. M. Aid, "Artillery Fired Atomic Projectiles, Do We Really Need Them?" mimeo, Center for Defense Information, June 10, 1980, pp. 3, 8.

34. S. Deichmann, *Military Power and the Advance of Technology: General Purpose Military Forces for the 1980s and Beyond*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83), p. 13.

35. W. Serchak, "Artillery Fired Atomic Projectiles: A Field Artilleryman's Viewpoint," *Field Artillery Journal* (March-April 1980), p. 11.

36. Aid, "Atomic Projectiles," p. 19; 국방 정보센터의 승인하에 발췌.

37. T. Cochran et al., *U.S. Nuclear Forces and Capabilities* (Cambridge: Ballinger, 1984), p. 28.

38. Deichmann, *Military Power*, p. 13

39. J. Anderson, "Neutron Bombs Could Be Used in South Korea," *Washington Post*, May 4, 1983, p. C-13.

40. 이러한 가능성은 <표 6-1>에 참조사항으로 달려 있는 NOSOP 자료에 인급된 페이지들과 앞서 인용된 바 있는 Aid와 Cochran(주 33과 37)에 포함된 무기의 탄피들에 대한 정보를 상호 참조해 봄으로써 추론할 수 있다.

41. Midgley, *Deadly Illusions*, p. 175.

제7장 협력

1. U.S. Congress, Subcommittee on United States Security Agreements and Security Commitments Abroad of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Security Agreements and Security Commitments Abroad, Republic of Korea," Hearings, 91st Congress, part 6,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1970, p. 1699에서.
2. J. Finley, "The US Military Experience in Korea, 1871-1982: In the Vanguard of ROK-US Relations," Command Historian's Office, USFK/EUSA, Seoul, 1983, p. 114.
3. Headquarters, Eighth U.S. Army, "Quarterly Historical Summary Historical Report, April-June 1966,"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3, Seoul, 1966, p. 16;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4. 위의 글, P. 9.
5. 위의 글.
6. U.S. Forces Korea/Eighth U.S. Army, "1978 Annual Historical Report," Seoul 1978, p. 5;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7. "Team Spirit 'Tailored' Throughout History," KORUS(Seoul), February 1-15, 1984, p. 14.
8. U.S. Forces Korea/Eighth U.S. Army, "Annual Historical Report," p. 6.
9. U.S. Department of the Navy, "Future Maritime Strategy Study (FUMAR), East Asian/Western Pacific Regional Analysis," Chief of Naval Operations, Final Report, Washington, D.C., 1973, p. III-A-3;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10. 위의 글, p. III-A-5.
11. U.S. Forces Korea/Eighth U.S. Army, "Annual Historical Report," p. 6.
12. U.S. Department of Navy, "Future Maritime Strategy," p. 7.
13. 1987년 6월 워싱턴에서 전 주한미군 총사령관과의 인터뷰.
14. Public affairs department, UNC/CFC/USFK/EUSA, "Highlights in US-ROK Defense Relationship," Seoul, March 1986.
15. United Nations Command/U.S. Forces Korea/Eighth U.S. Army, "Chronology, 1 January-30 June 1978," Seoul, p. 12;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16. 위의 글, pp. 8-15.

17. G. Henderson, "U.S. Command and Presence in Korea," paper to the U.S.-Korea Security Studies Council Conference, Bloomington, Ind., Dec. 4, 1987; G. Rice, "Control Forces in Korea," memo, Command Relations Branch, Combined Forces Command, 1986.
18. R. Stilwell, "Challenge and Response in Northeast Asia of the 1980s: The Military Balance," in R. Foster et al., eds, *Strategy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New York: Crane Russak, 1979), p. 99.
19. W. Scott and T.Y. Le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Asia-Pacific Defense Forum*(Fall 1982), p. 29.
20. T. Carrington, "Koreans Harbor Resentment of the U.S. over Their Subordinate Role in Defense," *Wall Street Journal*, July 28, 1987, p. 28.
21. Taek-Hung Rhee, *US-ROK Combined Operations: A Korean Perspective*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86), p. 44.
22. S. Jameson, "S. Korea Wants Control of Army, Rho Says," *Los Angeles Times*, Oct. 9, 1987.
23. Young Sun Son, "U.S. Troops in Korea and the Issue of Command Control," paper to the U.S.-Korea Security Studies Council Conference, Seoul, Dec. 1987, p. 12.
24. 한국군이 미국의 핵전쟁 계획과 관련된 모의 핵 훈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미 연합 핵전쟁 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25. Council on U.S.-Korean Security Studies, "Emerging Patterns of Regional Security in Northeast Asia and the Future of the US-ROK Alliance," Fourth Annual Conference Summary Report, Honolulu, Nov. 15-18, 1988, p. 16.
26. 강조는 저자; Headquarters, Eighth U.S. Army, *Organization and Functions*, Regulation 10-1, May 22, 1984, pp. 5-21, 27;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27. Nineteenth Support Command, *Organization and Functions Manual*, Nineteenth SUPCOM Reg. 10-10, June 1, 1987, p. 2-2;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28. First Signal Brigade, *Telephone Directory, United Nations Command,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and United States Forces Korea*, Seoul, South Korea, 1985 ed., p. 158;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29. M. Flynn, "Annual Historical Review, 1 Oct. 1984 to 31 Dec. 1985," Nineteenth Support Command, USFK, 1986, p. 53;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Eighth U.S. Army, "Unit History (Eighth U.S. Army Special Troops Command, EAST)," memo, no date;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30. 1987년 6월 워싱턴에서의 인터뷰.

31. CSCT #3, Operations Section,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미8군의 Christopher Stratton 소령이 저자에게 보낸 1988년 6월 24일자 편지에 첨부한 사령부에 대한 간단한 보고로부터 추출.
32. 1987년 12월 4일 서울에서의 인터뷰.
33. 1989년 2월 서울에서 열린 핵문제에 관한 민간 세미나에서.
34. Second Infantry Division, *Organization and Functions Manual for Headquarters, 2nd Infantry Division*, Second Div. Memorandum 10-1, May 7, 1987, p. 5-3-8;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35. T. Cochran et al., *U.S. Nuclear Forces and Capabilities* (Cambridge: Ballinger, 1984), p. 94. 교범이 근시안적으로 모든 임무를 우발사건을 다루거나 혹은 1979년 이래 핵 방공임무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기 위하여 적절히 수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36. Christopher Stratton 소령이 저자에게 보낸 1988년 6월 24일자 편지.
37. Combined Field Army, *Organization and Functions Manual*, Dec. 1986, p. 66; and First Signal Brigade, *Telephone Directory, United Nations Command,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and United States Forces Korea*, Seoul, South Korea, 1985 ed, p. 164, 둘 다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되었다.
38. Combined Field Army, *Organization and Functions Manual*, p. 66.
39. 위의 책, p. 65.
40. 위의 책, p. 65; First Signal Brigade, *Telephone Directory*, p. 165.
41. First Signal Brigade, *Telephone Directory*, p. 164.
42. Combined Field Army, *Organization and Functions Manual*, p. 28.
43. 위의 책, p. 41; First Signal Brigade, *Telephone Directory*, p. 164.
44. Combined Field Army, *Organization and Functions Manual*, p. 42.
45. 위의 책, p. 43.
46. 위의 책, p. 41.
47. Headquarters United Nations Command/Combined Forces Command, *Organization and Functions Manual*, Nov. 7, 1984, p. 10-1-6;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48. 1987년 6월 워싱턴에서 미군 장교와의 인터뷰.
49. U.S. Army Adjutant General's Office, "Operational Report for Quarterly Period Ending 30 April 1968," Washington D.C., June 1960; 이 인용문은 미 국방기 술정보센터가 제공한 페이지가 매겨지지 않은 문현목록에 있는 분류되지 않은 발췌문에서 따온 것이다.
50. U.S. Department of Army, "Operational Report- Lessons Learned," Headquarters, United States Advisory Group, Seoul, period ending April 30, 1970,

- memorandum, Office of the Adjutant General, Washington, D.C., July 31, 1970.
51. Eighth U.S. Army, *Leader's Handbook*, Seoul, April 1986, pp. 111-14, 15.
52. Nineteenth Support Command, "Annual Historical Review CY 1985,"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53. USFK/EUSA, "Non-Divisional NBC Defense School Supplemental Text," mimeo, Seoul, 1984 ed, 한국인 소식통들로부터 획득.
54. J. Cushman, "Command and Control of Theater Forces: The Korea Command and Other Cases," Monograph, Program on Information Resources Policy,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ssachusetts, 1986, pp. 3-5.
55. 1986년 5월 워싱턴에서 미 합동참모본부 소속 장교와의 인터뷰.
56. 예를 들면, 미8군은 한미연합군의 작전 및 훈련(긴급행동 메시지와 절차들, 핵 보증, 기술검열, 전력계획·조직·개념 계획관련 기술적 표준화에 대한 검열 등에 관한 작전 및 훈련)에서 미 육군측 지휘관의 작전통제하에 있는 미8군 부대들에 대한 활동, 조화, 통신, 관리행위를 명백하게 자기 자신의 관할로 하고 있다.
57. CSCT 1, Briefing paper and slides, Nov. 2, 1987, p. 6;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58. U.S. Forces Korea, *Organization and Functions*, USFK Memo 10-1, Sept. 1986, pp. 5-26;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이 조정단들은 핵/화학 무기 뿐만 아니라 전범위에 걸친 군사작전에 대해 지원을 한다.
59. Weapons Support Detachment-Korea, "Unit History," enclosure 2 to June 24, 1988,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대한 미8군의 응답.
60. Weapons Support Detachment-Korea, *Nuclear Operations Standard Operation Procedures (WSD-K NUC OPS)*, Camp Page, Chun Chon, South Korea, Sept. 22, 1987, Annex B, p. 4;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대한 미 제8군의 응답 중 봉함물 제4번.
61. 위의 책.
62. 위의 책, Annex D, p. 8.
63. 위의 책, Annex 3, p. 7.
64. 위의 책, pp. 7-8.
65. 위의 책, Annex C, p. 6.
66. 위의 책, Annex D, p. 9.
67. 위의 책.
68. 위의 책, appendix 1 to Annex G.
69. 위의 책, Annex I, p. 40.
70. 위의 책, Annex C, p. 6.
71. 위의 책, Annex I, pp. 41-42.

72. 위의 책, appendix 4, Annex G, p. 25.
73. E. Rosencrans, "Permanent Orders 1, Headquarters, Combined Field Army (ROK/US) Uijongbu," March 12, 1980;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74. Weapons Support Detachment-Korea, *Nuclear Operations*, Annex I, p. 23.
75. 위의 책, p. 23.
76. 위의 책, p. 28.
77. D. Fitzpatrick, "Dealing Steel in the Morning Calm," *Field Artillery Journal* (July-Aug. 1983), p. 20.
78. UN Command/Combined Forces Command, USFK/EUSA, "Team Spirit '88 After Action Report," Seoul, 1988, p. II-5-4: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79. Weapons Support Detachment-Korea, *Nuclear Operations*, Annex I, p. 27.
80. 위의 책, p. 27.
81. 위의 책, Annex D, p. 8.
82. 위의 책, p. 8.
83. 1987년 4월 5월 6월, 워싱턴에서 미군 장교들과의 인터뷰.
84. Christopher Stratton 소령이 저자에게 보낸 1988년 6월 24일자 편지.
85. 1958에 수정된 원자력법은 의회에 대해 양원 동시결의(각 원 단순 과반수)로 군사적 용도의 핵 정보 및 물질의 국제적 교류에 관한 제안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을 부여하였다. H. Nieburg, *Nuclear Secrecy and Foreign Policy* (Washington, D.C.: Public Affairs Press, 1966), p. 33.
86. D. Cotter, "Peacetime Operations, Safety and Security," in A. Carter et al., eds., *Managing Nuclear Operation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87), pp. 42-61; D. Charles, *Nuclear Planning in NATO, Pitfalls of First Use* (Cambridge: Ballinger, 1987), pp. 12, 55, 96; M. Aid, "Artillery Fired Atomic projectiles, Do We Really Need Them?" mimeo, June 10, 1980, p. 17.
87. 1987년 11월 전 국무부 관리와의 인터뷰.
88. 위의 자료.
89. 위의 자료.
90. Cotter, "Peacetime Operations," p. 61.
91. Weapons Support Detachment-Korea, *Nuclear Operations*, Annex D, p. 16; appendix 4; Annex G, p. 26.
92. 의회가 항상 부분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1970년에 의회의 소위원회는 국방부와 국무부에 대해 핵무기의 도입, 사용, 저장, 처분에 관해 한국과 맺어진 문서상의 혹은 구두의 협정이나 양해사항에 관한 정보를 의회에 제공해주도록 요청하였다. 그들이 답변을 얻어내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U.S. Congress, Subcommittee on United States Security Agreements and Security

Commitments Abroad of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Security Agreements and Security Commitments Abroad, Republic of Korea," Hearings, 91st Congress, part 6,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1970, p. 1669. 1977년 5월 25일 의회에 대한 증언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교환되었다:

싱글러브 장군: 여러분께서도 짐작하시듯이 우리는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상당 수의 재래식 무기체계를 한국인의 지배하에 두고 있습니다, [삭제]...

비어드 씨: 그렇다면 한국이 핵공격능력을 갖고 있다든가 혹은 철군을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핵공격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알려진 대로 입니까?

싱글러브 장군: 글쎄요, 포신이나 미사일 체계의 제작이라는 관점에서라면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삭제]

비어드 씨: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우리들의 철군에 따른 계획이 없고, 혹은 우리들이 전면철군을 할 때 [삭제].

이 원문은 다음의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다; 미국은 한국군의 포를 이용하여 핵무기를 발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은 한국군의 증강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의회는 통합에 대해 통지를 받았다.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Armed Services, "Review of the Policy Decision to Withdraw United States Ground Forces from Korea," Hearings, May-Sept. 1977,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1978, p. 59.

93. 다음 논문에서 특정 국가가 거명되지는 않았지만, 문맥으로 봐서 그 나라는 한국임이 확실하다. W. Pincus, "A New Generation of Weaponry, Why More Nukes," New Republic Magazine 170:6 (Feb. 9, 1974), p. 15.

94. 1987년 6월 워싱턴에서 미군 장교와의 인터뷰.

제8장 평양의 시각

1. W. Carpenter et al., "The Maintenance of U.S. Forces in Korea," report to the U.S. Department of the Army, Strategic Studies Center, Stanford University, SSC-TN-3115-10, June 1975, p. 34.

2. B. Cumings, "Korea—The New Nuclear Flash Point," *The Nation*, April 4, 1984.

3. R. Betts는 *Nuclear Blackmail and Nuclear Balance*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87)에서 한국전쟁 동안에 있었던 핵위협의 유효성에 대해

검토하였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무시하였다; 그리고 *Surprise Attack*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82), p. 273에서 그는 (북한에 대한 핵위협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위험스러운 것은 [미국이나 한국에 의해] 도발이 아니라 불충분한 억제라고 주장하였다.

4. 고병철은 이것을 “태도의 프리즘”이라고 불렀다. B.C. Koh, *The Foreign Policy Systems of North and South Kore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p. 70.

5. R. Simmons, *The Strained Alliance* (New York: Free Press, 1975).

6. Koh, *The Foreign Policy Systems*, pp. 71-94.

7. B. Cumings, “The Two Koreas,” paper 269, Foreign Policy Association May-June 1984, New York, p. 56.

8. B.C. Koh, “Unification and North-South Relations,” in CINCPAC, *North Korea: A Collection of Essays o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Strategic Subjects*. Research and Analysis Office, Camp H.M. Smith, Hawaii, March 1981, pp. 261-63;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9.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bserver Mission to the UN, “Preposterous Fabrication by *Washington Post*,” press release no. 47, Aug. 9, 1989, p. 3.

10. Chong Sik Lee, “The Evolution of North-South Korean Relations,” in R. Scalapino and Hongkoo Lee, *North Korea in a Regional and Global Contex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Korea Research Monograph 11, 1986), p. 117.

11. B.C. Koh, “Unification,” p. 264.

12. Sung-Joo Han, “North Korea's Security Policy and Military Strategy,” in CINCPAC, *North Korea*, pp. 149-52.

13. 위의 글, p. 150.

14. U.S. Defense Intelligence Agency, *North Korean Armed Forces Handbook*, DDI-2680-37-77, Washington, D.C., July 1977, p. 2-33; 정보자유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기밀해제됨.

15. 위의 책, pp. 2-33, 34.

16. 위의 책, p. 2-38.

17. 위의 책, p. 2-44.

18. 위의 책, p. 2-45.

19. 위의 책.

20. D. Zagoria and J. Zagoria, “Crises on the Korean Peninsula,” in S. Kaplan, ed., *Diplomacy of Power*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81), p. 360;

B. Blechman and S. Kaplan, *Force Without War*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78), p. 48; B.C. Koh, “The Pueblo Incident in Perspective,” *Asian Survey* 9:4 (April 1969), p. 278.

21. Zagoria and Zagoria, “Crises,” p. 387.

22. S. Hersh, *The Price of Power: Kissinger in the Nixon White House* (New York: Summit Books, 1983), pp. 72-77.

23. 위의 책.

24.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bserver Mission to the UN, “DPRK Foreign Ministry Issues Memo,” press release no. 26, May 8, 1989, p. 2.

25. W. Carpenter et al., “U.S. Strategy in Northeast Asia,” Strategic Studies Center, SRI International, Technical Report SSC-TN-6789-1, Arlington, Va., June 1978, p. 79.

26. L. Aspin, “The Korean Troop Withdrawal Plan: A Reassessment,” mimeo, Washington, D.C., June 1979, pp. 3-4.

27. 1987년 5월 워싱턴에서 전 주한미군 사령관과 인터뷰.

28. 1986년 12월 워싱턴에서 미 국무부 관리와의 인터뷰.

29. D. Cotter and N. Wikner, “Korea: Force Imbalance and Remedies,” *Strategic Review* (Spring 1982), p. 68.

30. J. MacMahan은 “Nuclear Blackmail,” in N. Blake and K. Pole, eds., *Dangers of Deterrenc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83), p. 97에서 이러한 우발성이야말로 비핵국가들이 직면한 핵공갈이나 공격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31. U.S. Forces Korea/Eighth U.S. Army, “1974 Annual Historical Report,” Seoul, pp. 3-4;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32. “Characteristics of the U.S. Imperialist' Policy of Turning South Korea into a Military Base and Its Dangerous Consequences,” *Nodong Sinmun*, July 20, 1976, translated in U.S. Joint Publications Research Service, reference no. 67849, pp. 33-34, July 1976. 「남조선에 대한 미 제의 군사기지화 정책의 특징과 그 위험한 후과」, 《로동신문》(1976. 7. 20), p. 5(역자 확인).

33. Young Sun Ha, *Nuclear Proliferation, World Order, and Korea* (Seoul: Nation University Press, 1983), p. 130에서 인용.

34. J. Finley, “The US Military Experience in Korea, 1871-1982: In the Vanguard of ROK-US Relations,” Command Historian's Office, USFK/EUSA, Seoul, 1983, p. 196.

35. R. Probst, *Negotiating with the North Koreans: The U.S. Experience at Panmunjom* (Carlisle Barracks, Penn.: U.S. Army War College, May 16, 1977), p. 9.

36. 위의 책, p. 10.
37. 위의 책.
38. U.S. House of Representatives, Subcommittees on International Political and Military Affairs and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Deaths of American Military Personnel in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Hearings, U.S. GPO, Washington, D.C., 1976, p. 6.
39. 위의 글, p. 12.
40. Finley, "The US Military Experience," pp. 191, 194.
41. 미국측의 설명에 대해서는 W. Kirkbride, *Parmurjom: Facts about the Korean DMZ* (Elizabeth, N.J.: Hollym International Corporation, 1985); 그리고 *DMZ: A Story of the Parmurjom Axe Murder*, 3rd ed. (Elizabeth, N.J.: Hollym International Corporation, 1984); R. Head et al., *Crisis Resolution: Presidential Decisionmaking in the Mayaguez and Korean Confrontations*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78) 및 본서 제4장 주 36를 참조할 것.
42. B. Trainor, "Old Soldier Mobilizes a Gray-Haired Army," *New York Times*, March 11, 1988, p. 14.
43. Probst, *Negotiating*, p. 17에서 인용.
44. L. Aspin, "The Korean Troop Withdrawal," pp. 3-4.
45. N. Levin and R. Sneider, "Korea in Postwar U.S. Security Policy," in G. Curtis and Sung-Joo Han, eds., *The U.S.-South Korean Alliance*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1983), p. 52; Koh, "Unification," p. 259.
46. Koh, *The Foreign Policy Systems*, p. 89.
47. T. Bernstein and A. Nathan, "The Soviet Union, China, and Korea," in Curtis and Han, *The U.S.-South Korean Alliance*, p. 119.
48. "Declaration on Nuclear-Free Zone Supported," KCNA Radio, March 20, 1981, translated in U.S. *Joint Publications Research Service*, JPRS 778880070 80071, p. 70.
49. "U.S. Increasing War Danger in Korea," *Nodong Sinmun*, March 7, 1981, translated in U.S. *Foreign Broadcast Intelligence Service*, vol. IV-045, March 9, 1981, p. D-2. 「미제는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장본인」, 《로동신문》(1981. 3. 7), p. 5(역자 확인).
50. "U.S. Called 'Ringleader' of Aggression, War," *Nodong Sinmun*, translated in U.S. *Foreign Broadcast Intelligence Service*, vol. IV-045, March 9, 1981, p. D-3. 「미제의 전쟁광증」, 《로동신문》(1981. 3. 9), p. 5(역자 확인).
51. "Team Spirit is Playing with Fire," *Nodong Sinmun*, March 18, translated in U.S. *Foreign Broadcast Intelligence Service*, vol. IV-052, March 18, 1981, p.

- D-1. 「위험한 불장난」, 《로동신문》(1981. 3. 18), p. 5(역자 확인).
52. "MINJU CHOSON denounces U.S. Nuclear Moves," Pyongyang KCNA, May 11, 1983, translated in U.S. *Joint Publications Research Service*, JPRS 83636, p. 4.
53. "N. Korea Voices Retaliation for Use of Nuclear Weapons," *Pyongyang Times*, June 15, 1983, translated in U.S. *Joint Publications Research Service*, JPRS 83857, p. 87.
54. "Nodong Sinmun on U.S. Doctrine of 'Nuclear Umbrella,'" *Pyongyang KCNA*, July 21, 1986, translated in U.S. *Joint Publications Research Service*, JPRS KAR 86-032-1, p. 1.
55. 위의 자료.
56. 위의 자료.
57. General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DPRK's Consistent Efforts for Nuclear Free Korean Peninsula and Détente* (Tokyo: (bound mimeo) July 1988), p. 2.
58. Secretariat of the Committee for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The Danger of Nuclea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orld Peace," *Information Bulletin* (Pyongyang) 57 (Dec. 1987), p. 9.
59. Secretariat of the Committee for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Pyongyang Mass Rally Denounces Nuclear War Moves of the U.S. Imperialists and the South Korean Puppets," *Information Bulletin* (Pyongyang) 60 (1988), p. 9.
60. 위의 자료.
6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bserver Mission to the UN, press release no. 64, June 28, 1988, p. 2.
62. "Joint Declaration of Nonaggression Between North and South (Draft)," in General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DPRK's Consistent Efforts*, p. 12.
63.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bserver Mission to the UN, press release no. 91, Sept. 3, 1988, pp. 1-2.
64. Byung-joon Ahn, "Arms Control Proposals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n Security," paper for Conference on the Arms Race and Arms Control in Northeast Asia,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Aug. 28, 1986, p. 12.
65.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bserver Mission to the UN, press release no. 26, p. 2.
66. Weinberger in "Joint Communiqué of the 18th Annual 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eoul, April 3, 1986; reaction to Team Spirit in UN Command, "Highlights in U.S.-ROK Defense Relationship," Public Affairs Office, Seoul, March 1986, p. 1.

67.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bserver Mission to the UN, "Statement of Spokesman of DPRK Ministry of People's Armed Force," press release no. 2, Jan. 11, 1989, p. 2.

68. "DPRK Forces Placed on Alert As Team Spirit 89 Approaches Climax," *The People's Korea*(Tokyo), March 25, 1989, p. 1.

69. "Maj. Gen. Kim Tells on Team Spirit 89," *The People's Korea* (Tokyo), April 1, 1989, p. 8.

제9장 거울로 된 방

1. T. Robinson, "Nuclear Weapons and Arms Control in Asia," conference paper,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the U.S.A., momeo, March 1986, p. 20.

2. R. Lebow, *Between Peace and War: The Nature of International Crisi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1); P. Karsten et al., *Military Threats: A Systematic Histo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tion of Success*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1984); R. Jervis et al., *Psychology and Deterrenc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5); P. Morgan, *Deterrence: A Conceptual Analysis* (Bevery Hills: Sage, 1977); H. Catudal, *Nuclear Deterrence: Does it Deter?* (Atlantic Highlands, N.J.: Humanities Press, 1985).

3. 1986년 12월 워싱턴에서의 인터뷰.

4. Young Choi, "The North Korean Military Buildup and Its Impact on North Korean Military Strategy in the 1980s," *Asian Survey* 25:3 (March 1985), pp. 344-46은 전격전에 대해 잘 요약해 놓았다.

5. T. Shoesmith, State Department testimony to East Asia Subcommittee of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momeo, March 9, 1983, p. 9.

6. W. Livsey, "Readiness for Peace," momeo, U.S. Eighth Army Office of Public Affairs, Seoul, July 19, 1984, p. 4.

7. W. Carpenter et al., "U.S. Strategy in Northeast Asia," Strategic Studies Center, SRI International, Technical Report SSC-TN-6789-1, Arlington, Va., June 1978, p. 50.

8. 예를 들면 L. Niksch, "The Military Balance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 and World Affairs 10:2 (Summer 1986), pp. 253-77에 인용된 출처들을 참조할 것.; D. Cotter and N. Wikner, "Korea: Force Imbalances and Remedies," *Strategic Review* (Spring 1982), p. 98; Choi, "North Korean Military Buildup," pp. 341-55.

9. U.S. Department of the Army, *Opposing Force Training Module: North Korean Military Forces*, Field Manual 34-71, Army Intelligence Center and School, Fort Huachaca, Ariz., 1982, p. 27.

10. Eighth U.S. Army, "DMZ Incidents," momeo, 1987년 3월 9일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제공됨.

11. 1987년 4월 14일 워싱턴에서의 인터뷰.

12. U.S. Defense Intelligence Agency, "North Korea: A New Look at Military Options," DIAIAPR 195-76, Washington, D.C., June 17, 1976, p. 2; 정보자유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기밀해제됨.

13. P. Oster, "Early N. Korea Military Strike Doubted," *Chicago Sun Times*, April 10, 1983, p. 15.

14. 1987년 6월 워싱턴에서의 인터뷰.

15. 위의 자료.

16. S. Canby and E. Luttwak, "The Control of Arms Transfers and Perceived Security Needs," C and L Associates report to 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AC9WC112, April 14, 1980, pp. 35-38;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17. 위의 글, p. 38.

18. Byung-joon Ah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Global and Regional Perspective," in R. Scalapino and Hongkoo Lee, eds., *North Korea in a Regional and Global Contex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Korea Research Monograph 11, 1986), p. 295.

19. Y. Dror, *Crazy States: A Counterconventional Strategic Problem*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1971), pp. 59-72를 참조할 것.

20. G. Winn, "North Korea: A Garrison State," in E. Olsen and S. Turika, eds., *The Armed Forces in Contemporary Asian Societies* (Boulder, Colo.: Westview, 1986), p. 116.

21. R. Betts, *Surprise Attack*(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82), p. 309.

22. U.S. Army, Special Research Detachment, "North Korean Paramilitary Reserve Forces," 1975, p. 1; 정보자유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공개됨.

23. Young Koo Cha, "North Korea's Strategic Relations: Pyongyang's Security

Cooperation with Beijing and Moscow," in Scalapino and Lee, eds., *North Korea*, p. 374.

24. D. Cotter and N. Wikner, "Korea: Force Imbalance and Remedies," *Strategic Review* (Spring 1982), p. 98.

25. U.S. Army, Special Research Detachment, "North Korean Paramilitary," p. 9.

26. C. Wolf et al., *The Changing Balance: South and North Korean Capabilities for Long-Term Military Competition* (Santa Monica: Rand R3305, Dec. 1985)을 참조할 것.

27. Cha, "North Korea's Strategic Relations," p. 374.

28. Historical Evaluation and Research Organization, "A Study of Breakthrough Operations," report to Defense Nuclear Agency, DNA 4124F, Dunn Loring, Virginia, Oct. 1976, p. 201.

29. U.S. Defense Intelligence Agency, "North Korean Armed Forces Handbook," DDI-2680-37-77, Washington, D.C., July 1977, p. 2-45; 정보자유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기밀해제됨.

제10장 교착전

1. S. Canby and E. Luttwak, "The Control of Arms Transfers and Perceived Security Needs," C and L Associates report to 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AC9WC112, April 14, 1980, pp. 30;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2. 미군에 의해 사용된 이 기술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J. Stockfisch, *Models, Data, and War: A Critique of the Study of Conventional Forces* (Santa Monica: Rand R-1526-PR, March, 1975); J. Blaker and A. Hamilton, "Models of Analysis," appendix to *Assessing the NATO-Warsaw Pact Military Balance* (Washington, D.C.: Congressional Budget Office, 1977), pp. 53-63을 참조할 것.

3. C. Wolf et al., *Asian Bases, Budget Constraints, and U.S. Commitments* (Santa Monica: Rand report R-763-PR/ISA, February 1972), p. 44;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4. A. Cordesman, "Net Assessment of the North and South Korean Military Balance: Preliminary Assessment of South Korean Land and Air Vulnerabilities and Options for U.S. Policy," report to US assistant to deputy secretary of defense, March 24, 1977, pp. 6, 9, 10;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5. 위의 글, p. 11.

6. L. Niksch, "Korea: U.S. Troop Withdrawal and the Question of Northeast

Asian Stability,"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Issue Brief IB79053, Washington, D.C., June 18, 1980, p. 17.

7. M. Flynn, "Annual Historical Review, 1 Oct. 1984 to 31 Dec. 1985," Nineteenth Support Command, USFK, 1986, p. 31;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8. U.S. Department of the Army, Special Research Detachment, "North Korea Paramilitary Reserve Forces," 1975, p. C-4-1;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부분 공개됨.

9. Choi Young, "Military Strategy and Capabilities of North Korea," in H. Kendall ed.,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Problems and Prospect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1986), p. 43.

10. C. Haberman, "South Korea Says North Bolsters Its Armed Forces Near Truce Line," *New York Times*, Oct. 2, 1974, p. A-10; T. Marecic, "Indications and Warning in Korea- A Study," (master's thesis, Naval Postgraduate School, Monterey, Calif., June 1978), p. 112,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부분 공개됨.

11. 1987년 6월 워싱턴에서의 인터뷰.

12. 1987년 5월 워싱턴에서 전 CIA 분석가와의 인터뷰.

13. L. Richardson과 M. Davis는 "Change Along the Chosin," *Field Artillery Journal* (May-June 1984), p. 18에서 지형에 의해 야기되는 장갑차의 어려움을 기술하고 있다.

14. J. Simpson, "Wartime Interoperability Problems Posed by Differences in South Korean and United States Army Tactics" (master's thesis,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Fort Leavenworth, Kans., 1980), p. 13. Simpson 소령은 p. 25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자신들의 지형에 대한 남한군의 이해가 정확하다면 기동 기갑부대에 대한 북한군의 집중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일 것이다."

15. Canby and Luttwak, "The Control of Arms Transfers," p. 19.

16. U.S. Department of the Army, *Opposing Force Training Modules: North Korean Military Forces*, Field Manual 34-71, Washington, D.C., 1982, p. 4.

17. D. Cotter and N. Wikner, "Korea: Force Imbalances and Remedies," *Strategic Review* (Spring 1982), p. 65.

18. Flynn, "Annual Historical Review, p. 19.

19. R. Betts, *Surprise Attack* (Washington, D.C.: Brookings, 1982), p. 277.

20. Canby and Luttwak, "The Control of Arms Transfers," p. 5.

21. 위의 글, p. 8.

22. 위의 글, p. 20.
23. 위의 글, pp. 20, 39.
24. J. Carpenter, "The Potential of the Republic of Korea Navy, for Cooperation with the Japanese Maritime Self-Defense Force in the Security of Greater East Asia," (master's thesis, Naval Postgraduate School, Monterey, Calif., 1985), pp. 36-37.
25. U.S. Department of the Army, *Opposing Force Training Modules*, p. 214.
26. Simpson, "Wartime Interoperability Problems," p. 18.
27. 위의 글, p. 16.
28. 1987년 10월 서울에서의 인터뷰.
29. B. Jack et al., "Regional Rivalries and Nuclear Responses, the South Korean Case: A Nuclear Weapons Program Embedded in an Environment of Great Power Concerns," Panheuristics Report to U.S. Defense Nuclear Agency, DNA 001-77-C-0052, Feb. 28, 1978, p. II-87. 예를 들어 장갑차(탱크)가 도로를 따라 일직선으로 이동하고 있다면 핵공격보다 재래식 무기에게 의한 공격이 나을 것이다.
30. B. Shemmer, "North Korea Buries Its Aircraft, Guns, Submarines, and Radars Inside Granite," *Armed Forces Journal International* (Aug. 1984), p. 94. 좀더 자세한 사항은 J. Marks, "North and South Korean OB [Order of Battle]," *Military Intelligence* (Oct.-Dec. 1981), p. 22 참조.
31. 1987년 6월 워싱턴에서 미군 고위 장교와의 인터뷰.
32. John H. Cushman, *Organization and Operational Employment of Air/Land Forces* (Carlisle Barracks, Penn.: U.S. Army War College, 1984), p. 4-4.
33. C. Wolf et al., *The Changing Balance: South and North Korean Capabilities for Long-Term Military Competition* (Santa Monica: Rand R-3305, Dec. 1985), p. 3.
34. D. Zagoria, "Soviet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R. Scalapino and Hongkoo Lee eds., *North Korea in a Regional and Global Contex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Korea Research Monograph 11, 1986), pp. 186-87.
35. Chae-Jin Lee, "China's Policy Toward North Korea: Changing Relations in the 1980s," in Scalapino and Lee eds., *North Korea*, p. 207.
36. Council on U.S.-Korean Security Studies, "Emerging Patterns of Regional Security in Northeast Asia and the Future of the US-ROK Alliance," Summary Report of the Fourth Annual Conference, Honolulu, Nov. 15, 1988, p. 2.
37. 1986년 9월 서울에서 주한 미 대사관 관리와의 인터뷰.
38. Combined Forces Command, "Media/VIP Brief for CFC Anniversary,"

- mimeo, 1987;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39. P. Colm et al., "The Reduction of Tension in Korea," International and Social Studies Division,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report to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Center, 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vol. 1, Washington, D.C., June 1972, p. 19;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40. "2nd Shooting on DMZ: Students Riot, Regroup," *Stars and Stripes*, May 17, 1980; "Armed Intruder killed in DMZ," *Stars and Stripes*, March 30, 1980.
 41. S. Goose는 "The Militar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J. Sullivan and R. Foss eds., *Two Koreas--One Future?*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7), pp. 50-62에서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에 대해 매우 자세한 분석을 하고 있다. Wickham 장군은 W. Andrews, "Army Chief Sees Threat from N. Korea," *Washington Post*, Feb. 15, 1986, p. 6에서 협박꾼의 좋은 예를 보여 주고 있다.
 42. Colm et al., "The Reduction of Tension," p. 14.
 43. U.S. Department of the Army, *Opposing Force Training Modules*, pp. 5, C-2-1.
 44. W. Livsey, "Readiness for Peace," speech, Office of Chief of Public Affairs, Department of the Army, July 1984, p. 6;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45. M. Milivojevic, "The Korean People's Army," *Armed Forces* (June 1987), p. 259.
 46. 1987년 3월 6일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대해 미 8군의 R. Christensen이 제 공한 정보.

제11장 핵전쟁 경로

1. C. Wolf, *The Uses and Limitations of Nuclear Deterrence in Asia* (Santa Monica: Rand P-2958, Aug. 1964), p. 13.
2. 1987년 6월 7일 워싱턴에서의 인터뷰.
3. G. Allison et al., *Hawks, Doves, and Owls: An Agenda for Avoiding Nuclear War* (New York: Norton, 1985), pp. 10-17.
4. R. Lebow, "Dominant Powers and Subordinate Regions: 1914 and Today," in J. Triska, ed., *Dominant Powers and Subordinate States: The United States in Latin America and the Soviet Union in Eastern Europe*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1986), p. 407.
5. Allison et al., *Hawks, Doves, and Owls*, p. 16.
6. K. Waltz, "The Central Balan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Asian*

Perspective 6 (Spring-Summer 1982), pp. 89, 103-4.

7. J. Pollack, *Security, Strategy, and the Logic of Chinese Foreign Policy* (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81), pp. 32-50.

8. Yong-Ok Park, "Shifting Alignments and Polarization in Asia," mimeo, paper for Conference on U.S.-Korea Security Relations by the Turn of the Century, Council on U.S.-Korean Military and Security Studies, Aug. 12, 1985, Washington, D.C., pp. 24-25.

9. Bae-Ho Hahn, "Korean-American Security Relations in the 1970s: Opportunities and Dilemmas," in M. Weinstein ed., *Northeast Asian Security after Vietnam*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2), p. 159.

10. W. Carpenter et al., "U.S. Strategy in Northeast Asia," Strategic Studies Center, SRI International, Technical Report SSC-TN-6789-1, Arlington, Va., June 1978, p. 65.

11. Byung-joon Ahn, "The United States and Korean-Japan Relations," in G. Curtis and Sung-joo Han eds., *The U.S.-South Korean Alliance*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1983), pp. 138-48; Park, Yong Ok, *Korean-Japanese-American Triangle: Problems and Prospects* (Santa Monica: Rand Paper P-7138, Sept. 1985)도 참조할 것.

12. U.S. Defense Communications Agency, *ORGANIZATION Defense Communications Agency Northwest Pacific Region*, DCA Circular 640-45-10, Washington, D.C., Jan. 11, 1985, p. 1;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13. G. Shamla, "How Should the United States Strive for Tactical Command, Control, and Communications Interoperability with Its Allies in the Pacific Basin?" research paper, National Defense University, Washington, D.C., Feb. 1983; and the twenty-eight-country studies by BDM Corporation for Western Command, "PACOM Army Interoperability Assessment," Honolulu, 1982;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기밀해제됨.

14. T. Hayward, "Some Implications of East Asia Threat Perceptions on a Coalition Strategy and C3I," in Mitre Corporation, *Coalition Defense and C3I* (Bedford, Mass.: Mitre Corporation report 84-4, 1984), p. 58.

15. G. Segal, *The Great Power Triangl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2.

16. H. Bull, "Introduction," in H. Bull ed., *Asia and the Western Pacific: Towards a New International Order* (Melbourne: Nelson, 1973), p. xiv.

17. Byung-joon Ahn, "The United States and Korean-Japan Relations," in G. Curtis and Sung-joo Han eds., *The U.S.-South Korean Alliance*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1983), pp. 133.

18. Yu-Nam Kim, "Changing Relations Between Moscow and Pyongyang: Odd Man Out," in R. Scalapino and Hongkoo Lee, eds., *North Korea in a Regional and Global Contex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Korea Research Monograph 11, 1986), p. 167.

19. Chae-Jin Lee, "China's Policy Toward North Korea: Changing Relations in the 1980s," in Scalapino and Lee eds., *North Korea*, pp. 209-10.

20. R. Sneider, "Security Equation in Northeast Asia and Korea," in H. Kendall ed.,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Problems and Prospect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1986), p. 27.

21. T. Bernstein and A. Nathan, "The Soviet Union, China, and Korea," in Curtis and Han eds., *The U.S.-South Korean Alliance*, p. 96; N. Levin and R. Sneider, "Korea in Postwar U.S. Security Policy," in Curtis and Sung-joo Han eds., *The U.S.-South Korean Alliance*, p. 45.

22. R. Kim, "Gorbachev and the Two Koreas," mimeo, Drexel University, Philadelphia, 1987, pp. 34-35.

23. 1987년 11월 비핵산 정책을 담당했던 전 국무부 관리와의 인터뷰.

제12장 선제사용

1. "2nd Div. in Korea Fit to Fight, CG Feels," *Army Times*, Dec. 29, 1980.

2. P. Hayes et al., *American Lake, Nuclear Peril in the Pacific* (New York: Viking/Penguin, 1987), pp. 337-57를 참조할 것.

3.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Armed Services, "Review of the Policy Decision to Withdraw United States Ground Forces from Korea," Hearings, May-Sept. 1977,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1978, pp. 241-42.

4. "Long War Theory Applies to Korea," *Korea Herald*, Jan. 23, 1983.

5. B. Jack et al., "Regional Rivalries and Nuclear Responses, the South Korean Case: A Nuclear Weapons Program Embedded in an Environment of Great Power Concerns," Panheuristics Report to U.S. Defense Nuclear Agency, DNA 001-77-C-0052, Feb. 28, 1978, pp. II-83-91.

6. BDM Corporation, "Logatak Support to PACOM Theater Nuclear Force Program," Report BDM/W-82-389-TR to U.S. Defense Nuclear Agency, Aug.

1982.

7. U.S. Forces Korea/Eighth U.S. Army, "1982 Annual Historical Report," p. 253;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부분적으로 기밀해제됨.
8. U.S.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Seventh Infantry Division Artillery, "Operational Report for Quarterly Period Ending 30 April 1968," June 15, 1968, pp. 3-5, 7.
9. Weapons Support Detachment-Korea, *Nuclear Operations Standard Operation Procedures (WSD-K NUC OPS)*, Camp Page, Chun Chon, South Korea, Sept. 22, 1987, Annex G, appendix 2, p. 22;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대한 미 제8군의 응답 중 봉함물 제4번.
10. R. Ragget, ed., *Military Communications* (London: Jane's, 1986), pp. 128-29, 694.
11. Weapons Support Detachment-Korea, *Nuclear Operations*, Annex G, appendix 2, p. 21.
12. UN Command/Combined Forces Command, USFK/EUSA, "Team Spirit 88, After Action Report," Seoul, 1988, p. II-5-2;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13. Weapons Support Detachment-Korea, *Nuclear Operations*, Annex D, p. 8.
14. D. Fitzpatrick, "Dealing Steel in the Morning Calm," *Field Artillery Journal* (July-Aug. 1983), p. 20. L. Richardson and M. Davis, "Change Along the Chosin," *Field Artillery Journal* (May-June 1984), p. 20.
15. U.S. Department of the Army, *Opposing Force Training Modules: North Korean Military Forces*, Field Manual 34-71, Washington, D.C., 1982, p. 44.
16. UN Command/Combined Forces Command, USFK/EUSA, "Team Spirit 88," p. III-5-1, 이러한 취약점을 분석하고 있다.
17.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Appropriations, Subcommittee on the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Defense Appropriations for 1985," Hearings, U.S. GPO, Washington, D.C., 1984, p. 980.
18. 1987년 4월 워싱턴에서의 인터뷰.
19. T. Cochran et al., *U.S. Nuclear Forces and Capabilities* (Cambridge: Ballinger, 1984), pp. 30, 47, 52.
20. 1987년 4월 워싱턴에서의 인터뷰.
21. Weapons Support Detachment-Korea, *Nuclear Operations*, Annex H, p. 30.
22. J. Martin, "Thinking about the Nuclear Balance in Asia," in R. Solomon and M. Kosaka, eds., *The Soviet Far East Military Buildup: Nuclear Dilemmas and Asia Security* (Dover, Mass.: Auburn House, 1986), p. 7.
23. 1986년 12월 인터뷰.

24. 1984년 4월 워싱턴에서의 인터뷰.
25. N. White, *U.S. Policy Toward Korea: Analysis, Alternatives, and Recommendations*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79), pp. 39-40.
26. BDM Corporation, "Logatak Support to PACOM Theater Nuclear Force Program," report to DNA no. DNA-TR-81-192, McLean, Va., Aug. 1, 1982, pp. 8, 23, 63;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27. Headquarters, Eighth U.S. Army, "Emergency Instructions for Noncombatants in Korea," EA Pam 600-300, Seoul, July 1, 1967, p. 9.
28. Boeing Aerospace, "Communication Facility EMP Assessment," report to DNA 001-76-C-0076, March 1979, 기밀해제되어 있지 않은 비밀 보고서.
29. U.S. Congress, Subcommittee on Military Construction and Stockpiles of Committee of Armed Services(House) and Subcommittee on Military Construction of the Committee on Appropriations(Senate), "Military Construction Authorization Fiscal Year: 1981," Hearings, U.S. GPO, Washington, D.C., 1980, p. 693.
30. Second Infantry Division, *Organization and Functions Manual for Headquarters, 2d Infantry Division*, Second Div. Memorandum 10-1, May 7, 1987, p. 6-7-2;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31. 강조 첨가; 위의 책, p. 6-11-3.
32. U.S. Department of the Army, *Opposing Force Training Modules*, p. 24.
33. U.S. Senate, "Department of Defense Authorization for Appropriations for FY 1985," Hearings, part 8, U.S. GPO, Washington, D.C., 1984, p. 3874.
34. J. Watkins, "The Maritime Strategy," *Proceedings* (Feb. 1986), p. 11.
35. G. Lee, "Gorbachev Offers Concession on Medium-Range Missiles," *Washington Post*, July 23, 1987, p. 1.
36. T. Stefanick, *Strategic Antisubmarine Warfare and Naval Strategy*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1987), pp. 38-98.
37. Tom Burgess, "Armed U.S. Navy Bombers Fly Mock Raids at Soviet Base," *Washington Times*, Nov. 24, 1987, p. 1.
38. M. Moore, "Navy Plane, Soviet Fighter Almost Collide," *Washington Post*, Jan. 14, 1988, p. 31.
39. 1983년 쿠릴 열도에서 미 해군이 포함되었던 실제적인 예에 대해서는 S. Hersh, *The Target is Destroyed* (New York: Random House, 1986), pp. 12-16를 참조할 것.

제13장 속임수

1. R. O'Mara, "Americans in Korea: Pulling Out is Not Their Cup of Tea," *Baltimore Sun*, April 13, 1983, p. 2.
2. 1987년 6월 워싱턴에서 국무부 관리들과의 인터뷰.
3. 1987년 5월 워싱턴에서 국무부 관리와의 인터뷰.
4. 1987년 11월 16일 전 국무부 관리와의 인터뷰.
5. 1987년 11월 인터뷰.
6. U.S. Ambassador W. Gleysteen, "Reported Withdrawal of US Nuclear Weapons from Korea," cable P220856Z to U.S. secretary of state, Aug. 1978, and "Editorial on Reported Withdrawal of U.S. Nuclear Weapons from Korea," cable R240846Z to U.S. secretary of state, Aug. 1978;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7. W. Carpenter et al., "U.S. Strategy in Northeast Asia," Strategic Studies Center, SRI International, Technical Report SSC-TN-6789-1, Arlington, Va., June 1978, p. 89.
8. 위의 글, pp. 89-90.
9. U.S. Senate, Committee on Armed Service, Pacific Study Group, "Korea: The U.S. Troop Withdrawal Program," mimeo, Jan. 23, 1979, p. 10.
10. L. Brown, *American Security Policy in Asia* (London: Adelphi Paper 132, 1977), pp. 31-32. 이 글은 카터가 당선되기 전인 1976년 말에 썼어졌다.
11. Ryukichi Imai, "A Japanese View," in Ryukichi Imai and H. Rowen, eds., *Nuclear Energy and Nuclear Proliferation: Japanese and American Views*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80), p. 12; M. Brenner, *Nuclear Power and Non-Proliferation: The Remaking of U.S. Poli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p. 14-61.
12. Young-Sun Ha, *Nuclear Proliferation, World Order and Kore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3), p. 179.
13. L. Spector, *Nuclear Proliferation Today* (Cambridge: Ballinger, 1984), pp. 341-42.
14. L. Collins, "Korea and Taiwan: Security and the Nuclear Option," International Energy Forum(Tokyo), Jan. 1984, pp. 44-46.
15. R. Gillette, "U.S. Squelched Apparent S. Korea A-Bomb Drive," *Los Angeles Times*, Nov. 4, 1978, pp. 1, 14[에서 인용].
16. S. Weissman and H. Krosney, *The Islamic Bomb* (New York, Times Books, 1981), p. 152에서 인용.
17. W. Casey, cable to Ambassador R. Sneider, U.S. embassy, Seoul, March 13,

- 1975, p. 2;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18. Ambassador R. Sneider, "DRP's Policy Chairman Asserts South Korea Will Not 'Go Nuclear,'" cable PR1180837Z to U.S. secretary of state, June 1975; and U.S. secretary of state, "Evans-Novak Column on President Park's Views," cable PI21954Z to U.S. embassy, Seoul, June 1975;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19. U.S. Secretary of State, "SecDef Press Conference: Public Affairs Guidance," cable OR211917Z to U.S. embassy, Seoul, June 1975;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20. 벨기에는 혼합 산화연료 재처리 실험실을, 프랑스는 재처리 공장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다. 캐나다가 제공하기로 한 것은 인도에 제공했던 것과 비슷한 지원이라고 추정되는 것 외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인도는 캐나다제 실험용 원자로를 이용하여 1974년의 핵실험에 사용된 플루토늄을 제조했다.
 - U.S. Congres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vestigation of Korean-American Relations," Washington, D.C., 1978, p. 80.
 21. 1978-80년의 기간에 핵화산 문제로 박정희와 만났던 전 의회 고위 보좌관과의 인터뷰.
 22. U.S. Ambassador, Seoul, "ROK Defense Policy As Discussed by Minister So," cable PO10745Z, Nov. 1976, to U.S. secretary of state;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23. 1987년 6월 전 주한 미 대사와의 인터뷰.
 24. 1987년 5월 전 주한 미 대사와의 인터뷰.
 25. U.S. secretary of state, "Korea 7 and 8 Nuclear Plants," cable 0162233Z to U.S. embassy, Seoul, Nov. 1978, p. 1;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26. "Republic of Korea, Artillery Rocket," *Military Review* (Aug. 1979), p. 82.
 27. Representative Anthony Beilenson, letter to secretary of state, Aug. 20, 1979;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28. T. Cochran et al., *U.S. Nuclear Forces and Capabilities* (Cambridge: Ballinger, 1984), p. 102.
 29. 1987년 전 주한 미 대사와의 인터뷰. 이에 따르면 미사일 계획은 1979년 10월 박정희가 암살된 이후에도 198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다고 한다.
 30. P. Taylor, "Ottawa Denies U.S. Killed A-Deal," *Globe and Mail* (Toronto), Oct. 16, 1984, p. 5.
 31. 아직도 기밀해제가 안된 1986년 2월 26일 브리핑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1984년까지도 "캐나다의 재처리 분야 기술 이전을 철회하도록 한 미국의 압력에 대해 감정이 상해 있다." U.S. Department of Energy, briefing paper on U.S./ROK.

Joint Standing Committee on Nuclear and Other Energy Technologies, February 26, 1986, p. 1.

32. 위의 자료.
33. 1987년 5월 전 주한 미 대사와의 인터뷰.
34. 위의 자료.

제14장 핵확산 잠재력

1. 남한의 핵무기에 관해 3개 시민단체의 공개질의에 대한 1987년 9월 8일의 한국 국방부 장관의 답변.

2. UPI, "South Korean Chief Threatens to Reduce the North to Ashes," *Washington Star*, June 27, 1981, p. 9.

3. 1986년 9월 전 주한 미 대사관 관리와의 인터뷰.

4. 1987년 6월 국무부 관리와의 인터뷰; 쟁거(Zanger) 방아쇠 목록의 원문과 배경에 대해서는 D. Fischer and P. Szasz, *Safeguarding the Atom* (London: Taylor and Francis, 1985), p. 219 참조.

5. J. Davidow, *Comparative Study of European Nuclear Export Regulations*, vol. 1, report by law firm Mudge Rose Guthrie Alexander and Ferdon to Lawrence Livermore Laboratory, Livermore, Calif., Aug. 1985, p. 13.

6. "Statement of Dr. Hyung Sup Choi,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Head of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21st General Conference of the IAEA," mimeo, 1976, p. 3.

7. 미 에너지부 관리의 파일에 따름.

8. Hidetake Kakihana,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Atomic Energy and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n *Proceedings of the Symposium on Nuclear Energy*, KAERI/Korea Nuclear Society, April 12, 1979, Seoul, p. 17.

9. Chang Gun Lee,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Power," paper to the Eighth IAEA RCA Working Group, Seoul, April 30, 1986, p. 14.

10. 예를 들어 한미협정(1972년 체결, 1974년 수정)은 원자로 설계, 안전조치의 적용과 관련된 다른 장비를 검토할 수 있는 권리와, 연료자료와 특수 핵물질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과 관련된 장소와 자료를 사찰할 수 있는 권리를 미국에 부여하고 있다. "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cerning Civil Uses of Atomic Energy," *U.S. Tr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24 UST,

Nov. 24, 1972, pp. 785-86을 참조할 것.

11.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Australi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cerning Cooperation in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and the Transfer of Nuclear Material*, Treaty Series 1979, no. 5, May 2, 1979, p. 5.

12. "South Korea's Failure to Inform the U.S. About the Event at Walsung," *Nucleonics Week*, June 13, 1985, p. 11.

13. 자세한 사항은 P. Hayes, "South Korean Nuclear Trade," paper to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Strategic Affairs Conference on Emerging Nuclear Suppliers and Nonproliferation, Bellagio, Italy, June 22, 1987 참조; 이 논문은 W. Potter ed., *International Nuclear Trade and Nonproliferation*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1990)에 "South Korea"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14. 1987년 5월 전 주한 미 대사와의 인터뷰.

15. 1987년 6월 미 국방부 관리와의 인터뷰.

16.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ermanent Observer Mission to UN, press release no. 97, Oct. 13, 1988, p. 3.

17. J. McBeth et al., "Nuclear Jitters: Pyongyang Could Be Trying to Build the Bomb," *Far Eastern Economic Review*, Feb. 2, 1989, p. 15; A. MacLachlan, "U.S. Prods IAEA About Safeguards for North Korean Nuclear Plants," *Nuclear Fuel*, April 3, 1989, p. 5.

18. McBeth et al., "Nuclear Jitters."

19. 중국의 애매한 핵확산방지 입장에 대해서는 R. Subramanian, "Second-Tier Nuclear Suppliers: Threat to the NPT Regime?" in R. Jones, ed., *The Nuclear Suppliers and Nonproliferation*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1985), pp. 98-100과 M. Brenner, "Emerging Nuclear Suppliers and Nonproliferation," paper for Conference on Emerging Nuclear Suppliers and Nonproliferation, Bellagio, Italy, June 22, 1987 참조.

20. 1987년 미 국방부 관리와의 인터뷰.

21. Library of Congress, "Reactors Developed in the USSR and its Bloc Countries," Air Information Division Report 60-77, Washington, D.C., Oct. 31, 1960, p. 51; McBeth et al., "Nuclear Jitters."

22. Fischer and Szasz, *Safeguarding the Atom*, p. 235.

23. L. Collins, "Korea and Taiwan: Security and the Nuclear Option," International Energy Forum(Tokyo), Jan. 1984, p. 78에서 인용.

24. M. Gordon, "North Korea Joins Treaty on Nuclear Containment,"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Dec. 28, 1985.

25. 1987년 12월 서울에서의 인터뷰.
26. MacLachlan, "U.S. Prods IAEA."
27. J. Schneider ed,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and Nuclear Risk*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4)에 있는 토론을 참조할 것.
28. W. Epstein, *The Last Chance: Nuclear Proliferation and Arms Control* (New York: Free Press, 1976), p. 140.
29. MacLachlan, "U.S. Prods IAEA."
30. R. Lawrence et al., "Implications of Indian and/or Japanese Nuclear Proliferation for U.S. Defense Policy Planning," Strategic Studies Center, Stanford University, Technical Note SSC-TN-1933-1, report to U.S.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efense Department, Jan. 1974, p. 2.
31. P. Polomka, *The Two Koreas: Catalyst for Conflict in East Asia?* (London: Adelphi Paper, Summer 1986), p. 51.

제15장 한반도의 군축

1. 1987년 6월 국무부 관리와의 인터뷰.
2. E. Sciolino, "U.S. Will Not Press Korean Initiative," *New York Times*, June 16, 1987, p. 1.
3. 1987년 국무부와 국방부에서의 인터뷰.
4. J. Edwards, "Bush Policy Favours the Pacific," *Sydney Morning Herald*, Jan. 28, 1989, p. 23.
5. T. Wilborn, "U.S. Forces in Korea: An American Strategic Perspective," Ilhae Institute, Occasional Paper 87-03, Seoul, April 14, 1987, p. 23.
6. 국무부 정보 관리와의 인터뷰; E. McCracken, "Challenges to the U.S.-ROK Security Relationship in the 1990s," paper to the U.S.-Korea Security Conference, Seoul, Dec. 1987; S. Perkins, *Global Demands: Limited Forces, U.S. Army Deployment*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84), p. 77. Perkins의 견해에 따르면 현재 오끼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병은 제2보병사단으로 대체되거나 이 사단이 한국 내외에서의 신속배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제안들은 1974년 이래 계속 이루어져 왔다.
7. M. Flynn, "Annual Historical Review, 1 Oct. 1984 to 31 Dec. 1985," Nineteenth Support Command, USFK, 1986, p. 33.
8. 위의 글.
9. "N. Korea Asks South for Military Meeting; Such Talks Unprecedented for

- Rival States," *Washington Post*, June 18, 1986.
10. 1986년 12월 워싱턴에서 국무부 관리와의 인터뷰.
 11. 1986년 10월 서울에서의 인터뷰; 1986년 12월 워싱턴에서의 인터뷰.
 12. F. Hiatt, "North Korea Proposes That Both Sides Reduce Military Forces to Under 100,000," *Washington Post*, July 24, 1987, p. 17.
 13. E. Neilan, "N. Korea Unrealistic on Cuts, Critics Say," *Washington Times*, July 27, 1987, p. 7; D. Pitt, "South Korea Rebuffs a Call for Talks by the North," *New York Times*, March 18, p. A-5.
 14. C. Haberman, "North Koreans Propose Reduction of Troops in the North and South," *New York Times*, July 24, 1987.
 15. 1986년 6월 워싱턴에서의 인터뷰.
 16. C. Wolf et al., *The Changing Balance: South and North Korean Capabilities for Long-Term Military Competition* (Santa Monica: Rand R-3305, Dec. 1985), p. 3.
 17. J. McBeth, "Withdrawal Symptoms: American Ponder the Removal of Nuclear Weapon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Sept. 29, 1988, p. 35.
 18. N. White, *U.S. Policy Toward Korea: Analysis, Alternatives, and Recommendations*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79), p. 151.
 19. P. Colm et al., "The Reduction of Tension in Korea," International and Social Studies Division,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report to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Center, 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Washington, D.C., June 1972, vol. 2, pp. 148-49;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20. 자세한 사항은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ermanent Observer Mission to UN, "Communiqué on Joint Meeting of DPRK Central People's Committee, SPA Standing Committee and Administration Council," press release no. 100, New York, Nov. 10, 1988, p. 6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1. 특히 Choi Jang Jip, "Political Cleavage and Transition in a Military Authoritarian Regime: Institutionalization, Opposition, and Process in South Korea: 1972-86," mimeo,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Korea University, Seoul, Nov. 1986을 참조할 것.
 22. 예를 들어 W. Gleysteen, "Korea: A Special Target of American Concern," in D. Newsom, ed, *The Diplomacy of Human Rights* (New York: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6), p. 90을 참조할 것.
 23. Choi, "Political Cleavage," p. 6.
 24. "North Koreans No Longer Off Limits for US Envoys," *Christian Science Monitor*, March 11, 1987.

25. R. Charles, *A Military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Peacekeeping: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Peacekeeping Operations and Review and Evaluation of Some Peacekeeping Concepts and Doctrine*, monograph published by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Fort Leavenworth, Kans., June 6, 1975, pp. 125-28.

26. D. Barton, "The Sinai Peacekeeping Experience: A Verification Paradigm for Europe," in *SIPRI Yearbook 1985* (London: Taylor and Francis, 1985), pp. 541-76.

27. 이 시스템은 REMBASS (Remotely Monitored Battlefield Sensor System)이라 불린다. 이 시스템의 지진, 음향, 자기, 적외선 탐지기는 병력과 장비의 이동과 방향을 찾아내고 확인하고 전달해 주며 이 이동상황을 정확히 그려낸다. RCA-GE, "REMBASS Program Briefing," Automated Systems Department, Burlington, Mass., March 25, 1987.

28. "Charting a New Pacific," in P. Hayes et al., *American Lake, Nuclear Peril in the Pacific* (New York: Viking/Penguin, 1987), pp. 393-405; G. Segal, *Arms Control in Asia*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7); A. Mack, "Arms Control in the North Pacific, Problems and Prospects," in Pacific Institute of Resource Management, *Disarming the Pacific*, seminar papers, Wellington, New Zealand, May 1988; A. Mack and P. Keal, eds., *Security and Arms Control in the North Pacific* (Sydney: Allen and Unwin, 1988)을 참조할 것.

29. B. Glaser, "Soviet, Chinese and U.S. Perspectives on Arms Control in North-East Asia," in A. Mack and P. Keal, eds., *Security and Arms Control in the North Pacific* (Sydney: Allen and Unwin, 1988), p. 176.

30. N. White, *U.S. Policy Toward Korea*, pp. 194-219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31. R. Pear, "Reagan Envisions Korea Troop Cut," *New York Times*, Oct. 21, 1988.

32. T. Wirth, "Make Withdrawals Leverage for Peace," *Los Angeles Times*, Feb. 18, 1980.

33. A. Buzo, "Pyongyang Sees No Need for Diplomatic Damage Control," *Far Eastern Economic Review*, Dec. 8, 1988, p. 26.

34. D. Sairs, *The Diplomacy of Constraint: Canada, the Korean War, and the United State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4), pp. 288, 295.

35. R. Pear, "U.S. Eases Some Curbs on North Korea," *New York Times*, Nov. 1, 1988, p. 3.

제16장 깨어진 합의

1. Young Whan Kihl, *Politics and Policies in Divided Korea*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84), p. 28.

2. "A Nuclear War on the Korean Peninsula—Important Remarks Made by Meyer, Chief of Staff of the U.S. Army," *Choson Ilbo*, Jan. 25, 1983, p. 2, translated in U.S. *Foreign Broadcast Intelligence Service*, Jan. 26, 1983, p. E-1.

3. Pollution Problems Research Institute of South Korea, "Tasks and Prospects for Anti-Nuclear Movements in Korean Peninsula," *Pollution Research* (Autumn 1987), in Korean Peace Committee in Japan, *South Koreans Want No Nuclear Arms*, bound mimeo, Tokyo, July 1988, p. 8.

4. "Discussions of Nuclear Problems in South Korean Society," *Mal*, Oct. 15, 1987, in Korean Peace Committee in Japan, *South Koreans Want No Nuclear Arms*, Tokyo, July 1988, p. 17.

5. Pollution Problems Research Institute of South Korea, "Tasks and Prospects," p. 8.

6. 위의 글.

7. "Our Press and Speech Have Been Accustomed to Accepting the Logics of National Security," *Mal*, Oct. 15, 1987, in Korean Peace Committee in Japan, *South Koreans*에서.

8. 위의 글, p. 9.

9. 위의 글.

10. "Discussions of Nuclear Problems in South Korean Society," *Mal*, Oct. 15, 1987, in Korean Peace Committee in Japan, *South Koreans*, p. 14.

11. 위의 글, p. 13.

12. 위의 글.

13. 위의 글.

14. 민간단체들이 남한 국방부 장관과 집권당인 민정당에 보낸 공개 편지. 이 편지의 발송일자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남한 군사령부에서 1987년 9월 8일 수신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국방부 장관의 답신일자도 1987년 9월로 되어 있다.

15.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All Nuclear Weapons Should Be Withdrawn from the Korean Peninsula," in Korean Peace Committee in Japan, *South Koreans*, p. 5.

16. Korean Peace Committee in Japan, *South Koreans*, p. 14에서.

17. 저자가 참석했던 1989년 2월 서울에서의 전민련 모임에서.

18. Council on U.S.-Korean Security Studies, "Emerging Patterns of Regional

Security in Northeast Asia and the Future of the US-ROK Alliance," Fourth Annual Conference Summary Report, Honolulu, Nov. 15, 1988, p. 8에서.

19. H. Summers, "Koreans Are Trying to Tell Us Something About the Concept of Nuclear Deterrence," *Los Angeles Times*, Dec. 1, 1988, p. 7.

20. Council on U.S.-Korean Security Studies, "Emerging Patterns," p. 8.

21. J. McBeth, "Withdrawal Symptoms: American Ponder the Removal of Nuclear Weapon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Sept. 29, 1988, p. 35.

제17장 원자폭탄

1. 1988년 6월 서울에서의 인터뷰.

2. 위의 자료.

3. 1988년 6월 서울에서 오복순씨와의 인터뷰

4. 위의 자료.

5. Hisako Hattori et al., "On the Non-Japanese Victims of the Atomic Bombs Abroad--The Case of the Korean Victims," in Japan National Preparatory Committee, *A Call from Hibakusha of Hiroshima and Nagasaki*,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Damage and After-Effects of the Atomic Bombing of Hiroshima and Nagasaki, July 21-Aug. 9, 1977, p. 131.

6. 위의 글; Committee for the Compilation of Materials on Damage Caused by the Atomic Bomb in Hiroshima and Nagasaki, *Hiroshima and Nagasaki: The Physical, Medical, and Social Effects of the Atomic Bombing* (New York: Basic Books, 1981), p. 468.

7. Hisako Hattori et al., "On the Non-Japanese Victims," p. 134.

8. 1988년 6월 서울에서의 인터뷰.

9. 1988년 5월 서울에서의 인터뷰. 나이는 한국식이다.

10. 1987년 7월 서울에서 있었던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윤영애씨와의 인터뷰. 윤여사는 내가 생존자들과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나는 이 점에 대해서 특히 감사하고 있다.

11. 1988년 5월 서울에서의 인터뷰.

12. 박수복, 「핵의 아이들」(서울: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87).

13. "Korean A-Bomb Victims Seek Japan's Indemnity," *Korea Herald*, Dec. 2, 1987.

14. 1988년 6월 서울에서의 인터뷰.

15. Committee for the Compilation, *Hiroshima and Nagasaki*, p. 475.

16. C. Haberman, "A Different Hiroshima Story: The Bitter Koreans," *New*

York Times, April 29, 1988.

17. Church Women United Korea, "Survey on the Actual State of the Atomic-Bomb Victims in Korea," mimeo, no date, circa mid-1980s, p. 10.

18. 1988년 5월 서울에서의 인터뷰.

19. Haberman, "A Different Hiroshima Story."

20. 1988년 5월 서울에서의 인터뷰.

21.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관해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펴낸 소책자의 서문을 번역한 것.

22. 1988년 6월 서울에서의 인터뷰.

23. 1988년 6월 서울에서의 인터뷰.

24. 1988년 6월 서울에서의 인터뷰.

25. 1989년 5월 서울에서의 인터뷰.

부록 A: 남한에서의 미국의 핵조직과 하부구조

1. Second Infantry Division, *Organization and Functions Manual for Headquarters, 2d Infantry Division, Second Div.* Memorandum 10-1, May 7, 1987, p. 6-7-3;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2. 위의 책, p. 6-7-1.

3. 위의 책, pp. 6-7-1, 6-7-4.

4. U.S. Army Korea Ammunition Management System and Camp Ames, *Functional Statement*, undated, pp. 61-62;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으로 W. Arkin에게 공개됨. Sixth Ordnance Battalion, *Organization and Functions Manual, Command Mission and Structure*, U.S. Forces Korea, 1989, pp. 65-68;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5. W. Arkin and R. Fieldhouse, *Nuclear Battlefields* (Cambridge: Ballinger, 1985), p. 231; M. Posner, "U.S. Tells of Plan for Nuclear Vaults Overseas," *Boston Globe*, July 10, 1986, p. 4; First Signal Brigade, *Telephone Directory, United Nations Command,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and United States Forces Korea*, Seoul, South Korea, 1985 ed., pp. 53, 196;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6. M. Flynn, "Annual Historical Review, 1 Oct. 1984 to 31 Dec. 1985," *Nineteenth Support Command, USFK*, 1986, p. 14;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7. Arkin and R. Fieldhouse, *Nuclear Battlefields*, p. 231.

8. Nineteenth Support Command, "Annual Historical Review, CY 85," p. 14;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9. Nineteenth Support Command, "Annual Historical Review, FY 83," p. 13;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10. Arkin and R. Fieldhouse, *Nuclear Battlefields*; Commander U.S. Forces Korea, "Quarterly Report to SecDef," cable 050310Z to CINCPAC, March 1987;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부분적으로 기밀해제됨, p. 232.
11. U.S. Army, *Nuclear Operations, Field Artillery Cannon Unit*, Technical Circular TC6-50-2, Washington, D.C., April 1981, p. 10.
12. First Signal Brigade, *Telephone Directory*, p. 38.
13. J. Anderson, "Little Weapons with a Big Bang," *Washington Post*, June 3, 1984.
14. 1987년 10월 전 주한 미 핵무기 기술자와의 인터뷰.
15. 그는 저자의 질문에 대해 그렇게 대답했다. H. Hiatt, "U.S.: No Use of A-Arms Envisioned in S. Korea," *Washington Post*, Dec. 3, 1987, p. A-54를 참조할 것.
16. T. Cochran et al., *U.S. Nuclear Warhead Production*, vol. 2, *Nuclear Weapons Databook* (Cambridge: Ballinger, 1987), table 2-1, pp. 10-11.
17. P. Hayes et al., *American Lake, Nuclear Peril in the Pacific* (New York: Viking/Penguin, 1987), pp. 209-38을 참조할 것.
18. Commander U.S. Forces Korea, "Quarterly Report."
19. U.S. Weapons Support Detachment-Korea, organizational chart;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20. Public Affairs Office, "History, Mission and Organization of the 2nd U.S. Infantry Division," Second Infantry Division press release, Public Affairs Office, Camp Casey, South Korea, undated, p. 3;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21. 위의 글.

부록 B: 남한에서 미군의 핵사고 대응역량

1. 그러한 사고들로 인해 초래되는 정치적 문제와 방사능 위험에 관한 좀더 진전된 연구로는 P. Hayes et al., *American Lake, Nuclear Peril in the Pacific* (New York: Viking/Penguin, 1987), pp. 282-88와 "Nuclear Weapons Accidents and Transit in Australian Ports," *Current Affairs Bulletin* (Sydney), Sept. 1988, pp. 22-23이 있다.
2. Weapons Support Detachment-Korea, *Nuclear Operations Standard*

- Operation Procedures (WSD-K NUC OPS SOP)*, Camp Page, Chun chon, South Korea, Sept. 22, 1987, Annex E, p. 11;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대한 미 제8군의 응답 중 봉함물 제4번.
3. 위의 책, Annex F, p. 13.
 4. 위의 책, Annex E, pp. 11-12.

부록 C: 한-미 핵조정과 통합

1. "CSCT 1," briefing paper and slides, Nov. 2, 1987, p. 1;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대한 미 제8군의 응답.
2. "CSCT #3 History," mimeo,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대한 미 제8군의 응답.
3. "CSCT 1," p. 1.
4. 위의 자료, p. 4.
5. 위의 자료, p. 4와 첨부된 슬라이드 11.
6. 위의 자료, pp. 5-6과 첨부된 슬라이드 5 사본.
7. 위의 자료, p. 2.
8. 위의 자료, p. 10.
9. 위의 자료, p. 3.
10. 위의 자료.
11. First Signal Brigade, *Telephone Directory, United Nations Command,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and United States Forces Korea*, Seoul, South Korea, 1985 ed., pp. 45, 148;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개됨.
12. "CSCT 1," p. 3.
13. "CSCT 1," p. 4에 첨부된 슬라이드 10.
14. "CSCT #3 History," portion of CSCT 3 Command Briefing;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제공됨.
15. First Signal Brigade, *Telephone Directory*, pp. 38, 45, 158.
16. Mission statement from the Operations Section of CSCT 3;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제공됨.
17. U.S. Weapons Support Detachment-Korea, "Unit History"; enclosure 2 to June 24, 1988,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대한 미 제8군의 응답.
18. Mission statement, Operations Section, CSCT 3.
19. 위의 자료.
20. Weapons Support Detachment-Korea, "Unit History."
21. 위의 글.

22. 위의 글.
23. Mission statement, Operations Section, *CSCT 3*.
24. Eighth Army Special Troops Command, *Concept Plan for Activation of Eighth Army Special Troops Command*, Jan. 1984, p. 1; 정보자유법에 따른 요청에 대한 응답.
25. First Signal Brigade, *Telephone Directory*, p. 39.
26. 위의 책, p. 158.
27. Combined Field Army (ROK/US) Headquarters, *Organization and Functions Manual*, CFA (ROK/US) Pam 10-1, Dec. 15, 1986, p. 65; First Signal Brigade, *Telephone Directory*, p. 38.

<지은이>

피터 헤이즈(Peter John Hayes)
 호주 멜버른 대학 역사학부 졸업
 버클리 대학의 에너지 및 자원 그룹에서 박사학위 취득
 UNEP에서 환경고문으로, 미국 국제개발기구와
 아시아개발은행의 개발도상국 에너지고문으로 활약
 동경에 있는 UN 대학의 부교수로 재직, 현재 호주미래위원회의 부회장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군의 지구구조와 각 군의 경쟁,
 탄도미사일폐기조약 등에 관한 연구 및 저술 활동
 공저: *American Lake, Nuclear Peril in the Pacific*

<옮긴이>

고대승
 1986년 서울대학교 자연대학 졸업
 1991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졸업(석사)
 주요논문: 「한국의 원자력기구 설립과정과 그 배경」 외

고경은
 1987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의교학과 졸업
 1989년 동대학원 졸업
 주요논문: 「1970년대 한반도 군비경쟁과 남북한」 외

핵 딜레마

—미국의 한반도 핵정책의 뿌리와 전개과정 한울총서 96

1993년 7월 20일 초판 인쇄
 1993년 7월 30일 초판 발행

지은이 피터 헤이즈
 옮긴이 고대승·고경은
 펴낸이 김종수
 펴낸곳 도서출판 한울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503-24(휴암빌딩 501호)
 전화 326-0095(대)
 팩스 333-7543
 등록 1980.3.13. 제14-19호

ISBN 89-460-2043-1 94390
 © 고대승·고경은, 1993. Printed in Korea.

* 잘못된 책은 바꿔드립니다.

값 10,000원

한울 분야별 도서목록

■ 철학

담론이란 무엇인가
총99/ D. 맥도넬/ 임상훈 옮김
현대 유럽철학의 흐름
총92/ R. 카니/ 임현규 외 옮김
다시 그림시에게로
총91/ 칼 보그/ 강문구 옮김
미셀푸코론
총80/ 한상진 외
중국철학문답
아카/ 夏乃儒 편/ 황희경·황성만 공역
동아시아시사상사
아카/ 마쓰시마 다카히로 외/ 조성을 옮김
철학개론
총2/ 猶蓋理作/ 홍윤기 옮김
헤겔과 프랑스혁명
총7/ 요하임 리터/ 김재현 옮김
헤겔의 사회철학
총6/ 만프레드 리텔/ 황태연 옮김
構造主義과 현대마르크시즘
총5/ M. 글록스 만/ 정수복 옮김
맑시즘
총9/ RL 하일 브론너/ 신정현·장달중 옮김
실존과 혁명
총10/ G.노바크 / 김영숙 옮김
변증법 강의
총20/ 유병주
일기식으로 역사철학
총34/ 편집부

■ 역사학

서양사 강의
아카/ 배영수 외
한국사 강의
아카/ 한국역사연구회
전남 사회운동사 연구
아카/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
광주·전남지방현대사연구
아카/ 안중철
한국근대사
총7/ 강재언
일본현대사
총7/ 遠山茂樹 외/ 박영주 옮김
중국 중세사회로의 여행
EO라이샤워/ 조성을 옮김
중국사 개설
아카/ 松丸道雄 외/ 조성을 옮김
정말 청초 사회의 조명
아카/ 오금성 외
중세사회의 해체기의 제문제 (上, 下)
아카/ 근대사연구회 편
중국사입문
열40/ 西嶺定生

■ 정치학

동남아 정치와 사회
아카/ 동남아정치연구회 편역
중국혁명사
아카/ 서진영
비교정치론 강의 1, 2
아카/ 김웅진 박찬우·신윤환 옮김
국제정치이론
아카/ 渡邊昭夫 외/ 권호연 옮김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총95/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한국의 빙위비
현인백
전한기 한국의 선택
현승주
비교정치학이론
총63/ LH 칠코트/ 정치사회학연구회 옮김
국가와 정치이론
총42/ 마틴 카노이/ 한기범 외 옮김
자본주의 국가론
총31/ 박상섭
리턴아메리카 정치경제학
아카/ 로널도 문크/ 강문구 외 옮김
제3세계와 정치경제학
총21/ 김호잔

■ 경제학

대전한기의 세계사회
총88/ 황병덕 저음
기적과 환상
총92/ 아랑 리피에츠/ 김영호 감수
경제사와 자본론
총84/ 미쓰오 타로/ 최규성 외 옮김
근대경제학의 재검토
아카/ 宇摩良文/ 주종환 편역
국가독점자본주의론 I
총58/ 沈上樽 외/ 조민 역음
경제체제론
총54/ 조용범 편저
한국근대사연구
총1/ 강재언
한국사학논총
이재봉
일본현대사
총70/ 遠山茂樹
독점자본
총4/ P.A. 바란 외/ 변형윤 감수

■ 사회학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총92/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제국주의와 한국사회
총88/ 장상환 외
한국사회의 이해
아카/ 장상환·정진상 외
한국사회이론과 이데올로기
총22/ J.라레이/ 한상진·심영희 옮김
사회시상사
총3/ 平田清明 히데키/ 장하진 옮김
한국사회론
총79/ 김진균·조화연 외
사회변동의 이론과 전망
R.H.라우어/ 정근식·김해식 옮김
사회변동의 이론
R·아펜바움/ 김지화 옮김
사회학 이론의 발달사
L.M.짜이틀린/ 이경용·김종오 옮김
사회학 입문
D.라이트, S.웰러/ 노지춘·길태근 옮김
사회학 방법론
W.L.윌리스/ 김영정·남재봉 옮김
사회구조와 사회의식
P.해밀턴/ 고영복 옮김
사회과학의 역사
총24/ J.D. 베날/ 박정호 옮김
사회학의 사명과 방법
아카/ P. 비거·H. 웰너/ 임현진 외 옮김

■ 사회복지학

비교사회정책
HL.윌리스키/ 남찬섭 옮김
복지국가의 노년
J.마일즈/ 김혜순 옮김
한국사회 복지노동자연구
사회와 복지연구회
인간과 복지
남세진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G.V.립링거/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옮김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I.고프/ 김연명·이승우 옮김
현대정치경제학입문
총35/ R.파인·L.해리스/ 김수행 옮김
자본주의와 인간발달
P.캐오나드/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옮김

■ 기정/ 여성학

기계재정
비임과드 외/ 이기준 외 옮김
기족자원관리
디컨·화이어버/ 가정관리학연구회 옮김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가족
베리·쏘온 외/ 권오주 외 옮김
기족과 결혼의 사회학
앙드레 미셸/ 변희순·김현주 옮김
우리아이들의 육아현실과 미래
탁아제도와 미래의 어린이 양육을 걱정하는 모임

■ 언론학

'포스트 시대'의 비판언론학
아카/ 한국사회언론연구회 엮음
현대사회와 매스커뮤니케이션
아카/ 한국사회언론연구회
언론민주화의 논리
김동민 편역
리틴아메리카의 정치권력과 미디어
아카/ 엘리자베스 폭스/ 이원혁 옮김

■ 교육학

전환기에 선 한국교육
김성재 엮음
비판적 교육사회학
아카/ 이규환
사회개발과 교육의 민주화
아카/ 이규환
한국교육
아카/ 이화여대 교육사회학연구회 엮음

■ 지리학

현대인문지리학사전
아카/ 한국지리연구회 엮음
자본주의 도시화와 도시계획
아카/ 최병득
한국의 기후지
아카/ 김종규 옮김

□ 참조: 총=한울총서

아카=한울아카데미
열=열린글

한국의 방위비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위하여

현인택 지음/ 사회과학원연구총서 1/ 한울/ 신국판/ 176면

방위비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

한국의 방위비 정책 결정의 패턴

한국의 방위비의 적정수준

정책적 대안

전환기 한국의 선택

민주화, 평화통일, 민족자존외교의 미래를 위하여

한승주 지음/ 사회과학원 연구총서 2/ 한울/ 신국판/ 264면

87년 6·29를 전후한 격동기의 정치정세에 관하여 뉴스워크지

등에 발표한 한승주 외무부장관의 정치평론집.

한반도의 군축과 사회복지

한반도에서의 군비축소에 따른 남한사회복지의 발전전망

평화연구소 중앙대 사회와복지연구회/ 한울/ 신국판/ 100면

남한의 방위비를 50% 감축한다면 현재의 사회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 확대될 것인가? 이 책은 한반도에서의 군비축소에

따른 남한사회복지의 발전전망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발표회 연구논문집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편/ 한울총서 95/ 신국판/ 468면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에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역사적

전환과 관련하여 제3세계, 동구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서구자본주의 사회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민사회 문제와

국가권력의 문제를 한국사회에 비추어 검토한다.

한국공간환경의 재인식

한국공간환경연구회 엮음/ 한울총서 94/ 신국판/ 348면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우리사회에서 점점 심각하게 노정되고

있는 공간환경 문제를 다양한 학문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지역불균등발전, 지역정치와 정책, 토지와 주택,

자원과 환경의 네 분야로 나누어 살펴본다.

여가의 사회학

한국의 레저문화

김문경 지음/ 한울아카데미 61/ 신국판/ 360면

Pacific Powderkeg

American Nuclear Dilemmas in Korea

한반도는 태평양지역에서 핵화약고의 농관이다. 분단된 한반도는 핵으로 무장한 강대국간에 전면 핵전쟁을 점화시킬 수 있는 몇 안되는 곳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갈등상황 속으로 미국의 핵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이처럼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개입의 과거, 현재, 미래의 측면으로 구분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제1부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핵독트린, 군사력, 전략의 전개과정/ **제2부** 주한미군
핵전력의 현재 조직과 구성/ **제3부**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핵 딜레마

폴 의원: 우리는 남한사람들과 함께 핵포 및 다른 형태의 핵전쟁 기술을
연습하는 또 다른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マイ클즈 장군: 나는 국방장관으로부터 핵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지 않도록 지시를 받아왔습니다.

—미 상원 청문회, 1970. 2. 26—

우리는 어니스트 존스, 포탄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것들을 거기에 보유하고 있었다.
전시에는 모든 남한군과 카투사가 미군에 통합된다. 따라서 모든 남한군 병사들은
모의탄두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했다. 그것은 아주 우스운 일이었으며 또 완전히
비합법적인 것이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하려 하지 않았다.

—전 미국무부 관리, 1987. 11. 16—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그것은 언젠가 폭발할 것이다. 나는 왜 그들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만들어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왜? 우리는 핵무기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나갈 수 있다.

—원폭희생자 김정순씨—

